비매품

93600

9 791195 393138

ISBN 979-11-953931-3-8

2018 Hello! Contemporary Art 유리상자 - 아트스타 11년 설치미술로부터

2018

Hello!
Contemporary Art

유 리 상 자 – 아 트 스 타 1 1 년 설 치 미 술 로 부

2018 Hello! Contemporary Art

유리상자-아트스타11년 설치미술로부터

Contents
목 차

5 발간사

7 2018 Hello! Contemporary Art
- Spot1. 정혜숙
- Spot2. 한 호
- Spot3. 정지현
- Spot4. 김재경
- 기록전시 유리상자-아트스타11년 설치미술

64 전시연계 워크숍

67 유리상자-아트스타11년 설치미술展 참고자료

265 2018 Hello! Contemporary Art
- 참여작가 프로필
- 전시소개

발 간 사

대구 1번지, 삶이 여유로운 문화중구에서 운영하는 봉산문화회관이 2004년 개관한 이후, 대구시민 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애호가들이 즐겨 찾는 문화예술 지원공간으로 꾸준히 자리매김해오면서 어느덧 14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봉산문화회관에서는 동시대미술의 소개와 이해, 나아가 '소통'을 지원하기위해 지난 2014년부터 'Hello! Contemporary Art'라는 제목의 전시를 진행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Hello! Contemporary Art : 유리상자-아트스타11년 설치미술로부터"展을 개최하고, 전시를 진행했던 시간과 과정의 일부를 기록하며 관련 전시의 이미지와 글을 모아 자료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시는 2명의 대구 출신 미술가를 비롯한 미술가 4인을 초청하여 '설치미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계층의 대중과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우리시대의 실험미술들을 소개하고, 그 이해와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기획전시입니다. 이번 전시에 참여하는 김재경, 정지현, 정혜숙, 한호 작가와 유리상자 기록전시에서 소개하는 70여명의 미술가는 예술 본연의 자유로운 감성과 직관력을 바탕으로 동시대 예술의 다양한 가능성들을 실험하는 시각예술가입니다. 대중과의 예술 소통에 관한 이번 전시의 실험적인 행위들은 1970년대 대구 미술가들의 행위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이번 전시 참여 미술가들의 자연에 관한 실험적 상상과 설치미술 전시는 낙동강변이나 야외에서 이벤트를 진행했던 과거 1970년대 대구현대미술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번 전시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2014 Hello! Contemporary Art : 실험정신1978로부터"展(2014.10.1~10.14)과 "2017 Hello! Contemporary Art-야외설치 1977로부터"展(2017.7.21~8.19)은 이들 전시와 자료집 발간을 통하여 지나온 대구 실험미술의 역사와 그 관련된 자료들이 중요한 대구의 예술적 자산임을 다시 확인시켜주었습니다. 이번 "Hello! Contemporary Art : 유리상자-아트스타11년 설치미술로부터" 전시와 자료집 발간도 이러한 맥락에서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집의 후반 부분에 2006년부터 현재까지 70건에 이르는 유리상자 설치미술 전시의 기록 이미지와 그 작업에 관한 비평가의 글, 참여한 미술가의 작가노트 등 참고자료를 함께 실었습니다.

이 전시를 마무리하면서 '설치미술'이라는 키워드로 동시대미술의 현장 일부를 기록하고, 부분적으로나마 정리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 자료집에 실린 기록 내용과 작품 이미지 등은 앞으로 더욱 풍성해질 동시대 미술의 실험정신을 기대하게하는 소중한 자료로 기억될 것입니다.

전시에 출품한 설치미술과 글을 통하여, 실험적인 태도를 마주하고 미술 감상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참여해주신 이번 전시의 참여 작가와 평론가를 비롯하여 지금까지 봉산문화회관 기획전시에 참여하셨던 미술가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봉산문화회관 전시에 애정을 담아주신 많은 문화예술인들과 관람객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관심어린 마음으로 응원과 격려를 해주시길 기대하며, 이번 전시와 자료집 발간을 위해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함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대구광역시중구청장 **류규하**

2018

Hello!
Contemporary Art

유리상자-아트스타11년 설치미술로부터

■Spot1. 정혜숙展_ 필리핀 버드

2018. 7. 20fri - 8. 11sat
Bongsan Cultural Center 1F/ 야외광장

■Spot2. 한　호展_ 영원한빛-천지창조

2018. 7. 20fri - 8. 11sat
Bongsan Cultural Center 2F/ 3전시실

■Spot3. 정지현展

2018. 7. 20fri - 8. 11sat
Bongsan Cultural Center 3F/ 1전시실

■Spot4. 김재경展_ 산책

2018. 7. 20fri - 8. 11sat
Bongsan Cultural Center 3F/ 2전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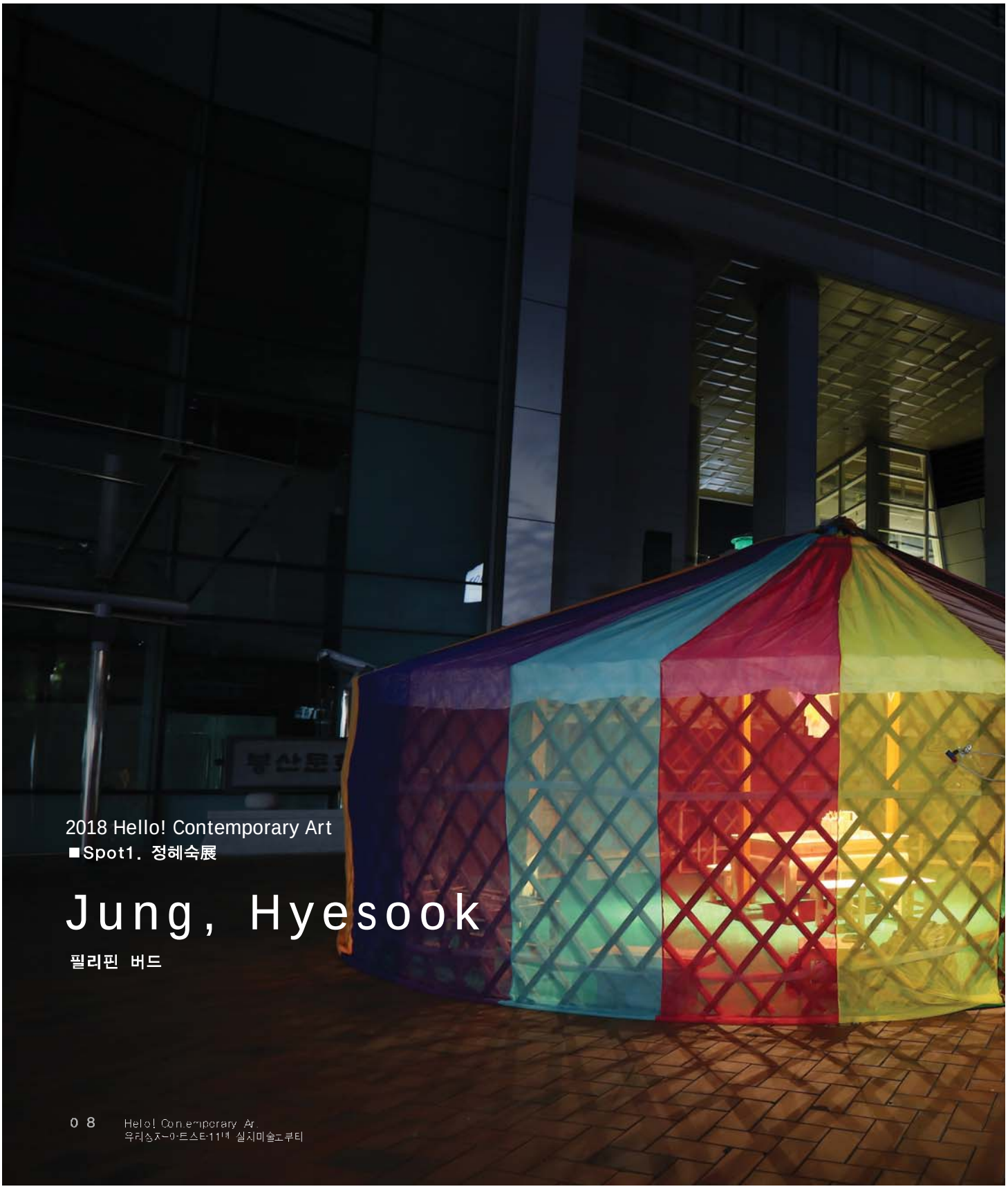
■기록전시 유리상자-아트스타11년 설치미술展

2018. 7. 20fri - 8. 11sat
Bongsan Cultural Center 2F/ 로비

전시연계 워크숍

■예술가처럼 생각하기

2018. 7. 27fri - 8. 11sat
Bongsan Cultural Center 4F/ 강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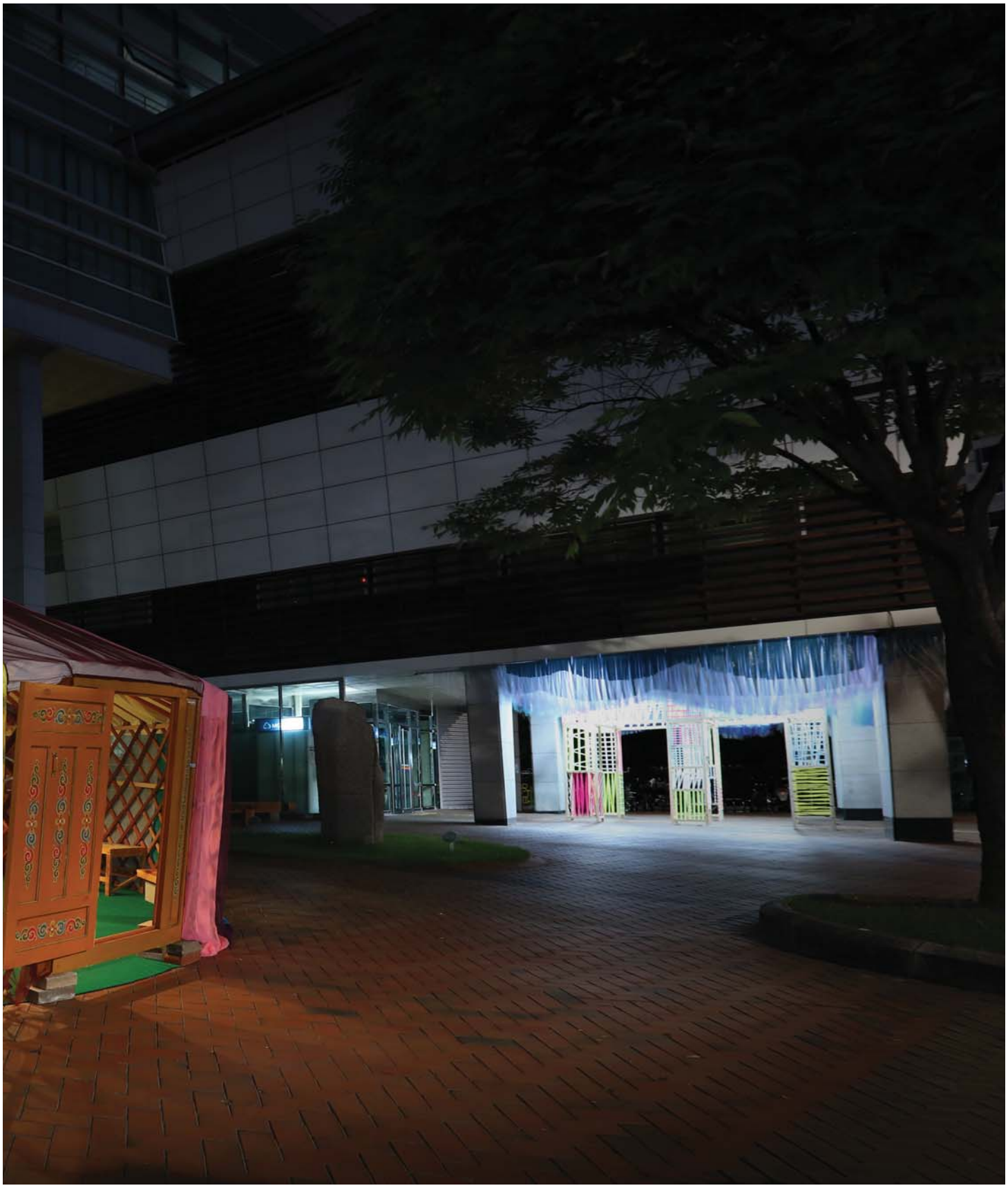


2018 Hello! Contemporary Art

■Spot1. 정혜숙展

Jung, Hyesook

필리핀 버드



무제 가변설치, 혼합매체, 2018

정혜숙의 '필리핀 버드'(Philippines Bir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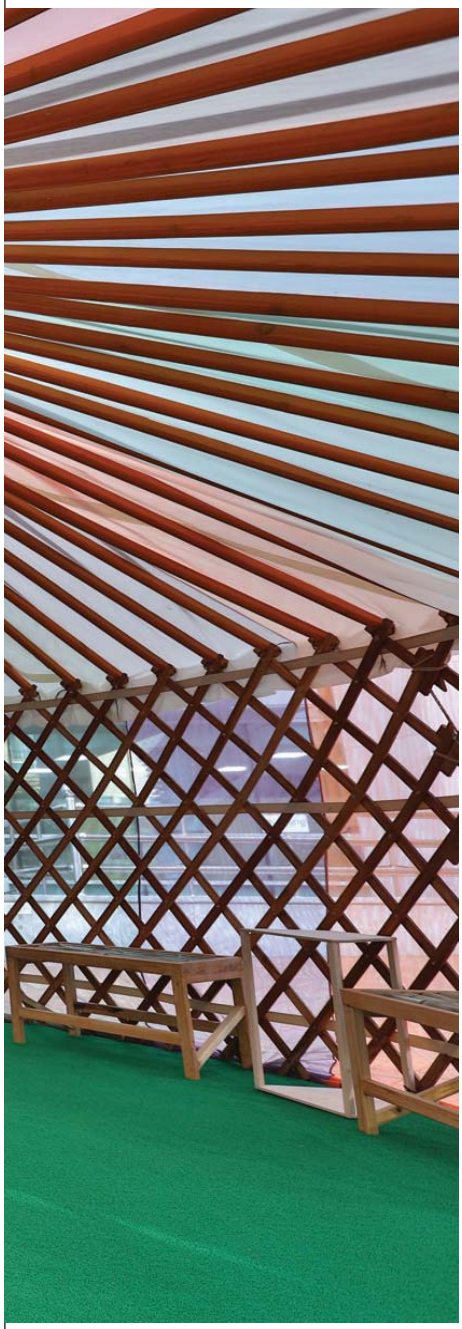
1.
복잡한 도시의 거리를 걷다가 어딘가에서 들리는 낯선 새소리, 그 소리의 정체를 따라 간 곳은 작은 가게 앞이다. 낯선 소리에 끌려 간 곳, 그 소리의 파형을 눈으로 보고 싶은 본능이 가 닿는 곳에서 정혜숙은 알록달록한 새를 보았다. 서울 한 복판에서 새소리를 묘사한 음악이 아닌, 진짜 새 그것도 필리핀 버드(앵무새)와의 대면이었다. 당시에 느낀 시각과 청각의 여운은 시간이 지나도 일상 속에서 크고 작은 울림으로 남아 있었다.
작가는 이번전시를 통해 기억 속 여운을 확장해 앵무새 소리, 유목민의 게르(Ger), 비둘기의 깃털과 새의 진열장을 설치한다. 봉산문화회관 야외 광장에 설치된 '필리핀 버드'는 바로 작가의 시•청각적 경험에 대한 개인적인 기억을 다수와 공유하기 위한 전시이다. 필리핀 버드, 즉 앵무새가 대구의 한복판 야외광장에 날아들었다. 대구의 한여름 속에 날아든 앵무새, 이 새의 소리를 작가는 그만의 감수성으로 후덥지근한 공기를 뚫어내고 자연과 인간의 경계를 감각하는 자리로 확장을 시도한다. '필리핀 버드'는 감성충전의 자리인 동시에 몸과 마음의 감각을 일깨우는 장소가 된다.
'필리핀 버드'는 앵무새의 지저귐으로 채운 게르(Ger)이다. 유목민이 거처하는 이동식 집이 게르다. 작가는 이 유목민이 거처하는 집에 앵무새의 지저귐을 담아 놓았다. 길을 가다 문득 들리는 낯선 소리 그리고 낯선 집을 향한 발걸음을 게르 안으로 안내한다. 그곳에 들어가 작가와 차를 나누며 자유롭게 담소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한낮의 더위가 시들해지는 저녁시간 특정요일에 작가의 경험담과 관람객의 경험이 섞여 더운 공기가 마음을 데운다. 몸이 더운 것과 마음이 따뜻해지는 차이, 감성충전의 시간이다.
그리고 게르 안에 준비해 놓은 엽서와 다양한 종류의 펜으로 새의 소리를 들으며 상상 속 앵무새를 그려본다. 그림으로 그린 앵무새는 저마다의 모습으로 그만의 소리를 품고 새롭게 태어난다. 뜨거운 여름 대구의 한 복판에 별똥별처럼 떨어진 듯 게르 안에는 필리핀 버드가 날아들고, 그 소리에 끌린 이들은 게르 안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유목민의 거처에는 저마다 마음 그릇에 담아 두었던 담소가 새소리와 섞인다. 시시각각 같지만 다른 소리들로 감각을 일깨우는 장소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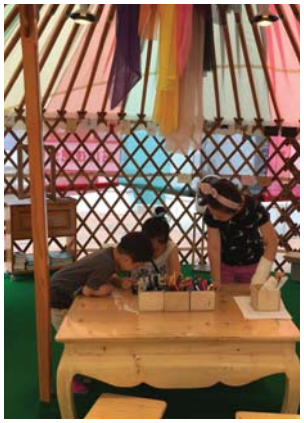
2.
애완용 새로 인기 있는 앵무새의 평균수명은 짧게는 15년 길게는 80년을 산다고 한다. 앵무새는 인간의 말이나 소리 중의 일부를 흉내 내는 재주를 가졌다. 이런 능력으로 어떤 지역에서는 앵무새를 신성시 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애완용으로 키우기도 한다. 앵무새의 이런 점은 인간과의 유대감을 통해 심미적 위안을 주기 때문이다. 사람과의 교감이 가능한 앵무새이기에 작가적 감수성이 가 닿는 곳이 단지 소리와 생김새에 있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앵무새를 통해 사유하는 작가적 태도에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생각의 깊이가 있다.
"도시에서 조금 색다른 새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따라 갔던 나의 행동은 장소를 확인하고 소리의 근원지를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곳의 새들은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새들이 아니었고, 그것에 호기심을 갖게 되면서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만난 새들을 통해 도시에서 사라져버린 새들과 도시환경에 갇혀 살아가는 새들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전시는 관람객이 새 소리를 어떻게 듣고 상상하는지 드로잉, 글 등을 통해 남길 수 있습니다. 관람객이 남긴 드로잉은 새소리와 장소를 통해 관람객이 느끼는 감정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그것을 여러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게 됩니다."
앵무새의 소리가 채워진 게르 안에는 테이블과 낮은 의자가 있다. 그 곳에 앉아 눈을 감고 새소리를 들으면 상상이 열린다. 나무가 있는 숲이거나 동화속의 세계를 그려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새의 소리 따라 어디론가 날아가는 상상의 세계, 깜박 졸음으로 호접지몽처럼 새가 되어 날아보는 경험이면 여름 더위도 날려버릴 수 있지 않을까.
새의 지저귐 그리고 말과 웃음소리가 섞인 게르에서 열대의 소리를 상상해 그림으로 그리는 것은 도시의 소음을 뚫어내고 오감충전을 위한 자리이다. 이 자리는 일상을 감각하고 그것을 공유하는 작가적 태도가 만든 자리이다. 게르 안에는 새소리, 조리대(차를 만들 때 사용한 도구보관 가구), 책상과 작은 의자 그리고 조명이 설치되어 있다. 작가는 다양한 개인의 경험이 게르 안, 새의 소리를 통해 감각을 나누면서 새소리의 근원과 종류 그리고 이러한 시도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자 만든 자리라고 한다. 그리고 게르 안에 비치된 책상위에 있는 엽서 크기의 종이와 색연필, 사인펜으로 새소리를 듣고 새의 모양을 상상하면서 저마다의 생각을 자유롭게 그리거나 글로 참여할 수 있다.
서울 영등포에 있던 작업실 근처를 지나다가 들었던 새소리, 그 소리 따라 간 곳에서 만난 새장에 갇힌 새, 그렇게 필리핀 버드는 시공간을 날아와 대구의 여름 속으로 왔다. 이렇듯 정혜숙이 필리핀 버드를 통해 소통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과거의 기억을 현재라는 시간과 장소에 불러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시간여행이 아닐까. 새의 소리 따라 간 곳에서 만난 새장 속의 새 그리고 새장에서 나와 게르에 들어온 새의 소리는 그 소리를 듣고 게르 안에 들어간 사람들의 감각과 마주한다. 그리고 그 순간 저마다의 감각을 일깨운다. 그렇게 접한 감각이 다시 그만의 감각으로 다시 태어나면, 앵무새의 지저귐이나 소리는 그만의 노래가 될 것이다.

3.
봉산문화회관 건물 입구에는 비둘기의 깃털이 바람에 날리는 것처럼 설치를 했다. 비둘기의 날개를 통과해서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 작가는 "자연에 존재하는 새가 도시에서는 낯선 존재다."라고 말한다. 이런 낯선 새의 소리와 이미지가 어떻게 도시 공간 속에서 연결 고리를 가지고 호흡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이번 전시작으로 제시해 놓았다. 비둘기는 도시공간에 익숙한 새이기도 하다. 낯선 앵무새의 소리와 익숙한 비둘기의 깃털은 정혜숙이 이번 전시를 통해 초대한 중요한 요소들이다.
도시의 건물에 깃털 같은 것이 바람에 흔들린다. 그리고 그곳을 통과해서 들어가도록 한 것은 건물 2층 '유리 상자'와 '야외 전시'와의 연결고리가 되기도 한다. 건물의 입구를 통과하면서 대형비둘기를 상상하는 것, 단순화시킨 깃털 이미지를 통해 건물을 비둘기로 상상해 보는 것은 도시인의 건조한 삶, 허기진 감수성에 촉매가 된다. 이처럼 작가는 이번 전시가 가진 의미를 앵무새, 게르, 비둘기의 깃털, 새의 진열장을 통해 무더운 여름 길을 걷다 문득, 일상에 갇힌 삶의 무게를 들어내고 새로운 창을 통해 듣고 보고 감각할 수 있는 상상의 날개를 달아 놓는다.
마지막에 설치한 새의 진열장(앵글로 짜서 새들을 살게 하는 인공적인 구조물)은 화려한 색으로 건물의 입구 중앙에 마치 개선문처럼 서 있다. 건물 입구에 개선문처럼 세운 진열장은 거대한 도시 속에서 살고 있는 현대인에 대한 은유일 것이다. 그것은 유목민의 거처인 게르에 새소리를 채운 것처럼, 정주와 이주를 반복하는 현대인의 삶을 투영한 그만의 시선, 화려한 색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도시인이 꿈이 담겨있다. 이렇게 필리핀 버드는 한여름의 꿈이 투영된 같지만 다른 장소, 익숙한 도시의 풍경 속으로 들어온 게르와 새소리 그리고 바람에 날리는 깃털처럼 무더운 여름을 살게 하는 꿈 다락이다.

-현대미술연구소 대표 / 김옥렬-

필리핀버드 Ø570×h270cm, 몽골게르, 소리, 비닐 등 혼합매체, 2017~2018





작가노트

우리는 대도시에서 새를 보면 소리를 지르거나 그들을 피하기 위해 길을 비켜가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마주칠 수 있다. 서로의 덩치를 비교해 보면 이런 모습은 다소 우스꽝스러워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도시에서 사는 새들이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된 듯하다. 도시의 새들은 위험하다? 개체 수 조절에 실패해 늘어난 비둘기 그리고 그들의 날개 짓 아래로 떨어지는 해충으로 설명되는 오늘날의 새는 더 이상 자유와 평화의 상징이 아니라 도시의 공해를 상징한다. 공해를 줄이기 위해 사람들은 많은 노력을 한다. 도시의 새들에게 먹이를 주지 못하도록 규범을 만들기도 한다. 그렇게 도시의 하늘은 깨끗하게 텅 비어있다.

지난 봄 작업실 근처 길가에서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새소리에 빠져 한참을 귀 기울여 듣고 있었다. 나는 소리의 근원지를 찾기 위해 자연스럽게 주변사람들 또는 내 핸드폰을 확인했다. 도로 건너편에서 보니 "필리핀버드"라고 씌어 있었다. 간판을 보고 더욱 호기심이 생겼다. 그 소리는 좁은 도로에서 차를 피해 내가 마주하고 서있던 셔터가 내려진 상점 안에서 들려오는 새소리였다. 가게가 열기를 며칠 기다려 드디어 안을 들어가 볼 수 있었다. 나는 가게 직원과 대화를 나누고 나서야 어떻게 그 새들이 계절도 맞지 않는 먼 한국 땅에서 살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다. 형형색색의 화려한 깃털을 가진 다양한 크기의 새들을 보며 경이로움과 함께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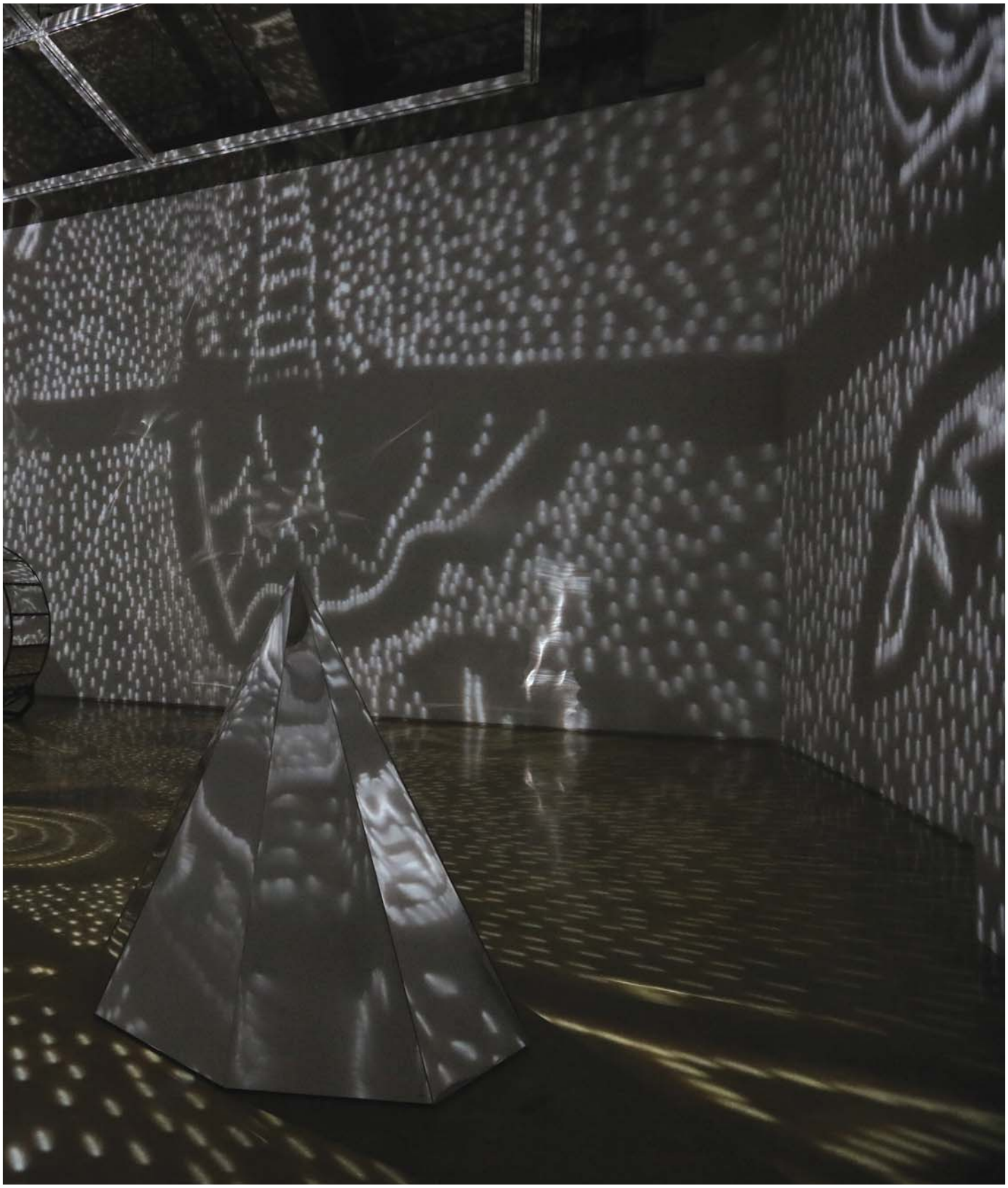
요즘 사람들은 여행, 유학, 이민, 이사, 출장, 망명 등 다양한 명칭의 이주를 경험하고 살아간다. 그 중 어떤 것들은 간절한 기대와 노력을 필요로 하며 심지어는 목숨을 담보로 하기도 한다. 인류는 생존을 위해 더 나은 환경으로 또는 일터를 찾아 생명을 유지해 왔다. 이동을 멈추지 않는 요즘 사람들의 이유도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전히 강제로 이주를 강요받는 사람들도 있다. 전쟁을 피해 혹은 경제논리 속에 사람들은 여전히 강제로 이주 되어 낯 선 곳에서 힘겹게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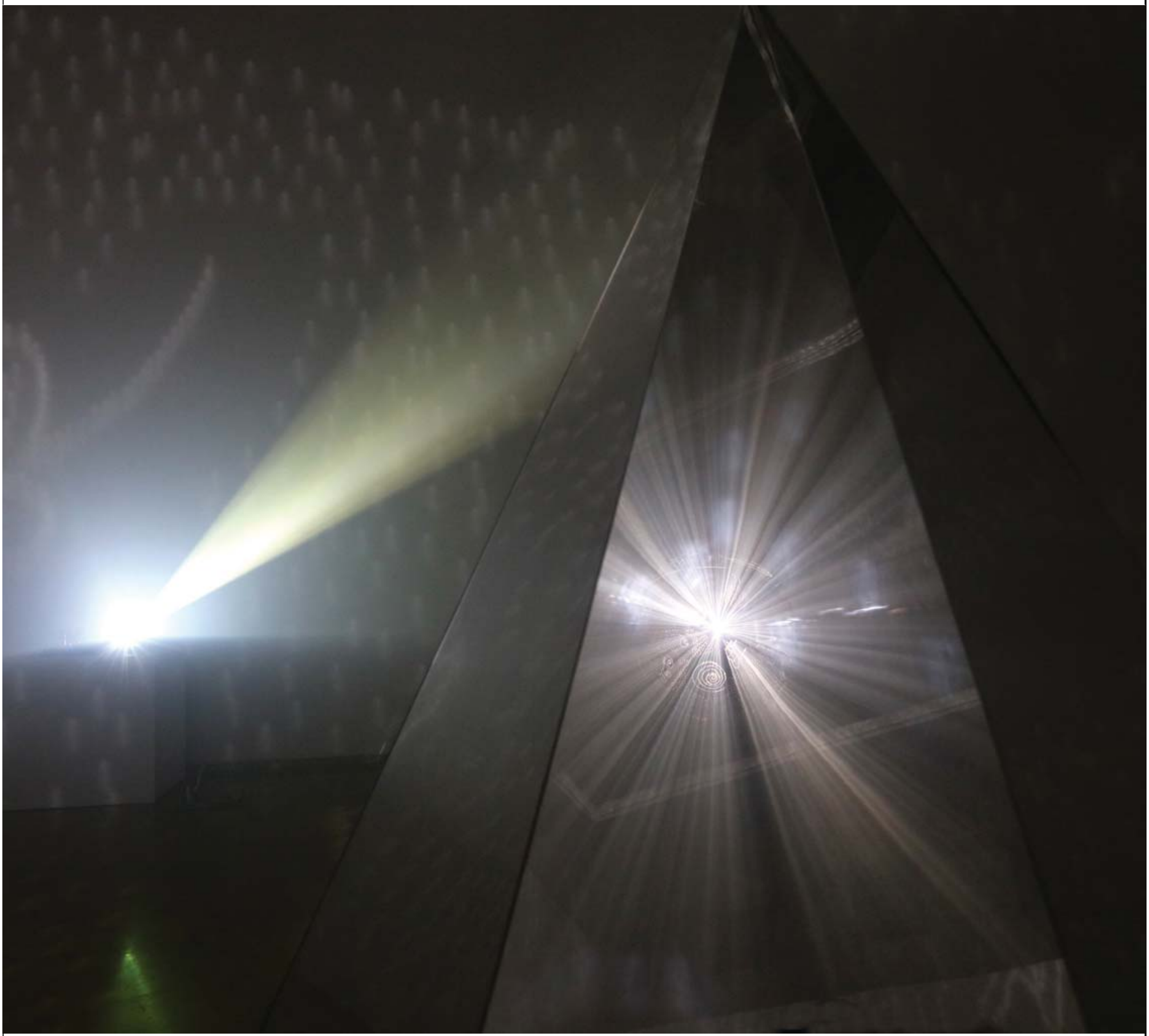
–작가 / 정혜숙–

2018 Hello! Contemporary Art
■Spot2. 한 호展

Hanho

영원한 빛 – 천지창조





영원한 빛 – 천지창조 가변설치, 2채널 프로젝터영상 2분, 타공원형볼, 햄스터미러, 삼각뿔미러, 스모그액. 2018

생성, 세계가 참여하는 사건

한호의 작업 〈영원한 빛-천지 창조〉은 먼저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떠올리게 한다. 그리하여 그의 작업은 본질과 비본질, 규정과 무규정, 빛과 어둠으로 대비되는 플라톤의 등식으로 읽기 쉽다. 하지만 한호는 이러한 등식에 머물지 않는다. 질서에 무질서, 규정적인 것에 무규정적인 우연의 요소를 작품 속에 끌어들인다.

『티마이오스』에서 플라톤은 물질세계가 이데아의 모방으로서 창조되었음을 언급함과 동시에 우주 생성의 근원이 코라에 있음을 말하고 있다. 플라톤은 데미우르고스(만드는 자)를 통해 창조를 설명한다. 데미우르고스는 이 물질세계를 창조한 자로서 무질서를 질서, 즉 코스모스로 변화시킨다.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것인 물, 불, 흙, 공기라는 4 원소는 서로 닮지 않고 균형 잡히지 않은 힘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근원적으로 출렁거리고 있다. 우주의 자궁인 코라를 플라톤은 4 원소라는 '이와 같은 것들'이 생겨나는 '그 안'인 '이것'이라고 말한다. 플라톤에게 생성은 "언제나 사물을 생겨나게 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우주는 만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인 '생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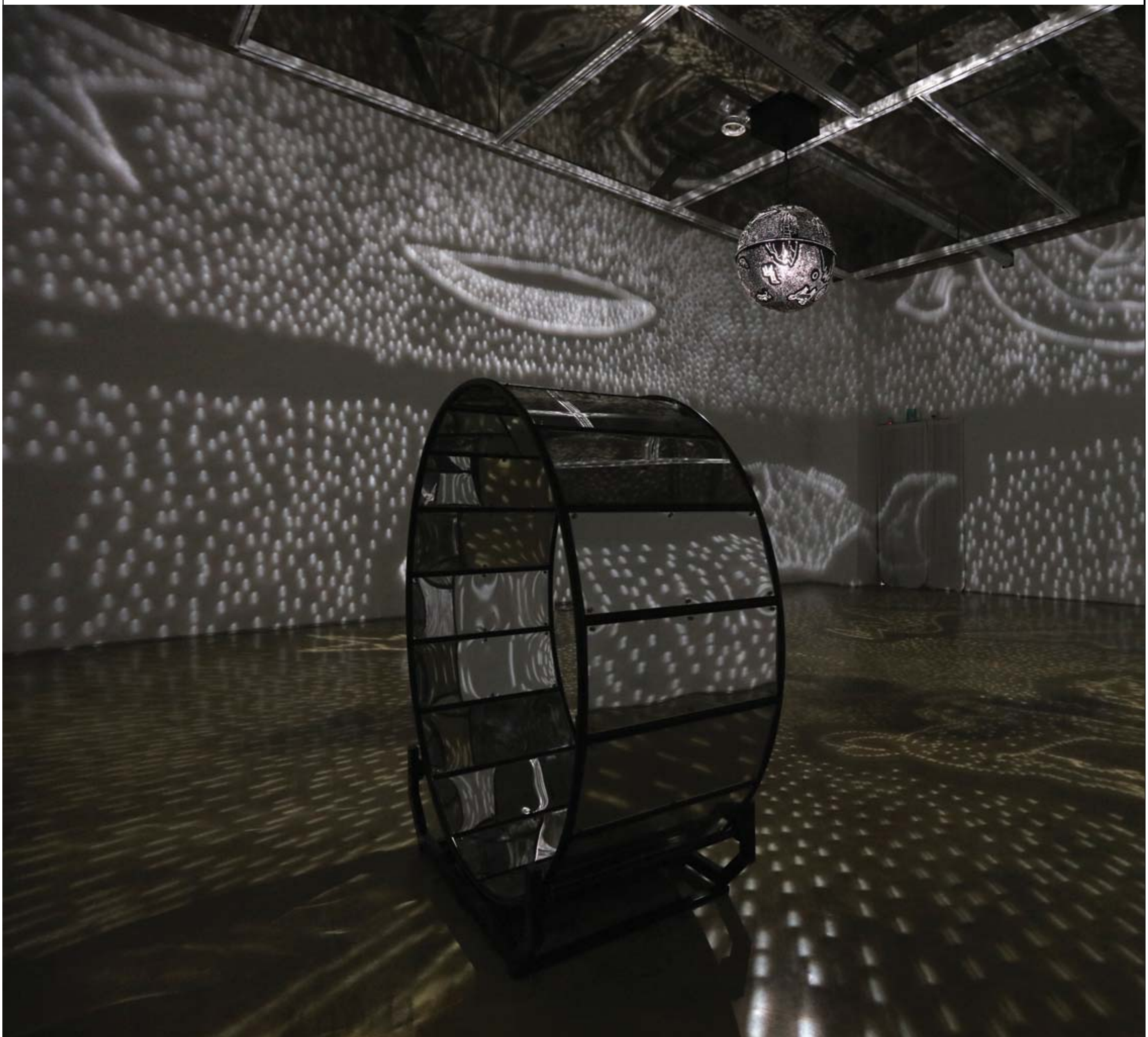
플라톤에게로 향해 있지만 플라톤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바디우의 사유처럼 영원한 빛을 추구하는 작가는 질서에 무질서, 규정적인 것에 무규정적인, 우연적 요소를 작품 속에 끌어들임으로써 플라톤적 등식을 넘어선다. 그의 작업은 빛이 내어 준 반복된 세계에 머물지 않는다. 관객의 들어섬과 그 들어섬이 반영된 공간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공간을 만든다. 빛과 그림자라는 이분법적 도식 속에 작품이 봉합되는 것이 아니라 있음의 사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거울상에 맺히는 관객은 우연적인 계기를 만들면서 새로운 작품의 창작에 함께 한다. 관객은 관람자인 동시에 작품을 만드는 자이다. 우연이 만든 틈으로 누구나의 이야기가 들어설 수 있게 함으로써 바디우가 말하는 다수에 의한 공집합적 진리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호는 중첩된 이미지를 통해 우주의 창조라는 사건과 삶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이야기들을 함께 아우르는 터를 마련한다. 한호가 만들어낸 세계는 카오스모스, 즉 무수한 다양성과 부단한 운동에 의해 생성되는 질서와 혼돈이 결합 된 세계이다.

한호의 〈영원한 빛-천지 창조〉는 빛이 만들어 낸 세계이다. 빛은 생명이다. 생성을 이루어내는 힘이다. 정신세계에 대한 상징적 의미와 함께 영성의 의미를 포함하기도 하는 빛은 한호에게 물리적 매체로서 작품을 형성하는 요소인 동시에 내면의 영원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작가는 〈영원한 빛-천지 창조〉에서 이미지와 조형물로 작품을 구성한다. 구멍을 뚫어 형상을 새긴 구형의 설치물과 바닥에 설치된 원뿔 형태와 둥근 바퀴 모양의 조형물, 영상으로 이루어진 작품은 빛을 투과하거나 영상을 투사하고 반영하는 형식을 취한다.
구형 안에 설치한 조명은 전시공간 전체로 뿜어져 나가 빛 그림을 만든다. 동력장치로 쉼 없이 돌아가도록 만들어진 작품은 사방을 장악한다. 작품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작품 안에 들어서야만 하고 작품 안에 들어서는 순간 몸이 알고 있던 감각들은 잠시 무력하게 된다. 밤하늘을 채운 별들 가운데 자리한 것처럼 그 텅 빈 몰입의 순간에 마주하는 형상들로 달이 있고, 별이 있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동물이 있다. 근원적인 빛은 어둠을 넘어 환영의 세계를 펼친다. 한호의 작품은 그 환영을 따라 각자가 떠올리는 이야기에 상상력을 더해지고, 타자의 삶의 이야기가 더하며 새로운 세계의 가능성으로 열려 있다. 그것은 또한 작가가 말하는 치유의 세계일 수도 있다.
반면에 빛은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세계의 표상이기도 하다. 별의 반짝임이 몇십만 광년 또는 그보다 더 먼 시간에 별이 남긴 흔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지 않는다. 별은 바라보는 자에게 늘 새롭게 살아있는 오늘로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별빛은 우리에게 실재하지만 실재하지 않는 세계에 대한 표상일 수 있다. 별에 담긴 추억과 동경은 우리의 내면에 실재하는 세계이다. 하지만 우리의 감각 세계에 닿지 않는 실재하지 않는 세계로 부정되기도 한다. 빛을 투과하여 만들어 낸 공간에서 작가는 소박하고 친근한 일상의 생활 세계가 시뮬라크르에 불과한 것일 수 있다. 작품에서 관객이 반영되는 설치물이 없다면 환영과 환영이 끝없이 반복 재생산되는 시뮬라시옹의 세계를 만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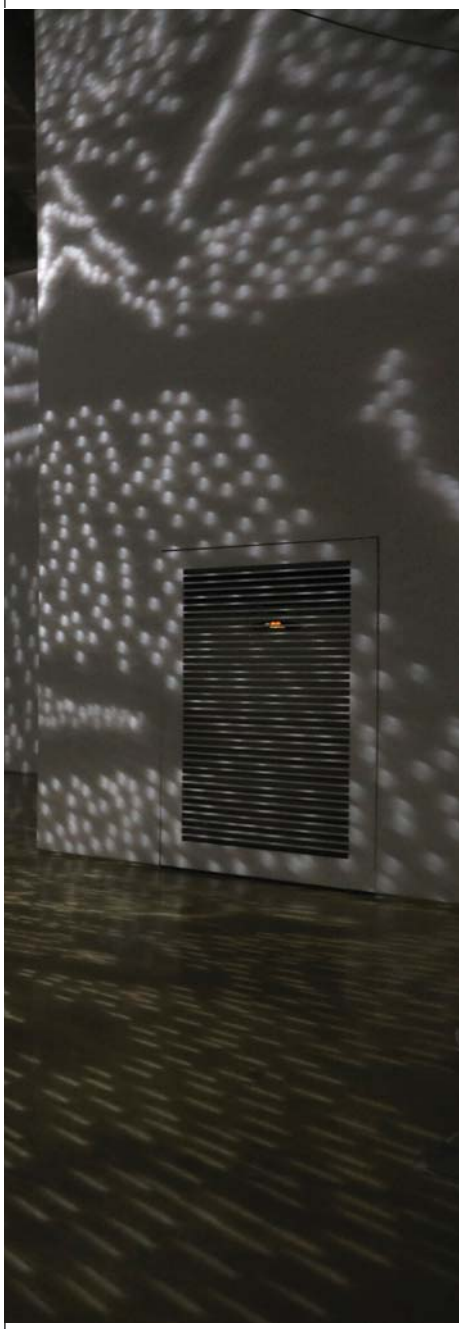
작가는 일상의 상념이 어우러진 위로 또 하나의 영상을 더한다. 빛의 폭발과 점멸로 이어지는 빅뱅의 영상은 바닥에 설치된 바퀴 모양의 조형물과 겹치며 투사된다. 한 개인의 삶으로부터 우주 생성으로 기원하는 역사에 대해 다소 설명적으로 제시하는 구조이다. 빛그림이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생명체의 작은 이야기들을 통해 일자가 아닌 다수에 의해 구축되는 세계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면 우주 생성의 순간을 담은 영상은 실재하는 우주의 모습을 보여준다. 별의 폭발은 기학학적 이미지의 인공적 제스처와 대비를 이룬다. 하지만 우리의 생활 감각에 닿지 않는 우주 생성의 순간은 까마득한 시공의 거리만큼이나 추상적으로 보이는 찰나이다. 시공조차 생성되지 않은 응집된 세계로부터 각각의 존재를 내어놓는 일은 시간의 흐름 뿐이다. 일상의 시공간을 넘어서 전개되는 우주적 차원의 세계는 실재의 세계임에도 구체성을 상실하고 추상화된다.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는 빛 그림의 형상들로 스며들어 점멸하듯이 우주 생성이 시작되고 모든 것들은 움직임과 변화 속에 놓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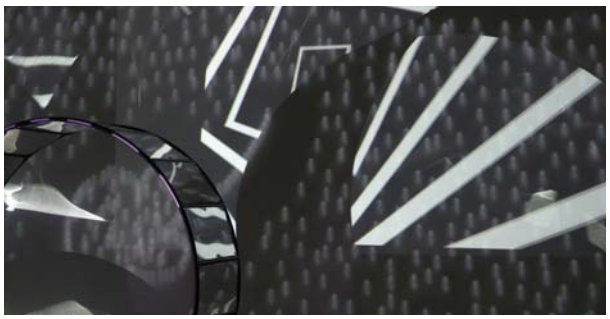
또 한편에는 물에 비친 달의 영상이 비추어진다. 물결 위에 일렁이는 실재의 달을 그것이 아무리 찬란해도 물 위에 뜬 달은 건질 수 없다. 물에 투영된 달은 자연의 세계, 즉 실재이면서 환영의 세계이다. 영상은 매체를 통해 형성된 이미지이다. 영상은 바닥에 설치된 조형물의 그림자와 함께 벽에 투사된다. 피라미드에 달이 걸린 듯한 자연과 인공의 대비는 달의 일렁임이라는 자연 현상의 구체적 기록이며 재생으로서의 환영과 투과된 빛이 만들어낸 또 다른 환영, 그리고 거울을 부착한 설치물에 투영된 환영의 대비로 옮겨진다. 그 순간, 거울에 반영된 관객의 모습은 반복되는 영상들 사이로, 투과된 빛들의 향연 사이를 뚫고 들어간다. 관객은 작가가 만들어 놓은 고정된 틀에 개입한다. 새로운 세계가 건립된다. 사건이다.

-미술평론, 철학 • 미학 / 배태주-



영원한 빛 – 천지창조 가변설치, 2채널 프로젝터영상 2분, 타공원형물, 햄스터미러, 삼각뿔미러, 스모그액, 2018





영원한 빛 – 타천 전시 오프닝 퍼포먼스 2018.7.20

영원한 빛 – 타천 전시 오프닝 퍼포먼스

우주의 공간속에 존재하는 빛, 그 빛과 시간 속에서 인간은 수많은 사유와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 현실과 꿈의 두 공간속에서 인간은 절규하기도 하며 또한 즐거워하고 지속적으로 인간은 빛을 갈구한다. 그 빛은 먼 곳에서 와서 자신을 비추어 다시 다른 곳을 비추는 것처럼 수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이어진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자연적인 현상의 빛과 인간의 내면적이고 인문학적인 관계성을 통해 인간과 사물에 빛 비춰지는 현상과 그 빛을 다시 다른 매체나 인간에게 전달하는 과정이이어지는 퍼포먼스이다.

그 인연의 끈을 통해 우리의 문명의 역사들이 태동하고 소멸해 왔던 것이다. 타천은 한호작가 자신인 동시에 인간의 잔형이며 인류의 희망의 매개체일 수도 있다. 우주에서 전달되는 그 빛의 움직임이 인간의 사유를 통해 현실과 비현실 은유와 괴적으로 꿈의 공간속에서 자신들의 의지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작가노트

이 작품은 영원한 빛 천지창조라는 작품으로 창세기에 천지창조에 대한 고찰을 통해 현대사회에 대한 해석과 나 자신에 대한 인간은 삶을 빛과 시간 공간을 통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빛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빛의 표현은 유년의 기억에서 시작되는 동심 속에서 현실과 꿈의 이중성을 천지창조라는 대 주제 앞에 이입 시킨 작품이다. 현대미술의 발전을 통해 뉴 미디어 테크놀러지의 도입을 꽤하고 공간을 하나의 원형 빛 조형물이 공간을 우주공간으로 만들게 내며 그 공간 안에 인류의 모습을 투영하기에 충분한 미러 조형물들을 이용해서 키네틱 우주 공간에서 다시 조형거울 오브제를 통해 그 공간에 투사하는 환영적인 공간을 연출 하였다. 빛의 광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오랜 시간을 거쳐 우리에게 전달되지만 우리는 그 과학적 근거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 빛은 인류가 사유와 심상적인 은유와 이야기로 전해지기 때문이며 그 빛은 인간의 역사에 존재로써의 많은 의미를 주기 때문이다.

인간의 삶과 죽음의 그리고 그 시간과 공간을 우주에서 이 천지의 창조를 체험하게 하는 인터렉티브 아트인 것이며 그 빛의 움직임 속에 자신들 들어가 마치 우주의 일부분임을 깨닫게 되는 작품인 것이다. 그 자아적인 성찰은 인류에 대한 메시지로 통하며 관객 자신들의 소통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작가 / 한호–

2018 Hello! Contemporary Art
■Spot3. 정지현展

Cheong, Jihyun

새벽의 축제 한지에 목탄, 130x190cm, 2017

the maker 한지에 목탄, 170x130cm, 2016

the maker 한지에 목탄, 170x130cm, 2016

연민과 서정, 삶을 기록하는 도구

정지현은 처음에 브르콜리와 같은 식재료를 그리는 것으로부터 그림을 시작했다. 물론 전작이 있었겠지만, 아무래도 주제의식이 엿보이는, 그리고 그 주제의식이 일정한 형식화에 성공한 경우로 치자면 사실상 이 시리즈 그림이 처음으로 보인다. 식재료를 확대해 그린 이 그림은 여러모로 의미심장한 의미를 예시해주고 있다. 보통 그림을 시작할 때 막연하기 마련이고, 이때 대개는 마치 몸에 맞지 않는 옷이라도 입은 듯 이 주제 저 주제를 찾아 기웃거리기 마련인데, 작가는 자기 주변으로부터 시작했다. 농사를 짓는 집안에서 성장한 탓에 친숙한 것도 있겠지만, 식재료는 무엇보다도 일상적인 소재다. 이런 일상적인 소재를 연필과 흑연, 목탄과 콩테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묘화재료로 마치 정밀묘사라도 하듯 정직하게(?) 그린다.

한국화를 전공한 탓에 친숙한 재료들이기도 하지만(무엇보다도 수묵처럼 무채색 재료라는 점이 친숙했을 것이다), 이보다는 일상적인 소재를 기본적인(재료도 기본적이고 방법도 기본적인) 형식으로 그린다는 점이 예사롭지가 않다. 주변에서 시작하고 기본에서 시작하는 것은, 더욱이 그렇게 시작해 일정한 형식화에 성공하는 것은 사실을 알고 보면 쉬운 일도 흔한 일도 아니다. 향후 작업에 대한 작가의 태도를 예감케 한다. 그렇게 작가는 사물초상화로 부를 만한 형식의 한 가능성을 예시해주고 있다. 언제 어떻게 사물이 추상화되는지를 예시해주고 있다. 탈맥락과 재맥락이 알만한 사물대상을 추상화하고 선입견을 재정의하게 만든다. 사실적인 방법을 통해 낯설게 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사물이 전혀 다른 비전을 열어 보이는 것이다. 사물의 잠재적 가능성을 발굴하고 캐내는 경우로 봐도 되겠다.
그리고 작가는 녹색의 이미지를 그린다. 녹색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림에 녹색은 없다. 처음부터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지만 작가는 다만 연필과 흑연, 목탄과 콩테를 재료로 사물대상을 사실적으로 그린다. 물론 원하는 분위기를 얻기 위해 그림을 뭉개기도 하고 그림 위에 흐릿하게 덧칠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사실적인 재료와 방법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작가는 녹색이 아닌, 녹색의 이미지, 녹색이라는 이미지를 그렸다. 이런 이미지를 형식실험하기에 색깔보다는 무채색이 효과적이다. 그건 숲의 이미지와 연관되고, 제주도의 한 시골에서 자란 작가의 유년시절의 기억(혹은 추억)과 연관된다. 어둑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두려움과 공포심을 자아내는, 캐니와 언캐니가 그 경계를 허무는, 존재의 비의를 간직하고 있는 유년의 숲의 이미지를 현재 위로 소환한 것이다. 혹, 녹조와 같은 사회비판의식을 그린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이후 작가는 자연으로부터 삶의 현장으로 방향을 트는데, 그 매개역할을 하는 것이 초소 혹은 감시탑 시리즈다. 초소 혹은 감시탑은 대개 도시가 끝나는 변방이나 자연이 시작되는 접경지대에 위치해있기 마련이다. 자연에 이식된 듯, 초소 혹은 감시탑이 이질적으로 보인다. 그림에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사람을 암시한다. 초소 혹은 감시탑이 감시하는 것은 다름 아닌 사람일 것이므로(군대? 감옥? 정신병원? 공교롭게도 하나같이 미셸 푸코가 판옵티콘과 헤테로토피아로 지목한 장소들이다). 그렇게 작가의 그림은 이후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오고, 사회비판의식을 그리게 된다. 사실주의가 현실주의(현실에 대한 실천적 참여)로 승화되면서 구체성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작가는 일하는 사람들(노동자들)을 그리는데, 농사를 짓는 가정환경 탓에 시골사람들을 주로 그리고, 대개는 저 홀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그린다. 그렇게 저 홀로 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이기도 하고, 존재의 알레고리처럼도 읽힌다(존재론적으로 모든 사람은 우주에 던져진 미아들이고, 고립된 섬들이다). 현재 농촌이 처해있는 현실비판을 넘어, 작가가 그림에 그려놓고 있는 서정적 분위기가 그렇게 읽혀지게 만든다. 작가의 감수성 아니면 능력으로 봐도 되겠다.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 중 특히 축제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흥미롭다. 새벽에 체육관 운동장에 동원된 사람들인데, 밤에 있을 축제를 위한 리허설이 한창이다. 리허설은 공개된 행사도 일상적인 모습도 아니다. 축제도 공연도 관객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이런 관객이 없는 예행연습이 마치 상대가 없는 혼잣말이나 헛몸짓을 보는 듯 낯설고 생경하다. 어쩜 삶은 봐주는 사람이 없는 혼잣말이나 헛몸짓을 사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공허한 존재가 오버랩된 일상 속 장면을 보아내고 발견하는 것도 작가의 능력이다.

작가는 시골사람들을 주로 그린다고 했다. 시골사람들의 존재감이 두드러져 보일 때(?)는 일할 때보다는 시위를 할 때이다. 전경과 대치하고 있는 모습이나, 도열한 전경의 방패 막 앞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모습, 손에 각목을 들고 있는 모습이나, 무장한 전경들 뒤편으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람의 모습은 보통의 시위현장과 다르지가 않다. 그러나 몸빼바지에 머리에 수건까지 동여맨 일상복차림의 농부가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것이나, 시위에 돼지를 동원한 것(구제역파동?), 밧줄로 소를 매단 것이나(젖소파동?), 심지어 자신의 목을 맨 것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연장으로 자신이 애써 생산한 걸 깨 부신다거나(농산물파동?), 차가 지나가지 못하게 막을 요량으로 바리케이드 대신 돌을 옮겨와 벽을 쌓는 것도(성주사드파동? 제주해군기지파동? 밀양송전탑파동?) 다른 모습이다. 그 다른 모습에서 작가는 농부들의 시위가 그들의 노동과 닮았고 일상을 닮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보도사진의 관습을 흉내 내 모자이크처리방식을 도입한다. 민감한 사안이 걸린 부분, 예민한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해 덮어서 가리는 것인데, 언론의 관행과 보도사진의 관습을 비판한 것이다. 사실보도를 내세운 편집의 기술과 이미지정치학을 비판한 것이다. 이처럼 이제 더 이상 농촌이 농촌이 아니다. 농촌은 도시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린 삶의 터전이며, 생존을 위한 투쟁의 현장이다.
작가는 그 투쟁의 현장을 씁쓸하게 바라보고, 기록한다. 슈터다. 사진 찍는 사람, 사진기자다. 작가 스스로 투쟁현장을 사진으로 기록하는 것이지만, 외부인의 입장에서 시위현장을 기록하고 객관 보도하는 것의 한계와, 그리고 어쩌면 왜곡보도를 비판한 것이다. 슈터는 쏘는 사람이다. 그 속에 폭력이 들어있다. 이처럼 사진을 찍는다는 것(사진기를 들이댄다는 것), 기록한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폭력적인 행위일 수 있다. 이런 슈터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중 또 다른 흥미로운 경우가 생산자다. 생산자? 밭에는 화장실이 따로 없으므로 등을 보인 채 똥 누고 오줌 누는 사람을 보여준다. 어느 정도는 작가의 자화상일 것이다. 그리고 작가가 묻는다. 우리 모두는 뭘 생산하고 있는지. 이런 시의성 있는 작업, 때론 그 자체 시니컬한 존재론에 연동된 작업, 그래서 예사롭지가 않은 작업을 매개로 작가는 존재의 의미를 심화시킨다. 형식으로 치자면 때로 평면으로, 그리고 더러는 설치로 풀어내면서 공간 확장을 꾀한다.

–미술평론 / 고충환–

그 사람들 ver2 – ‘불편한 기술’ 한지에 흑연, 149x213cm,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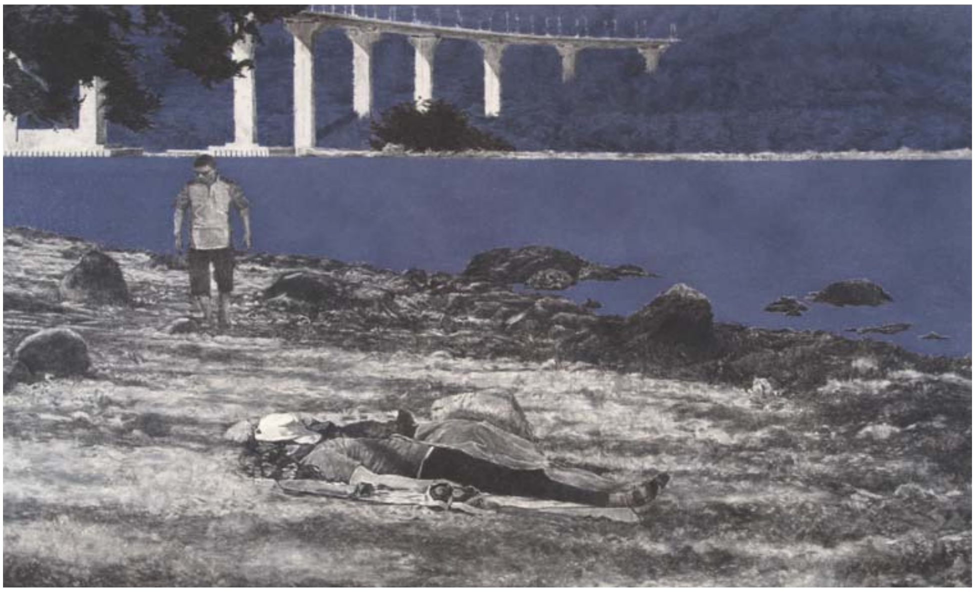
그 사람들 ver2 – ‘불편한 기술’ 한지에 흑연, 57x38cm, 2018

그 사람들 ver2 – ‘불편한 기술’ 한지에 흑연, 37x35cm,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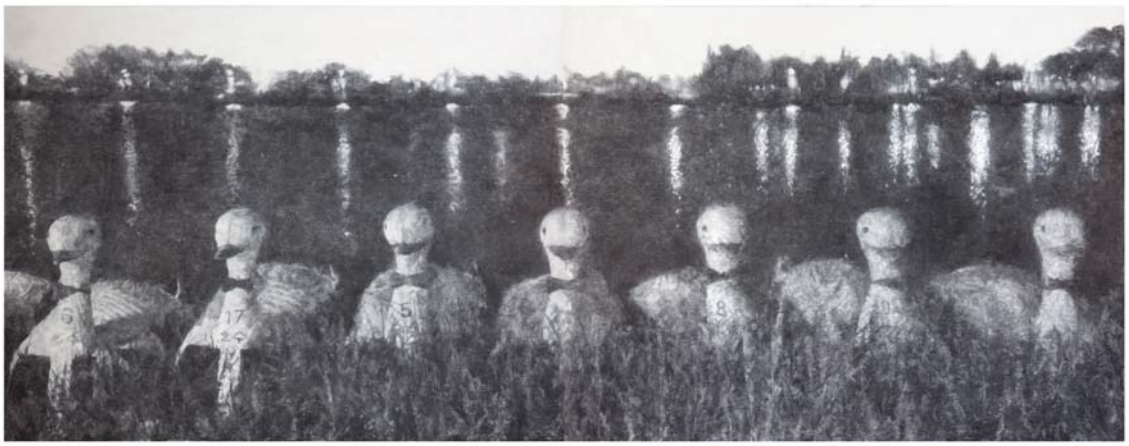
그 사람들 ver2 – '불편한 기술' 전시장면

피말리던 4시간 57분 한지에 목탄, 117x80cm, 2017

한국의 명견 한지에 목탄, 117x80cm, 2017



어느 더운여름 한지에 목탄, 130x190cm, 2017



녹색의 이미지(green image) 한지에 목탄, 130x330cm, 2015

white bus 한지에 목탄, 130x165cm, 2016

작가노트

`그 사람들 ver 2 - 불편한 기술'

2018년부터 시작한 '그 사람들' 시리즈의 2번째 버전이다. 앞서 시작한 '그 사람들'에서 시골 노동자의 일상을 다뤄왔다면 이번 시리즈에서는 농민들 혹은 농촌에 사는 사람들의 시위를 주제로 하였다. '불편한 기술' 이란 부제는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각자의 상황에서 요구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한 몸부림 혹은 생존을 위해 행하는 불편한 기술 (奇術)을 뜻하기도 하고 그러한 행위들을 기술(記述)한다는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다. '시위'는 개인적으로 꼭 다뤄보고 싶은 주제였다. 다만 그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작업해야 할지 실마리가 풀리지 않아 고민하고 있던 차에 우연히 신문을 보던 중 모자이크로 중요한(?)부위를 가린 보도사진을 접하게 되었고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모자이크로 인해 이미지가 오염되어 희화적으로 보인다는 점,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 등이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또 모자이크로 가려진 부분 보다 집단의 왜곡된 시선과 편파적인 언론, 사회적 편견이 더 부끄럽고 가려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작업을 진행하면서 그 사람들의 생존을 위한 사회적 몸부림이 그들의 노동과 어딘지 모르게 닮아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무언가를 부시는 행위, 무거운 돌을 옮기는 행위, 생산물을 내다 버리는 행위 등등 그 배경과 상황이 삶의 현장으로 옮겨지면 그들의 삶 속에서 반복되는 노동과 묘하게 닮아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작업에 사용된 이미지는 신문이나 인터넷 뉴스 등에서 발췌한 것으로 모자이크는 원래 있었던 위치에 그대로 사용하거나 아무의미 없는 곳에 모자이크를 집어넣는 방식으로 작업하였다.

-작가 / 정지현-

2018 Hello! Contemporary Art
■Spot4. 김재경展

Kim, Jaekyung

산책

call
잘 다녀왔어?
오는 기분은 어때? 날아갈까?
새
새

산책 가변설치, Oil stick on wood, 노방천 외, 2018

가까이서 또는 멀리서

김재경은 [산책] 전에서 산책을 하면서 생기는 시야와 육체, 감정과 사고, 지각과 기억 등의 변화를 공시적으로 배열한다. 그녀의 작품에서 산책은 매우 다양한 활동을 포괄한다. 물리적인 의미의 산책뿐 아니라, 새로운 사람과 책, 음악과 공연을 만나는 것도 모두 산책에 포함된다. 잠을 잘 오게 한다는 한약재 냄새가 나는 공(共)감각적인 공간은 산책의 범주에 꿈도 포함됨을 알려준다. 디지털 생태계가 펼쳐지면서 산책은 사이버 공간 속에서의 서핑으로 바뀐 듯도 하지만, 코드에서 코드로 이어질 뿐인 디지털 생태계에서의 '활동'은 실제의 움직임처럼 심신을 갱신하지는 못한다. 산책은 점에서 점으로의 이동이 아니라 선적인 이동이며, 중간에 무수히 갈래를 칠 수 있는 복잡한 선적 이동이다. 비록 그 산책자가 철학자 칸트처럼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경로를 통과한다 할지라도 말이다. 김재경에게 산책은 이야기이다. 공간에 들어서서 움직이고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만들어진다.

다양한 공간적 관계로부터 생겨나는 시간, 즉 이야기를 펼치는 방식이 흥미롭다. 4미터가 넘는 천정에 10-200cm 크기 사이의 자작나무 합판들이 180개가 벽에 붙어있거나 공중에 매달려 있고, 바닥에 놓여있거나 기대어 놓은 이미지들은 사람과 동물, 집같이 산책 중에 흔하게 만날 수 있는 것들이다. 작가가 압축적으로 재현해 놓은 상징적 우주 속에서는 동물의 비중이 꽤 높아 공존의 의미를 살린다. 하나로 환원되는 시점(가령 인간중심주의같은)이야말로 작품 [산책]이 부정하는 것이다. 차 한 대 더 세우기 위해 잘려진 아름드리 나무, 로드 킬이 빈번이 일어나는 죽음의 도로는 만물과 대화하는 산책자를 슬프게 할 것이다. 두툼한 자작나무 판을 오려서 만든 대상의 실루엣들은 재현적 이미지이기보다는 그림과 기호의 중간쯤에 있는 것이 마치 그림기호(pictogram)처럼도 보인다. 사람 안에 쓰여진 글자나 말풍선 속의 글자들은 추상적 기호에 해당한다.

한문과 한글, 유럽어권까지 다국적적이다. 산책이 아니어도 현대인은 걸어 다니면서 많은 언어적 활동을 하는데, 생각하기, 말하기, 노래하기, 듣기, 읽기 등이 그것이다. 걷기라는 시간적 현상은 언어적 활동에 내재된 시간성과 조응한다. 실제로 걷기가 사고를 활성화한다는 과학적 연구가 있으며, 그것은 경험적으로도 확인되는 사실이다. 추상적인 사고를 추동하는 머리는 아예 말풍선 형태로 되어 있다. 말풍선을 거꾸로 배치하여 경쾌하고 멋스러운 분위기를 냈다. 머리 위의 돌출부는 실제의 말풍선과 끝말잇기처럼 연결되어 있는 듯하다. 이 짝패는 마치 하나의 반죽을 두 개로 갈라놓은 듯, 한 덩어리에서 나온 실체들이다. 이러한 이미지에 의하면, 사람은 말을 낳고 말은 사람을 낳는다. 그것은 상징적인 우주에서 태어나는 인간의 운명이다. 관객이 알아볼 수 있는 부분/없는 부분을 총괄해서 언어가 차지하는 부분은 꽤 크다. 전시장 입구에서부터 말풍선을 위에 달고 있는 산책자가 관객에게 말을 걸어오는 듯하다. 태평가부터 샹송까지 시나 노래가 많다고 해서 서정적이지만은 않다.

라캉을 비롯한 현대의 정신분석학자들은 언어가 인간을 인간이게도 하지만 인간을 미치게도 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인체 실루엣 안에 많은 기호적 도상들이 낙서하듯이 그려진 김재경의 작품은 인간이 결코 자연적으로 태어나고 사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이미지대로 오려진 나무 합판에 오일 스틱으로 쓴 글자들은 말 그대로 씌여진 것이지, 그려진 게 아니다. 김재경의 작품은 기본적으로 드로잉이다. 공중에 매달린 평판 설치물들은 공간에 그려진 드로잉이라고 할 수 있다. 관객은 여기저기에 써있는 다국적 글자를 읽을 수도 있겠지만, 그저 조형적인 차원에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반쯤 비치는 노방 천에 쓴 글자들은 그 자체로 확정된 말이 아니라 '차이에 의한 연기', 즉 '차연'(자크 데리다)으로 작동되는 언어의 면모를 표현한다. 간략하게 표현된 인체상이지만 특히 가장 중요한 눈이 생략된 인체형상들은 시야의 중심에 놓인 주체를 해체한다.

그것은 언어의 중심에 주체가 있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다. 주체를 중심에 놓는 시야의 대표적인 관례는 원근법이다. 주체의 눈으로부터 발사되는 사각뿔 형태의 체계 위에 대상들이 차곡차곡 배열되어있는 르네상스 이래의 그 전통 말이다. 그러한 관례가 벽 뒤로 뚫린 창문을 전제했다면, 김재경의 경우 그러한 가상적 창문을 깨 버린다. 전시장은 원근법적 체계를 이루는 평행의 면들이 산재된 것으로 가정된다. 실제로 몇 년 전 작품은 반투명 아크릴로 작업하여 깨진 파편 같은 느낌을 더 주었다. 거기에서는 가까이서 본 고양이, 멀리서 본 새, 언덕을 올라가는 사람, 아침에 본 집, 몇 년 전에 들었던 노래, 지난겨울의 나무 등이 함께한다. 다양한 시공간이 공존하는 그곳은 유토피아이기보다는 헤테로피아이다. 그래서 전시공간은 하나의 좌표가 아니라 무수한 좌표들이 잠재한다. 거기에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이 여기에서 저기로 이동하고 있지만, 시공간적으로 시점과 종점이 같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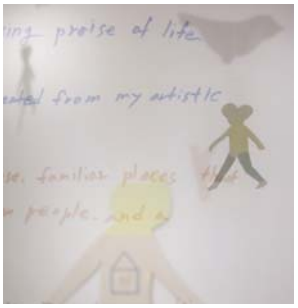
실루엣으로 표현된 것들은 직선적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복잡하게 휘어져 있는 미로 같은 시공간에서의 이동이다. 이러한 유동적인 시공간 속에서 몇 년 전에 죽은 고양이를 생전의 모습으로 만날 수도 있고, 나의 어린 시절 집을 방문하거나 내 미래의 모습을 맞닥뜨릴 수도 있다. 다양한 스케일의 크기 때문에 매우 많은 것들이 잡다하게 걸려있는 것 같지만, 김재경이 사용하는 이미지는 많지는 않다. 작가는 선택된 핵심적인 구성요소로 최대한 다양하게 연출했을 뿐이다. [산책]은 시각적이기보다는 언어적이다. 그것은 조합의 방식에 따라 다른 문장을 만드는 언어인 것이다. 만약에 그 반대의 경우라면 그저 색색깔의 모빌이 걸려있는 장식적인 작품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특히 화려한 색감과 유희적 형태들이 그러한 느낌을 줄 것이다. 그러나 김재경의 작품은 형태의 유희만큼이나 이야기가 중요하다.

가령 김재경의 설치 작품에는 집이 많이 보이는데, 그것은 산책은 집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어서 일수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작품 속에 내재된 서사성과 관련지어 '언어는 존재의 집'(하이데거)이 된다. 어떤 도상은 나무 패널 위에 가지런히 안착되어 있기도 한데, 이런 작품은 매달리지 않고 그림처럼 벽에 걸린다. 그림 또한 무수한 변곡점을 가진 미로의 세계에서 만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나무판을 오려서 만든 이미지들을 여러 높이로 매달아 놓은 공간에 가늘게 새어 들어온 바람은 그림자 유희를 낳는다. 그림자처럼 새까만 도상도 벽에 붙어있다. 검은 새는 빅뱅처럼 잠재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우주 너머의 또 다른 차원을 암시하는 듯한 구멍(또는 통로)처럼 보인다. 벽 귀퉁이에는 날개 달린 사람이 어중간하게 걸쳐 있는데, 날아오르려 하는 것인지 추락 중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대체로 공간에 띄워있는 많은 이미지들이 아래로의 중력을 향하는 것은 분명하다.

새와도 같은 자유로움을 추구하지만, 동시에 땅에 발을 딛는 지상의 삶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 작가는 공간적인 유희를 즐겨하여, 둥그스름한 천정의 한켠의 공간을 놓치지 않고, 작은 집, 동물 이미지들을 배치했다. 좁은 골목길을 연상시키는 이 구역은 피할 수 없이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길게 드리워진 노방 천은 공간을 분리하면서도 이어준다. 앞판에서 단절된 이야기가 뒤판으로 연결되거나, 뒤판의 글자들이 앞판의 번역이 되는 등, 단절과 연결의 관계는 도처에서 발견된다. 보다 정확하게는 단절이 연결을 야기한다. 모빌처럼 매달려서 약간의 움직임은 있지만, 키네틱 아트라고 할 수는 없는 김재경의 작품에서 움직임은 관객이 다가서서 보는 각도에 따라 이미지 기호들은 다른 배치와 다른 관계망을 이루어 다른 이야기로 엮여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거기에는 원근법 이전의 서양 회화나 동양화에서처럼 다시점이다. 하나의 중심이 아닌 다양한 중심으로 이루어진 우주 안으로 관객을 밀어 넣는 작품 [산책]은 그림 안으로 산책하게 하는 장치이다.

-미술평론 / 이선영-

산책 가변설치, Oil stick on wood, 노방천 외, 2018


praise of life
from my autistic

Trough
my art work, I
to sugg est th
our daily li ve
People wh m w m
Strolling in a par
trees, dogs, cats and
part of
seems
it is a
true
nature to be a phy s
ctually to f
self and si
of life好
I hope the
joyfully on
created fro
artisti c se

작가노트

전시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것은 일상의 여유, 즐거운 감정, 자연과의 만남이다. 산책길에서 만나는 사람, 꽃, 나무, 개, 고양이, 새 모두 자연의 일부이다. 산책은 실제로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걷는 것이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정신의 자유, 내면과의 만남이기도 하다.

이 산책 공간은 동네의 작은 공원일 수도 있고, 혹은 일상의 장소들, 새로운 경험의 순간들, 새로운 사람들, 또는 책속의 어떤 시공간일 수도 일수도 있다.

–작가 / 김재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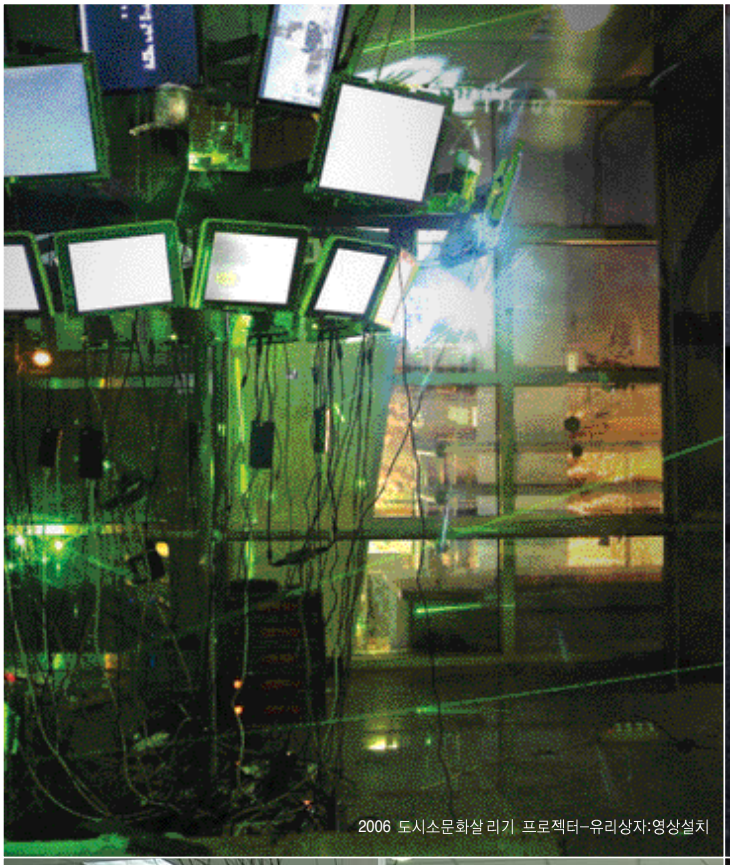
GLASS BOX
GLASS BOX
GLASS BOX
Kim, Jungheo
Kwon, Namdeuk
Her, Namjun
Kim, Honggi
Jang, Mee
Kim, Chulwhan
봉산문화회관기획 2018 Hello! Contemporary Art
기록전시
유리상자 - 아트스타11년
설치미술展
2018. 7. 20금 ~ 8. 11토
Choi, Sunam
Park, Junhyun
Kwon, Jaehyun
Rhee, Jiyoung
Suh, Sanghee
Woo, Jaeoh

2018 Hello! Contemporary 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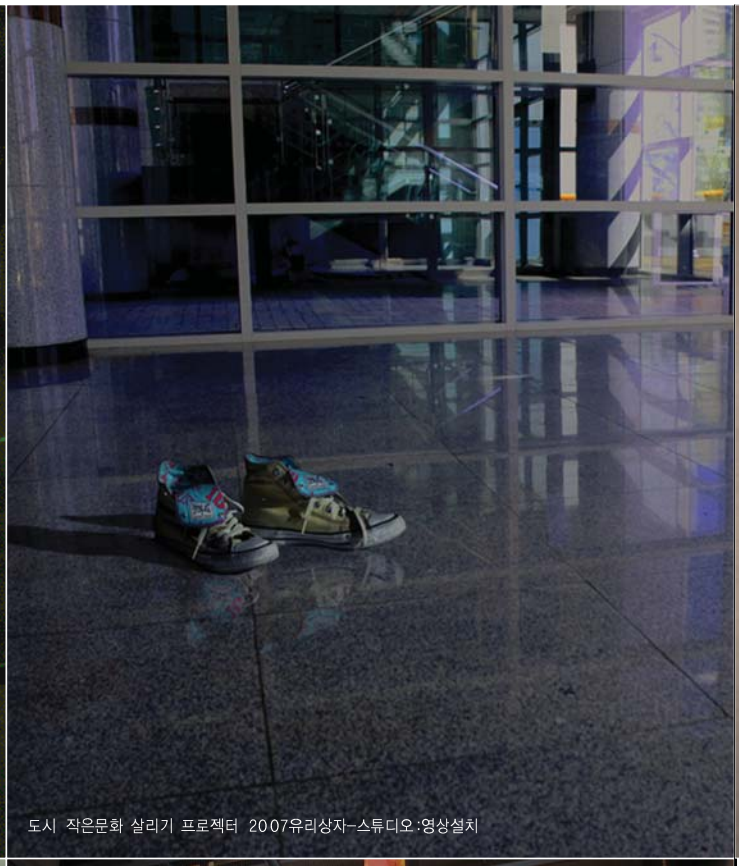
■기록전시 유리상자-아트스타11년 설치미술展

GLASS BOX ARTST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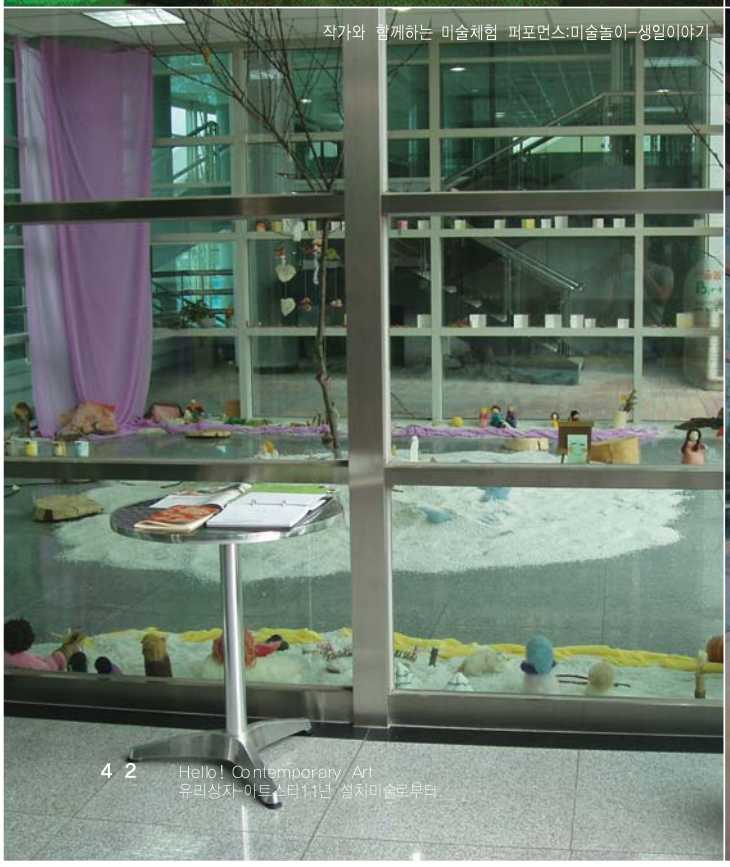
2006 - 2018



2006 도시소문화살리기 프로젝터-유리상자:영상설치



도시 작은문화 살리기 프로젝터 2007유리상자-스튜디오:영상설치



작가와 함께하는 미술체험 퍼포먼스:미술놀이-생일이야기

2007 GLASS BOX - STUDIO Ver.09

2007 GLASS BOX - STUDIO Ver.10

2007 GLASS BOX - STUDIO Ver.11

GLASS BOX & GLASS BOX STUDIO

영상설치 **IDAC** 2006. 12.21–2007.1.20
영상설치 **하광석** 2007. 3.27–4.21
미술놀이 **박지현** 2007. 5. 5–6.21
Ver.09 **하지원 & 이소연** 2007. 9. 5–9.29
Ver.10 **김지훈** 2007. 10. 5–11. 3
Ver.11 **김영희** 2007. 11. 9–12. 8

GLASS BOX ARTSTAR

Ver. 1 **이장우** 2008. 4.24–5.25
Ver. 2 **정민제** 2008. 7.12–8.3
Ver. 3 **한유민** 2008. 9. 2–9.28
Ver. 4 **정세용** 2008. 10.25–11.16
Ver. 5 **신경애** 2008. 11.22–12.14
Ver. 6 **강윤정** 2008. 12.23–2009.1.25
Ver. 1 **조용호** 2009. 3.17–4.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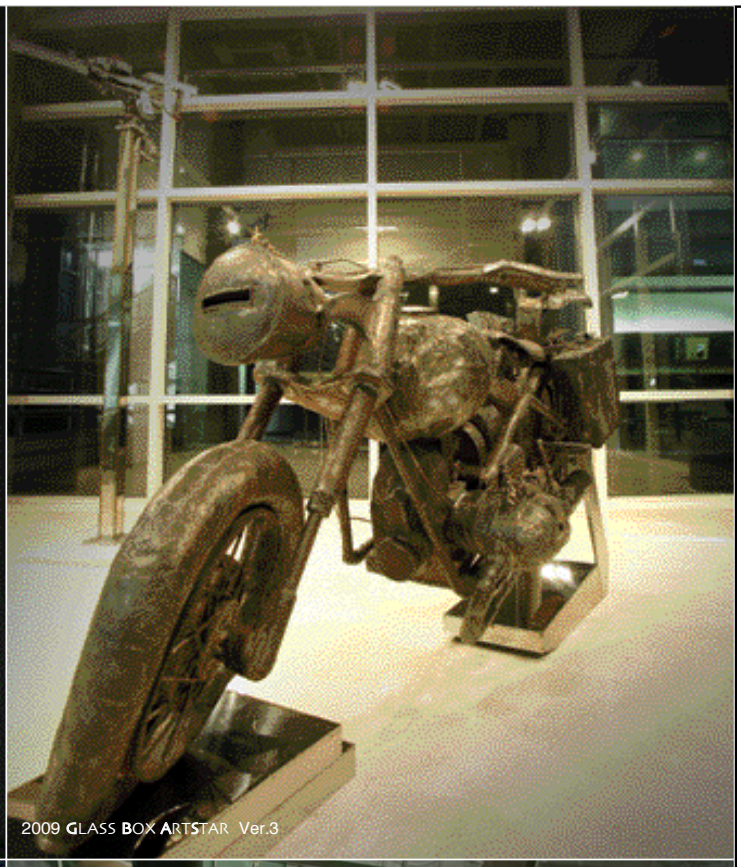
2008 GLASS BOX ARTSTAR Ver.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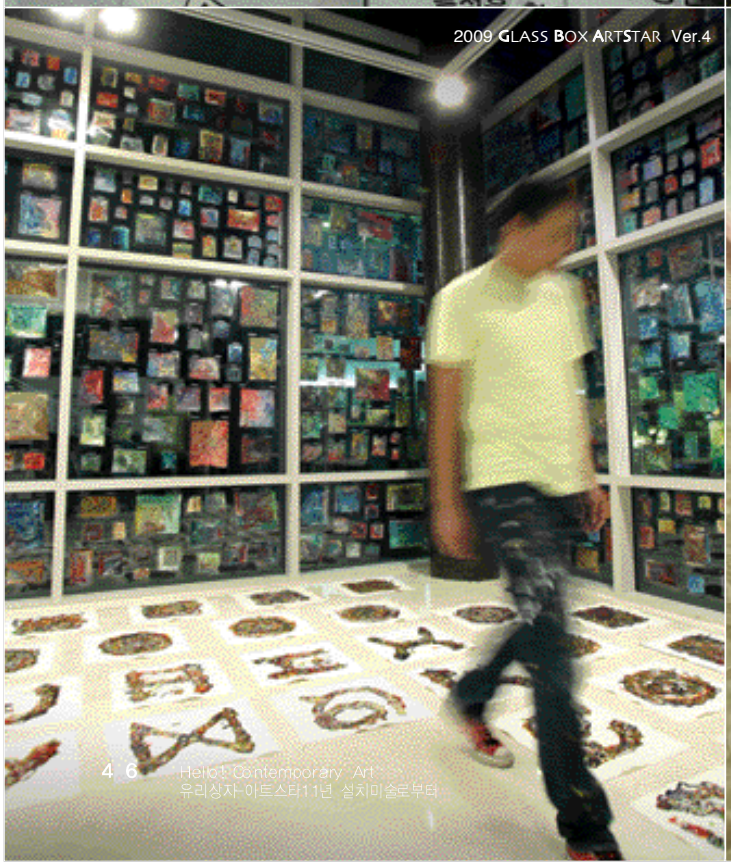
2008 GLASS BOX ARTSTAR Ver.5

2008 GLASS BOX ARTSTAR Ver.6

2009 GLASS BOX ARTSTAR Ver.1

2009 GLASS BOX ARTSTAR Ver.2


2009 GLASS BOX ARTSTAR Ver.3


2009 GLASS BOX ARTSTAR Ver.4

2009 GLASS BOX ARTSTAR Ver.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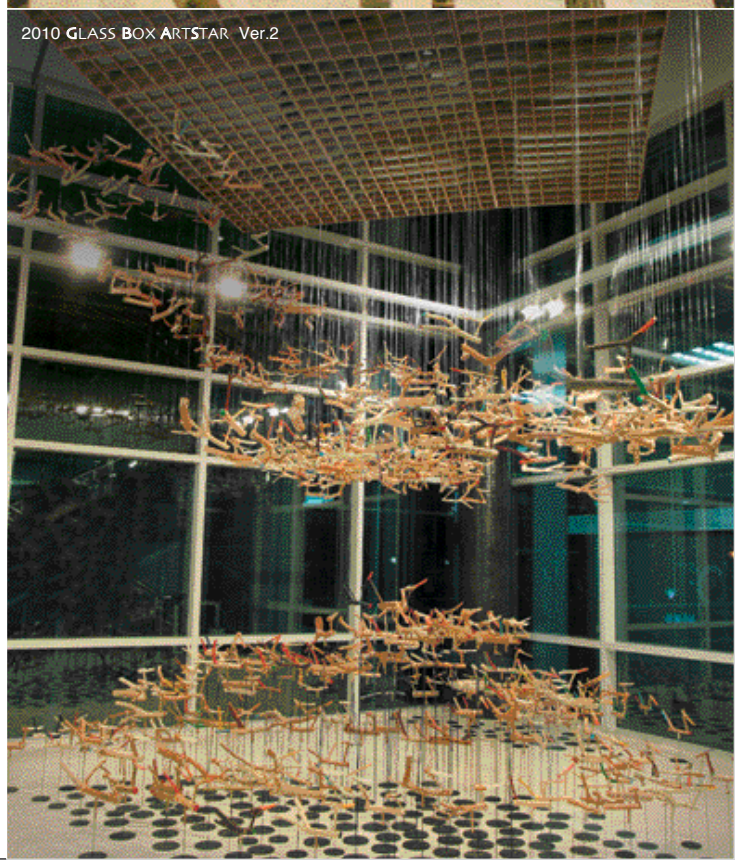
2009 GLASS BOX ARTSTAR Ver.6

2009 GLASS BOX ARTSTAR Ver.7

GLASS BOX ARTSTAR

Ver. 2 **김정희** 2009. 4.24–5.31
Ver. 3 **권남득** 2009. 6.11–7.12
Ver. 4 **허남준** 2009. 7.14–8.30
Ver. 5 **로리킴** 2009. 9.11–10.11
Ver. 6 **이상헌** 2009. 10.23–11.29
Ver. 7 **정재훈** 2009. 12.11–2010.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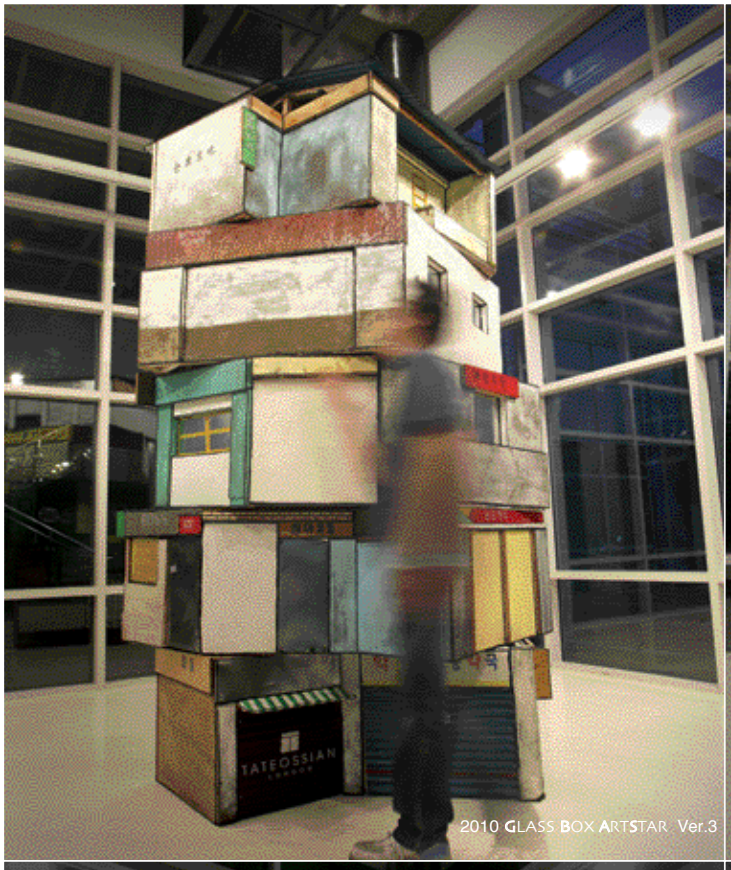
2010 GLASS BOX ARTSTAR Ver.1



2010 GLASS BOX ARTSTAR Ver.2

GLASS BOX ARTSTAR

Ver. 1 **하원식** 2010. 3.19–4.25
Ver. 2 **정은기** 2010. 5.7–6.13
Ver. 3 **손영복** 2010. 6.25–8.1
Ver. 4 **김소영** 2010. 8.13–9.12
Ver. 5 **김　현** 2010. 10.1–10.31
Ver. 6 **김미련** 2010. 11.12–1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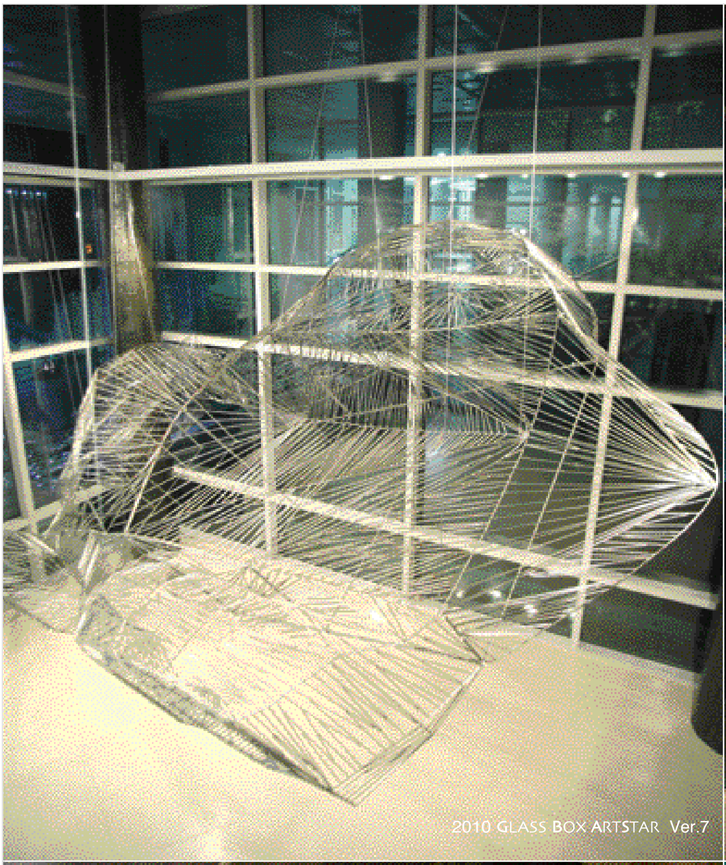


2010 GLASS BOX ARTSTAR Ver.3

2010 GLASS BOX ARTSTAR Ver.4

2010 GLASS BOX ARTSTAR Ver.5

2010 GLASS BOX ARTSTAR Ver.6



2010 GLASS BOX ARTSTAR Ver.7

2011 GLASS BOX ARTSTAR Ver.1

2011 GLASS BOX ARTSTAR Ver.2

2011 GLASS BOX ARTSTAR Ver.3

2011 GLASS BOX ARTSTAR Ver.4

2011 GLASS BOX ARTSTAR Ver.5

GLASS BOX ARTSTAR

Ver. 7 **이준욱** 2010. 12.24–2011.1.30
Ver. 1 **김홍기** 2011. 2.25–4.3
Ver. 2 **장　미** 2011. 4.15–5.22
Ver. 3 **김철환** 2011. 6.3–7.10
Ver. 4 **강민정** 2011. 7.22–9.4
Ver. 5 **조경희** 2011. 9.23–10.23

2011 GLASS BOX ARTSTAR Ver.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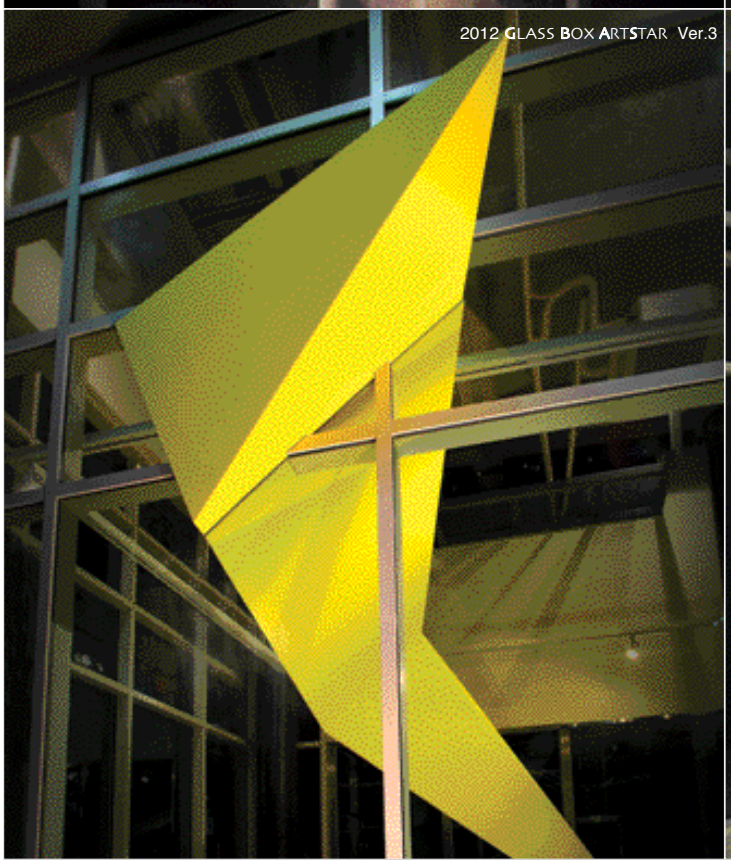
2011 GLASS BOX ARTSTAR Ver.7

GLASS BOX ARTSTAR

Ver. 6 **이시영** 2011. 11.4–12.11
Ver. 7 **김승현** 2011. 12.23–2012.1.29
Ver. 1 **정기엽** 2012. 2.24–4.1
Ver. 2 **최수남** 2012. 4.13–5.20
Ver. 3 **박정현** 2012. 6.1–7.8
Ver. 4 **권재현** 2012. 7.20–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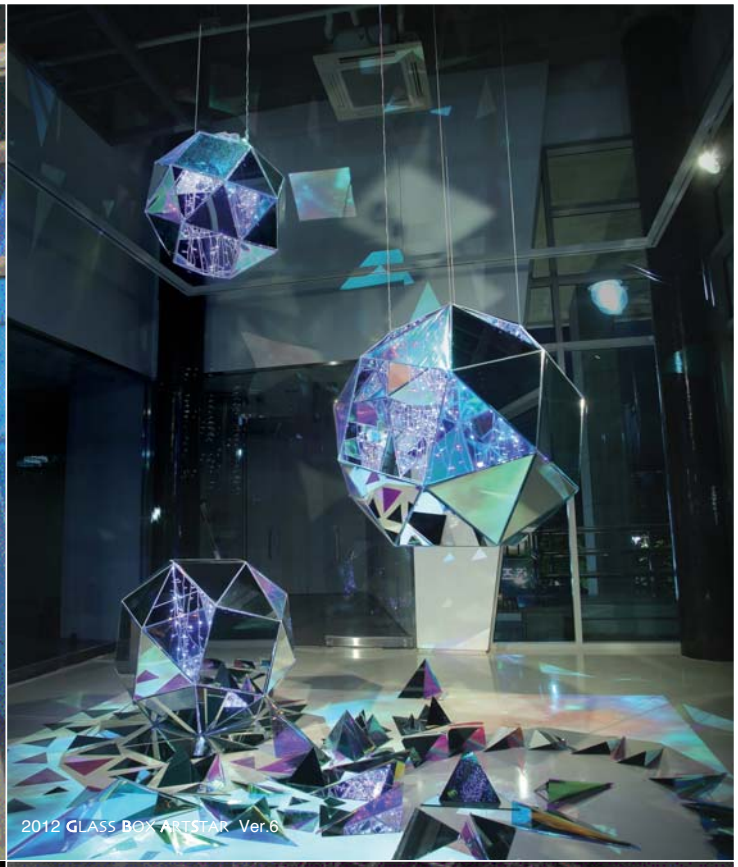
2012 GLASS BOX ARTSTAR Ver.1

2012 GLASS BOX ARTSTAR Ver.2


2012 GLASS BOX ARTSTAR Ver.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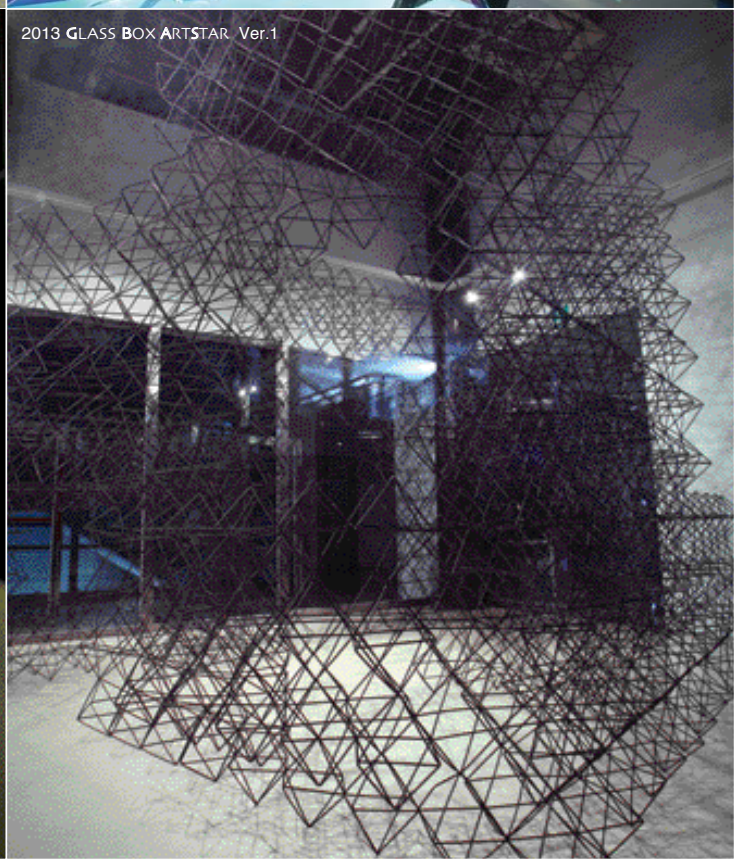
2012 GLASS BOX ARTSTAR Ver.4

2012 GLASS BOX ARTSTAR Ver.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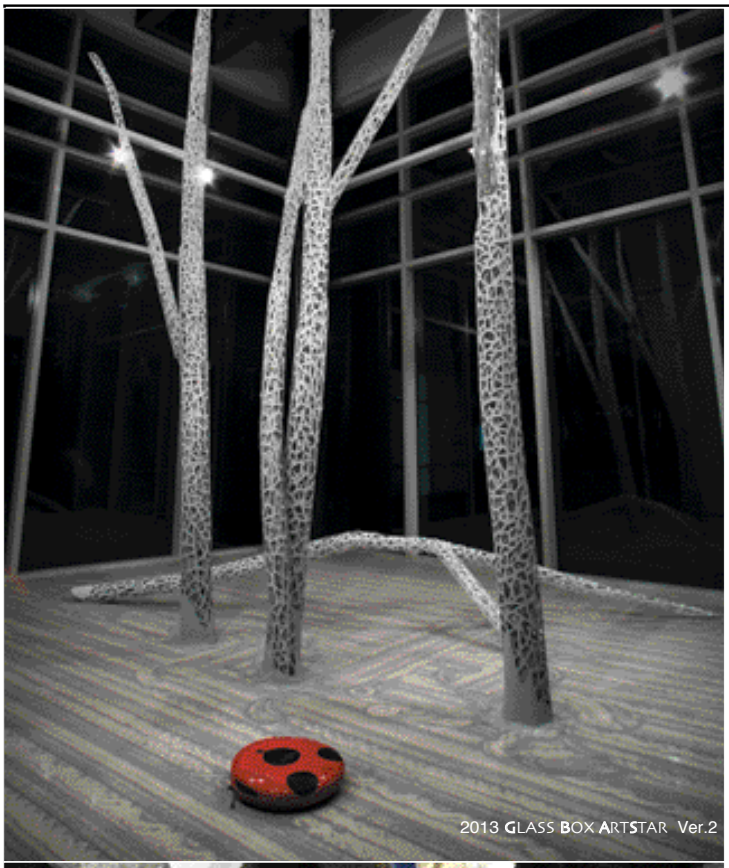


2012 GLASS BOX ARTSTAR Ver.6

2012 GLASS BOX ARTSTAR Ver.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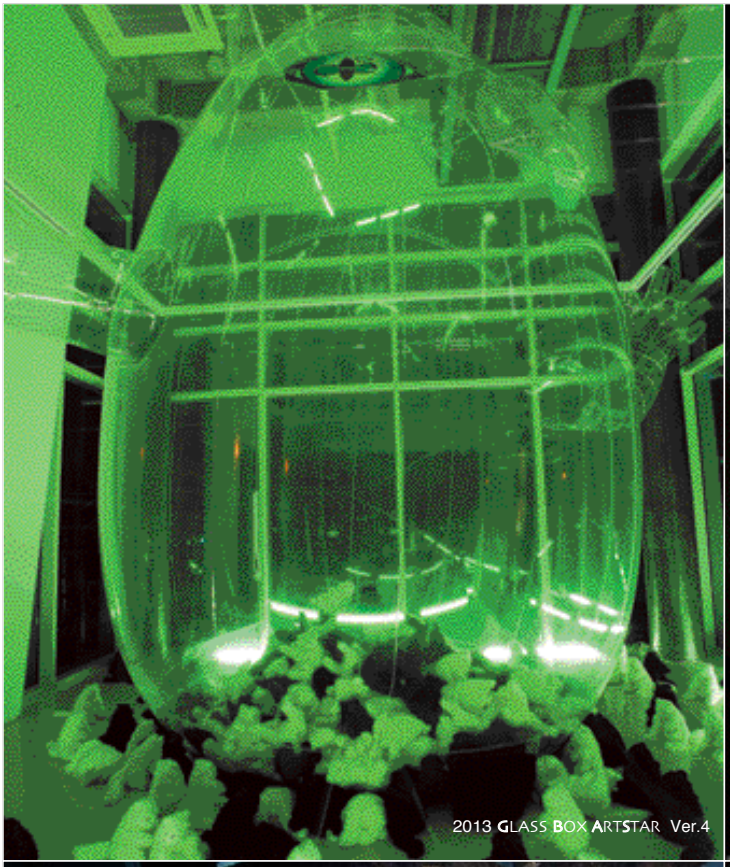


2013 GLASS BOX ARTSTAR Ver.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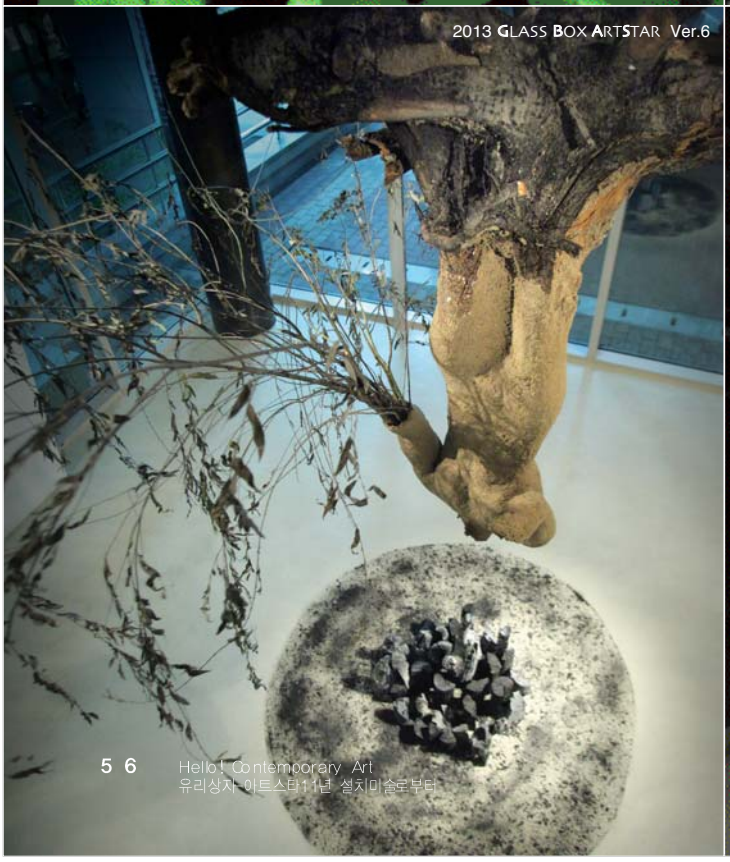
GLASS BOX ARTSTAR

Ver.5 **이지영** 2012. 9.14–10.21
Ver.6 **김안나** 2012. 11.2–12.9
Ver.7 **윤동희** 2012. 12.21–2013.1.27
Ver.1 **백장미** 2013. 3.1–4.7
Ver.2 **신강호** 2013. 4.19–5.26
Ver.3 **전새봄** 2013. 6.7–7.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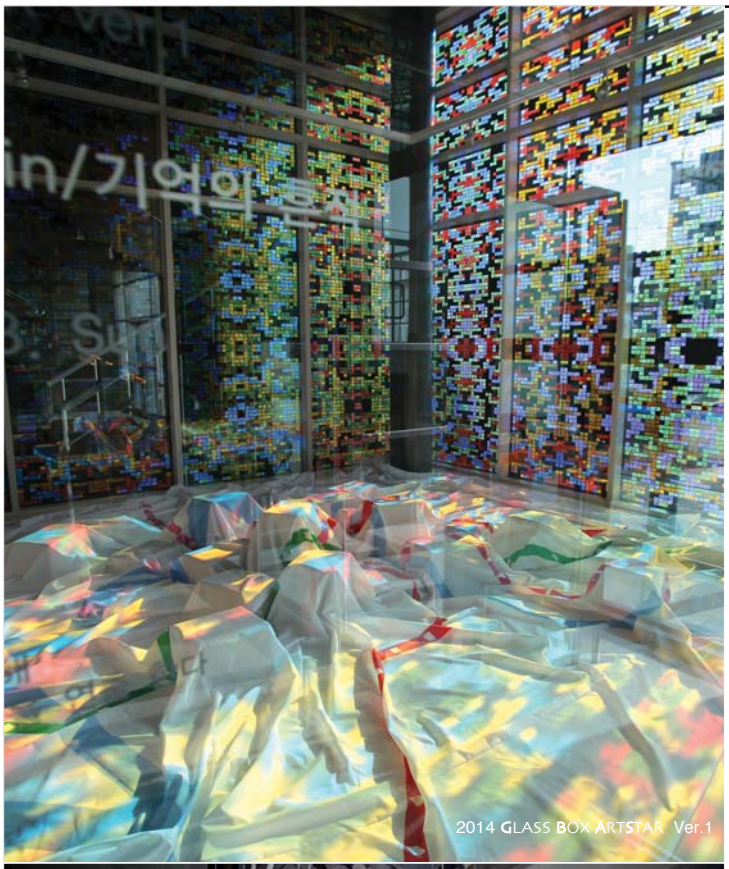
2013 GLASS BOX ARTSTAR Ver.4

2013 GLASS BOX ARTSTAR Ver.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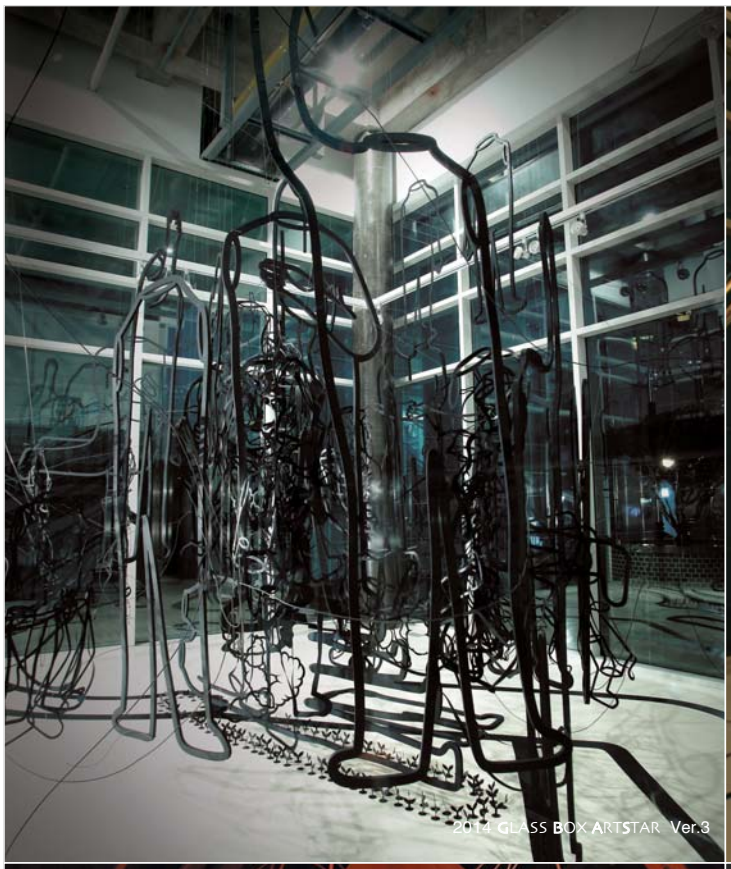
2013 GLASS BOX ARTSTAR Ver.6

2013 GLASS BOX ARTSTAR Ver.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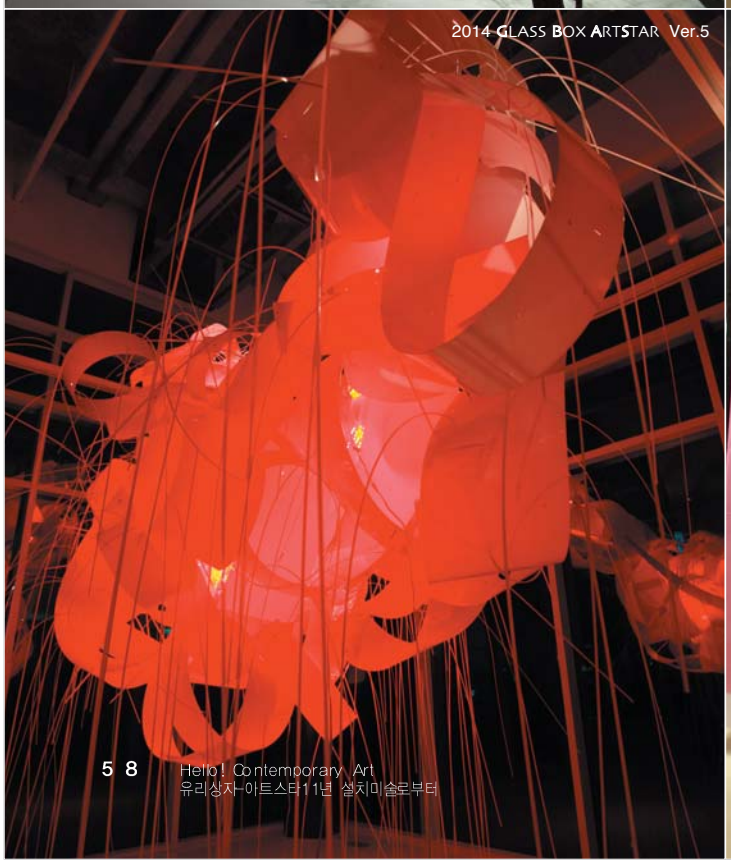
GLASS BOX ARTSTAR

Ver.4 **이재호** 2013. 7.26–9.1
Ver.5 **서상희** 2013. 9.13–10.20
Ver.6 **우재오** 2013. 11.1–12.8
Ver.7 **이소진** 2013. 12.20–2014.1.26
Ver.1 **로미아키투브** 2014. 2.14–4.13
Ver.2 **배문경** 2014. 4.25–6.22



2014 GLASS BOX ARTSTAR Ver.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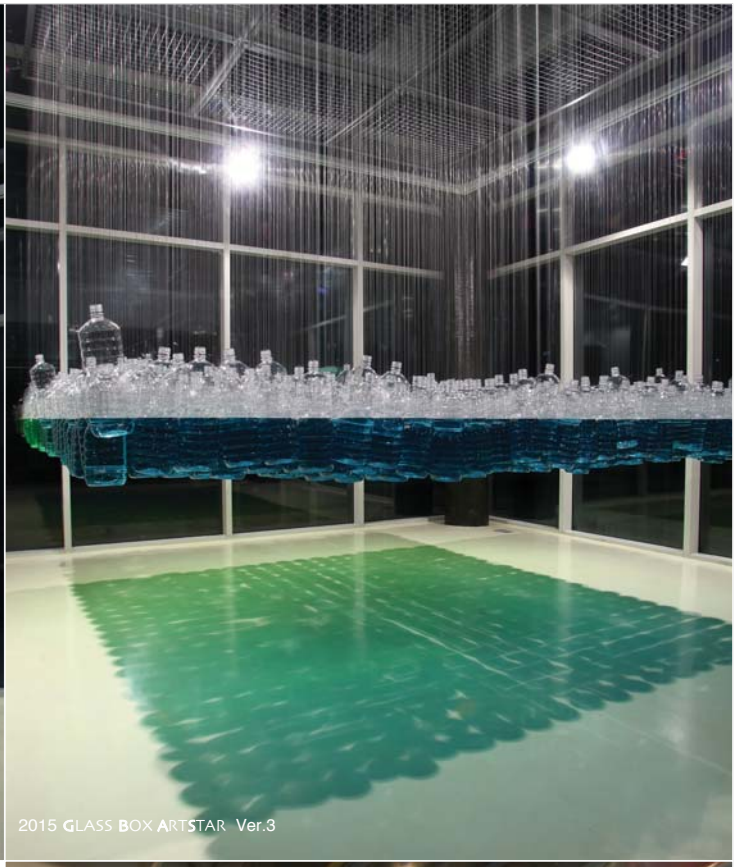
2014 GLASS BOX ARTSTAR Ver.4



2014 GLASS BOX ARTSTAR Ver.5

2015 GLASS BOX ARTSTAR Ver.1

2015 GLASS BOX ARTSTAR Ver.2



2015 GLASS BOX ARTSTAR Ver.3

2015 GLASS BOX ARTSTAR Ver.4

GLASS BOX ARTSTAR

Ver.3 로 한 2014. 7.4–8.31
Ver.4 서성훈 2014. 9.19–11.16
Ver.5 정혜련 2014. 11.28–2015.1.25
Ver.1 최 선 2015. 2.20–4.19
Ver.2 홍희령 2015. 5.1–6.28
Ver.3 이창진 2015. 7.10–9.6
Ver.4 STUDIO 1750+정혜숙 2015. 9.18–11.15

2015 GLASS BOX ARTSTAR Ver.5

2016 GLASS BOX ARTSTAR Ver.1

2016 GLASS BOX ARTSTAR Ver.2

GLASS BOX ARTSTAR

Ver.5 **오지연** 2015. 11.27–2016.1.24
Ver.1 **이지현** 2016. 2.19–4.17
Ver.2 **제이미리** 2016. 4.29–6.19
Ver.3 **김윤경 & 박보정** 2016. 7. 1–8.21
Ver.4 **김문석** 2016. 9. 2–10.23
Ver.5 **이규홍** 2016. 11.4–12.25
Ver.1 **정승혜** 2017. 1.20–3.19

2016 GLASS BOX ARTSTAR Ver.3

2016 GLASS BOX ARTSTAR Ver.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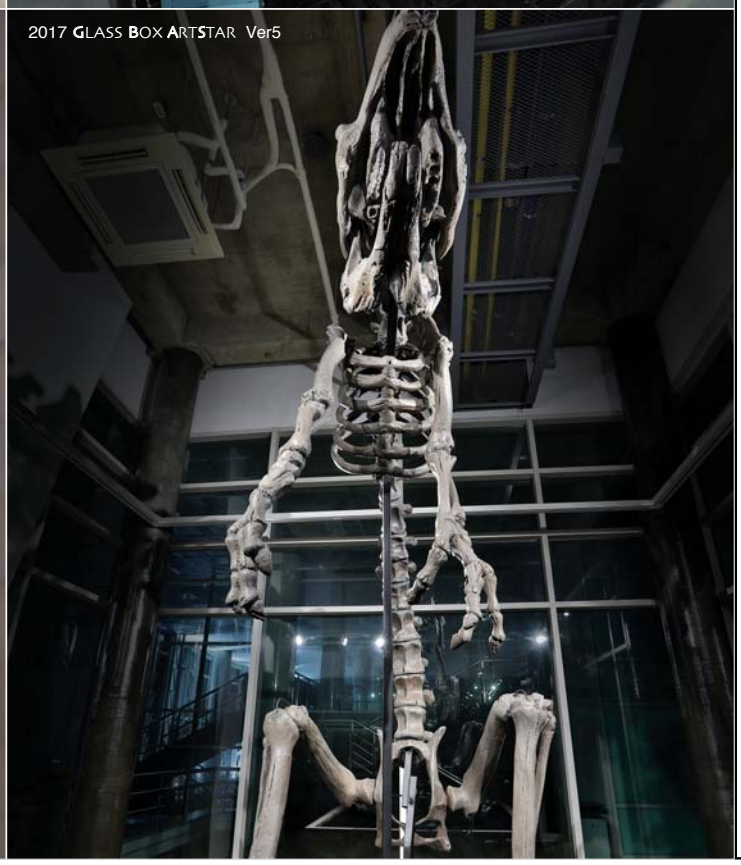
2016 GLASS BOX ARTSTAR Ver.5

2017 GLASS BOX ARTSTAR Ver.1

2017 GLASS BOX ARTSTAR Ver.2

2017 GLASS BOX ARTSTAR Ver.3

2017 GLASS BOX ARTSTAR Ver.4



2017 GLASS BOX ARTSTAR Ver5

GLASS BOX ARTSTAR

Ver.2 **임용진** 2017. 3.31–5.28
Ver.3 **권효정** 2017. 6. 9–8. 6
Ver.4 **이선희×정연지** 2017. 8.18–10.15
Ver.5 **이기철** 2017. 10.27–12.24
Ver.1 **홍정욱** 2018. 1.12–3.18
Ver.2 **박경제** 2018. 3.30–5.27
Ver.3 **정혜숙** 2018. 6.8–8.12

2018 GLASS BOX ARTSTAR Ver.1

2018 GLASS BOX ARTSTAR Ver.2

2018 GLASS BOX ARTSTAR Ver.3

전시연계 워크숍
■예술가처럼 생각하기

2018 Hello! Contemporary Art와 함께
예술가처럼 생각하기 워크숍

기　　간 : 2018. 7. 27(금) ~ 8. 11(토)
기간중 매일 2회(소요시간 1회 90분)

장　　소 : 강의실(4층)
-예술가처럼 생각하기A 10:30 ~ 12:00
-예술가처럼 생각하기B 13:30 ~ 15:00

에듀케이터 : 신재희, 이기선, 김동앵, 김민지, 박지현, 임은경

봉산문화회관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청소년과 가족 단위의 관람객을 주 대상으로 동시대미술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예술교육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가족 단위의 전시 관람과 워크숍 참여에 주목하게 된 이유는 미술관 혹은 전시장을 찾은 부모와 자녀가 미술작품을 감상하며 나누는 대화의 부족과 그 한계에 대한 대안 마련의 필요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하나의 대안은 이렇습니다. 미술가가 작업과정에서 접하는 어려운 문제점들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궁리하며 생각하고 연구하는 태도들을 미술전시를 찾은 관람객이 체험할 수 있게 된다면 작품의 올바른 감상은 물론 가족 사이에 나눌 수 있는 대화의 스펙트럼은 지금보다 훨씬 더 풍부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입니다.

이번 워크숍 기획은 대구에서 전시연계 예술교육 활동을 해온 에듀케이터 신재희, 이기선씨에게 우리회관 예술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봉산문화회관의 기획전시, "2018Hello! Contemporary Art展"에 연계한 워크숍에 대한 연구와 진행을 제안한 것으로 시작됩니다. '예술가처럼 생각하기' 워크숍은 봉산문화회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방학시즌 '예술아카데미'의 연장선에 있으면서 좀 더 전문화되고 구체화된 운영 형태이며, 에듀케이터의 진행에 의한 전시작품 감상과 워크시트 작성, 실기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이번 워크숍과 연계한 '2018 Hello! Contemporary Art' 전시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11년의 역사를 이어온 '유리상자-아트스타' 설치미술 전시를 기념하며, '설치미술'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관객이 살펴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설치미술의 경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개의 개인전시와 1개의 기록전시로 구성된 이 전시는 '설치미술'과 관련하여 예술가의 실험적 태도를 소개하고 관객 소통을 시도하여 서로 관계하며 상생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 설계는 인간의 '실험정신'을 싹틔우는 자연으로서 '원림園林'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인공적으로 가꾼 정원보다는 자연 그대로를 간직한 본성적 가치에 이끌려 그 곳에 머무르고 싶어 한다면, 그 곳은 원림을 상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혹시, 설치미술이 그런 상상의 가능성과 연결될 수 있을까?

이번 전시의 범위는 정형화된 평면과 입체작업 사이의 경계와 공간의 한계를 확장하여 야외광장과 거리, 몇 개의 전시공간을 드나들며 대중과의 소통을 통해 우리시대 예술의 다양한 가능성들을 선보입니다. '관계형 설치미술'이라 할 수 있는 야외광장의 'Spot1.정혜숙展'은 몽골텐트 게르를 설치하여 관객 참여형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설계하여 작가의 또 다른 전시 유리상자-아트스타展과 연계하고, '낯선 새소리를 통해 도시생활에서 잊고 지낸 자연의 존재를 생각하게 합니다. '몰입형 설치미술'이라 할 수 있는 3전시실의 'Spot2.한호展'은 '영원한 빛-천지창조'를 주제로 빛 그림자를 이용한 키네틱 아트를 통하여 관람객으로 하여금 작품에 몰입하여 관객 자신이 작품의 일부이고 우주세계의 일부라는 인식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합니다. '설치미술 성향의 회화'로 선택한 1전시실의 'Spot3.정지현展'은 어떤 장소와 사건, 특정 행위에 주목하면서, 배경이나 상황, 행위의 맥락을 변경하여 생경한 시각을 드러냅니다. 어떤 상황을 중요시하면서 설치미술의 성향을 닮은 회화 방식으로 선보입니다. '드로잉에서 설치미술'로 상호 전환되는 2전시실의 'Spot4.김재경展'은 평면 회화와 설치미술의 상호 개입을 실험하는 작업으로, 자신의 평면 그림에서처럼 산책길에서 설치미술 공간의 구성요소로 등장하는 이미지와 글들은 설치 미술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줍니다. 이와는 별도로 2층 로비 벽면에 설치한 70점의 설치미술 전시기록 이미지는 지난 2006년 말부터 2018년 현재까지 아트스페이스의 '유리상자' 전시에 참가했던 작가들의 태도들을 기억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기록합니다.

전시연계 워크숍 '예술가처럼 생각하기A - 일상의 장면이 설치미술 속으로!'는 자신의 일상생활 속 장면을 설치미술 방식으로 표현해 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평면회화 상태의 그림으로 시작한 작업을 자신이 직접 만든 설치미술 공간으로 확장시켜 보면서, 설치미술을 이해하고, 정형화된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창의적 발상을 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자신의 일상에서 발견한 장면을 평면 드로잉 및 공간 드로잉으로 표현하여 보고, 평면 회화가 가지는 제한에 대해 생각하면서, 스스로 해결을 위한 답을 찾아보며 미술적 사고와 시각을 넓히는 시간을 가집니다.
미술 안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려는 미술가들의 예술적 태도를 이해하고, 실험적인 동시대 미술을 이해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또 다른 전시연계 워크숍, '예술가처럼 생각하기B - 빛으로 그려낸 자연 공간'은 야외 광장에 설치되는 정혜숙의 '필리핀 버드', 실내전시실에서 소개되는 한호의 '영원한 빛-천지창조', 정지현의 설치성향의 회화, 김재경의 '산책' 등의 개별적인 전시들을 '동시대미술의 원림'이라는 풍경으로 바라보면서, '설치미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담론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워크숍 참여자들과는 4명 작가의 공통된 키워드인 자연성의 은유, 인간정서에 대한 관찰, 관객의 참여, 상황, 소통에 관한 메시지들을 '빛으로 담아낸 자연 공간'이란 주제로 활동하려고 합니다. 특히, 전시 참여작가 중 한사람인 한호 작가의 작업과정, 기법을 연구해보고, 다양한 재료탐색과 자연의 이미지들로 주어진 공간 안에서의 자기만의 자연공간을 연출해 볼 것입니다. 이 워크숍을 통해 미술가의 작업과정 속에서 생각하고 연구하는 태도를 살펴보고, 실제 전시된 작품과 마주 하면서 워크숍 참여자들이 직접 예술가의 태도를 체험함으로써 미술 감상 및 예술교육의 효과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이번 전시와 연계된 워크숍에서는 설치미술에 관한 태도로서 '그림에서 확장된 공간 그림'이라는 설명과 함께 전시 참여 작가의 생각과 일부 작업과정을 워크숍 참가자들이 직접 체험함으로써 작품 감상 및 예술 교육의 성과를 증진시키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이처럼 전시와 연계된 워크숍을 통하여 우리는 작가 작품의 의미를 좀 더 쉽고 구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미술가에 의해 연구된 예술 세계의 폭을 이해하는 한편, 참가자 각자가 작품 감상과 체험 학습을 경험하면서 자신만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열린 기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정종구-

2018 Hello! Contemporary Art

예술가처럼 생각하기A: 일상의 장면이 설치미술 속으로!

1.설치미술 공간 상상하기

2.나의 일상 속 표현하고 싶은 장면 표현하기

3.드로잉하고 오리기

4.평면 드로잉을 입체로 설치하기

5.작품완성하여 감상하기

2018 Hello! Contemporary Art

예술가처럼 생각하기B: 빛으로 그려낸 자연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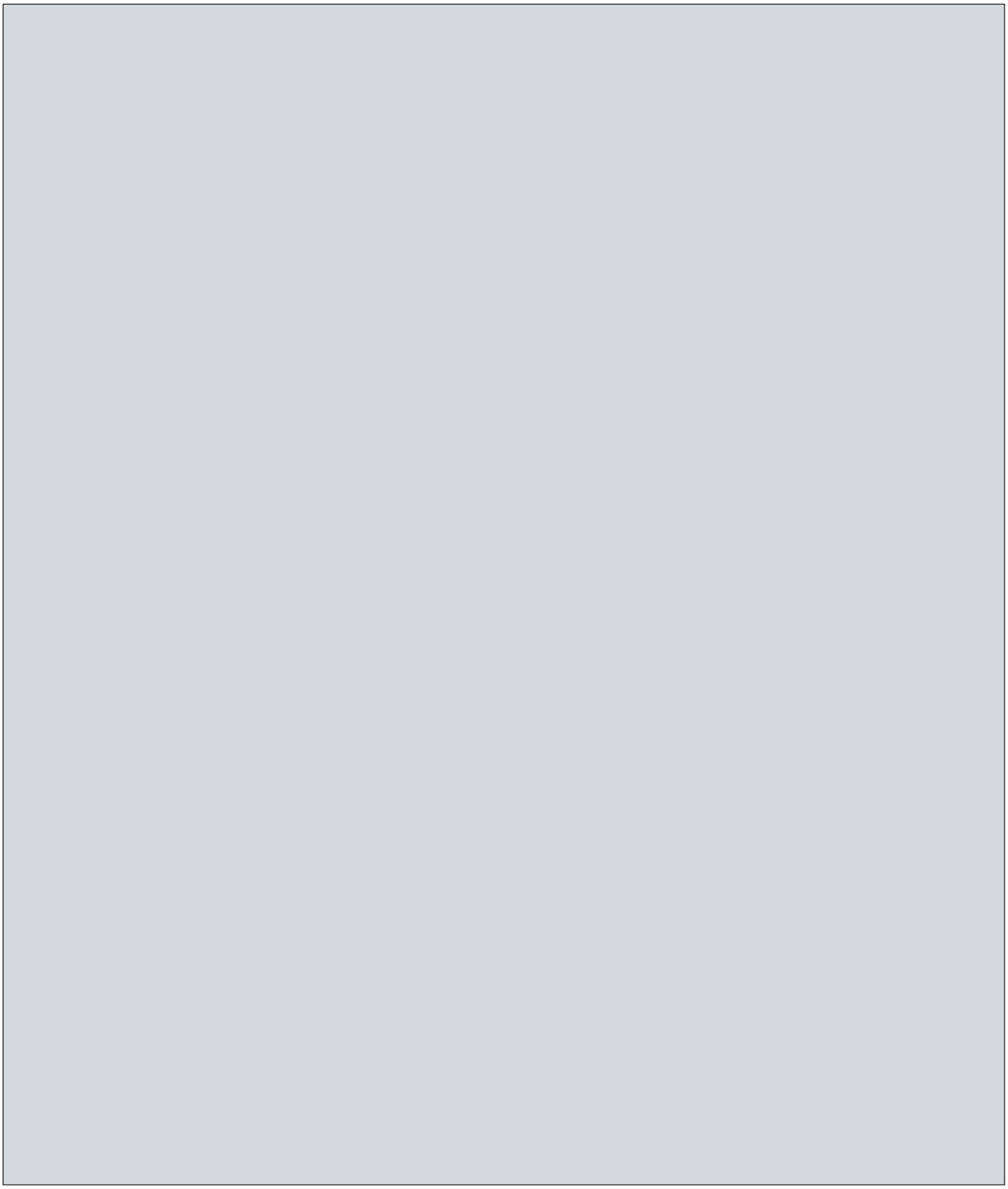
1.재료탐색 후 구상하기

2.자연물 드로잉하여 편칭하기

3.배경 자연공간 드로잉하기

4.조립하기

5.작품완성하여 감상하기



참 고 자 료

2006~2018

GLASS BOX ARTSTAR

유리상자-아트스타11년 설치미술展 참고자료

■ 유리상자-아트스타 설치미술11년(2007-2017) History

2006~2007 유리상자의 시작

2006 도시 소문화 살리기 프로젝트, 유리상자
경북대디지털아트컨텐츠연구소-빛으로 그린 도시인의 꿈과 삶(2006.12.21-2007.1.20)
2007 도시 작은문화 살리기 프로젝트, 유리상자-스튜디오
하광석-영상미술 스튜디오(2007.3.27- 4.21)
2007 작가와 함께하는 미술체험 퍼포먼스
박지현-미술놀이, 생일이야기(2007.5. 5- 6.21)

2007

Ver.09 하지원 & 이소연-soya와 haji의 스튜디오(9.5-9.29)
Ver.10 김지훈-김지훈의 스튜디오를 들여다 보다(10.5-11.3)
Ver.11 김영희-유치찬란한 영희의 스튜디오(11.9-12. 8)

2008

Ver. 1 이장우-호접몽(4.24-5.25) / 코디네이터 김봉수 / 김옥렬글
Ver. 2 정민제-원더랜드(7.12-8.3) / 코디네이터 김은영 / 최창윤글
Ver. 3 한유민-光大(9.2-9.28) / 코디네이터 정은영 / 홍준화글
Ver. 4 정세용-Flying Machine(10.25-11.16) / 코디네이터 이소향 / 남인숙글
Ver. 5 신경애-neutral(11.22-12.14) / 코디네이터 카와타츠요시 / 배태주글
Ver. 6 강윤정-Draw-Crevice(12.23-1.25) / 코디네이터 황현진 / 윤규홍글

2009

Ver. 1 조용호-ECHO(3.17-4.12) / 코디네이터 하은미 / 홍준화글
Ver. 2 김정희-세제곱(4.24-5.31) / 코디네이터 이봉욱 / 김태곤글
Ver. 3 권남득-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6.11-7.12) / 코디네이터 권순자 / 권순자글
Ver. 4 허남준-ART STAR MIRROR BALL(7.14-8.30) / 코디네이터 편재민 / 김종호글
Ver. 5 로리킴-Rising Dreams(9.11-10.11) / 코디네이터 박나라 / 서영옥글
Ver. 6 이상헌-기억 잡기(10.23-11.29) / 코디네이터 서희주 / 양준호글
Ver. 7 정재훈-WHITE OUT(12.11-1.17) / 코디네이터 손영복 / 최창윤글

2010

Ver. 1 하원식-조각난 풍경(3.19-4.25) / 코디네이터 이봉욱 / 양준호글
Ver. 2 정은기-하늘 놀이(5.7-6.13) / 코디네이터 정세용 / 김영동글
Ver. 3 손영복-Colorful palace(6.25-8.1) / 코디네이터 정재훈 / 최창윤글
Ver. 4 김소영-환(環)이 만들어내는 환(幻)(8.13-9.12) / 코디네이터 홍찬근 / 배태주글
Ver. 5 김 현-Dice Cast Dice Cast(10.1-10.31) / 코디네이터 이봉욱 / 홍준화글
Ver. 6 김미련-Monumental Aircoat in Glassbox(11.12-12.12) / 코디네이터 박태호 / 김영동글
Ver. 7 이준욱-A Vehicle(12.24-1.30) / 코디네이터 이지혜 / 윤규홍글

2011

Ver. 1 김홍기-꽃(2.25-4.3) / 코디네이터 조미경 / 양준호글
Ver. 2 장 미:M-Artist Room(4.15- 5.22) / 코디네이터 안유진 / 홍준화글
Ver. 3 김철환-내가 생산한 것+사람들이 생산한 것(6.3- 7.10) / 코디네이터 유기태 / 김옥렬글
Ver. 4 강민정-Happy Skin Studio(7.22- 9.4) / 코디네이터 박지영 / 윤규홍글
Ver. 5 조경희-Blindly(9.23- 10.23) / 코디네이터 김 현 / 최창윤글
Ver. 6 이시영-BECOMING BIRDS(11.4-12.11) / 코디네이터 정기엽 / 서영옥글
Ver. 7 김승현-House is not a home-series 'empty'(12.23-1.29) / 코디네이터 황현호 / 김영동글

2012

Ver. 1 정기엽-유리 • 물 • 안개 • 소리(2.24-4.1) / 코디네이터 이시영 / 박소영글
Ver. 2 최수남-허물을 벗다(4.13-5.20) / 코디네이터 박철호 / 서영옥글
Ver. 3 박정현-aA : from art to Architecture(6.1-7.8) / 코디네이터 노경환, 유창재 / 김옥렬글
Ver. 4 권재현-매달린 ▽'(7.20-9.2) / 코디네이터 권문순 / 최규글
Ver. 5 이지영-Framing_Reflected Reality(9.14-10.21)/ 코디네이터 정지연 / 배태주글
Ver. 6 김안나-Out/In the Universe(11.2-12.9) / 코디네이터 강선구 / 최창윤글
Ver. 7 윤동희-망령(12.21-1.27) / 코디네이터 김승현 / 윤규홍글

2013

Ver. 1 백장미-RE:BORN (The solid city)(3.1- 4.7) / 코디네이터 이은희 / 최창윤글
Ver. 2 신강호-Link(4.19-5.26) / 코디네이터 임영규 / 서영옥글
Ver. 3 전새봄-현묘(玄妙)한 집(6.7-7.14) / 코디네이터 권세진 / 김옥렬글
Ver. 4 이재호-모여라 꿈동산(7.26-9.1) / 코디네이터 박민경 / 권성아글
Ver. 5 서상희-그곳, 집 (9.13-10.20)/ 코디네이터 석아름 / 정명주글
Ver. 6 우재오-나를 위한 위로(11.1-12.8) / 코디네이터 김안나 / 배태주글
Ver. 7 이소진-어느...파쿤의 성(12.20-1.26) / 코디네이터 이은재 / 윤규홍글

2014

Ver. 1 로미아키투브-Memory's Stain 기억의 흔적(2.14-4.13) / 코디네이터 김기수 / 김기수글
Ver. 2 배문경-Cloned me(4.25-6.22) / 코디네이터 서현규 / 박연숙글
Ver. 3 Rohan-우리 인생의 특정 시점에 특별한 영향을…(7.4-8.31) / 코디네이터 김아람 / 윤규홍글
Ver. 4 서성훈-반야월 4.0 LIVE(9.19-11.16) / 코디네이터 이경호 / 배태주글
Ver. 5 정혜련-연쇄적 가능성 Serial possibility(11.28-1.25) / 코디네이터 김수진 / 이영준글

2015

Ver. 1 최 선-자홍색 회화(2.20-4.19) / 코디네이터 유은순 / 송정훈글
Ver. 2 홍희령-나는 모르는 일이오(5.1-6.28) / 코디네이터 이희령 / 최규글
Ver. 3 이창진: 수평-Water always find it's own lever(7.10-9.6) / 코디네이터 이승희 / 남인숙글
Ver. 4 Studio1750+정혜숙-Flower Juice(9.18-11.15) / 코디네이터 정혜숙 / 김옥렬글
Ver. 5 오지연: 감정세포-아름다운 짐(11.27-1.24) / 코디네이터 박준식 / 윤규홍글

2016

Ver. 1 이지현: dreaming book-바다(2.19-4.17) / 코디네이터 이경우 / 김용민글
Ver. 2 제이미리-여름 소나기(4.29-6.19) / 코디네이터 장세영 / 김옥렬글
Ver. 3 김윤경 & 박보정-하얀방White Void Room(7.1-8.21) / 코디네이터 윤현정 / 강효연글
Ver. 4 김문석: 無題-허공에 붓질을 걸다(9.2-10.23) / 코디네이터 손노리 / 남인숙글
Ver. 5 이규홍-Silence in Nature자연의 침묵(11.4-12.24) / 코디네이터 박성원 / 양영은글

2017

Ver. 1 정승혜-달무지개 Moonbow(1.20-3.19) / 코디네이터 정승현 / 강효연글
Ver. 2 임용진-기록, 캐스팅(3.31-5.28) / 코디네이터 정석영 / 윤규홍글
Ver. 3 권효정-Oasis: Fountain of life(6.9-8.6) / 코디네이터 박수연 / 하윤주글
Ver. 4 이선희×정연지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8.18-10.15) / 코디네이터 김미교 / 김옥렬글
Ver. 5 이기철, 토끼시대-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10.27-12.24) / 코디네이터 홍종기 / 김영동글

2018 현재

Ver. 1 홍정욱-nor(1.12-3.18) / 코디네이터 김효정 / 송요비 글
Ver. 2 박경제-345kV(3.30-5.27) / 코디네이터 김동진 / 윤규홍 글
Ver. 3 정혜숙-조감도鳥感島(6.8-8.12) / 코디네이터 손진희 / 박소영 글

'유리상자'의 시작

2006~2007

GLASS BOX

유리상자

2006

도시 소문화 살리기 프로젝트, 유리상자

경북대디지털아트컨텐츠연구소-빛으로 그린 도시인의 꿈과 삶

2006.12.21 - 2007.1.20

2007

도시 작은문화 살리기 프로젝트, 유리상자-스튜디오

하광석-영상미술 스튜디오

2007. 3.27- 4.21

2007

작가와 함께하는 미술체험 퍼포먼스

박지현-미술놀이, 생일이야기

2007. 5. 5- 6.21

전시는 사면이 유리로 만들어진 공간적 특수성을 살린 영상설치전시로서 전시장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는 '쇼 윈도우' 관람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프로젝트의 주제는 어떤 「유리상자」에 대한 해석입니다. 기본 키워드인 이 「유리상자」는 다치기 쉬운 소규모 문화예술을 살리려는 시도들을 상징화 한 것입니다. 도시에서 생산 소비되는 각양각색의 소규모 문화 콘텐츠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이 프로젝트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가치의 재발견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점차적인 변화와 증폭 활성화를 실천한다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전략입니다.

'유리상자를 통해 도시인의 꿈을 들여다본다면?', '도시인의 꿈은 유리처럼 깨지기 쉬운가?', '유리상자를 통해 내 꿈을 네게 보여준다면?'

창작의 산실인 스튜디오를 작은 문화공간으로 설정, 유리상자 속을 들여다보듯이 '스튜디오'를 주제로 한 작은문화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하여 예술의 이해와 상호소통에 한발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2006 봉산문화회관 특별기획

도시 소문화 살리기 프로젝터-유리상자

경북디지털아트컨텐츠연구(IDAC)

영상설치감독 류재하

2006.12.21 THU ~ 2007.1.20 SAT 아트스페이스

영상설치: 빛으로 그린 도시인의 꿈과 삶

이번 프로젝트의 주제인 「유리상자」에서 연상되는 이미지는 먼저 유리벽면의 투명성이다. 이 투명한 공간은 유리벽면에 의해 외부와 단절되어 있지만 시각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감상자를 향해 적극적으로 열려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간절하게 소통하기를 원하지만 보이지 않는 벽을 하나씩 안고 살아가는 우리네 도시인의 삶을 닮은 유리상자.
출품작은 크게 샹들리에 형상의 영상물 구조체와 공간을 떠도는 레이저 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샹들리에 형상은 유리상자와 영상물을 결합시키는 적절한 구조체를 고안하는 가운데 구상하게 되었다. 야외 전시와 다름없는 외부에서 작품을 감상하게 되는 제한된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끌어당길 수 있는 구조체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샹들리에는 본래 어두운 공간에 빛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조명인데 영상 이미지는 빛이 그려내는 가상현실이므로 우연히 형상과 이미지가 서로 조화를 이루게 되었다. 즉 각각의 영상 이미지들은 빛에 해당되고 영상을 담는 그릇이 샹들리에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레이저의 사용 또한 유리라는 물질의 물성을 해석하고 있는데 유리는 '고전성'과 '현대성'이라는 극단적으로 상반된 두 가지 관념이 내재되어 있다. 말하자면 건축에 있어서 스탠드글라스를 통해 비치는 신비로운 빛은 유리의 고전성을 또한 안과 밖, 형식과 내용의 해체를 지향하는 현대 건축에서의 유리는 현대성을 상징한다. 이와 같은 유리의 양면성을 첨단 기술의 레이저가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즉 레이저는 마치 스탠드글라스로 통과한 신성한 빛처럼 신비스러운 공간을 연출함으로써 고전성을 표현함과 동시에 첨단 기술과 미술의 접목이라는 현대성을 표출한다.

결국 이번 출품작에서 시선을 집중시키려는 단순한 의도에서 시작된 구조체 만들기는 유리상자의 시각적인 부분을, 나아가 레이저의 이용은 유리라는 물질의 물성을 반영함으로써 도시인의 꿈과 삶을 그려내고 있다.

-경북대학교 디지털 아트 컨텐츠 연구소-

「유리상자」에 대한 해설

도시를 생각하면서 인간적인 공간을 이야기하고,작은 공간을 떠올린다.'도시 소문화 살리기 프로젝트-「유리상자」'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상은 마치 발가벗겨져 허공에 떠도는 인간을 작은 투명상자에 담아내는 듯한 느낌이다. 예술은 작은 관심에서 출발한다. 가치에 대한 인식의 전환…, 그리고 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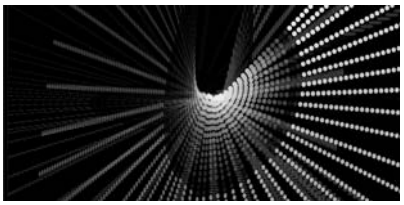
2006 봉산문화회관 특별기획 '도시 소문화 살리기 프로젝트 -「유리상자」'는 1개의 전시와 5개의 공연으로 이루어지며, 전시는 사면이 유리로 만들어진 특별한 공간에서 진행되는 영상설치전시로서 전시장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는 '쇼 윈도우' 관람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공연은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대중성과 독특한 예술성을 갖춘 소공연장용 작품들을 선정, 출연진의 자세한 공연해설과 함께 관객과 출연진이 밀착 상호작용하는 공간적 특수성을 만끽할 수 있도록 진행됩니다.

이 프로젝트의 주제는 어떤 「유리상자」에 대한 해석입니다. 기본 키워드인 이 「유리상자」는 다치기 쉬운 소규모 문화예술을 살리려는 시도들을 상징화 한 것입니다. 도시에서 생산 소비되는 각양각색의 소규모 문화 콘텐츠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이 프로젝트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가치의 재발견에서 출발합니다. 6가지 색상으로 소개되는 참여작(현대무용, 연극, 모노드라마, 힙합, 마임, 영상설치 등 공연과 전시)들을 통하여 소공연물에 대한 관객들의 감동과 격려를 끌어내고, 점차적인 변화와 증폭 활성화를 실천한다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전략입니다.

'유리상자를 통해 도시인의 꿈을 들여다본다면?', '도시인의 꿈은 유리처럼 깨지기 쉬운가?', '유리상자를 통해 내 꿈을 네게 보여준다면?'

각각의 참여작들은 유리상자에 담겨진 '도시인의 꿈', 즉 다치기 쉽고 작지만 소중한 보석들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도시인의 이상과 갈증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는 점 외에도 코앞에서 공연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소공간 자체의 매력과 함께 도시 소문화에 대한 진지한 생각들을 적극적으로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아마도 관객은 일상 세계 저편에서 들려오는 작은 울림에 감탄하며 「유리상자」의 매력에 깊이 매료 될 것입니다.

-정종구-



2007 봉산문화회관 기획

도시 작은문화 살리기 프로젝터「2007유리상자」-스튜디오

Ha, Kwangsuk

2007.3.27 Tue ~ 4.21 Sat 아트스페이스

영상미술 스튜디오-영상설치

기본 키워드인 「유리상자」는 다치기 쉬운 소규모의 문화예술을 살리려는 시도들을 상징화 한 것입니다.
도시에서 생산 소비되는 각양각색의 소규모 문화 콘텐츠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이 프로젝트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가치의 재발견에서 출발합니다. 참여작들을 통하여 공연 전시 창작물에 대한 관객들의 사랑과 감동을 끌어내고, 점차적인 변화와 증폭 활성화를 실천한다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전략입니다.
각각의 참여 작품들은 유리상자에 담겨진 '스튜디오-예술가의 꿈'에 대하여, 즉 다치기 쉽고 작지만 소중한 보석들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유리상자를 통해 예술가의 이상을 들여다본다면?', '예술가의 꿈은 유리처럼 깨지기 쉬울까?', '유리상자를 통해 내 꿈을 네게 보여줄 수 있다면?'

예술가의 '스튜디오'는 예술가 자신이 이해하는 세상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생의 자각에 이르기 위한 인간의 삶과 다양한 사유 그리고 신념으로 읽혀지는 예술작품들은 세상의 은유이고, 그 은유들은 예술가 자신이 몸담고 있는 스튜디오로부터 그 터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술가의 스튜디오를 통하여 세상의 일면을 들여다 볼 수 있다면, 유리 상자를 통해 들여다보는 세상을 연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대성은 예술 창작물만이 아니라 스튜디오에서도 발견됩니다. 이제 동시대 예술가의 작은 개인 공간이 소통의 공간으로 변모되어 갑니다. 이번 기획은 동시대 예술가들의 스튜디오를 작은 문화공간으로 설정하고, 이를 통해 그 비밀스러운 '창작-세상보기' 흔적들을 들여다보며 그 예술적 특질의 소통을 일깨우는 우리 스스로의 예술적 삶 가꾸기 과정입니다.

유리상자에 담겨진 소중한 보석을 들여다보듯 관객들이 '2007유리상자-스튜디오'를 만난다면, 아마도 일상 세계 저편에서 들려오는 대화소리에 감탄하며 깊은 동감을 표하게 될 것입니다.

-정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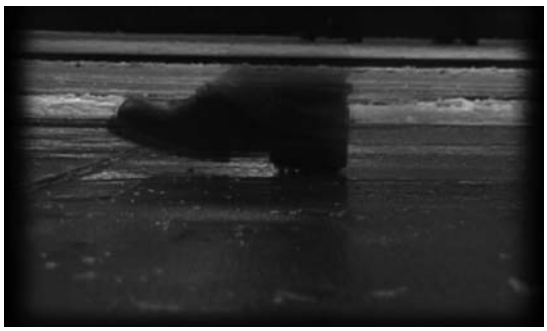
작가노트

전시장에 누군가가 가지런히 벗어둔 신발이 놓여 있다. 그리고 살인마처럼 굉음을 내면서 스쳐가는 자동차 소리가 공간을 메운다. 놓인 신발에는 굉음을 내면서 지나가는 자동차의 불빛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스쳐가는 자동차 소리에 맞추어 길어 졌다가 짧아 졌다 하고 있다.

현대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존재하고 있으나 그 존재성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 가상을 부여하여 비현실성의 존재를 드러내고자 한다. 작품 속 신발은 물리적으로 존재하나 신발에 그림자를 드리우는 자동차는 그 공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그래서 관객은 마치 주인 잃은 신발만 남겨둔 어느 도로에 서서, 바로 이 전의 지나간 시간을 상상 하면서 같은 공간에서 서로 다른 시간과 다른 공간이 존재 하고 있음을….

나는 이 비디오 설치 작업으로 실제 물체들을 통하여 표현되지 않는 가속과 감속, 존재와 부재, 현실과 비현실, 제한과 자유 등의 표현 언어들을 넘나들면서 시간과 물질을 통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해서, 일상적인 오브제의 보편적 이미지의 관념 또는 제한성을 지적하고, 시간과 물질에 대한 극히 일상적인 선입관들을 다각적으로 재해석 하고자 한다.

-하광석-



Spacial Sojourn 070323 Video Installation, Shoes, DVD, Video Projector, Sound, 2007

2007 봉산문화회관 기획

작가와 함께하는 미술체험 퍼포먼스

Park, Jihyun

2007.5.5 Sat ~ 6.21 Thu 아트스페이스

Birthday Story 미술놀이-생일이야기

「유리상자」라는 특수한 전시공간 안에서 '일상의 삶'과 '소통'을 조형화한 설치미술전시가 열린다. 유리벽을 통하여 작품을 들여다보고, 정해진 기간 동안은 유리상자 안으로 들어가 몸으로 체험하는 이번 설치미술전시의 제목은 '미술놀이-생일이야기'이다. 일상속의 미술을 놀이로 보는 이번 전시는 세상에서 제일소중한 당신의 탄생을 이야기 소재로 삼아 상실감과 막막함으로 정체성을 잃어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긍정적 에너지로 제시한다. 전시장 안은 목조각(올방쟁이, 바람개비), 형컾인형, 밀랍인형, 나뭇가지, 천, 옛날 놀이기구 등 작가가 일상생활(작업)에서 사용하고 만들었던 사물들로 설치되어있다.

매주 일요일 오후에는 작은 동화인형극과 라이어 시연, 라이겐(손유희), 밀랍인형체험, 양모로 인형 만들기 등 관람객 남녀노소 누구나 무료로 체험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준비된다. 이런 체험과정이 곧 전시작품의 제작과정이고 관람객과 함께 완성하는 설치미술전시인 것이다. 이것은 작가의 일상적 삶이 전시를 통하여 작품으로 완성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정종구-

작가노트

난 소나무로 태어났는데 주위에선 자꾸만 버드나무, 배나무, 사과나무가 되라고 한다.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삶을 말이다. 작업을 해가면서 나도, 너도 아닌 삶에서 결핍되었던 것들을 한 가지씩 체험해가면서 채워나간다. 따뜻하고 포근한 촉감의 양모를 만지면서, 느끼면서, 인간의 발달단계에 따른 이론과 실제를 경험하면서, 나무를 조각해 가면서 그동안 현대미술 작업을 진행해 가며 왠지 막막함과 허탈감을 느꼈던 그 정체를 찾게 되었다. 그건 다름 아닌 본질의 상실감이었다. 그렇게 3년을 보냈다. 이번 설치작업을 하면서 안정감을 느꼈고 평안함에 이어 행복감까지 맛본다. 나는 이번 「미술놀이 - 생일 이야기」전을 통하여 방치해 두었던 우리 인간의 본질인 따뜻함과 보살핌에 대한 관심을 일상과 연결시키는 방법을 발견해나가고 있다.

-박지현-

2007

GLASS BOX STUDIO

2007유리상자-스튜디오

Ver.09
하지원 & 이소연-soya와 haji의 스튜디오
9. 5- 9.29

Ver.10
김지훈-김지훈의 스튜디오를 들여다 보다
10. 5-11. 3

Ver.11
김영희-유치찬란한 영희의 스튜디오
11. 9-12. 8

봉산문화회관에서는 설치·영상미술문화의 창조적 발전을 선도하고, 유리벽 속을 들여다보는 전시방식을 통해 도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넓혀나가기 위하여 지난 2007년 3월 작가공모를 실시하였으며, 공모에 의해 선정된 참신하고 역량 있는 작가들의 설치작품전시를 개최합니다.
「2007 유리상자 - 스튜디오」展은 봉산문화회관 자체기획으로 2006년 12월21일부터 시작된「도시작은문화살리기 프로젝트 - 유리상자」의 연장선상에서 기획되었으며, '미술창작스튜디오 만들기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젊은 미술가의 작업현장을 들여다보려는 지속적인 시도입니다.
이번 전시의 주된 매력은 톡톡 튀는 발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젊은 예술가의 실험적 사고를 가까이 느껴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업성에 물들지 않은 참신하고 다양한 철학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4면이 유리로 만들어진 전시장소(2층 아트스페이스)의 장소특수성을 기초로 하여 '미술창작스튜디오 들여다보기'를 연출한 설치작품은 패기 있는 신인작가의 힘과 열정을 느끼게 해줍니다.

기획공모 선정작가展

2007유리상자 - 스튜디오 Ver.09

Ha, Jiwon & Lee, Soyeon

2007.9.5Wed ~ 9.29Sat 아트스페이스 (2F)

soya와haji의 스튜디오를 들여다보다

전시소개

「2007 유리상자 - 스튜디오」Ver.09展은 봉산문화회관 자체 기획인 「도시작은문화살리기 프로젝트 - 유리상자」의 연장선상에서, 젊은 미술가의 작업현장을 들여다보려는 지속적인 시도이다.

이번 전시의 주된 매력은 특특 튀는 발상을 가지고 있는 젊은 예술가의 실험 정신을 가까이 느껴 볼 수 있는 것이다. 상업성에 물들지 않은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4면이 유리로 만들어진 전시장소(아트스페이스)의 장소특수성을 기초로 하여 '창작스튜디오 들여다보기'를 연출한 설치작품은 패기 있는 신인작가의 힘과 열정을 느끼게 해준다.

전시방식은 관람객이 전시 공간 밖에서 안을 관람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작가가 직접 목재 합판과 골판지 등으로 구조물(집)을 만들고 그 위에 페인팅 하여 '성'이나 '문' 이미지를 형상화하여 선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설치된 작품과는 별도로 정해진(2007.8.18~9.22) 일정 시간대에는 전시장을 이탈하여 임의의 도시 한구석을 전시장처럼 사용하는 개방형 전시방식(게릴라展 '야반도전')을 도입하여 실천한다. 작가의 계획과 행위과정, 시도, 실천 등이 이번전시의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생각과 실천이 전시의 내용이 되는 것. 의기투합을 통하여 공동으로 참여하는 2명의 신인미술가는 '가보지 못한 길', '존재하지 않은 세계'를 그들만의 조형언어로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기획은 봉산문화회관이 시행하는 젊은 작가 지원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앞으로도 다양하고 지속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정종구-

작가노트

'유리상자' 안에 주어진 공간에 실제 존재하는 작가의 스튜디오가 아닌 가상의 스튜디오를 만들고자 한다. 그 가상의 작업실을 통해 작품을 제작하고 보여주고, 토론하고, 수행하는 공간이 되면서 전시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자 한다. 갤러리라는 곳이 결과물에 대한 전시 목적이 아닌, 그곳에서 작업을 행하고 다른 전시를 위해 준비되어지는 가장 현실적인 작업실을 보여 주고자 한다.

'유리상자' 속의 공간에서 이루어진 작업들은 다시 '야반도전'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동성로의 작은 골목길이나 일상생활속의 공간에 전시를 함으로써 현실과 가까우면서도 예술에 대한 열정이 사방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유리상자'와 '야반도전' 두개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관람객들에게 재미를 주고 또한 자연스럽게 전시장으로 유도 하고자 한다. 이번 전시는 '적극적으로 다가가기'와 '시각적 자극을 지속적으로 주는 것' 이라는 결론을 가지고 시각적인 작업의 진행과정과 결과를 볼 수 있게끔 할 예정이다.

-하지원&이소연-

기획공모 선정작가展

2007유리상자 - 스튜디오 Ver.10

Kim, Jihoon

2007.**10.5**Fri ~ **11.3**Sat 아트스페이스 (2F)

김지훈의 스튜디오를 들여다보다

HOLE-고립된공간

나는 내가 생활했던 지하공간이 나의 형태 공간의 인식방법이나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자주 발견한다. 나는 지하에서의 주거를 어떤 구덩이에 빠진 상황으로 인식했고 위태로운 공간에 고립으로 인식했다. 이러한 공간적 조건은 삶을 구성하는 요소이며 삶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기능한다. 지하에서 외부세계를 올려다봐야 함은 햇볕과 외부 세상과의 교감에서 고립됐다는 부정적 사고를 자리 잡게 한다. 이런 정서는 자신과 타인의 관계를 동등한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타인들과 동화할 수 없는 고립상태에 빠지게 해 개인의 소외감을 증폭시키게 된다.
자본주의적 논리에 의한 공간배치는 주거지를 분화하고 공간의 독과점을 유발한다. 현실에서 공간 점유와 방어의 능력을 상실한 개인은 구석으로 내몰리게 되고 정체된 장소에서의 고립감에 휩싸인다. 이것은 고립된 공간의 소외를 조장하고 고립을 고착화 시킨다. 동시에 고립된 공간에 근거하는 개인에게도 사회와 대립하고 갈등하는 원인으로, 삶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기능하게 된다.
지하공간에의 창은 주로 정상적이지 않다. 대부분 좁고 낮으며 그 위치도 천청에 붙어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안에서는 지면에 근접한 공간만을 주로 보게 된다. 그 창으로 바깥세상을 본다면, 세상을 제한된 시각으로 바라보기 쉽다. 벗어날 수 없는 공간에서 좁은 틈이나 낮은 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것은 굴절된 소통을 야기하고 그릇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도록 조장한다.

작업은 지하에 깊숙이 파인 구덩이(지하공간)를 지상으로 끌어 올려서 그 공간과 형태의 재현을 기본으로 했다. 형태가 놓여지는 바닥이나 벽이라는 기본을 가변적인 것으로 만들면서,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숨어있는 형태를 드러내고자 했다. 구덩이는 반대로 분출이 될 수 있고, 들어간다는 것은 반대로 나온다는 것이 된다. 즉 부정적 시각으로 음각의 고립된 공간만을 인식하던 것을 벗어나 긍정적 시각으로 양각의 고립의 형태를 보려고 했다.

흡수와 구속을 강조할 수 있는 형태와 질감을 사용하여 고립을 강조하고 형태 자체를 위태롭게 설치해서 스스로의 무게로 인해 공간이 위협받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인해 더욱 불안정해지는 공간을 제시했다. 고립의 입구는 매끄러운 곡선으로, 빠져 들어가는 강한 흡입력을 가지지만 다시 빠져나올 수 없게 한다. 고립된 공간에 제시되는 고립의 성격은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출구에서 드러난다. 세상을 향한 고립에서 출구가 정상적이라면 그것은 고립이 아니라 안식일 것이다. 비정상적인 출구를 만들어 그 공간이 고립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결함과 벗어날 수 없는 모순을 강조했다. 고립된 공간에서 밖으로의 공간을 제한적으로 열어두었다. 벗어날 수 없는 공간에서 좁고 낮은 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했다. 반대로 밖에서는 그 틈이 고립된 공간을 완전히 관찰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 따라서 고립된 공간은 숨어있지만 오히려 노출되는 모순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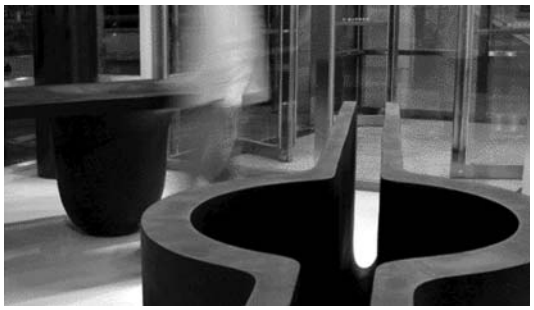
-김지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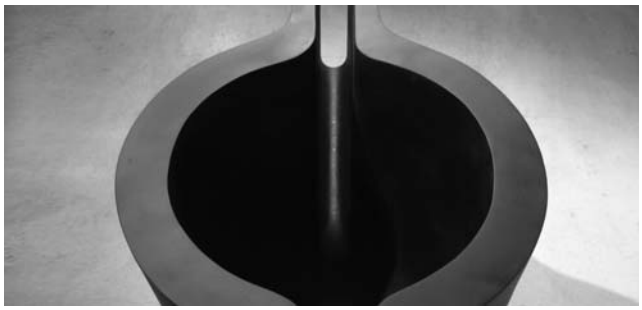
전시소개

전시방식은 관람객이 전시 공간 밖에서 안을 관람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작가가 직접 제작 출품한 'HOLE(2,420*810*1,000mm FRP PVC 콘크리트 2006)'은 고립된 공간인 작가의 작업실을 조형화 한 것이다. 작가가 생각하는 '미술창작스튜디오'는 어떻게 보면 고립된 공간일 수 있다. 작가가 생활했던 지하 작업실 공간이 자신의 인식방법(공간)이나 형태에 대한 인식)이나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발견하고, 공간적 조건이나 환경이 삶을 구성하는 요소이자 삶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기능한다.

작가가 표현하는 '고립'과 '소외', 그리고 '노출'에 대한 조형적 감성을 감상할 수 있으며 스튜디오에 대한 다양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전시기간 중 10월12일(금)과 10월19일(금)은 오후 6시에 작가를 직접 만나 설명과 해설을 들을 수 있다.
이 기획은 용산문화회관이 시행하는 젊은 작가 지원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앞으로도 다양하고 지속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정종구-





HOLE FRP PVC 콘크리트, 2.42X0.81X1m, 2006

기획공모 선정작가展

2007유리상자 - 스튜디오 Ver.11

Kim, Younghee

2007.11.9Fri ~ 12.8Sat 아트스페이스 (2F)

'유치찬란한 영희의 스튜디오(꿈)' 들여다보기

'영희' 캐릭터 란? 지극히 동양적인 얼굴, 눈으로 무언가 찾아보는 걸 좋아하여 만들어진 캐릭터이다.

어렸을 때부터 잡지 모델이 되어 화려한 옷과 번쩍이는 후레쉬에 쏟아지는 카메라 세계, 카멜레온 메이크업을 하고 많은 사랑이 날 알아주고 주목받기를 꿈꿔왔다. 하지만 잡지 모델은 기본 조건이 있다. 하나의 틀처럼 키는 얼마만큼 이상 얼굴은 작아야 하고 마른 몸은 필수. 난 그런 조건에 단하나 속하지 않는다. 둥글고 납작한 얼굴 낮은 코 작은 눈 난 전통적인 동양인의 북방계 얼굴이다. 난 모델이 되고 싶고 이대로 아름다워 지고 싶고 꿈을 이루고 싶다. 남들처럼 상품화된 얼굴로 만들기 싫고 부모님이 물려주신 나의 얼굴. 고정관념과 편견들에서 벗어나 하나의 개성 있는 '나' 자신을 표현하고 싶다.

나의 꿈을 '영희' 캐릭터를 이용하여 실현한다. 잡지 속 모델들을 모두 '납작이 영희'로 바꾸어 다양한 포즈와 화려한 의상들로 표현한다. '유리상자' 속에는 영희 모델의 패션쇼를 보러 온다. 이 공간에서는 영희가 아름다움의 기준이고 사람들은 영희에게 매료된다. 영희 모델의 패션쇼를 보듯 사람들이 감상하며 사진을 찍고 들여 다 본다.

-김영희-

전시소개

유리상자 '유치찬란한 영희의 스튜디오'展은 봉산문화회관 자체기획으로 2006년 12월21일부터 시작된「도시작은문화살리기 프로젝트 - 유리상자」의 연장선상에서 기획되었으며, '미술창작스튜디오 만들기'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젊은 미술가의 작업현장을 들여다보려는 지속적인 시도이다.

이번 전시의 매력은 젊은 감성을 중심으로 톡톡 튀는 발상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어가는 젊은 예술가의 실험적 사고를 느껴 볼 수 있다는 점이다. 키치kitsch처럼 보이기도 하는 유치찬란한 이미지들 혹은 재기발랄한 작업과 화려한색상의 작업실 모습에서 작가 김영희의 독특한 아이디어와 생활을 접할 수 있다. 4면이 유리로 만들어진 전시장소(2층 아트스페이스: 유리상자)의 장소특수성을 기초로 하여 '미술창작스튜디오 들여다보기'를 연출한 설치작업은 화려한 꿈을 꾸고 있는 신인작가의 재치와 색다른 감성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전시방식은 관람객이 전시 공간 밖에서 안을 관람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작가가 직접 제작 출품한 'virus(와이러스)가변설치 필름지, 펜, 비즈 2005', 'virus(와이러스)2,000×1,000mm 종이 위에 아크릴 2006'는 작가 자신의 꿈미래형, 과거형, 현재형에 대한 다양하고 엉뚱한 상상들을 유리상자 스튜디오에 선물처럼 꽉 채워 일반 시민들이 즐길 수 있게 한다. 천정으로부터 늘어뜨려 내린 '비즈발'은 패션쇼를 연상시키는 길처럼 보인다. 공간 속의 길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꿈의 통로일 것이다. 화려한 그림과 다양한 드로잉들이 책상 위와 벽면에 자유롭게 배치된다. 이러한 공간 연출은 작가의 작업실을 시각화 한 것이며, 그 비밀스러운 공간 속으로 들어와 아이디어 스케치를 구경하고 함께 즐기고 싶은 관객의 마음을 읽어내는 작가의 배려가 함께 묻어있다. 작가는 분위기에 어울리는 음악과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면서 관객과 유리상자 속의 작품이 자연스러운 일상의 풍경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리고 함께 꿈과 희망을 그려볼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작가가 생각하는 '미술창작스튜디오'는 어떻게 보면 꿈과 상상의 공간일 수 있다.
작가가 생활하고 있는 작업실 공간이 자신의 상상공간이며, 현실과는 무관한 '꿈 꾸기' 공간임을 주장하는 이 전시는 세상의 일부이면서 동시에 세상의 빈곳을 채워주는 공간으로서 스튜디오를 말하는 듯하다.
작가가 표현하는 '화려함'과 '주목', 그리고 '엉뚱한 상상'에 대한 조형적 감성을 감상할 수 있으며 스튜디오에 대한 다양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전시기간 중 11월16일(금)과 11월23일(금)은 오후 6시30분에 작가를 직접 만나 설명과 해설을 들을 수 있다.

이 기획은 봉산문화회관이 시행하는 젊은 작가 지원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앞으로도 다양하고 지속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정종구-

2008

GLASS BOX ARTSTAR

2008유리상자-아트스타

Ver. 1
이장우-호접몽
4.24- 5.25

Ver. 2
정민제-원더랜드
7.12- 8.3

Ver. 3
한유민-光大
9. 2- 9.28

Ver. 4
정세용-Flying Machine
10.25-11.16

Ver. 5
신경애-neutral
11.22-12.14

Ver. 6
강윤정-Draw-Crevice
12.23- 1.25

봉산문화회관에서 주최하는 「2008유리상자-아트스타」 아티스트 기획공모선정 작가展은 설치·영상미술을 포함한 동시대미술계 스타미술가와 만남에 주목합니다. 2006년부터 자체기획으로 시행하고 있는 「유리상자 Glass Box」프로그램은 4개의 유리벽면으로 구성된 아트스페이스 내부를 들여다보는 장소 특성적인 전시방식으로 시민들의 예술 향유 기회를 넓히고, 열정적이고 참신한 예술가들에게는 특별한 미술창작지원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공모전시의 주제이기도 한 '스타★미술가와 만남'은 미술이 지닌 '공공성'에 주목하고 미술가의 공익적인 태도와 역할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미술가의 공공성이 다수의 관심과 지지자를 확보하면서 대중적 '스타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의 특징이기도한 코디네이터제는 작가와 코디네이터가 전시 준비과정을 함께함으로써 미술가의 스타성과 스타 만들기에 일조하는 협력자의 역할을 주목하는 새로운 시도이며, 공모에 관심 있었던 많은 미술가들을 고민하게 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획공모 선정작가展

2008 GLASS BOX ARTSTAR Ver.1

Lee, Jangwoo

유사성의 확장

이장우의 '사이버호접몽(胡蝶夢)'은 꿈과 현실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차이가 아니라, 유사성의 확장에서 출발한다. 이 유사성의 확장은 현실세계와 사이버 세계가 서로 넘나드는 현실적이고 지극히 일상적인 감성위에 축조되어있다. 작가는 서로 다른 것 같지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세계인 가상과 현실을 디지털 영상과 사이보그 반가사유상을 통해 보여주고자 한다. 작가는 현실과 꿈이라는 서로 다른 세계를 장자의 '나비의 꿈'으로 연결시켜 놓는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이장우의 '사이버호접몽'은 인문학적인 사유와 과학적 비전의 지점 어딘가에서 하나의 접점을 만나는 순간 경험하게 되는 '디지털 도인'과의 만남에 대한 설정이다. 이 같은 그의 시도는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사이버 공간과 자신과의 관계에 대한 정체성의 고민에서 출발해 유사성의 확장으로 이어지는 긴 시간 여행이었을 것이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시간여행이고 동양의 철학과 서양의 기술이 만난 장소성에 대한 인식이다. 이 긴 시간여행을 통해 반가사유상과 디지털영상이 만난 '사이버호접몽'은 아주 짧은 한순간의 꿈에 대한 연장이자 유사성의 확장이다.

'반가사유상'과 장자의 '호접몽'은 일상 속에 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해탈의 한 순간일 것이다. 이 순간을 이장우는 '사이버호접몽'이라는 가상을 전제로 보이는 세계를 만져지고 입는 세계로 시각화한다. 그리고 이 순간의 지점(시공간의 불연속성으로 장소를 넘어서 있지만 몸이라는 물리적 장소에서 출발하는 꿈)은 사유하는 인체의 모습을 통해 하나의 변형된, 확장되거나 변형되기도 하는 사이보그를 입은 인체, 이를테면 꿈의 장소와 꿈을 꾸는 주체의 사유를 상징하는 반가사유상이 된다. 사이보그반가사유상은 사이보그호접몽으로 물(物)과 아(我)가 하나가되는 장소다. 이 확장된 꿈의 경험은 몸을 벗는 순간, 다시 말하면 몸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환영과도 같은 것이다.

몸을 통해 사유하지만 몸을 잊어야 온전히 사유할 수 있는 것처럼, 몸과 사유는 서로를 거울처럼 반영하는 관계지만,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구조이기도 하다. 하나인 하나 그 자체가 아니라, 둘이 하나가되는 과정이 포함된, 이를테면 내가 너이고 너를 나로 착각하는 구조가 아니라, 내가 너일 수 있고 너는 나일 수 있는 환영의 구조이자 유사성의 확장이라는 의미에서다. 이 환영의 구조는 사유를 통해/사유가 투영된 물질을 통해 깊거나 넓게 혹은 높거나 멀리 확장되는 시공간적 유영을 하거나/하게끔 이끈다. 내가 가닿을 수 있는 사유의 깊이와 넓이만큼. 어쩌면 예술은 환영을 통해 실현될 수밖에 없는 현실과 꿈의 연장이고 확장일 것이다.

인간의 의식 밑바닥을 지배하고 있는, 스스로의 힘에 의해 질주하는, 그런 세상의 속도감은 상대적으로 개인의 무력감과 권태감을 가중시켜 무상함을 느끼게 한다. 무상함을 가중하는 꿈은 쇠퇴하고 나약한 번민을 갖게 한다. 유사성의 세계에 대한 꿈이 달콤할수록 그 환상이 깨어지는 아픔도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유사성과 교감을 느끼는 수위가 낮은 사람일수록 현실과의 괴리가 좁아지지만, 이 환영과도 같은 유사성에 예민한 사람은 몽상을 쉽게 경험한다. 이런 사람은 명상의 능력뿐 아니라 우울감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래서 행복하면서도 비탄에 잠겨있는 유형의 사람이다. 하지만 유사성을 교감하는 예민한 사람의 의식은 현실적응력이 떨어지는 대신 현실을 그만큼 멀리서 그리고 깊숙이 들여다 볼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

유사성의 확장은 몽상가의 단순한 환상이 아니다. '내가 나비인지 나비가 나인지' 알 수없는 장자의 나비 꿈처럼, 유사성은 현실에 비추어 볼 때는 꿈이지만, 이 환영과도 같은 꿈은 현실의 연장이다. 이장우의 '사이보그호접몽'은 사이보그 반가사유상과 장자의 나비의 꿈이 만나 유사성이 확장된 장소가 된다.

이장우가 '사이버호접몽'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인생이 섬광처럼 한순간 스쳐지나가는 덧없음이 아니라, 예술을 통해 현대를 사유하는 방식이고 태도다. 그것은 디지털 도인을 만난 작가의 경험이 '호접몽'을 통해 드러나는 욕망과 사유의 연장이다. 이를테면 연장된 몸을 통해 확장해 놓은 꿈이다. 이 확장된 꿈은 사유하는 몸이자 동시에 현실인 것이다. 네가 나이고 나는 너일 수 있는 세계로의 확장, 그 꿈이 실현된 예술 속에서 나는 너다.

-미술평론, MJ갤러리 수석큐레이터 / 김옥렬-

2008.**4.24** Thu ~ **5.25** Sun 아트스페이스 (2F)

이장우의 '호접몽(蝴蝶夢)'

코디네이터 김봉수
비평가 김옥렬

작가노트

내 작업 속에는 한 가지 주제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각기 다른(여러 가지)요소들이 결합하여 하나의 작품이 완성된다. 다른 각각의 주제들이 조화롭게 구성되어 하나의 절묘한 지점에서 만나 형상을 이루어 낼 때 그 작업은 성공적으로 완결된다. 제작과정 동안 드러나는 상이한 요소들은 유동적이다. 즉, 기본적 요소들에 첨가되는 새로운 갈래들은 얼마든지 가변적이고 유동적일 수 있다.

내 작업의 다양한 주제들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요소로 나누어지지만 대체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는 과학적 테크놀로지와 노장(老,莊), 선(禪)등의 동양사상과 디지털 영상, 사이보그(CYBORG), 명상 등의 갈래들이 있다. 그것이 이런 저런 구성과 조합에 의해 작품으로 형성되지만, 그 모든 갈래들의 조합은 지금 이 시대를 표현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다시 말해 내 작업은 우리시대 우리의 모습, 또한 나 자신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다.

이번 작업에서도 이 시대 인간상의 은유라 할 수 있는 컴퓨터 본체로 만든 사이보그가 장자의 호접몽을 통해 세상과 자신에 대해 사유하고 있는 구도를 형상화하였다.

-이장우-

전시소개

기획공모 첫 번째 전시인「2008 유리상자-아트스타」Ver.1展에서는 조각을 전공한 이장우(1966생) 작가의 작품 '사이버 호접몽'을 소개합니다. 높이 7미터의 천정, 흰색 에폭시 바닥, 사방이 유리로 구성된 유리상자 전시 공간 안에 작가 이장우는 우리시대를 은유하는 '사이보그' 인간상을 제시합니다. 유리상자는 변화의 과정에 있는 공空의 세계를 상징하고, 변화의 과정에 놓인 유한한 존재를 상징하는 수십 마리의 나비를 유리상자 표면에 그려 넣습니다. 명상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물소리와 촛불 그리고 물그림자 영상 등은 컴퓨터 부품으로 만들어진 사이보그반가사유상의 꿈인 것처럼 몸 내부의 모니터를 통하여 선보여집니다.

작가는 자신의 관심사이기도한 '과학문명'과 '가상공간', '자연과 동양적 미의식의 탐구' 등이 혼재된 시각적 설정을 통하여 우리시대의 세계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비는 경계를 넘나드는 다른 세계의 통로를 상징하며 장자의 호접몽을 은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상에 빠진 사이보그상은 자연에 대한 사색을 제안하는 작가 자신의 지향이 시각화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종구-

사이버 호접몽 등신대, 컴퓨터부품, 디지털영상, 2008

기획공모 선정작가展

2008 GLASS BOX ARTSTAR Ver.2

Jung, Minje

정민제, 원더랜드와 능라 Satin의 환몽

부드럽고 번쩍이는 색채의 섬유직물 형상들이 화면에 도드라져 보인다. 이전 캔버스에 낯익은 환영을 구성하던 물감들은 이 낯선 재료의 등장에 불안한 거리를 두고 한 걸음 정도 뒤로 밀려난다. 세계는 불안하게 아우러진다. 개와 칠면조, 타조 같은 섬유질의 동물 형상들이 가죽의 육질을 가진 꽃과 식물들의 형상과 어울려 하나의 공간 속에 삽입되고 그로테스크한 정물 풍경을 만들어낸다. 알록달록한 작은 단추들은 꽃의 수술과 암술이 되기도 하고 동물들의 가죽 무늬가 되기도 하며 벌이나 나비의 눈이 되기도 한다. 또 꽃 잎사귀들은 바느질 자국의 윤곽으로 비워지기도 하고 공단이나 포플린 천의 부드럽고 넘쳐나는 느낌과 화려한 색감으로 흘러내리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화면은 시종일관 이질적인 재료들의 힘과 존재들 간의 마찰로 인한 긴장감이 팽팽하게 압축되어 있다. 더운 날 부풀어 오른 오색 풍선처럼 자칫 건드렸다간 폭발할 것 같은 역동적인 힘이 화면 안을 채우고 있는 것이다. 이 불안하고 긴장감 넘치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젊은 작가가 자신의 작품세계에 대한 명확한 시각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은 자신의 내면을 통한 성장의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작가는 최근의 작업들을 진행하면서 루이스 캐럴의 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모티브로 빌려온 원더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작업일지에 기록 중이다. 물론 그 원더랜드는 단순한 동화 속의 환몽이 아니라 작가 자신이 성장하고 현재 직면하고 있는 현실세계의 이면에 다름 아닐 것이다. 어린 소녀에서 여인으로의 성숙은 오래된 테마이자 민감한 논란거리이다. 페미니즘과 유아주의, 그리고 가부장 이데올로기가 곳곳에 늪지대를 이루어 꽤나 복잡하고 위험한 지형을 이루기 때문이다. 이 모든 징후들은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이미지들로 작가의 작품 속에서 드러난다.

작가는 작업 초기부터 직물적 상상력에 대한 매료와 집착을 보여준다. 학부시절부터 등장하는 인형 작업들에서 작가가 추구하는 것은 포근하고 부드러우며 상처 없는 감각에 대한 열망이다. 인형들은 어떠한 표정도, 옷도, 어떤 장신구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 인형들은 사실 위험하고 낯설며 끊임없이 위협을 가하는 세상에 맞서는 유아적 환몽의 투영물들일 것이다. 이러한 인형들은 부드러운 직물들로 이루어져있고 그러한 세상의 균열 혹은 부조리함을 감당하고 버텨낼 수 있는 방어기제로 작용한다. 이후 작가의 세계에는 화려한 천들이 등장한다. 화려하면서도 무서운, 치명적이면서도 매혹적인 세계에 대한 욕망이 천 속에 투영된다. 천이라는 재료를 통해 여성으로서의 본능과 소녀적 환몽이 뒤섞인다. 자신을 끝없이 자신 속에 가두고 원더랜드의 시스템 속에 적응하게끔 길들이면서도 성적 정체성 혹은 욕망으로서의 색채에 대한 매혹이 감당할 수 없는 본능으로, 천 위에 펼쳐지는 화려한 색채들로 터져 나온다. 이 풍요롭다 못해 흘러넘치는 색채들은 현실이라는 원더랜드의 어지럽고 복잡하면서도 매혹적이고 폭력적인 이미지들을 치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폐허와 닮은 도시의 회색 이미지들 속에서 완강하게 자신을 주장하고 긍정하는 힘을 보여준다.

작가의 최근 작업들은 채색된 캔버스 위에 수 놓여진 공단천의 조각보 형상들로 펼쳐진다. 직물에 대한 매료는 섬유질의 상상력을 2차원적인 평면 이미지 속에 단단히 박음질한다. 이국적이면서도 낯설고 화려한 식물들과 동물들은 서로의 감각적 정체성을 바꿔가면서 서로 미끄러지고 충만하게 흘러내리면서 섞여 들어가고 이는 축제의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능라, 즉 인조 비단의 환몽과 촉감이 캔버스와 어울려 만들어내는 가상적 세계가 바로 그것이다. 그 세계는 고통스럽고 반복되는 바느질의 피곤함과 기워낸 상처들이 이루어낸 화려한 색채들의 세계이며 앨리스는 이제 자신이 열망하던 세계의 단순하지만 심오한 비밀스런 감각들을 깨닫는다. 앨리스는 이제 어른이 됐고 세상과 마주선다. 어디로 갈 것인지는 그녀의 온전한 몫으로 남는다. 부드럽고 화려한 색채 가득한, 바람결 일렁이는 그녀의 직물적 상상력이 여전히 세상을 매혹시킬 것이다. 세상이 물감든 천들로 휩싸여 밝고 부드러운 빛을 품을 것이다.

–미학 / 최창윤–

작가노트

원더랜드 – 작가 본인이 생각하는 현대, 일상에 대한 이야기.

본인이 처해있는 현대의 일부분. 현대인의 일부분. 그들과의 일부분. 그 느낌 그대로를 작업에 옮기게 되며, 하나하나의 장면과 이야기. 느낌들을 '캔버스'라는 사각 틀 속에 하나의 또 다른 세상 이야기로 만들어 낸다. 이번 '유리상자'전 〈원더랜드〉에서 전시 공간 유리 상자는 현재 우리들의 일상 공간이며, 그 속에 작가가 만들어 낼 천으로 만들어진 사각의 틀은 제3세계의 공간이다. 어쩌면 실제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그것들은 인간의 무의식이나 자력이 아닌 대체 에너지로 이루어지는 것일 지도 모른다. 그럼에 인간이 꿈꾸는 유토피아의 공간이 될 수 있다.

'원더랜드' – '이상한 나라' 이해불충분 요소로 가득한 괴상한 곳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모든 것들을 그 자체로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 이상한 나라엔 가시덩쿨이 얽혀있고, 괴이한 짐승과 악취로 가득 할 것 같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푸르른 나무가지 잎사귀, 알록달록 꽃들로 가득하다. 주변엔 현대인을 비유하는 동물이 등장하는데, 하나같이 눈망울이 초롱하고, 선한 것 들이다. 비록 새가 날아들다 부리를 '콕' 하고 유리면에 박고는 떨어지는 유리상자이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면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천 상자가 있다. 그 4 면의 천위에 꽃과 가지, 잎사귀가 탄탄한 바느질에 의해 착하게 붙어있다. '공단'이라는 반질거리는 천을 사용하여 현대적인 느낌을 주려했으며, '명주실'이라는 아주 튼튼한 실로 한번 꿰매면 좀처럼 끊어지지 않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한다.

비주얼적인 요소가 강한 현대에서 그 구성원들의 생김새, 그리고 그들의 생활들, 그 구성원 개개인, 본인이 생각하여 만들어낸 제3의 인물, 제3 의 세계가 만들어 내기 마련이다. 작가는 그 현상을 보고 그 것을 풍자하기보다 그 자체를 보고, 그 자체를 표현하려 했다.

–정민제–

2008.7.12 Sat ~ 8.3 Sun 아트스페이스 (2F)

정민제의 '원더랜드'

코디네이터 김은영
비평가 최창윤

전시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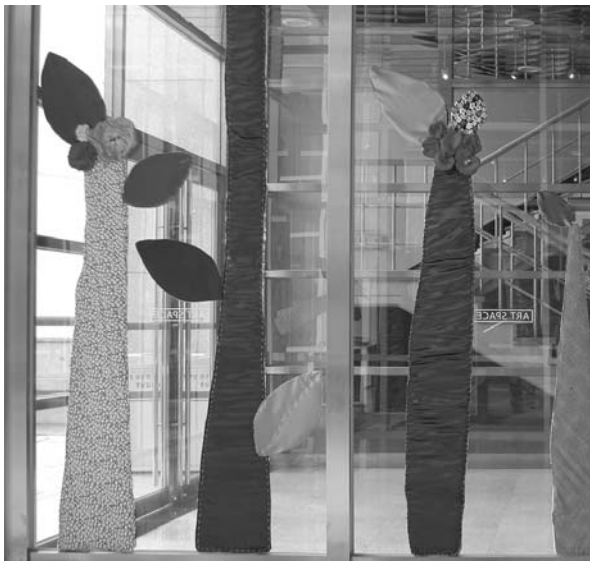
기획공모선정작 중, 두 번째 전시인 「2008 유리상자-아트스타」Ver.2展은 회화를 전공한 정민제(1981년생) 작가의 설치작품 '정민제의 원더랜드'를 소개합니다. 높이 7미터의 천정, 흰색 에폭시 바닥, 사방이 유리 벽체로 구성된 유리상자 전시 공간 안에 작가 정민제는 화려한 색상과 단순화한 이미지, 부드러운 촉감이 어우러진 회화풍의 설치작업을 통하여 '이상하고 신기한 세상 놀이터'를 제시합니다.
'지금의 여기, 나의 일상'이라는 관람객의 시점과 유리벽을 통하여 들여다볼 수 있는 작가 정민제의 '원더랜드 Wonderland' 설치 공간은 평상시에는 넘나들 수 없는 '상상 공간'에 주목하려는 설정들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이야기를 읽고 자신만의 상상을 펼쳤던 것처럼, 관객은 작가가 설정해놓은 유리표면의 조형이미지와 비워진 유리상자 내부 공간을 매개로하여 스스로 상상의 세계를 꿈꾸게 됩니다. 이때 비워진 공간은 관객의 상상을 위한 여백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화려하고 빛나는 색상과 도톰한 재질의 천 조각을 바느질기법으로 꼴라주한 조형이미지들은 유리벽면 표면 위에 부착되어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유리의 앞면에 어떤 경우는 반대 면에 부착하여 관객이 재질의 촉감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전시됩니다. 설치된 꽃과 나무 이미지 등은 신기하고 이상한 제3의 세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미지 속에 함께 보이는 동물모양, 즉 얼굴표정이 그려지지 않은 개와 앵무새, 악어, 멧돼지 등 이미지들은 현대도시인의 면모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화려하며 도도한 현대도시인의 모습을 작가가 생각하는 동물이미지로 은유한 것입니다. 유리표면에 그려진 '무표정한 현대 도시인'과 '이상한 나라'는 작가가 주목하는 세상의 상징이며 또 다른 새로운 세상을 매개하는 표현들 입니다. 그리고 조형이미지 위의 서툰 바느질이 주는 투박함과 빛나는 천 재질들은 '일상'과 '대중적인 감수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장치들입니다.

한편, 상상의 매개체로 비워둔 유리상자 내부 공간은 평소에 관객이 드나들 수 없는 차단 공간입니다. 하지만 '작가와 만남'과 '갤러리 토크'가 진행되는 특별한 시간 동안에는 개방하여 관객이 내부공간의 묘미를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작가는 일상생활에 쓰이는 '바느질' 기법과 천 조각 오브제로 일상의 재미와 아름다움 등 놓치지 말아야할 것들을 다시 돌아보고, 이들을 이상하고 신기한 세상에 접목하여 예술 메시지화 합니다. 그리고 지금 - 여기의 현실(세계)을 제대로 바라보고 새로운 상상세계를 꿈꿀 수 있는 자신만의 시각을 찾아가고자 노력합니다. 마치 엘리스가 이상한 나라에서 재미있게 지내며 세상을 탐구하는 것처럼….

-정종구-



기획공모 선정작가展

2008 GLASS BOX ARTSTAR Ver.3

Han, Yumin

광대의 존재이유

Ⅰ. 광대(光大)의 의미

현대미술의 출현은 예술의 존재근거이자 존재이유를 묻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이는 현대미술가의 존재근거이자 존재이유를 묻는 것과 연계됨을 적시한다. 한유민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밝힘의 구조를 그의 예술적인 태도에서 찾아 나선다. 그는 스스로 자신을 광대로 규정한다. 그가 말하는 광대는 광대이긴 한데, 통상적인 의미를 지닌 '배창(排倡)으로서 광대'가 아닌 '큰 빛으로서 광대(光大)'를 지칭한다. 그러나 둘 간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아니 그보다 둘 사이에는 차별화할 수 있는 근거나 이유가 충분치 않다. 뿐만 아니라 그 둘은 오히려 동질화 되어 있다. 그는 스스로 광대(光大)라는 이름으로 관객과 마주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Ⅱ. 광대의 존재이유이자 근거

한유민이 주장하는 광대(光大)로서의 자신의 존재근거이자 존재이유는 간단명료하다. 그 첫째는 정해진 규정 혹은 틀에서 벗어나고자 함이며, 둘째는 이의 실현을 위해 자유와 꿈, 상상을 업으로 삼는다는 것이며, 셋째는 그것들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놀음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의 광대의 존재근거이자 존재이유는 다중적으로 파생되고 확산되어 나간다. 이렇듯 광대에 대한 그의 해명은 현대예술가 전체의 의식과 관계하고 있는 것이다.

Ⅲ. '나'라는 존재의 의미?

한유민은 '나'라는 존재의 의미를 관념이 아닌 현실에서 찾아 나선다. 그러나 이를 통해 찾아낸 그의 존재에 대한 해명은 명확하지 못하다. 그보다는 오히려 미궁(迷宮)에 빠져 있다. 그것은 현실이란 것이 양면적이어서 그가 밝힐 수 있는 것이 빙산의 일각이란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스스로를 '표면적인 나'와 '내 속의 나'로 구별해 놓고 줄기차게 현실속의 자신에 대한 존재근거이자 존재의미를 규명해 나가는 것이다.

Ⅳ. 작품: 그 놀음의 운명

한유민의 존재 밝힘에 대한 행위는 그의 예술적 창작행위와 같이한다. 이러한 그의 예술적 놀음을 '존재와 나'라고 명명한다면, 그의 이러한 일련의 예술적 행위는 '나'라는 존재해명에 필연적이다. 주목할 점은 그 예술이란 행위를 통해, 그는 현실과의 타협을 하고, 나아가 철저히 그 존재 밝힘의 수행을 도모하고 있다.
그가 행해왔던 일련의 작품들, 예를 들자면, '머릿속의 잔상', '동화책 속 미이라', '부채 속 인물들' 등을 보면, 그것들 모두는 관념적이지 않다. 그것은 하나의 현실적인 현상이다. 문제는 그것이 '표면적인 나'와 '내속의 나'로 분리시켜 놓는다는 것이며, 그 자신은 이 두 의미의 존재가 자신의 존재이유이자 존재근거인지 어떤지를 순간적으로 분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이러한 미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궁한 예술적인 자유를 갈구한다. 물론 이때의 자유는 상상의 자유를 기본으로 한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만도 않는다. 그 상상은 그 이상의 꿈을 머금고 있다. 그에게 있어 꿈이란 그의 예술적 이상이며, 나아가 행복과 희망을 갈구하는 이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유민이 추구하는 이상의 구현은 허황되거나 소원하지 않다. 그것은 조금이라도 남의 비위를 맞추는 삶으로부터 탈피한다면 언제든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그는 '사람이 변하는 데는 단 1분도 걸리지 않는다'는 논제로 풀어간다. 그 변화의 논제는 위선(僞善)과 체면(體面) 등과 같은 가식(假飾)을 버린다면 충분히 실현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그가 나를 찾는 과정이며 나의 존재근거이자 존재이유 및 존재의미를 찾는 첩경이라는 점에 주목을 요한다.

Ⅴ. 공간의 의미: 존재 밝힘의 구조

한유민의 공간은 그의 예술적 이상이자 나아가 행복과 희망을 갈구하는 이상을 실현시켜주는 공간이다. 문제는 그의 예술적 이상이 지니는 의미인데, 그에게 있어 이상이란 것이 궁극적으로는 존재 밝힘과 연계되어 있다.
애초에 그는 존재 밝힘의 과정을 광대(光大)라는 개념의 적용과 함께 하였다. 그때의 광대는 관객과의 만남을 출발로 하였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그의 존재 밝힘은 고립을 자초한다. 즉, 자신의 공간만을 필요로 한다. 그 공간만이 자신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 믿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제는 그의 광대의 놀음이 '표면적인 나'란 존재를 찾아 나선 존재규명의 통로였다면, 공간의 놀음에 따른 과정은 '내 속의 나'를 찾아줄 수 있는 존재규명의 통로라 간주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지극히 만성피로에 지친다리를 이끌고 들어서 아무런 가식 없이 쉴 수 있는 공간이자 자신을 스스럼없이 표출할 수 있는 관객없는 무대로서 공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확장하여 그것만이 또 다른 나를 찾게 해주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이다.

–미학박사 / 홍준화–

2008.**9.2**Tue ~ **9.28**Sun 아트스페이스 (2F)

한유민 = 光大

코디네이터 정은영
비평가 홍준화

전시소개

기획공모선정작 중, 세 번째 전시인 「2008 유리상자-아트스타」Ver.3展은 회화를 전공한 한유민(1983년 대구생) 작가의 설치작품 '한유민= 光大'를 소개합니다. 높이 7미터의 천정, 흰색 에폭시 바닥, 사방이 유리 벽체로 구성된 유리상자 전시 공간 안에 우두커니 서 있는 거대한 캐릭터 인형(높이260×넓이190×폭70㎝)과 공간을 분리하며 방 사이를 연결하는 문, 문 사이로 환히 밝혀진 빛 등의 설정들은 작가가 자신을 바라보는 관객을 직면하면서 자신의 현재 존재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방안들로 연출한 무대입니다.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는 또 다른 나인 캐릭터를 통하여 세상을 만나려고 합니다." 수줍음을 잘 타는 작가는 보자기 망토를 둘러쓰고 어릿광대 행위를 하면서 숨겨진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고 놀랐다고 합니다. 그는 어정쩡한 표정을 짓는 자신의 캐릭터를 통하여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제 마음대로의 삶을 살아봅니다. 이제껏 하고 싶었고 생각했던 그대로…. 최근 몇 년간 작가 한유민이 지속적으로 진행해온 작업들은 자신과 동일상으로 제시하는 광대(光大)라는 캐릭터를 통하여 세상을 만나고, 어울리며, 또 세상을 움직여가는 과정들입니다. 지금까지 발표되었던 회화와 설치작업들은 바로 세상을 직면하며 확인되는 자신의 존재감을 캐릭터로 시각화한 것입니다.

이번 유리상자展에 선보이는 설치작업은 작가 자신의 내면적인 '성찰 보고서'류 입니다. 가끔은 이중적이기도 하고 설명하기도 어려운 인간의 양면적인 모순들을 자기 속에서 발견하고, 이를 '밤과 낮'이란 설정으로 연출하였습니다. 유리상자 속에서 방문을 마주하며 출연한 캐릭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세상에 직면해 펼치는 나의 또 다른 모순이야!" 그리고 관객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넌, 어떠니?" '차분함, 진지함, 정적, 성찰'의 감성과 '화려함, 재미, 우스움, 장난'으로 설명되는 감성들은 시간의 흐름과 빛의 밝기 등과 연관하여 관객이 스스로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이기도합니다.

작가는 15일 정도 진행된 작품의 설치 과정을 관객들이 볼 수 있도록 개방하였고, 전시기간 중 관객과의 만남을 따로 가지면서 관객과 직접적으로 만나길 희망합니다. 캐릭터의 이름 광대(光大)처럼 자신을 크게 밝힘으로써 세상에 자신의 존재감을 명확히 하려는 야무지고 당찬 작가의 의도를 눈치 챌 수 있는 전시입니다.

-정종구-

기획공모 선정작가展

2008 GLASS BOX ARTSTAR Ver.4

Chung, Seyong

지상의 성좌, 플라잉머신의 유영

내 마음의 도덕법과 밤하늘의 별빛을 비명(碑銘)에 새긴 칸트는 상상력과 지성의 자유로운 놀이를 예술작품의 일회적인 고유함이자 새로운 질서로 설명하고 있다. 탁월한 이성의 소유자도 인간의 고유한 능력과 경외감으로 다가오는 자연의 명령 앞에 존경과 겸양을 갖추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아마도 '밤하늘의 별빛'은 탁월한 지성에게도 마르지 않은 시적 영감의 원천이었을 것이다. 밤하늘을 수놓은 성좌(星座)는 고대 신화로부터 현대 첨단 과학에 이르기까지 또한 소박한 자연인으로부터 위대한 철인(哲人)에 이르기까지 인간들의 무수한 꿈과 이야기를 풀어내는 모반(matrix)이며, 우리의 문화예술은 달님 별님 이야기나 어린왕자 그리고 스타워즈 등의 다양한 버전을 통해 별들이 총총한 우주의 꿈과 그 속에서 인간이 지니는 소망을 담아낸 것이라 하겠다. 이렇듯 우주를 마주한 인간이 가늠할 수 있는 모든 해석을 우리는 미메시스(mimesis 모방)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세용 작가는 브론즈캐스팅이 주요 전공이며 이와 더불어 불(용접)과 철을 다루는 조각가이다. 화산 안에 작업실을 가진 헤파이스토스가 끊임없이 빠져나가는 미(美의) 신(자신의 아내 비너스)을 물질로 형상화하려는 간단없는 노력을 하였다면 정세용은 불과 철로 현대인이 잃어버리고 있는 꿈을 쉼 없이 벼르고 있다 하겠다. 정세용은 자신의 심상에 담긴 우주(우주에 대한 미메시스)를 기반으로 하여 이것을 다시 물질(주로 철)을 통해 미메시스하되, 별들이 펼쳐져 있는 우주에 대한 인간적 꿈과 소망을 함께 담아 현실 속에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정세용이 구현하는 현실 속 우주는 별들이 살아나 현실 속에서 우주의 성좌를 다시 구성하는 일로 확대된다. 이번에 설치하는 작품 '플라잉 머신(Flying Machine 나는 기계)'은 작가 심상에 들어간 우주와 이를 다시 물질로 변환시키는 이중의 미메시스를 거쳐 형상화되었으며 이는 첨단 산업시대를 배경으로 자신의 소망과 꿈의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날고 싶은 기계'의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다. 기계 속에 구현된 정세용의 우주는 이제 지상에서 설치 공간과 이를 대면하는 관람객들을 모두 별들로 호명하여 하나의 성좌(constellation)를 이루게 한다.

'플라잉 머신(Flying Machine)'은 철판을 구부리고 그 철판에 구멍을 내어 몸체를 만들고 날개를 달아 후기 산업시대 새로운 꿈-기계 종(種)으로 탄생한다. 여기에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움직이게 하였으며, 기계-몸체의 표면에는 구멍을 뚫어 별들의 형상(gestalt)을 새겨 놓았고 몸체의 내부에 조명을 설치하여 내부로부터 생명체의 에너지가 별빛으로 흘러나오게 했다. 몸체에 새겨지는 구멍 뚫는 소리는 하나하나 수집되어 기계주변의 소리들, 우리 일상의 소리들과 함께 음향장치를 통해 플라잉 머신의 움직임과 더불어 우주 제작의 탄생 음들로 배치된다. 플라잉머신과 마주할 때 관객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원형적 촉각(지각)과 소망을 불러내어 탄생의 소리, 움직임, 별빛 등과 함께 플라잉머신이 구성하고 있는 성좌에 소환되는 것이다. 첨단기술기반이 너무나 매혹적이고 매끈하게 환상의 우주를 실현하면서 관객을 몰입시킨다고 한다면 정세용의 철과 용접이 이루어내고 있는 성좌(constellation)는 보다 근원적인 촉각, 청각과 이 속에서 우리의 관계를 환기시키면서 몰입보다는 성좌의 구성에 참여하게 한다. 이럴 때 플라잉머신은 몰입이 아닌 '각자의' 지각의 개시를 알리면서 극단의 것들이 하나의 성좌를 이루는 방식으로 설치 공간을 유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플라잉머신〉은 설치가 곧 성좌를 이루도록하면서 성운(星雲)을 몰고 다니는 꿈-기계이기도 하다.

-미학, 미술비평 / 남인숙-

작가노트

맑게 갠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 아래, 인간이라는 존재는 한없이 작아지고 경건해진다. 우주의 일부인 우리 인간들은 문명이래로부터 지금까지 우주를 경외하고, 상상하고, 끊임없이 우주를 향한 도전의 신호를 보낸다.

무한한 우주는 과학자들의 가설과 연구, 탐사를 통해 조금씩 신비를 벗고 갖가지 매체를 통해 알려진다. 사람들은 그러한 정보와 상상력의 조합으로 '우주는 이러할 것'이라는 자신만의 우주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

고대인들은 현대인들이 가진 우주에 대한 정보와는 다른 상상을 하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다. 현대에 이르자 그 기록들은 오류였다는 것이 밝혀진다.

먼 미래에 이 현재의 우주에 관한 정보와 기록들은 또 다른 오류라 밝혀질 수도 있다. 그럴지라도 나는 현재의 내가 알고 있는 우주, 작은 지식을 통해 내 가슴 속 품고 있는 우주를 형상화하고 싶다. 미지의 우주를 향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도전하는 인간들의 탐험의지를 형상화하고 싶다. 밤하늘에 끌리어 별자리를 형상화하고, 우주를 향해하는 Flying Machine 등을 만듦으로 인해 조금 더 우주의 본질에 다가가고 그 일부가 되고 싶은 마음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이지 싶다.

내 작업 의도는 어릴 적 보았던 밤하늘의 무수한 별무리 속으로의 여행에 관한 것이다. 그 공간으로의 여정을 떠나기 위해 빛과 움직임 그리고 소리로 만들어진 Flying Machine이라는 장치를 갖추었다. 유년기 밤하늘의 웅장함을 그리며 우주로 향하는 기계의 회전이 시작되면 광원을 넣은 비행체의 날개 표면에서 구멍을 통과한 작은 빛들이 뿜어져 나와 천천히 움직인다. 스피커에서는 카운터다운 소리와 갖가지 음성, 철판을 뚫을 때 생기는 기계음들이 들린다. 회전하는 기계를 통한 빛과 소리가 유리공간속을 가득 채우며 어릴 적 꿈의 공간으로 탈바꿈되길 의도하였다.

-정세용-

2008.**10.25**Sat ~ **11.16**Sun 아트스페이스 (2F)

정세용의 Flying Machine

코디네이터 이소향
비평가 남인숙

전시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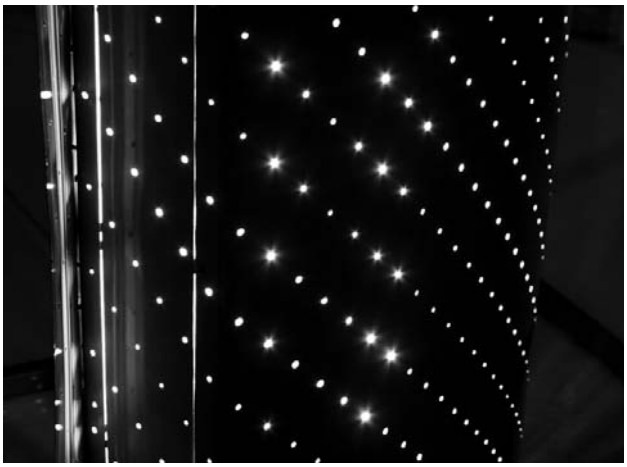
기획공모선정작 중, 네 번째 전시인 「2008유리상자-아트스타」Ver.4展은 조각을 전공한 정세용(1971년생) 작가의 설치작품 'Flying Machine'을 소개합니다. 'Flying Machine'의 설정은 높이 7미터의 천정, 흰색 에폭시 바닥, 사방이 유리 벽체로 구성된 유리상자 전시공간 안에 천천히 움직이며 표면에 빛을 뿜어내는 빛뭉음체(높이500×너비170×폭170㎝)와 주변공간을 수놓으며 변화하는 빛 그림 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설정들은 작가가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눈치 채게 된 우주의 본질에 관한 보고서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가 자신의 기억 속에서 끄집어낸 어린시절 여행공간을 관객에게 그대로 느끼게 하고픈 작가의 연출 의지이기도 합니다.

'사실을 뛰어넘는 본질의 추구'로 설명할 수 있는 작가의 본능적인 조형의지는 우주를 향하고 있으며, 우주를 향한 본질의 추구는 최근 작가 작업의 주요 모티브입니다.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어린시절 옥상에서 어른들 무르팍에 누웠을 때, 또 캠핑을 갔을 때 바라본 밤하늘은 낮에 보는 세계와는 다른, 말 그대로 '별천지'였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서 반짝이는 별은 무한한 상상력을 자극했지요."라며 유년의 꿈과 기억이 예술작품으로 연결되는 맥락을 고백했던 작가는 관객들의 유년시절 기억도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작가는 우리 모두가 어린시절 보았던 그 꿈같은 여행공간이 어떤 사실보다 더 강한 본질적 우주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번 유리상자展에 설치된 작가의 작업은 자신의 기억을 통해 성찰한 '우주 보고서'입니다. 꿈 속 풍경 혹은 상상화 같기도 하고 설명하기 어렵기만 한 우주에 대한 인간의 인식 편린들 속에서 오히려 사실보다 더 충실한 우주에 관한 본질을 채취하고, 이를 '빛과 Flying Machine'이란 무대설정으로 연출하였습니다. 연출된 유리상자를 마주하며 어떤 이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누군가의 힘으로 펼쳐지는 우주, 이것은 내가 펼치려 생각해왔던 우주의 모습이다!"

작가는 지난 11개월 동안 작품설계와 제작, 설치구상에 대하여 검토하면서 설치공간의 특성인 유리면의 특수성과 관객이 직접 체험하는 접점부분을 고민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시공간 유리면 앞에 마주하면 별이 빛나는 우주의 일부를 체험하는 듯하고 우주를 기억할 수 있도록 연출 지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들로 인하여 Flying Machine 표면에서 새어나오는 수많은 빛들은 우주를 담아내려는 별빛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Flying Machine은 광활한 우주 속의 인간과 우리들 내면에 존재하는 우주를 동시에 기억할 수 있도록 돕는 특별한 매체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정종구-



Flying Machine 1700×1700×5000cm, 철판, 라이트, 모터, 2008

기획공모 선정작가展

2008 GLASS BOX ARTSTAR Ver.5

Shin, Kyungae

물성, 그 너머를 말하다

신경애는 무엇을 말할 것인가 보다 어떻게 말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작가로 보여 진다. 포크를 소재로 한 작업을 일관되게 유지해오면서 재료, 표현방법 등의 변화를 드러내왔기 때문이다. 입체와 평면의 경계를 넘나들기도 하고 그 경계에 서 있기도 한다. 그러나 작품의 처리나 표현 방법에 대한 탐구는 변주를 만들어 내며 형식에 대한 물음에서 의미에 대한 물음으로 향해 있다.

작가는 물성의 표면을 따라 초기의 유화작업에서 스치로폼을 이용한 입체, 유산지를 이용한 설치물 다시 시아노타이프 기법을 이용한 평면작업으로 변화를 겪어왔다. 재료연구는 하나의 세계에 깊이 천착하는 장인 정신의 치열함마저 느끼게 한다. 이런 작업과정에서 작가는 감각기관을 통해 인지되는 물질세계를 재현하고자한다.

유산지는 종이를 황산 처리함으로써 반투명성을 얻은 재료이다. 작가는 유산지에 유화재료(린시드오일, 테레핀 오일, 에메랄드 그린)의 혼합물을 얇게 칠함으로써 비닐과 같은 질감과 투명성을 더한다. 종이와 비닐, 투명과 불투명의 중간지대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종이가 지닌 물성은 비닐 같은 시각과 촉각의 환영을 불러일으킨다. 크기에 맞추어 두께를 주면 포크의 형태는 내부에 빈 공간을 만들어 내기도하고 포크의 두 면을 밀착시키면 얇은 유산지는 두께를 잃고 평면이 되기도 한다. 포크는 평면과 입체가 공존하는 세계다. 반투명의 상태로 공중에 떠 있는 설치물은 사물이 지닌 기능성을 잃고 존재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세계를 담고 있다. 입체는 공간에서 다양한 의미 층을 지니고 부유한다.

시아노타이프 기법(청사진)의 평면작업은 부피를 지니기 전의 제작물을 이용한다. 얇은 유산지로 만들어진 포크는 접혀있을 때는 두께를 느낄 수 없는 평면 상태로 돌아간다. 이것을 감광제가 발린 종이 위에 얹어 햇볕에 노출시키면 유산지의 반투명성은 입체 이전의 이미지를 드러낸다. 종이의 질감과 감광제를 바를 때 남겨진 붓 터치, 중첩된 면이 주는 깊이는 공간의 미세한 층과 노출 시간에 따라 색의 깊이를 더하며 시간의 층까지 담고 있다. 이때 평면에 남겨진 잔상은 축적을 통하여 얻어진 이미지가 아니라 감광제를 씻어냄으로써 얻어진 빈 공간이다. 비어 가는 공간은 의미로 가득 차 있다. 작가는 도안과 재단으로 철저히 통제된 작업과정에 우연성과 자연을 끌어 들여 반복적 작업에 차이를 만들며 확장해나간다. '자연은 부재의 상태로 현전'하고 신경애는 그 부재의 상태를 담고 있다.

이처럼 작가의 물성에 대한 탐구는 물질적인 세계에서 비물질적인 세계로 향해 있다. 물성에 대한 탐구가 깊어갈수록 작가는 견고함으로 비춰진 존재의 환영에서 벗어나 진동하는 존재의 깊이를 담아가고 있다. 작가는 형식적 동일성을 재현하는 것에 머물지 않는다. 물성의 견고한 입자들 너머 진동하는 세계를 담고 있다. 그러기에 이분화된 세계의 중간, 양쪽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중립으로 이해되는 뉴트럴이라는 용어는 풍부해지고 섬세해지는 작업을 담기에 무리가 있어 보인다. 뉴트럴성이란 개념이 넓은 범위에 적용되고 쉽게 도식화할 수 있지만 풍부한 의미 층이 손상될 수 있는 건조함에 대한 우려 또한 지니고 있다.

–미학, 미술비평 / 배태주–

전시소개

2008년 기획공모선정작중, 다섯 번째 전시인「2008유리상자–아트스타」Ver.5展은 회화를 전공한 신경애(1974년생)작가의 설치작품 '뉴트럴(neutral)'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뉴트럴'은 반투명한 소재의 특성을 이용하여 중간지대, 중성의 묘미와 그로 인한 공간과의 적절한 융합, 확장성 등을 의미하며, 작품들은 그 의미 구축의 시각화입니다. 주로 입체적인 포크 형상을 제작하여 내용을 담아내고 있으며, 이번 전시 설정은 높이 7미터의 천정, 사방이 유리 벽체로 구성된 유리상자 전시공간 안에 반대편 풍경이 하늘거리며 보이는 반투명 표면으로 구축하여 세워진 거대한 포크 형상(높이627×너비200×폭10㎝), 그 조형물을 제작하기 위해 몇 개월간 공간 실험의 모델이 되었던 유리상자 전시장 모양의 미니어쳐 구조물(실제 전시장의 1/10크기), 한 벽면에 부착된 높이 5미터 가량의 포크 이미지 청사진(Cyanotype on paper)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설정들은 작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거쳐 지나온 과정의 시간들이 담긴 '시간의 뉴트럴성'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현재를 통하여 과거와 미래의 가능성을 관객과 함께하고 싶어 했던 작가의 의지 투영일 것입니다.

이번 유리상자展에 설치된 작가의 작업은 자신의 거의 모든 시간과 노동을 통해 성찰한 '삶의 보고서'이기도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와 예술의 지향은 분명 다른 것이겠지만, 예술가의 삶과 생활은 이들 다른 것의 간격을 최대한 줄여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주거 공간과 주변 환경 모두를 작품 제작의 조건으로 바라볼 수 있는 태도, 작품의 특성 추출과 해석 방식이 살아온 경험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 등은 작가가 지닌 삶과 예술의 밀착 정도를 짐작하게 합니다.

그런 이유들로 인하여 거대한 포크의 표면에 비치는 건너편 풍경 이미지들은 우리들 삶의 공간을 담아내려는 예술가의 의지를 상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작가의 뉴트럴성은 예술과 시민이 융합하는 자리를 위한 중간지대의 특별한 매체로 자리할 수 있습니다.

–정종구–

2008.11.22 Sat ~ 12.14 Sun 아트스페이스 (2F)

신경애 - neutral

코디네이터 카와타 츠요시
비평가 배태주

기획공모 선정작가展

2008 GLASS BOX ARTSTAR Ver.6

Kang, Yoonjeong

틈 : 없음이 가리키는 현존의 질서

나는 올해 초 강윤정 이란 작가를 대면하기 꽤나 이전에 그녀의 작품을 먼저 접했다. 그때 나는 작품을 감상하면서 작가의 모습과 성향을 상상했다. 그런데 직접 본 그녀의 인상은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거의 흡사했다. 물론 나는 이 말을 본인에게 하지 못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한 눈에 꿰뚫어 보는 것처럼 행세하는 것 앞에서 유쾌해 할 이는 그리 없을 것 같아서였다. 그녀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다른 한 편으로 생각하면, 강윤정이 그녀의 작품에 자기 정체성을 그만큼 잘 담아두었기에, 우둔한 내 눈으로도 그 점을 발견했다는 논리가 만들어진다. 강윤정이 벌이는 작업은 작품을 통해 그녀의 모습을 짐작하게 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특별한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이것은 예술과 예술이 아닌 것을 포괄하는 삶이 가진 일반적인 태도이다.

강윤정은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예술적인 기교가 그다지 들어가지 않은 비예술적 행위에서 작업의 실마리를 따온다. 그녀의 작업은 종이를 여러 장 쌓아 붙이는 일에서 시작한다. 대부분의 미술은 그 출발을 종이에서 시작한다. 그런데 작가는 종이 위에 선을 긋거나 색을 칠하지 않고, 종이 그 자체의 부피감을 작품으로 나타낸다. 따지고 보면, 나무의 변형인 종이는 텍스트를 기록하는 수단으로만 쓰이지 않는다. 종이는 예컨대 방한과 방풍 기능, 또는 물건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쓰임새도 가진다. 종이로 만든 이 얇은 안내책자 또한 작품 전시를 돕는 보조 역할이 아닌가. 작가는 종이 더미가 가진 물성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런데 그 물성이 문제다. 종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변색되는 성질을 운명적으로 지닌다. 물론 작가가 쓰는 종이는 가령 프린트 용지처럼 변질에 대한 저항성을 상당히 갖춘 재료로 선택된 것이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종이는 종이일 뿐이다. 종이는 쇠가 아니고 돌이 아니다. 그것은 곧잘 찢어지고, 더럽혀지기 쉽고, 바래지기 쉬운 '만만함'을 타고났다. 그렇다고 강윤정의 작업이 그것처럼 만만한 것은 아니다. 이는 돌을 깎아내고, 쇳덩이를 용접해서 갖다 붙이는 일만큼 근력을 소모하는 일은 아니지만, 상당한 수고와 함께 무엇보다도 인내심을 요구하는 작업이다. 작업이 작가의 퍼스낼러티를 결정했는지, 아니면 거꾸로 작가 성향이 이런 작품을 산출했는지 단정 지어서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작가와 작품 양쪽 모두는 결벽증이란 말을 써도 맥락이 이해될 정도로 꼼꼼하다.

작가가 굳이 종이를 써서 번거로움을 더한 까닭은 무엇일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틈 때문일 것이란 생각도 적지 않다. 작가는 틈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 그녀의 작품을 얼핏 보면 목재나 합성수지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을 종이답게 드러내는 것은 틈이다. 틈은 부재(不在)하는 상태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존재하는 것이다. 있음과 없음 사이에서 무한한 논리적 순환의 역설(paradox)을 만들어내는 틈을 존재자로 볼 것인지, 무(無)로 볼 것인지 확정내리는 것은 쉽지 않다. 현상학적 세계관에서, 그리고 강윤정의 예술론에서 그 틈은 존재자가 맞다. 때로 아무 것도 없는 영(0) 그 자체가 명백한 맥락이 되곤 한다. 종교에서 욕망을 완전히 떨쳐낸 득도의 경지, 경제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한 푼도 없는 재정적 상황, 과학에서 통계확률이 영 퍼센트인 가설 검증, 사랑에서 연인으로부터 답장을 받지 못한 소외 상태 등은 각각의 상황 모두가 티끌만큼이라도 존재하는, 소수 0.1과 완전히 다른 맥락이다. 틈은 비율만을 따질 때에는 보잘 것 없는 부분을 점유하지만, 그것이 있고 없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된다.

강윤정에게 틈은 어떤 의미인가. 이미 작가는 '틈'이라는 낱말을 예전부터 즐겨 사용해왔다. '틈', 파열음 ㅌ으로 시작되어 입술이 모두 닫히는 ㅁ으로 맺어지는 이 발음은 처음에 세게 갈라지고 터지다가 결국은 메워지는 완결체이다. '틈'이 가진 기표와 기의는 이처럼 일치하지 않으며, 스스로 논리적인 틈을 드러낸다. 순백의 종이가 그녀의 겹겹이 쌓인 의식 구성체를 표현하는 모형이라면 틈은 무의식으로 통하는 징후가 된다. 이와 달리, 종이가 작가 개인을 둘러 싼 시간과 공간의 기록 수단이라면, 그 합리적인 기술(description)로부터 비껴난 예술적 표현이 틈으로 상징될 수도 있다. 작가가 매달리는 작업은 이미 말과 글이라는 논리적인 체계로 풀어낸 틈을 얼마나 적실하게, 또 우아하게 재구성하여 보여줄 수 있을지 실험하는 행위이다.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의 지적처럼, 사물과 그것을 가리키는 말은 항상 정확히 일치할 수 없다. 그 자체가 틈이다. 작가는 그 틈의 인식을 표현하려고 한다. 역설은 그 기획을 빈틈없이 재현하려는 데에서 발생한다.

강윤정은 주로 직선의 중첩을 완성해왔지만, 이번에는 곡선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2차원 개념에서 차원 하나를 보태어 또 다른 틈의 세계가 구현된 셈이다. 당연히, 이 틈은 계획된 것이지만 좀더 세상에 관대하게 통로를 열어두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틈이 가진 아름다움을 느끼고, 틈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다시 발견한다. 깐깐한 직선의 배열만을 봐온 나로서는 그녀의 새로운 시도에서 일종의 유머도 발견한다. 그녀의 확고한 의식 속에 용인된 틈이 공간을 만들어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나는 그 공간이 책의 은유라는 사실도 뒤늦게 발견했다. 아무 것도 쓰이지 않은 책, 그것은 책이 아니거나, 쓸모없는 책이다. 그렇지만 유용한 텍스트로 채워진 책 또한 읽히지 않으면 그것은 쓸모없는 책이거나 더 이상 책이 아니다.

애당초 쓸모없는 책과 다를 바 없는 이 종이 더미는 예술 행위로든 비예술적인 일상 행위로든 익숙한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예술과 비예술의 양쪽으로부터 모두 타자로 취급받으며 주변으로 밀려난다. 이 현대 미술의 탁월함은 바로 여기서 생긴다. 틈에는 중심이 없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결핍을 투정부리듯 나타내고 있으며, 그러면서도 꽉 차있는 다른 무언가를 기다리며 언제라도 자리를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다. 작가는 종이가 가진 직사각형의 일정한 형태에 구속받으면서도, 결코 확정되어 구속받지 않으려는 틈을 드러내고 그 속으로 우리의 자아를 끝없이 스며들어가게끔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미술평론, 예술사회학 / 윤규홍-

2008.12.23Tue ~ 2009.1.25Sun 아트스페이스 (2F)　**강윤정 Draw - Crevice**

코디네이터 황현진
비평가 윤규홍

전시소개

2008년 기획공모선정작중,여섯 번째 전시인「2008유리상자-아트스타」Ver.6展은 회화를 전공한 강윤정(1977년생)작가의 설치작품 'Draw-Crevice'를소개합니다. 'Draw-Crevice'는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얇은 종이를 여러 장 포갰을 때 그 단면과 단면 사이의 틈에서 보이는 아주 단순하지만 예민한 톤의 변화들을 시각적 작업 소재로 선택하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작가는 틈의 아름다움, 틈을 통한 자신의 재발견 등을 메시지로 하며, 작업들은 '틈' 개념의 구축과 그 시각적 재생의 과정들입니다.

주로 수천 장의 종이 단면과 그 사이의 틈으로 이루어진 판 형태의 시각적 그림으로 제시하며, 이번 전시 설정은 높이 7미터의 천정,사방이 유리 벽체로 구성된 유리상자 전시 공간 바닥에 수천 개의 세로 틈이 보이는 종이 판형(높이42㎝×두께2㎝×길이50㎝)을 90여개 정도 세우고, 그 묶음체의 윗면이 자유로운 곡선을 그리도록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로 틈을 좌우로 연속적으로 이은 환형 묶음체(높이42㎝×두께2㎝×지름 177㎝)를 바닥에서 1.3m정도 띄워서 공중에 매달아 또 다른 틈의 이미지를 재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설정들은 작가가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재구성한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그 모습은 작가가 알고 있는, 또는 그리고 있는 세상의 작가적 투영일 것입니다.

이번 유리상자展에 설치된 작가의 작업에서 우리는 "삶의 목적은 자기 발견이며, 삶은 자기를 재창조하는 과정일 수 있다. 나의 '틈'은 자기 발견을 위한 여백, 비움, 불확정, 가능성 등으로 불리는 그릇이다."라는 작가 의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틈'이 자기 발견을 위한 그릇이란 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작가 강윤정은 세상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종이와 종이 단면 사이의 '틈'을 그리고, 그 세워진 틈들의 묶음체와 묶음체 사이에 다시 또 다른 '틈'을 만들어냅니다. 미로 같기도 한 지상의 수많은 세상 모습을 틈과 틈 묶음체로 그려낸 것입니다. 이번 설치작업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상과 천상을 구분하여 설정하고 그 사이의 '틈'을 그려내는 듯합니다. 틈들을 이은 연속체로 둥근 환을 만들어 영원의 천상을 상징하고 지상과의 틈을 그려냄으로써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모습을 좀 더 잘 그려내려 합니다.
그리고 작가는 '틈'으로 정의되는 세상의 모습을 통하여 자신이 그러하듯이 관객 스스로도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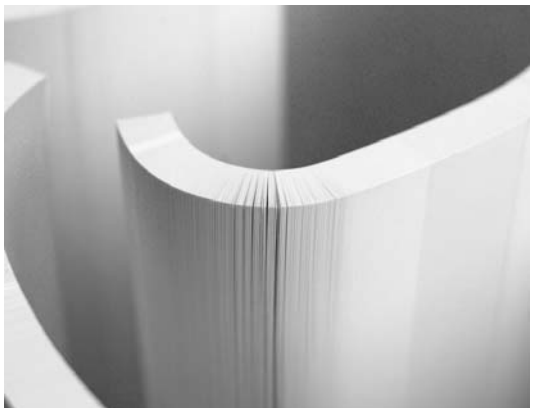
작가노트

Draw - Crev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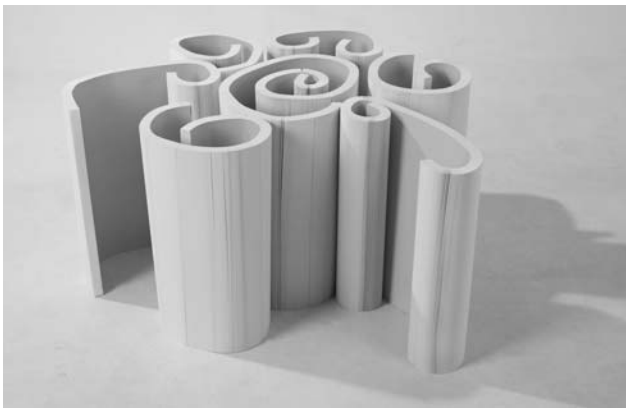
회화적 개념으로 말하자면, '틈'이라는 것은 Painting 되어 화면을 채우는 부분에 반대되는 여백이 공간으로 확장되어진 개념일 수 있다. 회화에서 여백의 역할이 Painting을 부각시켜주며 조형적으로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한다면, 공간에서는 구획 지어진 닫힌 공간을 숨 쉬게 하고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 소통할 수 있게 하는 여백이 '틈'이라는 것이다.

'틈'은 문이나 창과 같이 드나드는 기능적 역할이 아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원자 구성요소의 하나인 Quark간의 사이일 수도 있고, 벽의 Crack이나 문틈으로도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틈'이라는 것은 공간으로 인식되지 않을 정도로 사소한 틈일 뿐이지만 한정 지어진 공간이 외부세계와 혹은 또 다른 한정 지어진 공간과 언제나 소통의 가능성을 열어 놓을 수 있는 숨통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강윤정-



Draw-Crevice Cut Papers, 42X2X50cm, 2008



Draw-Crevice Cut Papers, 가변설치, 2008

2009

GLASS BOX ARTSTAR

2009유리상자-아트스타

Ver. 1
조용호-ECHO
3. 17- 4.12

Ver. 2
김정희-세제곱
4.24- 5.31

Ver. 3
권남득-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6.11- 7.12

Ver. 4
허남준-ART STAR MIRROR BALL
7.14- 8.30

Ver. 5
로리 킴-Rising Dreams
9.11- 10.11

Ver. 6
이상헌-기억 잡기
10.23-11.29

Ver. 7
정재훈-WHITE OUT
12.11- 1.17

봉산Cultural Center에서 주최하는「2009유리상자-아트스타」공모 선정 작가展은 설치 영상미술을 포함한 동시대 미술과 만남에 주목합니다. 올해 공모 전시의 주제이기도 한 '스타★미술가와 시민의 만남'은 미술이 지닌 '공공성'에 주목하고 미술가의 공익적인 태도와 역할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미술가의 공공성이 다수의 관심과 지지자를 확보하면서 대중적 '스타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유리상자」프로그램은 2006년부터 독창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봉산문화회관 자체 기획물입니다. 도심 속에 4개의 유리벽면으로 구성된 아트스페이스의 장소 특성을 살려서 내부를 들여다보는 관람방식이 독특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언제나 관람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시민들의 예술향유 기회를 넓히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열정적이고 참신한 예술가들에게는 특별한 창작지원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예술지원센터로서 더 많은 대중적 관심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국공모에 의해 선정된 참신하고 역량 있는 작가들의 작품 전시를 연속적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스타★미술가와 시민의 만남

공모 선정작가展 2009 GLASS BOX ARTSTAR Ver.1

Cho, Yongho

조용호의 'The Selfish Answer' 展

Ⅰ. 예술의 생산과 수용

현대미술의 전개에 있어 최근의 예술적 관심사는 예술작품의 생산자와 수용자 간의 관계설정에 있다. 따라서 어찌 보면 현대 미술가들이 갖고 있는 최대의 관심사는 언제부터인지 관객의 '눈치'(?)를 보는데 많은 염려와 열정을 바치게 되었고, 이러한 현재적인 미술적 사조의 경향들은 현존하는 미술가들의 창작적 자유로움을 관객인 수용자들의 예술적이자 미적 기호에 묶어 놓는 계기를 만드는데 조금의 부족함도 없게 되어 버렸다. 이들 문제는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또한 그런 만큼이나 그것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드러내기에 충분하다.

과거의 예술가들은 작품을 창작 및 제공하는 생산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으로 그들의 임무나 역할을 다하였다고 여길 만 하였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작품제작에 대한 열정과 그 결과물의 제공만이 보다 최대의 관심사였지 수용자에 대한 배려는 크다고 할 수 없었다. 하지만 현재적인 예술적 전개과정은 이러한 과거의 예술적 논제를 허용하는데 관대하지 못하다. 그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수용자의 관점을 작품창작과정에 끌어들여 작품을 형성해 나가는 것을 요청하고, 그 과정에 그들의 관여 내지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Ⅱ. 'The Selfish Answer'

조용호의 'ECHO'를 예술적 표현매체로 한 'The Selfish Answer 展'은 현재의 예술이 지향하는 앞서 기술한 시대적 상황을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 그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현재적인 예술적 흐름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는 예술을 통한 자신의 예술가적 사명에 대한 소명을 수용자로서 관객들과 공유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작가가 전시주제로 택한 'Selfish Answer'의 사전적 정의는 '자기변명'이다. 그 'Selfish Answer'는 작가로서의 자기변명을 지향한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이 지니고 있는 예술적 의지의 이기적인 고백이자 변명을 전제로 하기보다는 그 이상의 의미확립을 요청한다. 주목할 점은 그의 이러한 이기적인 변명이자 예술적 의미확립이 자기 주도적이지 않다는데 있다. 그 보다는 지극히 상대적이자 객체적이다. 그는 자기주도적인 자기변명보다는 수용자로부터 그 변명의 여지를 끌어내고자 한다. 따라서 그는 전시기획 자체를 일상용품으로서 일회용 휴지를 작품의 표현적 매체로 사용함과 함께, 그에 하찮은 생명부지의 씨앗을 수용자의 힘을 빌려 심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럼으로써 작가는 그 스스로의 자기변명을 객체화해 나가는 것이다.

그런 만큼 작가의 진정한 'Selfish Answer'는 수용자들로 하여금 'ECHO'를 유도하는데 둔다. 따라서 그 과정에 놓여있는 현상적이자 예술적인 전개과정은 별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그것은 분명 'ECHO'를 통해 'Selfish Answer'를 이루어내기 위함이 작가의 본래적 의도였기 때문이다.

Ⅲ. 'ECHO'를 통한 'Selfish Answer'와 'ECHO'의 확장

그럼에도 작가의 예술적 표현 과정이자 행위과정이 의미를 지니는 것은 이미 자기변명을 위한 반향이 그 과정 속에 녹아있기 때문이다. 한정적으로 보자면, 작가가 의도하고 있는 전시기획과 그 실행을 통한 자기변명의 과정은 현상적이자 물리적이며 생물학적 구조만이 실재한다. 이러한 의미에서만 보자면, 그것은 예술적으로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그 과정에는 작가의 의도가 내재하지도 영향력을 미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관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기술한 문제 때문에 작가는 그 의미를 'ECHO'라는 글자, 언어를 예술적 표현요소로 제공함으로써 그 의미 확립을 유도해 나가고자 한다. 인공의 힘이나 능력과는 무관한 물리적이자 현상적인 운용을 인간의 산물로서 언어를 통해 그 해결책을 찾아 나선 것이다. 역으로 말하자면 이는 무생물적 요소 속에 생명체적 요소를 투사한다거나, 그 반대의 경우를 혼용하여 무의미함을 의미 있게 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제 그 각각은 서로 교감을 하기에 이르고 예술적이자 미적인 의미를 확립한다. 그 자체가 이미 'ECHO'이며 의미의 확립이자 의미의 확산인 것이다. 따라서 이제 조용호의 'Selfish Answer'는 반향을 동반하는 존재로 군림할 뿐만 아니라 'ECHO'를 통한 'Selfish Answer'를 성취한다.

이로써 조용호의 'Selfish Answer'는 'ECHO'를 공유하고, 그 과정을 통해 그 'Selfish Answer'는 이미 생산자로서 작가와 수용자로서 관객 양자 간의 '공명'을 구현할 뿐만 아니라 소극의 작가적 목적으로서 작가의 예술적 의지를 의미 있게 이끌어 가 예술적이자 시각적 및 조형적인 문화적 욕구충족의 확산을 포용하게 된 것이다.

'Selfish Answer'의 'ECHO'를 배가시키며 · · ·

–미학, 철학박사 / 홍준화–

2009.3.17 Tue ~ 4.12 Sun 아트스페이스 (2F)

ECHO

코디네이터 하은미
비평가 홍준화

전시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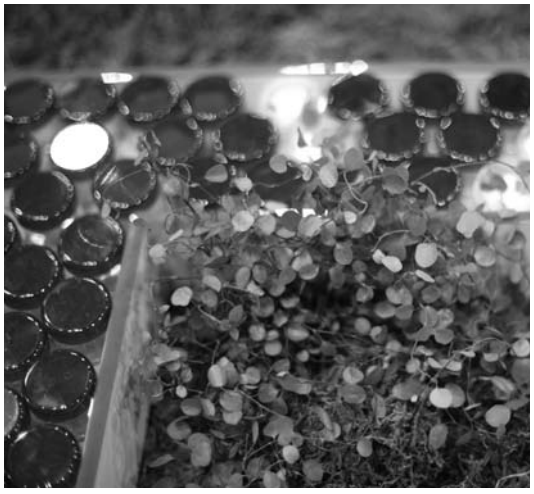
2009년 공모 선정작 중, 첫 번째 전시인 「2009유리상자-아트스타」Ver.1展은 회화와 사진애니메이션을 전공한 조용호(1979년생) 작가의 설치작품 'ECHO'에 관한 것입니다. 'ECHO'는 '반향'의 의미이며, 작업 과정 중에 진행되는 관객의 참여와 '교류'를 중시하는 퍼포먼스입니다. 이는 작가가 제공한 씨앗을 관객이 선택하고, 제시된 구조물 속에 담긴 물 티슈 위에서 싹을 틔우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번 전시 설정은 사방이 유리 벽체로 구성되어 볼 햇살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유리상자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며, 관객 동선을 제외한 흰색 바닥에 가득채운 녹색 이끼류, 'ECHO'문자로 구축한 씨앗용 선반(높이15×너비100×폭100㎝ 정도) 8개, 그 구조물 위에 관객이 선택한 씨앗과 시간이 지나 자라기 시작한 새싹, 참여한 관객의 명찰, 참여 과정 설명문 등 입니다. 이 설정들은 작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관객과 교류하는 과정을 담은 '시간의 흔적'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과거의 교류 행위가 미래의 지향성과 만나는 지점, 되돌아보는(반향적) 현재를 통하여 성장의 답을 구하고 싶어 했던 작가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작가의 이번작업은 우리 삶에서 우리의 '선택'과 그 결과로 인한 '시공간의 변화'를 관찰하고 그 모습을 시각화한 것이며, 작가가 '자기번명'으로 요약하는 인간사의 단편을 거울 속의 우리 자신을 바라보듯 하는 계기 마련입니다. '교류'로도 설명되는 'ECHO' 설정으로 관객이 자기 삶의 단면들을 새롭게 이해하도록 배려하는 점은 이번 전시의 중요한 매력입니다.

그런 이유들로 인하여 새싹에 비치는 건너편 햇살들은 우리들 삶을 새롭게 일구어내려는 예술가의 역할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종구-



Echo mixed media, 가변사이즈, 2009

스타★미술가와 시민의 만남

공모 선정작가展 2009 GLASS BOX ARTSTAR Ver.2

Kim, Junghee

김정희의 진정한 Reality 찾기

공간空間에 대한 담론은 예술철학과 현대미술사에서 중요한 화두가 되어 오고 있으며, 미국의 미술가이자 이론가인 도널드 주드(Donald Judd, 1928~1994)와 로버트 모리스(Robert Morris, 1931~) 에 의해 미니멀리즘을 이론과 작품의 정립하는데 이어 새롭게 해석되고 재인식 되어 졌다. '실제로 체험하는 공간(real space)'에 대한 진정한 reality를 찾기 위한 설치미술가 김정희의 일련의 활동 역시 이러한 공간의 의미를 형태가 존재하며, 관객이 느끼며 경험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정립하고 표현하는 작품들을 진행 해 오고 있다.

조각을 전공한 그녀의 근작들은 분명 일루젼Illusion 의 요소를 정면으로 극복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2차원의 평면적 요소가 드로잉 drawing의 기본적 요소인 선에 의해 표현되어지는 한계를 넘어 비물질적 공간 속에 우리가 보고,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형태(부피)를 새롭게 형상화 해 내고 있다. 이는 기존 평면에서의 드로잉을 공간 속의 드로잉으로 끌어냄으로써 선들의 구성을 통해 공간과의 상호 소통관계로 더욱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공간' 이란 것은 어떤 사물들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적인 요인 혹은 사물 속에 존재하는 일정한 무형의 존재이다. 다시 말해 일정한 공간 없이는 형태를 만들어 낼 수 없으며, 형태 없이 공간 역시 만들어 질수가 없다. 이러한 상호적 관계 속에서 정립되어지는 공간과 공간, 공간 속의 공간은 우리가 무의식속에서 망각 해 버리는 사물의 기본요소들이다.
하지만 현대미술의 등장 이후, 평면적 성격을 띠었던 드로잉의 요소들이 3차원의 공간 속에서 새롭게 각인되어지고, 시각적 의미를 부여받음으로써 강한 개념적 의미를 부여 받게 되어 공간 속의 작품을 완성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녀의 2003년 초기작품으로 보이는 'cubes'와 'a plain and a cubic'은 표면 위의 드로잉과 입체물들이 한 공간 속에 존재함으로써 시각적 인식의 극명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완결되지 않은 철판 덩어리들을 전시장에 배치해 놓은 'communication in the space(2004)'는 사물과 공간이 가지는 의미를 관객과의 소통을 통해 조형적 기호로 귀결점을 찾아보려는 작가의 의도가 다분히 내재된 작품이다. 로버트 모리스가 1966년에 쓴 「조각에 대한 노트:II부」의 주장처럼 미니멀리즘 대상이 '작품으로부터 관계'를 제거하고 그 관계를 '공간, 빛, 관람자의 시각상의 기능'으로 만들어 내고 있음을 감지 할 수 있다. "관람자가 다양한 위치에서 빛과 공간, 맥락의 변화하는 조건하에 대상을 파악할 때 우리는 이 관계를 관람자 자신이 정립한다."는 모리스의 주장과 같이 대상(사물)의 중요성 보다는 공간의 특정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다.
물리적으로 완결된 형태를 갖춘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부 표면에 인위적으로 부착한 검정 테이프를 통해 인지하는 공간의 새로운 해석은 공간의 부피와 모양을 감지할 수 있는 매개체가 있기에 가능한 작업들이었다. 그녀가 2005년 영국 유학시절 경험한 이러한 작업들은 귀국 후 2007년에서부터 공간을 새롭게 읽고 표현해 내는 김정희 만의 공간계산법의 단초端初가 되었다. 이후 그녀가 지속해 온 작업들에서는 주어진 공간을 읽고 해석하는 방법을 2차원이라는 범주를 극복하기 보다는 분해하고 개념화하는 작업에 몰두하였다. 공간을 3차원적인 부피감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공간의 규모를 사회적 규정인 기호(숫자와 단위)로 표현함으로써 새로운 의미전달을 시도하고 있다. 공간과 면적이 가지는 시각적 규모를 숫자로 계산하고 그것을 다시 규격화 된 종이로 분할해 냄으로써 공간을 압축하고 새로운 덩어리의 입체물로 생산해 내었다. 그리고 숫자와 단위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를 통해 관객과의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

이번 봉산문화예술회관의 '유리상자 프로젝트'에서 보여줄 김정희의 공간해석은 그녀의 일관된 공간읽기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가로, 세로 각각 6m에 높이 5.2m라는 규정된 공간 속에 미니멀리즘minimalism적인 요소를 극복하고 개념미술로 재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녀는 단순히 공간을 이분법적인 논리로 분할하는 이상의 의미를 이번 작업에 담으려고 고민하였다. 투박하고 무게감 있는 유리상자의 '샤시틀'은 절대적으로 시각적 장애요소를 유발하고 있으며, 공간을 분할하고 개념화하는데 한계점으로 다가올 수 있었다. 하지만 두께감 있는 투명 우레탄에 부피감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기계적 장치로 이러한 한계점들을 극복 해 내었다. '형식과 비형식', 'reality와 false', '안과 밖', '비움과 채움'의 경계를 오가며 규정지어 지는 김정희의 공간읽기와 해석하기는 주어진 유리상자의 범주를 관객과 새로운 소통수단으로 적절히 다루어내고 있음을 감각적으로 감지해 낼 수 있다. 그리고 전시장의 개방된 출구를 통해 공간을 회유하고 있는 공기의 흐름을 이해하고 직접 부피감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할 수 있는 작가의 의도된 배려나 개념적으로 정리된 공간을 기호로 압축해 가는 방법론적 서술은 신선함으로 다가 온다.

공空은 그 자체만으로 성립되며 실재하는 실체성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를 뜻하며, 간間은 한 곳에서 다른 한 곳까지 떨어진 공간 혹은 어떤 것과 다른 것과의 벌어진 틈을 의미한다.
공간空間, space은 물체가 점유하지 않은 빈 곳 또는 그것을 추상화한 의미의 개념을 나타내며, 미술에 있어 공간이란 것은 현대미술이 등장한 이래, 작품을 완성하는 하나의 중요 요소로서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이제 새롭게 자기 언어를 만들어 나가는 그녀의 공간 속 틈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본다.

-대백프라자갤러리 큐레이터 / 김태곤-

2009.4.24 Fri ~ 5.31 Sun 아트스페이스 (2F)

세제곱

코디네이터 이봉욱
비평가 김태곤

전시소개

2009년 공모 선정 작 중, 두 번째 전시인 「2009 유리상자-아트스타」Ver.2展은 조소를 전공한 김정희(1975년생) 작가의 설치작업 '세제곱'에 관한 것입니다. '세제곱'은 'cube', '가로×세로×높이', '㎥'의 의미이며, 입체가 점유하는 공간 부분의 크기, 즉 부피를 일컫는 기호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좀더 사적인 의미로, 특정 대상물의 부피와 형태로부터 연상되는 내부 공간의 모습을 상상하는 설계를 상징합니다. 또한 작가가 이 설계를 현실화하는 과정을 간략화한 기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제곱은 같은 수 또는 같은 문자를 거듭 3회 곱하는 것입니다. 즉, a의 세제곱은 a×a×a이며, a3으로 나타냅니다. 작가는 작업의 진행 과정 중에 발견되는 입체 공간의 특성 조건과 대화하며 그 공간을 거듭 탐구하고 감지합니다. 그리고 사물 안 밖 '공간'과 사물 '공간'을 탐지하여 작가 자신만의 새로운 공간인 사물 안 사물 '공간3'을 재생해냅니다.

이를 위한 전시 설정들은 사방이 유리 벽체로 구성되어있는 유리상자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며, 유리상자에 꽉 찰 정도로 부풀거나 공기 빠지기를 반복하는 우레탄 비닐풍선 제작물(높이2.96×너비5.10×폭5.40m 정도)과 그 제작물에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공기를 주입하는 기계, 비닐 표면에 표기된 '… 공간속에 공간이다.'와 'A SPACE', 벽면에 표기된 '2.96m'와 '5.25m' 등 개념적 문자들입니다.

전시된 설정들은 작가가 제안하는 재생 공간에 대한 비밀을 캘 수 있는 '키워드'입니다. 또한 리얼 공간의 의미를 담은 '공간3'에 관한 시각화이며, 보이지 않는 공간 세계에 대한 작가의 탐구 열정과 그 흔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각적 흔적들은 우리들 세계를 새롭게 확장해 가려는 예술가의 운명적 삶을 떠올리게 합니다.

-정종구-

세제곱 mixed media, 유리상자 가변설치, 2009

스타★미술가와 시민의 만남

공모 선정작가展 2009 GLASS BOX ARTSTAR Ver.3

Kwon, Namdeuk

권남득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展

다양한 미디어를 경험하며 자라난 젊은 세대들의 표현 언어는 점점 진화하고 있다. 예술적 상상력과 물질적 조형성을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극대화함으로서 관객들과의 소통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권남득의 조각 작품은 유난스럽게 다양한 매체와의 접촉이 많다. 그의 작업에서는 금속이라는 소재를 다양한 모습으로 접할 수 있는데 지난 2007년에 선보인 「호흡 하다」는 철가루의 집합체와 메커니즘이 만나 금속덩어리 속에서 살아 숨 쉬는 가상의 생명체를 만들어 내는 금속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 주었다. 그런데 이번작업에서는 전통적인 단조 기법을 이용해 철이 가지는 묵직함과 오래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든 형태를 잘 표현하고 있으며 철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와도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잘 이끌어내고 있다.

그의 작업은 관객과 무관하게 재생 반복되는 미디어가 아니다. 관객이 오토바이를 알아보는 순간 오토바이는 반응한다. 소통할 대상이 나타났을 때 비로소 오토바이는 어떤 식으로 살아왔는지를 천천히 이야기한다. 바람을 가르며 달릴 때의 삶, 기억, 흔적, 주변과 공존하는 모습이 나지막하게 울려 퍼진다. 미디어가 아니라면 불가능한 표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바로 이것이 시대와 매체를 넘나드는 정신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시점이기도 하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에서는 전쟁을 겪은 사물들, 즉 오토바이의 흔적이 부르는 기억과 상상을 화두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흔적은 사물이 있다가 사라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 자리는 사라짐과 새로운 존재가 교차하는 공간이 된다.
이 공간에는 허와 실이 상호공존하고 있으며, 만질 수도 잡을 수도 없는 기억의 흔적은 작가의 상상 속에서 재구성되어 이제 그는 허상을 실재로 만들어 낸다.
허상의 이미지와 재 현물은 또다시 영상으로 기록되고 작가는 현실과 이미지의 경계를 완전히 해체시켜 버린다. 실재와 허구의 경계가 뒤섞인 현실 속에서 사물의 기억은 결국 보는 이의 기억이 된다.
그리고「조립 되지 않은 총」에서는 모든 사람을 표적삼아 움직이고 있는 끊임없이 진화하는 무기를 보여주고 있다. 기관총이 발명된 유래는 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지만 더 많은 적군을 죽일 수 있다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작가는 총이 아무리 진화하더라도 사람과 물건의 본성은 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며 전쟁이라는 다소 무거워 질수도 있는 이야기를 외형상 밝고 가벼우며 귀엽기까지 한 프라모델을 등장시켜 재미있게 풀어나간다. 여기에서 작가의 특유한 위트와 유머가 돋보인다.

이번 봉산Cultural Center에서 주최하는「2009유리상자-아트스타」에서 권남득의 작업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내용이 다양하여 마치 여러 작가의 작품을 보고 있다는 착각이 들기도 한다. 작가는 유리상자라는 특수한 공간을 이용해 전시장을 하나의 진열장으로 만들고 있다. 유리 상자는 가상의 공간과 현실을 넘나드는 통로와 같은 장치가 되며 같은 공간에서 만난 관객과 오토바이는 하나의 유물이 되고 오토바이 속에 잠재하는 또 하나의 기억이 된다. 작가의 이러한 시도는 한, 두 가지 시리즈로 스스로를 협소하게 한정시켜 진부한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을 거부하고, 보다 폭넓고 다양한 실험을 통해 작업의 폭과 깊이를 자연스럽게 확보하려는 작가의 장기적 선택에 기인한 것이라 생각한다.

–미술가 / 권순자–

2009.6.11 Thu ~ 7.12 Sun 아트스페이스 (2F)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코디네이터 권순자
비평가 권순자

전시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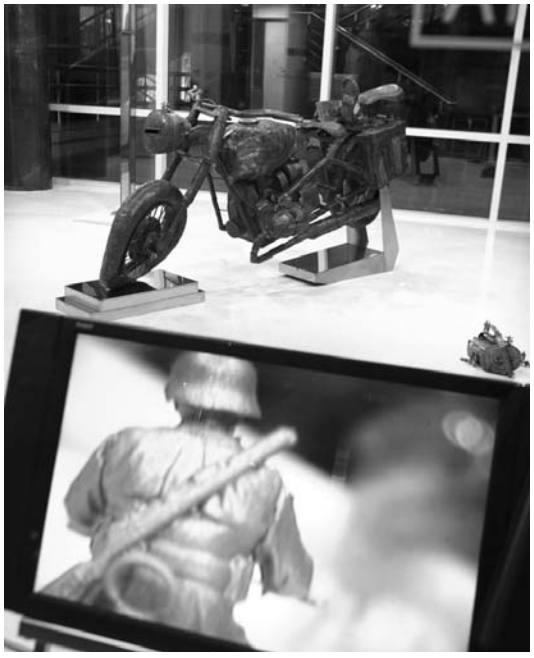
2009년 공모 선정 작中, 세 번째 전시인 「2009유리상자-아트스타」Ver.3展은 조소를 전공한 권남득(1979년생) 작가의 설치작업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는 작가의 '상상'과 재구성된 '흔적', 새로운 '기억'의 창출 등 허구적 가상으로부터 관객의 실제 기억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탐구합니다. 상상 흔적의 박제화와 이를 통한 놀이적 창조 활동으로 이해되는 작가의 작업세계는 아마도 기억을 경험하는 놀이로서 '관념 비틀기'일 것입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전쟁에 관한 관념과 생각들을 기억의 소재로 선택하면서 마치 박물관에서 벌어지는 '토이스토리' 해프닝처럼 상상하고 이야기를 설계합니다.

사방이 유리 벽체로 구성된 유리상자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전시의 설정은 세 가지의 입체로부터 시작됩니다. 포탄이 흩어지는 전쟁의 기억을 몸체에 고스란히 기록한 듯한 철제 오토바이(가로170×세로70×높이130㎝)와 작가의 상상이 만들어낸 '기억'이 재생되는 LCD모니터, 관객이 접근하면 센서시스템 작동으로 총기가 난사되는 '조립되지 않은 총'(가로110×세로25×높이250㎝) 1정, 관객이 접근하면 회전하는 원판 위에 세팅된 군용 오토바이와 장난감 병정 미니어처세트(가로70×세로70×높이45㎝), 그 오토바이 후면에 CC카메라를 설치해 실시간 송출되는 영상과 LCD모니터 그리고 바닥과 입체조형물 곳곳에 돌아다니며 작전을 수행하는 장난감 병정들 등 이 사물들과 기호들은 기억 이야기의 전개와 비틀기를 위한 설정입니다.

작가가 설정한 가상의 이미지와 재현 사물은 다시 영상으로 기록되어 관객에게 소개되면서 작가는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경계가 모호한 현실 속에서 작가만의 것이었던 사물에 대한 기억은 결국 보는 이의 실제 기억이 되어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전시의 시각적 흔적과 경험들은 우리들 기억 세계와 삶을 더 풍부하게 확장해 가려는 예술가의 FUN한 기질을 떠올리게 합니다.

-정종구-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가변설치, 철 오브제, LCD모니터, 기계장치, 2009

스타★미술가와 시민의 만남

공모 선정작가展 2009 GLASS BOX ARTSTAR Ver.4

Her, Namjun

허남준 『ART STAR MIRROR BALL』展

모든 것이 사물이다. 캔버스는 단순히 빈 화폭일 뿐일까? 그림의 경우만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 특정 장소에 설치되는 다양한 조각들은 단지 빈 공간이라는 장소에 전시되고 감상될 뿐인가? 누군가가, 마치 시간이 멈추기라도 한 것처럼 거리에 기묘한 복장과 자세로 서 있다. 마치 예전부터 비어 있는 공간과 시간에 스스로 얼룩이 되려는 것처럼. 반대로 소통이라는 다소 의심스러운 가치를 위해 그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는 무관한 작품들을 매개물로 환원시키는 예술가들이 놓치는 것은 무엇인가. 그 둘 모두를 아우르는 예술가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사람인가, 아니면 단지 그루터기에 앉아 토끼가 스스로 부딪쳐 죽기를 바라며 기다리고 있을 뿐인가? 서로의 입장차이가 너무도 분명해 보이는 이 두 집단은 여전히 동일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들 모두는 맥락(context) 속에 자신을 위치시키면서 동시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을 뿐이다. 전시장과 화폭, 들판과 하늘의 공기까지도 모두가 하나의 사물이다. 문제는, 화가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들의 작업이 창조적이지 않을 뿐더러, 그들의 화폭이 결코 비어있지 않다는 사실에 있다.

사물은 어디에 있는가? 더 이상 사물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중요하지 않다. 사물은 어디에 있는가? 어느 것이 사물인가? 사물은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고 구별될 뿐이다. 거기 사물이 있다. 무엇이라고 지시할 수 없는 착색들, 덩어리들, 과도하게 휘는 흐름들이 소용돌이치듯 거기로 쇄도해 들어가는, 바로 그곳에 사물이 있다. 하얀 백지에 돋아나는 텍스트들이 하나의 덩어리로 불쑥 솟아오르는 것처럼, 이 착색덩어리들 또한 구분되거나 매개되고 의미화 되지 않은 채 유리 위를 떠다닌다. 그러나 그것이 표현되는 순간 이 덩어리들의 무매개성은 휘발되고 만다. 다시 말해서 표현이 곧 정치(政治)인 이유는, 사물이 소멸되는 순간에야 비로소 우리 앞에 제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의미들 사이에서 맥락이 어떤 정치의 지표로 활용된다면, 정치 그 자체는 맥락의 난맥(亂脈) — 말 그대로 어지럽게 휘도는 흐름들을 통해서만 표현된다. 우리는 ART STAR MIRROR BALL에서 처음부터 사물이 소진되는 장면을 목도하게 된다.

의미를 생산하는 주체로서의 화가는 그 의미를 먹어치우는 사물과 섞여 버린다. 당신과 내가 서로를 마주보고 있다는 착각은 여지없이 유리의 매끈한 표면에 의해 가로 막힌다. 그 유리 위로, 넝쿨이 솟아오르듯 착색덩어리들이 자라난다. 내가 그리면 나는 지워진다. 사물이 자라날 때마다 유리방은 더욱 견고해진다. 더 이상 당신은 나를 볼 수 없지만, 볼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여전히 '나'로 존재할 것이라는 당신들의 예단은 환상으로 결착(決着)되고 만다. 착색덩어리의 어떤 분절, 어떤 흐름이 비존재로서의 내가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러나 이 흐름이 무조건적인 긍정의 선을 타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주체는 이 흐름 속에서 사라질 것이며, 이 소멸되리라는 두려움, 대상에게 잡아먹히고 말리라는 두려움은 온전히 주체인 나/너의 것이거나, 이 유리방 너머에 서있는 바로 당신의 것이다 — 아파니시스(aphanisis).

이 사물들이 맥락 — 즉, 콘텍스트 속에 위치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사물들은 어디에 있는가? 다시 묻자. 어느 것이 사물인가? 짜임을 넘어선 자리에 안으로 밀려들고 말려드는 세계, 구분되지 않지만 서로를 나눠 갖는 세계가 존재한다. 그러한 세계를 우리는 인텍스트(intext)라고 부를 것이다. 모든 것이 사물인 것처럼 그 세계의 무엇인가가 사라진다. 사라짐이란, 처음부터 그것이 사라짐으로서만 존재한다는 뜻이다. ART STAR MIRROR BALL은 완성되고 도드라지고 맥락 속에서 의미화 되는 작업이 아니다. 반대로 의미를 지우면서, 동시에 그 자신의 몸을 지워 나간다. 처음부터 우리는 유리방의 표면에 우리 자신이 달라붙어 착색덩어리 그 자체가 되어가는 과정을, 이 작업을 통해 보고 보여지게 될 것이다.

토끼가 하나, 둘, 셋……, 사방으로 달아날 때,

늑대인 우리의 몸도 그 이상으로 찢기고 흩어져 달려간다.

-김종호-

2009.7.14Tue ~ 8.30Sun 아트스페이스 (2F)

ART STAR MIRROR BALL

코디네이터 편재민
비평가 김종호

전시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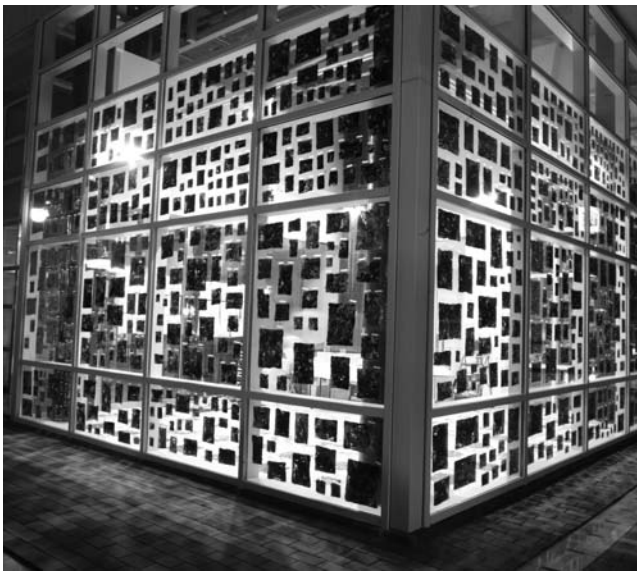
2009년 공모선정작中, 네 번째 전시인 「2009유리상자-아트스타」Ver.4展은 허남준(1976年生) 작가의 거주(居住)형 설치아카이브 'ART STAR MIRROR BALL' 입니다.
나이트클럽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많은 작은 거울을 붙인 회전식 장신구(球)를 떠올리게 하는 'ART STAR MIRROR BALL'은 작가의 무의식적 '그리기', 거주 및 다양한 스펙트럼을 통한 '확장', 소통을 위한 '대중성'의 창출 등 작가 개인의 표현으로부터 '관객과 공감'으로 이어지는 확장 과정을 탐구합니다.

자동 기술적인 그리기 흔적의 작품化와 이를 통한 일상적 삶의 창조놀이化로 설명되는 작가의 작업세계는 아마도 자기표현을 객체화하여 그 상황을 체험하는 놀이로서 '자기 반응 성찰'일 것입니다.특히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투명한 공간에서 15일 거주 라는 환경을 선택하면서 마치 자신을 벌거벗고 그림을 그리는 해프닝처럼 자신의 상황을 새롭게 공개 확장하는 것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사방이 유리 벽체로 구성된 유리상자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거주형 전시의 설정은 네 가지의 무개성적인 작업들을 거주생활 속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아카이브化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첫째, 투명비닐 위에 12가지 기본 색상의 아크릴 물감을 나이프로 밀어서 단일 화면을 만들고 이를 유리 벽면 전체에 밀착 설치하여 마치 유리벽 양측 면에 서로 다른 마블링 그림을 그린 듯 보이는 작업(가로×세로10~30㎝ 비닐화면 730개 정도). 둘째, 아마포 천위에 튜브 물감을 짜서 물감 물성 그대로의 색선으로 형체를 그리며 철필을 가미한 바닥 설치 작업(가로50×세로50㎝, 51개). 셋째, 나무 패널 안에 물감을 짜 넣어 색과 물성을 담아놓은 듯 보이는 작업(가로20×세로20×높이3㎝, 30개). 넷째, 다 쓰고 남은 물감 튜브를 쌓아 올린 오브제 작업(가로90×세로90×높이50㎝) 등. 이 설정들은 작가가 체험하려했던 상황 설계의 보조자이며, 일상과 신화의 경계를 애매모호하게 하는 스펙트럼 확장의 흔적입니다.

거주 형식의 작업과 무의식적 자동기술 방식은 작가 스스로 창작자이기보다 일상적인 성찰자의 위치에서 반응하려는 의지이며, 창작과 감상에 관한 경계의 모호성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경계가 모호한 창작과정을 통하여 작가만의 것이었던 '표현'들은 결국 보는 이의 적극적인 재해석에 의해 다양한 'ART STAR MIRROR BALL'로 이어집니다. 또한 이 전시의 시각적 설정과 거주 행위의 아카이브들은 우리들 세계와 삶을 더 풍부하게 확장해 가려는 예술가의 특별한 기질을 경험하게 합니다.

-정종구-



아트스타 미러볼 Exhibition Sketching, 2009

스타★미술가와 시민의 만남

공모 선정작가展 2009 GLASS BOX ARTSTAR Ver.5

Lorie Kim

UNKNOWN PARAMETER VALUE

이카루스의 추락이후 예술의 마법 시대는 끝이 났지만 창조에 대한 탐구는 여전히 유효하다. 창조는 작가의 상상력 안에서 그 생명을 유지하며 관람자들을 주인공석(座)에 앉히곤 한다.
'Rising Dreams(꿈의 행진)'에서 Lorie Kim(로리킴)은 21세기의 다이달로스가 되어 추락 없이 날아오를 새로운 날개를 짓는다. 그 날개로 관객은 꿈과 자유를 향해 비상하는 이시대의 이카루스가 된다.

작가 로리 킴, 그녀의 작업방향은 구축이나 조작으로 바깥 세계와 솜씨 좋은 관계맺음이라기보다 내발적 울림, 희망의 시각화다. 그 속에는 거부할 수 없는 환경의 반영, 서구적 합리성과 한국적 민족정서가 씨실과 날실처럼 엮여져 있다. 그의 작품에서 차별성으로 다가오는 것은 고유영역 안에 경계 지워진 듯한 고요한 미감이다. 이것은 지극히 여성적이며 모성과도 닮아있다. 순차적으로 드러나는 여성미가 자식(인간 삶의 다의성)을 대가없는 포용으로 포근히 감싸 안은 한국 어머니들의 모성을 연상케 한다. 그의 작업에는 퍼포먼스 스토리텔링, 섬유소품을 이용한 설치, 드로잉과 테크놀리지를 넘나드는 다양한 작업방식과 섬유(노방천)가 많이 사용된다. 특히 2003년의 〈Home of My Heart〉, 〈Eternal Home〉, 〈The Prayer Room〉, 2004년의 〈Treasure〉, 〈Prayer Stains〉, 〈The Promised Gift〉, 2005년의 〈Fire in Bloom〉, 2007년의 〈The Way〉, 2008년의 〈and You will Live〉, 〈I made my own Wings〉등이 그러하다. 저변에는 '인간존재'라는 주제가 깔렸으며, 재료나 표현기법에서 한국의 민족정서가 간간히 배어난다. "한때 한복의 단아함에 매료되어 한복 만드는 기술을 익힌 후 작업방향도 그에 가까워졌다."라는 그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재료나 표현기법은 동 서양을 오가며 축적된 경험이나 기억이 융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생활했고 지금은 한국에서 작업한다. 즉 코리언 아메리칸이다. 그래서 자국과 이국의 문화가 낯설거나 또는 낯설지 않다. 어린시절부터 서로 다른 사회 문화적 차이, 인종과 민족의 정체성, 그 혼란 앞에서 자결권을 가져야 했다. 다른 환경에서 파생된 정신적 육체적 곤란으로부터 간절했던 소생의 부르짖음, 그것은 화두가 되어 서서히 작업으로 자리 잡는다. 결과적으로 동서(東西), 자타(自他), 주객(主客)이라는 이분법적 분절이 아닌 '인간'이라는 하나의 통합적 결속체로 남겨졌다. 그리고 '나는 나다.'라는 자기존재와 그 가치를 찾아 인간이며 작가인 자신을 중간자 즉 배달부, 의사, 농부에 위치시켜 놓았다. 지친 마음이 쉬어가는 중간자,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배달부, 아픈 영혼을 치유하는 의사, 씨를 뿌리고 싹을 가꾸는 농부, 이 평범하면서도 거창한 타이틀들을 스스로에게 부여하며 적잖은 의무를 작품으로 승화한다. 따라서 그녀에게서 작가란 창조자, 구원자, 그리고 이 모두를 겸비한 어머니가 된다. 지금까지 작품의 근간을 이루는 재탄생, 생명, 희망, 꿈 등이 이를 대변해주고 있다.

일환으로 이번 유리상자전에서 보여줄 주제도 'Rising Dreams'이다. 그리고 오브제로써 천이 준비된다. 잔잔한 파도와 같은 흰(또는 미색 노방천)천 조각들이 유리상자 바닥에 펼쳐지고 조각난 발(足)모양을 붙여 거대한 하나의 깃털을 만든다. 이것을 투명 와이어에 달아 유리상자 위쪽으로 솟구치게 설치해 역동적인 꿈의 비상을 실현시키려 한다. 오브제의 가변이동이 마땅히 나올 곳으로부터 스며 나온 것같이 서서히 한 무리가 되어서야 온전한 꿈이 되어 날 수 있다. 미약한 시작, 작은 하나하나가 모여 이루어질 큰 틀(form)은 인간의 삶이라는 거대담론 안에 꿈(희망)의 단면으로 존재한다. 즉 포개지고 앞으로 나서고 뒤로 물러나 즐비해진 천 조각의 울림(gradation)은 긍정의 힘이 된다. 얇은 천 조각이 한 땀씩 이어져 큰 덩어리가 되는 과정, 궤매기라는 반복적이면서도 지루한 노동은 삶의 반추이며 '길, 혹은 꿈은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교훈적인 의미를 내포한다. 이 외침은 시지각에 드러나 다채로운 색의 날개를 타고 유리벽 밖으로 의미를 확장해 간다. 곧 목적과 방향성을 잃은 일상에 활기를 부여하고 '삶은 소중한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는다. 같은 물을 마시고도 소는 우유를, 뱀은 독을 생산하듯, 작가는 세상을 마시고 긍정적 에너지를 발산하고픈 것이다. 사방으로 시각행로의 자유를 허용하는 유리상자는 물리적 경계를 넘어 무한히 열려있는 자유공간으로 관자를 안내한다. 날개는 결국 관람자를 유도해 관조적으로 투시하고 또 동참하게 함으로써 작가의 작업의도를 공유하게 된다.

체험의 장에서는 참가자들에게 색지에 발을 대고 오려붙여 날개모양을 만들고 희망을 적게 한다. 작은 날개들을 모아 거대한 하나의 날개를 완성하고 유리상자 바깥쪽에 전시한다. 전시 후 개개인에게 단체 사진과 함께 응원의 편지를 써서 우편이나 이메일로 보낸다. 천 조각-날개형상-색채는 상징성을 띤 허상이지만 이들이 일궈낸 날개는 꿈의 대변자로써 의미가 깊다. 이것이 'Rising Dreams'의 요지이다.

날개 없이도 날수도 있는 매트릭스(matrix)의 시대에 희망의 상징을 애써 노동을 수반한 물리적인 날개에 대입시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기술이나 과학으로 대치될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을 겨냥한 작가의 의지로 읽혀진다. 예술의 힘, 그것은 작가의 상상력 안에서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과 본성을 어루만져줄 수 있기에 소중하다. 로리킴 작가와 마주하면 투명한 유리의 물성이 그녀의 영혼과 닮은듯하여 그녀를 둘러싼 날개와 유리상자가 또 하나의 작품으로 도출될 것을 기대케 한다. 더운 여름날 서울에서 대구를 오가며 유리상자(전시 공간)를 분석하고 냉철하게 작품의 완성도를 높여가던 열정이 20대 중반의 준비된 작가라는 강한 인상을 남긴다. 부드러우면서도 날카로운 대비(contrast)적 조형언어가 외유내강의 그녀와 닮아있다. 강한 부정은 긍정을 암시하듯 어두운 현실과 밝은 이상사이에서 탄생될 로리킴의 날개, 그 확장된 꿈과 희망의 메시지가 힘차게 비상하길 기대하며.

-미술평론, 미술가 / 서영옥-

2009.**9.11**Fri ~ **10.11**Sun 아트스페이스 (2F)

Rising Dreams

코디네이터 박나라
비평가 서영옥

전시소개

2009년 공모선정작 中, 다섯 번째 전시인 「2009유리상자-아트스타」Ver.5 展은 로리킴(Lorie kim, 1983年生) 작가의 설치작업 'Rising Dreams'에 관한 것입니다. 'Rising Dreams'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환희를 위한 과정', '시작하는 꿈'의 의미이며, 현실 세계와는 좀더 나은 다른 상태로의 지향과 이를 위한 보이지 않는 노력의 과정 등을 은유한 것입니다. 이 작업은 작가의 개인 신화에서 출발한 자기성장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창작의 기쁨'과 '창작의 힘'에 관한 작가의 신념을 관객 소통의 메시지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전시 설정은 사방이 유리 벽체로 구성되어있는 유리상자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며, 설치의 기본단위 매체는 속이 들여다보일 정도로 얇고 부드러운 크리스탈 노방천을 가위로 오려 만든 발자국 모양의 본(길이26×폭9㎝정도)입니다. 우선 전시 공간 바닥에는 흰색과 연한 갈색의 발자국 모양 기본 매체가 수 만개 정도 정돈되지 않은 상태로 깔려있으며, 이 기본 매체가 주변의 빛을 반사하여 빛어내는 특별한 빛으로 현실과는 다른 경계영역을 설정 합니다. 그리고 바닥의 중앙 부분에는 다양한 색의 기본 매체 수천 개를 이어 붙여 만든 날개 혹은 나뭇잎모양의 집합체(날개잎, 길이240×폭140×두께0.2㎝ 내외) 6개를 설치하여 막 피어나기 시작하는 꽃봉오리를 연상시킵니다. 그 위 천정(높이 7m정도)에는 청색과 보라색조 등 형형색색의 날개잎 집합체 7개를 매달아 공중으로 흩날리기 시작하는 장면을 연출합니다.

이 설정들은 작가가 관객과 소통하려했던 상황 설계의 구조체이며, 현실과 신화의 경계를 이어주는 스펙트럼입니다. 이 스펙트럼은 목적과 방향을 잃고 자신의 색을 잃어 어둠 앞에 직면한 개인을 회상하게 합니다. 또한 이 스펙트럼은 개인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발자국 하나하나를 노동의 투명한 빛으로 치환해가며 꽃잎과 날개를 닮아가는 확장된 이미지들…, 나아가 막 피어나는 꽃봉오리의 비상을 환희하는 '개인 신화'를 구체적으로 시각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각 흔적들은 우리들 자신의 성장을 매개하는 예술가의 존재감과 열정을 상기시킵니다.

-정종구-

Rising Dreams 크리스탈 노방천, 가변설치, 2009

스타★미술가와 시민의 만남

공모 선정작가展 2009 GLASS BOX ARTSTAR Ver.6

Lee, Sangheon

훈훈한 삶의 기억-이상헌의 유리상자 전

자신 찾기 그리고 문득 생각나는

읽었던 책을 새로 꺼내 살피다가 펼쳐진 책갈피 사이에 은행잎을 발견한다. 잊을 수 없는 기억은 지난 경험을 인간의 생각 속에 간직하고 되살리는 것이다. 되살리지 못하거나 기억되지 않고 잊어버린 것을 망각이라 한다. 망각은 기억의 다른 모습이기도 하다. 잊어버리고 생각나고, 잃어버리고 찾는 기억과 망각은 인간이 삶에 대한 적응하는 기능을 한다. 기억은 인간이 잊어버리거나 희미해지는 특성을 이해하면 시간의 개념을 얻을 수 있다. 작가의 '자신 찾기'는 이러한 시간의 흐름을 읽어내는 데 있다.
시간의 흐름에는 사건들이 있고 그 사건은 개인적인 중요성에 따라 의미가 변한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인간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무수한 경험과 그 경험의 기억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타인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억들이 진정한 '나'에 대한 기억인지를 묻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타인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린 또는 잊힌 나의 존재로부터 현대인의 고독과 사회로부터의 고립에 대한 불안심리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삶이 녹록하지 않거나 한계를 느낄 때 자신을 되돌아보게 된다. 그 중 기억은 아주 훌륭한 재료이고 이제까지의 결과이다. 다른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거나 사라지게 한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고자 하는 인간 근원적인 모순들이 있다. 그래서 갑자기 떠오르는 기억들을 어떻게 재구성할까를 고민하게 한다.

함께하고 싶다. 그래서 비치는(seethrough) 작품

봉산문화회관 2층 전시실 중 〈유리 상자〉는 독특한 전시 공간이다. 일반적인 전시공간인 흰색 벽으로 막아 뒤쪽의 시선을 차단하여 작품을 집중하여 볼 수 있게 이루어진 화이트 큐브(White Cube)로 된 공간과 달리 감상자가 내부에 들어서서 볼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바깥에서 안쪽을 훤히 뚫어보는 시선을 가지고 있다. 또한, 유리를 통해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일종의 투명유리(plain glass)라는 비치는(seethrough)성질을 이용한 공간이다. 내부를 보여주는 속내를 드러내게 하는 공간이다.

전시 공간에는 유리 속에 목조로 된 인물이 밖을 보고 있고 중앙에는 4m 크기의 목조 인물상이 있다. 공간 안쪽을 들여다보려고 발길을 유리 속의 작품 가까이 가면 감상자의 영상이 내부에 설치된 LCD 모니터를 통해 나타난다. 폐쇄회로-티브이(CCTV)가 유리 벽 쪽의 인물상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작품이 마치 감상자와 마주 보고 대화를 하는 것처럼 연출될 것"이라는 작가의 작품은 감상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그 감상자 자신의 모습도 감상자의 형상도 비치고 있어서 함께 관찰하게 한다.

뿌리를 둔 사유 그 진노랑 빛 가을

이상헌의 목조작업은 나무의 생명력, 대지에 뿌리를 두고 하늘을 연결하여 잇는 생명력을 잘 드러내고 있다. 조각(carving)은 소조(modeling)와는 접근 방법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소조 작업은 모양을 만들고 거푸집을 제작하고 나서 그 형상을 빼내는 작업이라면, 조각은 본래 재료의 모양에 근거하여 작업한다. 제한된 공간 속에서 작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한계 속에서 내용을 담아내야 한다. 본래의 재료가 가진 성질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다. 그래서 더욱 친근감이 있다. 또한, 제한된 형태 속에서 만드는 상상력을 발휘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인간적인 고민이 많이 스며있게 된다. 일종에 나무를 '미이라'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함께 숨 쉬고 함께 지나친 것이 작품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어서 생명에 뿌리를 두고 있다.

작가가 사용한 주요 재료는 은행나무로서, 가볍고 부드러워 고급가구에서 인체에 닿는 부분에 주로 사용된다. 은행나무는 "살아있는 화석"으로 메타세쿼이아와 더불어 지구 환경에 꾸준히 적응한 나무이다. "은행나무의 이러한 특성은 현대사회의 냉엄함 속에 삶의 무게를 묵묵히 견디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유사"하다는 작가는 재료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다. 사회 속에 뿌리를 두고 오랜 시간 고민하고 일하며 그 스스로 치유하는 작가의 작업관은 오래된 나무처럼 깊이 있는 내용의 색깔을 가진다. 은행잎이 가을을 진노랑 빛 아름다움으로 발(發)하는 것처럼 이상헌이 추구한 인간관계의 훈훈한 복원이라는 욕망이 현실을 물들였으면 한다.

-미술사 박사 / 양준호-

2009.10.23 Fri ~ 11.29 Sun 아트스페이스 (2F)

기억잡기

코디네이터 서희주
비평가 양준호

전시소개

2009년 공모선정작中, 여섯 번째 전시인 「2009유리상자-아트스타」Ver.6展은 이상헌(李相憲, 1966年生) 작가의 입체작업 '기억 잡기'에 관한 것입니다. '기억 잡기'는 나무에 대한 기억, 나무를 조각하는 노동, 공간을 유영하는 인형, 관객과 눈맞춤, 관객의 기억읽기로 이어지는 작가의 기억 탐구과정이며, 본연의 '나'를 기억해내기 위한 작가 자신의 순례를 인물조각으로 형상화한 것입니다. 이 작업은 타인의 기억 속에서 나의 기억을 찾고 그 기억이 공유되는 상호소통의 가능성을 메시지로 삼고 있으며, 소통을 통한 진정한 자기성찰과 자기인식 과정을 지향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방이 유리 벽체로 구성된 유리상자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전시의 설정은 두개의 나무 조각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기 정체성의 상징물로 인형조각 뒤편 바닥에 외롭지만 꿋꿋하게 놓여진 나무의자(가로20×세로20×높이60㎝), 관객을 향해 헤엄치며 내려오듯이 허공에 매단 거대한 나무조각인형(가로400×세로180×폭85㎝)과 인형의 눈에 장치된 실시간 전송 카메라, 나무인형의 눈으로 바라보는 광경을 담아내는 LCD모니터 등 설치된 장치와 입체조각은 주변 환경과 유리벽면 너머의 관객에게서 본래의 자기기억을 되찾으려는 나무인형의 기억순례 이야기와 관객 소통을 위한 설정입니다. 작가는 또 다른 설정으로, 관객이 소유한 각자의 경험기억을 'Memory Paper'에 기록하여 나무인형의 몸체에 투입하는 내용의 관객참여 프로그램을 통하여 관객의 구체적인 기억을 수집하기도 합니다.

유년시절의 향수가 담긴 나무에 대한 자신의 기억에서부터 자신의 작품을 보며 스쳐지나가는 관객의 기억 읽기에 이르기까지 풍부하게 확장해가는 기억 층들 속에서 작가는 본래의 자신을 기억하려합니다.

그리고 자타의 경계가 모호한 기억 층 네트워크 속에서 작가만의 것이었던 세계에 대한 기억은 결국 관람하는 이의 기억이 되어 또 다른 '기억 잡기'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이 전시의 시각적 이미지와 경험기억들은 우리 모두의 성장과 삶을 더 풍부하게 확장해 가려는 예술가의 에너지를 기억하게 합니다.

-정종구-

기억 잡기 180×400×85 cm, 향나무, 은행나무, 2009

스타★미술가와 시민의 만남

공모 선정작가展 2009 GLASS BOX ARTSTAR Ver.7

Jung, Jaehoon

정재훈의 디오라마적 미니어쳐들과 그 미학적 상상력

조각가 정재훈의 작업은 이른바 미니어쳐 모형(Miniature)이나 프라모델 조립물을 연상시킨다. 어릴 적 누구나 한번쯤 관심이나 흥미를 가져보았음직한 항공기나 선박, 로봇의 형태들을 연상시키는 그의 작업들은 일반적인 설치작업이나 조각 작품에서의 미적지평에서 볼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유니크한 작업들이다. 마치 우리가 취미용 모형 조립상자를 뜯었을 때 볼 수 있는 부품 전개도 같기도 한 그의 작품들은 실제 미니어쳐나 프라모델들과는 전혀 다른 구조들과 형태들, 그리고 상이한 재료들로 만들어진 것들이다. 예를 들어 그의 비행체 구조물들은 항공역학이나 유체역학에서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부력이나 마찰력 같은 것들은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다. 즉 실제적 기능이나 과학적 원리와는 그 어떤 관계도 없는 구조물들인 것이다. 그것들은 우리가 흔히 공상과학영화나 애니메이션에서 접할 수 있는 비행체나 자동차 혹은 우주선 같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으나 소위 그러한 것들이 있음직하다는 개연적 상상력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구조물 이미지들이다. 또 그에게 있어 이러한 이미지들은 현실의 기계부품이나 소재들에 뿌리를 두고 있으되 실제적 기능이나 용도, 목적보다는 상상적 형태들, 미적인 대칭 구조, 기계적 비례를 강조하기 위하여 드러난 이미지들로서 허구적이고 가상적인 기계 메카니즘에 근거를 두고 있다. 특히 정재훈의 구조물들은 실제로 코어 합판이나 MDF같은 복합목재들을 가공하여 만든 정교한 목재 골격들과 와이어줄, 나사들로 이루어진다. 비록 작가 정재훈의 작품들이 가상적 기계 메카니즘을 전제로 하여 상상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는 하지만 하나의 조립 구조물이 가져야만 하는 물리적 정합성, 설계의 치밀함, 비례와 부품의 정밀도 등은 일반적인 기계 구조물이 가지는 속성과 규준에 견주어볼 때 전혀 손색이 없는 듯 보인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파노라마(Panorama)와 대비되어 19세기 사진술의 대가이자 은판사진 발명가였던 루이 자끄 망데 다게르(Louis Jacques Mande Daguerre, 178 7~1851)의 디오라마(Diorama)는 제한된 배경이나 작은 공간 속에 대상을 설치해놓은 후 볼 수 있게끔 한 연극적 입체 전시를 통칭하는 말이다. 배경이나 시선의 제약이 없는 파노라마와 달리 디오라마는 실물의 축약물인 미니어쳐들이 주된 시선의 대상들인데 우리가 흔히 박물관의 재연 코너나 건축 모형물들을 통해 익히 접할 수 있는 설치 구조물들이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정재훈의 작업들은 그러한 미니어쳐나 프라모델들에 견주어 보았을 때 구조적 유사성과 닮음꼴의 기계적 메카니즘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동일한 가상적 허구세계, 즉 디오라마적 세계를 공통의 전제로 하고 있다. 대중영화나 SF 만화에서 자주 가까운 미래로 설정되곤 하는 그 허구적 세계는 바로 작가 정재훈의 작업이 그 출발점을 두고 있는 가상적 허구세계이다. 그러한 가상적 세계와 공간에 작업의 기반을 두고 재료의 물성과 대칭적 비례 구조에 그 시각적 무게를 둔 그의 작품들은 독특한 비현실감과 이색적인 상상력을 불러일으킨다. 이를테면 이는 일종의 이제껏 목격한 적 없는 경이로운 기계 메카니즘에 대한 기대감이자 유혹이며 낯선 세계의 조형적 미감을 환기시키는 작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합성 목재와 고정나사, 와이어줄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정재훈의 작품들은 견고한 듯 보이면서도 아름답다. 그러한 구조물들의 전체적인 외형은 그 복잡하고 다양한 기계적 구조의 치밀함으로 인해 그 부분 부분의 기능들과 역할들, 곡선 형태들에 대한 의문들을 배가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그가 보여주는 디오라마적 세계의 그로테스크한 환영 속으로 깊숙이 끌어들인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 시대에 현재 통용되고 있는 보편적 미적 감수성을 넘어서서 새로운 미적 대상과 지평을 선취해내는 작업일 수 있다. 구체적인 예로 영화 에일리언을 통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스위스 작가 한스 루돌프 기거(Hans Rudolph Giger, 1940 ~)의 낯설고 이색적인 시각 이미지들은 많은 세간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분명 새로운 미학적 세계와 지평들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본격적인 전자과학기술시대에 들어서서 수 없이 많은 창조된 이미지들이 실험적으로 고안되고 발명되며 세계 속에서 순환한다. 그러한 이미지들은 모두 각각의 독특한 상상적 세계를 전제하거나 구축하며 그 생명을 부여받는다. 작가 정재훈의 이러한 디오라마적 미니어쳐 조형 이미지들 또한 현재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예술 창작 경향의 세대적 징후로 읽혀지며 그의 작업들이 던져주는 미적 가치들과 의미들은 분명 한 번쯤 우리 모두 진지하게 살펴보고 논의해 볼만한 미학적 질문으로 보여 진다. 미래에 대한 상상력이 권력을 쟁취한다는 구호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젊은 작가 정재훈의 작업들을 보면서 강력하게 예감하는 탓이다.

-미학 / 최창윤-

2009.12.11 Fri ~ 2010.1.17 Sun 아트스페이스 (2F)

WHITE OUT

코디네이터 손영복
비평가 최창윤

전시소개

2009년 공모 선정작 중, 일곱 번째 전시인 「2009유리상자-아트스타」Ver.7展은 조소를 전공한 정재훈(1980년생) 작가의 설치작업 'WHITE OUT' 입니다.

'WHITE OUT'은 시야상실 또는 백시현상을 의미하는 등산 용어이며, 주로 눈이 내린 산 표면에 가스가 덮여서 모든 것이 하얗게 보이고 원근감이 없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현상이 나타날 때에는 무리하게 움직이기보다는 다시 시야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작가가 지칭하는 'WHITE OUT'은 시각적 형태로서 '비행기'와 긴 인생여정을 향한 '날기'의 상상 등으로 표출되는, 첫 출발이라는 작가 개인사의 서술에서부터 새로운 예술관의 모색, 관객과의 교감에 이르는 과정 탐구를 담고 있습니다.

작가의 상상 흔적을 통하여 경험과 과정의 매력을 제시하는 이번 작업은 아마도 작가 자신의 현재 삶에 대한 질문일 것입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불확정성'과 '두려움', '동경'이 혼재된 미래에의 설렘을 작업 소재로 선택하면서, 마치 고향 이타카ithaca 섬을 향한 오디세우스의 여정 중에서 'WHITE OUT' 경험을 은유하는 것처럼 시각 구조물을 설계합니다.

사방이 유리 벽체로 구성된 유리상자의 전시 들여다보기는 막 날기 시작하는 듯한 나무비행기(길이3.25m×폭5m×높이1.6m) 1대로부터 시작됩니다. 미지에 대한 상상과 여행의 상징으로서 복엽 비행기Biplane '이타카'는 그 형태를 구축하기 위해 수많은 모듈형 MDF부속품들과 조립용 나무 지지봉으로 만들어져있습니다. 이러한 수백 개의 부품 하나하나를 설계하고 만드는 작가의 끊임없는 노동은 미래를 항해할 수 있는 기능적인 비행기를 완성하기보다는 긴 제작 시간과 과정을 즐겨보겠다는 스스로의 다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전시는 앞날의 불투명하고 모호한 현실 속에서 '기다리기'와 '과정 즐기기'를 선택한 젊은 작가의 제안입니다. 이 과정에서 얻어진 경험들은 결국 관객의 경험과 교류하며 'WHITE OUT'으로부터 '이타카'라는 희망 설계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전시의 시각적 흔적과 과정의 경험들은 우리들 시대를 탐구하며 새로운 세계창조의 매개자가 되는 예술가의 길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정종구-

ITHACA MDF, screw, tarminal, sleeve, washer, steel wire, 500x325x165cm, 2009

2010

GLASS BOX ARTSTAR

2010유리상자-아트스타

Ver. 1
하원식-조각난 풍경
3.19- 4.25

Ver. 2
정은기-하늘 놀이
5.7- 6.13

Ver. 3
손영복-Colorful palace
6.25- 8.1

Ver. 4
김소영-환(環)이 만들어내는 환(幻)
8.13- 9.12

Ver. 5
김 현-Dice Cast Dice Cast
10.1- 10.31

Ver. 6
김미련-Monumental Aircoat in Glassbox
11.12-12.12

Ver. 7
이준욱-A Vehicle
12.24- 1.30

봉산 Cultural Center에서 주최하는「2010유리상자-아트스타」공모선정 작가展은 설치·영상미술을 포함한 동시대 미술과 만남에 주목합니다. 올해 공모 전시의 주제이기도 한 '예술가와 시민의 별★같은 만남'은 미술이 지닌 '공공성'에 주목하고 미술가의 공익적인 태도와 역할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미술가의 공공성이 다수의 관심과 지지자를 확보하면서 대중적 '스타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유리상자」프로그램은 2006년부터 독창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봉산 Cultural Center 자체 기획물입니다. 도심속에 4개의 유리벽면으로 구성된 아트스페이스의 장소 특성을 살려서 내부를 들여다보는 관람방식이 독특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느 시간이나 관람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시민들의 예술 향유 기회를 넓히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열정적이고 참신한 예술가들에게는 특별한 창작지원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예술지원센터로서 더 많은 대중적 관심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국공모에 의해 선정된 참신하고 역량 있는 작가들의 작품 전시를 연속적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예술가와 시민의 별★같은 만남

공모 선정작가展 2010 GLASS BOX ARTSTAR Ver.1

Ha, Wonsik

하원식의 투명한 유리상자전

봄은 시간에 따라오는 것은 아니다.

찰나의 순간에 보이게 하는 것이 봄의 힘이다. 겨울에도 생명은 성장이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변화를 준비한다. 머물러 있고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바뀌고 있다. 겨울은 봄과 대비가 된다. 봄은 사람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숨겨진 모습을 변화하여 확연히 보이게 한다. 숨겨둔 것을 드러내는 방법을 아는 자연은 인간의 추측을 빗나가게 한다.
하원식의 조각은 숨어 있는 의미를 드러내 보여준다. 백색공간과 다른 '유리상자'란 공간 속에서 조각난 것들로 공간을 채워 나간다. 전시공간 앞쪽의 대나무는 실제 대나무를 가로로 조각을 내서 쌓아 올렸다. 조각 낸 순서대로 결합하여 대나무가 높이서 있는 것처럼 설치해 대나무의 새로운 형태를 보여준다. 그 바닥은 흙이 있는 땅의 느낌이 드는 크기가 A4 크기의 출력지에 프린터를 하여 조각을 겹치거나 널어놓고 있다. 그리고 세워놓은 대나무 조각들 뒤쪽에는 대나무 숲의 큰 이미지를 조각내서 늘어뜨려 설치하여 대나무 숲을 연출한다. 그 대나무 숲과 바닥 그리고, 대나무에는 숫자들이 기록되어 있다.
대나무는 온대성 식물이기 때문에 대나무가 자랄 수 있는 곳은 한정된다. 그는 따뜻한 환경에 대한 이미지를 유리상자 전시장을 온실이란 장소로 바꾸어 나타내고 있다. 또한, 대나무를 자연에서 분리된 온실이란 장소의 의미를 새롭게 설정하여 전통적으로 문인화의 대표적 소재인 고결한 대나무 그림을 투명한 공간 속에서 상징 조각(彫刻)으로 표현한다.

조각난 자연과 연역적 사고, '조각'의 조각(彫刻)

하원식의 작업은 '조각'을 감성의 재료로 사용하고 있다. 조각(彫刻) 작업을 하는데 관념적인 모습보다 현실 속에서 생산되는 구체적인 재료들로 시작한다. '조각'들이 어떻게 인간에게 다가갈 것인가를 물어오고 있다. 조각은 압도하는 양감(volume)을 만들어내는 것 보다, 감성을 공간에서 표현하는 것에 의미를 둔다.
유학 뒤 그의 작업은 대상을 설정하고 그 위에 변화하는 이미지를 투사하는 작업으로 입체형상 위에 덧씌운 환영(illusion)들이 나타남과 사라짐을 표현하는 작업을 했다. 그런 작업은 일반적인 조각과는 시작구조가 다른 접근방식이다. 이미지를 대상 속에서 넣어서 그 질료에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질료와 이미지가 결합할 수 있고, 제대로 보이지 않게 이미지가 방해하기도 한다는 사실(fact)을 알려준다. 즉 형상은 대상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대상을 보는 사람의 인식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fact)은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되어야 하고, 사실(fact)은 물체가 아니라는 인식이다.
이번 작업은 스크린의 망정인 화소(pixel)와 인쇄된 망점(halftone), 그리고 수라는 것의 연관 관계를 작가는 요소로 적절히 설정하고 있다. 수(數)의 근원적인 추상성을 사용하여 자연을 인식하고 관계 짓는다. 유클레이데스의 〈원론(Stoicheia)〉에서처럼 몇 가지 공준과 공리를 내세운 명제는 넓이가 없는 점, 폭이 없는 선이 꾸며내는 가상(imagine)의 세계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가설(fiction)을 바탕으로 한다. 화소 또한 수와 같은 방법으로 삼아서 세계를 예술로 재구성한다. 재구성하는 질서는 법칙성이 있고, 법칙성의 원인에서 명제를 이끌어 내는 연역적 표현체계 구축은 작가가 설정한 예술 이념의 바탕이 된다.
그래서 매체를 해체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콜라주(collage)나 아상블라주(assemblage)와 같은 모더니즘의 기법을 오히려 자연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한 장치로 전환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표현적인 행위(gesture)나 요소로 분절(分節)된 프린팅 형식처럼 분명하게 파편화 되고 이름 붙여지지 않게 한다. 출력한다는 것은 장소와 시기를 넘어서 대상을 양식적으로 동질화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런 동질화를 바탕으로 대상의 물리적 복원이나 환원하려는 연역적 표현체계로 작가는 나타낸다.

사유를 입체적으로 이끌어내는 방법적 조각(彫刻)

작가의 작업에 대해 '조각난 자연'인가 혹은 '자연의 조각'인가라는 논란이 있었다.
자연의 미학적 통일성을 방법적 환원을 통해서 전체적인 자연을 담아낼 수 있다는 접근 방식과 대비하여 해부하여 자르기와 오려내기 기법을 통해 자연을 파편화된 부분으로밖에 담아낼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었다. 자연을 향한 '접근'은 전체를 보는 양식적이며 방법화 된 접근이어야지, 부분을 보는 경험적인 접근은 여러 문제제기 가능성의 소지가 많은 접근이다.
대나무를 잘라서 자연 요소로 사용하고, 그것이 쌓아서 또 다른 모습의 문인화 조각 같은 문화적 기호를 만든 것, 프로젝션 이미지를 규격용지에 출력하여 분리해 낸 것은 분명히 방법으로 환원된 맥락이다. 실제의 세계로 나아가는 사실의 의미들은 혼란스러울 정도로 기호화되어 있지만, 그 혼란을 실제 대상으로 나아가는 방법으로 사용한다. 작가가 나타낸 분절들은 조각(彫刻)의 기본적인 태도로서 근대적인 조각(彫刻)의 관례를 함께 집적(集積)하면서 공간적으로 결합한다. 조각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담고 있다.
요즘 자연을 개발하는 과정에 논의가 많다. 공간 개발에 예술적 감성을 담은 해석이 더 절실할 때라 하겠다. 과학적인 측면만을 강조한 실용적인 모습은 불도저로 파헤쳐진 자연처럼 끝내 생기를 잃거나 다양성을 잃어 사멸해 버릴 수 있는 위험까지도 있다. 하원식의 작업에서 지금의 개발 논의에 대한 해답의 많은 부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조각예술의 주체성은 자연을 바라보는 근본적 이야기 전개(narrative)들이 점점 더 개방할 것을 전제로 한다. 투명한 문화를 향한 투명한 논의와 예술적 메신저가 봄의 따스한 힘을 담은 공간적 감성에도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미술사 박사 / 양준호-

2010.**3.19**Fri ~ **4.25**Sun 아트스페이스 (2F)

조각난 풍경

코디네이터 이봉욱
비평가 양준호

전시소개

2010년 공모 선정작 중 첫 번째 전시인 「2010유리상자-아트스타」Ver.1展은 조소와 디지털아트를 전공한 하원식(1971년생)작가의 설치작품 '조각난 풍경'에 관한 것입니다.'조각난 풍경'은 '단절'의 충격에 관한 형상화이며, 세계에 대한 작가의 독자적인 이해방식을 서술한 것입니다. 이는 자연물과 자연 이미지를 선택하여 자르고 재구성하는 퍼포먼스를 통하여 세계의 일면을 가공 현실화하는 제안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번 전시 설정은 사방이 유리벽체로 구성되어 봄 햇살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유리상자 공간 안에 자연의 일부를 옮겨놓은 듯한 연출입니다. 푸른색의 실제 대나무 18그루(높이5m정도)는 4~5cm간격으로 절단되어 다시 이어붙인 채 바닥에서 10cm 정도 띄워 상하 수직으로 세워져있습니다. 바닥에는 대나무가 자라는 토양인 흙의 이미지를 담은 프린트물이 널려있습니다. 대나무 뒤편에는 대나무 숲 이미지를 종이에 프린트하여 잘라 이어붙인 커다란 커텐막(높이6m×너비5m 정도)이 연출됩니다. 이들 프린트물과 대나무의 표면에는 임의의 숫자가 암호처럼 휘갈겨 적혀있습니다. 작가는 잘려진 자연이미지와 숫자를 결합시켜 '단절'되고 '계측화'되어 '가공(왜곡)'된 현대사회의 불안정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설정들은 작가가 과거의 경험과 미래의 지향이 피드백으로 재구성되는 현재를 지각하고 질문을 던지는 메시지이며, 자신의 감지 부분을 관객과 관계하려는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작가의 이번작업은 우리가 세계를 보는 '분석'과 '논리', '숫자'의 신뢰 방식, 그 결과로 인한 '조각(fragment, 片)의 주목'과 '단절', '계측', '가공'을 관찰한 시각화이며, 작가가 '조각난 풍경'으로 요약하는 세상사의 단편을 우리 자신의 거울이듯 바라보는 계기입니다. 또한 자연과 인간의 '관계'로도 설명되는 '조각난 풍경' 설정으로 관객이 자기 삶의 단면들을 새롭게 성찰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이기도합니다.
그런 이유들로 인하여 유리 상자에 담긴 가공 이미지들은 우리를 삶을 새롭게 조명하려는 예술가의 오래된 역할을 상기시킵니다.

-정종구-

조각난 풍경 500x500x600cm, Mixed Media, 2010

예술가와 시민의 별★같은 만남

공모 선정작가展 2010 GLASS BOX ARTSTAR Ver.2

Chung, Unki

조각 새(Bird)로 펼치는 '놀이'

봉산문화회관이 주최하는 '유리상자 아트스타' 공모전은 주로 신진작가나 젊은 작가의 발표무대로 알고 있다. 거기에 선발된 작가들의 사전 발표 자리에서 몇년전 대학에서 정년퇴임한 정은기교수를 만나게 된 것은 의외였다. 제자들과 같은 후진들과 함께 무대에 서있는 이유를 모른 채 그의 발표를 다 들을 때 까지도 그가 이 프로그램에 응모자로 출연한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 더욱이 그의 손에 들려있던 작은 나무로 만든 조각들이 크레인이나 해머 같은 장비나 도구로 거칠고 육중한 석재를 다루던 작가의 작품이라고는 사실 상상도 하지 못한 채였다.

널리 알려진 정은기의 작품세계는 남성적 힘을 느끼게 하는 석재의 견고한 물성과 구조적인 구축에 바탕을 두고 있다. 기억하기로는 대부분 화강암을 재료로 사용한 침묵의 덩어리이며, 중력의 무게와 씨름한 흔적을 남긴 듯 균열의 틈이나 포갬의 단순한 미학과 함께 달이나 알의 기하학적 모양을 추구한 것들이다. 그래서 정은기 작품의 전체적인 인상은 자연주의적인 유사성보다 추상적 관념을 표현한 작품들이다. 그러나 생명의 기원이나 잉태 혹은 그 발현으로 요약되는 그의 주제에 대한 관심은 끊임없이 새로운 표현 재료와 방법을 찾는 편력을 통해 보인다.
원래 회화를 전공한 그는 처음 김환기 선생의 영향아래 추상회화를 제작하다가 우연히 소조실에서 흙을 만지는 일에 매력을 느껴 결국 조각으로 전공을 바꾸었다. 그동안의 예술적 여정을 돌아봐도 일찍이 소조에 대한 체험에서 유발된 흙에 대한 감각은 도자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가마작업에도 열심이었던 시기가 있었다. 물론 목조에 몰두한 적도 있지만 특히 석조를 체계적으로 배우기 위해 돌을 다루는 기본적인 기술을 직업 석공으로부터 전수했다고 했다. 석공 장인에게서 배운 기술 덕분에 그는 대표적인 석조 작가로 이름을 얻었다. 조형적 실험의 다양한 지점들을 거쳐 다다른 귀착점이 지금의 이 '놀이'를 주제로 한 나뭇가지 다듬기인데 정년퇴직을 하고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면서 시작된 작업이다.
4년 가까이 해오는 현재의 작업들은 '솟대'와 비슷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데, 그는 이 작업을 그저 '놀이'라고 부른다. 새로운 전기를 맞는 조각가가 심취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민중예술이란 점에서 그렇게 부르고 싶어 한다. 그렇다고 은퇴한 조각가가 쉬면서 하는 소일거리라고 생각하면 완전히 예상을 빗나간다. 집안에서 여가를 즐기면서 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 규모나 양에 있어서 놀랍다. 수많은 다양한 종류의 크기와 모양, 설치와 장치의 변화, 무궁한 내러티브의 생산 등 그는 이 새작업에 완전히 몰입하여 빠져 지낸다.
그의 이 작은 나뭇가지를 처음 본 순간 존 버거의 미학적 에세이 '흰 새(The white bird)'가 떠올랐다. 동유럽 지방 민간에 널리 퍼져있는 전통이라는 그 나무 조각이 오늘 우리의 정서에도 결코 낯선 것이 아닌데다, 민간공예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흰 새'에 대한 존 버거의 기술이 정은기의 이 작품의 특징과 흥미로울 만큼 닮은 데가 있어 우선 몇 가지 점에서 연관지어보고 싶다.

먼저 정은기의 이 나뭇가지를 솟대에 비유할 수 있는 근거는 그것이 새의 모양을 재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하지만 뾰족한 부리와 둥근 몸통은 새를 나타내면서 동시에 '솟대'를 연상시키는 장식의 역할을 한다. 다음, 새라는 주제의 선택과 그것이 놓일 공간에 대한 고려는 솟대가 그렇듯이 이 조각도 당연히 어떤 상징성을 전제한다. 오리나 원앙, 기러기 같은 새는 행운이나 사랑을 상징하고 그 조각은 기원이나 염원을 전한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한 재료에 대한 존중이 있다. 작가는 나무를 선택할 때부터 발견한 모양과 기존 나뭇결을 참조하고 원래 나뭇가지의 형태를 유지시키면서 거기에 창조의 유연성을 적용하려고 애쓴다. 부리와 머리, 날개 부분의 몸통과 꼬리의 단순한 형태에는 형식적 통일성과 경제성이 있다. 그밖에 또 여러 단계에서 필요한 기술이 부여되며 수많은 반복의 결과 풍부한 다양성이 확보된다.

작가는 직접 집 뒷산을 오르내리며 재료가 될 나무를 고른다. 그 나뭇가지들은 단순한 재료라기보다 그 자체가 만들고자 하는 새의 모티프가 된다. 그 생긴 모양새에서 유추된 형태가 결정되고 기억 속에 저장된 새의 형상을 따라 제작에 착수한다. 조각은 최소한의 변형을 허용하는데, 본래의 생김새나 형태를 바탕으로 만들기 때문이지만 그래도 마무리까지는 몇 번의 세밀한 공정을 거친다. 그는 우선 이 목재들을 삶아서 껍질을 제거하고 다시 단단하게 말린 다음 깎고 다듬어 마지막 단계에 가서 칠을 한다. 그 위에 눈을 그리고 간단한 몇 개의 색 점을 찍어 포인트를 살리는 데 까지 마쳐야 일 단계 작품이 완성된다. 그러나 전시나 설치를 위해서는 작품을 매달거나 세우거나 서로 연결하기 위해 줄이나 대를 붙여야 한다.

설치 과정에 또 장소와 공간에 맞는 다양한 변화를 연출할 수 있다. 이들은 무리 속에서 혹은 단독으로도 서로 어울려 환상의 하모니를 빚는다. 작가는 그때그때 무대를 각색하는 현장의 이야기꾼이 되어 관객들에게 잃어버린 꿈을 되살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지 모른다. 각각의 재치 있고 유머러스한 형태들이 보는 이들에게 시각적 판타지와 함께 무궁한 내러티브의 생산자로서 상상에 참여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김영동–

2010.5.7Fri ~ 6.13Sun 아트스페이스 (2F)

하늘 놀이

코디네이터 정세용
비평가 김영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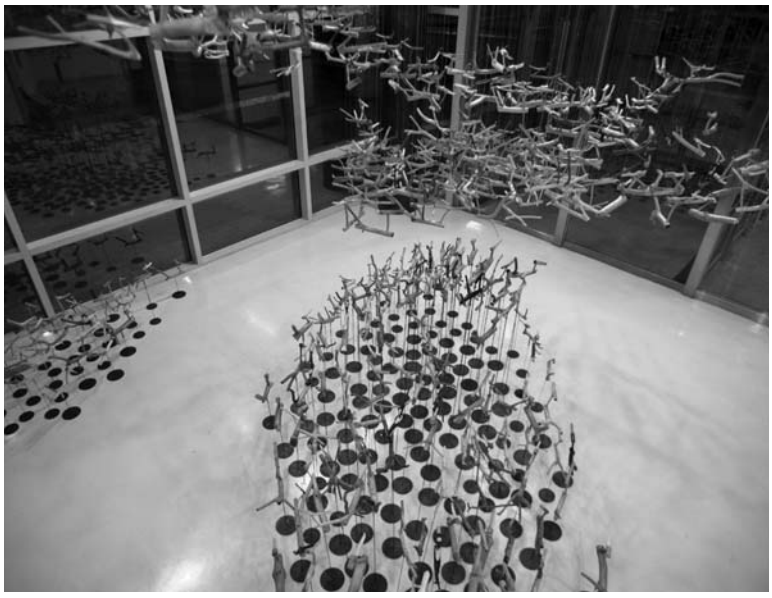
전시소개

2010년 공모선정작中, 두 번째 전시인 「2010유리상자-아트스타」Ver.2展은 정은기(Chung Un-Ki 鄭恩基, 1941年生) 작가의 설치작업 '하늘 놀이'에 관한 것입니다. '하늘 놀이'는 하늘을 향하여 '희망'을 기원하는 솟대를 매개체로 하여 '놀이', '꿈', '예술', '작가'에 관하여 새롭게 해석해보는 담론화입니다. 이 작업은 재료의 발견과 선택, 다듬기, 조립과 설치, 관객과의 소통이라는 오랜 시간의 축적과 유희적 몰입 태도 등 삶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전시 설정은 사방이 투명한 유리 벽체로 구성되어있는 유리상자 공간 안에 소중한 것을 담듯이, 나뭇가지로 만든 수백 마리의 새를 공중에 띄우는 것입니다. 설치 조형의 기본단위는 산을 거닐다가 발견한 잡목의 가지를 다듬고 덧붙여 만든 새 모양의 나뭇가지 조각들(길이15×높이10㎝정도 900여개)입니다. 솟대의 형상을 갖춘 새 모양의 나뭇가지들은 전시공간에 수백 마리씩 무리를 지어 날아다니듯이 천장에 매달려 있거나 바닥의 중앙과 한 구석에 집합체를 이루며 장대 위에 설치되어 막 날아오르기 시작하는 기러기 또는 오리떼를 연상시킵니다.

전시 설정들은 작가가 관객과 소통하며 전하려했던 메시지의 구조체이며, 민간 전래의 신앙과 생활의 기원을 담은 스펙트럼입니다. 이 스펙트럼은 오랜 시간과 노동의 축적을 통하여 자신의 생활을 몰입환경으로 지어가는 개인을 회상하게 합니다. 또한 이 스펙트럼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삶 매순간을 놀이의 유쾌한 활기로 치환해가며 새가 하늘을 자유롭게 노니는 듯한 '하늘 놀이'를 닮아가는 확장된 삶의 의미들이며, 나아가 막 날아오르는 새의 비상을 환희하는 개인과 집단의 '기원'을 구체적으로 시각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시의 다층적인 상황들은 우리들 자신의 성장을 권유하는 예술가의 유쾌한 열정을 떠올리게 합니다.

-정종구-



하늘 놀이展 Mixed Media, 가변설치, 2008~2010

예술가와 시민의 별★같은 만남

공모 선정작가展 2010 GLASS BOX ARTSTAR Ver.3

Son, Youngbok

컬러풀 팰리스, 도시 공간을 바라보는 눈의 현실과 상상력

예전 한 때 새로 생기는 교외의 식당마다 무슨 무슨 가든 이라는 이상한 영어식 이름이 유행병처럼 나돈 적이 있었다. 그처럼 요즈음 들어 도심 재개발로 새롭게 지어지는 초고층 주거용 복합건물에도 팰리스라는 타이틀이 난무하고 있다. 어쩌면 그러한 이름들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숨은 욕망을 상징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흔히 말해지듯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공간은 현재의 시대가 어떠한 종류의 것인지를 말해주는 시대정신의 물적 징후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공간의 이미지들은 근본적으로 자본의 흐름과 성격에 종속되어 드러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특정한 한 장소에서 다수의 공공적 합의하에 생성되고 만들어지는 공간에 대한 사회적 감성의 결과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당대의 사회경제적 상황이나 시대적 분위기에 따라 생성된 도시공간의 이미지들은 기존에 존재해왔던 공간들을 끊임없이 소멸시키거나 위협하면서 새롭게 자신의 영역을 확정하고 자리 잡으면서 기존 공간의 외관과 이미지들을 혁신시킨다. 그러한 도시공간이 가지는 스펙타클한 이미지들의 확산은 일률적이거나 동시다발적이라기보다는 곳곳에서 편재된 형태로 진행되는 까닭에 도시공간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층적이고 다층적으로 전개되며 한 눈에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역동적인 모습과 이미지들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도시공간의 이미지들은 분명 그러한 환경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온 젊은 예술가들에게 기존의 작가들이 바라보는 시각과는 다른 그 어떤 의미 이상의 것일 수 있다. 마치 요즘 문학 장르에서 미래파라 불려지는 젊은 문학인들의 혁신적인 실험과 감수성들이 이러한 공간에 대한 성찰과 기억들에 상당 부분 기인하듯 작가 손영복에게도 이러한 도시공간이 가지는 역동적이고 다층적인 감성들은 새로운 조형적 실험과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기존에 제작되고 발표되었던 젊은 작가 손영복의 작품들에서 눈 여겨 볼만한 특징이 있다면 그의 작업들이 다분히 회화적이면서도 시각적인 이미지를 작품의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조각을 전공한 여느 다른 젊은 작가들이 대상의 조형적 질감이나 양감, 구조적 긴장감 등을 부각시키려는데 반해 그의 작업들은 오히려 회화적 채색감이나 시각적인 형상 이미지들을 전면에 내세워 보여준다. 이는 마치 회화 작품속의 화면에 등장할 법한 인물이나 대상들이 입체적 조형 대상물로 구현된 듯한 인상을 풍긴다. 또한 그의 지난 작업들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작가 자신의 내적 치열성이다. 조형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가지고 현실을 직시하려는 작가로서의 태도는 그의 작품 곳곳에서 드러난다. 그러한 태도들은 이후 분명 작가 자신에 대한 성찰과 탐구를 넘어서서 세상을 함께 살아나가는 동시대 사람들에 대한 보다 넓은 이해와 관심으로 그를 이끌었으리라 짐작된다. 특히 작년부터 방천시장을 중심으로 한 재래시장 예술 프로젝트에 그가 참여하게 되면서 그의 관심이 사람들의 삶의 터전인 집과 주택으로 옮겨가지 않았던가 싶다. 어쩌면 그것은 그가 작가의 말에서도 언급했듯 다양하다 못해 이율배반적이기까지 한 인간의 욕망과 현실사이의 괴리를 구체적이고 물적으로 형상화할 수 있는 좋은 소재로 다가왔을 것이다.

실제로 기존의 도심에 위치한 재래시장 활성화 프로젝트의 가장 큰 핵심은 그러한 모순적이면서도 상충되는 현실 상황에 있다. 재개발을 통해 세련되고 웅장한 모습으로서의 궁전이자 팰리스로 태어나길 원하는 사람들의 욕망과 이미 낡아버렸고 남루해보이기까지 하지만 여전히 사람 사는 정과 추억이 느껴지는 현실로서의 시장공간이 서로 겹치고 오버랩되고 뒤틀려 몸을 섞으면서 복잡하다 못해 이질적이고 모순적인 상황으로까지 비춰지는 것이다. 기존의 재래시장이 가지고 있던 공간 문화적 가치들을 재생시키고 복원시킬 것인지, 아니면 보다 현실을 직시하고 자본개발을 통해 욕망의 가치를 증대시킬 것인지에 대한 갈등이 구체적으로 심화되면서 작가의 고민은 그러한 사회적, 문화적 갈등과 고민들을 형상화할 수 있는 작품의 대상으로 낡은 시장의 주택이나 상가들을 주목하기에 이르는 것이다.

아이러닉하게도 손영복은 그러한 재래시장의 상가나 주택들이 가지고 있는 남루한 이미지들을 초고층 팰리스의 형태로 만들어낸다. 그러한 이미지 구성 방식은 어쩌면 나름 기발하고 재미나게 다가오면서도 한편으로는 작금의 현실과 세태에 대한 풍자적인 비판의식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으로도 파악될 수 있다. 물론 작가가 스스로 밝혔듯 도심의 혼재된 공간에 대한 조형적 해석과 상상력이야말로 그가 현재 가지고 있는 중심적인 관심이긴 하지만 그가 보여주고 있는 도시공간에 대한 치열한 현실 탐구적 자세는 이후 계속되어질 그의 작업에서 어쩌면 세상을 가감 없는 예술가의 비판적 시선으로 주시하고 그 결과로서 모든 이들에게 의미 충만한 조형적 작품으로 다가갈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에 충분하다고 여겨진다.

-최창윤-

2010.6.25 Fri ~ 8.1 Sun 아트스페이스 (2F)

Colorful palace

코디네이터 정재훈
비평가 최창윤

전시소개

「2010 유리상자-아트스타」Ver.3展은 조소를 전공한 손영복(1981년생)작가의 설치작품 'Colorful Palace'에 관한 것입니다. 'Colorful Palace'는 최상의 궁전으로 표현되는 '가치'의 획득에 관한 스토리텔링이며, 인간의 '삶'에 관한 작가의 안타까움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이는 작가 주변의 서민적 생활과 환경을 소재로 하여 줄거리를 구성하고, 자유롭고 담담한 작가적 상상을 통하여 세계의 일면을 새롭게 예술 형식화하려는 제안입니다.

보통 왕실의 궁전(宮殿, palace)은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의 참여로 건축되기 때문에 그 시대의 문화와 사회상이 투영된 역사적 가치를 띠게 되고 보존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작가가 지은 컬러풀 궁전은 낡은 것 혹은 가난한 서민적 삶이 지닌 가치를 담론합니다.
사방이 유리벽체로 구성되어있는 유리상자 전시 공간 안에는 단조롭고 투박하며 가난해 보이는 육면체의 단층짜리 상가 5단을 쌓아올린 기념비 빌딩(높이3.5m×가로1.5m×세로1.5m 정도) 1채가 세워져 있습니다. 작가는 주변 생활공간에서 수집한 자투리 목재와 합판, 함석, 못, 볼트 등을 재료로 쇠퇴한 전통시장의 상가(집)를 만들고 그 표면에 낡고 소박한 감성의 페인팅으로 '가게'의 표정을 형상화하였습니다. 상가의 창문과 출입문들은 외부와 소통 부재를 은유하듯 막혀있습니다. 또 "paul smith, 세종약국, TATEOSSIAN, 화실, 사거리 슈퍼, 공방, 금도장식, 청마유통, BOSS, 불로막걸리, 행복사진관, 대원식당, 별미용실, BCD, 영남가스, 영화여행, 고향농산, Louis Vuitton, 금백치과, B커뮤니케이션" 등 작품 속의 간판상호들은 어울리지 않는 듯하면서 서로 대등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로 작가의 작업실이 있는 '방천시장'의 가난한 상가들을 본뜬 건물과 간판입니다.
하지만 높이 쌓아올린 상가 조형물은 현대식 빌딩이 부럽지 않은 성취와 가치의 획득을 상징하듯 '트로피'를 닮았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설정들은 작가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향한 비판적 상상이 재구성된 예술가적 메시지일 것입니다.

이번 전시의 주된 매력은 세련미보다는 투박성에 관한 형식 실험과 기성의 논리와 가치를 거부하는 젊음의 담론일 것입니다. 상업성에 물들지 않은 참신한 예술적 신념을 통하여, 패기 있는 신인의 힘과 열정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런 이유들로 인하여 유리상자에 담긴 회화같은 조형물 이미지는 우리를 삶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려는 예술가의 오래된 역할을 상기시켜 줍니다.

-정종구-

Colorful palace Mix Media, 높이3.5m×가로1.5m×세로1.5m 정도, 2010

예술가와 시민의 별★같은 만남

공모 선정작가展 2010 GLASS BOX ARTSTAR Ver.4

Kim, Soyoung

환(環)이 만들어내는 환(幻)

김소영에게 닥종이는 이미지를 담기 위해 마련된 도구가 아니다. 그것은 몸을 담아내는 공간이며 작가가 표현하려는 세계 그 자체다. 섬유질로 풀어 헤쳐진 닥나무는 김소영의 손과 일상의 사물에 의해 다시 조형된다. 일상의 사물들을 틀로 삼아 닥죽으로 모양을 잡은 뒤 닥죽이 단단히 제 모습을 갖추어 굳어지면 인공의 틀을 밀어낸다. 그 비워진 자리는 고리형태의 원형이 된다. 김소영에게 원형의 섬유질 덩어리는 기본적인 표현 요소인 동시에 하나의 세계다. 틀을 따라 반복적으로 만들어진 평면 같은 입체는 기술복제 시대의 복제품들이 만들어 내는 동어 반복이나 프로그래밍 된 언어에 의해 무한 증식하는 파편들이 아니다. 그것은 손의 흔적들을 따라 같음과 다름이 공존하는 세계다.

몸이 만들어 내는 단순하고 감각적인 공간은 주어진 틀을 따라 끊임없이 반복된다. 작가는 붓으로 한 획, 한 획을 더하듯 닥죽으로 떠낸 원형들을 반복적으로 나열함으로써 다시 사각형, 구 또는 면이나 선의 형태를 만든다. 그것은 닫힌 덩어리에 의해 점유된 공간이기 보다 하나에 의지하여 하나가 일어나면서 만들어 가는 공간이며 관람자와의 거리가 만들어 내는 공간 조형이다. 하나하나 이어진 원형들은 선이 되기도 하고 면이 되기도 한다. 다시 그 선들이 모여 덩어리로 나타나기도 한다. 관람자가 물러서서 일정한 거리를 확보하면 공간 속의 반복적인 구성은 덩어리가 된다. 그러나 관람자가 작품에 다가감에 따라 덩어리는 선형들로 흩어지고 그 사이의 공간들만이 남는다. 주어진 공간과 만남의 조건에 따라 흩어지고 모이는 김소영의 작품에 고정된 실체는 없다. 단지 만남에 대해 열려 있을 뿐이다. 그 열려 있음의 자리로 들어와 각자가 만나는 공간에서 작품은 다시 구축된다.

최근 유리 구조물과 아크릴 틀을 이용하여 가변적인 공간을 연출한 전시에서 작가는 공간의 조건을 따라 자유롭게 변용되는 작품의 특성을 다시 보여 준다. 닥죽으로 떠낸 둥근 고리(環)들을 무수히 늘어뜨려 유리 공간 속에 설치하는가하면 환(環)들을 연결하여 만든 둥근 입체 면을 사각의 아크릴 틀 안에 넣어 설치하기도 한다. 유리나 아크릴의 명료함과 단단함으로 틀 지웠음에도 그것들은 수많은 조합에 대해 열려 있다. 사각의 틀로 견고함을 더하지만 투명함은 그 틀마저 작품 공간으로 끌어들여 작품의 주된 요소와 부차적인 요소사이의 경계를 무너뜨린다. 인공적인 재료와 자연 친화적인 재료의 대비에서 오는 긴장감과 함께 이질적인 요소들이 하나의 단위로 공존하며 중첩되고 확장되게 한다.

반복은 지속성을 암시하며 손이 만들어낸 차이를 지운다. 닥이 지닌 자연적 속성과 손의 흔적이 만든 차이들은 아크릴 틀에 의해 제한되지만 반복적 구조가 주는 지속성이 손상되지는 않는다. 또한 섬유질을 그대로 드러낸 채 공간에 띄워진 형태나 벽에 설치됐을 때 감지되는 미세한 차이가 아크릴 틀을 이용한 설치 작품에서는 원과 사각형 구조에 의해 진동하며 녹아든다. 물질적인 공간은 중첩된 형태와 다양한 시선들에 의해 변화하고, 그 변화 위에 구축된 세계는 이중구조가 주는 긴장과 함께 갇힌 자연에 대한 은유를 담고 있다. 무한히 열린 공간에서 새로운 세계를 구축하고 유희한다. 흩어짐을 안고 변화하는 김소영의 조형세계는 실재하는 가상 속을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은유다.

-배태주-

전시소개

2010년 공모 선정작 중, 네 번째 전시인「2010유리상자-아트스타」Ver.4展은 한국화를 전공한 김소영(1982년생)작가의 설치작품 '環이 만들어내는 幻' 입니다. '環' 은 '고리, 둥근 옥, 선회하다' 의 의미이며, '들여다보기' 에서 출발한 '세계' 관찰의 형상화입니다. 그리고 '幻' 은 '헛보이다, 신기하다, 변하다' 의 뜻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작가의 독자적인 이해입니다. 이 작업은 고리(環)를 매개로 선택하여 나와 세계, 공간과 공간사이(間)에서 대면하는 '소통' 의 일면을 가공 현실화하는 제안으로 이루어집니다.

전시 설정은 사방이 유리 벽체로 구성되어 건너편 풍경이 훤히 보이는 유리상자 공간 안에서 시작됩니다. '들여다보기' 를 은유하는 '고리' 를 매달아 연결하고 축적하여 여러 각도에서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천연재료인 닥 섬유로 작가가 제작한 지름 2~5㎝ 크기의 고리들은 어린시절 들여다보았던 신기한 요지경이나 유리병을 떠올립니다. 유리병 입구로 들여다보는 사물의 일그러짐과 요지경 그림들은 요술(妖術)의 힘으로 현실을 변화시키는 환상이 담겨있습니다. 작가는 환상을 담아내듯 이들 닥섬유 고리 15,000여개를 상하좌우로 연결하여 매혹적인 기념비 덩어리(높이6m×가로1.8m×세로1.8m 정도)를 설치하였습니다. 이 기념비는 마치 3차원공간에 먹빛 그림을 그려놓은 듯 합니다. 단순해보이지만 건너편 주변풍경이 담겨져 사실적이고 밀도감 있는 색들의 세계를 한 덩어리의 '幻' 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현실을 변하게 하는 신기한 '幻' 을 매개로 소통의 가능성은 시작됩니다. 이 소통은 과거로부터 현재의 경험이 축적되어 재구성되는 현실을 지각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자신과의 소통이며, 자신이 감지한 바를 타인과 관계하려는 '만남' 이기도 합니다.
작가는 고리 자체의 형태적 의미와 더불어 끊임없이 계속되는 자신의 고리 만들기(비움과 채움) 행위를 '삶' 에 비유 합니다. 아마도 예술적 성취를 갈구하는 작가의 지속적인 제작 행위와 시간의 흔적들은 '삶-살아가는' 이라는 수행성을 본질로 하는 축적의 과정 속에서 변화의 원동력으로서 '幻' 으로 갖추어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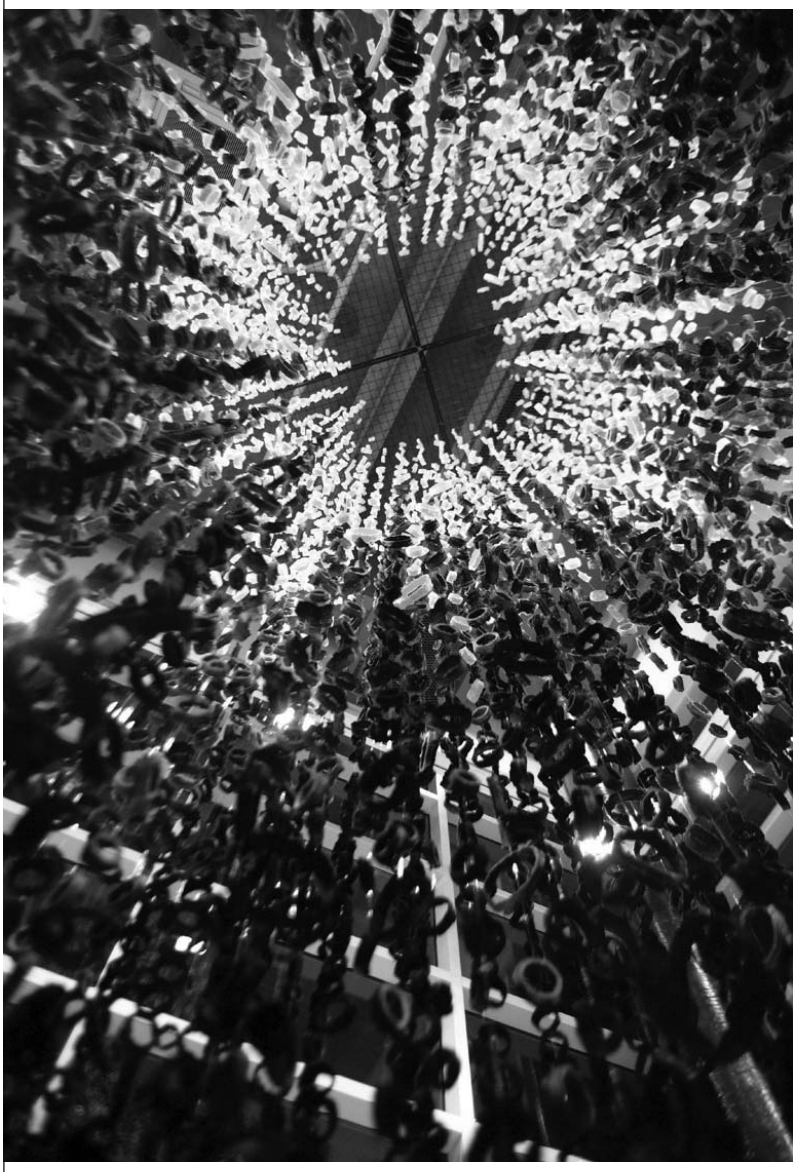
작가의 이번 작업은 우리가 세계를 대하는 '보기' 와 '행위', '축적' 의 살아가는 방식, 그 결과로 인한 기념비적 '幻' 의 주목이며, 작가가 전하는 세계의 단편을 통해 우리 자신과 소통하는 계기입니다. 그리고 관객이 자기 주변의 삶을 새롭게 성찰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이기도합니다.
그런 이유들로 인하여 유리상자에 담긴 이미지들은 우리들 세계를 변화시키려는 예술가의 삶과 희망을 상기시킵니다.

-정종구-

2010.8.13Fri ~ 9.12Sun 아트스페이스 (2F)

환(環)이 만들어내는 환(幻)

코디네이터 홍찬근
비평가 배태주



환(環)이 만들어내는 환(幻) 닥종이, 높이6m×가로1.8m×세로1.8m 정도, 2010

예술가와 시민의 별★같은 만남

공모 선정작가展 2010 GLASS BOX ARTSTAR Ver.5

Kim, Hyun

"Dice cast dice.", 그 변용의 예술적 의미

Ⅰ.
철학적 논제를 통해 볼 때, '이것과 저것' 간의 '관계 설정'은 이미 두 계기를 내포한다. 그 두 계기란 양자 간의 관계설정이 필연적이자 우연적 속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철학적 논제를 공유하고 있는 현대예술의 예술적 창작 구조는 이들 관계에 대한 사실 규명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작가 김현은 작품 제작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돌출되는 예술작품의 생성제작과 관련한 이들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고군분투 한다.

Ⅱ.
데모크리토스는 '우주 속에 존재하는 사물은 모두 우연과 필연의 열매' 임을 명시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이들 결과의 도출이 우연으로부터 출발하느냐 혹은 필연으로부터 출발하느냐는 것이며, 그것도 아니면 우연과 필연을 동시적으로 요청하느냐는 것이다. 그의 명제대로라면 그 관계의 설정은 이미 우연과 필연의 동시성을 요청한다고 할 수 있다.
분자생물학자인 자끄 모노는 그의 저서『우연과 필연』(Chance and Necessity)이란 저서에서 이에 관한 논제를 생물학적 진화론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 논의의 대략은 세계의 모든 존재물이 불확실성을 띤 우연이 돌연변이를 일으켜 성립된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며, 그 과정과 결과가 전적으로 예정된 수순에 의한 필연적이고 법칙적인 '승계'의 결과로 이행한다는 것이다. 곧 세계의 모든 현상적 귀결은 필연으로 해석할 수 없는 '우연적'인 산물인데, 이로써 새로운 획득형질이 귀결되어짐을 명시하고 있다.

Ⅲ.
김현의 작업, "Dice cast dice."는 우연과 필연이란 철학적 명제해명을 끊임없이 되새기고 있다. 작가 김현은 "나의 의지(will)는 아마도 다른 많은 의지들과 함께 구성되어 있을 것이다"라는 전제아래 '주사위는 구른다'는 점을 예술적인 논제의 출발이자 화답으로 설정한다. 문제는 그가 이번 전시 주제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 주사위를 통한 인간형체의 축성인데, 이들 과정에 필연적이자 우연적인 예술적 논제가 투사되어 있다는 것이다. 어찌 보면 이는 자끄 모노가 설정하고 있는 생물학적 진화론에 따르는 한 명제를 증시하려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미 작가 스스로가 밝히고 있듯 그는 "주사위의 이미지와 그 주사위로 인간을 만들어 내는 방식으로 생물학적인 접근"에 따르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Ⅳ.
예술적 창작과 관련해 철학적 논제로서 우연과 필연 이론을 예술적으로 변용 및 적용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것의 명제적 채택 및 예술적 이입은 쉬운 일이 아니다. 주사위가 지닌 필연적 명제는 '던져진 주사위는 구른다'는 것이다. 이는 어느 상황에서든 유지가능한 필연적 속성이다. 그러나 그것이 항상 모나 윷 혹은 일이나 이가 나올 확률은 정해져 있지 않다. 이러한 경우는 예술창작의 경우 한층 더 고양된다. 따라서 이 경우는 필연적이기 보다는 우연적인 속성을 더 따른다.
작가 김현은 이러한 주사위적 속성을 자신의 예술적 제작과정에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적용을 통해 작가는 작품의 필연성을 찾아 나선다. 그의 경우, 이로 인해 이들 양자 간에는 유사성을 띠게 되는데, 그 유사성은 우연성과 필연성을 동시에 품은 일종의 양자 간의 친화적 유사성이다. 이는 이미 밝힌바있는 의지적인 작가적 관심으로 작가 스스로가 '무엇과 무엇' 간의 '관계 설정'을 확고히 하여 나가고자 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Ⅴ.
이러한 과정을 거침으로써 작가 김현은 비로소 한편으로는 '자신과 타자', '주체와 객체', '작가적 의지와 타자적 의지' 간의 우연적이면서도 필연적인 현상적이자 예술적인 속성을 작품 속에 구축해가고 있다. 이른바 그가 언급한 바대로 '생물학적 접근에서 사회적인 접근'까지의 예술작품이 갖추어야할 우연적이면서도 필연적인 발언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그의 작품은 이미 "Dice cast dice."가 지닌 예술적 변용의 의미를 우연적이면서도 필연적으로 획득하고 있다. 그것은 그의 예술적 논제로서 '관계 설정'으로부터의 이탈이자 회복이며, 동시적인 예술적 의지에 대한 상상적 접근의 접목이면서 구현이다.

따라서 작가는 이상적인 예술적 과제구현을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여전히 주사위를 굴리면서 인간형상을 조형하고 있다. 우연과 필연을 조합한 변용을 통해 또 다른 개체형성을 요청하며…….

-미학, 철학박사 / 洪駿和-

2010.**10.1** Fri ~ **10.31** Sun 아트스페이스 (2F)

Dice Cast Dice Cast

코디네이터 이봉욱
비평가 홍준화

전시소개

2010년 공모 선정작중 다섯 번째전시인「2010유리상자-아트스타」Ver.5展은 김현(1974년생)작가의 설치작품 'Dice Cast Dice Cast' 입니다. 이는 인간의 '삶'에 관한 작가의 독자적인 이해이며, 주사위를 매개로 선택하여 '나'와 '인간', '세계'에 작용하는 사건들의 본질을 시각화하려는 예술적 제안이기도합니다.

전시 설정의 기반은 사방이 유리 벽면으로 구성되어 내부가 훤히 보이는 유리상자 공간입니다. 바닥에는 수백 개의 주사위, 그리고 인간이 벗어던진 껍질처럼 보이는 석고 틀 여러 조각이 흩어져 있습니다. 석고 틀은 실존 인물의 본을 뜨기 위해 석고와 붕대를 겹쳐서 성형 Casting한 흔적들이지만, 이번 설정에서는 인간에 관한 사회적 규정, 의무, 형식의 은유로 제시됩니다. 흩어진 석고 틀과 주사위들 사이에는 이들을 밀쳐내고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아 탄생 하는듯한 실제 사람 크기의 낯선 인간상이 서 있습니다. 주사위로 만든 인간상입니다. 대략 3~4천개정도의 주사위를 열기설기 이어 붙여 조형한 이 인간상은 눈, 코가 식별될 뿐만 아니라 얼굴과 가슴, 팔, 다리를 실제 인물의 캐스팅으로 제작하여 상당히 사실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측 팔을 비롯한 몇몇 부위가 미완성처럼 보이는 점으로 미루어 현재 진행형의 '변화'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주사위의 '우연'적 속성과 함께 이해되어야할 '변화'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점으로 표시된 숫자와 빨강, 노랑, 파랑, 초록, 검정 등 다양한 색상들의 정육면체 혹은 정다면체 주사위들의 축적으로 만들어진 인간상은 생기 있으며 화려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 설정을 통해 우리는 인간 '삶'의 속성을 '규칙성 있는 우연'으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주사위를 여러 차례 던졌을 때 무슨 수가 나오는가는 전혀 '우연'이지만, 되풀이하여 던지면 거기에는 어떤 '규칙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작가 김현은 '우연'과 '규칙성'을 상징적으로 내포한 주사위로 'Dice cast dice cast 주사위는 계속해서 구른다.'라는 메시지의 인간상을 조형하였습니다. 또한 삶의 환경과 대응하여 '우연'적으로 제어하고 전체 에너지의 흐름에 기여하며 인체의 각 세포 DNA구조에 의한 변화와 주변 세포끼리의 상호관계에 의지해 '규칙성'있는 전체 인간시스템이 동작, 지속되는 사건을 주사위 인간으로 시각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석고 틀의 제시를 통하여 인간에 관한 기존의 정의와 규정, 관념이 '변화'를 속성으로 하는 현재적 '삶'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제안합니다.
이 전시는 '세계를 향한 자극stimulation'으로 지칭하는 작가의 예술적 실험을 통해 관객인 우리 자신과 시각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계기입니다. 그리고 유리상자에 담긴 설정 이미지들은 우리들 세계의 변화를 감지하려는 예술가 자신의 변화 노력을 상기시킵니다.

-정종구-

Dice Cast Dice Cast 주사위, 철사, 석고, 가변설치, 2010

예술가와 시민의 별★같은 만남

공모 선정작가展 2010 GLASS BOX ARTSTAR Ver.6

Kim, Miryeon

"팽창과 소외" 김미련의 설치작업, 에어 코트 시리즈

군인용 슈트케이스 속에 챙겨 넣어 두었던 오래된 우의 한 벌, 우연히 그것을 건네받은 작가는 이 낡은 유물에 담겼을 한 남자의 옛 기억을 추리해본다. 개인의 과거로부터 불려나왔을 그 기억의 단서는 한 남자의 삶과 그의 가족사 주변을 맴돌다 다시 시대와 사회의 분위기와 공명하며 결국 우리 전체의 집단적인 기억을 일깨우는 역사적 상상력을 자극시킨다.
또한 그것은 이 땅에서 남성성이 차지했던 사회적 역할과 그들에 의해 조장되었던 가부장적 문화에 대한 인식으로 통하는 사회적 상상력을 촉발시키기에 이른다. 이렇게 하나의 오브제에서 여러 가지 상황의 각성으로 이끌어가는 모멘텀들을 발견한 작가는 이를 다시 재 맥락화시켜서 동시대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예술적 대상으로 문제 삼을 방안을 찾는다.

'에어 코트' 시리즈로 이름 붙인 이 작품들에서 작가가 처음 제시했던 것은 "월남전 파병 때에 참전했던 한 한국병사의 비옷과 가방"이라는 오브제였다. 이것을 그는 "한국전쟁 60주년이 되는 오늘, 개인적인 일상의 기억과 역사적 기억의 한 조각으로 되살"아 나도록 의도했다. 그래서 "이 개인의 유품들이 … 스쳐지나가는 관람자의 행위와 만나, 기억의 공기를 들이키며 부풀어 올랐다가 꺼지며 서기도 하고 스러지기도" 하도록 설치한 것이다.

빛바랜 낡은 군복에서 잊었던 전쟁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나거나 혹은 지난 군대의 추억이 떠오를 수 있다. 그래도 역시 눈길을 끄는 것은 작품에 공기를 주입시켜 팽창시키는 장치다. 방수 천으로 된 군용 비옷이 부풀어 올라 기립했다가는 다시 스러지기를 반복하는데 이 현상은 여러 가지 의미로 다가온다. 관객이 작품 앞을 지나가면 이를 감지한 센서의 작동에 의해 일시적으로 공기가 주입되도록 고안되어 처음 부풀 때는 항공 구명조끼 같은 장비를 연상시킨다. 관람자의 시선 앞에 수동적으로 놓여 있는 작품과 달리 관객과 상호작용으로 주의를 환기시키는 점이 어떤 각성을 유도했다가 공기의 배출과 동시에 이완의 느낌을 준다.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는 이 물리적 동작이 흥미로운 것은 부풀어 오른 것이 단지 피복일 뿐이지 그 속에 신체가 없다는 점이다. 얼굴이 없고 신체가 없다는 사실은 팽창한 존재를 허무하고 덧없는 과거의 것으로 보이게 한다. 그래서 팽창이 지닌 의기양양함이라든지 거만함을 느낄 수 없고 오히려 초라해 보이기까지 한다. 또 한편으로는 발기했다가 이내 수축되는 남성의 성적인 힘을 나아가 권위의 상징으로도 보이게 하지만 그 속성은 허무한 것이다.
권위주의 체제 아래서의 남성성은 집단화하고 조직화될 때 위압적이다. 특히 군대가 그렇다. 권위주의는 폭력을 용인하게 되고 물리력을 남용하게 된다. 이 작품은 단지 남성적 권위에 대한 풍자라기보다 권위주의와 팽창에 대해 말한다. 팽창은 결국 권위를 벗어난 개개인의 나약함을 드러낸다.

설치 방식의 변주를 통해 이번 유리상자전에서는 작품에 기념비적인 효과를 부여하려고 했다. 그렇지만 연출의 의도가 역설적으로 영웅화하려는, 기념비화 하려는 처음의 시도를 풍자의 대상으로 바꾸어 버렸다. 작가는 "예전의 작업이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이나 역사적인 주제에 집착했다면 근래에 들어서는 현대소비사회에서 개인의 욕망이나 정체성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현대소비사회에서 자본주의는 일상성을 통제, 조작함으로써 자신을 유지하고, 거기에서 자기모순을 드러내고 소외가 구체적으로 드러난다고 본다. 이런 소재를 통해 소외의 다양한 형태를 바라보려고 한다." 는 작가의 말을 상기시킨다.

요즘 김미련의 작업은 그의 말처럼 소재를 통해 직접 제시되는 데서 더 깊은 인상을 준다. 작품은 논리적 구성물이기 보다 감성적 구성물이며 언어적이지만 언어 이전의 사물로 제시될 때 더 감동적이다. 또 한 가지 최근의 설치를 통해서 보여주듯이 소재나 매체 속에서 새로운 발언을 찾고 있다는 작가는 작품의 형식이나 주제 외에 전시나 설치 방식을 통해 관객의 관심을 보다 적극적으로 작품의 구성과 과정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자세가 눈에 띈다.

–김영동–

2010.11.12 Fri ~ 12.12 Sun 아트스페이스 (2F)

Monumental Aircoat in Glassbox

코디네이터 박태호
비평가 김영동

전시소개

2010년 공모 선정작 중, 여섯 번째 전시인「2010유리상자-아트스타」Ver.6展은 김미련(1969년생) 작가의 설치작품 'Monumental AirCoat in Glassbox'입니다. 이는 '우스꽝스러운 기념비'로 요약될 수 있으며, 특정한 군용 우의의 기억에서 출발한 인간의 '권력'에 관한 작가의 독자적 해석입니다. 이 작업은 관객의 움직임에 의해 우의의 외형이 우습게 변하는 상호작용(interaction)을 매개로 작가 자신과 인간, 세계에 작용하는 '권력'의 기억을 풍자하려는 예술적 제안이기도합니다.

이번 전시는 사방이 유리 벽면으로 구성되어 내부가 들여다보이는 유리상자 공간을 박물관의 커다란 진열장(Showcase)으로 해석하면서 시작됩니다. 이 진열장에는 권력의 상징 기념비라 할만한 5개의 세로형 조형물이 세워져있습니다. 국방색과 군청색의 남성용 우의 코트로 이루어진 5개의 기념비는 진열장의 바닥 혹은 2~3m 높이의 기단 위에 걸린 듯 세워지거나 힘없이 쓰러져있습니다. 건장한 남성 군인이 입었을 듯한 이 우의용 코트는 얼룩무늬와 색상, 옷감의 재질로 인해 남성적 권위, 억압, 폭력, 군사권력, 전쟁 등을 연상시킵니다. 관객이 올려다보도록 설정된 이 기념비들은 유리 진열장 바깥에 위치한 관객의 움직임(우연한 통행, 앞에 멈춰 섬, 의도적 동작)을 센서로 감지하여, 그 신호로 송풍기를 가동하고 코트 안에 공기를 주입하면서 부풀어 올랐다가 서서히 꺼지도록 설정되어있습니다. 기념비처럼 서 있던 우의가 억지스럽게 부풀어 오르고, 쓰러져있던 우의가 일어서면서 멈칫하는 부자연스러운 동작들은 기념비 같지 않은 우스개 짓으로 보입니다.
관객은 만질 수 없도록 격리된 유리상자 안에서 자신의 행동에 반응하는 Air Coat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통해 우리자신의 '권력'에 관한 조건반응을, 어떤 이에게는 '공포와 불안'의 기억을 희극적으로 호출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술작품을 통하여 어떤 면에서는 공포恐怖와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기억들을 유희와 풍자로 희화화하면서, 자신의 정서를 객관화하고 비판과 치유의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작가의 이번 작업은 진정성 있는 삶과 세계를 보는 다른 방식에의 주목이며, 작가의 비평적 시각에 대한 유대와 공감의 계기입니다. 그리고 관객이 자기 주변의 삶을 새롭게 성찰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이기도합니다.
그런 이유들로 인하여 유리상자에 담긴 이미지들은 우리들 세계를 명확하게 보려는 예술가 자신의 성찰 노력을 상기시킵니다.

-정종구-

Monumental Aircoat in Glassbox Interactive Installation, 가변설치, 2010

예술가와 시민의 별★같은 만남

공모 선정작가展 2010 GLASS BOX ARTSTAR Ver.7

Lee, Junwook

이토록 섬세해 보이며 또한 깨지기 쉬워 보이는 것은 조각가 그 자신인가

이제는 워낙 많이 인용된 까닭에, 따로 소개하는 일이 고루해 보이는 이론이 있다. 마샬 맥루한(Herbert Marshall McLuhan)이 펼친 미디어 정보론이다. 이 문화비평의 요점은 인류가 발명한 모든 물건들이 우리 신체의 또 다른 기관이라는 주장이다. 인간은 두꺼운 가죽이 없이 태어났기에 옷을 만들었다. 비록 우수하긴 하지만 한계가 있는 뇌 용량을 보완하기 위해 종이와 필기구, 컴퓨터를 발명했다. 빨리 그리고 오래 달릴 수 있는 다리와 심장을 가지지 못했기에 자동차를 만들었으며, 같은 차원에서 아가미나 날개가 없는 대신 땅과 하늘과 물에서 이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탈 것을 사람들은 발명했다.

조각가 이준욱의 작업은 이력을 쌓일수록 자동차 형상을 재현하는 데 몰입되고 있다. 자동차와 같은 탈 것들을 작품 주제로 삼은 동기에 관해서는 작가도 분명하게 밝힌다. 본인이 매혹 당한 자동차로부터 일체감을 얻는다는 이야기이다. 그는 사람과 자동차가 대응하는 신체 기관과 기계류를 하나씩 짝을 맞춰 생각하길 좋아한다. 좀 더 나아가, 작가는 차가 달리는 도로를 관습적인 메타포-인생의 길-로 비유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전시 공간에 매달린 작품을 예술의 길을 가고 있는 작가의 자화상으로 이해하면 된다.

이준욱의 작품이 보여주는 외관적인 특징은 다른 일반적인 조각들이 무게감을 떨쳐내지 않는 것에 비교할 때, 거꾸로 가벼운 느낌을 준다는 점이다. 스테인리스 철물을 자르고 이어 붙여 만든 뼈대는 꽤나 무겁고 단단하지만 보는 우리의 감각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지금까지 이준욱은 자신의 조각에 탈 것(vehicle)이라는 즉물적인 작품명을 붙여왔다. 비평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그의 탈 것은 볼 것(spectacle)이 된다. 그런데 이 볼거리는 부서지기 쉬워 보인다(fragile). 부서지기 쉽다는 말은 그만큼 섬세하다는 뜻도 된다. 으스러지기 쉬운 아름다움은 제임스 그래함 발라드(James Graham Ballard)의 소설 〈크래시(Crash)〉에서처럼 기계와 신체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처럼 새로운 예술의 소재로 승화된다.

예컨대 인간이 질주의 욕망을 자동차라는 기계에 맡긴 20세기 초기부터, 아름다움을 주로 인간 신체의 재현에서 찾으려 했던 전통적인 조각 예술과 달리, 미의 실현을 기계와 속도의 영역으로 옮겨 이루려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일찍이 게오르크 루카치나 프랑크푸르트학파는 자본주의 사회의 물신화(物神化)로 설명했다. 자동차는 한 사람의 소유물이지만, 그것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운전자는 자동차의 일부분이 된다. 운전자는 자동차가 실현하는 속도와 기술, 그리고 거기서 파생하는 쾌락과 위험에 종속된다. 한편으로 애어른(kidult)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지금 작가는 기계가 제시하는 미학과 리스크에 몰입되어 있다.

여기에는 당연히 모순이 따른다. 이준욱의 작품은 예술 행위의 결과이며, 자동차는 기술과 경제가 결합된 결과다. 공장에서 자동차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수치와 조건을 동일하게 맞추는 표준화는 분명히 창조적인 성격과는 정반대의 것이다. 지금까지 전개되어 온 많은 미술 운동들은 산업과 연동되어 나타났다. 미래파가 그러했고, 러시아 구성주의, 데스틸, 바우하우스, 아키줌, 멤피스와 같은 여러 예술가들의 유기적인 모임은 창조적인 디자인을 대량생산 산업에 접목한 사례가 되었다.

조형예술의 반대 진영에 있는 자동차 산업도 예술가들의 창조적인 노동과정과 흡사한 쪽으로 변모해가는 측면이 있다. 초기 자동차 산업을 이끈 미국은 포드주의(Fordism)의 원칙 아래에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conveyer-belt system)을 통한 대량생산 대량판매 식의 노동과정 형태를 이루었다. 뛰어난 기술을 중시한 독일의 자동차 산업이 이끈 미국 산업은 앤디 워홀의 판화에 풍자적으로 드러나듯이, 색만 다르게 무수히 제작되는 나름의 미적 성취도 이루었다. 하지만 미국식 노동과정을 해체한 포스트 포드주의에 이르러 자동차 산업은 더욱 다양한 가치를 표현한다. 미국식(포드, GM, 크라이슬러)으로 무작정 많이 만들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축적된 기계공학 기술을 바탕으로 품질을 높인 독일(벤츠), 작업조의 책임 소지를 분명히 한 일본(도요타), 노동자의 창발성과 권한을 극대화한 스웨덴(볼보), 그리고 차체 디자인의 예술성을 끌어올린 이태리(페라리)는 각 나라의 정치경제적 배경에 맞추어 다품종 소량생산 형태로 된 포스트 포드주의를 지향했다.

그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준욱은 자동차를 도안하는 디자이너가 아닌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작품을 만들어내는 예술가다. 우연보다는 필연에 더 가까운 결과로서, 작가는 이태리식의 자동차 형태를 좋아할 것이다. 산업과 예술의 공통분모 격에 해당하는 창의성은 공교롭게도 서구 조각의 중심지 이태리의 노동과정에서 실현되고 있다. 작가의 위태롭고 불안정한 작품 이미지는 의도된 것이다. 그 점은 기계 역학이나 효율성의 고려로부터 벗어난 탈 산업적 미학에서 평가받게 된다. 단순한 자기만족이나 몽상이 아닌 진지한 예술로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준욱의 작업은 따라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비록 그것이 본격적인 디자인 비평이 아니더라도, 자동차의 외관에 대한 심미적 평가는 공장이나 연구실에서 벗어나 일반 대중에게 퍼져나간 담론이 되었다. 대중들은 상품의 잠재적인 고객이다. 그렇지만 이 젊은 작가가 대하는 평자들은 대중보다 훨씬 제한된 미술 콜렉터들이다. 작가의 시각적 욕망에서 구현된 작품은 유리 상자 속 가상현실에서 하나의 상징적인 맥락을 재현하고 있다. 그 껍데기뿐인 가상현실은 공허하다. 텅 비었기 때문에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여주기에 탁월한 것이다.

작업의 진정성과 표현능력에서 이미 상당한 성취에 이른 작가이기에, 그는 이제 자신의 작업을 둘러싼 심지 굳은 레토릭 보다 좀 더 세밀한 내러티브를 작품 속에 완성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그 점이 앞서 말한 전환점에서 그가 매듭지어야 할 과제다. 사실, 그의 조소 작업은 예컨대 산업디자인처럼 자동차 공업에 영감을 제공하는 목적이 아니다. 넓게 보면 그의 작품은 기술에 준거하여 진화한 현대 사회의 감성구조를 예술로 표현하는 쪽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이런 것도 바람직하다. 지금까지 작가 이준욱이 달려온 길은 다른 자동차가 보이지 않았다. 그 차들은 지평선 훨씬 너머 앞서 달리고 있거나, 반대로 뒤에서 따라오고 있을지도 모른다. 혹은 이제 곧 그 중 어떤 차는 전조등을 번쩍이며 부딪칠 기세로 맞은쪽에서 돌진해올 수도 있다. 전업 작가의 길을 걷기 시작한 그에게 세상은 전보다 훨씬 복잡하고 위협적으로 펼쳐질 것이다. 치킨게임(chicken game)처럼 서로 상대방이 핸들을 돌려 피하기만 기대하며 자기 용기를 시험하는 상황이 현재 냉전 체제의 정치나 제살 깎아먹기식의 경제를 은유적으로 바라보거나, 더 나아가 작가 본인에 관한 성찰적인 암시로 드러날 가능성을 그의 작품은 무궁무진하게 품고 있다.

-미술평론가, 예술사회학 / 윤규홍-

2010.**12.24**Fri ~ 2011.**1.30**Sun 아트스페이스 (2F)

A Vehicle

코디네이터 이지혜
비평가 윤규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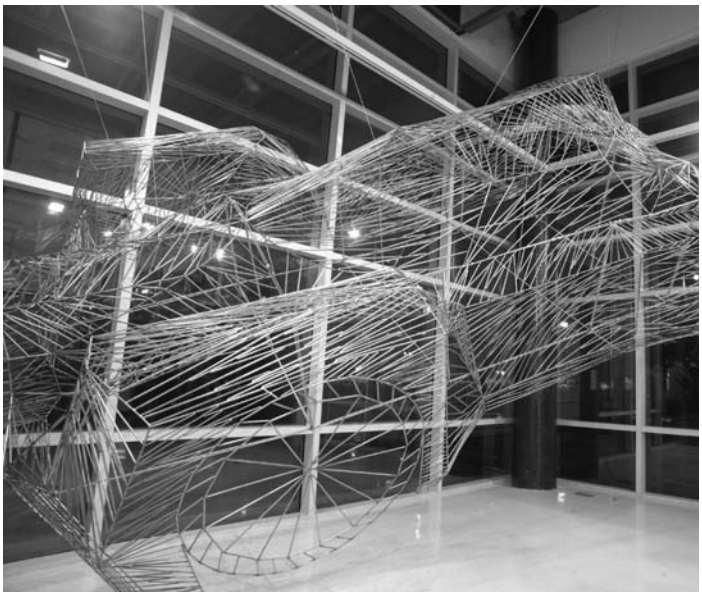
전시소개

2010년 공모 선정작 중, 일곱 번째 전시인「2010 유리상자-아트스타」Ver.7展은 이준욱(1982년생) 작가의 설치작품 'A Vehicle' 입니다. 이는 '차량, 운송수단, 탈것'의 의미와 '감정 표현, 목표 달성 등의 수단'으로서 '매개체'이며, 작가 자신의 유년시절 기억과 꿈에 관한 성찰에서 비롯된 감수성의 시각화입니다. 이 작업은 장난감 자동차의 이미지를 매개로 특별한 꿈에 관한 상상과 교감을 통해 작가 자신과 인간, 세계에 작용하는 '꿈'의 기억을 탐구하려는 예술적 제안이기도 합니다.

이번 전시는 사방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유리상자 공간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담아내려는 내부적 요청에서 시작됩니다. 이 공간 안에는 로켓 추진기가 결합된 은빛 장난감 스포츠카가 있습니다. 미지의 어딘가를 향하여 바닥으로부터 날아오르려는 이 비행자동차는 실재하는 특정 자동차의 모형이 아니라 그냥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미지로서 자동차입니다. 철선의 연결로 조형된 커다란 자동차(길이517×폭215×높이130㎝)는 작가의 꿈을 그리워하며 허공에 그려놓은 그림처럼 보입니다. 간단한 설계스케치와 구상을 현실로 옮겨가며 점차적으로 완성한 이 작업은 일종의 공간 드로잉입니다. 3~5㎜ 굵기의 스테인레스스틸 철사 수백 토막을 용접으로 잇고 연속적으로 결합하여 전체 선형구조물로 제작해가는 드로잉 방식은 짧은 직선의 선묘에 의해 속도감과 현대적 미감이 더욱 살아납니다. 철선 조각인 탓에 물질감과 존재감이 약하고 시각적으로 가볍게 보이긴 하지만, 공기를 가르기 쉽도록 설계된 뾰족한 전면부, 우측으로 방향을 바꾸려는 찰나의 바퀴 움직임, 금방이라도 추진 불꽃을 뿜을 것 같은 로켓추진기 등에서는 드로잉의 섬세함이 엿보이기도 합니다.

이 자동차 드로잉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현실에서의 부족과 결핍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만남'을 기다리는 매개체입니다. 이는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지만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꿈을 연결해주고, 현실 위에 다시 그려보는 비현실적일 수 있는 '꿈'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동차는 그저 상징일 수 있습니다. 철선 드로잉이 3차원 공간의 환경 좌표들과 시공간적으로 만나는 특별한 사건이 생생한 상상의 출발이며, 꿈의 기억을 깨우는 것이며, 현실을 지탱하는 메시지입니다. 어린시절의 기억에서 꿈의 연결고리를 찾고 관객의 꿈과 생생한 만남을 나누는 이 드로잉 사건은 나만의 'A Vehicle'에서 확장된 세계의 'A Vehicle'로 나아가는 기원의 과정이기도합니다.
작가의 이번 작업은 꿈과 현실, 세계를 바라보는 작가의 감수성에 대한 대상화이며, 관객이 자신의 꿈과 삶을 새롭게 성찰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이기도합니다. 또한 유리상자에 담긴 이미지는 우리들 꿈과 상상의 특별한 가치를 상기시키려는 예술가 자신의 지속적인 성찰을 짐작하게 합니다.

-정종구-



A Vehicle Stainless Steel 가변설치 2010

2011

GLASS BOX ARTSTAR

2011유리상자-아트스타

Ver. 1
김홍기-꽃
2.25- 4.3

Ver. 2
장 미 : M-Artist Room
4.15- 5.22

Ver. 3
김철환-내가 생산한 것+사람들이 생산한 것
6.3- 7.10

Ver. 4
강민정-Happy Skin Studi O
7.22- 9.4

Ver. 5
조경희-Blindly
9.23- 10.23

Ver. 6
이시영-BECOMING BIRDS
11.4-12.11

Ver. 7
김승현-House is not a home-series 'empty'
12.23- 1.29

봉산Cultural Center에서 주최하는「2011유리상자-아트스타」전시공모선정 작가展은 설치·영상·퍼포먼스를 포함한 동시대 예술과 만남에 주목합니다. 올해 공모 전시의 주제이기도 한 '예술가와 시민의 별★같은 만남'은 미술이 지닌 '공공성'에 주목하고 미술가의 공익적인 태도와 역할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미술가의 공공성이 다수의 관심과 지지자를 확보하면서 대중적 '스타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유리상자」프로그램은 2006년부터 독창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봉산문화회관 자체 기획물입니다. 도심 속에 4개의 유리벽면으로 구성된 아트스페이스의 장소 특성을 살려서 내부를 들여다보는 관람방식이 독특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느 시간이나 관람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시민들의 예술 향유 기회를 넓히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예술가들에게는 특별한 창작지원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예술지원센터로서 더 많은 대중적 관심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국공모에 의해 선정된 참신하고 역량 있는 작가들의 작품 전시를 연속적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예술가와 시민의 별★같은 만남

전시공모 선정작가展 2011 GLASS BOX ARTSTAR Ver.1

Kim, Honggi

한글의 디지털 조형화는 미적 보편성을 만들 수 있다

김홍기의 작품은 한글 조형방식의 새로운 가능성과 필획의 힘을 보여주는 조각 작업이다. 서예가 평면인 2차원의 세계로 집적(集積)된다면 그의 작업은 문자의 필획을 공간인 3차원에서 전개한다. 관찰자가 걸어가거나, 움직이는 위치에 따라 전혀 다른 형태의 변화가 펼쳐진다. 글자로 보였다가 또 흩어져서 입체 조형성을 강조하여 조각의 전통적이고 원론적인 방식을 택하고 있다. 적절한 시점을 정하는 평면 조형의 형태보다 여러 방향에서 볼 수 있는 복합 시점 조형의 가능성을 펼치고 있다.

서예가 부남 김영희에게서 '꽃'이란 글씨를 받았다. 예술성 높은 '꽃'이라는 한글 서체를 디지털이미지로 확대한 뒤에 레이저로 글자를 한 획씩 도려내서 형상을 만든다. 그 한 획씩의 글자를 공중에 고정했다. 어떤 위치에서 보면 뚜렷이 "꽃"이란 글자로 보인다. 서예가의 원본에 조각가의 입체적 조형성과 계획이 각기 다른 영역을 넘어서 서로의 예술 세계를 모은 장르 간 소통이다. 상징적 언어에서 시각적 언어로 변환하는 형식적 접근은 문자의 추상적인 의미와 많이 닮았다.

서론가인 채옹의 〈구세(九勢)〉에는 글씨 안에 잠재된 요소가 형태와 점, 그리고 획으로 나타낼 때 붓의 머리를 감추고 붓끝을 보호하면서 힘이 글자의 가운데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아름다운 획이 나온다고 한다. 붓끝을 숨겨 내재한 힘을 디지털 형태로 방법적인 전환한 작업이다. 모필의 성능과 기능을 아주 개괄적으로 표현한 유공권의 〈필게(筆偈)〉에는 '둥글기는 송곳 같고 누르기는 구멍을 뚫을 듯이 하고 단지 들어가기만 하고 물러나지는 못하게 한다.' 라고 한다. 작가의 조형은 모필이 가진 효용을 레이저 조형으로 적절히 바꾸고 있다.

여러 복잡한 글자 요소가 서로 구속받지 않고 활발한 정신활동까지 갖추었기 때문에 서예는 예술이 되다. 그 중 글자를 읽게 해주는 바탕이 있어야만 글자와 빈 곳이 함께 한다. 그 빈 곳의 관계를 찾으려는 노력을 작가는 하고 있다. 글씨를 사용한 서예의 한 획 요소보다 더 분절하여 최소한의 요소인 점과 가로선, 세로선의 3가지를 공간에 조형적 대상으로 설정한 공간 관계의 미적 요소로 작업한다.

부분 부분의 글자인 파자(破字)를 모아서 한데 묶어 놓은 집자(集字) 형식의 조형이 서예에는 있다. 김정희의 추사체 현판에서 이런 집자 형식의 글씨를 접할 수 있는데 다른 크기의 글자 혹은 다른 흐름의 글자를 한데 모아놓아도 조형적으로 크게 떨어지지 않고 완전한 형태를 띤 매력이 있다. 작가는 한 글이 가진 최소 요소로 현대적인 규범의 분류체계를 설정하여 관계의 의미를 이끌어 낸다. 글씨에 변화가 생동감을 만들어내는데 점과 획 사이가 연결되는 것이 단지 각각의 대비만이 아니라 글자 하나하나의 형태가 서로 연결되어 활발한 활동성을 가질 때 글자는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생기를 띤다. 그래서 획들의 모음에는 살아 있는 형세가 필요하다. 서로 일정한 법칙으로 연결된 글자의 기계적인 안배가 형세를 표현하지 못하면 실용성은 가질 수 있으나 예술성이 부족하게 된다. 실용성을 앞세우기보다 예술성이 실용화될 때 문화는 풍부해진다. 그런 의미에서 작가의 작업은 예술성의 가치와 실용성에 대한 의문도 제시하여 풍부한 문화로 접근한다.

김홍기의 이번 작업은 서로 다른 영역의 가로지르기와 서예의 근본적인 요소, 한글의 우수성, 동북아 문화의 포용력과 예술성을 고스란히 디지털 이미지로 공간조형에 담으려는 노력이 미적 보편성을 얻는 과정이어서 앞으로가 더 주목이 된다.

-미술사 박사 / 양준호-

전시소개

2011년 공모 선정작 중, 첫 번째 전시인「2011유리상자-아트스타」Ver.1展은 조소와 영상애니메이션을 전공한 김홍기(1968년생)작가의설치작품 '꽃'에 관한 것입니다. '꽃'은 '기억'과 기억에 관한 '태도'에 관한 형상화이며, 세계와 예술에 대한 작가의 독자적인 이해방식을 은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억과 관련된 현상을 개념화하고, 그 조형 이미지를 관찰하는 시각적 태도와 연계하여 세계의 작동 원리를 탐구하려는 제안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번 전시 설정은 사방이 유리 벽체로 구성되어 초봄의 햇살이 비춰지는 유리상자 공간 안에 자연의 일부인 '꽃'을 개념화하여 옮겨놓은 것입니다. 작가는 꽃을 좋아하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과 어린시절부터 좋아해온 꽃에 관한 기억 스펙트럼을 '꽃'이라는 문자 이미지로 조형하였습니다. 꽃은 '암술, 수술, 꽃잎, 꽃받침'으로 이루어진 속씨식물의 생식기관(생명을 상징)이지만, 작가의 '꽃'은 'ㄱ, ㅗ, ㅊ'를 이루는 8획으로 이루어진 문자 조형물입니다. 각각의 획들은 빨강, 노랑, 파랑, 초록, 핑크 원색의 광택 있는 아크릴판과 덧댄 고무판(두께6㎝정도)을 컴퓨터 재단기로 잘라 생산하였으며, 화려하지만 무표정한 산업자재의 물성과 면모를 갖고 있습니다. 천장과 벽면에 줄을 매달아 설치한 문자 조형물 집합(높이4m×너비4m 정도)은 처음 보아서는 무의미하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8개의 '획' 조형물은 각각 제멋대로 매달려 마치 망각의 거미줄에 걸린 기억처럼 보입니다. 관객은 이 작품의 감상을 위하여 특별히 예민한 태도(회화 투시도법에서 요구하는 작자 시점처럼 규정된 관찰자의 위치)를 요구받습니다. 절대적으로 작가가 요구한 위치에서 바라보아야만 '꽃'으로 인식되고 기억됩니다. 이 꽃의 출발은 자연을 차용하였지만 재료, 제작 방식, 보는 방식 등 다양한 부문에서 인위적이고 산업적이며 개념적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덫에 걸린 동시대 예술의 한계와 우리 현실 세계의 '관계' 속성을 상징하는 듯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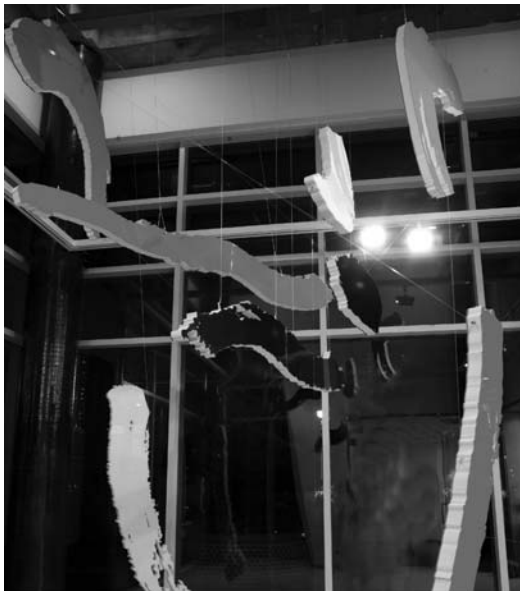
작가는 자신의 예술 틀로 정의하는 '꽃'을 통하여 세계의 일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작가가 '꽃'으로 요약하는 기억의 현실은 자연과 예술의 '관계'로도 설명되며, 예술가 자신에게 던지는 세계에 관한 근원적 질문이기도합니다. 또한 관객이 자기 삶의 단면들을 새롭게 성찰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자성의 거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들로 인하여 유리상자에 담긴 설치이미지는 우리들 세계를 예민하게 감지하고 새롭게 재구성하려는 예술가의 오래된 의지를 상기시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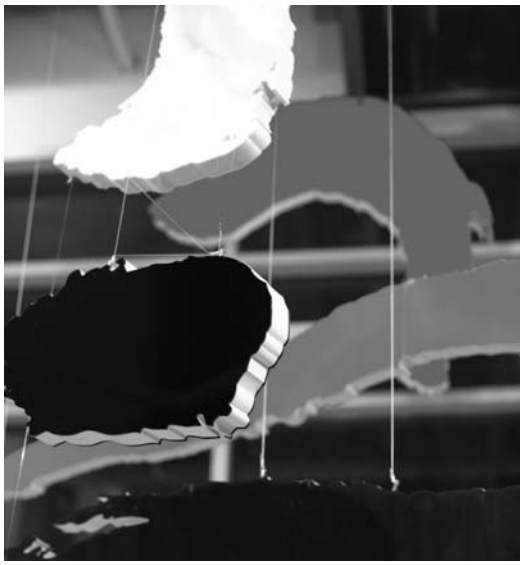
-정중구-

2011.2.25Fri ~ 4.3Sun 아트스페이스 (2F)

꽃

코디네이터 조미경
비평가 양준호





꽃 아크릴 판, 가변설치, 2011

예술가와 시민의 별★같은 만남

전시공모 선정작가展 2011 GLASS BOX ARTSTAR Ver.2

Jang, Mee

장미 : M-Artist room

보여줘야 할 것과 타자와의 교감을 위한 공간 투명성 제고

1. 비밀의 방: 장미의 M-Artist room

작가의 작업실은 언제나 비밀스런 방으로 실재한다. 작가의 방이 비밀스럽게 혹은 신비스럽게 여겨지는 이유는 그곳에서 어떤 작품이 언제, 어떻게 제작되고 출현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것은 작가 자신도 모르고 관객은 더욱 모름이 당연하다. 작가의 방은 언제나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다. 작가 장미의 M-Artist room 역시 이와 다를 바 없다.

2. M-Artist room의 공개: 그 진면의 작가적 바램

M-Artist room의 공개를 선언한 작가의 의중은 궁금증을 유발한다. 이러한 궁금증해결을 제공하기라도 하듯 작가 장미는 M-Artist room의 공개가 작가 자신의 작업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주기 위함이라 언급한다. 이는 작가가 작업실의 비밀스러움 혹은 신비로움을 간직하거나 소유하기를 포기하고 그 이상적인 실험을 관객과 공유하기 위함이다. 이로써 작가 스스로는 관람자들이 쉽게 작가의 작업실을 방문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는 취지를 밝혔고, 그 작업의 진행과정으로 작가적 작업행위과정에 관객들이 참여하기를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3. M-Artist room 공간 연출: 작가의 방 속 작가와 관객, 그리고 작가적 작업행위

작가의 작품은 작가자신과 관객의 작업행위를 기준점으로 한다. 주목할 점은 작가의 작업행위가 작가 자신만의 행위에 그치지 않고 관객을 작가의 작업공간에 끌어들여 그 과정들을 공개적이자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동반적 과정을 수용 및 포용한다는 것이다. 작가는 전체 전시기간 중 대부분을 작품에 대한 작업과정을 관객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그 예술적 의미를 찾아 나서고자 한다. 이 과정은 이번의 전시 기획이 단지 전시라는 과정에만 머물러 있지 않음이 당연하다. 이는 작가와 관객간의 의사소통이자 작업행위에 양자의 친화와 참여가 당연히 내재해 있다. 작가는 이를 작품전시에 효과적으로 이용하기를 원한다. 그럼으로써 작가는 자신이 의도했던 결과물을 추출하고 이 결과물을 다시 영상매체를 사용해 전시공간에 재차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전시에 대한 연출은 많은 부분에 있어 작가의 방 내부에서 작가와 관객이 서로간의 작업행위이자 전시의 예술적 의미를 찾기 위한 절차이다.

4. 장미의 M-Artist room과 유리상자의 교접

한편으로 볼 때 관음증 해결을 위한 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한 장미의 M-Artist room은 따라서 이제 물리적인 공간을 뛰어넘어 한층 고양된 공간으로의 이행을 낳는다. 이른바 그 비밀스러움과 신비스러움을 벗어버리는 것이다. 작가 장미가 이번 전시를 통해 바라는 작가적 욕구실현은 이를 전제한 것이다. 이는 M-Artist room이 지닌 제한성이자 한계에 대한 물리적 공간의 생태적 변화 혹은 생체적 변신의 지향이라 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이제 작가적 이상은 작가적 이상의 기대치를 상실하였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는 이러한 생태적-생체적 변화-변신을 보다 지속시키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한 바는 작가의 아메바 적이면서도 동시에 예술적 사고의 이행과 전환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겠고, 작가 장미는 이러한 점을 더욱 요청하면서 또 다른 작가적 꿈을 꾸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공간이탈을 통한 작가적 이상과 함께 …….

-철학, 미학박사 / 홍준화-

2011.**4.15**Fri ~ **5.22**Sun 아트스페이스 (2F)

M-Artist Room

코디네이터 안유진
비평가 홍준화

전시소개

2011년 전시공모 선정작중, 두 번째 전시인「2011유리상자-아트스타」Ver.2展은 회화를 전공한 장미(1984년생)작가의 설치작품 'M-Artist Room'에 관한 것입니다. 'M-Artist Room'은 '작업실'과 '예술가'에 관한 자기 기록적 고찰이며, 세계와 소통하려는 작가의 실험을 시각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작가 자신과 타자와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흔적과 사건을 서술하고, 그 서술 이미지를 분석하는 태도와 연계하여 예술의 정의와 작동원리, 확장 가능성을 탐구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전시 설정은 사방이 유리 벽체로 구성되어 안과 밖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유리상자 공간의 투명성을 중점으로 예술가의 비밀스러운 작업실 안을 살펴볼 수 있도록 작업실의 일부와 작업행위 과정을 공간드로잉의 일면으로 시각화한 것입니다.
작가의 해석에 의하면, 유리상자 공간이 내부가 보이는 관음적인 공간이기도하지만 보다 직접 참여하고 시공간을 공유하는 소통의 공간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적이고 비밀스러울 수 있는 개인 작업공간을 24시간 노출시키고, 일정시간은 작업 제작과정을 공개하며, 게다가 일주일에 한번씩은 관객이 직접 작업실에서 작품제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를 설계합니다. 왜일까요?
다른 유리상자 전시에서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았던 출입구에는 방문객의 흔적이 보입니다. 유리벽면에는 커튼 형식의 롤 종이와 다양한 낙서 드로잉이 채워진 비닐화가 부착되어있고, 이젤 위에 놓여진 대형그림과 여기저기 세워놓은 그림판넬, 크레용과 붓, 물감을 올려놓은 책상, 테이블 위의 목탄과 지우개, 작업복이 걸쳐진 의자, 쇼파, 물통, 여기 저기 흩어진 책과 스케치북, 먹다 남은 과자부스러기와 음료수 컵, 소금 전에 수다를 떨던 관객이 남겨놓은 신문과 잡지책, 벽 한켠에는 몇 년씩 그려온 드로잉들이 걸려있고, 상황과 무관하게 진행하는 공중파 MC의 목소리, 따스한 5월의 햇살…, 정말 많은 이야기가 우리의 시선을 이끕니다. 작가는 일상의 행위와 흔적, 기록의 과정, 즉 일상적 사건의 시·공간적 의미와 타인과의 공감이 동시대 예술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특히 정서적 측면에서 예술가가 예술행위를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작가가 요청한 것은 참여이며, 이 참여의 과정이 소통이며, 소통 자체가 '예술'로 탐구되는 것입니다. 이 전시개념의 출발은 유리상자 공간에 관한 해석이었지만 시간, 공간, 관객의 참여 등 다양한 부분에서 확장이 시도되고 변화되는 동시대예술을 확인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애매모호한 동시대 예술의 정체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작가가 '예술', '예술가'로 요약하는 과정은 사람과 예술의 '관계'로도 설명되며, 예술가 자신에게 던지는 세계와의 소통에 관한 물음입니다. 또한 관객이 자기 삶에서의 소통을 새롭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배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들로 인하여 유리상자에 담긴 설치이미지는 우리들 세계를 풍성하게 재편성하려는 예술가의 경계없는 실험 의지를 느끼게 합니다.

-정종구-

M-Artist Room Mixed Media, 가변설치, 2011

예술가와 시민의 별★같은 만남

전시공모 선정작가展 2011 GLASS BOX ARTSTAR Ver.3

Kim, Chulwhan

김철환의 〈내가 생산한 것〉
'생산한 것'을 통한 욕망의 변용과정

김철환의 유리상자 설치에 대한 계획과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야 글을 쓸 수 있기에 양평에 있는 작업실을 찾았다. 작업실은 한적한 시골풍경이 펼쳐진 도로가에 있는 창고로 쓰였던 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작업실에 들어서자 좌대며 진열대가 될 재료들이 정성스럽게 다듬어져 쌓여 있었다. 그래서 맨 처음 작업실을 들어서는 순간 가구를 만드는 작업장 같은 인상을 받았다. 이런 그의 창작을 위한 공간에서 느낀 풍경에는 바로 그의 작업이 가진 핵심적인 이유가 내포되어 있다. 그것은 내용과 형식의 역설에 관한 것이다. 그 역설이란, 작품의 내용이 되는 것은 그냥 버려지는 것, 버려야만 하는 것에 대한 수집과 복원에 있기 때문이다.

이 작가의 〈내가 생산한 것〉은 몸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에 대한 한 순간의 성찰에서 시작되었다. 그것은 몸의 각질이나 머리카락과 비듬 그리고 몸에서 떨어진 체모와 손톱 등에 관한 것이다. 처음 아이디어가 떠오른 것은 몇 날을 씻지 못하고 있다가 욕실에서 맡은 향긋한 비누 냄새와 대조되는 악취 나는 몸, 그 몸에 달라붙었다 씻는 과정에서 떨어져서 버려지는 것을 통해 얻은 작은 깨달음에서 부터라고 한다. 그것은 지식인과 부자 그리고 죄지은 사람과 노동자 그리고 가난한 사람 모두 차별 없는 몸의 변화에 대한 질문이었고, 그에 관한 답을 작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떠올라 실행하게 된 것이 3년이 넘도록 욕망의 변용과정인 〈내가 생산한 것〉에 몰입하게 했던 이유였다고 한다.

김철환이 몸을 통해 바라보는 욕망의 변용과정은 그 자신의 몸에서 탈각된 피부의 껍질과 체모를 수집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정성스럽게 복원해 나가는 것이다. 복원의 과정은 단순히 신체로의 복귀 내지 외관상 보이는 신체 이미지의 변형이 아니다. 그것은 각질이나 체모를 통해 원래의 형상에 가깝게 재현의 방식으로 설치된다. 그래서 완성되어 진열장에 박제된 형상은 신체의 어느 곳에서 떨어져 나온 것인지 인지할 수 있도록 구체화 되었다. 구체화된 형상은 신체의 부재에 대한 강한 결합이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그 결과물은 새로운 욕망을 투영하는 하나의 오브제가 된다. 이 오브제는 몸에 대한 질문과 해답의 경계이자, 존재의 안과 밖에 관한 경계, 즉 하나의 존재가 새로운 존재로 이행해 가는 과정에 관한 것이다. 그 과정은 동일한 상태에 머무는 고정된 존재너머 새로운 욕망이 투영되는 장소일 것이다.

욕망이 투영된 장소는 버려질 것을 정성스럽게 모아서 박물관에 전시되는 보물처럼 진열장을 만들고, 그 안에 〈내가 생산한 것〉을 가지런히 배열하거나 겹치고 혹은 섬세하게 연결해 놓은 곳이다. 이 장소는 버려질 것에 대한 경의 혹은 집착으로 수집된 오브제, 즉 몸에서 떨어져 나온 각질이라는 내용과 형식이 되는 외관을 정성을 다해 자르고 갈아서 색을 입힌 조각적인 진열장이다. 이 위풍당당한 정장을 입은 듯 품위까지 갖춘 진열장, 그 너머에는 안과 밖의 모순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하나의 기념비적인 보물에 대한 은유가 욕망의 변용을 통해 새로운 욕망, 즉 물질적인 추상신체로 나아가는 〈내가 생산한 것〉의 오브제가 있다.

나의 작업은 "저의 몸에서 나온 각질, 머리카락, 털들과 피부 껍질들을 수집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몸에서 나온 것들을 가능한 원형에 가깝도록 재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김철환은 박물관에 있는 보물처럼 복원시켜 진열장에 보관하는 것으로 〈내가 생산한 것〉을 완성해 간다. 그가 원형에 가깝게 재현하려는 시도에는 몸의 부재, 즉 신체로의 회귀에 대한 욕망 역시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작가의 안과 밖, 생성과 존재라는 인식의 이중구조에는 현대인의 문화적 취향이 갖는 허구에 대한 통찰도 담겨져 있다. 작가는 "나의 작업은 별 것 아닌 것을 대단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비유"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한다.

이처럼 〈내가 생산한 것〉이 갖는 욕망의 변용과정에는 별 것 아닌 것을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화려하게 포장하는 현대 소비문화에 대한 냉소적 시각 역시 포함된다. 이런 시각은 누구에게나 일상에서 반복되는 당연히 버려지는 것을 아주 귀하고 중요한 것으로 보이게 하는 방식, 작품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역설적 구조 속에서 더욱 강렬해진다. 이 강렬함은 무엇보다 실체를 수집해서 새롭게 복원해 가는 과정인 욕망의 변용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것은 동일한 상태에 머물 수 있는 시각을 새롭게 범주화 하는, 이를테면 몸에서 떨어져 나와 이미 하나의 오브제가 된 것을 새롭게 복원해 가면서 경계 허물기 내지 몸의 확장을 통한 욕망의 변용이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기 직전까지 멈추지 않고 몸이 생산하는 각질이나 몸에서 자연히 떨어져 나가는 머리카락 등의 생성과 소멸이 반복해서 일어난다. 김철환의 소통의 결과물인 탈각된 피부와 각질들은 〈내가 생산한 것〉을 통해 '욕망하는 오브제'로 전화(轉化)되어 간다. '욕망하는 오브제'는 몸의 확장과 신체의 자기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욕망의 한계너머 새로운 욕망으로 변용해 가는 것이다. 이처럼 김철환의 〈내가 생산한 것〉은 새로운 욕망, 욕망이라는 신체에서 추상신체를 거쳐 신체의 오브제로 질적인 변화를 거치면서, 신체의 잉여가치라는 새로운 생산을 통해 욕망의 변용과정을 제시하고 있다는 데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현대미술연구소 아트스페이스펄 대표 / 김옥렬–

2011.6.3Fri ~ 7.10Sun 아트스페이스 (2F)　**내가 생산한 것 + 사람들이 생산한 것**

코디네이터　유기태
비평가　김옥렬

전시소개

2011년 공모 선정작 중, 세 번째 전시인 「2011유리상자-아트스타」Ver.3展은 조소를 전공한 김철환(1978년생) 작가의 설치작품'내가 생산한 것'에 관한 것입니다. 작가 자신의 몸에서 채취한 상피세포의 각질을 소재로 신체와 마주한 생각 흔적을 담은 이 작업은 인간 신체의 생물학적 현상을 예술생산과 연관하여 우주의 순환, 인간사회에 대한 심리적 '비틀기' 등으로 시각화합니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관객의 참여로 이루어진 '사람들이 생산한 것'도 한 공간에 같은 규모로 전시되어 작업 의미의 보편적 확산을 시도합니다.

작가에게 있어 신체의 각질은 인간 삶을 성찰하기 위한 매개체입니다. 자신 혹은 참여자의 얼굴 표면 위에 접착성이 있는 투명 플라스틱 필름(A4 사이즈)을 대고 꾹꾹 문질러서 피부세포의 각질을 채취하는 과정과 이 필름을 사각 케이스에 넣어 30개씩 1세트로 질서정연하게 꽂아 진열하는 프로세스에서 당황스러울 정도로 별난 작가의 취향과 면밀하고 엉뚱한 인간탐구의 욕망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신체의 죽은 세포를 탐구하고 이를 통해 연상되는 '생성과 소멸'의 우주적 순환 원리, 그 행위의 시공간적 흔적을 박제화하는 이 설치작업은 인간이 폐기해왔던 항목, 더럽거나 하잘것없어 감추어왔던 것에 대한 주목이며, 소멸로 의미지우는 죽음과 또 다른 양상으로서 생산의 진정한 가치들에 대한 기록이기도합니다. 결코 아름다워 보이지 않은 각질화 세포에 관한 흔적들은 2개의 유물보관용 진열장(높이1.4m×가로2.1m×세로0.61m 정도)에 안치되어 전시됩니다. 사방이 유리 벽체로 구성되어 거대한 보석 진열장처럼 보이는 유리상자 공간 안에 설치된 우아한 고전풍의 진열장은 4개의 다리와 소증하게 보관된 대상물, 투명한 직육면체 덮개로 이루어졌으며 보관 중인 '각질'이 거창하고 대단한 보물이나 유물처럼 보이도록 장식하는 기능을 훌륭하게 수행합니다. 그 아래 바닥에는 진열품의 기념비적 성격을 설명하는 에스키스 황동판(가로0.76m×세로0.55m)이 함께 비치되어있습니다.

작가는 이번 전시설정을 통하여 이제껏 인간이 생산해놓은 기념비적인 것들을 우월하다고 추켜세우는 것이 사실은 '착각'이라고 비꼽니다. 위대한 인간 문화양상의 실상을 조금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피부의 각질처럼 '생성과 소멸'의 순환 규칙을 따르는 당연한 결과들이며, 별 볼품없이 버려지는 대상일 수도 있음을 말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던 것에서 위대함을 발견하고, 우아하고 대단한 찬사 속에 숨은 하찮은 사실들을 공유하고 담론하여, 기존의 관념들을 새롭게 제시합니다.
작가가 요약하는 인간 삶에 관한 진정한 가치문제는 우주의 순환적 관계 속에서 설명될 수 있으며, 작가는 자신의 예술적 장치를 통하여 사회와 우리 자신에 관한 성찰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 제안은 우리들을 둘러싼 세계와의 관계를 예민하게 감지하고 새롭게 재구성해보려는 예술가의 실험과 해학을 상기시킵니다.

-정종구-

내가 생산한 것 2,095×610×1,390cm, 아크릴 나무 등 혼합재료, 2008
사람들이 생산한 것 2,095×610×1,390cm, 아크릴 나무 등 혼합재료, 2011

예술가와 시민의 별★같은 만남

전시공모 선정작가展 2011 GLASS BOX ARTSTAR Ver.4

Kang, Minjung

강민정의 〈Happy Skin Studi O〉
마스킹(Masking) : 그 얼굴들을 여기에

가끔 이런 경우를 모두 경험했을 것이다. 미용실이나 이발소를 가서 머리 손질을 맡길 때 벌어지는 경우의 가짓수다. 커트든 파마든 염색이든 고객이 원하는 스타일이 있고 미용사가 생각하는 스타일이 따로 있다. 두 사람이 바라는 바가 같으면 가장 좋은 경우다. 문제는 의견이 다른 경우인데, 손님의 희망과 다르게 미용사가 자신의 창의력을 살려 새로운 헤어스타일을 제안한다고 치자. 그렇게 해서 고객이 스스로 발견하지 못했던 아름다움을 완성한 경우가 있다. 이 두 가지 경우는 손님이 만족하면서 단골로서 좋은 관계가 유지될 것이다. 반면, 고객이 새로운 모험을 부탁했는데 결과가 신통치 못하다면 그 관계는 보장할 수 없다. 가장 나쁜 것은 손님은 종전과 같이 보수적인 선택을 원했는데 헤어 디자이너가 자신의 미적 기준에 따라 실험을 했고, 두 쪽 모두 완성된 결과에 참담함을 느끼는 경우다. 이 때 거래관계는 더 이상 이어질 수 없을 것이다.
일종의 게임이론을 설명할 때 이와 같은 모형은 최선의 경우부터 차선, 차악, 그리고 최악의 경우까지의 과정과 결과를 구획 짓고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사람 사이를 잇는 커뮤니케이션이다. 가령 미용사가 아무리 좋은 솜씨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문자의 마음을 엿보는 눈치가 없으면 그 커뮤니케이션 행위는 실패한 것이다. 하나의 작품을 완성해내는 숙련 기술만큼이나 타인의 의도를 알고 자신의 뜻을 전달하는 의사소통은 합목적적 행위로 간주된다.
미술도 커뮤니케이션 행위다. 작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구체적인 조형성으로 나타내려고 한다. 여기서도 본인도 만족하고 타인들도 만족하는 경우(통通-통通=성공한 커뮤니케이션)도 있고 본인이나 타인이나 다 같이 결과에 납득이 안가는 경우(不通-不通=부분적으로 성공한 커뮤니케이션)도 있다. 최악의 상황을 꼽으라면, 작가는 만족하는데 딴 사람들 모두는 뒤에서 쉬쉬하며 작품을 비웃는 경우(通-不通=실패한 커뮤니케이션)가 아닐까. 여기에, 미술은 육체관리 산업만큼, 혹은 조금 더 복잡한 여러 커뮤니케이션 도식이 들어온다. 그리는 솜씨가 숙련된/비숙련의, 인품이 존경받는/멸시받는, 돈 잘 버는/못 버는, 철학적 의미가 충만한/텅 빈 따위의 코드로 구분되는 기준이 작가와 작품을 평가한다.

★★★★★

현대미술가 강민정은 이와 같은 복잡한 커뮤니케이션 코드를 단순한 패턴으로 시각화 하는 작업을 보여주려 한다. 그녀는 우리의 얼굴을 상징화하는 과정을 미술 속에 은유적으로 끌어들인다. 전시 공간에는 천장으로부터 샹들리에 모양의 조형물이 여러 개 매달려 있고, 그 아래에는 침대가 설치되어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각각의 하얀 샹들리에에는 수많은 사람 얼굴들이 촘촘히 박혀있다. 적잖이 섬뜩한 이미지다. 관객이 원하면 그 밑에 있는 침대에 누워 팩 마사지와 같은 시술을 받을 수 있다. 그 팩은 석고를 물에 풀어 얼굴에 바르는 것이다. 얼굴에서 떼어낸 팩은 얼굴 주인공의 이목구비를 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데스마스크 같은 느낌을 준다. 작가는 이것을 사각의 유리 안 곳곳에 줄지어 배열한다. 이 역시 하얀 샹들리에처럼 무섭긴 매한가지다.
작가는 미국에서 유학과 창작 활동을 같이 하면서 커뮤니케이션 문제에 작업의 초점을 맞추어 왔다. 말과 글이 다르고, 감성구조도 다른 이방인에게 커뮤니케이션은 많은 생각을 하게끔 했을 것이다. 짐작컨대, 작가는 그곳에서의 고단한 예술의 과정에서 마치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바꾸어 대면하여 일해야 하는 이른바 감정노동에 대한 알레고리를 발견했다. 글의 순서를 바꾸어 비판적인 첨언을 먼저 하자면, 작가는 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그것은 현대예술에서 너무나 보편적인 담론이 되어버렸다. 내가 앞부분에서 장황하게 써놓은 커뮤니케이션의 다양한 코드가 작가 강민정의 미술 작품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 내가 그녀를 비판하는 부분은 작품이 아니라, 지나치게 보편적인 주제 선정이다. 작가의 작업은 칭찬받을 부분이 훨씬 많다. 작가는 자기 작업을 휩싸여 있는 서늘한 기운을 인식해야 한다. 어쩌면 무의식중에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녀가 내게 작업 설명을 하면서 "따뜻한 커뮤니케이션" 따스한 정감"이란 말을 반복해서 뱉어내는데, 한기에 대한 보상심리일지도 모르겠다.

누가 보더라도 감탄할만한 부분은 현대인의 익명성에 대한 고찰이다. 한 가지 더, 내가 주목하는 점은 그녀의 작업이 '예술'과 '예술이 아닌 것' 사이의 묘한 상동성(相同性)을 지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작가 강민정이 몇 해에 걸쳐 이어 온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관객 참여 과정이다. 실은 여기에 사람을 끌어 모아야 하는 숙제가 있기는 하다. 일단 나부터 손을 저었다. 어린 애도 아니고, 으스스함이 싫어서 그런 건 아니다. 이는 핸드 프린팅을 찍는 것과는 다르다. 각자의 얼굴을 빌려줘 마스크를 떠내는 것에는 선뜻 나서기 어려운 측면이 몇 가지 있다. : 첫째 바쁜 일과에서 삼십분 이상이라는 꽤 긴 시간을 들여야 한다는 점, 둘째 자기 정체성의 결정판인 얼굴의 존엄을 깎아내리는 흉한 점을 드러낸다는 점, 셋째 그 적나라한 결과물이 고스란히 전시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다는 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이 유리 상자 속에 누운 채 남들의 구경거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부끄러움이다.
그런데 이 행위는 수치심이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는 거꾸로 즐거운 경험이 될 수도 있다. : 첫째 소중한 시간을 작가와 작품 완성을 위해 기부한다는 점, 둘째 자기 외모의 장단점을 여과 없이 드러내어 관찰자의 시선으로 감상한다는 점, 셋째 원한다면 그 작품을 참여자 본인이 소장할 수 있다는 점, 끝으로 일련의 실험적인 개념 미술에 기꺼이 참여하는 자신이야말로 현대 예술의 맥락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자긍심이다. 예컨대 이는 상당히 뛰어난 외모를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적극적으로 육체 관리에 돈을 쓴다던지, 지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일수록 스스로 정신병원에 가서 상담 치료를 받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우리는 작가가 완성한 전체 공간을 보면 그 석고 마스크 조각조차 개인 인격의 침해보다는 기념비적 예술성의 성취가 경쾌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 수많은 얼굴만을 보아서는 그것들의 주인공을(샹들리에의 여러 인형 두상들처럼) 가려내기 힘들다. 이러한 점은 강민정의 미술세계가 커뮤니케이션의 복원보다 '익명화된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쪽으로 향해있음을 넌지시 증명한다. 익명성이 짙은 작품을 대함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은 얼굴상 하나하나 속에서 아는 얼굴을, 그리고 각자의 얼굴을 되돌려 받으려고 할 것이다. 어쩌면 이것이 작가가 그토록 원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실체가 아닐까. 한결같이 눈을 감은 채, 입이 다문 채 무표정한 그들 차가운 마스크 앞에서 작가는 커뮤니케이션의 한계를 우리에게 좀 더 내밀하게 설파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와 같은 패러독스 앞에서 이 개념 미술을 통통通-通하게 열어놓으려는 그녀의 커뮤니케이션은 성공한 것인가, 실패한 것인가?

-예술사회학, 갤러리 분도 아트 디렉터 / 윤규홍-

2011.7.22Fri ~ 9.4Sun 아트스페이스 (2F)

Happy Skin Studi O

코디네이터 박지영
비평가 윤규홍

전시소개

2011년 전시공모 선정작 중 네 번째 전시인「2011 유리상자-아트스타」Ver.4展은 순수미술을 전공한 강민정(1979년생) 작가의 퍼포먼스 설치작품 'Happy Skin Studi O'에 관한 것입니다. 'Happy Skin Studi O'는 피부 관리실을 연출하고 '대화'를 통해 '나의 정체성'을 탐구하는 자기 기록적 고찰이며, 나와 세계의 소통에 관한 적극적인 실험의 시각화입니다. 이는 작가 자신과 타자와의 관계에서 사건화 되는 '대화'와 '친밀감'의 축적을 기록하고, 그 기록 과정을 분석하는 태도와 연계하여 예술의 작동원리와 확장 가능성을 타진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번 전시 설정은 사면이 유리 벽체로 구성되어 안과 밖이 서로 훤히 들여다보이는 유리상자 공간을 이용하여, 관음적인 공간이기도하지만 보다 참여적이고 사교적이며 친밀감을 공유하는 대화의 공간으로 설계합니다. 공간 안에 있는 예술가와 관객, 두 사람의 사적인 대화와 동시에 진행되는 마스크 제작 퍼포먼스, 그 관계 작용의 흔적을 설치예술로 편입하는 전시 설계는 대화와 예술을 융합시키고 또 확장합니다.
유리상자의 흰색 바닥의 중앙에는 흰색 싱글 침대매트와 베개가 놓여있습니다. 체험관객이 편안하게 누워서 피부마사지를 받고 작가와 대화를 나누는 곳입니다. 그 옆으로 진열한 성스러운 제기祭器처럼 보이는 유리그릇 안에는 마사지용 보습젤리와 물, 얼굴을 캐스팅하기 위한 석고거즈가 담겨있고, 주변 바닥에는 이전 참가자의 얼굴을 떠낸 석고 데드마스크가 수집되어 있습니다. 각각 다른 참가자의 얼굴이지만 눈을 감고 입을 다문 모습이 모두 비슷해서 개성이 없는 일반적인 마스크로 보입니다. 천장에는 'Happy'를 상징하는 샹들리에 구조물 6개가 매달려있습니다. 침대매트 바로 위에는 흰색 불빛을 발산하는 고치모양의 샹들리에(h180×D90㎝)가 달려있고, 그 주변으로 5개의 흰색 샹들리에(h63×D55㎝)가 더 있습니다. 각각의 샹들리에에는 주먹만한 크기의 흰색 인형얼굴이 매달려있습니다. 마치 석가탄신일의 소원성취 연등을 연상시키는 이것은 470여개의 얼굴들로 인해 'Happy'하지 않은 섬뜩한 공포감을 주기도 합니다. 침대매트에 누워서 보면 바로 눈앞에 백여 개의 얼굴이 나를 향해 쳐다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형태, 흰색의 창백함, 무표정한 얼굴, 조명 탓에 간간히 인상이 달라 보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체성을 상실한 현대인의 익명성을 설명하는 공포 이미지입니다. 작가가 적극적으로 지향했던 '나의 정체성 찾기'의 이유를 대변하는 이 이미지의 메시지는 현대인의 '불안'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타인과의 유대와 공감은 가능한지?'에 대한 이방인의 불안감은 결핍에 반응하는 갈구로 이어져 정체성 찾기를 추구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작가는 피부관리사의 배역과 얼굴 마사지, 일상적 대화, 친밀감의 축적을 행하는 퍼포먼스 속에서 자신과 타인 사이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확인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탐구하고, 특히 정서적 측면에서 이질감, 이타성, 소외감을 탐구하고 'Happy'로 극복하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작가가 요청하는 것은 대화이며, 이 대화의 과정과 지향 자체가 관객의 감동과 설득을 이끄는 '예술'사건으로 탐구되는 것입니다. 작가가 '정체성 찾기'로 요약하는 얼굴 탐구는 '타자와 대화'로도 설명되며, 예술가 자신에게 던지는 실존과 세계와의 소통에 관한 물음입니다. 또한 관객이 자기 삶에서의 주인으로서 자신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계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들로 인하여 유리상자에 담긴 퍼포먼스와 설치이미지는 우리들 세계를 성찰하고 새롭게 재구성되기를 바라는 예술가의 실험 의지를 느끼게 합니다.

-정종구-

Happy Skin Studi O_version III 가변설치, 퍼포먼스, 혼합재료, 2010~2011

예술가와 시민의 별★같은 만남

전시공모 선정작가展 2011 GLASS BOX ARTSTAR Ver.5

Cho, Kyungheui

조경희, 물신적 욕망이 빚어낸 낯선 풍경들

설치작가 조경희는 오랫동안 스타킹이라는 기능성 직물 소재를 가지고 독특하면서도 창의적인 작품들을 발표해왔다. 흔히 여성적 욕망 혹은 성적 유혹을 상징하는 이 스타킹이라는 소재는 매끄러우면서도 신축성이 뛰어나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녀는 작업 초기부터 이러한 재료의 성질들에 주목하고 이러한 효과들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작업해왔다. 물론 기존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스타킹은 기능적으로 보온재이면서도 여성의 각선미를 돋보이게 만들고 원초적인 유혹의 손길을 이끌어내는 재료였지만 조경희 작가는 스타킹이 가진 신축적인 직물적 특성과 메타포적 의미확장에 오히려 더 많은 눈길을 주고 이를 이용하여 독특한 시각적 효과들을 창조해 보여주고 있다.

한마디로 그녀가 만들어낸 찢어진 스타킹들로 만들어진 설치 작업물은 일종의 폐허같은 풍경을 연상시킨다. 어떻게 보면 허공에 선들을 그은 흑백의 수묵화같기도 하고 모노크롬 회화를 연상시키기도 하며 때로는 괴기스럽게까지 느껴지는 그녀의 설치물들은 인간의 신체가 결여된, 즉 욕망의 주체와 목표 자체가 증발해버린 낯선 기호물들의 경관이다. 즉 욕망의 주요한 대상물인 신체가 빠져나간 스타킹 자체는 그러한 유혹의 기호로만 존재할 뿐 그 자체가 욕망의 대상으로 다가오지 못한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욕망의 대상이자 주체였던 신체가 자리했던 흔적들로 존재하는 그녀의 설치작업은 세계에 대해 부정적이면서도 폐허적 감성에 가까운 것으로 다가온다. 신체가 결핍됨으로써 좌절된 욕망은 작가의 바느질에 의해 기워지거나 봉합됨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고 작품 속에서 낯선 촉감과 질감을 자극하는 시각적 오브제로 재탄생한다. 특히 스타킹이라는 의류 자체가 늘려지고 찢겨지는 변형과정을 통해 그것이 감추고 있었던 그물 모양의 직물 패턴들이 시각적으로 크게 드러나면서 그러한 효과들은 극대화된다. 그녀의 작업에 사용된 스타킹이라는 직물소재가 은밀하게 감추고 있었던 그물 패턴들은 우리가 그간 숨겨왔던 유혹과 욕망을 옭아매고 억압해온 메타포처럼 다가온다.

이 지점에서 그녀의 작업들은 우리로 하여금 허버트 마르쿠제 Herbert Marcuse의 리비도 담론을 연상시켜 보게끔 만든다. 리비도적 에너지의 승화가 한 사회의 창조적 발전과 해방적 가능성으로 이어진다는 마르쿠제의 담론은 현재 그녀의 설치 작업들에 의미심장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다시 말해 그녀의 작업에서 구현된 욕망의 기호들은 단순한 성적 욕망의 차원을 넘어서서 현대 사회의 구조적 시스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합리성과 효율성이라는 틀 속에서 제어되었다고 여겨지는 이러한 욕망들은 테크놀로지와 결부되어 다양한 관계망들을 가지면서 서로 경쟁하면서 창조적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세계를 구현한다. 하지만 그러한 발전의 부정적 측면들은 그러한 끝없는 욕망에의 구현이 자칫 자연과 본원적인 인간의 삶에 어두운 그늘을 드리울 수 있으며 또 근원적 방식의 삶에 대한 기대와 희망들을 배반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루가 멀다하고 새롭게 파괴하고 건설하는 현대적 욕망의 시스템은 어찌보면 근대성이 가진 부정적 속성을 전면화시켜 보여주기도 한다. 즉 조경희 작가의 이러한 설치작업들은 이러한 사회가 가진 거대 시스템의 그늘진 측면들을 비판적으로 보여주고 반성을 제기하는 의미를 획득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그간 그녀가 추구해왔던 물성에 대한 시각적 변형 가능성에 대한 실험들을 넘어서서 작품 속에 그러한 사회적 메시지를 담아 전달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그녀의 작업을 보다 큰 틀에서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확장 가능성을 엿보게 만들어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전시 작업을 통해 그녀가 만들어낸 낯설고 기이하면서도 매혹적인 풍경들이 던져주는 반성적 성찰은 그녀의 작품 세계를 보다 심화된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듯 여겨진다.

–미학 / 최창윤–

2011.9.23Fri ~ 10.23Sun 아트스페이스 (2F)

Blindly

코디네이터 김 현
비평가 최창윤

전시소개

2011년 전시공모 선정작 중, 다섯 번째 전시인「2011유리상자-아트스타」Ver.5展은 한국회화를 전공한 조경희(1970년생) 작가의 설치 작품 'Blindly'에 관한 것입니다.
'Blindly'는 맹목적으로 성장을 추구하는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주제로 조형화하는 자기 성찰적인 공간드로잉입니다. 이는 작가 자신이 인간과 세계를 바라보는 견해-개발과 성장에 관한-를 바탕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마음에 담아온 메시지의 확장 가능성을 시각예술로 타진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번 전시 설정은 사면이 유리 벽체로 구성되어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유리상자 공간에 인간의 욕망을 담아 보이는 것입니다. 욕망의 느낌이나 그 흔적을 입체 드로잉으로 형상화하여 박물관의 진열장처럼 보이는 투명상자에 보관하는 공간 설계입니다. 그 안에 있는 29개의 굵고 긴 직선과 수백 개의 신축성이 있는 비정형의 검은 선 덩어리는 서로 교차하며 하나의 덩어리로 합쳐져 기묘한 긴장감을 보여줍니다. 수직과 수평선들을 교차하여 구성한 큐브형태(4m×4m×5m)의 직선 단위는 건설현장에서 임대해온 지름5cm 길이4m정도의 건축공사용 비계飛階 파이프의 선이며, 성장과 개발을 연상시키는 전형적인 상징입니다. 검은색 드로잉 획 같은 비정형의 선 덩어리는 신축성이 있어 잘 늘어나는 부드러운 감촉의 여성용 망사 스타킹을 이어 구축한 것입니다. 소재가 갖는 서술구조 이전에 순수조형으로서, 섬유질 껍질을 당겨놓은 것이 끈끈하게 뒤엉키거나 위를 향해 넘실거리며 움직이는 것 같은 검은 색 선 덩어리의 긴장감은 다양하고 끊임없는 인간의 욕망을 형상화하기에 탁월해 보입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작은 화분으로 이루어진 글자가 보입니다. 채소 싹으로 그려놓은 '희망'이란 문자는 채소가 시들해지면서 그만 역설이 되어갑니다. 욕망이 '희망 없음'과 결합하는 사건을 제시하는 현장입니다.

작가가 적극적으로 직시하는 '인간의 욕망'은 조금 앞의 장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무턱대고 전진과 성장, 개발을 외치며 합리화해온 우리 자신의 부정적 욕망이며, 이 전시는 그 성찰과 부끄러움의 정서적 표현일 수 있습니다. 결국 작가가 요청하는 것은 평화와 행복의 삶이며, 관객의 공감과 감동을 이끄는 '예술'사건으로 이들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관객이 자기 삶에서의 주인공으로서 자신의 평화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들로 인하여 유리상자에 담긴 작가의 들리지 않는 고함소리와 보이지 않는 영상이미지들은 우리들 세계를 성찰하고 새롭게 재구성되기를 실천하려는 예술가의 의지를 느끼게 합니다.

-정종구-

Blindly 4x4x5m, 비계파이프에 망사스타킹, 실, 모종 설치, 2011

예술가와 시민의 별★같은 만남

전시공모 선정작가展 2011 GLASS BOX ARTSTAR Ver.6

Lee, Siyoung

이시영의 '새-되기(becoming birds)' - 확장된 영역으로

'앙상한 나뭇가지에 새 한 마리 앉았다. 홀연히 날아든 또 한 마리, 그들은 서로 마주보듯 몸을 가누더니 날기 시작한다.' 이시영 작가의 '새-되기(becoming birds)' 영상화면의 한 장면이다. 그는 "특별할 것 없는 제 생각을 유리상자에서 관객들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라며 '새-되기'를 보여준다.

그의 새는 Origami(종이접기)로 태어났다. Origami는 가위질과 풀칠을 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한 장의 종이로 다양한 형태를 도출시키기 위해서는 치밀한 계획과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그렇게 태어난 새는 접기라는 제작방식과 종이라는 물성으로 보아 무생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작가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새는 생동한다. 생명력을 증명이라도 하듯, 시 공의 여백을 비상한다. 그 비상은 바닥에 깔린 영상화면 속에서 지속된다. 지속된 비상은 투명한 유리벽을 통과해 확장된 사유로 안내한다. 그러니 유리상자는 이시영 작가에게 특별한 전시공간이다. 들뢰즈(Gilles Deleuze, 1925~1995)의 '탈영토화'를 섭렵한 후이기에 더욱 그러했을 것이다.
그의 이러한 작업은 청각으로부터 시각과 촉각으로 이어지는 공감각적 경로를 거쳐 제작된다. 메시앙(Olivier Messiaen, 1908~1992)의 피아노 연주를 청한 것도 이러한 제작경로의 일환이다. 이것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시 공과 공감각적 흐름을 통째로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전재된 듯하다.

이번 작품 '새-되기'는 한 공간 안에 설치(installation)와 영상화면 그리고 소리가 병존한다. 공중에 설치한 오리가미는 작품 전체의 단초이자 함의의 실체다. 내적 서사를 담은 영상은 스토리텔링을 담당한다. 피아노 연주의 음악적 요소는 청각을 자극하여 감정을 고조시킨다. 각 매체는 인위적인 구분이 아니라 상호 연결되어 내러티브를 보완한다. 한편 스케일과 차원의 도약을 보여준다. 이러한 종합방식은 작품 전체의 구성과 의미집중을 위해 고안된 장치이다. 결과적으로 평평하던 백지가 오리가미로 형상을 갖추어가듯, 투명한 유리상자가 토탈아트의 덩어리로 거듭난다. 이것은 작가와 공간, 작품과 관객사이의 원활한 인터렉티브를 구축하고자 하는 의도가 내재된 것이다.

그의 '새-되기'는 일상으로부터 출발한다. 일상의 경험과 기억의 감각을 재구성하여 싹틔운 것이다. 유년시절, 안고 가던 새둥지의 알을 보호하느라 무릎을 다쳤던 기억, 성인이 된 후, 메시앙의 음악에 매료되어 들과 숲에서 탐조를 즐겼던 경험, 유학시절 뉴멕시코의 아름다운 실경에 경탄했던 기억들이 그것이다. 근자에는 주변의 작은 새들로부터 그 감동을 이어간다. 모두 자연에 도취된 시간들이다. 따라서 '새-되기'는 이시영 작가의 삶의 단면에 숭고한 자연과 풍부한 감성적 텍스트가 버무려진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인간애와 자연애의 접목은 문명에 침범당한 자연과 인간성에 대한 토로이다.
현대의 문명은 인간을 자연선택과 생존경쟁의 기로에 세워 놓았다. 풍요가 넘치는 문명에도 심적 결핍과 그리움은 엄연히 존재하고, 세파는 사람의 영혼을 아프게 한다. 마땅히 사람으로부터 받아야 할 위안을 자연에서 찾게 한다. 이런 현실에서 그의 작품은 시 공의 단편이 뒤섞인 지금-여기의 유토피아를 제시한다.

새는 예로부터 영혼의 매개자, 신세계의 예고자, 효능의 발휘자, 그리고 길흉화복의 상징 등으로 인식되어 왔다. 칸트도 꽃이나 벌새의 자유로운 미를 칭찬했다고 한다. 이시영 작가에게 '새'는 어떤 원형상일까. 한지의 주름으로 탄생된 그의 새에게서는 자연 친화, 외유내강, 생명의 존귀, 그림자와 흔적, 그리고 평화와 보호의 뉘앙스가 전해진다. 무엇보다 자신과 동일시되는 존재로서의 새는 구속을 해방시키는 자유의 상징체가 아닐까 한다. 또는 메시앙이 그랬던 것처럼 '천사의 아바타'인지도 모르겠다.

시·공을 포획한 유리상자는 작가의 숨을 마신 새들에게 날 수 있는 공간을 허용했다. 그리고 무한 창공으로 이어진 통로가 되어 더 넓은 세계로 길을 내어준다. 뿐만 아니라 밖으로 나갈 힘의 비축을 돕는 안식처가 되어준다. 이렇게 '새-되기'의 함의를 품은 유리상자는 하나의 새로운 작품으로 거듭나 '재영토화' 된다. 이것은 그가 작품의 주제를 견지하고 유리상자라는 공간을 적극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가능하다. 그리고 작업 의도와 공간을 얼마나 잘 결합시키는가에 따라 더욱 극대화 된다. 이어 노출된 공간의 유리상자라는 특성상 자연조건과 관람자들에게 재해석, 재창조됨으로서 다양한 빛을 발할 것이다.

사전에 조명, 동선, 전기시설, 음향, 작품배열 등을 꼼꼼히 체크하고 계획하는 것은 작가의 본분이지만 열성과 부지런함은 분명 귀감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특별할 것 없다던' 그의 '새-되기'가 더 특별한 작품으로 거듭나길. 그리고 자연친화적 감성이 담긴 '새-되기'가 문명의 이기를 돌아보게 하는 공감각적 체험의 장이 되길 바란다. 유리상자로부터 더 확장된 시간과 공간으로, 그리고 사유로.

-미술학 / 서영옥-

2011.**11.4**Fri ~ **12.11**Sun 아트스페이스 (2F)

BECOMING BIRDS

코디네이터 정기엽
비평가 서영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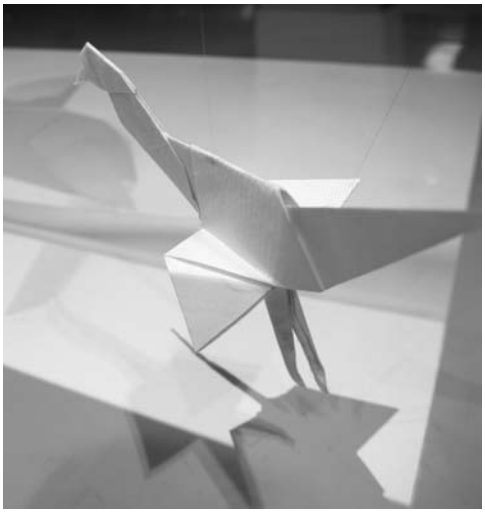
전시소개

2011년 전시공모 선정작 중, 여섯 번째 전시인 「2011유리상자-아트스타」Ver.6展은 조각을 전공한 이시영(1974生) 작가의 설치작품 'becoming birds'에 관한 것입니다. '새-되기; becoming birds'는 '생명'과 '생명 창조력'을 지닌 '자연'에 관한 고찰과 감응이며, 찬미입니다. 이는 '시간과 공간, 시각과 청각, 인간과 자연'의 상호관계에 관한 작가의 공감각적 미감美感이기도합니다. 작가는 자신과 세계와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공감각적 일체화 사건 '새-되기'를 서술하고, 그 태도와 연계하여 예술의 경계를 실험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번 전시 설정은 사방이 유리 벽체로 구성되어 안과 밖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유리상자 공간의 투명성을 특성으로 개인적인 탐조 취미에서 출발한 예술가의 미감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공간에 설치된 종이 새와 음악 소리가 함께하는 퍼포먼스를 펼치며, 과거와 미래를 영상으로 잇고, 그 일체화의 의미를 살펴보는 현재적 사건입니다.
특별히 이번 유리상자는 시공간을 공유하는 교감의 공간입니다. 작가와 만남 시간에 펼쳐지는 피아니스트의 연주 퍼포먼스가 그 일면입니다. 피아노 건반에서 울려 퍼지는 Olivier Messiaen의 종달새 연주음악과 천장에 매달아 리듬감 있게 설치되어있는 20여 마리의 종이 새는 관람객의 시각과 청각, 촉감을 비롯한 공감각적 감성과 담론으로 교감합니다. 종이 새의 한지 재질이 가진 부드러움과 종이접기 방식, 그 방식이 전하는 손맛의 감성은 지금 바로 지각되는 현재의 것이며, 존재의 생성과 무한한 상상을 은유 합니다.
탐조의 감응과 새 소리의 유기체적 리듬으로부터 시작되는 작가의 종이 새 접기는, 가슴의 떨림이 음악과 미술로 동시에 전해지는 사건의 흔적일 것입니다. 특별해보이지 않지만 특별한 종이 새와 함께 유리상자의 바닥에는 빛의 영상 창이 투사됩니다. 유리상자 안에서 무리지어 날아오르는 형상으로 설치되어 있는 종이 새들은 영상 속으로 빨려드는 것 같습니다. 날지 못하는 종이 새들의 '날기' 소망과 종이접기로 상상하는 '생명' 탄생의 영상은 현재와 연결된 미래와 과거를 투사하여 교감합니다.

작가의 종이접기는 자연의 생명 창조력을 흠모하는 일종의 '흉내 내기'입니다. 자연의 생명에 감화하고 자연의 일부로 참여하여 하나가 되는 것, 곧 '새-되기'입니다. 탐조에서 시작된 '흉내 내기' 사건의 시공간적 의미와 해석, 타인과의 공감 시도는 애매모호한 동시대 예술의 경계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세계와의 교감 가능성에 관한 작가 자신의 믈음이며, 관객이 자기 삶에서 새로운 교감을 발견하게 하려는 배려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유리상자에 담긴 설치이미지는 또 다른 시각에서 세계를 해석해보려는 예술가의 독특한 감성을 투영합니다.

-정종구-



becoming birds variable size, 한지 영상물, 2011

예술가와 시민의 별★같은 만남

전시공모 선정작가展 2011 GLASS BOX ARTSTAR Ver.7

Kim, Seunghyun

김승현의 새로운 설치작업에 부쳐

과거의 위대한 예술가들은 모두 강렬한 감정과 열정의 소유자들이었다. 오늘날에도 작가들이 일반인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사람들이 무심히 지나치는 상황이나 대상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감각하고 강렬한 감정으로 대하는 것 일게다. 이들이 특별한 존재인 것은 아무도 집착하지 않는 그 문제들을 매체를 통해 표현하고 전달하는데 식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있으며 간단히 단념하지 않는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주위의 관심이나 주목을 크게 받지 못하는 분야에서 여간한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자신의 일을 계속하는 젊은이들을 보면 아마도 그들에겐 특별히 타고난 예술가의 피와 정신이 흐를 것이란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작년에 신라갤러리에서 열린 한 전시회에 갔을 때 갤러리 입구에 있는 주택의 담벼락에 검은 색 페인트로 쓴 'HOUSE IS NOT A HOME'이란 글이 크게 눈에 들어왔다. 굵은 고딕체의 글씨가 매우 선언적으로 표방하는 문장의 의미를 알아채지 못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오늘날 주택이 단순한 주거의 목적을 넘어 필요이상 호화로워지고 부의 수단으로 거래와 과시의 수단이 되는 동안 전통적 가치의 의미를 지닌 가정은 날로 해체되어 가는 현실을 두고 에둘러 그 위기를 경고하고 있음을 말이다. 그런데 유행지난 팝송의 노랫말에서 따온 글귀라는 데서 그 뜻도 이미 평범하게 느껴질 정도다.

그렇지만 작가는 이 한 발 늦은 듯 보이는 공감의 수준을 두고 자신의 감수성이 시대에 뒤쳐졌다고 생각하는 대신 우리의 현실문화가 서구의 그것을 한 템포 늦게 뒤좇아 가는 증거라고 여기는 순진함을 보인다. 우리는 서구의 경험과 시행착오 그리고 그 부작용들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고 비판에도 익숙하다. 그러나 아무도 그 흐름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런 우려하는 상황이 어디까지 가서야 멈추게 될지 예측하지 못한다. 심지어는 갈 데까지 가봐야 정신을 차리고 되돌아 올 거라는 절망적인 토로가 나오기도 한다. 그래서 때늦은 듯 보이는 작가의 주제가 오히려 선택의 명분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닌지.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고 모두가 무시하고 지나치는 현실의 위기를 예술가의 감수성은 여전히 고통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켜 준다.

이 작가의 작품들은 두 가지 바탕위에 서 있다. 하나는 개념미술가의 정신이고 또 하나는 미디어 아트와 설치미술가의 태도이다. 그런 점에 볼 때 가장 현대 미술가답게 진정한 예술가의 정신을 지향하고 있는 작가임에 틀림없다. 개념미술은 현실의 모순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속성상 정치적일 수밖에 없으며 예리한 의식과 민감한 감각으로 시대의 아픔에 동참하는 작가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김승현 작가가 다루어온 대부분의 주제들을 보면 현대사회의 부조리와 그 속에서 겪는 갈등과 모순들이었다. 이런 주제의 개념들이 어떻게 미학적으로 표현되며 효과적으로 전달되는지는 작가의 역량과 솜씨에 달렸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 개성 있게 추구해야할 문제이다.

앞서 본 그 전시에서 작가는 시멘트 재료를 가지고 CEMENT라는 글자로 주조된 집 모양의 형상을 만들어 집의 개념을 반복적으로 인식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이미 잘 알고 있는 그 개념적인 내용을 단순히 도해하려 했다기보다 오브제를 통해 직관적인 전달을 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인 데서 그를 끈기 있는 미디어 작가로 평가하고 싶다. 일일이 설명해야 하는 글보다 조형작품은 언제나 그 자체로 전달력을 가지는 것이다. 개념적인 설명이 할 수 없는 말하자면 언어로 불가능한 지점을 미디어 작가는 조형적인 선택과 설치라는 방식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한다.

이번 '유리상자전'에서는 지상에서 높이 치솟은 마천루의 형상을 상징하고 또 그것이 의미하는 또 다른 은유인 남성성의 추구가 결국 허무한 결론을 초래할 뿐이라는 내용으로 작업했다고 한다. 그의 테마가 들려주는 일정한 지향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또 전혀 새로울 것도 없지만 이것을 설명 들으면서는 느낄 수 없는 설치작품이란 데서 오는 매력을 기대하게 한다. 설치작가로서 그의 조형감각에 가장 필요한 것이 어쩌면 유머감각인지 모른다. 항상 진지하게 접근하는 그의 태도에 재치 있는 상상이 개입되면 작품에 재미와 생기가 높아질 것이다. 미리 가본 그의 전시장에서 여러 미디어의 구성 가운데 애드벌룬의 도입을 보고 깨달은 점이다. 아마도 개념을 재연하거나 실천과정에 떠올랐을 그 새로운 상징은 여러 가지 위트 넘치는 해석으로 이번 작품에 흥미를 더할 것임이 분명했다.

–미술평론가 / 김영동–

2011.**12.23**Fri ~ 2012.**1.29**Sun 아트스페이스 (2F)

House is not a home-series 'empty'

코디네이터 황현호
비평가 김영동

전시소개

2011년 전시공모 선정작 중, 일곱 번째 전시인「2011 유리상자-아트스타」Ver.7展은 한국화를 전공한 김승현(1983生) 작가의 설치작품 "House is not a home-series 'empty'에 관한 것이며, '빈, 공허한, 무의미한' 의 위기감을 'house'와 'home' 의 차이와 팝송의 가사에 연계하여 우리시대를 담은 풍경화입니다. 이는 작가 자신이 세계와의 관계에서 직감한 정서적 위기감에 관한 조형적 서술이자 미감美感이며, 개발주의와 남성성 혹은 욕망과 권위에 대한 예술적 은유 장치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번 전시 설정은 4면의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안과 밖이 시각적으로 통하는 쇼 케이스 안에 어떤 사건 상태의 아파트 건축물을 연출하는 것입니다. 짓다가 허물어진 아파트 건설 현장을 연상시키는 이 조형물은 회색 시멘트를 칠한 천으로 만든 가로50×세로50×높이900cm 크기의 아파트 구조물과 아파트의 4귀퉁이를 지지하는 3m20cm 높이의 노란색 파이프 구조물 4개, 열기구 풍선 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노란색 파이프 구조물보다 더 높이 위치한 아파트의 상부는 힘없이 바닥으로 쓰러져 있고, 쓰러진 건축물 끝부분을 열기구 풍선이 들어올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름이 60cm정도 크기인 열기구는 바람이 빠졌는지 구겨지고 허술하게 보여 아파트 건축물의 상부를 하늘로 끌어올리기에는 버거워 보입니다. 또 열기구의 흰색 표면에는 구강 전문용품 브랜드 'oral-B'의 상표가 새겨져 있고, 힘겨워 보이는 'oral-B'열기구가 쓰러진 건축물을 들어올리려고 애쓰는 불편한 상태의 풍경화입니다.

세계를 바라보는 예민한 감성과 탐구, 관찰이 작가의 고정관념이 되고 그 묘사로부터 시작되는 작가의 풍경그리기는 대형사건을 전하는 시사만화의 한 컷처럼 간결해보입니다. 그 메시지는 가정의 소중함과 그리움, 정서적 안정과 채움에 관한 질문에서부터 정치 사회제도적인 안타까움, 남성성의 위축과 위기감 등 다의적 해석이 가능합니다. 메시지의 원천은 우리의 욕망과 구조적 모순에 대한 사색, 잃어버린 것에 대한 갈증에 다름 아닙니다. 상실의 위기감에 관한 시 공간적 의미 해석, 타인과의 공감 제안은 동시대에 대한 긍정과 부정이 아닌 동시대 예술의 힘에 대한 기대이기도 합니다. 또한 관객이 자기 삶의 위기에서 새로운 유머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배려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유리상자에 담긴 설치이미지는 세계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교감하려는 예술가의 은유적 힘을 상상하게 합니다.

-정종구-

House is not a home-series 'empty' 가변크기, 나무, 천, 시멘트, 와이어, 2011

2012

GLASS BOX ARTSTAR

2012유리상자-아트스타

Ver. 1
정기엽-유리 • 물 • 안개 • 소리
2.24- 4.1

Ver. 2
최수남-허물을 벗다
4.13- 5.20

Ver. 3
박정현-aA : from art to Architecture
6.1- 7.8

Ver. 4
권재현-매달린 소
7.20- 9.2

Ver. 5
이지영-Framing_Reflected Reality
9.14-10.21

Ver. 6
김안나-Out/In the Universe
11.2-12.9

Ver. 7
윤동희-망령
12.21- 1.27

봉산문화회관에서 주최하는「2012유리상자-아트스타」전시공모선정 작가展은 동시대의 남다른 예술에 주목합니다. 올해 공모 전시의 주제이기도 한 '이것이 현대예술이다 - 예술가와 시민의 만남'은 우리시대 예술을 공감하려는 '공공성'에 주목하고 시민과 만나려는 예술가의 태도와 역할들을 지지하면서, 현대예술의 남다른 '스타'적 면모를 지원하는 의미입니다.
도심 속에 위치해있다는 점과 4면이 유리벽면으로 구성된 아트스페이스「유리상자」의 장소 특성을 살려서 내부를 들여다보는 독특한 관람방식으로 잘 알려진 이 프로그램은 어느 시간이나 전시를 관람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시민의 예술 향유 기회를 넓히는 데 기여하고,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예술가들에게는 특별한 창작지원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예술지원센터로서 더 나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공모에 의해 선정된 참신하고 역량 있는 작가들의 작품 전시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현대예술이다-예술과 시민의 만남

전시공모 선정작가展 2012 GLASS BOX ARTSTAR Ver.1

Jeong, Kyop

이곳 그리고 지금

투명한 용기에 담겨 있는 물이 관을 타고 올라가 수증기로 전환되어 '유리상자'를 자욱한 안개의 방으로 변모시킨다. 부유하는 안개 사이로 낮은 음색의 소리 층이 더해지면서 공간에 잔잔한 공명이 울리기 시작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물방울이 낮은 조도의 빛에 반사되어 반짝이다 아스라이 멀어져간다. 이렇듯 잡으려 해도 손가락 사이로 흘러가버리고 찰나적으로 사라져버리는 아련한 분위기(atmosphere), 이런 흔들림, 떨림, 순간적인 사라짐과 같은 현상을 불러일으키고 결정(結晶)화하기 위해 정기엽은 그동안 물, 안개, 소리, 유리, 그리고 자신의 숨을 이용해왔다.

유리, 영롱한 상처의 기억

네 면이 투명한 유리로 된 전시공간 '유리상자'는 그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첫 만남에서부터 유리는 작가를 단숨에 녹여버렸다. 조소과로 편입하기 전, 불문학을 전공한 작가의 내면에는 시적인 상상력이 녹아있다. 유리는 그에게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꿈과 희망의 결속을 은밀하게 해석하는 매체가 되었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유학하던 시기에 그는 유리 작업에 눈을 뜨고 그것에 매료되었다. 모래로 된 틀에 유리가루 녹인 물을 부어 주조하는 샌드캐스팅, 공기를 불어 넣어 유리를 부풀게 하는 기법, 이 두 유리제작 기법은 차있음과 비어있음 사이의 변증법을 보여준다. 단단하면서도 깨지지 쉬운, 영롱한 빛을 발하면서도 산산이 부서져 상처의 흔적이 되는 유리의 역설적인 측면은 정기엽의 작업세계를 구축하는 근간이 된다.

2006년 1월, 작가는 지난밤에 꾼 꿈을 이렇게 기록했다:

그녀가 다가온다.
내 머리에 두 손을 얹더니
살며시 두개골을 열고는
뇌를 핥기 시작한다.
나의 뇌는 그녀의 혀가,
그녀의 혀는 나의 뇌가 된다.
완벽한 의사소통 ...
나의 뇌는 처음으로 '느낀다'.

뇌와 혓바닥의 관능적인 접촉. 여기서 상징주의 시인이자 초현실주의의 선구자인 로트레아몽(Lautreamont)의 시 구절 '재봉틀과 박쥐, 우산이 해부대 위에서 뜻하지 않게 만나듯이 아름다운' 처럼 데페이즈망(depaysement, 轉置)이 이루어진다. 생뚱맞은 이미지들의 조합과 전개는 잠재된 무의식의 세계를 해방시킨다. 이후 그의 작업에서 성(聖)과 속(俗)의 전이와 교차, 기괴한 에로티시즘의 은유가 끊임없이 나타난다. 유리에 숨을 불어넣는(불어 souffler) 행위에는 고통을 느끼고 참는(불어 souffrir)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

안개의 방, 어머니의 자궁

이번 '유리상자' 공모전에서 정기엽은 높고 거대한 유리창으로 구축되어 그 자체로 기념비적인 전시공간을 성소(聖所)로 만든다. 전시장 중앙에는 PVC 배관 파이프를 연결하여 제작한, 파고다를 연상시키는 3.5m 높이의 〈소리탑〉이 설치된다. 그 주변을 여섯 개의 투명한 정수통으로 둘러싸 반듯한 동그라미를 그린다. 정사각형 공간에 원형의 구조물, 이렇듯 간결한 기하학적 구조는 역시 단순하고 반복적인 사운드와 어우러져 관람자를 명상의 세계로 유도한다.
심장 박동소리 같은 반복적인 음향이 저음으로 천천히 공간에 울려 퍼지면서 안개의 느린 춤과 조우하고 또 속절없이 헤어진다. 깊고 짙은 붉은 톤의 조명은 유리창 너머 전시장을 바라보는 관람자를 어머니의 자궁 속으로 안내하는 듯하다.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이 붉은색은 검정이나 파랑보다 더 깊은 어둠의 색이다.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이곳은 전생과 현생, 기쁨과 고통, 삶과 죽음,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시간과 공간의 한 특별한 틈으로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편안해질 것 같다.
이번 전시를 통해 작가는 공간의 외부와 내부의 상관관계를 시적인 비전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유리상자'라는 온실을 닮은 구조물과 그 속에 설치될 작품 사이에 열림과 닫힘의 경계가 사라진다. 바깥 공간은 '유리상자'를 감싸 하나의 고립된 섬-성역을 만드는 한편, '유리상자'는 외부세계를 끊임없이 그 속으로 끌어당긴다. 액체에서 기체로의 변형이 쉼 없이 이루어지는 내부공간은 그 자체로 생성과 소멸이 반복되고 세상의 변화를 빠짐없이 반영하는 작은 우주(microcosm)이기도 하다.

전시기간 동안 유리창으로 스산한 바람이 스쳐가고, 초봄의 기운을 응축한 나뭇가지의 그림자가 잠시 쉬어갈 것이다. 늦겨울 한낮의 태양빛 아래, 또 석양이 질 무렵, 시시각각 유리창으로 변형되고 왜곡된 이미지가 생겨난다. 이 이미지는 우리의 시선을 유리창 안으로 끌어당기는 동시에 밖으로 내몬다. 여기서 멀리 떨어진 두 시간이 다가오고, 멀리 떨어진 두 공간이 가까워진다는 시간의 공간의 특별한 짜임이 유일하게 나타난다. 벤야민(W. Benjamin)이 말했듯이 순간이 영원으로 되면서 오로지 사라질 것만이 바로 그 다음 찰나에 아우라를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술평론가, P•K Art Vision 대표 / 박소영-

2012.**2.24**Fri ~ **4.1**Sun 아트스페이스 (2F)

유리 • 물 • 안개 • 소리

코디네이터 이시영
비평가 박소영

전시소개

2012년 전시공모 선정작 중, 첫 번째 전시인 「2012유리상자-아트스타」Ver.1展은 조소를 전공한 정기엽(1972生) 작가의 설치작품 "유리 • 물 • 안개 • 소리"를 통하여 시각화된 소리를 보여주는 퍼포먼스입니다. 이는 작가 자신이 탐구하면서 직감한 세계 구성의 '본질'에 관한 서술이자 '현재'를 바라보는 감성이며, 소통에 대한 의견이기도 합니다.

전시는 높이 7미터의 천정, 흰색 에폭시 바닥, 사방이 유리로 구성된 유리상자 공간 안에 현재를 상징하는 '소리탑'으로 제시됩니다. 3.5미터 높이 소리탑의 상부에는 10분을 주기로 소리의 진동에 맞춰 안개가 분출합니다. 바닥에 놓인 6개의 물통에서 공급되는 물은 가습기를 통해 기화되어 안개가 되고 이 안개는 다양한 소리에 반응하여 소리를 시각화하는 매체로 역할을 합니다. 진폭이 큰 저주파 대역의 전자리듬, 녹음된 소리, 드론(Drone), 삐에조(piezo 평면 부착형 마이크)를 통한 관람객의 소리 등이 소리탑 기둥 위의 대형스피커에서 떨림으로 변환되면서 주술적이고 신비한 분위기의 안개 조형을 생성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 안개의 움직임은 소리의 진동과 일체되어 소리 자체로 보이게 됩니다.
소리탑 유리상자는 작가가 세계 구성의 본질을 탐구하며 발견한 매력적인 4개 요소들로 설계되었습니다. 절제된 소통이라는 한계를 가진 투명성의 '유리', 생명의 원천이며 유동적 세계 흐름의 상징으로서 '물', 덧없고 잡을 수 없이 흩어지는 물의 기체 상태인 '안개', 태초의 말씀이며 진동이고 현재의 시간성으로 상징되는 '소리' 등 이들 4대 재료로 구성된 유리상자는 소리의 진동과 물의 습도를 가두어 보관하려는 거대한 실험 장치처럼 보이기도하고, '심장박동' 또는 '숨', '호흡' 같은 생명의 증거들을 다양한 감각기로 담아내는 용기처럼도 보입니다.

작가는 안개의 움직임을 통하여 소리를 시각화하고 시간성을 지닌 소리의 본질에 다가가고자 합니다. 또한 소리와 물이 잠재된 안개를 우리의 현재에 머물게 하려고 합니다. 그 이면에는 잡을 수 없는 것을 욕망하는 안타까움의 정서를 숨기고 있으며, 소리를 머금고 있는 침묵에 대한 작가의 상찬이 있기도 합니다. 한편, 세계와 생명의 근원에 대한 직접적이고 공감각적인 접근 즉 소통의 희망이기도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유리상자에 담긴 이미지는 세계를 관조하고 진정 교감하려는 예술의 은유적 힘을 다시 상상하게 합니다.

-정종구-

soritap 물, 가습기, 스피커, pvc, 형광등, 높이 약 3.5m 가변 크기, 2012

이것이 현대예술이다-예술과 시민의 만남

전시공모 선정작가展 2012 GLASS BOX ARTSTAR Ver.2

Choi, Sunam

허물을 벗다 – 벽을 넘어 확장된 자유(自由)로

봄기운에 실바람이 일던 날, 최수남 작가의 집 마당으로 들어섰다. 마른 풀꽃 사이로 길고양이 두 마리가 보인다. 먹이를 먹고 있는 한 마리와 그를 바라보는 다른 한 마리. 그들 사이엔 경계의 기류가 흐른다. 작가는 먹이를 먹지 못한 채 웅크리고 앉은 한 마리 앞에 사료를 놓아 준다. 그리고 보자기 몇 묶음을 내어왔다.

보물처럼 꼭꼭 싸둔 분홍색 보자기 안에서 크고 작은 습작들이 쏟아졌다. 정크아트(Junk Art)라고도 할 수 있는 골판지 회화들이다. 단순화된 화면에 〈가족〉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응집된 의식〉 〈흐르는 물의 시간〉 〈긴장과 이완〉등의 제목이 붙여진다. 뜯고 새긴 형상들은 마치 수도승의 모습 같다. 더러는 껍질 속에 웅크린 애벌레 같기도 하다. 모두 무채색이다. 잠재된 동력이 되살아 난 듯, 작품들을 펼치던 그의 입가에 수줍은 미소가 번진다. 지천명을 훌쩍 넘긴 나이답지 않게 상기되었다. 작품 앞에서 아이와 같이 상기되던 그에게 무엇이 그토록 무거운 무채색과 웅크림을 도출하게 하였을까. 작가의 내면에 구조화된 의식이 궁금하다.

최수남 작가는 몇 년 전부터 골판지를 캔버스화 해왔다. 골판지는 종이라는 재료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재활용되어 환경정화에 경제적이기까지 하다. 짧지 않은 세월의 지난했던 삶의 과정들을 토로할 수 있는 무대가 되어주니 일석이조다. 지속적인 작업은 드로잉과 판화, 파라핀조각으로 이어진다. 이런 작업이 그에게는 작업이라기보다 유희에 가깝다. 중요한 것은 창작적 시각이다. 아마도 그의 창작의 원천은 삶에 대한 열정과 지구력이 아닐까 한다. 삶의 과정들을 긍정적으로 풀어왔던 그는 삶을 희망으로 보고 그 중요성을 작업으로 끌어낸다. 무엇보다 자신의 존재 가치와 실존적 의미를 되묻는데 게으르지 않다. 가끔은 빈곤한 영혼들을 끌어안고 하찮게 여김 받던 존재들의 아픈 상처와 일체화 된다. 거기에서 찾게 된 세계와 자신과의 관계, 공존의 의미를 작업으로 승화시킨다. 소외된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내어주고 버려진 종이박스를 작품으로 변화시키듯, 그의 성정이 묻어나는 작업이 그에게는 필연이라고 한다. 고정관념으로는 놓치고 갈 본질에 대한 물음으로 안내하는 통로이기도 하다. 본질을 꿰뚫게 하는 순수는 터부시 되던 삶의 단상들을 되 내어 걸러 준다. 그리고 내 ? 외적으로 움츠린 자아(또는 인간)를 투영하고 다양한 사연으로 복잡해진 내면을 환기시킨다. 고양이들 간에 흐르던 알 수 없는 경계의 벽과 같은 인간 사이의 벽을 허물고 인타라망(因陀羅網)을 형성한다.

사르트르(1905~1980)에 따르면 "이미지는 의식의 내용을 구축한 것"이라고 한다. 그녀의 작업노트엔 상처받은 자의식, 심리적 위축, 척박해진 현실, 부딪히는 상실감, 갈망하는 심리적 공간 등이 메모되어 있다. 이것은 인류의 보편적 정신세계와도 연관된다. 아마도 그가 유리상자를 통해 표출하고자한 것은 내(內)의식이었던 '통제된 자유'가 '자발적 통제'로 변하는 과정의 시각화가 아닐까한다. 검은 바닥에 놓인 가부좌를 튼 인체는 자아를 비롯한 움츠린 존재에 대한 투시이다. 공중에서 부유하는 허물은 은폐된 기억을 들추어낸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카테고리 안에 들어선 표면화된 내적상태와 트라우마가 조형적으로 형상화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곧 '허물벗기'는 자타(自他)의 상처와 통제로부터의 벗어남과 무관하지 않다. 허물을 벗음으로 자유를 획득하고 그 자유는 더 넓은 사유(思惟)로 확장된다. 이때 유리상자는 고백의 장소가 된다. 그리고 치유의 장소이기도 하다. 나아가 희노애락으로 점철된 인간의 세계를 영안과 피안으로 안내하고 그것을 새로운 삶으로 승화시키는 곳, 모든 존재들에 대한 긍정과 배려를 채울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난다. 사전에 그는 사면이 투명한 유리상자에서 나르시시즘(Narcissism 自己愛)적 자문과 인류애를 포착했던 것 같다. 그렇다고 볼 때 유리상자는 그에게 예술과 삶의 상호관계를 이어주는 중개지나 다름없다. 비가시적인 것의 의미가 시각적인 형상에 의해 공통문제로 확장될 때 작가가 해석한 유리상자는 새로운 의미를 획득할 것이다.

작업은 작가를 떠난 그 무엇이 될 수 없다. 그리고 관객을 요청한 작품은 혼자만의 유희에 그치기를 거부한다. 그래서 작가는 상대하고 있는 세상에 대한 인식과 깊이를 탐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작품이 사회 속에서 의미 있는 존재로서의 생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작가의 실존적인 노력과 내적 감정에 대한 깊이 있는 모색이 요구되는 이유다. 예술적 판단은 절대적이며 상대적이고 관객은 작품의 의미를 나름대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판단의 규준은 진실과 거짓 또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의 개념과는 거리가 있다. 거기에는 조형적인 결합과 조화는 물론, 내용과 시각적인 연출도 중요하다. 그래서 예술의 성장 과정은 지루하고 더디다. 과정의 지속인 이러한 예술이 작가에게는 꿈이자 이상이고 현실이다. 때문에 여타의 인간 활동과는 다른 예술의 성격을 숙고해 봄은 중요하다.

우리의 기성사고는 가끔 아는 것 때문에 상상력에 제약을 받는다. 그래서 지식과 탐욕을 걷어낸 사고는 자유롭고 편하다. 거기에는 개념과 논리를 앞세우기 전에 감성과 직관으로 알아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솔직한 표현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순(耳順)을 앞둔 최수남 작가에게서 이런 느낌을 받았다면 무리일까. 다양한 조형요소를 동원하여 삶의 의미를 모색한 최수남의 유리상자에서 관자들의 트라우마도 한 겹 한 겹 벗겨져 나기길. 마음의 망막을 덮고 있던 아프고 탁한 껍질들이 활짝 걷히길. 작업에의 갈증과 절절함이 묻어나는 최수남 작가의 비워냄으로 채워가는 작가적 행로에 작은 기대를 보내며.

–미술학박사 / 서영옥–

2012.**4.13**Fri ~ **5.20**Sun 아트스페이스 (2F)

허물을 벗다

코디네이터 박철호
비평가 서영옥

전시소개

2012년 전시공모 선정작 중, 두 번째 전시인 「2012 유리상자-아트스타」Ver.2展은 한국화를 전공한 최수남(1957년生) 작가의 설치작품 "허물을 벗다"입니다. 이 전시는 자신의 트라우마를 노출시키며 치유하는 카타르시스적 사건에 주목합니다. 이는 작가가 살아오면서 탐구한 자기 내면의 안타까움에 관한 일기, 수다, 고백 형식의 서술이자, 성찰과 수련을 객체화하여 세계와 소통하려는 과정이기도합니다.

전시 설계는 7미터 높이의 천정, 검은색 천이 싸인 바닥, 사방이 유리로 구성된 유리상자 공간 안에 카타르시스catharsis를 상징하는 '인물좌상'의 제시로 시작됩니다. 무릎을 꿇고 수련하는 자세의 회색 인물좌상은 사람의 윤곽만 갖춘 단순한 형상이며, 가슴 중앙에 머리 크기의 구멍이 뚫려있고, 투명아크릴 박스 기단 위에 놓여있으며 높이가 2m정도 입니다. 투명한 기단 아래쪽에는 흙과 자연석을 제시하여 인간 생명의 뿌리와 근원, 환원과 자연치유에 대한 기억을 상기시킵니다. 어둠이 짙어지면 조명을 받은 유리상자 안에는 현실과는 다른 주술적인 풍경이 펼쳐집니다. 중앙에 위치한 회색 인물좌상의 상부부터 천정까지 세로로 전개해놓은 5m 높이의 연한 색기둥은 '환희'와 '정화'의 감성을 자극합니다. 갈색을 위로하고 아래쪽을 흰색으로 15개의 단층이 이어진 얇은 천 구조는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성장과정에서 비롯된 허물들을 상징합니다. 현실과 꿈의 여정, 상처와 치유의 흔적, 삶의 과정들이 겹겹이 새겨져있는 인간 생의 스펙트럼입니다. 또한 그 모습은 내면의 자아를 성찰하고 '비워내기'를 수련하며 안정되어가는 작가 자신의 거울입니다.
가운데 인물좌상의 주위 바닥에 놓인 9개의 덩어리는 인간을 둘러싼 세계의 모습이자, 타자로 대상화된 또 다른 인간 자신으로 읽혀집니다. 자괴감, 실패, 자유의 갈망, 꿈의 상실, 구속, 욕망, 게으름, 자존의 갈등, 현실로부터 탈출 등 갖가지 안타까움과 감성의 은유를 인간의 웅크린 모습으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정들은 다른 어떤 기대이기보다 작가의 '표현'과 '치유' 이유가 우선일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와 실존적 의미를 묻는 '나는 누구인가?'와 관련된 스스로의 수련과 자기 암시, 그 과정의 서술과 연출은 주술적이고 신비한 분위기의 조형으로 조성되고 그 진동의 에너지로 마음의 정화, 즉 카타르시스에 이르게 됩니다.
우주 전체와 연결된 생명이며 유동적 세계 흐름의 주체로서 '나'에 관한 질문이기도한 이번 유리상자는 간절한 마음과 행위의 진동 에너지를 증거하는 상찬의 장치이며, 자신과 세계를 관조하고 진정 공감하려는 예술의 면모를 상상하게 합니다.

-정종구-

허물을 벗다 mixed media. 높이 약6m 가변크기. 2012

이것이 현대예술이다-예술과 시민의 만남

전시공모 선정작가展 2012 GLASS BOX ARTSTAR Ver.3

Park, Junghyun

aA : from art to Architecture

박정현의 이번 유리 상자 설치는 유학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던 질문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 질문의 핵심은 예술과 디자인이 갖는 속성과 범위에서 발생하는 특성에 관한 것이다. 유리 상자는 장소 특정성(site-specificity)에 대한 박정현의 고민이 실현될 만한 장소로 예술-디자인-건축의 연관성에 대한 그 자신의 해법을 제시하기에 매우 적절한 공간이다. 그것은 예술과 디자인의 속성이 가진 차이와 그것이 놓인 장소를 하나의 건축공간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술과 디자인은 서로 상반된 곳을 향하고 있지만, 상호 의존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예술이 개성이 강한 주관성을 띠는 반면에 디자인은 대중적인 기호가 반영된 객관적인 요소가 보다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러나 대중과의 소통을 위해서는 예술가는 디자인의 객관적인 요소를 디자이너는 예술가의 주관적인 개성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예술과 디자인은 상호 배타적이지만 의존적인 부분이 미와 기능이라는 필요조건 속에 녹아있다.

서구의 모더니즘미술이 특정한 장소와 공간적 한정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미술은 작가의 아이디어가 그 자체로서 의미를 부여받게 되었다. 물론 그 어떤 창의적인 미술도 물리적인 매개 공간을 통해 소통될 수밖에 없지만, 미술이 그 자체로 자율성을 가진 것으로 이해되기 시작한 20세기는 일상과 미술에 대한 문제의식을 증폭시키는 이유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질문은 예술가의 환상(fantasy)과 디자이너의 기능(function)에 대한 관계를 고민하는 실마리를 제공했다.
이 관계에 대한 고민을 박정현은 '불편한' 디자인과 '기능적' 예술이라는 역설을 통해 일상과 미에 대한 경계의 지점을 탐색한다. 그리고 기능적 예술과 불편한 다자인이 갖는 구체적인 방식을 2008년에 〈Not Art or Design BUT〉으로 보여 주었다. 이 시도에서 작가의 작업적 공식이기도 했던 Uncomfortable Design/ Functional Art, Appreciate Design/Use Art, Art-Art=Design/ Design-Design= Art, Priceless Design/ Expensive Art, Incomprehensible Design/ Logical Art는 삶과 예술의 경계에서 발생하는 차이에 대한 역설이다. 이러한 역설의 관계를 이번 설치의 표제인 〈aA / from art to Architecture〉에서도 보여 지듯이 디자인/예술/건축적인 공간으로 통합을 시도한다.
이렇듯 박정현이 시도하는 디자인과 아트의 관계는 '불편한 디자인', '기능적 예술'이라는 모순 속에서 창의적 요소를 찾고자 하는 것에 있다. 이 같은 작가의 시도는 창작에 대한 감상의 노력을 끌어들이는 방법인 동시에 지나친 친절과 편안함이 주는 진부한 예술을 경계하는 예술적 태도일 것이다. "지나친 편안함이 긴장감을 뺏어감으로써 새로움에 대한 시각 역시 앗아갈 수 있다"는 작가의 시각은 확실히 소외를 인식하는 지점에서 통합이 가능해 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글라스 박스 프로젝트'에서 보여주는 박정현의 작업은 그 자신의 말처럼, "정체성의 상실을 통해 진정한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역설"이 담겨있다. 그 역설, '아트에서 아트를 빼고, 디자인에서 디자인을 빼고, 건축에서 건축을 뺀' 부족함과 불편함 앞에서 부족하거나 불편한 것을 보면서 동시에 그 불편함과 부족함이 무엇이고 어디서 오는지에 대한 물음에 스스로 답을 찾아보는 것이다.

예술과 디자인 그리고 건축 빼기에 감상 더하기가 이번 박정현의 설치 〈aA / from art to Architecture〉이 완성되는 것이리라. 그것은 예술과 디자인, 창작과 감상이 서로의 빈 공간을 채워 하나가 되는 장소, 같지만 다른, 다르지만 같은 예술-디자인-건축이다.

-현대미술연구소&아트스페이스펄 대표 / 김옥렬-

This glass box project carried out by Park, Jung-Hyun is an extension of the question which she continuously raises after her studying in abroad. The key point of this question is in regard to the characteristics created within the attributes and range of arts and design. The glass box is a space where her concern regarding the site-specificity can be realized, and this space is very suitable for her to presents her own solution regarding the correlation between arts, design and architecture. Because, the difference between properties of arts and design and the sites where arts and design are placed could be interpreted as an architectural space. Arts and design are contrary to each other but also interdependent to each other. Arts focuses on subjectivity with a strong character but design emphasizes objectivity reflecting popular preferences. However, in order to communicate with the general public, artists tend to rely on objectivity, while designers tend to rely on subjectivity. Therefore, arts and design are mutually exclusive to each other but they are also dependent to each other under the conditions such as arts and function.

Since western modernism were free from locational and spatial limitation, arts were given its own significance as artists' ideas. Of course, any creative arts should be communicated through a physical medium space, but arts had caused a critical mind regarding daily lives and arts in the 20th century when arts were comprehended as the subject with autonomy. This question provided a clue for the concern regarding the relations between artists' fantasy and designers' function. For her concern regarding this relations, she search for a point of boundary between daily lives and beauty through the paradox called the 'Uncomfortable Design' and 'Functional Art'. She showed the specific methods for the 'Uncomfortable Design' and 'Functional Art' through an exhibition titled <Not Art or Design BUT> in 2008. In this her attempt, 「Uncomfortable Design/ Functional Art, Appreciate Design/Use Art, Art-Art=Design/ Design-Design= Art, Priceless Design/ Expensive Art, Incomprehensible Design/ Logical Art」 which was also her artwork formula is the paradox regarding the difference created from the boundary between lives and arts. As this paradox shown in <aA / from art to Architecture> which is the title of this installation arts. she attempts to integrate design, arts and architecture into one space. In this way, the relationship between design and arts is attempted by Park, Jung-Hyun to find creative elements among the contradictions in "Uncomfortable Design" and "Functional Art". This attempt must be her method to efforts to appreciate creativity as well as her artistic attitude to prevent outdated arts which provide excessive kindness and comfort. Her viewpoint that "excessive comfort eliminates tension as well as the viewpoint for newness" makes the integration possible through the alienation. The arts works of Park, Jung-Hyun presented in this "Glass Box Project" is to find true identity through the loss of identity". Though this installation arts, she searches for answers to what the insufficiency and uncomfortableness created by 'removing arts from arts, design from design, and architecture from architecture" are and where they are from. Indeed, [subtracting arts, design and architecture, and adding appreciation] will be completed in her <aA / from art to Architecture>.

-Okreal Kim/ Director of Contemporary Art Institute & Artspace Purl-

2012.**6.1**Fri ~ **7.8**Sun 아트스페이스 (2F)

aA : from art to Architecture

코디네이터 노경환, 유창재
비평가 김옥렬

전시소개

2012년 전시공모 선정작 중, 세 번째 전시인 「2012유리상자-아트스타」Ver.3展은 한국화와 공간디자인을 전공한 박정현(1977년生) 작가의 설치작품 "*aA : from art to Architecture*"입니다. 이 전시는 정체성과 관련하여 고정관념을 깨는 새로움의 불편함을 주목합니다. 또 'Fine art' 와 'Design', 'Architecture'의 형식을 빌려, 현대인이 찾고 있는 '정체성'을 오히려 '정체성'의 상실에서 획득될 수도 있다는 작가의 통찰이 제시되고, 이 생각에 대한 관객의 공감을 제안합니다.

작가의 전시 설계는 한 건물의 서로 다른 3개 공간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예정되었습니다. 7미터 높이의 천정, 흰색 바닥, 사방이 유리로 구성된 전시 공간 '유리상자'와 그 측면공간이면서 관객의 출입 통로이기도한 건물의 '실내 공간' 그리고 유리상자가 있는 건물의 '외부 공간'이라는 3가지 공간의 환경조건을 수용하고 이들 사이의 관계 맺기를 중심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작가가 던지듯이 제시하는 8미터 길이의 거대한 레몬옐로우 덩어리는 유리상자 공간에 담기에는 너무 큰 크기지만 건물과 어울릴 수 있도록 아름답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큰 덩어리는 관객과 만나기 쉬운 '실내 공간'에 설치한 기울어진 테이블(불편한 기능을 가진 디자인)에서 시작되어 유리상자 공간을 통과한(관객을 어리둥절하게 하는 순수예술) 후, 4미터 높이의 바깥쪽 유리를 뚫고 건물 외부에 삐죽이 몸체(예상되는 것을 짓지 않는 건축)를 내밀고 있습니다.
마치 수면을 뚫고 바다를 차오르는 한 마리의 노란색 고래를 상상하게 하는 이 조형물은 시각적으로 하나의 덩어리로 보이지만 서로 다름의 경계를 짓는 '세가지 정체성-디자인, 순수예술, 건축'을 상징합니다. 몸체가 되는 유리상자 공간의 'Fine art'와 꼬리에 해당하는 실내 공간의 'Design', 머리에 해당하는 외부 공간의 'Architecture'는 작가가 생각하는 세가지 정체성의 근원과 관점에 따른 다른 관계 맺기를 설명하고, 또 세가지의 통합 지향에 관여합니다.

이러한 설정은 다름 아닌 현대성의 표출입니다. 현대인의 정체성과 실존적 의미를 묻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변일지도 모르는 이 설정은 정체성 혹은 고유성을 제거한 애매모호한 태도로서의 '현재' 상태를 단순하면서도 명쾌하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작가는 everything일수도 있고 nothing일수도 있는 이 애매한 상태가 우리 현대미술 혹은 현대인의 모습일 것으로 주장합니다. 좀더 나은 생존의 의미로서 정체성을 묻는 이번 유리상자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관점에서 공감하고 소통하려는 예술의 선지적 면모와 제도 이전의 인간적 면모를 함께 상상하게 합니다.

-정종구-

aA : from art to Architecture 혼합재료, 길이 약8m 가변크기, 2012

이것이 현대예술이다-예술과 시민의 만남

전시공모 선정작가展 2012 GLASS BOX ARTSTAR Ver.4

Kwon, Jaehyun

권재현의 '낯선 소 the unfamiliar cow'

권재현은 갤러리에 소를 매달았다. 도살장에서 도살되어 냉동 창고에 걸려있는 거대한 소를 매달았다. 그런데 이 베니어합판 조각으로 만든 소는 비극적이지도 유머러스하지도 않다. 그렇다고 예쁘지도 않고 현실의 소 같지도 않다. 왠지 기괴하고 '낯설게' 느껴진다. 왜 그럴까?

그가 작업을 하기 전 참조했다는 〈일용할 양식 Our Daily Bread〉 다큐멘터리를 봤다. 내용은 '불편한 진실'류의 다큐다. 그의 작가노트에서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잔인하게 나타나는지 볼 수 있었다. 특히 가축들이 공중에 주렁주렁 매달려서 도륙되어 고기 덩어리로 변해가는 모습은 역겨울 정도로 충격적이었다." 이런 태도는 리얼리즘작가들의 현실고발적인 태도다. 하지만 제작된 조각 작업에서는 리얼리즘보다는 형식주의적인 태도가 읽혀진다. 살아있는 생명체를 물질처럼 무미건조하고 취급되는 것에 분노하고 불편해서 형태를 빌려 온 것은 도구주의미술(미술을 사회 · 정치적도구로 사용하는 태도)의 태도지만, 완성된 작품에서는 표현형식의 새로운 시도 같은 형식주의적 태도가 보인다. 그래서 낯설다.

낯설게 느낀 다른 이유도 있다. 미디어를 텍스트로 작업해서 그렇다. 현대작가들은 신문 · 잡지 또는 영화에 나오는 이미지나 영상을 차용해서 작업을 하는데 이를 미술에서는 '2차이미지' 라고 한다. 멀리는 앤디워홀(Andy Warhol1928~1987)이 그랬고, 최근에는 독일작가 게르하르트 리히터(Gerhard Richter 1932~), 중국작가 왕두(王度1956~)도 이런 2차이미지를 사용했다.
2차이미지를 '가공된 현실'이라 정의한다. 미학적으로는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의 '시뮬라크르Simulacra'라고 하고 미디어이론에서는 '가상현실Cyber reality'이라 한다. 권재현의 작업텍스트가 '가공된 현실'의 문맥으로 읽혀진다면 그의 감성은 '가공된 감성'이다. 그것은 인간의 감정이 거세된 '드라이dry'하고 '쿨cool'한 메마른 감성이다. 이런 가공된 미디어감성이 이번 작업에서 처음 보인다. 무엇인가 새로운 영향과 변화가 있었던 것 같다.

최근 그의 작업은 중국작가 왕두에게서 영감을 받았다고 했다. 어떤 부분을 영감을 받았을까? '현실과의 대화'와 '복제현실의 재조립' 인 것 같다. 왕두는 "현대미술은 결국은 정치 · 사회 등 우리 현실과 직접적인 대화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가 현실로부터 도피를 꿈꿀 수는 없는 일입니다. 현실 도피는 옛날 산수화를 그리던 문인들의 일일 뿐입니다." 라고 했고 '복원'이라는 개념으로 "현실은 분리되고 단편화돼 있잖아요. 그걸 대중들에게 다시 종합적으로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복원입니다. 깨진 도자기 파편들을 모아 다시 도자기를 만들어 낸다고나 할까요." 라고 했다. 이런 왕두의 작업태도에 권재현의 작업을 대입해보면 상당부분 겹친다. 좋은 영향으로 보인다.

이런 영향과 변화가 이번 작품에서 처음 시도되었다. 이전의 작품에서는 유머와 현실풍자가 있었다면 이번작품에서는 그런 시각이 사라졌다. 현실을 '핫hot'하게 보는 것에서 '쿨cool'하게 바라보는 변화된 시각이 생겼다.
표현 또한 무겁고 단단한 형태에서 가볍고 연약한 것으로 변했다. 이전의 현실 속 무거운 리얼리티를 묘사하려는 시도에서 가벼운 일회성을 형태화하는 것으로 변했다. 얇은 베니어합판을 사용하여 조각조각 이어 붙여서 형태를 만들고 지지대 없이 베니어합판의 장력으로만 거대한 형태를 유지한다. 매우 부서지기 쉬운 일회용 종이컵 같은 구조다.

권재현의 이런 변화들과 새로운 시도들이 '낯선 소'를 만들었다 생각한다. 그가 만들어낸 이 '낯설 음'이, 하이데거Martin Heidegger의 기존의 친숙하던 세계가 무너져 버린 그 '철저한 낯설 음'이 될지는 아직 속단할 수 없지만, 앞으로 그의 작업이 더욱 구체화될 때, 새로운 영역의 독창적인 세계가 열릴 것으로 확신한다. 계속해서 낯선 작품들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며 축하해주고 싶다. 새로운 '가능성의 문'이 열린 것에 대하여…

–독립큐레이터 / 최규–

2012.7.20Fri ~ 9.2Sun 아트스페이스 (2F)

매달린 '소'

코디네이터 권문순
비평가 최 규

전시소개

2012년 전시공모 선정작 중, 네 번째 전시인 「2012 유리상자-아트스타」Ver.4展은 조각을 전공한 권재현(1979년生) 작가의 설치작품 "매달린 '소'"입니다. 이 전시는 미디어로 유포된 사건의 기억과 그 기억을 재구성하여 조형적으로 시각화하는 작가의 태도에 주목합니다. 그는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파편적 가상현실과는 구별되는 하나의 결집 덩어리로서의 새로운 현실인 조각 작품을 제시하고, 세계의 다양한 차원과 새로운 인식의 가능성을 질문합니다.

작가가 제시하는 전시 설계는 소를 기계적으로 대량 도축하는 다큐멘터리 영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예정되었습니다. 7미터 높이의 천정, 흰색 바닥, 사방이 유리로 구성된 전시 공간과 그 천정에 거꾸로 매달린 나무덩어리 소가 주변의 조건에 맞게 조형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마치 도살장 창고에 매달려 권위와 공격성을 잃어가며 발버둥치는 황소를 순간적으로 본떠온 듯한 4미터 길이의 거대한 나무 조각물은 작가가 참조했다는 다큐멘터리 영상의 잔인하고 충격적인 사실성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작가의 '소'는 정서적 감정 변화 없이 무미건조해 보입니다. 율동감과 나무결의 자연미, 작은 조각을 연결하여 덩어리를 구성하는 구조적 형식미 등이 돋보이고, 얼핏 시각적인 무게감을 느끼게 하지만 얇은 베니어합판 조각을 연결하여 조립한 탓에 실제로는 가볍습니다. 게다가 하단의 앞발을 떼어내면서 소의 텅 빈 내부구조가 보여 더욱 가볍게 보이며, 어쩌면 일회성 임시 공작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과 노동력, 치밀한 디자인과 기술력을 동원하여 제작한 이것은 무엇을 말하려는 것일까?

"이것은 도축장의 소가 아니다"

작가의 '매달린 소'는 무엇의 재현이기보다 기억을 재구성하는 '사건'이며, 또 하나의 현실입니다. 실재 도축장에 매달려 있던 소의 사건을 '현실' 차원이라 하고, 미디어의 다큐멘터리로 복제되어 방영된 소의 사건을 '가상현실' 차원이라 한다면, '재구성된 현실' 차원으로 일컬을 수 있는 작가의 사건은 기억의 파편과 사고의 종합에 의한 새로운 현실 창조입니다. 이것은 다산과 성장, 신성, 희생, 농경과 힘, 젖, 생명, 그리고 대량 식육소비, 부가가치 생산 등 '소'에 관한 인류 역사의 파편적 기억을 재조합하여 문명과 그 허구성을 돌이켜보고, 부서지기 쉬운 가벼운 덩어리 형태로, 또한 매다는 형식을 취하면서 참조된 현실과는 다른 사건으로서 현실을 제시합니다. 작가는 자신이 경험하고 인지하는 세 가지 차원의 세계, 그리고 차원에 따른 사실과 다른 새로운 관계 맺기의 가능성을 이해하고, 이들의 통합적 사고를 제안합니다.

동시대성의 가치와 의미를 상정하는 이 설정은 현대미술 또는 우리 자신의 태도에 대한 질문일 것입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현실 가치를 묻는 이번 유리상자는 세계의 미래와 소통하려는 예술의 예지력을 느끼게 합니다.

-정종구-

매달린 '소' 합판, 길이 약 5m 가변크기, 2012

이것이 현대예술이다-예술과 시민의 만남

전시공모 선정작가展 2012 GLASS BOX ARTSTAR Ver.5

Rhee, Jiyoung

타자, 그 일어남의 자리

사진기의 기원이 되는 옵스큐라는 작은 구멍이나 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에서 바깥 세계의 이미지를 얻는다. 현실을 재현하려는 노력으로 탐구된 옵스큐라의 원리는 사진 언어를 이해하는 출발이다. 그리고 그것은 실재와 이미지의 관계 쌍을 이룬다. 실재를 담는 사진의 세계는 닮음의 형식 속에서 끊임없이 미끄러진다. 대상을 인식의 테두리 속에 가두려는 주체의 시선이 강할수록 실재와 허상 사이의 미끄러짐은 확연해지고 작가 자신은 그 미끄러짐 가운데 자리하려 한다. 그리고 감상자는 기계장치가 부여하는 객관성으로 이미지를 실재의 세계로 고정시켜 인식하려 한다.

이지영의 설치는 옵스큐라의 원리를 반영으로 요약하여 제시된다. 반영은 실재와 허상을 상정한다. 사진이 실제의 세계를 포착하여 셔터를 누르는 순간을 고정된 이미지로 담아낸다면 유리 상자에 설치된 검은 거울은 사진으로 고정되기 전의 세계를 담는 반영의 장치로 열려 있다. 그리고 유리 상자는 완성된 작품을 전시하고 감상하는 공간이 아니라 바깥세계를 담아내는 공간으로 전치된다.

반영

이지영은 유리 상자 안에 반영의 장치를 마련한다. 그리고 외부의 실재를 이미지로 전환시키는 장치인 옵스큐라를 유리상자로 대치한다. 옵스큐라의 검은 방을 유리상자의 투명한 공간으로 역전시킴으로써 유리 상자는 이미지를 고정시켜 인화하는 작업 이전의 상태를 보여주게 된다. 유리 상자 안에 설치된 검은 거울은 투명한 유리의 경계를 넘어 밀려오는 세계를 시시각각 담아낸다. 검은 거울에 반영되는 세계는 유리 상자를 둘러싼 현장의 모습이다. 피사체를 찍는 행위에는 작가의 내적 세계가 투영되지만 옵스큐라는 사물을 반영할 뿐 그 자체는 비어있다. 세계를 포착하려는 작가의 시선이 설치의 구조물로 고정됨으로써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의 섬세한 얽힘과 부딪침만이 남게 된다. 따라서 설치는 사진 이미지로 고정되기 전의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목격하는 공간으로 제시된다.

이지영은 사진 작업을 한다. 그러나 유리상자의 설치는 주어진 세계를 자신의 프레임으로 채집함으로써 작가의 심미적 감수성을 전달하려던 기존의 작업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 있다. 사진 이미지가 시간과 공간을 영속화시키고 고정시키는 것이라면 유리 상자는 세계를 탐색하는 과정을 담는다. 이 과정에서 관객에게 포착되는 이미지는 변화하고 중첩되는 현시점의 세계이다. 열린 시공과 함께 투영되는 관객은 스스로 작품을 결정하는 자리에 서고 유리 상자는 오늘의 내가 서 있는 세계를 반영한다.

타자의 자리

사진은 작가의 시선을 전제한다. 하지만 유리 상자 안에 설치된 검은 거울은 옵스큐라의 작동원리로서의 반영 형식만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형식에 참여하는 관객은 수동적인 타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자리를 탐색하고 새롭게 위치시킴으로써 능동적인 자리에 서게 된다. 관객은 자신을 둘러싼 배경, 즉 자신을 둘러싼 세계 속에서 새롭게 규정되는 자신을 마주한다. 검은 거울과 빈 유리 공간이 서로 끊임없이 간섭하는 지금, 여기에서 고정된 것은 어디에도 없다. 현재라는 시간은 끊임없이 미끄러져 나간다. 그리고 그 시공간을 밀고 들어오는 관객에 의해 다시 미끄러진다. 유리 상자와 설치물에 이미지로 맺히는 것은 관계들 속에서 명멸하는 오늘이다. 검은 거울에 맺히는 상은 유리 상자에 의해 투명하게 열려 있지만 갇힌 세계 속에 존재하는 허상이다. 고정된 실재를 찾는 관객이 그 이미지를 변화시키는 주체로서 다시 한 번 그 허상을 흔든다. 세계를 고정하고 영속화시키려는 옵스큐라의 작동 원리를 이용해 흔들림으로 존재하는 것들을 역설적으로 담아낸다.

사진은 현실의 어떠한 번역도 허락하지 않는 절대 닮음의 세계로 인식된다. 그러나 거기에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촬영자의 의식이 작용한다. 투명한 유리상자로 역전시킨 옵스큐라의 공간은 작가에게 내재하는 의식 충동이 아니라 현장에 자리하는 자에 의해 포착되는 공간이다. 관객은 피사체로서의 역할이나 작가가 제공하는 절대 세계를 수용하는 대상이 아닌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주체의 자리에 서게 되고 작가는 그런 인식의 공간을 마련하고 물러나 있다. 기계 장치를 통해 내밀한 자신의 세계를 담아내던 이지영에게 있어서 유리 상자는 내맡김의 공간이다. 작가에게 있어서 유리 상자는 새로운 소통 방식에 대한 실험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은유적인 공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오늘을 마주하는 공간이 준비되기를 기대한다.

-미학, 미술평론 / 배태주-

2012.**9.14**Fri ~ **10.21**Sun 아트스페이스 (2F)　　**Framing-Reflected Reality**

코디네이터 정지연
비평가 배태주

전시소개

2012년 전시공모 선정작 중, 다섯 번째 전시인「2012유리상자-아트스타」Ver.5展은 미디어아트를 전공한 이지영(1968년生) 작가의 설치작품"Framing-Reflected Reality"입니다. 이 전시는 거울을 매체로 세상을 펼쳐 비추는 상태, 그 기억을 재구성하여 관객이 능동적으로 시각 조형을 만들어가는 태도에 주목합니다. 그는 거울에 반사되는 현실의 일부와 레이어처럼 복층으로 반사되어 덧씌워지는 가상 현실감이 통합되고 갖가지 기억과 감성이 하나의 새로운 현실 덩어리로서 작동하는 사건을 제시하고, 세계의 일상이 다양한 차원으로 새롭게 인식되는 가능성을 질문합니다.

작가가 제시하는 전시 설계는 거울의 반사율과 시선을 제한하는 프레임에 의한 반사, 다중 반사에 의한 변화 등, 반사의 매력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시도됩니다. 그리고 7미터 높이의 천정, 흰색 바닥, 사방이 유리로 구성된 전시 공간과 그 천정에 매달린 2개의 커다란 반사체 덩어리가 주변의 환경을 담아내면서 특별한 조형성을 획득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마치 대형 모니터에서 내보내는 다큐멘터리 영상 혹은 인물과 건물, 나무와 자연의 이미지가 영상으로 재생되는 듯한 착각을 일으킵니다. 세로3m×가로1.5m×두께8cm 크기의 거대한 흑경(black mirror)은 주변 빛의 밝기를 감소시켜 독특한 단색조 풍경을 담아내는 반사형식으로 보여주고, 그 옆에 매달린 세로1.8m×가로1.8m×두께8cm의 브론즈경(bronze mirror)은 빛이 가득하게 쌓이는 바깥의 풍경을 사실적으로 담아냅니다. 만일 우리가 온몸의 감각을 편히 가지고 숨죽이며 브론즈 거울이 설치된 유리상자 앞을 지나면 당황스러울 정도의 사실적인 세계를 접하게 됩니다. 그 거울은 나뭇가지의 세심한 흔들림과 바람의 미묘한 율동, 흰 구름의 느린 동선을 담은 푸른하늘의 청량함, 햇살이 가득내리는 주변 건물의 멋스러움을 기억하고 재생합니다. 가끔씩 등장하는 관람 인물의 작은 몸짓과 표정도 놓치지 않고 보여주는 이 거울은 다중 반사로 얼핏 시각적인 혼란을 느끼게도 하지만 분명 독특한 풍경을 기록하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작가의 '거울'은 무엇의 재현이기보다 참조된 현실의 단편적 기억을 반사하고 인간 심리적 반영의 기억을 재구성하는 '사건'이며, 또 하나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현실의 자연 생명 그대로를 다양한 시각에서 담아보려는 작가의 의지입니다. 그가 다루려는 것은 주목받지 못하고 사라지거나 지나쳐가는 일상의 자연스러움이며 그 속에서 느껴지는 존재의 의연한 생명력입니다. 그 자연 생명의 힘을 상상하고 무엇인가를 느끼는 것은 관람객의 몫입니다. 작가는 자신이 경험하고 인지하는 다양한 차원에 따른 다른 새로운 관계 맺기의 가능성을 이해하고, 이들의 통합을 제안합니다.

지금의 일상이 지니는 가치와 의미를 상정하는 이 설정은 현대미술 또는 우리 자신의 태도에 대한 질문이기도합니다. 과거와는 다른 현재 차원의 현실 가치를 묻는 이번 유리상자는 세계의 미래와 소통하려는 예술의 현재를 생각하게 합니다.

-정종구-

Framing-Reflected Reality black and bronze mirror, 300x150x8cm, 180x180x8cm, 2012

이것이 현대예술이다-예술과 시민의 만남

전시공모 선정작가展 2012 GLASS BOX ARTSTAR Ver.6

Anna Kim

우주를 비추는 신성한 빛의 풍경, 혹은 거울들

적어도 지금 이 글을 쓰는 내게 작가 김안나의 유리상자 작품은 중세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로버트 그로스테스트 Robert Grosseteste(1175~1253)가 주장한 바 있는 빛의 형이상학(De Luce)을 연상시킨다. 플로티노스 Plotinos의 신플라톤주의적 유출 emanation 이론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관을 접목시킨 그의 형이상학에서 빛은 질료들 matter을 완성하고 완전하게 만드는 최초의 구체적 형식으로 언급된다. 즉 빛은 질료와 분리할 수 없는, 통합된 최초의 구체적 형식이며 질료들의 전개과정에 따라 그 시원부터 함께 한다. 그로스테스트가 영향받은 플로티노스의 유출 이론에 따르면 그 빛은 바로 신의 이미지인 초월적 일자(一者)이며 이는 현상 세계의 시원이자 존재 너머에 있는 근원적인 초존재이다. 그러한 충만한 일자로부터 여러 존재들이 유출되어 나옴으로써 현상 세계가 구성되고(존재론적 하강) 이러한 현상계의 모든 존재들은 테오리아(관조,Theoria)를 통해 자신들의 근원을 향해 올라감으로써(인식론적 상승) 세계를 구축한다. 플로티노스는 어떤 것을 본다는 것은 보이는 대상과 동일한 것이 인식 주체의 내부에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였고 그래서 일찍이 '보는 것은 보이는 대상을 창조하는 것과 같다' 고 언급한 바 있는데 이는 김안나의 유리상자 작품 속에 드러나는 거울 속 사물들에 대한 정확한 묘사일 수 있을 것이다.
마치 큰 세공 보석류처럼 보이는 그녀의 설치물들중 하단 부분에 설치된 부분들은 작품이 설치된 주변 공간들을 파편화시키고 해체하여 보여주며 구체 내부의 빛들을 은하수처럼 유리상자 공간 속에 흩뿌린다. 특히 공중에 매달린 구체 속의 빛들은 그녀가 설치한 투명한 거울의 편린들을 통해 환영적인 공간을 만들어내고 구체의 표면은 모호해지며 안과 밖의 경계들은 지워진다. 반복적인 거울 속의 이미지들은 상호 반사작용을 통해 실재보다 더 큰 깊이와 공간을 만들어내고 보는 이들로 하여금 몽환적인 우주와 세계의 감각적 내면을 꿈꾸도록 만드는 듯 보인다.

사실 작가 김안나의 작품들에서 신성한 빛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소재이다. 이전 작품들에서도 보여지듯 이른바 빛, 거울, 샘, 다양한 색채들로 가득찬 숲과 자연 등은 그녀에게 있어 세속적인 것과는 구분되고 성스러운 것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는 그 무언가이다. 그것은 일종의 신성화된 예술로서 일상적 상황과 구분되는 종류의 것으로 반복적이고 흔한 일상으로부터 일탈과 해방을 추구하고 보다 가치있고 의미충만한 것으로서의 예술작품을 의미한다. 사실 이러한 종교적 신성과 예술작품과의 동일시는 예술가들이 오래도록 추구해왔고 행해왔던 일종의 관습적 문법인데 이는 작가 자신의 개인적인 종교적 체험과 그리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카톨릭 성당 입구에 마련되어 있는 성수대를 연상시키는 그녀의 몇몇 작품들을 생각해본다면 이는 분명해보인다. 즉 그녀의 작품들은 보는 이들로 하금 스스로를 정화시키고 세속으로부터 성소 sacred place로의 진입을 준비케하는, 일종의 미적 태도를 야기시키는 장치들이다. 예술 작품을 통한 인간 영혼의 정화야말로 작품의 존재 의의를 완성시키는 최고의 가치가 아니겠는가. 이는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적 교화의 목적과도 일맥상통한다. 특히 우리와는 다른 문화권에서 성장하고 교육받았던 작가의 만만치않은 편력을 참작한다면 이러한 작품 속의 빛과 유리, 거울 같은 소재들이 종교적 신성함과 관계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작가에게 있어 이러한 신성한 빛들의 흔적은 빛에 의해서 완전히 존재하게 되고 충만해지는 자연의 모상들 Replica로도 이어진다. 중세 미학에서 빛의 중요함이 이후 자연스럽게 색채들에 대한 이론의 창안으로 이어졌듯 작가 김안나의 작품들에서 자연물의 색채들이 빛에 의해서 과장되거나 포화되어 있는 사례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녀는 이전의 전시회 작가노트에서 그 자체로 완전한 자연의 무한함을 감각에 의해 시적으로 직관하는 것이 자신의 주제라고 밝힌 바 있는데 그녀의 최근 영상 작업인 Moist Green(2012)에서 비디오 영상 속의 색채들은 충만한 빛에 의해서 비정상적일 정도로 과잉노출되어 드러난다. 빛을 받은 자연물들은 자신의 색채들을 보여준다기보다는 마치 향기를 뿜듯 발산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 개인전의 제목이 〈천상의 빛살 rays of heaven〉이었다는 점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카톨릭 성당이나 교회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연상시키는 그녀의 이번 작업에서 무형성을 가진 빛과 무한히 분산되는 색채들은 초월적 존재와 질서에 대한 강한 암시와 메타포로 역할하는 듯 보인다.

기존의 다른 미디어 설치작가들이 보여주었던 작업들과는 달리 작가 김안나의 경우 그녀는 자신의 예술에 대한 트랜스 내셔널한 감각과 이론적 신념들을 작품 속에 다소간 직설적 방식으로 적시하곤 하는데 이는 그만큼 그녀가 자신의 작업에 대한 분명한 인상과 직관을 정합적으로 사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작가 김안나가 보여주는 유기적인 총체로서의 세계와 자연에 대한 빛을 통한 관조는 사물들에 대한 우리의 감각들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고 예술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을 보다 넓게 확장시켜줄 것이라 여겨진다.

-미학 / 최창윤-

2012.11.2Fri ~ 12.9Sun 아트스페이스 (2F)

Out/In the Universe

코디네이터 강선구
비평가 최창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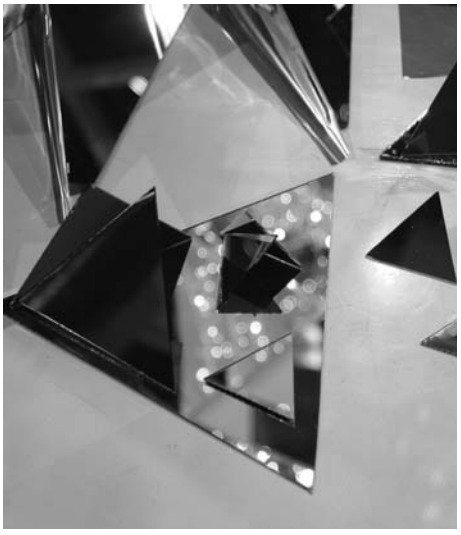
전시소개

2012년 전시공모 선정작 중, 여섯 번째 전시인 「2012유리상자-아트스타」Ver.6展은 Fine Art를 전공한 김안나(1979生) 작가의 설치작품 "Out/In the Universe"입니다. 이 전시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구의 '안과 밖'이 경계 없이, 우주공간과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질서와 조화 있는 하나의 의미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임을, 또 이러한 생각과 기억을 재구성하여 통합하는 실험에 주목합니다. 작가는 빛을 반사하는 우주 공간의 별과 별 내부의 빛이 서로 조화되는 자연을 은유하여 갖가지 시공간時空間의 기억과 기氣의 자유로운 흐름, 생명력의 확장을 시각화합니다.

작가는 사방이 유리로 구성된 전시공간 설계에서 거울에 반사된 빛이 공간의 내부와 외부에 걸쳐 경계 없이 작동하는 매력에 반응합니다. 그는 7미터 높이의 천정에서 그 아래 설치된 다면반사체 구조물과 전시장 바닥에 우주와 자연의 이미지를 담은 5분6초 분량의 동영상을 투사합니다. 그리고 던져놓듯 바닥에 설치하거나 매달아둔 3개의 커다란 다면반사체 덩어리가 이 영상을 바닥과 전시장 외부로 반사하고, 다양한 각도로 바닥에 설치된 거울조각들도 이 빛을 반사합니다. 특히, 다면반사체는 자신 안에서 발광하는 빛과 동시에 주변의 빛을 외부로 반사하는 빛, 그대로 투과된 반대편의 빛을 교차시켜 감성적인 조형성을 획득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마치 시적으로 묘사된 밤하늘의 무수한 별빛을 유리상자 전시공간에 옮겨놓은 것 같습니다. 바닥에 놓인 지름3m 크기의 커다란 다면체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주변 외부의 빛과 이미지를 반사하기도 하지만 내부 면에 부착된 거울이 상호 반사작용으로 무한한 깊이의 공간과 보석을 닮은 빛의 향연을 재생합니다. 일부 면은 거울 없이 비워둠으로써 속을 들여다보거나 그 사이로 건너편의 또 다른 빛과 자연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다면체 속에는 반짝이는 작은 별들을 담은 듯 작은 LED램프 수십 개가 설치되어 빛을 더하며, 다면체의 거울과 바닥에 배치된 거울 면에 의한 반사로 전시장 외부 주변의 바닥과 벽면에 우주 영상의 단편들이 환상처럼 펼쳐지기도 합니다. 상대적으로 방해하는 빛이 적은 야간에 미묘한 설렘을 전할 수 있는 이 설정은 해가 있는 낮 시간에는 자연에 대한 경외감과 기억들을 재생합니다. 전율이 있는 감동, 경계 없는 해탈의 경지를 지향하는 작가의 작업은 그가 언급하듯이 "자연 속의 무한함을 감각에 의해 시적으로 직관"하는 상태의 유희입니다.

참조된 자연과 인간 삶의 기억을 재구성하여, 경계 없이 우주 전체를 통하여 느껴지는 자연의 생명력을 담아보려는 작가의 실험은 우주와 연결된 '사건'이며, 이를 통해 작가는 자신이 경험하고 인지하는 우주적 차원의 희망, 유토피아, 긍정적 에너지 등 새로운 관계 맺기를 이해하고, 이들의 민주적인 통합을 제안합니다. 이번 유리상자는 미래 세계의 가치와 대안을 질문하는 민주적인 예술의 현재를 생각하게 합니다.

-정종구-



Out/In the Universe 거울, 다채널 비디오 프로젝터 조명, 가변크기, 2012

이것이 현대예술이다-예술과 시민의 만남

전시공모 선정작가展 2012 GLASS BOX ARTSTAR Ver.7

Yoon, Donghee

모자이크로 완성한 한국 근대 정치사

예술사회학이 바라보는 미술은 작가가 '무슨' 작품을 완성하는가라는 물음보다 작가가 '왜' 작품을 완성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한다. 아쉽게도, 우리 미술계에서 예술사회학이란 이름이 붙은 학제는 사회과학과는 다르게 이 점에 그리 많은 신경을 쓰지 않는다. 내가 관찰하는 미술계의 동향은 작가나 작품이 의도하는 주제와 대상이 현실 반영적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이론으로 예술사회학의 쓰임새를 좁히는 쪽에 머물러 있다. 예술사회학의 진정한 과제는 감수성과 손재주를 획득한 예술가들이 더 나아가 세계에 대한 전능한 조망권까지 가진 듯이 작품을 창조하는 행위를 흥미로운 사회 현상으로 간주하면서 이것을 해석하는 과정이다.

예술사회학의 시계열 분석에서, 한 작가의 선언적 작품은 통과의례와 같이 중요한 전환점이다. 어떤 작가는 이른 나이에, 혹은 늦은 나이에 선언적 작품을 형상화한다. 하지만 어떤 작가는 평생 그것을 완성하지 못한다. 그 사람은 실패한 작가다. 또 어떤 작가는 자기 확신도 없으면서 거짓 선언을 한다. 그 또한 성공하지 못한 작가다. 설치미술과 미디어아트 영역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기 시작한 작가 윤동희는 유리상자에서 자신이 앞으로 나아갈 작업 방향을 선언하고 있다.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내가 지금 판단할 수는 없다.

그의 작품 〈망령〉은 한 편으로는 순진하고 다른 한 편으론 영리한 기획이다. 여기에는 마치 이념서적 한 권을 읽고 세상을 그 틀에 끼워 맞춰 바라보는 대학 초년생 같은 풋내기 열정이 있다. 반면에 여기엔 이 모든 게 의도적인 과장이라고, 현대예술이란 게 다 그렇지 않냐며 다의적인 해석의 틈을 남겨놓는 교묘함도 있다. 이와 별도로, 현대미술은 우선 관객들에게 시각적으로 경탄할 만한 볼거리를 제시하면 절반은 성공했다고 봐도 되는데, 윤동희의 미디어 설치 작업은 그런 관문은 통과했다.

〈망령〉이 드러내는 인물이 대통령 박정희란 건 관객들 대부분이 식별한다. 하지만 작가는 박정희를 그리지 않았다. 그는 대신 박정희 대통령 시대를 살다 간 여러 사람들을 그렸다. 이 그림들이 모여서 한 사람을 표상한다. 가로세로 15cm 크기의 이 목탄화는 오백열여섯 장(516장이 뭘 상징하는지는 분명하다)으로 된, 삼백 명에 가까운 망령(亡靈)들의 초상화다. 각각의 그림들 속 주인공인 이 고인들 가운데엔 대통령들을 찾을 수 있다. 대통령 옆에서 권력을 나눠 가진 정치인들과 부역자들도 있다. 권력의 반대편에서 저항한 투사들도 많다. 이들 저항세력은 최고 권력자에겐 희대의 흉악범들보다 더 골칫거리였다. 그림 중에는 물론 이들 범죄인들의 얼굴도 포함되어 있다. 떠나간 예술가와 과학자들도 있다. 이들도 두 파로 나뉜다. 진흙탕 같은 사회에서 애써 눈을 돌려 아름다움과 진리 그 자체로만 파고 들어간 작가와 학자들이 있고, 다른 한 쪽에선 그 진흙탕 속에서 발버둥 치듯 반항했던 이들도 있다. 또 자신이 주체적인 삶을 선택하지 못한 채 희생을 강요당했던 사람들도 여럿이다. 예컨대 북한이 저지른 미얀마 아웅산 테러의 희생자들, 일본 제국주의가 할퀸 위안부 할머니들, 개구리 소년과 같은 흉악 범죄의 피해자들, 베트남 전쟁의 전사자들, 서해 교전과 천안함의 전사자들, 삼성 반도체의 백혈병 산업재해 사망자들이 그들이다. 이들이 좋든 싫든, 스스로 알았던 몰랐든 결국 모두의 삶과 죽음은 박정희라는 표상의 빛과 그림자다.

복잡하고도 거대한 이 영정은 한 눈에 봐서도 위태롭게 서있는 구조물이 지탱하고 있다. 그 주변에는 눕혀놓은 일곱 대의 TV 브라운관들 속에 작은 그림 속 주인공들이 형상을 갖추고 있다. 바닥에 서려있는 안개는 망령들이 작품 주위에 머무는 것 같은 음산함을 비유한다. 안개와 마찬가지로 구조물과 TV도 알레고리 장치들이다. 불안해 보이는 구조물은 1789년 프랑스 혁명과 1812년 산업혁명 이후 200여 년간에 걸쳐 서서히 근대화를 이루어 온 서구 사회와 달리 해방과 몇 차례의 정권 교체를 거치며 약 50년 만에, 즉 서구에 비해 1/40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급하게 이룬 근대화를 은유한다. 이른바 압축근대화 과정은 그 추진력과 속도가 눈부신 성취임은 분명하지만, 환경오염, 대형 재난사고와 인권 경시, 계급 양극화와 같은 현대 사회 문제들의 직접적인 원인이기도 하다. 올드 미디어를 상징하는 낡은 텔레비전은 그 자체가 세상을 바라보는 창 역할을 하는 자임했던 관찰자 내지 시대의 감시자들의 상황을 그려낸다. 작가는 그들도 어쩔 수 없이 한정된 틀 속에서만 갇혀서 초월과 해방과 구원을 갈구했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다.

웬만한 관객들이라면 〈망령〉 속에 기록된 이름을 전부 알기 힘들 것이다. 나는 전부를 간신히 알 수 있었다. 내가 이 망자들을 모두 알게 된 건 2005년에 참여했던 한 연구용역 과제 때니까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역사학자나 사회학자가 아닌 이상 일반인들에게 이들은 인식 바깥의 무 존재들이다. 그 이름과 얼굴을 함께 떠올리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이다. 예컨대 우리가 위인들의 얼굴을 안다고 하지만 그것 또한 카메라와 필름이 발명된 이후의 진짜 얼굴과, 그 이전의 초상화로 양분된다. 영상 이미지의 과잉 시대에 이 망령들은 오히려 몇몇 아이콘들을 빼고 대중들의 기억으로부터 이름과 얼굴이 희미해지고 있다.

총체적인 입장에 서길 원하는 작가의 입장에서, 이 작품은 지나친 정치적 해석이나 당파성과 거리를 두려고 한다. 무수한 삶을 품은 한국 근대사 전체가 대통령 박정희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하나의 시대(era)이며 그때가 좋았든 나빴던 현재를 이루었기에 피할 수 없는 바탕이라는 시각이다. 나는 여기에 개인적인 의견을 보태고 싶다. 작가와 내가 생각을 같이 하는 부분은 그들의 모든 사회적 사실이 역사라는 큰 흐름의 일부라는 점이다. 이를테면 지금 권력을 쥐고 있는 보수정권에 관해 역사를 후퇴시키는 현상이라고 표현하는 진보 세력의 언어 구사를 나는 반대한다. 짧게 봐서는 민주주의 역사의 후퇴가 맞다. 하지만 장구한 민주화 과정에서는 이 또한 과정이다(나치 정권과 이후 과거사 청산과 반성을 이룬 독일의 현대사를 보라).

내가 그의 작업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 점은 작업 속에 분명히 드러난다. 작가의 객관적인 입장은 처음부터 객관적일 수 없다. 아무리 정치적 균형을 기술(description)한 관점일지라도, 그의 작업은 수많은 주제 가운데 현재 가장 예민하고 치열한 논쟁거리를 불러들였다. 〈망령〉은 그 사실만으로 이미 작가의 주관적 신념이 드러난 선언적 작품이다. 나처럼 작가의 신념 또한 진보적인 정파로 기울어져 있다하더라도, 지금 우리 두 사람이 머무는 인식 수준에서는 예컨대 〈만인보〉에서 시대 속 인물을 허허실실한 시적 언어로 풀어 낸 시인 고은의 예술적 성취를 따라갈 수 없다. 〈만인보〉에서조차 작가가 마주칠 수밖에 없었던 어려움을 후반기 집필에서 무명인에 대한 창작 비중을 높였던 사실과 비슷하게, 역사적으로 큰 사건의 당사자 중심으로 된 서술에서 벗어나서 이름 없고 비중이 적은 인물과 사건 중심의 미시사관(微示史觀)의 역사학 방법론이 다큐멘터리 미술에서 빈번히 시도되고 있는 게 지금이다. 작가가 본인의 할아버지를 전체 속에 투영시키려고 한 최초의 구상도 그와 같은 새로운 역사관의 적용이다. 하지만 그 방법보다 대통령 박정희를 표현하는 형식이 훨씬 더 뚜렷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런데, 이 모든 것도 맥 빠진 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윤동희의 신작이 공개되고 많은 사람들이 작품을 찾을 때면 대통령 선거의 당락 결과는 나왔기 때문이다. 만약 여당 후보가 이기면 야당 지지자들은 한 동안 정치와 관련된 문제에 눈과 귀를 닫고 싶어 할 것이므로, 이 전시도 외면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야당 후보가 이기면 여당 지지자들은 이런 좌파 예술인들의 농간 때문에 나라가 큰일 났다는 식의 비난이 제기될지 모른다. 논쟁거리로 불붙으면 그만큼 대중의 관심도 커져서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는 영화 산업은 이미 대선 이전에 몇 개의 논쟁적 작품을 개봉했다. 영화보다 리스크가 적은 미술 전시는 표현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다. 하지만 이곳은 대구다. 윤동희의 설치작 〈망령〉은 찬사와 비난, 관심과 외면 사이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게임이론으로 수렴된다.

-갤러리 분도 Art Director, 예술사회학 / 윤규홍-

2012.12.21 Fri ~ 2013.1.27 Sun 아트스페이스 (2F)

망령

코디네이터 김승현
비평가 윤규홍

전시소개

2012년 전시공모 선정작 중, 일곱 번째 전시인「2012유리상자-아트스타」Ver.7展은 회화를 전공한 윤동희(1983生) 작가의 영상•설치 작품 '망령亡靈'입니다. 이 전시는 우리 사회의 치유되지 않은 '과거'와 그 '연결성'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인식되는 사회현상을 주목합니다. 작가는 지우는 것에 관한 기억과 다시 되살아나는 행위를 은유하여 현재 자신의 시공간時空間 속에서 반복 재생하는 역사인식을 시각화합니다.

작가는 사방이 유리로 구성된 전시 공간 바닥에 대형 나무패널(285×405㎝)을 세우고, 그 전면에 작은 목탄화(15×15㎝) 516장을 모자이크처럼 이어 붙여 큰 초상화를 제작하였습니다. 목탄으로 얼굴을 그렸다가 다시 지운 상태의 작은 초상화들은 작가가 설정한 역사 범위에서 선택한 비범하거나 평범한 인물 혹은 이웃의 얼굴이며, 지금은 모두 세상을 떠난 망령들입니다. 이들 망령의 초상이 이미지의 픽셀처럼 음영 단계로 작용한 전체 초상화는 조금만 물러서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입니다. 즉, 작가가 제시하는 '망령'으로서 한국 근대화 시기인 유신시대의 상징입니다. 연계된 설정 하나는 패널을 세우고 있는 지지대인데, 임시방편으로 급하게 세운 것을 공고하듯 전면의 거대한 초상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초가 부실하고 위태로워 보입니다.
또 다른 설정으로 초상화 패널 아래 바닥에는 7대의 브라운관 모니터를 통하여 영상을 선보입니다. 픽셀 같은 작은 목탄화, 지워져서 잘 보이지 않는 초상화를 작가의 손으로 다시 살리는 행위를 담은 영상입니다. 뭉개졌던 흑색 톤의 얼굴이 또렷이 되살아나는 장면은, 이 행위가 계속 반복되면서 거대한 망령의 힘에 의해 사라지거나 가려지고 그 영향으로 보류되었던 독립된 개인의 사실들 혹은 현재에 이르도록 근대화에 희생했던 이름 없고 주목받지 못한 자들의 면모를 상기시키기도 합니다.

안개에 싸인 빛과 영상, 지워진 픽셀 초상화와 이들이 모인 거대한 망령. 다시 생각하면 이 설정은 폐허 속에서 반성과 이해의 균형을 가늠하는 작가의 의식적인 어슬렁거리기입니다. 아마도 이번 유리상자에서 관객들은 지금 우리의 상태를 사건화 하여 체현하는 예술가의 어떤 자질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종구-

망령 영상설치, 가변크기, 2012

2013

GLASS BOX ARTSTAR

2013유리상자-아트스타

Ver. 1
백장미-RE:BORN(The solid city)
3.1- 4.7

Ver. 2
신강호-Link
4.19- 5.26

Ver. 3
전새봄-현묘(玄妙)한 집
6.7- 7.14

Ver. 4
이재호-모여라 꿈동산
7.26- 9.1

Ver. 5
서상희-그곳, 집
9.13-10.20

Ver. 6
우재오-나를 위한 위로
11.1-12.8

Ver. 7
이소진-어느..파쿤의 성
12.20- 1.26

봉산문화회관에서 주최하는「2013유리상자-아트스타」전시공모선정 작가展은 동시대 예술의 남다름에 주목합니다. 올해 전시공모의 주제이기도 한 '도시정원에서 만남'은 우리시대 예술에 대한 공감을 비롯하여 '도시'와 '공공성'을 주목하는 예술가의 태도와 역할들을 지지하면서, 현대예술의 '스타'적 가치를 지원하는 의미입니다.
4면이 유리 벽면으로 구성되어 내부를 들여다보는 관람방식과 도심 속에 위치해있는 장소 특성으로 잘 알려진 아트스페이스「유리상자」는 어느 시간이나 전시를 관람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시민의 예술 향유 기회를 넓히는 데 기여하고,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예술가들에게는 특별한 창작 지원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예술지원센터로서 더 나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공모에 의해 선정된 참신하고 역량 있는 작가들의 작품 전시를 지속적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봉산문화회관기획 전시공모 선정작가展 '도시정원에서 만남'

2013 GLASS BOX ARTSTAR Ver.1

Back, Jangmi

선으로 형상화된 구조물들의 현기증

작가 백장미는 사방이 유리로 둘러싸인 이번 유리상자 전시공간에서 검은 비닐 빨대 straw를 사용하여 선의 형상으로 구현된 구조물들을 선보인다. 마치 신축건물 공사장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철근 구조물들을 연상시키는 작가의 작업은 독특하게도 비어있는 듯 하면서도 가득 차 보인다. 그 구조물들은 들여다볼수록 어지러움과 현기증들을 불러일으키는 복잡한 그물망 같은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러한 윤곽선으로 만들어진 실체 없는 형태들은 오브제 자체가 가질 수 있는 부피 Volume를 비워버림으로써 깊이를 없애버린 것들이다. 즉 3차원적 공간감은 2차원적 평면으로 환원되는 듯한 효과로 드러나고 동시에 이로 인해 윤곽선들은 관람자의 시선에 중첩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특히 이러한 효과는 작가의 시각적 설치 의도에 중요한 핵심요소가 된다.

즉 정합적이고 규칙적으로 제작된 기초적인 정팔면체 구조들 Regular octahedron structure이 일관된 방식으로 연결되거나 접합되어 큰 규모의 구조물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조들의 외관은 이러한 중첩 효과 때문에 오히려 한 눈에 그 전체적 형태를 파악하기 힘든 카오스적인 현기증을 불러 일으킨다. 다시 말해 3차원적 입체감을 가진 구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세부적인 면들이 배제되고 깊이감이 제거됨으로써 2차원적인 평면감이 강조되어 보여지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면과 양감이 배제된 구조물의 특성상 빛에 의해 생기는 그림자들까지 이러한 윤곽선들의 중첩 효과들을 증폭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백장미 작가는 이전의 작업들을 통해 현대의 도시 공간을 특징짓는 가변적 특성들에 주목해왔다. 즉 작가는 사람들이 특정 공간과 맺는 관계와 정감들, 소위 장소 특정성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건축 공간물들이 상업적인 목적이나 여타의 욕망에 의해 그 수명이 다 하기도 전에 허물어지고 그 공간의 본래적 의미와는 다른 기능과 의도로 다시 세워 올려지고 그러한 상황들이 끝없이 반복되는 현실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던진다. 즉 사람들의 삶과 소통하는 장소이자 공간으로서, 또한 기억들이 중첩되고 쌓여서 만들어지는 흔적으로서의 건축 공간물에 대해 작가는 주목해왔고 그러한 공간 환경의 변화와 파괴에 대해 성찰적인 작업들을 해왔다.

현실에서 압도적인 현상으로 목격되는 이러한 기능우선주의적이고 욕망에 기초한 건축의 문법들은 작가에 의해 달리 재해석되고 시도되는데 그러한 시도중 하나가 바로 정팔면체 구조로 나타난다. 사실 건축 문법에서 중요시되는 중력의 힘을 극복하기 위해 기본적인 모든 구조들은 면의 완전한 구축을 통해 안정적 지반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하는데 반해 그녀의 작업은 그 중력에 대한 고려나 저항감 없이 주어진다. 다시 말해 건축적 개념이라면 오히려 선호되었을 사각형 형태의 정육면체 개념이 아닌 삼각형 형태의 정팔면체 구조가 제시된 것이다. 이 기본적인 구조 형태들은 기존의 건축 문법과 달리 지면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시각적으로 공간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원근법적 조망을 방해함으로써 일반적인 건축 구조물이 가지고 있는 기능주의적인 문법을 부정한다. 당연히 선으로 형상화된 이러한 구조물들은 어쩌면 정합적으로 계산되고 짜여진 기능주의적인 문법을 비틀어 보여줌으로써 그러한 구조들이 가진 복잡성과 위태로움, 불안감을 동시에 드러내 보여준다.

작가의 이러한 선으로 형상화된 구조 설치물은 없는 듯 보이지만 분명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욕망과 기능주의적 태도의 구조화된 힘들을 가시화해서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러한 존재들이 어쩌면 덧없고 불안하며 허약한 것임을 암시하는 것처럼 파악된다. 너무나 많은 삶의 공간들과 환경이 그럴듯한 개발과 발전이라는 논리에 의해 파괴되고 새로운 욕망에 부합한다는 이유만으로 다시금 만들어지는 일들이 반복되어져 왔다.

그래서 어쩌면 이번 유리상자 전시에 선보이는 백장미 작가의 작업은 지금껏 너무나 당연시되어왔던 면과 평면 중심의 공간구축문법을 비판적으로 풀어내고 다시금 선으로 형상화해냄으로써 우리에게 공간 속 구조물들에 대한 새로운 성찰의 계기를 일깨워주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허공 속에 마치 연필로 거대하고 복잡한 도형물을 그린 것 같은, 드로잉을 연상시키는 그녀의 구조 설치물은 유리 상자라는 전시공간의 고유한 특성을 매력적으로 부각시키면서 우리에게 독특한 미적이고 조형적인 체험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여겨진다.

–미학 / 최창윤–

2013.3.1Fri ~ 4.7Sun 아트스페이스 (2F)

RE:BORN(The solid city)

코디네이터 이은희
비평가 최창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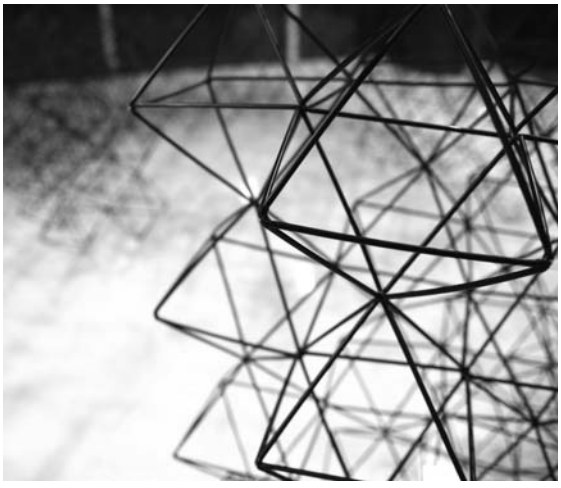
전시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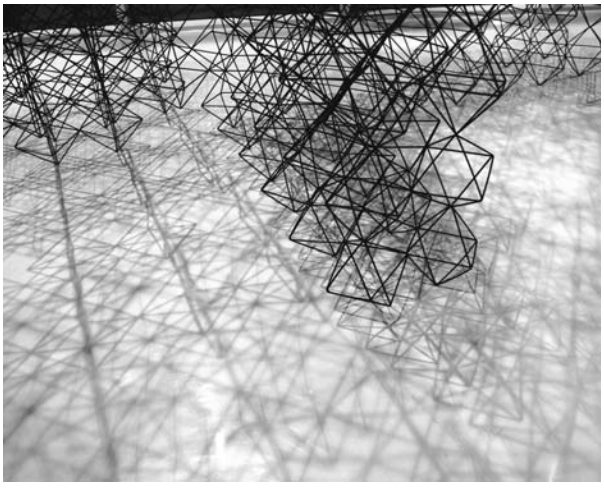
2013년 전시공모 선정작 중, 첫 번째 전시인 「2013유리상자-아트스타」Ver.1展은 회화를 전공한 백장미(1988년生) 작가의 설치작품 "RE:BORN(The solid city)"입니다. 이 전시는 견고한 권위의 도시 건축물에 관한 작가의 기억과 스트로straw를 매체로 도시 공간의 본성을 새롭게 펼쳐놓는 작가의 태도에 주목합니다. 작가는 도시의 현재를 구성하는 건축의 생태와 그 공간에 마땅히 있어야할 것들의 부재를 은유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미래인가?'를 질문합니다.

작가가 제시하는 전시 설계는 도시 건축에 관한 세련되고 경제적인 태도를 상징하는 조형적 아이디어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7미터 높이의 천정, 흰색 바닥, 사방이 유리로 구성된 전시 공간 가득히 드로잉 하듯 짧고 규칙적인 직선을 반복적으로 긋는 작가의 건축 행위를 담아내면서 모든 건축의 모체처럼 암시되는 메트릭스matrix 조직을 설정하고, 비어보이는 공간과 관객의 대면을 통해 반성적 메시지를 획득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단순하지만 복잡한 형태의 전시 조형물은 출입문과 창문, 벽체, 계단, 2층, 지붕, 탑의 장식 등 건축물의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조형 작업에 사용한 재료는 음료수를 빨아올리는 스트로(빨대)입니다. 일회성의 가볍고 간편한 플라스틱 스트로의 편리성은 빠르고 쉽게 짓고 허물기를 반복하는 우리 주변의 건축 태도를 떠올리게 하고, 조형 구축을 위해 스트로 세 개로 연결한 삼각형 기본 구조는 현대인의 합리적 논리성 혹은 최소의 시간과 비용으로 고부가 가치를 생산하려는 경제적 효율성을 상징하는 조형 태도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최소한의 재료로 가볍지만 견고하게 조직하는 세련미는 현재 도시 건축의 기술력을 엿보게도 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긍정 속에 정작 지키고 보호해야할 것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즉 인간의 온기, 구조를 채우는 삶의 감수성을 찾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견고한 'RE:BORN'은 무엇의 재현이기보다 허물어지고 다시 세워지기를 반복하는 참조된 현실의 기억을 분석하고 작가 자신의 심리적 대응을 재구성하는 '사건'이며, 새로 탄생한 하나의 현실입니다. 그가 다루려는 것은 주목받지 못하고 사라지거나 지나쳐버렸던 소중함에 대한 것이며, 불편을 감수할 수 있을 정도로 가치 있는 인간 존재의 의연한 생명력의 문제입니다. 작가는 다양한 차원으로 변화하는 세계와의 비평적 관계 맺기를 설정하고, 그 감성을 담아내는 가능성을 비밀스럽게 제안합니다. 속도와 효율성, 성장에 가려진 가치와 그 의미를 역설하는 이 설정은 현대성 또는 우리 삶의 태도에 대한 질문이기도합니다. 현실을 대하는 태도와 미래 가치를 묻는 이번 유리상자는 세계의 미래와 소통하려는 예술의 비평적 시각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정종구-





RE:BORN(The solid city) straw, vriable installation, 2013

봉산문화회관기획 전시공모 선정작가展 '도시정원에서 만남'

2013 GLASS BOX ARTSTAR Ver.2

Shin, Kangho

투각으로 새겨진 Link의 선

쌀싸한 바람이 불던 날 경산에 위치한 신강호 작가의 작업실을 찾았다. 200평 남짓한 작업실에 한기가 감돌았다. 그는 냉랭한 작업실에서 유리상자에 설치할 파이프투각작업에 열중하고 있었다.

신강호 작가는 97년부터 7년간 사회문제를 조명했다. 환경문제, 교육문제, 장애인문제 등 공론화될 사회문제에 관객 참여형 미술을 전개시켰다. 예컨대 기계화된 현대문명을 비판한〈나는 지금 떨고 있다〉, 생명의 존귀와 보존을 염원한 〈생명〉시리즈, 환경문제를 다룬 〈회색빛〉, 학교 교육문제에 접근한 〈오늘도 학교는 안녕하다〉, IMF 경제위기를 조형적으로 해석한 〈Homeless〉, 점자를 테라코타한 〈가져가세요〉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작품들은 공적 관심사에 가깝다. 다소 비판적이고 담론적이던 표현이 조형 탐색적으로 이행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3년부터다. 작가는 그 이유를 삶의 질곡과 지난함으로 꼽았다. 동시대를 직시하며 밀도감을 더하던 지난 작업의 연장선에 아쉬움을 남기는 대목이다. 그렇다고 지금의 작업이 미온적이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의 근작들은 유기적인 선의 조형탐색에 의미를 둔다. 방법적으로는 석고덩어리나 PVC 파이프, 또는 흙을 투각하고, 나무로 선을 만들거나 캐스팅한다. 스크린, 흙, 플라스틱, 석고, PVC 파이프, 나무 등 작업재료도 다양하다. 여기에서 간과될 수 없는 것은 매체의 운용이다. 6m의 파이프 전면에 작은 구멍을 뚫거나, 석고 덩어리에 유연한 곡선을 남기는 일련의 작업과정에는 적지 않은 노동력과 시간이 요구된다. 밑그림 없이 즉흥적으로 투각되기에 집중력도 요구된다. 작가는 고집스럽게도 오랜 기간 이 방법을 고수한다. 유리상자에 설치된 작품도 PVC 파이프 투각 작업이다.

투각한 PVC 파이프에 패턴이 그려졌다. 흰색과 회색이 그라데이션 된 파이프 4개가 유리상자에 설치되었다. 나무 형상의 파이프에는 구멍이 뚫렸다. 작은 구멍으로 이어진 패턴은 불규칙적인 선을 이룬다. 그 선들은 유기적이다. 시작과 마지막을 알 수 없는 선들의 연결이 마치 뫼비우스의 띠 같다. 미로 같기도 하다. 처음과 끝을 알 수 없는 이어짐이 태극문양 같기도 하다. 엄밀히 따지면 애초부터 하나였던 선들이다. 거기에서 음양과 오행, 인연과 윤회가 읽혀진다. 작가는 작업 초두에 이러한 것들을 미리 계획하지 않았다고 한다. 오로지 즉흥성과 직관에만 의존했다면, 원상(原象)의 표출로 봄은 어떨까. 인류의 DNA속에 흐르던 원상이 작가의 직관을 통해 손끝으로 드러난 것, 그리 보면 무리일까. 그가 새긴 패턴과 선을 자세히 보면 우리 주변의 것들과도 닮아있다. 혈맥, 잎맥, 잠자리 날개, 벌집, 거미줄 등, 이는 모두 자연의 단면이다. 자연과 가까운 고장에서 성장한 그의 유년의 기억과도 무관하지 않다.

유리상자에 세운 나무는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상하좌우 불규칙적으로 번진 선들이 앞과 뒤, 안과 밖으로 유동한다. 뚫린 선과 선사이로 중첩의 면이 보이고 그 너머로 다른 세상이 보인다. 선과 선이 새로운 공간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선들은 선이면서 동시에 면이고 공간인 셈이다. 그 형상이 관자의 시선을 다차원으로 안내한다. 조명의 위치와 각도, 벽과 바닥의 기울기나 거리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림자도 한몫을 한다. 이렇듯 투각작품은 주변 환경에 따라 다른 분위기를 발한다. 신강호 작가의 투각작업도 작품과 공간의 조화까지를 포함한다. 때문에 그의 작품은 공간의 어울림과 빛을 떼어놓고 감상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할 때, 유리상자는 만족스럽지 못한 공간이 된다. 사방이 투명한 유리상자로 들어오는 자연광이 나무의 그림자를 얼마만큼 선명하게 드러낼지 의문이다. 그 대안으로 작가는 전시장 바닥에 움직이는 무당벌레를 출연시켰다. 회색 모래를 흡입한 무당벌레 청소기가 모래를 다시 배출하면서 동선을 그린다. 무당벌레의 행선대로 무작위적인 선이 그려지고 지워지기를 반복한다. 결국 그의 선들은 유리상자의 바닥과 공중에서 유동하는 선이 된다.

이때 투각의 통로와 선의 유동은 작가와 외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둘은 단절적이지 않다. 유기적이며 상생의 구조이다. 투각 전 PVC 파이프는 원통의 긴 막힘으로 존재했다. 작가는 막힌 표면을 일일이 뚫어 관통의 막을 새로 만들었다. 뚫린 구멍 사이로는 시선을 흐르게 했다. 시선의 흐름 따라 이편과 저편이 드나든다. 드나듦은 관계의 맥이고 그것은 이어진다. 거기에 소통이 있다. 선은 관객을 소통과 상생으로 안내한 것이다. 결국 그가 유리상자에 설치한 선은 소통이 스민 link의 선이다. 이것은 칸딘스키의 설명적인 선도, 생동하는 수묵(水墨)의 선도 아닌 오직 신강호 작가의 직관의 선으로 봄이 옳다. 작가의 삶이 스민 선, 그의 기억과 경험과 판단이 어우러진 선, 뜨개실처럼 염원이 엮인 선이다. 이어질 듯 끊어지고 끊어질 듯 다시 이어진 세월의 선이다. 엉뚱한 흔적을 남기곤 하는 그의 선들은 우리의 삶과 닮았다. 있는 듯 없다가 없는 듯 나타나는 선의 유동은 존재가 사라질 때 함께 멈출 것이다. 이렇듯 그의 선은 삶의 질료이고 생의 토로이다.

결국 신강호 작가의 선이 유리상자로 나온 것은 자아와 외계와의 상호성을 자문하고, 관계를 돌아보며 소통을 염원함이지 않을까. 앞과 뒤, 안과 밖, 처음과 끝이 없는 유기적인 그의 선에서 향후 이어질 또 다른 link의 고리를 기대하며.

–미술학 박사 / 서영옥–

2013.**4.19**Fri ~ **5.26**Sun 아트스페이스 (2F)

Link

코디네이터 임영규
비평가 서영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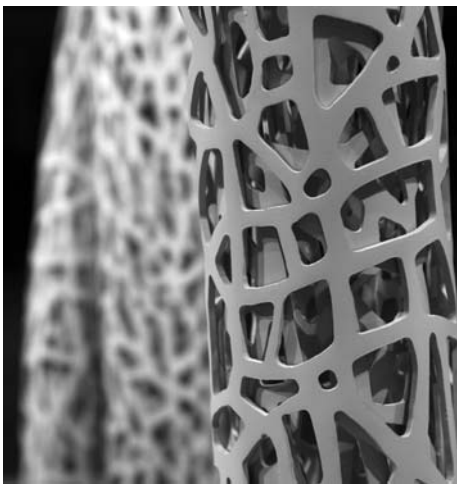
전시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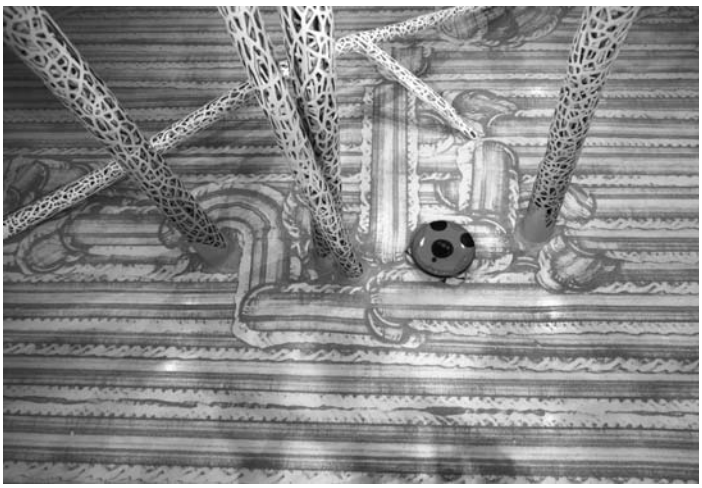
2013년 전시공모 선정작 중, 두 번째 전시인 「2013유리상자-아트스타」Ver.2展은 조각을 전공한 신강호(1974년生) 작가의 설치작품 "Link"입니다. 이 전시는 연결을 위한 플랫폼, 즉 소통 창조의 생태계를 상상하고 이를 물리적 공간에 설계하여 펼치는 작가의 상상에 주목합니다. 생존을 위해 균형을 유지하려는 서로 다른 생물들이 연결되는 플랫폼으로서 자연 생태계와 링크 체계로 이해되는 현대문명 사이의 '연결성'을 새로운 현실 무대로 설계하여, 보이지 않는 차원의 이해와 새로운 현실 풍경의 가능성을 질문합니다.

작가가 제시하는 전시 설계는 자연 생물 개체 사이의 관계, 관련성, 유대, 연결에 관한 관찰을 비롯하여 현대과학이 자연을 좇아 연결을 시도한다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작가는 사방이 유리로 구성된 전시 공간의 흰색 바닥 가득히, 굵고 규칙적인 직선을 반복적으로 긋는 로봇청소기의 드로잉 동작을 담아내면서 현대과학이 산출하는 현실의 풍경을 설정하고, 시멘트 바닥에서부터 비현실적으로 자라나온 5~7미터 높이의 흰색 나무 네그루와 바닥에 뉘어진 나무 한그루를 설치하였습니다. 두세 겹의 표면 구조를 겹쳐서 속이 비도록 구현한 나무들은 유기적 선으로 짠 그물망 표면으로 조직되어있으며, 이들은 모세혈관 혹은 잎맥처럼 전체가 하나의 조직체를 이루는 생태계의 연결망들을 은유합니다. 한편, 나무 조형의 재료로 사용한 원통형의 건축용 PVC관은 빠르고 쉽게 연결 지점을 이으며 자연 생태계의 흐름을 대체하는 우리 문명의 현재를 떠올리게 합니다. 또한 작가가 상상하는 자연과 문명 사이의 연결을 위해 로봇청소기가 그려내는 선적 구조는 그물망으로의 진입통로로서 연결성 혹은 안과 밖의 경계에 지속적인 링크를 시도하는 현대문명의 상징적 조형언어로 읽힙니다. 이러한 유기체적 상상과 'Link'의 설정은 현재 우리 시대의 디지털 기술의 연결성, 소통 지향의 네트워크 문화를 엿보게도 합니다. 하지만 이 설정에서 인간의 흔적, 생명성을 가꾸는 인간 삶의 감수성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리모컨으로 작동하는 로봇청소기(무당벌레)가 펼치는 작가의 'Link' 세계는 사이버 공간, 즉 유리상자 안 나무 곳곳에 다양한 캐릭터의 아바타가 등장하고 말풍선이 뜨면서 서로 글루밍을 나누는 가상공간에서의 소통이 상상되기도 합니다.

이 전시는 하이퍼링크의 웹 환경에 익숙한 현실 참조의 기억을 분석하고 작가 자신의 심미적 대응을 재구성한 우리시대의 보고서이며, 현실화된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가 다루려는 것은 소통에 관한 것이지만, 동시에 인간 존재에 관한 질문이기도합니다. 다양한 차원으로 변화하는 세계의 성장에 가려진 인간 존재와 그 의미의 역설은 시대성 또는 우리 삶의 지향에 대한 성찰일 것입니다. 현실을 대하는 태도와 미래 가치를 묻는 이번 유리상자는 세계와 소통하려는 예술의 진술적 역할을 떠올리게 합니다.

-정종구-





Link-2013 PVC파이프, 로봇청소기, 색모래, 500X500X600cm, 2013

봉산문화회관기획 전시공모 선정작가展 '도시정원에서 만남'

2013 GLASS BOX ARTSTAR Ver.3

Jeon, Saebom

'황폐한 집(Broken house)'

봉산문화회관의 유리 상자 안에는 종이로 만든 입체 덩어리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 얼핏 그것은 흰 종이 뭉치에 검게 그을리거나 타다만 잔해 물로 보인다. 한 눈에 전새봄이 설치한 〈브로컨 하우스〉가 갖는 실체나 의미를 파악하기란 쉽지가 않다. 그 의미가 무엇이든 반짝이는 유리벽 너머 천장에 매달린 집들은 어딘지 부서지고 찢겨진 재해의 산물로 보인다. 이런 설치를 통해 이 젊은 작가는 어떤 질문은 던지고 있는 것일까?

집은 가족과의 정서적인 유대를 나누는 장소이다. 혈연관계를 통해 감성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 집은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생활 공동체의 기본적인 단위이다. 이렇듯 집은 혈연관계인 가족이 동고동락하는 삶의 터전이자, 최초의 사회적 환경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그것은 몸과 마음을 담는 그릇으로 감정과 의식, 가치와 규범 등 삶을 위한 기본적인 인성이 갖추어지는 장소일 것이다.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환경의 상징인 집, 그것도 '황폐한 집'에 대한 풍경을 전새봄은 자신의 기억이거나 혹은 현대인의 불안한 심리를 투영시킨다. 그것은 자신이 경험한 삶에 대한 하나의 풍경이자, 그 자신을 향해 던지는 진지한 질문이다. 그 질문의 출발은 낡고 오래된 집을 그리면서 시작했고, 또 황폐한 집을 만들어 가면서 질문과 답변을 동시에 찾아가는 노정에 있다. 그럼 이러한 '황폐한 집'을 통해 던진 질문 앞에서 우리는 어떤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이 작가에게 있어 '황폐한 집'의 의미는 폐허이고 죽음에 대한 기억이다. "폐허는 더 이상 건물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는 과거로 사라져버린 집이다. 하지만 나에게 폐허란 온전한 하나의 장소이고, 지나간 기억을 품고 있는 집이다. 종이로 만들어진 사람이 살 수 없는 집, 현실이 아닌 상상이 담기는 회화적 재료인 종이로 만든 집, 그것은 죽음을 앞둔 할머니의 푸르스름한 눈빛이 스민 내 기억 속의 집이다. 그 기억을 품고 있는 폐허는 나에게 깊은 상처이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했던 하나의 장소였다."고 한다.

이러한 집에 대한 기억을 작가는 유리벽으로 둘러싸여 공간 속에서 있지만, 실제로 기능하지 않는 집, 현재를 넘어 미래에는 사라지고 없어질 폐허, 그러나 기억 속에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품고 있었을 낡고 부서진 집, '황폐한 집'을 설치한다. 이러한 설치에 대한 의도를 "점점 순수성이나 도덕성을 잃어가는 현대인과 불안한 현실 앞에서 느끼는 심리적 혼란을 몸을 담고 사는 집을 통해 보여 주고자 했다."고 말한다. 이렇듯 전새봄이 '집'을 통해 담아내고자 하는 것은 기억 속에 잠재된 가족과의 사랑과 이별이고, 유사한 경험을 하는 현대인이 욕망하는 가족에 대한 기억이다.

그렇다면, 전새봄은 집을 이처럼 황폐하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영국의 소설가인 찰스 디킨슨의 대표작인 〈황폐한 집〉에서 인간의 탐욕과 집착 그리고 사랑을 통해 부조리로 가득 찬 시대를 그리는 것처럼, 전새봄이 그리고 있는 집들은 긴장과 불안이라는 현대적 질병, 그러한 현대인을 의인화한 오브제를 통해 현실에 반응하는 작가적 시선을 유리상자라고하는 특수한 공간 속에 담아 놓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어떤 점에서 유리상자라는 공간 역시 하나의 오브제로서 집의 형태를 띤 구조물이고, 그러한 현대적인 건축물 속에 종이로 만든 '황폐한 집'을 설치함으로써 보다 극단적인 대비, 즉 인간의 이중성을 집이라는 건축적 구조물을 통해 시각화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전새봄의 작업은 크고 작은 형태의 집으로 의인화한 개인과 개인 혹은 집단을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의인화한 오브제는 자신과 타인과의 삶을 연결하고 하나의 형상에 인격을 부여하는 기법이 회화적 효과를 강조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것은 마치 텅 빈 공간, 그러나 투명한 유리벽 너머를 가득 채우고 있는 공간을 집이라는 오브제로 그림을 그리듯 흰색의 종이 위에 회색의 빛바랜 벽이거나 검게 그을린 흔적들을 통해 회화적 공간이 된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보다 정확히는 불안하게 매달린 '집'의 형태는 찢겨지고 덕지덕지 붙여진 흔적들이 매끈하게 잘 빠진 겉모습에 숨겨진 현대인의 심리적 불안 같다.

이러한 현대인의 불안을 전새봄은 평면 회화가 갖는 순수한 시각적 언어에 익숙한 조형적 요소로 차가운 유리 벽 내부를 집에 담긴 오래된 시간 속 기억으로 채운다. 평면을 입체로 옮겨 놓은 그의 설치작업은 회화적 시선의 공간적 구현이다. 그것은 마치 먹의 농담으로 중첩된 회화의 표면을 하나하나 뜯어내어 공간에 풀어낸 것 같은 인상을 준다. 이러한 인상은 그간의 회화작업에서 오래된 마을의 낡은 집의 풍경을 먹과 채색으로 여러 겹의 붓 터치를 통해 시간의 흔적으로 표현했던 것에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유리상자에 설치된 입방체의 집들은 확장된 공간 속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각각의 장면들이 하나씩 공간 속에서 해체되어 먹이 종이에 스미듯, 개인 혹은 집단의 기억은 '황폐한 집'에 스미고, 또 '집'은 투명한 공간 속에 스며들고 있다. 전새봄의 집, 이 '황폐한 집'은 하나의 검은 색이지만 농담에 따라 수백의 결을 담을 수 있는 것처럼, 과거의 기억과 현재라는 시공간의 간극 속에서 의인화된 삶의 풍경이 담긴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삶의 풍경, 낡고 무너져가는 현대인의 어두운 그림자에 한줄기 빛을 담는다. 그 빛은 작은 희망의 불씨를 담아놓으려는 듯, '황폐한 집'에 조명을 설치해 시각적 요소가 심리적 효과로 확장되어 색색의 이야기가 담긴 집, 기억의 이면에서 욕망하는 생명의 빛이 담긴 '집'을 꿈꾼다.

-미술평론가 / 김옥렬-

2013.6.7Fri ~ 7.14Sun 아트스페이스 (2F)

현묘(玄妙)한 집

코디네이터 권세진
비평가 김옥렬

전시소개

2013년 전시공모 선정작 중, 세 번째 전시인 「2013유리상자-아트스타」Ver.3展은 한국회화를 전공한 전새봄(1989년生)의 설치작품 "현묘(玄妙)한 집"입니다. 이 전시는 현대 도시 건축물과 집의 본성에 관한 작가의 시각에 주목합니다. 작가는 우리시대 '집'의 현재를 폐허로 인식하고, 이를 조성하는 건축의 생태와 그 과정에서 소멸된 것들을 기억하면서 '치유(治癒healing)'의 연상을 호출합니다.

작가가 제시하는 전시 설계는 현대 도시와 집에 대한 예민하고 비판적인 태도, 폐허를 상상케 하는 조형 감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대략 7미터 높이의 천정과 흰색 바닥, 사방이 유리로 구성된 전시 공간에 가득한 폐허의 분위기, 물론 이 폐허는 심리의 표현이겠지만 파괴, 재해, 풍화 등으로 일부분만 남아 있거나 아예 소실된 흔적들을 공중에 매달아 연출하면서 정작 있어야할 것들이 소멸된 비현실적 상태의 집을 설정합니다.
작가는 흰 종이와 검은 먹을 이용해 번짐과 여백, 농묵, 중첩의 강약을 조절하며 그리는 입체 드로잉 행위를 집의 흔적 속으로 유연하게 녹여내면서 집과 집이 연결된 마을 조직을 설정하고, 이를 대면하는 관객의 기억과 상상 속에서 도리(道理)나 이치(理致)가 깊고 미묘(微妙)하게 작용하는 치유의 메시지를 재생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그는 이 폐허를 통해서 현대인의 인간성 상실, 무뎌진 도덕성의 한계, 위험한 상태의 인간 행동 양식들, 즉 안과 밖이 분리되고, 균열되어 나뉘며, 깨어지고 부서진 상태가 바로 지금 우리 현대인들의 상황임을 슬쩍 내비칩니다. 이는 대상을 향한 비판이라기보다 스며들 듯 그 안에 머문 동시대인으로서 자신의 바라보기입니다. 작가가 그려내는 폐허의 집은 과거 자신을 사랑해주시던 할머니와의 정감어린 추억과 그것이 사라진 허망함이 겹쳐진 기억입니다. 집은 추억이 가득한 곳이기도 하지만, 인간이 태어나서 자라고 생활하고 죽는 삶의 시공간적 축적 단위이기도합니다. 이는 집이 곧 삶 자체이며, 인간의 껍질에 비견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작가는 인간을 그려내기 위하여 집을 그립니다. 이번 전시에서 집은 용서와 기쁨, 다정함, 고결함, 평안, 자유, 신성, 사랑 등의 가치를 담은 참 인간을 그리는 작가의 심성에서 기인한 역설일 것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현묘한 집'은 무엇의 재현이기보다 허물어지고 다시 추억되기를 반복하는 참조된 기억을 작가 자신의 심리적 대응으로 재구성하는 '사건'이며, 치유를 향한 재생 현실의 실험입니다. 그가 다루려는 것은 세련미와 합리성, 성장에 의해 가려지거나 사라져버린 소중한 가치에 관한 것이며, 세련되지는 않지만 현묘한 인간 삶의 역사에 관한 감성적 기억을 담아내는 생명감입니다. 또한 이번 설정은 현대성 또는 우리 삶의 허구에 대한 조심스러운 질문이기도합니다. 현실을 대하는 태도, 과거와 미래 가치를 연결하는 이번 유리상자는 세계의 미래와 소통하려는 예술의 비평적 지평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정종구-

현묘(玄妙)한 집 종이에 수묵, 240X170X150cm, 2013

봉산문화회관기획 전시공모 선정작가展 '도시정원에서 만남'

2013 GLASS BOX ARTSTAR Ver.4

Lee, Jaeho

몬스터를 품고 살다.

이제 대학을 갓 졸업하고 작가의 삶을 선택한 이 젊은 작가는 자신의 작업에 몬스터를 등장시킨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익숙한 괴이하고 무서운 모습의 강한 이미지를 지닌 몬스터는 아니다. 어떻게 보면 부드럽고 유약한 느낌마저 들게 한다. 손발과 꼬리가 여러 개인, 흡사 고양이와 개를 섞어놓은 듯한 이 괴물은 정령 같기도 요괴 같기도 하다.

요괴와 정령의 존재는 매력적이다. 애니메이션 '이웃집 토토로'에서 숲의 정령인 토토로는 소녀의 수호신처럼 어머니가 부재한 어린아이의 불안과 상처를 보듬어 주는 그야말로 이웃집에 살 법한 친근한 존재로 등장한다. 불안을 자극하는 것이 아닌 감수성을 불러일으키는 정령의 존재는 작가의 상상 속에서도 등장한다.

일본 애니메이션을 지칭하는 대중문화 '아니메'를 작업으로 끌어온 다양한 현대미술 작품들이 등장한 것은 꽤 오래된 일이다. 애니메이션이 갖는 환상적인 기법과 마이너리티적 감수성은 환상과 실재, 무거움과 가벼움, 존재와 비존재의 문제를 다루는 것에 있어 작가들의 창의력을 이끌어내는데 효과적이었다. 특히나 오타쿠 문화로 지칭되는 소수자들의 마이너리티적 감수성은 주류에서 벗어나 있는 작가들에게 새로운 스타일의 문화와 실천을 가져오는 바탕이 되었다.

숨겨진 존재인 몬스터와 오타쿠 문화를 차용한 작가의 작품은 작가의 불안한 성장기를 표현하고 있다. 혼자일 때가 많았던 어린 시절을 보낸 작가는 친구의 부재와 외로움을 그림과 몬스터로 채웠다고 한다. 사실 작가들의 이러한 성장기가 작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극히 도식적인 접근이다. 어릴 적 외톨이였던 젊은 작가가 자신의 작업의 실마리로 당시의 경험을 이용한다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그렇게 주눅들어있던 어린 시절의 경험을 작가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억으로 삼는다는 것이 중요하다.

자각된 스스로의 판단으로 작가는 자신의 경험과 감수성을 작품의 소재로 삼는다. 회화 작품 전반에 있어 색채의 다양함은 배제되고 서양화를 전공한 작가임에도 먹을 다루면서 붉은색과 먹색, 푸른색과 먹색 두 조합 정도로만 간결하게 그린다. 개성이 화려하게 드러나지 않는 담담한 표현은 감정을 억제하는 작가의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작업에 대한 욕구와 성취를 위한 노력도 보이는데 이번에 선보이는 유리상자 설치작품이 바로 그것이다.

작가는 이번 설치작품에서 '인연'을 다루고자 했다고 한다. 인연이란 소통을 뜻하는 것으로 작가는 세상과 소통하는 과정에 스스로가 더 단단해진 존재가 되길 원한다. 사람은 수없이 많은 네트워크 속에서 살아간다. 그 그물망들은 마치 거미줄처럼 촘촘히 이어질 때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강하게 살아가게 하는 바탕이 되게 한다. 그러나 그 그물망도 시작점이 있어 지지하는 힘을 받는 것이고 그것이 끊어질 때 완전히 무너지고 만다. 즉 '나'라는 존재를 바로 이해하는 지점이 필요한 것이다. 그 다음 불안의 균열이 생겼다 메꿔지고 조금씩 욕망을 드러내는 한 인간이자 작가의 성장이 새로운 '인연'을 통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유리상자 속 투명한 5m의 몬스터는 채워지지 않은 채 속을 드러내놓고 있다. 그 속을 또 다른 몬스터들이 스며들고 침투하고 다가가는 모습으로 이번 작품은 구성되어 있다. 왜 몬스터인가. 아직은 자신의 본모습에 대하여 고민을 품고 있을 작가가, 내재한 욕망의 꿈틀거림을 몬스터로 빗대어 상상해 본 것이리라. 이제는 좀 더 외롭지만 쿨하게 스스로의 상처와 본성을 드러냄에 주저하지 않는 자신의 개성을 뽐내는 몬스터가 완성될 것이라 생각한다.

–대구미술관 큐레이터 / 권성아–

2013.7.26 Fri ~ 9.1 Sun 아트스페이스 (2F)

모여라 꿈동산

코디네이터 박민경
비평가 권성아

전시소개

2013년 전시공모 선정작중, 네 번째 전시인「2013유리상자-아트스타」Ver.4展은 회화를 전공한 이재호(1986년生) 작가의 설치작품 "모여라 꿈동산"입니다. 이 전시는 '결여' 요소들이 사람들과의 '관계' 경험을 통하여 존재 가치를 회복할 수 있다는 작가의 개인적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작가는 어린 시절 성장과정에서 느꼈던 자신의 '결여'를 만남의 '관계'에 의해 '남다름'으로 인식하는 중요한 경험을 하면서, 현대사회의 '결여' 문제들을 새로운 가치문제로 바라볼 것을 제안합니다.

작가의 제안은 6개의 다리를 지닌 특별한 고양이 인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마땅히 있어야할 앞다리 두개가 없이 태연히 앉아있는 고양이의 사진을 우연히 접하면서, 작가는 남들과 다르다는 것이 숨기거나 불안해할 일이 아니라, 자신 그대로의 담담한 삶이며 오히려 새롭고 재미있는 삶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술가로서 작가는 그 고양이에게 특별함을 부여하고자 4개의 다리를 추가한 6족 봉제고양이인형을 제작하였고, 이들에게 자신의 어릴적 애칭인 '호야호야'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는 결여된 상태를 특별하게 여기고 새로운 사건의 계기로 삼으려는 작가의 의지를 캐릭터로 형상화한 것입니다.

이 전시의 설계는 7미터 높이의 천정과 사방이 유리로 구성된 전시 공간에 높이5미터 폭3미터 크기의 거대한 투명비닐 광고풍선과 그 풍선의 안팎으로 가득히 설치한 흑색과 백색의 '호야호야' 고양이인형 무리가 기본적으로 설정됩니다. 큰 광고풍선은 만화 속에 등장하는 고양이 캐릭터 인형처럼 단순하지만 거대한 형상에 어울리는 위엄을 갖추었습니다. 그 내부와 주변의 400여마리 6족 고양이들이 이 광고풍선을 향하여 몰려들 듯이 혹은 풍선을 지지하며 구축해가는 형상이 이번 전시의 주된 이미지입니다. 작가에 의하면 각각의 6족 고양이들은 작가가 고양이에게 부여한 관계 의미처럼 대화와 소통의 만남으로 특별해진 개별 시공간 단위의 경험체입니다. 이들 경험이 쌓이면서 좀 더 온전해지는 인간 존재처럼, 거대한 광고풍선의 입체적 외형이 점점 부풀어 올라 위엄 있는 형태를 갖춰가는 반복 동작이 작가의 믿음 프로세스일 것입니다.

유리상자 안에 펼쳐진 '모여라 꿈동산'은 좌절하고 다시 회복하기를 반복하는 자신의 내적 성찰 과정을 '관계'라는 현실 태도에 대응시키는 표현이며, 치유와 성장을 지향하는 우리 자신의 거울보기입니다. 작가가 다루려는 것은 경쟁과 성공에 의해 가려지거나 밀려났던 개별체와 환경 사이에 작용하는 '관계'의 가치에 관한 것이며, 꿈을 향하는 인간 삶의 역사에 관한 감성적 기억들입니다.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는 태도와 주변과의 관계 짓기를 되돌아보게 하는 이번 유리상자는 자신의 미래가 펼쳐질 세계와 소통하려는 예술의 인간적 성찰을 스미듯 떠올리게 합니다.

-정종구-

모여라 꿈동산 가변설치, 공기조형물, 봉제인형, 조명, 5m, 2013

봉산문화회관기획 전시공모 선정작가展 '도시정원에서 만남'

2013 GLASS BOX ARTSTAR Ver.5

Suh, Sanghee

기억 속의 집, 집 속의 기억

서양화 전공으로 학부와 석사를 졸업한 서상희는 현재 박사과정에서 미디어를 전공하고 있다. 긴 시간 학업에 전념하며 창작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한 그는 '2013유리상자-아트스타' 프로젝트를 통해 그간 고민해 온 잠재된 기억을 집의 형상에 담는다. 이번 전시에서 그가 보여주려는 작품테마는 '집'이다. 그런데 그의 집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현실에 존재하는 집이기 보다는 자신의 기억 속 어딘가에 내재되어 있는 집이다. 그 집은 의식의 껍질을 벗겨 잠재된 기억의 단층을 하나씩 꺼내어 구성한 서상희의 집으로 과거의 잠재된 기억과 새롭게 쌓여가는 기억이 교차하면서 만들어지는 '기억 속의 집, 집 속의 기억'이라 할 수 있다.

집(House)은 우리가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공간이다. 그리고 나와 가족과의 정서적인 유대가 만들어지면서 몸과 마음이 자라는 터전(Home)이다. 그런데 서상희의 집은 어떤 의미의 집일까? 그의 작품은 따뜻한 사랑과 즐겁고 행복한 집, 인간적 냄새가 풍기는 기억속의 집은 아니다. '할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집 속의 기억이 담긴 공간이다. 작가는 할아버지의 집이 주는 잠재된 기억의 공간을 '기억 속의 집이거나 집 속의 기억'으로 재현하고 싶었다고 한다. 그의 기억 속의 집에는 할아버지와의 추억과 미묘한 가족 관계 등 어린 시절의 감성과 트라우마가 고스란히 간직되어 있다. 그런데 이 기억이라는 것은 실상 성격이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왜곡되거나 변화하기도 한다. 우리가 말하는 기억은 뇌의 한 부분에 저장된 작거나 큰 흔적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과거의 인상과 경험은 기억으로 저장되면서 의식과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실재와 허상을 통해 재구성되기도 한다. 그래서 기억 속의 아름다움, 과거의 경험 중에서 기억하고 싶은 것이거나 더욱 강조하고 싶은 것을 확대해서 떠올리게 된다. 이를테면 크고 작은 잔상들과 어렴풋하게 느껴지는 과거의 냄새, 숨어있는 비밀과 드러나는 현상 등은 왜곡된 기억이 실타래처럼 엉켜있거나 쪼그라든 주름처럼 뭉쳐있는 것이다. 서상희의 경우도 '집'이라는 기억은 늘 어떤 감성적인 만남과 이별을 수반하고 또 사건과 상황을 먼저 떠올리게 하는 실타래나 주름처럼 복잡한 감정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이는 누구나 경험하는 가족 간의 소통과 불통, 그에 따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족 구성원들의 방어기제가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을 스스로의 방식으로 담고 있고, 이러한 기억은 '기억' 속에 있는 집과 '집' 속에 있는 기억을 통해 집에 대한 기억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이번 유리 상자에 설치한 작품은 기존에 했던 '할아버지의 집' 시리즈와 맥락을 같이 하지만, 투명한 유리 상자와 기억의 공간이라는 점을 좀 더 강조했다고 한다. 이러한 관계의 해석은 그의 작업과정을 통해 나타난다. 그것은 회화적 평면성에서 출발하여 가상의 이미지가 디지털 작업을 거쳐 3차원의 공간으로 새로운 변화를 거쳐 설치된다. 다시 말하면, 직접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디지털화하여 컴퓨터에서 이미지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조작한다. 이 과정에서 평면그림이 수많은 레이어로 쪼개지고 붙여져서 다시 태어나는데 작가가 가장 애착을 가지고 작업하는 부분이 이 가상공간을 만드는 작업이다. 이 가상공간에서 그의 주름진 기억은 조금씩 펴지며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무구한 상상력을 집중적으로 발휘한다. 감성과 이성 그리고 기억이 교차하며 만들어진 비실재적 실제는 설치를 통해 다시 실제로 존재하게 된다. 지붕, 창문, 기둥 등 기억의 파편들이 복사되어 투명한 아크릴판에 붙여지고 매달리면서 하나하나의 조각 서로를 비추고 결합하면서 '할아버지의 집'으로 그 하나하나가 다시 새로운 풍경이 되어 하나의 '집 속의 기억'이 된다.

서상희의 작업은 봄꽃이 떨어지고 열린 풋과일과 같다. 지나온 길보다 가야할 길이 더 많기 때문이다. 학업에 대한 열의가 창작으로 피어나면 마치 뜨거운 한 여름의 햇살을 담고 담아 풍성한 가을의 열매로 익어갈 것이다. 신진작가의 작업은 마치 지나온 기억의 한 부분을 들춰보는 것처럼 익숙한 것과 풋풋한 신선함이 있다. 이 신선함은 유리 상자 너머로 환하게 비치는 비밀스런 '기억 속의 집, 집 속의 기억'에 담겨 있다. 그 기억의 흔적을 몸과 마음이 담긴 기억의 집으로 담아내는 의미 있는 출발을 하였다.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며 그가 만들어가는 '집'이 몸과 마음이 자라는 터전이길 바란다.

–아트스페이스펄 큐레이터 / 정명주–

작가노트

나의 작업은 기억의 공간이며, 공간에서의 기억으로부터 출발한다. 집은 그 공간 속의 사람, 사물의 살아온 흔적이며, 그 모양 역시 다양하다. 일상을 가능하게 하는 정신적인 바탕이 되기도 한다.
집을 작업의 주제로 선정하게 된 결정적인 모티브는 유년시절의 할아버지 집이다. 오랜 시간이 물씬 느껴지는 대문과 담장 너머로 보이는 잎이 무성한 나무들, 대문이 열리는 두껍고 경쾌한 소리, 정각을 알리는 뻐꾸기시계, 굵은 나뭇가지에 매달아 놓은 그네, 몇 마리의 물고기가 놀고 있는 작은 연못, 우산을 가지고 나와서 잔디밭에서 나만의 집을 만들어 놀던 일들, 등 나에게 있어 집은 추억이며 낭만이고 '따뜻함의 대명사'가 된다. 현재 그 집은 그 자리에 있지 않다. 없어졌다. 오직 나의 기억 속에만 오래된 흔적처럼 존재하는 집이 되었다. 없어진 집을(나의 기억에 남겨져 있는) 어쩌면 다른 기억과 혼합되어 있는 이미지들을 상상하여 표현하면서 순간의 판타지 같은 공간으로 다시 살아나길 바라는 것일까?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지도 모르겠다.

–서상희–

2013.**9.13**Fri ~ **10.20**Sun 아트스페이스 (2F)

그곳, 집

코디네이터 석아름
비평가 정명주

전시소개

2013년 전시공모 선정작 중, 다섯 번째 전시인「2013유리상자-아트스타」Ver.5展은 회화를 전공한 서상희(1986년生)의 설치작품 "그곳, 집"입니다. 이 전시는 기억 속의 추억 공간으로서 '집'을 해체적으로 조형화하는 작가의 행위에 주목합니다. 무의식적인 기억 편린들이 현실 상태로 조직화되는 찰나처럼, 작가는 집의 이미지를 드로잉하고 여러 레이어로 재생하면서 그 이미지들 사이에서 발현되는 미적 쾌감을 현실의 선택적 공간 속으로 이끌어냅니다.

작가가 제시하는 전시 설계는 자신의 드로잉에서 찾아낸 회화적 감수성에서 나아가 '드로잉하기'와 '설치하기'의 신체적 행위에 대한 의미를 담론화하며 시작합니다. 대략 7미터 높이의 천정과 흰색 바닥, 사방이 유리로 구성된 전시 공간에 매달린 이미지 레이어들, 물론 각 레이어는 '집'에 관한 작가의 심리적 표현이겠지만 상상, 재미, 낭만, 조형미 등으로 부연할 수 있는 회화 흔적들의 매력을 드러내거나 아예 그 매력들의 에너지를 집약하여 허공에 드로잉 하듯 하면서 분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구조만 남기고 소멸 혹은 해체된 비현실적 상태의 집으로 설정합니다. 작가는 긋고 칠하는 자신의 미술적 행위 에너지를 평면 위에 각인하고, 그들이 서로 균형과 변화를 견주며 입체적인 레이어로 위치하도록 조직합니다. 또 그 각각의 평면 레이어와 틈 사이에 건너편의 다른 레이어 혹은 주변 풍경을 지속적으로 담아내고, 의도하지 않았던 매력들을 재발견하는 이미지 틀로 장치하면서, 추억이라는 시공간을 재생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그는 이 드로잉 레이어들을 통해서 우리를 둘러싼 환경으로서 순수 원시조형의 해체와 재조직을 실험합니다. 평면 회화에서처럼 3차원 입체공간에서 이리저리 회화적 조형을 실험하는 이 행위는 작가의 시원적 신체감각을 찾으려는 유쾌한 놀이처럼 보입니다. 작가에 따르면, 그의 '그곳, 집'은 지금은 만날 수 없지만 과거 자신을 사랑해주시던 할아버지와의 정감어린 추억, 예를 들어 대문, 담장, 나무, 시계, 그네, 작은 연못, 잔디 정원 등에서 떠올리는 따스한 냄새과 그것이 사라진 허망함이 겹쳐진 해체된 기억들을 소재로 합니다. 집은 옛 추억이 가득한 시공간이기도하지만, 인간 삶의 성장과 정서를 구축하는 매개공간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작가는 자신을 알기 위하여 집을 그리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에서 집은 해체된 기억과 그 상상에서 기인하는 행위 에너지에 관한 매력적인 자기 기록일 것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집'은 존재와 해체를 참조하는 조형 놀이이며, 그 흔적이 다시 기억되기를 반복하는 작가의 심리적 환상을 재구성하는 행위적 '사건' 혹은 예술 '실험'입니다. 그가 다루려는 것은 이성적인 해석에 의해 가려지거나 삭제되었던 소중한 미적 쾌감과 순수 행위에 관한 것이며, 거칠지만 인간 성장에 관한 감성적 기억들을 달아내려는 에너지입니다. 과거를 기억하며 현재의 성장을 이으려는 이번 유리상자는 미적 신념을 소통하려는 예술의 실험 가치를 생각하게 합니다.

-정종구-

그곳, 집 acrylic board, paper, 먹, acrylic, oil pastal, variable installation, 2013

봉산문화회관기획 전시공모 선정작가展 '도시정원에서 만남'

2013 GLASS BOX ARTSTAR Ver.6

Woo, Jaeoh

불편함, 소통의 또 다른 방식

작가 우재오는 진지하다. 그의 언어는 감각에 기대어 가벼움을 노래하거나 삶이 탈색된 형식에 매몰되지 않는다. 삶의 구체성에서 끌어낸 그의 기호들은 상징적 의미를 지닌 채 얽혀 있고 그 진지함만큼 그의 사유는 깊은 호흡을 담고 있다. 그는 가상의 세계를 그려내기보다 있음의 세계를 드러냄으로써 존재사건을 불러 세우려한다. 사진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한 작가는 주제를 형상화시키기 위해 일상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설치작업을 한다. 지금까지의 작가의 작업을 관통하는 주제는 자연, 나, 종교로 압축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주제들은 맞물려 있다. 종교를 주제로 한 작업이 타자를 향해 열린 공간의 탐색이라면 자연은 '나' 자신으로 향한 시선이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는 공간이 된다. 스스로를 내려놓음으로써 마련되는 타자의 자리는 자연에 대한 탐구를 종교로 향하게 한다.
우재오는 자연과 인간을 분리하지 않는다. 그에게 자연은 작가 자신이자 우리 자신이다. 그는 자연에게서 인간을 보고 인간에게서 자연을 본다. 그리고 대상으로서의 자연에 대한 몰아세움이 자신에 대한 몰아세움으로 뒤바뀐 자리에 작가 자신을 세운다. 기 드보르가 말하는 현대적 생산조건들이 지배하는 사회, 삶 전체가 스펙타클의 거대한 축적물로 나타나고 삶에 속했던 모든 것이 표상으로 물러나는 세계에 살고 있는 작가는 스펙타클한 이미지를 통해 위로를 건네기보다 이미지 뒤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라고 말한다. 있음을 있음 그대로 보는 것은 우리의 감성이 감당하기 불편한 자리이다. 그 불편함으로 길들어가는 감성을 흔드는 것. 이것이 작가가 스스로에게, 또 우리에게 내미는 위로의 방식이다.

나를 위한 위로

〈나를 위한 위로〉는 작가가 2010년부터 자연과 인간을 주제로 해온 일련의 작업들의 변주다. 작가는 자연에 대한 개발을 스스로를 매몰시키는 병적 상태로 인식한다. 자연인 인간은 자신들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연으로서의 자신을 거두어들인다. 도시를 만들기 위해 대지로부터 우리 자신이 뿌리 뽑은 자연은 가공의 세계를 만드는 재료로 존재하고 도시는 스스로를 소진하여 건립하는 자연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작가는 채집된 사물을 이용하여 작업을 한다. 나무와 일체가 된 마네킹은 자연과 연결된 작가 자신이다. 모래를 이겨 붙인 마네킹의 몸통은 뿌리 뽑힌 나무 밑둥치와 연결된 채 전시 공간에 거꾸로 매달려있다. 스스로 치달아 온 둔중한 무게만큼의 공허를 품고 있다. 마네킹의 몸에서 뻗어 나온 가늘고 긴 가지들이 허공을 가르며 생명을 말하려 하지만 줄기와 잎은 시간의 흐름 속에 놓여 있다. 시간으로 있는 존재인 '나'는 시간을 초월한 너머의 세계로 고정될 수 없다. 작품은 자연의 존재 조건인 시간의 변화를 담고 있다. 자연으로부터 채취해온 나뭇가지와 뿌리들은 시간의 흐름을 따라 시들고 말라갈 것이다. 그리고 자연의 변형된 모습을 지닌 숯 또한 무로 향해 가는 흐름 속에 있다. 뿌리 뽑힌 자연인 '나'의 공허를 포장해줄 화려한 도시는 없다.
우재오의 작업은 전시공간인 유리 상자를 작품공간으로 끌어 들이면서 확장된다. 인공의 몸으로부터 뻗어져 나온 가지들은 투명함으로 열려있지만 입방체로 닫힌 유리 상자에 의해 뻗어 나갈 수 없다. 유리를 지탱하는 격자로 공간은 다시 틀 지워지고 삶의 생성을 마주하려는 분출은 시각적으로 열려있지만 실제로는 닫혀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것은 유리천정의 투명함으로 인해 차단된 세계를 인식하지 못한 채 생산구조 속에 남김없이 자신을 밀어 넣게 하는 삶의 환경을 보여준다. 여기에는 자신의 공간을 비집고 나와야만 하는, 질식할 듯이 살아가는 생명의 버거움이 있다. 투명한 유리 안에서 삶은 이미지로만 남게 되고 존재의 숨결을 마주할 수 없다. 자연으로서의 '나'의 암울함이 작가가 느끼는 암울함이다.

스스로를 포획한 우리의 초상

자연의 자리를 들어내고 세운 도시에 다시 이식된 자연은 축적된 자본이 만들어낸 이미지로서의 자연이다. 자연을 분리한 과학적 인식은 기술과 결합되면서 실용성을 추구한다. 하이데거가 말하는 '닦아세움'은 존재자가 기술과 과학에 의해 그것의 존재 의미를 부여받고 생산과 소비의 관점에서 있는 바를 그대로 두지 않는 상태다. 닦아세움은 타자를 대상화하고 도구화한다. 바꾸어 말하면 '나'는 타자의 도구로서의 실용가치만을 인정받는다. 그런데 한병철이 〈우울사회〉에서 그리는 후기 근대의 주체는 타자에 의한 강제를 자기 강제로 대체한다. 오늘의 생산구조에서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는 성과주체는 이제 자신을 긍정하고 해방시켜 프로젝트가 된다. 자유를 가장하여 완전히 타버릴 때까지 자기를 착취하는 프로젝트는 자기 자신에게 날리는 탄환이 되고 성과주체는 자기 자신에 의해 소모된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주체들은 대상이 없으므로 지향점도 갖지 못하는 중력 없는 상태, 모든 관계와 유대에서 잘려나간 상태에 빠진다는 것이다.
우재오가 보는 '나'는 자연과 나, 즉 타자와 대상이 분리되지 않는 지점에 있다. 대상으로서의 자연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하나인 자연을 보는 순간 자신에 대한 강제는 자연에 대한 강제와 등치된다. 타자에 대한 닦아세움은 자신에 대한 강제가 된다. 자신에 대한 공격은 타자에 대한 공격이 된다. 그가 도시의 정원에서 말하고자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포획된 오늘의 자화상이다. 이 사회가 구가하는 가치를 따라가기 위해 촉각을 세우고 그것을 획득함으로써 도취되기보다 바라봄으로써, 그 한계를 인식함으로써 문제 상황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계로 이동할 수 있다.

우재오는 이질성이 주는 충격보다는 이질적인 것들 사이에서 공동의 현존을 보여 주는 동류성의 놀이를 한다. 랑시에르가 말하는 신비의 전략에 가깝다. 뿌리 뽑힌 나무, 나무줄기의 가늘고 긴 선, 말라가는 잎, 빈약한 부피로 서 있는 숯, 잘려나간 마네킹 등으로부터 뻗어가야 할 유추의 간격이 넓지 않아 서술적이 될 수도 있지만 작가는 자신의 그러한 접근을 통해 감성의 재분할을 기입한다. 포스트모던의 의미 없는 이종교배의 놀이로 끌고 가기보다 상징적 언어로 의미를 찾는다. 그의 문제의식은 고리를 이루며 작품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어 오늘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불편한 자리에 우리를 세움으로써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가 타자에게 말을 건네게 한다. 아감벤의 말처럼 동시대인이 자신의 시대에 시선을 고정함으로써 어둠을 지각하는 자, 펜을 현재의 암흑에 담그며 써내려갈 수 있는 자라면 작가 우재오는 오늘을 살아가는 자로서의 몫을 하려고 하는지 모른다.

–미술평론(미학, 미술학) / 배태주–

2013.11.1 Fri ~ 12.8 Sun 아트스페이스 (2F)

나를 위한 위로
Consolation for myself

코디네이터 김안나
비평가 배태주

전시소개

2013년 전시공모 선정작 중, 여섯 번째 전시인 「2013유리상자-아트스타」Ver.6展은 사진작업으로 작가활동을 시작한 우재오(1975년生)의 설치작품 "나를 위한 위로"입니다. 이 전시는 자연自然을 대하는 작가의 태도와 자연을 뒤엎는 개발에 대한 작가의 반응에 주목합니다. 자연이 인간의 거처이자, 교감과 위로를 나눌 수 있는 힘의 원천이며, 인간과 분리될 수 없는 동일체임을 표상하는 이번 작품은 우리가 이행했던 도시로의 변變과 화化가 아름답거나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연의 원리와 중력을 거스르는 불안정한 소멸의 상처가 아닌가하고 질문합니다.

작가가 제시하는 전시 설계는 자기 안에서 발견해낸 자연과의 교감 유전인자, 그리고 '자연' 감수성으로 충만한 어린 시절의 기억에서 나아가 자연 중심의 '선택하기'에 이르는 자신의 태도를 시각화하려는 시도입니다. 작가는 나뭇가지나 뿌리 같은 자연의 일부를 작업의 재료로 취할 때, 자연을 향해 감사하는 의식을 치른다고 합니다. 자연을 대하는 작가의 이러한 태도는 자연생태계 안에서 자연과 동등한 구성 존재로서 한 인간의 관觀과 찰察에서 유추되는 자기 고백일 것입니다.

대략 7미터 높이의 천정과 흰색 바닥, 사방이 유리로 구성된 전시 공간에 매달린 3미터 크기의 인목人木 덩어리는 바닥에서 1미터 띄워진 상태에서 거꾸로 매달려 있습니다. 작가에 의하면 잔뿌리가 잘려진 나무의 뿌리덩어리와 인간 신체의 상반신이 합쳐진 인목 조각은 '나 · 우리 · 인간'이 '자연'과 하나라는 신념의 은유입니다. 이 인목 덩어리의 뿌리를 아래가 아니라 중력에 반하게 거꾸로 설치한 것은 아마도 동시대를 살고 있는 인간의 생生이 뿌리 뽑혀지는 파괴 현상과 불안을 구체적으로 시각화하려는 의도일 것입니다. 근원이 되는 힘을 거스르면서 하늘을 향해 뿌리를 드러낸 상태는 더 이상 생명 유지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인체의 왼쪽 팔에서 연장되어 자라나온 나무의 가는 줄기와 잎은 물기라고는 전혀 없이 메마른 상태로, 중력에 의해 아래로 처지는 가지를 강제로 끌어올려 위로 자라는 듯이 매달아 자연 생명의 조화 혹은 아름다움의 가시화에 기여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설정들은 도시건설이 내세우는 가시적인 자연미가 허구일 수밖에 없는 억지임을 역설합니다. 인목의 아래 바닥에는 검은 숯가루로 원 형태를 그리면서 그 가운데 숯을 심듯이 쌓아 도시빌딩의 형상을 보여줍니다. 숯이 나무의 생명에너지를 모두 소진한 상태의 흔적이라고 한다면, 작가가 보여주는 이 도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과격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진 '위로의 몸짓'은 파괴되어 해체되고 내쫓겨 사라진 자연, 동일체인 작가-'나'를 위로하는 '굿'이라 할 수 있으며, 참담한 현실 사건들을 지속적으로 피드백하여 신념과 논리의 상태에서 나아가 행위와 물질화에 이르게 하는 작가의 실천적 기록입니다. 결국, 지금-'나'의 과오에 대한 위로로 이어지는 이번 유리상자는 진정한 미적 신념에 소통하려는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질문하게 합니다.

-정종구-

나를 위한 위로 Consolation for myself mixed media, 2X2X5m, 2013

봉산문화회관기획 전시공모 선정작가展 '도시정원에서 만남'

2013 GLASS BOX ARTSTAR Ver.7

Lee, Sojin

어느... 파쿤의 성星

초등학교 미술 수업이었는지 실과 수업이었는지 모르겠다. 폐품을 이용한 공작 시간이 가끔 돌아왔다. 나는 예나 지금이나 손재주가 없다(그래서 미술 작가는 못되고 이렇게 글이나 쓰고 있지). 그때마다 내 책상 앞엔 늘 조잡한 쓰레기들만 가득 쌓이곤 했다. 딴 애들이 집에서 가져온 헌옷으로 예쁜 헝겊 달력을 만들 때 나는 넝마조각을 만드는 식이었다. 나는 물건이란 게 사서 쓰다 버리면 되지, 이런 일이 무슨 소용이 있냐며 스스로를 위안했다. 지금도 그 생각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지금 이렇게 평론하는 입장이 되었다. 알고 보니까, 기성품을 본 쓰임새와 달리 새로운 형태나 의미로 다시 탄생시키는 작업은 여기 미술계에서 공공연한 일이었다.

그것이 사회 제도로 자리 잡은 그 먼 옛날부터 예술은 실용성을 담보로 두고 있기는 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중히 여겨지는 디자인의 심미성만 보더라도, 오래도록 폄하 당했던 소크라테스의 실용성 미학은 이제 예술의 중심으로 당당히 복권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반대 진영의 기세도 만만찮다. 화가이자 설치 작가인 이소진 또한 여기 서 있다. 그녀의 특기는 실생활에서 원래 용도를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작품으로 탈바꿈시키는 인스톨레이션 작업이다. 이 설치작들은 자신의 평면 회화 작업과 마찬가지로 화려한 색으로 치장되어있다. 겨울 시즌에 맞닿은 이소진의 작업은 차가운 금속 비늘과 새하얀 솜뭉치, 그리고 알록달록한 장치들이 차가움과 따뜻함의 대비를 보여준다. 그리고 그 안에는 재미있는 상징물(예컨대 팀 버튼 감독의 〈크리스마스의 악몽들〉을 연상시키는 형상들)이 곳곳에 배열되어 있다. 이것은 크리스마스 트리의 기묘한 메타포이다.

어린 시절을 떠올려보자. 우리는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행복함이라는 겉포장 속에 담긴 갖가지 감정을 느꼈다. 트리는 성탄절이라는 종교의식과 관련을 맺고 있지만, 그 유래는 기독교가 아닐뿐더러, 종교의 신성함과는 또 다른 차원의 의례적 질서 속에서 전통을 만들었다. 어쨌든 트리를 둘러싼 집 안팎의 공간은 뒤르케임(E. Durkheim)의 종교이론 식으로 말하자면 그것만의 독특한 장소적 현현이 벌어진다. 지금 어른으로 성장한 세대들이 즐기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는 사실 각자 어린 시절의 그 무렵으로 돌아가려는 퇴행이다. 이는 영화 〈시민 케인 Citizen Kane〉에서 주인공이 죽기 전에 말한 '로즈버드'의 실체[1] 와도 같은 것이다. 이소진의 작품 〈어느...파쿤의 성星〉도 우리를 유년기의 행복했던 어느 한 때로 데려다주는 장치이다. 파쿤은 애니메이션 〈이상한 나라의 폴〉에서 폴과 니나를 4차원 세계로 데려다주는 인형 이름이다. 따라서 작가와 코디네이터(그 또한 좋은 작가인 이은재)가 완성한 이 작업은 우리를 환상의 세계로 들어가게끔 하는 문턱인 셈이다. 그것은 〈나니아 연대기 Susan of Narnia〉의 장롱이나 〈닥터 후 Dr. Who〉에서 경찰 전화박스 모양의 타임머신 타디스(Tardis), 혹은 〈황금 나침반 His Dark Materials〉의 금색 나침반, 〈반지의 제왕〉의 반지와도 같은 매개체다.

그녀의 작품은 조곤조곤 많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한다. 아마도 이소진 작가 본인이 작가노트를 통해 그 이야기를 담아낼 게 분명하고, 유리상자의 전체 기획자인 정종구 선생도 할 말이 많을 것이다. 여기에 내가 이렇게 말을 보탠다. 담론이 흥하는 것은 작가에게 나쁜 일이 아니지만, 한 편에서 그녀는 두려워한다. 너무 많은 표현과 해석은 자칫 작품을 난삽하게 보일 우려가 있으니까. 나는 이번 전시에서 기획자도 아니고 큐레이터도 아니다. 하지만 내가 그 입장이었더라면 절제에 관한 강박을 갖지 말라고 북돋웠을 것이다. 하던 걸 안 하면 병난다. 〈어느...파쿤의 성星〉은 양혜규의 설치 작업처럼 여러 레퍼런스에 기대어 중첩된 콘텍스트를 창조하지만, 마치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목성에 우뚝 선 모노리스처럼 그녀 스스로의 작업 과정에 뭔가 기념비적인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단순한 게 좋다.

앞서 밝힌 바대로, 그녀가 애당초 형상화하려 한 레퍼런스는 〈이상한 나라의 폴〉이다. 하지만 작가는 이 애니메이션 스토리를 작업 초반에 제외했다고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가 매혹된 〈이상한 나라의 폴〉에 관한 미완성의 이미지는 우리가 여전히 기다릴 가치가 있다.). 그 대신 보충된 텍스트는 안데르센의 동화 〈눈의 여왕〉이다. 냉혹하면서도 관능적인 〈눈의 여왕〉 이야기는 동서고금을 가리지 않고 등장하는 안티 히로인의 이미지로 자리 잡았다. 블라디미르 프로프의 민담 형태소 분석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눈의 여왕은 예컨대 〈나니아 연대기〉에 나오는 못된 여왕으로부터 넥스트의 노래 〈사탄의 신부〉에서 언급되는 '한 겨울의 여왕'에 이르기까지 대중문화의 전형적 캐릭터로 우리에게 친숙하다. 작가는 눈의 여왕이 품은 얼음과 불의 성정을 유리상자 안에 실현했다.

작가는 이 특별한 전시에서 하나의 장르로 판타지(환상) 미술을 창조하려고 한다. 우리는 판타지 문학, 판타지 영화와 같은 말은 쓰지만 판타지 미술이란 말을 쓰지 않는다. 서사 양식으로 구성된 예술에서는 환상이 하나의 주제가 되지만 조형예술은 재현하려는 대상과 작품의 결속력이 애당초 훨씬 자유롭기 때문이다. 환상은 공포와 아름다움과 아이러니를 동반한다. 이런 요소들은 이소진의 미술 속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상징과 은유로 가득 차 보이는 그 작업도 실은, 예컨대 레디메이드 개념 미술, 여성해방론과 같이 정형화된 개념과는 무관하게, 환상 속 세계를 필연적으로 이끌어 내는 주술적인 힘이 직설적으로 서려있다.

–갤러리 분도 아트 디렉터, 예술사회학 / 윤규홍–

1)언론 재벌 찰스 포스터 케인이 가난한 어린시절 타던 허름한 나무썰매에 붙여진 이름이 로즈버드였다.

2013.**12.20**Fri ~ 2014.**1.26**Sun 아트스페이스 (2F)

어느...파쿤의 성星

코디네이터 이은재
비평가 윤규홍

전시소개

2013년 전시공모 선정작 중, 일곱 번째 전시인 「2013유리상자-아트스타」Ver.7展은 회화를 전공한 이소진(1983년生)의 설치작품 "어느... 파쿤의 성星"입니다. 이는 화려한 색상의 '실'을 이용하여 유무형의 다양한 '무엇인가'를 결속시켜 만들어낸 작가의 '별'이며, 과거 유년시절의 어느 시점과 동심을 기억하게 하는 매개 수단입니다. 따뜻하고 순수함이 충만했던 '소중한 찰나'를 영원하게하려는 '작은 소망'들을'별'로 묶어 투명한 유리상자에 보존하려는 행위는 작가 자신과 우리, 세계에 작용하는 오래된 '환상'의 그물망을 '나' 자신의 소망 도구로 탐구하려는 작가의 예술적 제안이기도 합니다.

이번 전시는 사방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유리상자 공간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담아내려는 작가의 내부적 요청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곳 유리상자 안에는 알 수 없는 형태들과 여러 갈래의 촉수가 결합한 흰빛 생물체가 있습니다. 미지의 바깥 어딘가를 향하여 바닥으로부터 거슬러 오르려는 흰색 해파리, 혹은 뒤집어져 부유하는 흰 꽃과 씨앗, 붉은 꽃잎을 닮은 이 생물체는 작가의 머릿속에서 환상과 상상기억의 자동 기술로 그려놓은 유기체적인 회화입니다. 높이 5m정도의 이 조형물은 눈처럼 얇게 하늘거리는 종이, 붉거나 핑크빛의 털실, 비늘처럼 반짝이는 알루미늄조각, 장식용 컬러스펀지, 표면이 매끈한 붉은색 플라스틱 호스 등을 털실로 일부 감아 연결하였고, 그 아래바닥에는 흰 눈을 연상할 수 있도록 연출하였습니다. 또, 간단한 에스키스를 현실 공간 속에 옮겨가며 오랜 시간동안 점차적으로 완성한 이 작업은 일종의 시공간 드로잉입니다. 이 드로잉은 미래에 대한 기이함과 불확실성에 관한 예민한 감성이며, 현실에서의 결여와 한계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따뜻하고 순수한 '순간'의 회복이고, 그 찰나의 시간을 정지시키고 영원히 현실세계 위에 재생하려는 '소중한 순간'의 보존 행위입니다.

작가가 말하는 '파쿤'은 어느 만화영화에 나오는 봉제인형의 이름이지만 그 속에 '이상한 나라'에서 온 정령이 깃들어, 말을 할 줄 알고 시간을 정지시키는 능력을 가졌으며 마술봉으로 바닥을 쳐서 이상한 나라로 가는 통로를 만듭니다. 작가는 파쿤 인형을 매개로 어린 시절의 동심과 환상, 몇 가지 다른 동화를 결속하고, '실'을 이용해 다양한 오브제들을 물리적으로 결속하여 '파쿤의 성星'을 구축합니다. 관객이 기대했던 환상의 연결고리를 찾고 생생한 만남을 나누는 이 구축 행위는 작가만의 '별'에서 확장된 우리 모두의 '어느... 파쿤의 성星'로 나아가려는 기원이기도합니다.

-정종구-

어느..파쿤의 성星 Mixed Media, 3X5X9m, 2013

2014

GLASS BOX ARTSTAR

2014유리상자-아트스타

Ver. 1
로미아키투브-Memory's Stain 기억의 흔적
2.14- 4.13

Ver. 2
배문경-Cloned me
4.25- 6.22

Ver. 3
Rohan-우리 인생의 특정 시점에
특별한 영향을…
7.4- 8.31

Ver. 4
서성훈-반야월 4.0 LIVE
9.19- 11.16

Ver. 5
정혜련-연쇄적 가능성 Serial possibility
11.28- 1.25

올해 10주년을 맞는 봉산문화회관의 기획「2014유리상자-아트스타」전시공모선정 작가展은 동시대 예술의 남다른 태도에 주목합니다. 올해 전시공모의 주제이기도 한 '언제든지Whenever'는 우리시대 예술에 대한 공감을 비롯하여 '도시'와 '공공성'을 주목하는 예술가의 태도와 역할들을 지지하면서, 현대예술의 '스타'적 가치를 지원하는 의미입니다.
4면이 유리 벽면으로 구성되어 내부를 들여다보는 관람방식과 도심 속에 위치해있는 장소 특성으로 잘 알려진 아트스페이스「유리상자」는 어느 시간이나 전시를 관람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시민의 예술 향유 기회를 넓히는 데 기여하고,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예술가들에게는 특별한 창작지원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예술지원센터로서 더 나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공모에 의해 선정된 참신하고 역량 있는 작가들의 작품 전시를 지속적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개관10주년 봉산문화회관기획 전시공모선정작가展 '언제든지Whenever'

2014 GLASS BOX ARTSTAR Ver.1

Romy, Achituv

Memory's Stain

'2014 유리상자 – 아트스타'의 서막을 여는 로미 아키투브(Romy Achituv)의 'Memory's Stain'(기억의 흔적)은 대구지하철사고 11주기 기획전 〈CMCP〉와 연계된 스테인드글라스 설치작품이다. 작가는 무엇보다 참사현장과 그 주변에 그것을 기념할 만한 것이 부재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유리상자를 한시적인 예술적 기념비로 전환하여 '기억'과 그 '흔적'의 다양한 층위를 미학적으로 다룬다. 아키투브는 이스라엘에서 조각과 철학을 공부한 뒤 1989년 뉴욕으로 건너가 계속 조각을 공부했다. 아키투브는 뉴미디어(new media)에서 새로운 예술적 잠재력을 찾았고, 곧 뉴욕대학의 석사과정(ITP)에 들어가 컴퓨터, 마이크로프로세스 프로그래밍, 센서 테크놀로지, 미디어-에디팅 소프트웨어 등을 공부했다. 그 무렵 아키투브는 동료 탐 이고에(Tom Igoe)와의 협업작품, 'BREATH'(1995-6)을 제작하게 되는데 여기서 자신의 관심은 '미디어'와 '개념' 사이의 '공생'의 문제를 다루는데 있었다고 밝힌다. 그리고 작가는 "호흡은 삶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다 ... 그것은 상징적으로 아주 강력하며, 나는 그것을 기억과 유사한 방식으로 사용한다"고 하고, "삶의 유지에서 호흡의 필연성은 역사의 기억을 유지하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1] 우리는 여기서 아키투브가 왜 단순히 미디어 아티스트로 불리는 것을 거부하는가와 어떻게 '기억'의 문제에 접근하는가를 엿볼 수 있다.

아키투브의 보다 중요한 작품은 2007년 이스라엘 갈릴리의 (홀로코스트와 유태인의 저항유산을 기리는) The Ghetto Fighters' House 미술관에서 전시된 'The Hall of Memory'(기억의 전당) 프로젝트인데, 이 프로젝트는 두 가지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하나는 제도로서의 미술관이 갖는 항구적 제약에 굴하지 않고 '역사의 층위'에 구체적 형식을 예술적으로 부여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작가는 어두운 공간에 서있는 관객들이 터치패널과 상호작용하여 투명한 서랍과 상자에 안치된 역사적 유품을 조명할 수 있게 하고, 그리하여 안내 없이 스스로 전시의 내러티브를 통제하고 홀로코스트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작가는 – 2차세계대전 이전 유럽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유태인이 살았던 4500여개의 마을이름을 히브리어와 현지어로 보여주는 – 대형 디지털스크린을 설치하여 전당의 벽면을 압도하는 방식으로 미술관의 한계를 극복하려 했다. 스크린바닥에 있는 무작위의 글자무리로부터 푸른 글자들이 천천히 상승하면서, 순간적으로 모여들어 도시와 마을 이름들을 형성했다가 다시 해체되어 사라진다. '기억의 전당'은 회상을 위한 인터렉티브 공간으로서 예술작품과 미술관의 숭고한 결합인 것이다.

이러한 작업경력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비로소 아키투브의 'Memory's Stain'의 작업의도와 접근방식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작가는 우선 유리상자라는 특수한 구조물을 지하철참사에 관련된 예술적 기념비로 (한시적이나마) 전환하게 되는데, 작가는 여기서 유리상자의 두 면(전면과 측면)을 스테인드글라스로 장식하고, 바닥에는 단색 대구시 지도를, 그리고 천정에는 강렬한 전구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기념비적 설치작품을 완성한다. 여기서 아키투브의 스테인드글라스 미학은 천상계(희생자)와 현실계(생존자)의 경계를 나누는 동시에 경계를 허무는 탈경계를 연출하는데 있으며, 이것은 참사의 역사, 기억, 그 흔적으로서의 현재를 모두 담지하는 효과를 산출한다. 작가는 또한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 제도로서의 미술관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는 문제에도 관심을 보인다. 기존의 작가들은 예외 없이 유리상자라는 물리적 공간에서 작품은 안쪽에서 전시되고 관객은 외부에서 바라보는 구조로 해석되어왔다. 하지만 아키투브는 'Memory's Stain'에서 이러한 공간해석에서 탈피하는 동시에 제작방식이나 관객의 참여방식에 있어서도 탈제도적이다. 요컨대 작가는 유리상자의 안과 밖의 경계를 허물고 작품의 외연이 자연스럽게 상자외부로 확장시키고 있고, 제작방식에 있어서도 30여명의 미술대 학생들이 레이저커팅 뒤 레터링 작업과 스테인드글라스 채색작업에 참여함으로써 공공미술, 관계예술의 성격을 띠고 있고, 관객들은 채색선을 좇아 직접 유리위에 각인된 이름을 터치하는 방식으로 감상하는 참여미술, 인터렉티브 아트의 성격을 띠고 있다.

Romy Achituv's 'Memory's Stain' - opening the 2014 Glassbox ArtStar Project at Bongsan Cultural Center - is a monumental piece mainly based on stained-glass, as it is also part of <CMCP>, a special exhibition that commemorates the 11th Anniversary of Daegu Subway Fire Incident in 2003. Aware that there exists nothing reminding us of the fire incident around the tragic spot, the artist sets out to convert the glassbox into a temporary artistic monument, by dealing with the issues of memory and its stain artistically. After studying sculpture and philosophy in Israel, Achituv moved to New York in 1989, and enrolled himself in Interactive Telecommunications Program in New York University where he was able to learn about micro-process programming, sensor-technology, media-editing software, etc. Then, he and his fellow, Tom Igoe made a collaborative piece, 'BREATH'(1995-6) in which he found it interesting to go over the issues of symbiosis between media and concepts, and of the memory of history. Achituv's more significant piece is 'Hall of Memory' project that was exhibited at the Ghetto Fighters' House in 2007, where the artist tried to give concrete form to the strata of history in a museum context without succumbing to the restrictions of the museum as an institution.[1] We here can see why Achituv wants to be called not merely a media artist but importantly a conceptual one, and how he approaches to the issue of memory and history.

Having briefly sketched Achituv's artistic career, we are in a better position to understand the intention and approach he has had in 'Memory's Stain'. The artist first builds up the two-sided stained-glass memorial wall in such a way that all the names of 192 victims with his or her date of birth and age are displayed doubly on each of the four columns of the facade with four brilliant colors such as red, orange, green, and blue; one vertical half of each column can be readable from the inside, while the other half can be legible from the outside of the glassbox. During the day, these letters and numbers will illuminate colorfully over the unfolded map of the city from the outside, while they also will reflect beautifully upon the courtside through the inside strong light at night. This artistic strategy leads viewers to interpret the multi-layed meanings of the history and memory of the tragic incident in their own perspectives. And the both sides of the glassbox are beautifully illuminated through the stained-glass, which will induce viewers to refl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bject (survivors and institutions) and the other (victims and their families), and on those that may have been otherized. Thus, Achituv's monumental project, 'Memory's Stain', is to present a dialectical aesthetics of the sublime on the basis of the coexistence of the unprecedented subway fire incident and the utmost beautiful four-color-stained-glass.

Meanwhile, the artist also shows an interest in the matter of dealing with the limitation of the art center as an institution. The annual ArtStar contest that Bongsan Cultural Center has held since 2007 designates for participating artists a huge glass-box as a specific condition for their artistic projects. But all of the participating artists have interpreted the glass-box as a dividing structure in such a way for artists to install their executed pieces inside, and for viewers to see them from outside. It means that the majority of artists and curators have been faithful to the established museum system as an art institution. However, in his 'Memory's Stain', Achituv gets himself out of such approach to the boxy space, and takes a post-art-institutional approach in not just the way artists execute their projects but also the way viewers appreciate them. By extension, the artist blurs the boundary between the inside and the outside of the glassbox in such a way to extend his piece out of the glassbox, and takes an approach to the project in such a way that about 30 local artists are led to participate in lettering procedures after laser-cuttings and stained-glass painting jobs, which is characteristic of 'public art' and 'relational art'. Viewers are also encouraged to put their fingers on the name, DOB, and age of each victim on the pane by following the colorful rays, which takes on 'participatory art' and 'interactive art'.

–미술비평 / 김기수 Art Critic / Kisoo Kim–

1) Ashley Rawlings, "Romy Achituv: Meditating Memory", in artasiapacific, 64, 2009, pp. 82-87. 작가에게, 방독면은 더 이상 자기보존의 도구가 아니라, 관객들로 하여금 역사와 공동의 기억을 은유적 방식으로 찾아보게 하는 총체적 수단이다.

2014.**2.14**Fri ~ **4.13**Sun 아트스페이스 (2F)　　**Memory's Stain / 기억의 흔적**

코디네이터 김기수
비평가 김기수

전시소개

2014년 전시공모 선정작 중, 첫 번째 전시인「2014유리상자-아트스타」Ver.1展은 이스라엘 출신의 미디어아티스트 로미아키투브Romy Achituv(1958生)의 설치작품 "Memory's Stain/ 기억의 흔적"입니다. 이 전시는 2003년 2월18일 발생한 대구지하철 화재참사에 대한 기억과 추모의 기념비이며, 그 '흔적'의 공유이자 화려한 색상의 스테인드글라스 '빛'을 이용한 성스러운 '집짓기'입니다.

이번 전시는 사방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유리상자 공간에 소중하고 가치 있는 '빛'을 품었다가 다시 내뿜게 하려는 작가의 매력적인 영감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곳 유리상자 안에는 화려하게 채색한 한글문자와 숫자로 구성된 유리벽면 채광, 그리고 그 그림자 빛들이 내외부 공간 구석구석에 환상처럼 스며있습니다. 마치 장식 문양처럼 보이는 이 문자 색면들은 올해 11주기를 맞는 대구지하철 참사 희생자 192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나이의 조합입니다. 벽돌을 하나하나씩 쌓아 집을 짓듯이 화려한 빛의 단위를 집적(集積)한 문자 그룹과 빛 그림자 레이어(layer)들은 작가가 설정한 기억 공간의 성스러운 신비를 간직합니다. 그리고 유리상자 내부바닥 공간은 채광 문자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대구지하철 노선도가 펼쳐져 그 날의 기억을 상기시킵니다. 한편, 작가는 외부 자연광에 의해 공간내부에 빛 그림자가 맺히는 '낮풍경', 내부 인공조명에 의해 역동적이고 환상적인 외부 빛 그림자를 수놓는 '밤풍경'으로 나누어 연속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다른 시각효과를 산출하도록 설정합니다. 또한 스테인드글라스의 특성을 통해 서로 다른 세계, 즉 생존자의 현실 세계와 희생자의 비현실 세계의 경계를 설정하고 동시에 탈 경계를 헤아릴 수 있도록 연출합니다.

작가가 제시하는 이 '집짓기'는 준비 과정에서부터 구체적인 접촉과 체험들을 요청합니다. 이 요청은 오랜 시간 설치 과정에 참여한 많은 이들과 우리를 자신의 기억, 이해와 반성의 과정 안에서 생생하게 살아나는 체험들을 세상에 드러내려는 움직임입니다. 또한 이른이나 지식, 허위나 언변에 의존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생명력 있는 빛의 공유와 공감의 전율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예술 형식의 빛으로 그 움직임과 전율의 능력을 기대하는 태도, 이것은 사람과 세상을 감쌀 수 있는 예술에 대한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시는 많은 이들의 일상 속에서 용기와 인내, 열정을 결속시킨 기념비적 '집짓기'이며, 지금 우리에게 희망을 전하고 삶의 가능성을 여는 새로운 시도로 기억될 것입니다. 작가의 이번 작업은 세계를 바라보는 작가의 태도와 예술 감수성의 현현(顯現) 그대로일 것이며, 관객이 자기 삶과 순수를 새롭게 성찰할 수 있도록 하려는 배려이기도합니다. 또한 우리들 마음과 기억의 특별한 가치를 상기시키려는 예술가 자신의 지속적인 성찰과 스스로의 환기 의지입니다.

-정종구-

Memory's Stain/기억의 흔적 Transparent acetate, Stained-glass paint vinyl lettering, Daegu subway map, Light, 5.2X5.8X4.9m(LxBxH), 2014

개관10주년 봉산문화회관기획 전시공모선정작가展 '언제든지Whenever'

2014 GLASS BOX ARTSTAR Ver.2

Bae, Moonkyoung

중첩과 반복으로 나를 만들다.

'유리상자'는 닫혀있으면서 열려진 역설의 공간이다. 작가 배문경은 이 공간에서 자유를 추구하는 자신과 이와 모순되는 획일적이고 동일한 이미지를 중첩시킨다. 그녀의 이미지는 현실의 무게를 넘어서서 당당히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자 하는 우리시대 한 젊음의 표상이자 사회적으로 인정된 삶을 획득하기 위해 최초의 꿈을 조금씩 도려내야 하는 현실의 표식이다. 두 팔을 허리에 올리고 비스듬히 시선을 향하여 서 있는 모습이 기계적으로 나열되어있는 그녀의 작품은 자신의 내면을 형상화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기능한다. 이 인위적인 획일성은 그녀가 사회와 동료,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강요당하는 하나의 바람직한 상인 것이다.

우리는 과연 시대가 행복으로 정의한 삶의 표준에 도달하기 위해 꿈꿔왔던 것들을 외면하거나 잠식시켜야 하는가? 공식화된 행복은 우리에게 같은 선택과 같은 꿈을 희망하고 흡사한 삶을 살도록 종용하고 있는데, 이는 차이와 다름이 우리를 사회 속에서 이질화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라는 모체를 구성하는 하나의 세포로서 그 기준에 부합되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를 타자와 동질화시켜야 한다. 작품 〈Cloned Me〉의 군상들의 병렬은 군인들의 사열을 연상시키지만, 작가가 보여주는 인체의 자세는 사회 내에서 동화되지 않은 채 자신을 지키려는 젊은 정신을 드러내고 있다. 기계적 동일화 속에 작은 저항의 몸짓은 짜여진 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보루로서 획일을 꿈꾸는 현 사회의 요구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작품은 획일성을 종용당하는 사회 속에서 부유하듯 존재하는 작가의 삶에 대한 자기고백적 이야기인 동시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확장될 수 있다. 이를 시각화하기 위해 작가는 규칙적인 간격으로 이루어진 아홉 개의 층계(floor)를 만들고, 그 속에 금속판의 차갑고 단순한 성질을 활용하여 복제된 자신의 실루엣을 층층마다 각기 다른 방향으로 수평 회전시켜 배치하였다. 이와 같은 중첩과 반복은 우리에게 안과 밖, 내면과 표면, 현전과 부재, 동일성과 차이와 같은 끊임없이 변주되는 이분법적 건축술의 뼈대를 보여준다.

동일성과 이질성의 양극을 보여주는 작품에서 필자는 얼핏 작품과 같은 운명을 한 우리 사회의 모습을 읽게 된다. 그것은 뿌리에서부터 상부로 이르는 탄탄한 진보가 아니라 근간(根幹)으로부터 잘려 나와 공중에 매달린 채 진보와 퇴보를 오가는 우리의 현재이며, 오로지 위로만 시선을 향하는 기성세대가 짜놓은 구조 속에서 저항을 꿈꾸는 우리시대 젊은이들의 안타까운 초상인 것이다. 재단된 금속판에 남겨진 흔적과 그 틈으로 새어드는 빛,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확장되어 나온 그림자의 조화는 현재를 살아가는 어느 젊은이의 형상을 제시한다. 이러한 익명성은 작품 앞을 서성이던 우리가 자신을 투영해 볼 수 있는 여백으로 역할 하는 것이다. 이제 재단된 형체는 하나의 이미지 모델로서 닮음을 목적으로 하는 복제가 아닌 원래의 근원을 뛰어넘는 새로운 이미지로 작품 자체의 자기정체성을 꾀하고 있다.

–미학 미술사학 / 박연숙–

전시소개

2014년 전시공모 선정작 중, 두 번째 전시인 「2014유리상자-아트스타」Ver.2展은 회화를 전공한 배문경(1988년生)의 설치작품"Cloned Me"입니다. 이 전시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에게 기대하는 보편적인 기준과 이에 관한 압력, 현실적인 긴장 등에 대처하는 20대 작가의 당당한 태도를 시각화한 것이며, '자기 복제'의 반복反復과 집적集積이라는 조형적 사태를 통해 기록되는 우리들의 '현재'에 대한 시 공간적 서술입니다.

이번 전시는 사방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유리상자 공간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자신의 '현재'를 담아내려는 작가의 소박한 설계에서 시작됩니다. 그가 그동안 자신을 관觀하며 찰察한 결과로서 제시하는, '나', '지금', '이곳' 유리상자의 '현재성'은 젊은 작가가 느끼는 위기감의 실체가 보편을 지향하는 사회적 획일성에 기인함을 직시하고 이에 관해 제고하는 지점입니다.

유리상자에 설치한 조형물은 수십 개의 모듈로 구성됩니다. 이 모듈 개체는 표면에 주변 환경 이미지를 반영하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얇은 직사각형 판재에 '인물 실루엣'을 레이저로 오려서 세우고 그 나머지 여백을 받침대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인물 형상 모듈들은 작가 자신의 전신 실루엣을 복제한 이미지로서 "옆을 보면서 양손을 허리에 받친 자신감 넘치는", "한 손으로 머리카락을 넘기며 멋을 내는", "양팔로 팔짱을 낀 채로 당당하게 응시하는" 3가지 당당한 자세로 디자인 되었으며, 금속의 강하고 차가운 속성에 더하여 여러 개를 병렬적으로 반복하며 일률적인 정사각형 형태로 조립되었습니다. 동일한 모듈의 반복으로 조립된 인물 판板은 다시 상하로 일정 간격을 두고 9개의 층으로 집적되는데, 천정에서 시작되는 부분과 바닥에서 가까운 끝 부분에 작은 크기의 정사각형 수평면 층이 있고 중간층으로 갈수록 점점 넓어지는 정사각형 수평면으로 구축되어, 전체적으로는 천정에 매달린 거대한 팔면체 큐브를 닮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팔면체 구조물을 반영하는 환상이 비치어 스며들듯이 다양한 크기의 인물 형상 모듈들을 리드미컬하게 정렬시켜 놓았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인물 실루엣' 모듈의 '반복과 집적'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작가가 설정한 이 사태들은 20대 젊음이 맞는 세상과의 관계 상황이자, 세상의 삶 안에서 '현재'의 질문과 제고가 필요한 우리 모두의 거울일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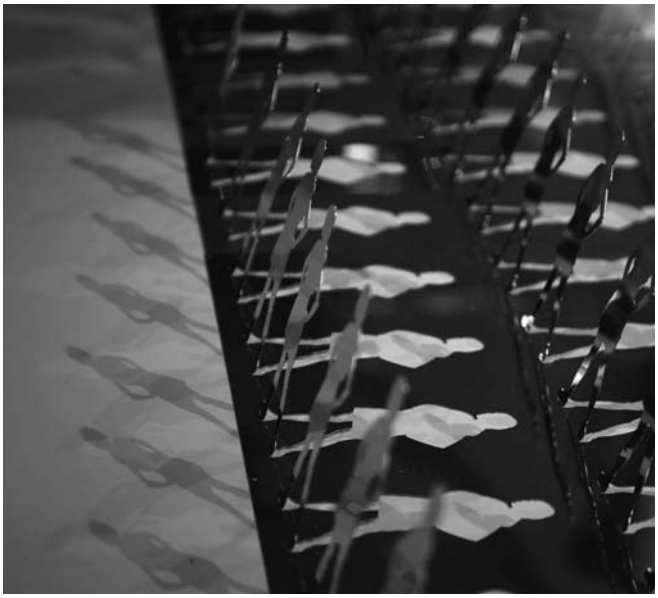
눈앞에 펼쳐진 '현재'는 자아와 존재의 모색을 참조하는 조형적 놀이이며, 작가의 심리적 환상으로 보이는 '자기 복제'를 재구성하는 행위적 '사건'의 흔적을 통하여 나로부터 확장된 우리에게서 다시 성찰되기를 기대하는 예술 지향적 '시도'입니다. 그가 다루려는 것은 보편적이고 이성적인 혹은 관습적인 해석에 의해 가려지거나 제거되었던 소중한 미적 쾌감과 순수 선택에 관한 것이며, 거칠지만 자기 성장에 관한 감성적 유효성들을 되찾으려는 에너지입니다. 현재를 기억하며 미래의 성장을 기원하려는 이번 유리상자는 경계 없는 예술 실험의 가치를 떠올리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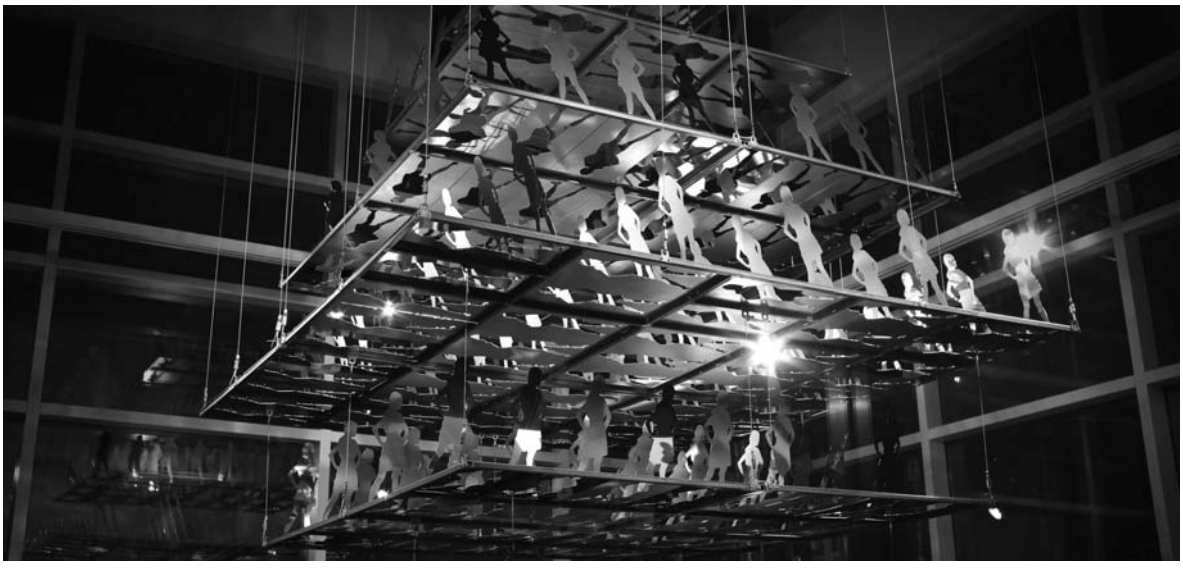
–정중구–

2014.4.25Fri ~ 6.22Sun 아트스페이스 (2F)

Cloned Me

코디네이터 서현규
비평가 박연숙





Cloned Me Mirror SUS & Steel, 3X3X5m, 2014

개관10주년 봉산문화회관기획 전시공모선정작가展 '언제든지Whenever'

2014 GLASS BOX ARTSTAR Ver.3

Rohan

결국 남은 그림자들

요즘은 잘 쓰지 않는데, 현장문학이란 개념이 있다. 무슨 현장인가 하면 노동 현장이다. 노동자 혹은 지식인이 일터에서 체험한 삶을 그때마다 시나 소설로 기록하는 현장문학은 1980년대가 남긴 문학과 예술의 한 단면이다. 나는 작가 로한(Rohan)을 만나면서 현장미술이란 말을 떠올렸다. 현장문학은 있지만, 현장무용, 현장영화, 현장음악, 또 현장미술이란 말은 없다. 몇 해 전에 어느 미술기획자가 현장미술이란 말을 어설프게 가져다 간판을 붙여봤으나 별다른 반응은 얻지 못했다. 시공간이 오그라드는 듯 민망한 이 말 현장미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해봤던 건 순전히 로한이 미술 창작에만 전념하지 않고, 공장에 매일 출근해서 힘든 육체 일을 하는 노동자라는 사실 때문이었다.

그녀는 이 노동을 통해서 활력과 성장을 체험하고 이게 곧 자신의 미술 활동의 동력원이라고 말한다. 여기에 부수적으로 작가는 그녀를 둘러싼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관계를 예술과 노동의 관계라는, 맑스(K. Marx)에게 있어서 토대와 상부구조의 간극만큼 아슬아슬하고 이질적인 성질로 표현하고자 한다. 비유해서 말하면, 로한의 작업론은 자본주의에서 노동 소외(왜 공장에서 사치품을 만드는 프롤레타리아는 정작 그 상품을 자신의 생활에서 쓸 수 없냐는 문제 제기)를 감성적인 태도로 일관한, 〈경제학 철학 수고〉를 쓸 무렵의 맑스가 좀 더 분석적인 생각으로 진전되는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경제학 요강-그룬트리세 Grundrisse〉의 발표 시점 정도에 와있다고 본다. 즉, 임노동이라는 소모적 활동이 예술 작품이라는 창조적 행위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로한의 선택은 나쁘지 않다.

그러나 로한이라는 예술가가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아무리 드러낸들 그녀의 작품이 프로파간다(선전 선동)나 르포(현장 고발)의 조건을 충족할 수는 없으며, 단지 현대인이 가지는 정체성의 분열을 예시하는 영역에 위치한다는 점은 부정 못 한다. 괜찮다. 아무 상관없다. 실재로 많은 예술가들은 평탄한 삶을 벗어나 방랑 생활을 하지 않았나. 작가 로한 혹은 자연인 심은혜가 벌인 생산적인 방랑은 이제 빛을 보고 있다. 바로 여기, 방랑 속에 획득(?)한 여러 인연이 별처럼 뿜는 빛이다.

현장미술이라는 말로 시작했지만, 이처럼 로한의 작품 주제는 관계(단절)이다. 그렇지만 난 이 '관계' 이야기를 길게 쓰고 싶지는 않다. 이미 많은 현대 미술가들이 이 주제를 다루었고, 특히 '타인들과의 관계 자체가 곧 나' 라는 정체성의 사유(예컨대 설치미술가 김승영)는 내가 열렬히 지지하는 작업 경향이기도 하다. 그와 같은 심사숙고, 또는 배우는 단계에서 미술사 습득이 부족한 작가 지망생들이 작업노트에 밝히는 단골 소재가 '일상 속에서의 인간관계' 이지 않나. '관계' 는 동시대 미술 속에서 어디에 갖다 붙여도 그럴 듯 해 보이는 상투적 주제가 되었다.

그런데도 로한이 유리상자 공간에 펼쳐놓은 사람들의 관계는 좀 특별한 면이 있다. 위에서 밝힌 바대로 그녀의 작업이 관계 맺기가 아닌 관계 끊기에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흔히 끌어 쓰는 격언,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다"는 어떻게 생각하면 삶의 따뜻한 위로가 될 수도 있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냉소적인 백신 주사 같기도 하다. 그녀 자신의 인생 이력에서 빚어진 이 전시는 둘 중 어느 태도에 가까울까. 종이류와 목재와 철재를 잘라서 만든 검은 설치물은 자웅동체가 된 한 쌍의 사람을 묘사한다. 이들의 집합은 작가 인생의 디오라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관객인 우리 삶의 거울일 수도 있다.

뭐, 생각해보면 유별난 스토리를 소개한다고 그게 다 예술이 되는 것은 아니다. 희한한 것들이 차고 넘치는 이 세상에서 작가는 자기에게 벌어졌던 이야기 줄거리를 세세히 고백하는 대신 그 등장인물들만, 그것도 테두리만 따서 보여준다. 결코 확인될 수 없는 그 사람들. 여기서 완성된 이미지는 그림자와도 같은 익명성 아래에 놓인 채 우리를 그 군상의 어느 틀에 끼워 맞춰 들어가도록 손짓하는 것 같다. 이는 어떻게 보면 기괴하고, 또 한 편으론 경쾌하다. 우연한 만남과 필연적인 이별, 이러한 통계학이 지배하는 사실 속에 펼쳐진 우리 현실은 헤어짐보다 만남을 더 극적인 것으로 격상시킨다. 관계가 맺어지는 것은 형이상학의 영역에서 풀이될 수 있지만,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여기 번잡한 세계의 현실 안에서 파악된다. 현실을 직시하는 작가는 예술 또한 일상 노동과 등가 가치로 묶는 입장으로 드러난다.

그녀가 투명한 유리의 공간 속에 무리지어 놓은 군상에는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건의 여정이 순서대로 구성되어 있진 않다. 아니, 어쩌면 그것은 암호처럼 비밀스러워서 내가 못 보는 것일 수도 있다. 이처럼 이어진 길도 없고, 안과 밖의 구분도 없는 불확실함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다. 작가는 이 역설(paradox)을 받아들인다. 확정되어 고정된 작품 대신 가변적인 설치가 작업의 중심을 차지하는 건 그래서 당연하다. 작가가 작업을 완성하는 수단으로 그리기 대신 선택한 자르기는 눈에 보이는 기법 이전에 이미 은유적인 역할을 충분히 한다. 자르기, 단절, 끊기, 커팅, 그 어떤 낱말이든 이 표현은 예컨대 기다리기, 쓰다듬기, 붙이기 따위보다 적극적인 성질이다. 더 이상 왕래가 없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지우는 일, 집안에서 부피만 차지하던 낡은 물건을 정리하는 일은 당사자에게 야릇한 쾌감을 줄 수는 있다.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일종의 죄책감 비슷한 불편함은 늘 따라 붙는다. 그게 우리가 가진 정이다. 작가는 이별하는 존재에 대한 정을 그려낸다. 이런 기법이나 주제가 현대미술에서 놀라운 발견은 아니다. 또한 나 같은 평론가들이 장황하게 늘어서 쓸 필요도 없다. 다만, 스스로 치유하기 힘든 감정에 맞서 또다시 날카롭게 날이 선 칼과 가위를 들고 둥글둥글한 군상들을 노동하듯 완성해가는 작가, 이것은 흥미로운 이야기가 된다. 예술가라는 신분이 획득하는 자기 성찰적 태도에서 비롯된 그녀의 죄의식은 여기에 다양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일단 현 시점에서는 가장 세련된 모습으로 말이다.

-갤러리 분도 아트디렉터, 예술사회학 / 윤규홍-

2014.7.4Fri ~ 8.31Sun 아트스페이스 (2F)

우리 인생의 특정 시점에 특별한 영향을 주고 사라진 사람이 있다면...

코디네이터 김아람
비평가 윤규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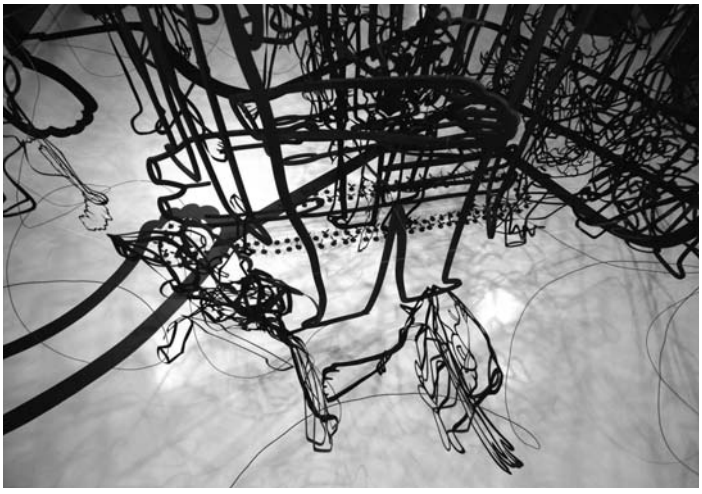
전시소개

2014년 전시공모 선정작 중, 세 번째 전시인 「2014유리상자-아트스타」Ver.3展은 회화를 전공한 Rohan로한(1983生)의 설치작품 "우리 인생의 특정 시점에 특별한 영향을 주고 사라진 사람이 있다면…"입니다. 이 전시는 사람 사이의 관계關係를 시각화하고 있으며, 어떤 특정한 사건과 시간, 장소에 관한 심리적이고 전방위全方位적인 관계 층들이 서로 겹치고 맞물려 다시 복잡한 관계 경험으로 결속되는 기억을 구조물 형태로 제시합니다. 작가가 제시하는 입체 구조 사이의 연결 층에는 남에게 밝히기 꺼려하는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스며있습니다. 평범하고 소박한 행복을 기대하는 삶의 가치와 이에 반하는 현실 경험의 긴장에 대해 대처해가는 화자話者의 태도를 그려내는 이 이야기는 "관계"의 "生과 死"로 단편화되어 이해되기도 합니다. 심상치 않은 관계의 전개가 검은색 선線으로 허공에 그려지고 집적集積되는 이들 시·공간적 조형 기록들은 우리들의 "현재" 태도에 대한 자성自省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전시는 숨겨왔던 개인의 "현재"를 사방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유리상자 공간 속으로 끌어내어 조형화하려는 작가의 어떤 절실함으로부터 설계됩니다. 또 작가의 현재 삶에서 느끼는 긴장감의 실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관계 맺기"와 "관계 끊기"의 사태에서 어떠한 대처가 가능했는지에 대하여 자신 스스로를 직시하는 지점에 주목합니다.
유리상자에 설치한 조형물은 얇고 넓은 판재版材를 사람 형태의 선형으로 오려낸 10개종의 검은색 아이콘을 매달아 구성하였습니다. 실제 인물 크기보다 더 큰 이 아이콘은 대상이 되는 특정 상황의 닮은꼴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며 의미와 형태 사이의 대응 관계가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고안한 기호들입니다. 사람의 완전하지 못한 모습을 상징하듯이 한쪽 팔이 없고 게다가 얼굴과 목이 없는 사람들 "A"와 "B"와 "V"의 모습을 서로의 관계 설정에 따라 그려놓은 이 아이콘들은 "시작과 끝", "생과 사"를 거치는 관계의 모습들입니다. 이 모습들 사이로 각 아이콘이 머무는 시간의 흔적처럼 좀 더 얇은 검은색 선 드로잉이 겹쳐집니다. 사람의 몸 내부 장기와 신체 행위의 그림자 같기도 한 선들, 그리고 이들 모두를 꿰듯이 공간 전체를 휘감는 가는 검은색 철사선 등은 우리를 둘러싼 여러 상황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의 구조 안에서 각자 자신의 역할을 운명적으로 떠맡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미지 세계의 언어를 떠올리게 합니다. 각각의 인물 형상 아이콘들은 사람 사이의 관계 행위를 본뜬 이미지로서 "악수하는 모습", "껴안은 모습",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 "죽은 듯이 누운 모습" 등의 형태로 디자인 되었으며, 전체적으로는 "연결"을 은유하려는 듯이 나선형으로 복잡하게 얽힌 채로 천정에 매달린 거대한 구체를 닮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누운 모습의 아이콘 주변에 희망과 치유를 은유하는 검은색 새싹 아이콘이 심겨있고, 유리 벽면과 바닥면에 거대한 인물 아이콘이 문양처럼 장식되어 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현재"는 다름 아닌 자아와 삶의 모색을 참조하는 조형 놀이이며, 작가가 다루려는 것은 인간의 자기중심적이고 편의적인 선택에 의해 도외시되거나 제거되었던 소중한 관계의 의미와 사람에 대한 사랑, 예술 너머의 열정에 관한 것이며, 거칠지만 자기 성장에 관한 감성적인 미美와 선善의 유효성들을 되찾으려는 에너지입니다. 현재의 상처를 기억하며 미래의 성장을 기원하려는 이번 유리상자는 경계 없는 예술 실험의 치유적 가치를 떠올리게 합니다.

-정종구-



우리 인생의 특정 시점에 특별한 영향을 주고 사라진 사람이 있다면... Mixed Media, 가변설치, 2014

개관10주년 봉산문화회관기획 전시공모선정작가展 '언제든지Whenever'

2014 GLASS BOX ARTSTAR Ver.4

Seo, Sunghoon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방식에 대한 고찰

서성훈의 작업은 공감각적이다. 서성훈은 소리를 시각적인 흔들림으로 전이시키는 작업을 한다. 그에게 소음은 의미 없이 흩어지는 잉여의 소리가 아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공간으로 들어와 우리의 세계의 일부가 된 소리가 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삶을 구축해 놓은 소리가 있다. 작가는 청각적인 것을 시각적인 것으로 돌려놓음으로써 익숙한 감각의 자리를 흔들어 놓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 깊숙이 들어와 있는 타자의 욕망을 드러낸다. 타자의 욕망은 흔들리는 사물들처럼 우리의 삶을 흔든다.

몸이 느끼는 소리

서성훈은 반야월이라는 지역에서 발생한 소음으로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작품화한다. 〈반야월〉시리즈는 반야월이라는 지역의 특수성을 소음을 통해 발견하고 작가가 태어나고 성장한 지역의 특수성을 작가 자신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면서 만들어진 설치 작품이다. 반야월은 K2와 대구공항이 인접하여 비행기와 전투기의 이착륙으로 발생하는 소음이 심한 지역이다. 작가가 어린 시절 부터 들어온 이러한 소음은 작가에게는 더 이상 이질감을 느낄 수 없을 만큼 생활의 일부가 된 익숙한 세계이다. 이때 소음은 소리로서의 기능을 잃게 된다. 하지만 소음이 집 안의 사물을 흔들어 버리듯 그의 감각을 자극하는 환경은 작가 자신에게는 하나의 풍경이고 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요소가 된다.

랑시에르Jacques Ranciere의 말을 빌어보면 미학은 감각적인 세계 안에 몸이 기입되는 방식, 즉 몸이 세계를 느끼는 방식과 관련된 것이고 예술은 몸이 세계를 느끼는 방식이 구체적으로 가시화된 형태가 된다. 이러한 예술은 고정되고 구획된 분할의 체계를 거부하고 예술이나 정치의 독자성과 같은 경계와 구역을 제거하면서 불확실한 것, 결정되지 않은 것, 뒤섞인 것을 이용하여 공동체의 평등을 지향하게 된다. 공동체의 평등이란 소음으로 남아 있는 소리를 들리게 하는 것이다. 소음은 소리 아닌 소리로 말한다. 서성훈의 작업은 그러한 소음을 다른 감각으로 전이시킴으로써 소음에 담긴 말들을 보게 한다.

〈윗집 시끄럽네〉시리즈와 〈반야월〉시리즈는 작가가 경험해 온 소음을 시각화한 작업들이다. 진동모터와 진동스피커를 이용해 소리는 전등이나 어항의 물의 흔들림으로 변환된다. 집 외부에서 발생한 소음은 전시공간에 설치된 집 내부의 사물들을 흔든다. 서성훈은 이렇게 소리라는 청각적 요소를 물체의 흔들림이라는 시각적 요소로 전환시킴으로써 삶을 조각한다. 소음을 시각화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탐색하는 설치작업과 함께 기존의 그의 작업에는 일상의 사물을 대리석으로 일상용품 조각한 작품이 있다. 〈윗집 시끄럽네〉나 〈반야월〉시리즈가 보이지 않던 것을 보이게 함으로써 소음의 존재를 드러내는 설치 작업이라면 〈DAMAGE〉는 사실적으로 조각한 운동화를 깨트린 후 그 대리석 조각들을 염색해 다시 그 파편들을 이어 붙임으로써 원형을 복원하는 작업이다. 조각품을 깨뜨려서 다시 얻은 완성된 형태는 봉합선이 남긴 결을 지니게 된다. 그 선들은 소리의 흔적을 품고 있다. 이처럼 소리는 작가의 작업에 중요한 모티프이다.

반야월 4.0

유리 상자에 설치되는 〈반야월 4.0〉은 인터넷으로 보내오는 소리를 생중계를 통해 전시장 안의 이곳에 있는 거울의 떨림으로 드러내는 작업이다. 인터넷망을 통해 연결된 무수한 저곳의 소리는 동일한 시간에 이곳, 전시장의 거울을 흔든다. 소리가 자리하는 전시 공간은 청각적 요소와 시각적 요소가 중첩된 공간이 된다. 변환장치에 의해 소리는 떨림으로 청각에서 시각으로 전이되고, 소리와 흔들림에 의해 서로 다른 공간이 공존하며 보이지 않는 저곳의 삶을 감각적으로 제시한다. 유리 상자 안의 거울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없는 삶의 현장인 저곳의 소리를 흔들림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곳 유리 상자를 둘러싼 공간을 거울은 시각적으로 반영한다.

그의 설치는 즉물적으로 제시된 사물을 통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풍부한 은유를 담고 있다. 서성훈에게 소음은 자신을 드러내는 또 다른 소리이다. 작가는 소리를 통해 포착된 부분을 감각적으로 극대화시켜 표현함으로써 그 존재를 다시 인식하게 한다. 소음은 사회적 환경으로서 우리 모두의 일상을 흔들며 이미 거기에 자리해 있었다. 인식하기에 앞서 감각된 것들 속에 우리의 삶은 수많은 이야기와 의미들로 중첩되어 있다. 소음과 함께 한 삶들이 풀어낸 각각의 이야기는 거울의 흔들림 속에 관람객의 모습으로 다시 담긴다.

-미학, 미술평론 / 배태주-

2014.**9.19**Fri ~ **11.16**Sun 아트스페이스 (2F)

반야월 4.0 LIVE

코디네이터 이경호
비평가 배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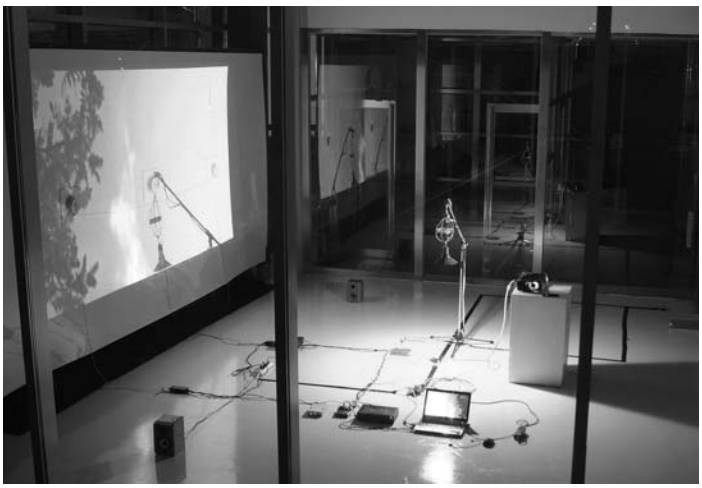
전시소개

2014년 전시공모 선정작 중, 네 번째 전시인「2014유리상자-아트스타」Ver.4展은 조각을 전공한 서성훈(1986生)의 설치작품 "반야월 4.0 LIVE"입니다. 이 전시는 작가가 기억하는 자신의 특정한 "삶의 풍경"을 시청각적으로 입체화해가는 연속적인 아트 프로젝트 중의 한 지점입니다. 작가가 출생하여 지금까지 살고 있는 반야월 지역의 생활환경은 주변 공항을 드나드는 비행기의 소음으로 인한 다양한 사건들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하루의 연속입니다. 이러한 지역성을 기반으로 작가는 삶이 어떻게 예술과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흥미로운 해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작가 개인의 삶이 스며든 "낯선 풍경"을 사방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유리상자 공간 속에 담아 가시화하려는 작가의 실험적 발상으로부터 설계됩니다. 이 설계는 아무런 생각 없이 일상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였던 전투기와 여객기 소음에 관한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는 믿기지 않는 특별한 사건임을 알게 되고, 언제인가부터는 그 경험이 작가 자신의 아이덴티티로 작용하여, 주로 소음을 시각화하는 현재 직업으로 이어지는 시리즈와 맥락을 함께 합니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반야월 지역에 관한 수다스럽고 심리적인 소음의 기억 층들을 몇 가지 시각적인 진동 방식으로 제시합니다. 그는 특히 지역라디오 생방송의 DJ를 연상시키듯 "특정한 시기에 특정 장소에서 사는" 혹은 "실황 생중계"를 의미하는 "live"를 강조합니다. 작가가 생중계하는 소리 혹은 소음은 비행장에서 가까운 대구시 동구 율하동에서 채집하여 실시간으로 중구 봉산동 유리상자 내부에 설치된 컴퓨터로 전송됩니다. 그 소리는 음향 증폭기와 진동 스피커를 거쳐 대형 거울 판으로 전달되고, 마치 온몸으로 소리를 감각하는 체험공간에서처럼 거울 판의 떨림을 보게 됩니다. 양면에 다른 풍경이 반영되는 이 거울 판의 한면에는 이 곳 현재의 하늘과 주변 건물 풍경이 반사되고, 반대면에는 반야월 하늘 풍경을 촬영한 영상을 빔 프로젝터로 투사하여, 소리에 따르는 판의 진동으로 현재 순간마다 눈을 어리게 합니다. 동시에 이 소음 진동은 스탠드에 매달린 붉은 갓 전등을 소리의 세기에 맞추어 흔들어 댑니다. 이처럼 반야월 소리의 일상 풍경은 심상치 않은 심리적 풍경처럼 미묘한 전율로 지금 여기에 전개되며, 비행기 소리와 공기의 떨림으로 그려지는 이들 공감각적 기억 기록들은 작가의 "현재" 태도에 대한 생중계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작가의 현재적 삶에서 느끼는 자신의 실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환경과의 관계에서 산출된 것이며, 그 실체에 대해 어떤 대처가 가능한지 자신 스스로를 직시하는 지점에 주목하게 됩니다.

눈앞에 펼쳐진 유리상자의 "현재"는 다름 아닌 자아와 삶의 성찰을 반영하는 공감각적 놀이이며, 이때 작가가 다루려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권위적인 선택에 의해 도외시되었던 인간권리의 복권이기 보다는 삶을 응시하고 이해하며 드러내는 태도에 관한 것이고, 삶이 예술과 관계하는 지점에 대한 예지叡智적 해석에 관한 것이며, 거칠지만 생생한 예술적 장치에 관한 미美와 락樂의 유효성들을 수식하려는 시도입니다. 현재의 피해와 상처를 기억하며 스스로의 생동生動 확장을 도모하려는 이번 유리상자는 경계 없는 실황예술의 실험적 가치를 가늠하게 합니다.

-정종구-



반야월 4.0 LIVE 거울, 진동 스피커, 스피커, 노트북, 4.5X5m, 2014

개관10주년 봉산문화회관기획 전시공모선정작가展 '언제든지Whenever'

2014 GLASS BOX ARTSTAR Ver.5

Jung, Hyeryun

정혜련의 공간드로잉 – 연쇄적 가능성

정혜련은 2004년 성곡미술관 내일의 작가를 비롯해 송암문화재단 신진작가, 봉생청년문화상, 하정웅 청년작가상, SEMA신진작가상, 김종영미술관 2012 올해의 젊은 조각가상 등 화려한 수상경력을 가진 작가이다. 뿐만 아니라 대만의 관투 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성곡미술관, OCI미술관, 공간화랑, 세오갤러리 등 국내외 미술관과 화랑에서 개인전을 가진바있는 역량 있는 작가다.

이번 봉산문화회관의 〈유리상자 아트스타전〉에 출품된 작가의 작품은 '연쇄적 가능성'이라는 타이틀로 진행된다. 사실 정혜련의 과거 작업들은 뚜렷한 네러티브를 갖는 것들이었다. 예를 들어 로봇태권 V, 피터팬, 피노키오, 장화홍련 등과 같은 동화와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에서부터 청와대나 국회의사당과 같은 건축물을 가죽으로 재현해 왔다. 작가는 우리 의식을 지배하는 인물이나 권위적인 건축물들을 통해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에 의문을 제기해왔다. 하지만 인간의 실존적인 감정들이 강하게 배여 있는 작업에서 작가는 급격한 변화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그 변화는 어느 갤러리의 제안으로 시작된 '놀이공원 시리즈'를 만나면서 부터다. 놀이공원이라는 장소 특정성으로 인해 다양한 해석을 낳았던 작품이지만, 작가는 오히려 이 시리즈를 통해 공간을 유영하는 선이라는 조형적인 요소에 강하게 매료된다.

작가는 서사를 해체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무의식적 '버릇'들을 탐구하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반복된 원들이 회전하는 작업은 자신의 드로잉을 입체화하여 움직임을 부여한 작품들이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작가는 보다 적극적으로 공간에 개입한다. 즉, 과거의 작품들이 자신의 외적 환경에 대한 작가의 반응을 담은 것이라면 최근의 작업들은 자신의 내면으로 귀환하는 작업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지금과 같은 공간드로잉 작업들은 사실 놀이공원 시리즈가 잉태한 결과물이다. 그 이후 작가는 자신의 무의식적인 드로잉들을 공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재조합 할 수 있게 모듈(module)화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자신의 드로잉적인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공간적인 드로잉을 시도할 수 있게 된다. 거기에 광확산수지라는 재료와 결합하면서 작가의 작업은 빛을 수용 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보다 유연하게 공간에 대응한다.

"내가 작품을 한다기보다는 공간과 대화를 하는 느낌. 그 느낌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작가의 인터뷰 중에서)

이번 전시의 타이틀이 '연쇄적 가능성'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작가는 다양하게 제작되어진 모듈화 된 선들을 연쇄적으로 결합시키면서 공간을 장악해 나간다. 당연히 이 구조체는 자신의 신체에서 비롯된 선들을 표준화한 것들이다. 하지만 작가의 작업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할지라도 동일한 작품이 나올 수 없다. 작가의 작품을 결정짓는 것은 공간과 이에 반응하는 작가의 감각이 유일하다. 그런 면에서 칸딘스키가 자신의 작업을 '시간예술'이라고 말한 것처럼 그녀의 작업 프로세스는 공간에 작가의 감각이 반응해 나가는 지난한 시간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탄생한 작가의 작품은 LED조명과 광확산수지가 만들어내는 광학적 효과와 굵고 가는 선들이 공간속을 유영하며 만드는 조형적 감각이 일체된 신비로운 작업으로 재탄생된다. 결국 그녀의 작업은 드로잉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한계와 2차원적인 평면을 넘어 3차원적 공간 드로잉이라는 영역을 새롭게 창조해 낸 것이다. 그리고 이 공간적 드로잉은 하나의 선이 새로운 선을 호출하는 연쇄적인 반응의 산물이다.

–큐레이터, 김해문화의 전당 전시교육팀장 / 이영준–

전시소개

2014년 전시공모 선정작 중, 다섯 번째 전시인 「2014유리상자-아트스타, Ver.5展은 조각을 전공한 정혜련(1977生)의 설치작품 "연쇄적 가능성 Serial possibility"입니다. 이 전시는 작가가 기억하고 상상하는 '세계'의 풍경을 장소 특정적으로 구체화하여 선과 면으로 그려내고, 이를 입체화하는 일종의 '드로잉 조각'입니다. 작가는 물질의 생성과 변화, 세계구축에 관한 개체간의 자율적이고 연속적인 상호작용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으며, 물질세계와 비가시적인 정신세계를 포함하는 세계의 동작원리를 시각화하는 유기체적 '가능태可能態'를 조형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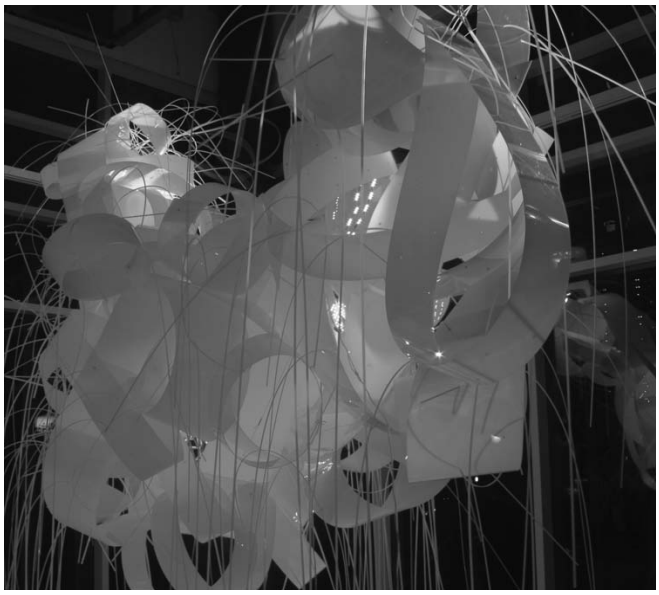
이번 전시는 작가 자신의 신체행위가 스며든 낯선 '가능태'를 사방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유리상자 공간 속에서 찾아내려는 작가의 유희적 탐구로부터 설계되었습니다. 우선, 이 설계는 아무런 일없이 거리를 어슬렁거리다가 우연히 건물 틈 사이로 발견하게 되는 '붉은 빛' 덩어리의 낯섦이나 시간대별로 흰색에서 붉은색으로 변화하는 순차적인 '동요動搖'에서 감지되는 가슴 설렘을 기억하고 그려집니다. 작가의 "연쇄적 가능성"은 긴장이 강하면서도 부드럽게 휘는 광확산 폴리카보네이트를 재료로 공간 속의 선처럼 드로잉하고, 그것들이 서로 얽히고 엮어져 입체구조를 이루는 형태입니다. 구조를 살펴보면, 일정폭과 길이로 이루어진 흰색 폴리카보네이트 조각 600여개가 연이어 볼트와 너트로 서로 연결되어 길이 6미터 크기의 비정형적인 입체조각 형태로 증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굴곡진 덩어리의 표면에는 애벌레 고치의 실처럼 가늘고 긴 플라스틱 선들이 외부와 지면을 향해 뻗쳐 있으며, 이것들은 살아 숨 쉬는 듯이 가볍게 움직이기도 합니다. 또 이 덩어리의 중심부로부터 붉은 빛이 발광하면서 마치 생명체의 원동력인 심장을 가까이 확대해 놓은 듯 보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작은 조각에서 시작하여 무한히 증식되고 재생되는 물질들의 결속과 이들의 유기적이고 자율적인 조합, 연속적으로 번식을 하듯 증폭되는 이 유리상자의 현재 장치는 다름 아닌 우리 시대의 문명과 인간의 상호작용, 세계 구축에 관한 기억과 상상을 시각적으로 재생한 것이며, 이것은 공간과 함께 숨 쉬기를 즐기는 작가 신체의 경험, 즉 유기체의 생명감으로 이해됩니다.

우리가 직작하고 있는 세계의 구조, 아마도 개체들이 연쇄적으로 반응하며 유기적으로 결속하는 세계의 구조를 예술 내적으로 연결시키며, 새로운 예술 감성을 자극하려는 작가는 그 긴장감이나 우연성 혹은 논리성을 시각예술 내에서 다루는 실험을 무척 흥미로워합니다. 이것은 "연쇄적 가능성"의 생명감이 예술과 관계하는 지점에 대한 예지叡智적 해석에 관한 것이며, 거칠지만 자율적인 예술적 장치에 관한 미감과 유희의 유효성을 수식하려는 작가적 언어입니다. 현재를 기억하며 스스로의 생동生動 확장을 담론하려는 이번 유리상자는 시각예술의 확장성과 자체 에너지를 신뢰하게 합니다.

–정종구–

2014.**11.28**Fri ~ 2015.**1.25**Sun 아트스페이스 (2F) **연쇄적 가능성 Serial possibility**

코디네이터 김수진
비평가 이영준



연쇄적 가능성 Serial possibility mixed media, 공간 내 가변설치, 2014

2015

GLASS BOX ARTSTAR

2015유리상자-아트스타

Ver. 1
최 선-자홍색 회화
2.20- 4.19

Ver. 2
홍희령-나는 모르는 일이오
5.1- 6.28

Ver. 3
이창진 : 수평-Water always find it's own lever
7.10- 9.6

Ver. 4
Studio1750+정혜숙-Flower Juice
9.18-11.15

Ver. 5
오지연 : 감정세포-아름다운 짐
11.27- 1.24

붕산문화회관의 기획「2015유리상자-아트스타」전시공모선정 작가展은 동시대 예술의 낯선 태도에 주목합니다. 올해 전시공모의 주제이기도 한 '현실Reality & 놀이Playing'은 우리시대 예술에 대한 공감을 비롯하여 '도시'와 '공공성'을 주목하는 예술가의 태도와 역할들을 지지하면서, 동시대 예술의 '스타'적 가치를 지원하는 의미입니다.
4면이 유리 벽면으로 구성되어 내부를 들여다보는 관람방식과 도심 속에 위치해있는 장소 특성으로 잘 알려진 아트스페이스「유리상자」는 어느 시간이나 전시를 관람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시민의 예술 향유 기회를 넓히는 데 기여하고,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예술가들에게는 특별한 창작지원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예술지원센터로서 더 나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공모에 의해 선정된 참신하고 역량 있는 작가들의 작품 전시를 지속적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봉산문화회관기획 전시공모선정작가展 '현실Reality & 놀이Playing'

2015 GLASS BOX ARTSTAR Ver.1

Sun, Choi

재난과 추상

최선의 작품에는 모종의 곤혹감이 도사리고 있다. 2003년 타인의 회화를 벗겨내는 작업 〈Naked Painting〉을 시작으로, 피와 뼈, 타액, 모유, 돼지비계, 폐수, 불산가스, 4대강 녹조 등에 이르기까지 그는 미술계에서 종종 논란이 될만한 이질적 미디엄을 현대미술이라는 장치에 기입해왔다. 대개 시각적으로 은폐하려는 요소들을 끌어와 추상의 형태로 보게끔 하려는 작가의 의지는 기존 한국현대미술을 비틀어 '이중구속(double bind)적' 상황에 놓이게 한다. 추상성과 생경한 물질의 변증법이라는 아이러니를 통해 최선의 작품은 관람자에게 '예술에의 몰입' 이라는 은총을 선사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관습적 예술독해를 해체시켜 미학적 식별 가능성이라는 문제를 품게 만든다.

변종의 기획 : 추상성

유리상자 안에 설치될 〈자홍색 회화(Magenta Painting)〉는 어떠한 요령부득의 에토스를 비틀고 있을까? 높이 2.8m, 길이 17m로 유리 안을 원형으로 감싸고 있는 이 작품은 지극히 온건하며, 백색 할로겐 조명의 도움을 받아 감상적인 분위기까지 자아낸다. 그러나 회화를 표방한 이 오브제 설치작업이 흥미로워지는 지점은 관람자를 사로잡는 달콤한 자홍색 '베일'의 외피가 서서히 탈각되어, 세밀하게 프린트된 기호가 유령처럼 떠오를 때(emerging)이다.

이 작품의 내피를 구성하는 숫자들의 배열은 2010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대한민국 전역을 뒤덮은 구제역 사건을 르포르타주하고 있다. 그러나 작품은 사건-재현-기호의 연쇄작용을 허용하지 않는다. 재난의 실재와 마주할 '얼굴'-이미지는 증발되어 있으며, 그 휘발성은 숫자라는 기호로 간직된다. 수직 수평의 격자 안에 무수히 나열된 '돼지xxxxxxxx'라는 숫자는 다름 아닌 근 5개월 동안 살처분 되었던 돼지 3,320,000마리의 실증적 보충물에 다름 아니다. 흡사 '화이트 노이즈(white noise)'와 유사하게 감각 기관의 예민함으로만 인지할 수 있는 흰 자국만이 작가의 수행적 측면, 즉 컴퓨터 단말기에 3,320,000이상의 숫자를 반복적으로 타이핑해야 했던 지루한 노동을 보여준다.

이러한 수행성은 역설적이게도 점과 선의 반복된 패턴만으로 하나의 균질적 유사(pesudo) 회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여기서 추상성은 돼지라는 생명(bios)이 셀 수 있는 숫자의 합으로 환원되는 지점에서 돌연 출현한다. 바로 이러한 매커니즘이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표면의 자장을 형성해 놓는다. 한편 이러한 표면적 특질은 일상의 언어작용과 이미지에 대한 우리의 투사 심리를 흔들어 놓는다. 예를 들어 이 작품에서 쓰인 자홍색이 도축될 돼지를 표식하는 검인도장의 안료에서 착안했다는 사실은 돼지-자홍색이라는 일상의 기호적 작용을 살짝 비켜 나가게 한다. 결과적으로 미메시스적 작용을 결여한 이 작품은 감상적 지점을 무화시키면서 어떤 인식의 전치를 요구한다.

생명정치와 반기념비

재난에 대한 반기념비적(counter-monumental) 기획으로 연출된 이 오브제-회화는 부분-전체라는 암시와 함께 재난의 통계학적 규모만을 증명하고 있다. 이제 안온하게 보였던 색면 이미지는 미학적 장소를 벗어나 생경한 담론적 배치와 만나게 된다. 그것은 재난사건을 재현하는 사회학적 관심과 그 충격파를 넘어, 20세기 '생명정치(bio-politics)'의 작동원리와 공명한다. 사실상 구제역이라는 가축의 전염병에 대처했던 국가의 시선은 전염 바이러스가 발생시킬 수 있는 추상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조절하는 능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 2011년 살처분 사태는 생명 개체의 자기조절능력이라는 전제가 철저히 배제된 채로, 공리적 관점에 입각하여 위험한 군집 분포를 제거해 낸 폭력적 사태에 가깝다. 따라서 현대 생명정치의 요체는 지극히 인간 경영이라는 기조 하에서 모든 것을 수량화하고 계측화하며, 익명화시킬 수 있다는 그 사실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재난을 추상화한 〈자홍색 회화〉는 현대적 생명관리권력에 대한 미학적 판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다름 아니라 이 작품의 내피는 현대 식량공급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공장식 축산업과 그것의 행정적 조절이라는 개념으로 압축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작품의 근거가 되었던 2011년 살처분 사태를 하나의 특수한 사건으로 볼 수 없게끔 만든다. 문제는 무차별적 제노사이드가 거대한 인간 사회의 역학이 발생시키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사실에 있을 것이다. 그것은 국가 관료제가 행하는 거대 디자인이며, 현대 자유주의가 역설적으로 근거하고 있는 장소이다. 이러한 구조적 실재에 대해 방어적 기제로 제기되는 육식에 대한 혐오와 공장식 도축사업에 대한 비난은 일종의 형용모순일 뿐이다.

친밀한 재난?

이러한 관점에서 〈자홍색 회화〉는 현대성이 내재하고 있는 홀로코스트, 그리고 그 독성을 휘발시키는 자유주의 기표의 증식, 추상성에 안락함을 구가하는 인간의 형상을 되돌아보게끔 한다. 그것은 사실 이 작품의 즉자적 형태가 불러일으키는 판단중지적 효과에서 나오는 미덕이다. 미첼 (W. J. T Mitchell)이 컨템포러리 미술 환경 속에서 추상이라는 형태와 친밀성이라는 관계적 형태를 함께 결부시켜 놓았듯이, 이 유사-추상회화를 처음 볼 때의 그 감각적 인상은 친밀한 그 무엇으로 다가오게 마련이다. 작품에서 쓰인 잉크는 디지털 인터페이스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이미 친숙한 대상이며, 거기에서 어떠한 미학적 흔적도 발견될 수 없다. 오히려 이 작품은 공산품처럼 친숙한 느낌까지 불러일으킨다. 이로 말미암아 이 작품이 품고 있는 재난의 곤경은 추상의 친밀성을 매개로 현대미술이라는 민주주의적 장소로 증발되는 듯하다. 그렇다면 이 작품이 증거하는 재난의 실재성은 어디로 갔는가? 이 되물음이야말로 〈자홍색 회화〉가 우리에게 던지는 정치적 효과일 것이다.

-미술이론 / 송정훈-

2015.**2.20**Fri ~ **4.19**Sun 아트스페이스 (2F)　**자홍색 회화 Magenta Painting**

코디네이터 유은순
비평가 송정훈

전시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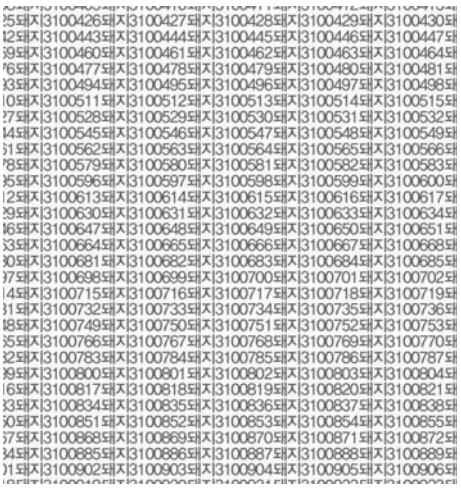
2015년 전시공모 선정작 중, 첫 번째 전시인「2015유리상자-아트스타」Ver.1展은 회화를 전공한 최선(1973生)의 설치작품 "자홍색 회화 Magenta Painting"입니다. 이 전시는 세계를 향한 작가의 현실 경험과 기억을 기록하고 이를 선전宣傳하는 자신의 '회화'를 입체화하려는 프로젝트 중의 한 낯선 지점입니다. 작가는 세계 속의 현실 사건들이 어떻게 삶의 일부가 되고, 그 삶이 어떻게 예술과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흥미롭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삶에 대한 작가의 태도가 스며든 '낯선 말하기'를 사방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유리상자 공간 속에 담아 가시화하려는 작가의 예술 실험으로부터 설계됩니다. 이 설계는 푸른 기운이 감도는 붉은 자줏빛의 '자홍색Magenta'에 관한 작가의 강렬한 인상으로부터 시작되며, 아름답고 진한 꽃잎의 분홍색처럼 각인되는 '자홍색'의 반어적 메타포로 '회화'언어를 새롭게 구사하려는 것이 기본 개념입니다. 작가는 색을 칠하는 의미의 '회繪'와 윤곽을 구획하는 의미의 '획畫'를 통하여 자신만의 '자홍색 회화'를 설정합니다. 마치 주술적이거나, 장식, 마술 등의 행위를 비롯하여 선전, 기록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오래 전의 회화를 떠올리게 하는 이 작업은 작가가 새롭게 해석하여 구축하려는 낯선 회화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작가에게 있어서 자홍색의 아름다운 색채는 단순한 눈요기가 아니라 우리들 현실의 삶과 그 대응 태도를 되돌아볼 수 있게 하려는 상징입니다.

작가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발생한 대규모의 구제역 파동과 그에 대한 사회적 대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작가의 작업 주제는 구제역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감염된 돼지 332만 마리를 살처분하면서 그저 돼지들의 숫자를 세기만 했던 현실의 기억을 회화 내용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어떤 알 수 없는 설렘을 동반하기도하는 아름다운 진홍색이 도살장에서 돼지 등급을 표시하는 도장의 잉크 색과 동일한데 착안하여, 작가는 반대편이 비치는 150×280㎝ 크기의 얇은 천에 진홍색을 칠한 회화작업 11폭을 좌우가 서로 이어지도록 연결하고, 지름 5.3m 깊이 3m의 원형 구덩이 모양을 연상할 수 있도록 공중에 매달았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며 묘하게 여린 감성을 자극하는 원통형 회화 설치물은 작가의 의도를 쉽게 노출하지 않아 관람자를 어리둥절하게 합니다. 하지만 설치된 회화의 자홍색이 '돼지0000001'에서 '돼지3320000'까지의 문자와 숫자들을 순서대로 늘어놓은 꽉 찬 배열과 그 집적集積으로 발색된다는 사실을 눈치 채면서, 작가의 탁월한 메타포에 의한 회화적 기록과 선전을 공감하게 됩니다.

눈앞에 펼쳐진 유리상자의 '현재'는 다름 아닌 자아와 현실 삶의 성찰을 반영하는 감성적 놀이행위이며, 이때 작가가 다루려는 것은 인간 중심적인 선택에 의해 도외시되었던 생명 경외의 반성이기보다는 삶을 응시하고 이해하며 드러내는 태도에 관한 것이고, 삶이 예술과 관계하는 지점에 대한 예지叡智적 해석에 관한 것이며, 미묘하지만 생생한 예술적 징치에 관한 진眞·선善·미美의 유효성들을 추출하려는 시도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현실REALITY을 스스로의 생동生動 확장의 놀이로 변안하려는 이번 유리상자는 경계 없는 예술 실험의 가치를 자문하게 합니다.

-정종구-



자홍색 회화 천 위에 인쇄, 2.8X17m, 2015 (2013 세토우치 트리엔날레 출품작 변형설치)

봉산문화회관기획 전시공모선정작가展 '현실Reality & 놀이Playing'

2015 GLASS BOX ARTSTAR Ver.2

Hong, Heeryung

홍희령의 〈나는 모르는 일이오〉

〈나는 모르는 일이오〉란 제목의 이번 설치작업에는 새로운 시도들이 많다.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구슬봉이 타이머장치에 의해 매트리스를 일정한 간격으로 두드리면, 시커먼 가루들이 털려서 바닥에 떨어지고 주변에 날리는 상황을 유리상자 안에서 연출하고 있다. 어떤 점들이 새로운 도전과 변화된 관점들일까.

먼저 작업의 시간성과 공간성이 바뀌었다. 이전 작업들에서는 보편적인 시간성과 장소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번 작업에서는 특정한 시간성과 공간성을 가지고 있다. 〈나는 모르는 일이오〉하면 최근 한국에서 일어난 정치스캔들을 소재로 작업한 것으로 보인다. 제목에서 생각나는 것은 최근 모기업 회장님이 자살을 하였고, 그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불법정치자금 리스트가 한국사회를 연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리스트에 오른 몇몇 고위 정치인들은 언론과 국회에서 "기억나지 않습니다."를 이구동성으로 외치고 있는 장면이 연상된다. 작가는 현재 시점에서 한국의 현실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이 스캔들을 소재로 작업한 것이다.

두 번째는 언어에 대한 관점이 변했다. 이전 작업은 비트겐슈타인(Ludwig Wittgenstein)의 "언어의 한계는 세계의 한계"란 사고의 프레임 안에 갇혀 있던 작업이었다면, 이번 설치작업은 언어의 한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현상과 세계"를 설치작업으로 창조하고 있다. 또한 이번 작업에서는 비트겐슈타인의 초기 관점에서 벗어나 "언어 게임은 일정한 규칙을 벗어나 다양하게 전개된다."로 변했고, 심지어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기호인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식의 기표(signifiant)의 정의는 '문자와 기호사용'의 한계를 벗어나 이미지, 일상 오브제, 움직이는 기계, 소리 등으로 표현 미디어가 확장되고 있다.

세 번째는 해석의 스펙트럼이 다양해졌다는 것이다. 이전 작업의 제목과 작업간의 해석은 직접적이고 제한적이었다면, 이번 설치작업에서는 은유적이거나 상징적이어서 더욱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작업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이번 작업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관용어가 떠오르는데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바닥에 떨어지는 검은 가루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시커먼 양심일까? 공중에 매달린 과장된 길이의 매트리스는 또 무엇일까? 적과의 비정상적인 동침(同寢)일까? 그리고 "무엇을" 털어낸다는 것일까? 기업인들의 금전욕을 털어내는 것일까? 정치인들의 권력욕을 털어내는 것일까? 아니면 정치가와 기업인의 검은 유착에 대해서 응징하려는 폭력의 상징일까? 그리고 "털어낸다"는 동사는 어떤 의미일까? 털어낸다는 것은 완벽한 해결방법이 아닌 임시방편 처리법인데 정부의 부정부패 처리방법과 유사한 것으로 해석해야 할까? 관람자들은 부정한 정치가들을 비판해야 하는 걸까? 아니면 각자의 양심을 바라보며 반성하라는 것일까? 다양한 해석과 분석이 얽혀있는 작업이다.

이번 작업에서 작가는 배짱과 용기로 새로운 시도들과 경계적인 모호함이 보이는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 새로운 것들은 항상 불안하고 모호하고 불분명해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찬 배짱과 용기가 필요하다. 다음 전시회에는 더욱 황당하고(?) 고정관념을 사정없이 휘젓는 불분명한(?) 작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정리하자면, 이번 작업은 새로운 시도와 관점들이 적용된 작업이기 때문에 분명한 평가는 시기상조로 보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전 작업보다는 더욱 동시대적이고, 현실적이며, 흥미로우며, 자유롭다는 것이다.

–독립 큐레이터 / 최규–

작가노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끝도 없이 이어지다가 순간 도달하는 지점이 있다. 내 생각의 도착 지점에서 관람자들의 생각이 출발한다.
그들이 도달하게 되는 곳은 어디일지 참으로 흥미롭다.

–홍희령–

2015.5.1Fri ~ 6.28Sun 아트스페이스 (2F)

나는 모르는 일이오

코디네이터 이희령
비평가 최 규

전시소개

2015년 전시공모 선정작 중, 두 번째 전시인 「2015유리상자-아트스타」Ver.2展은 회화를 전공한 홍희령(1972生)의 설치작품 "나는 모르는 일이오."입니다. 이 전시는 세계를 향한 작가의 관찰로부터 은유隱喩하고 시각화하는 작가의 놀이 중의 한 지점입니다. 작가는 세계의 현실 사건들이 어떻게 자신의 삶 속에서 은유와 충격衝擊으로 작용하고, 그것이 어떻게 예술과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흥미롭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진실한 삶에 관한 작가의 태도가 스며든 '낯선 놀이'를 사방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유리상자 공간 속에 담아 시각화하려는 작가의 예술적 실험으로부터 설계됩니다. 이 설계는 어느 인간 성정性情 속으로부터 들춰지는 '거짓 맹세 a false oath'에 관한 작가의 관찰과 현실 경험, 그리고 신뢰信賴와 당위當爲의 상징적인 도구로서 기계의 물리적인 힘과 자연 중력重力에 의한 금속 추의 작용 또는 반작용, 또 하얗고 청결해 보이지만 크기와 비례가 낯선 '침대용 요'를 신뢰에서 의혹疑惑으로 진전시키는 사태 또는 충격의 장場으로 새롭게 언어화하려는 개념화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는 천정의 어느 지점에 고정한 3미터 길이의 봉에 금속 추를 매달아 두고 그 금속 추가 기계적 공기압력으로 3~5분마다 한 번씩 침대용 요의 중심을 때리며 순간의 충격을 전하고 이후 진자운동振子運動을 하는 상황이 반복 되면서, 흰색 침대보에 가려져 있던 요 속의 검은색 가루가 바닥으로 떨어져 쌓이는 설정입니다. 마치 중력에 반하여 운동에너지를 이동시키고, 그 운동 순간의 물리적 충격과 영향력이 지니는 시각적 탁월함을 잡아내는 영상 쇼를 닮았거나, 혹은 "나는 모르는 일이오."라고 근엄하게 혐의 사실을 딱 잡아떼던 TV뉴스 속 정치인들의 시커먼 속내를 확인하게 되는 파괴적 순간을 떠올리게 하는 이 작업은 작가가 감지한 어느 한순간을 자신의 방식으로 조형하고 은유하여 해석하려는 낯선 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 본성에 관한 신뢰와 물리적 에너지의 충격력이 겹쳐지는 지점에 주목하는 작가의 주된 작업 태도는 언어적 유희와 시각적 충격의 조형화 사이에서 어슬렁거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에너지의 파괴력과 진자운동을 통한 중력의 존재감 혹은 충격 순간의 힘을 말하려다가 도덕성과 연계된 거짓 맹세, 거짓말, 부정부패, 의혹 등을 연상시키는 연출을 설명하고, 한편으로는 모르겠다는 말을 내뱉는 속 시커먼 인성에 질타하는 듯하다가, 다시 동시대 예술의 확장성에 대해 고민하는 식입니다. 하지만 매달린 금속 추와 그 추가 침대 요를 치면서 파편처럼 튀어져 날리는 시커먼 가루가 여러 가지 사태의 가능한 기억들을 엮는 구성요소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작가의 메타포에 의한 탁월한 예술적 선택과 사유를 공감하게 되고, 우리들 현실의 삶과 그 실존적 태도를 다시 되돌아보게 합니다.

눈앞에 펼쳐진 유리상자의 '현재'는 다름 아닌 세계와 현실 삶의 성찰을 반영하는 은유적 놀이행위이며, 이때 작가가 다루려는 것은 인간 삶의 중심에 두어야할 도덕성에 대한 반성이기보다는 삶을 응시하고 세계를 이해하는 태도에 관한 것이고, 삶이 예술과 관계하는 지점에 대한 동시대적 해석에 관한 시도입니다. 번안된 현실 확장의 놀이 속에서 삶에 관한 진眞·선善·미美의 유효성들을 추출하려는 이번 유리상자는 경계 없는 동시대 예술의 가치를 신뢰하게 합니다.

-정종구-

나는 모르는 일이오 mixed media, 가변설치, 2015

봉산문화회관기획 전시공모선정작가展 '현실Reality & 놀이Playing'

2015 GLASS BOX ARTSTAR Ver.3

Lee, Changjin

이창진의 수평 맞추기

1. 캄보디아

봉산문화회관 유리 상자에 설치된 이창진의 작품은 〈수평〉이다. 작품을 보면 바로 알겠지만, '수평'은 작가가 수집한 물통에 색을 푼 물을 채우고, 다양한 물 높이를 갖게 된 색 물통을 하나의 수평에 맞추어 걸어두는 작업이다. 조소를 전공한 작가는 이전 작품과는 완전히 다른 작품을 시도하는 것인데, 이는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내적 결단의 산물이다. 캄보디아의 한 레지던시에 참여했던 것을 계기로 작가는 자기 내면의 자발적인 동기만을 따라 작업을 해야 한다는 쪽으로 선회한다. 작가 고유성의 출발점이다.

이창진은 캄보디아에서 그곳 작가들의 열정과 시도를 몸소 경험하며 자신의 작업방향이나 태도를 전면적으로 점검한다. 그 결과로 주변을 돌아보고, 자신이 다룰 수 있는 것, 자신의 내면에서 기꺼이 동의하는 것들에서 재료나 주제를 가져온다. 그 결과가 〈수평〉작업이다. 이 작업은 캄보디아 주민들이 주로 음용하는 음료수('사무라이')를 수집된 병에 담아, 이것들의 다양한 높이를 하나의 수평에 맞추어 전시했다. 전시 장면에서, 투명한 용기에 선명하게 채워진 음료수는 제각기 높이를 달리하며 하나의 수평에 맞추어 매달려 있다. 용기에 담긴 액체는 저마다 높이가 다르고, 용기 속 액체의 높이가 임의의 수평선에 맞추어지니 전체 모양은 경쾌한 리듬이 울리는 듯하다. 사소하게는 인간적인 맞추기 강박의 소산일 수 있으나, 객관화하자면, 제각각의 높이로 매달려 있는 모습이 수평을 중심으로 살아 숨 쉬는 감성적 질감으로 살아나 일과 다(一과 多)의 형상화로 보인다. 이를 보자니 수평선에 걸려 있는 '부드러운 조각'을 보는 듯하다.

이런 작업을 오늘의 맥락에서 어떻게 이해해볼 수 있을까? 이국의 땅, 캄보디아에서 주민들이 상시로 마시는 음료수, 누구나 사용하는 물병을 사용하여 보이지 않는 공동체의 문화적인 체취를 담아 수평에 맞추어 놓은 것은 한 공통체의 삶의 전망을 '수평선'으로 옮겨, 모종의 기질을 조형적으로 번역한 동시대적인 문법으로 읽어볼 수 있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보이지 않는 끊임없는 상호 작용 속에서 미술의 언어를 길어낼 수 있다는 '참여의 감'을 회복하면서 작가는 그것을 미술인으로, 작품으로 드러내고 싶은 것. 이는 아마도 '공동의 전망과 다양의 공존'이라는 보다 큰 맥락과 연관된 것이 아닌지 추정해볼 수 있다. 이 점은 향후 작가의 작품 전개에 매우 중요한 방향타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그곳'에서, '그것'으로 가능한 작품, 말하자면 특정한 삶의 장소에서 조형언어로 스위치를 전화하는 방식(수평줄, 그들의 음료수, 다양의 감각적 체현), 이것이 조형적 매력 그 이상으로 그의 작품에 작용하는 보이지 않는 자질이 되어야 할 것 같다.

2. 수평과 다양

유리상자에 설치된 〈수평〉은 1.8L 플라스틱 물병 1,296개가 사용되었다. 캄보디아와는 달리 음료가 아닌 물감이 사용되었고, 색상표의 일부분을 활용해 색의 변주를 시도했다. 이 점은 캄보디아에서 작업한 것과는 다른 접근태도를 보여준다. 작가가 의식적이고 논리적인 방식으로 접근한 것은 아니지만, 단지 조형적 탐닉만으로 〈수평〉작업의 방법을 설명하기에는 무엇인가 아까운 생각이 든다. 유리 상자 전시에서도 먹고 버려진 물병을 사용했고, 이 물병의 수집 속에 우리 시대의 사소하고 일상적인 정서가 담기기는 하지만, 이를 집합적으로 모아 수평에 모아 놓은 것은, 캄보디아의 〈수평〉과 달리 조형적인 실험 쪽으로 좀 더 치우치게 한다. 아마도 설치 공간인 '유리상자'의 성격이 작품 설치에 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는데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 수평이 강조될수록 들쭉 날쭉한 다양 역시 동시에 강조되는 **긴장감**이 〈수평〉작업의 장점이자 특질인데, 이번 설치는 집합적인 설치의 방식이다 보니 긴장감이 다소 약화된다. 조형적인 측면으로 이동되려면 용기의 투명도 역시 깊이 고려되어야 할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점 때문에 이창진 작업의 장점이 퇴색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 투명한 감각을 살려내고 또 그 속에 '**수평과 다양**'이라는 매우 상징적인 두 개의 관념을 '가시적으로' 드러낸 점은 매우 탁월할 뿐 아니라 작가가 **직관적으로** 이런 지점을 주목한 것에 감탄하게 된다. 더군다나 이러한 직관이 작가로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전면적인 반성을 통해 선회한 행보라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물이 한사코 도달하려는 수평의 경지, 그 지점에 주목한 작가의 고요한 열망 역시 '수평과 다양'이라는 관념에 다름 아닌가 싶다.

'수평과 다양'에 대한 작가의 직관은 화해, 조화, 평화나 평균과는 달리 이해되었으면 한다. 그의 '수평'은 한 공동체의 보이지 않는 열망, 즉 전망이나 이념을 형상화한 것이라 한다면, 우리의 실천의 방향타를 거기에 걸어두되 각자 다양한 방식으로 고유한 감각의 주체로 있게 된다. 진정한 휴식은 이럴 때 찾아온다. 이런 방향에서, 그의 작업은 무한한 현재성을, 감각의 선명함을 작품의 특질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에는 기록되지 않을, 그러나 다양한 예술작품에 기입될 '그 당시, 그 장소, 그러그러한 사람들의 감성적 코드'가 부지불식간에 기록되는 일이야 말로 〈수평〉작업이 보여줄 수 있는 고유 자질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제 그에게 활짝 열린 작가의 직관으로 우리는 향후 물이 이루는 수평의 이념을 작품을 통해 만져볼 수 있기를 기대하게 된다.

–미술평론가, 철학박사 / 남인숙–

2015.7.10Fri ~ 9.6Sun 아트스페이스 (2F)

수평(水平)
-Water always find it's own level

코디네이터 이승희
비평가 남인숙

전시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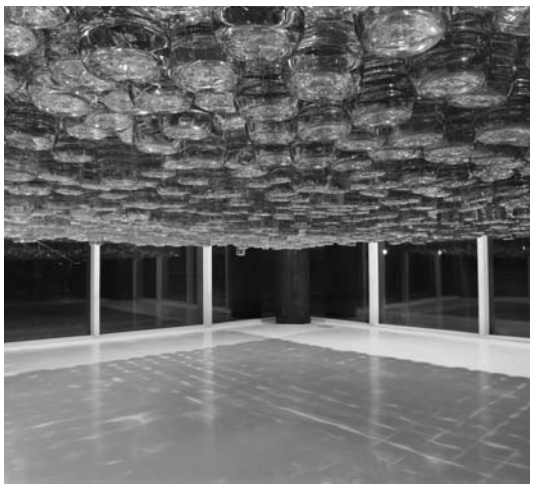
2015년 전시공모 선정작 중, 세 번째 전시인「2015유리상자-아트스타」Ver.3展은 조각을 전공한 이창진(1979生)의 설치작품 "Water always find it's own level. 물은 항상 평(平)을 맞춘다."입니다. 이 전시는 세계에 관한 작가의 관찰로부터, 발견하고 시각화해가는 작가의 장기 프로젝트 중의 어느 한 지점입니다. 작가는 세계를 작동시키는 기본적인 원리들이 어떻게 자신의 일상 속에서 은유와 유희로 작용하고, 그것이 예술의 일부로 획득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흥미롭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유리상자 안에 하나의 수평선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지상으로부터 1.17m를 기준으로 물 표면의 높이를 일치시킨 3.75×3.75m 크기의 수평면이라고 해야 합니다. 이 수평면은 위에서 내려다보면 정사각형 모양으로 한 번에 36개씩, 총1,296개의 투명 생수병을 임의 높이로 천정에 매달고, 기준 높이에 맞추어 생수병에 물을 채우면서 구축해 놓은 것입니다. 1.5ℓ 혹은 2ℓ 용량의 플라스틱 생수병에 채워진 물은 각 병마다 양을 달리함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수평선을 일치시켜 하나의 수평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1,296개의 수평선이 하나가 되는 낯선 풍경입니다. 게다가 푸른색에서 초록색으로 달라지는 수평선의 색상 변화와 외부 빛을 반사하는 투명 생수병의 재질은 심해의 수면 위에서 반짝이는 얼음 조각처럼 낯선 공간을 상상하게 합니다. 한편, 물체를 지구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중력重力은 병에 담긴 물의 수평선을 생성할 뿐만 아니라, 천정에서부터 물병을 매달아 팽팽해진 스테인리스 줄의 수직선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수평과 수직이 교차하며 펴즐을 맞추는 가상의 풍경 같습니다.

이번 전시는 세계의 작동 원리를 탐구하려는 작가의 태도가 스며든 '낯선 풍경'을 사방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유리상자 공간 속에 시각화하려는 설계입니다. 이 설계는 양 끝을 들어 올린 투명 호스 속의 물이 수평선의 양 끝점을 찾아주는 자연 원리에 주목한 순간부터 출발하여, 투명한 용기에 담은 물의 수평 작용을 시각화하며, 다른 가능성들을 실험하고 확장해가는 것입니다. 작가에게 물은 생명의 시작, 자연과 세계의 근원을 상징하는 검색어인 듯하고, 작가는 투명한 물을 투명한 용기에 담아 형상화하는 방식으로 투명성의 애매한 경계 상태와 존재감을 입체적으로 형상화하는 작업에 주목합니다. 또한 투명한 물이 담긴 투명한 개체들의 집합으로 전체를 설계하는 설치 형태와 일정한 기준과 규칙의 설정에 준하여 각각의 물병에 수십 회의 물방울을 떨어뜨리는 8일간의 신체 활동을 수행해야하는 설치 방식은 새로운 언어를 획득하기 위한 작가만의 진지한 태도입니다.
세상의 모든 투명용기에 담긴 물의 수면을 하나의 일치된 수평면으로 만드는 탁월한 시각적 실험. 마치 수직의 중력에 대응하는 수평의 에너지를 조각 맞추며 세계 작동 원리와 인간 행위의 매력적인 관계를 탐구하고, 하나의 수평선으로 '연대', '합의'의 관계를 시각화하는, 또는 그 이상의 '전체' 혹은 '일치'와 통하려는 숭고한 의식을 떠올리게 하는 이 작업은 작가가 감지한 어느 한순간을 자신의 방식으로 조형하고 은유하여 해석하려는 낯선 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작가 자신의 놀이 행위에 예술적인 본질이 존재하는지를 자문하는 이번 전시로부터, 우리는 각자의 수평선이 가진 차이로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세계를 인식하는 태도로서 하나의 수평선을 구축하며 현재적 상황에 긍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번안된 세계 인식의 놀이 속에서 삶에 관한 진眞 · 선善 · 미美의 유효성들을 추출하려는 이번 유리상자는 경계 없는 동시대 예술의 가치 확장을 응원하게 합니다.

-정종구-



수평(水平)-Water always find it's own level 페트병, 물, 3.75X3.75m, 2015

봉산문화회관기획 전시공모선정작가展 '현실Reality & 놀이Playing'

2015 GLASS BOX ARTSTAR Ver.4

STUDIO 1750+Jung, Hyesook

'스튜디오 1750'의 글라스박스 프로젝트
플라워 주스(Flower Juice)

1.
스튜디오 1750'의 〈플라워 주스〉는 일상과 예술의 경계, 그 경계를 바라보는 시선과 방법으로 선입견을 벗겨 소소한 일상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려는 시도이다. 그 시도란 '글라스박스 프로젝트(Glass Box Project)'가 가진 특정적 장소에 대한 유리벽만큼의 열리거나 닫힌 경계를 인식하는 자리이다. 2인(김영현, 손진희) 1조에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동참한 1인(정혜숙)으로 팀워크를 하는 '스튜디오 1750'의 글라스박스 프로젝트는 '일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특별해 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그러한 물음에 답하는 방식은 지천에 늘린 민들레 홀씨를 작업의 주제로 삼아서 투명한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창작과 감상을 연결하는 무대, 정확히는 일상 속(유리컵에 담긴 주스)에 홀씨를 담아 놓았다.
특별히 씨를 뿌리거나 가꾸지 않아도 지천에 널린 하얗고 노란민들레가 자라 솜털처럼 가볍고 부드러운 하얀 홀씨는 여리게 보이지만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산과 들에서 피고 지는 다년생 풀이다. 이 작고 보잘 것 없어 보이는 민들레 홀씨가 "나무만큼 사람만큼 커진다면 어떨까"라는 물음에서 출발한 '스튜디오 1750'의 글라스박스프로젝트는 〈플라워 주스〉라는 설치를 통해 스스로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그 답은 유리 상자 속으로 민들레 홀씨가 들어와 꽃이 되는 것이다.

민들레 홀씨가 꽃으로의 변신이 가능했던 것은 소소한 일상에서 발견하는 작은 것을 다른 장소에서 다른 의미를 부여할 때, 작고 평범한 것도 크고 특별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 가능성을 봉산문화예술회관의 글라스박스프로젝트에 투영해 놓은 것이 스튜디오1750의 〈플라워 주스〉이다. 이 작가들은 사방이 투명한 유리로 만들어진 건축물의 일부인 '사각의 유리 상자', 그것도 높이가 7미터나 되는 공간을 하나의 작은 유리잔으로 보았다. 그 잔에 담긴 주스에 매우 낯선 이미지인 홀씨가 들어가 있다는 상상의 결과물은 봉산동에서 볼 수 있다. 거대한 빨대는 보고 생각하고 느끼면서 마시기에 도전할 수 있는 상상의 통로이다.

아주 작은 홀씨를 커다란 형태로 이미지를 확대한 〈플라워 주스〉를 보면서 선입견을 벗기는 것은 데페이즈망(depaysement, 전치轉置)의 위력이 발휘되는 지점이다. 그것은 일상을 바라보는 작가적 시선이 작은 것을 크게, 큰 것을 작게 낯선 곳에 배치함으로써 익숙한 것도 낯설게 보게 하는, 이를테면 친숙한 이질감을 통해 일상의 평범한 공간을 새로운 공간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시도는 일상 속에서도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자, 일상 속에서 일상을 벗어나 새로운 세계를 발견할 수 있는 사고의 확장을 열어 놓는 문으로 작용한다. 일견 일상을 통해 일상의 탈주가 가능한 〈플라워 주스〉는 선입견을 벗기는 동시에 의식의 한계를 자각하게 하는 역설적인 힘도 포함하고 있다.

2.
"미술도 연극처럼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가?" 라는 주제로 시작된 〈플라워 주스〉는 몇 년 전 극장에서 관객과 함께하는 작업을 구상하던 중 만들게 된 작업이라고 한다. 그것은 관람객이 발로 펌프를 밟아 공기를 불어넣어야 비로소 축 쳐져있던 비닐 기둥들에 공기가 채워져 중심에서부터 부풀어 올라 방사형구조로 펼쳐지는 것이다. 발 펌프는 관람객의 시도만큼 비닐에 공기가 채워져 입체적 형태를 드러내는 것이다. 관람자의 행위가 멈추면 민들레 홀씨의 생명도 사라진다. 바로 이 지점에서 창작과 감상의 단절 내지 연속이 가능해지는 지점이다. 이번 전시는 관객의 참여를 통한 행위보다는 감상의 시선과 반응에 초점을 두고 설치되었지만, 애초의 계획과 다르지 않게 시점의 전환을 통해 일상의 사소한 사물을 새롭게 인식하고자 하는 의도를 부각시켰다. 그것은 작은 것, 무심히 지나칠 수 있는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느끼는 같지만 다른 시간과 장소로 재배치하는 것이다. 그것은 자신의 경험이 전제된 생활에서의 발견이고 일상을 보는 작가적 감수성이 투영된 미의식의 출발이자 미적 태도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다. 그렇기에 이번 전시는 그 어떤 이상화에 대한 갈망보다 자신이 몸담고 사는 곳에서 잔잔한 일상을 포착하는 것에 있다.

〈플라워 주스〉는 홀씨와 빨대(straw)의 조합, 이 낯선 결합이 사각의 유리박스를 하나의 컵으로 설정함으로써 일상을 담고 있는 장소와 그 장소에서 보고 마시는 것이 몸을 통해 연결되듯, 감상의 순간이 바로 사각의 유리박스와 유리잔이 연결되는 통로이다. 투명한 유리벽(잔)너머 수직적 형태의 빨대는 민들레 홀씨와 만나 낯설게 하기를 통해 보이는 것(진상)과 보이지 않는 것(허상)의 관계 설정이 이루어진다. 이렇듯 〈플라워 주스〉에서 보게 되는 것은 지천에 늘린 작은 것을 통해 거대한 것의 환상을 깨고 파편화 개체화함으로써 관계를 지연하는 그럼으로 스스로 생각하는 거리 혹은 장소에 관한 재배치이다.

-현대미술연구소 & 아트스페이스펄 / 김옥렬-

2015.**9.18**Fri ~ **11.15**Sun 아트스페이스 (2F)

Flower Juice-플라워 주스

코디네이터 정혜숙
비평가 김옥렬

전시소개

2015년 전시공모 선정작 중, 네 번째 전시인 「2015유리상자-아트스타」Ver.4展은 조각과 건축을 전공한 김영현(1972生), 조각과 디자인을 전공한 손진희(1975生) 2명이 2014년 구성한 프로젝트그룹 'STUDIO1750'과 회화를 전공한 정혜숙(1977生)이 협업한 설치작업 "Flower Juice"입니다. 이 전시는 일상에 대한 작가의 관찰로부터, 발견하고 시각화하는 '다르게 보기'에 관한 작가의 진행 프로젝트 중에서 한 지점입니다. 이 전시에서 다루는 '다르게 보기'는 관객을 향한 소통疏通 에너지이고, 쉽고 가벼운 유희일 수 있으며, 그것이 예술실험藝術實驗의 어느 영역으로 획득될 수 있는지에 관한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이를 위한 전시 설정은 사방이 유리 벽체로 구성되어있는 유리상자 공간을 커다란 사각형 투명 컵으로 상정上程하는 '다르게 보기'로부터 이루어지며, 연상되는 몇 가지 기억들을 새롭게 재구성하며 합의하고 협업하여 연출하는 것입니다. 작가의 첫 번째 기억은 2009년 초여름 해질녘 들판과 하늘을 가득 채우며 바람을 타고 날아다니던 민들레 씨앗에 관한 일상의 순간입니다. 바람을 따라 가볍고 연약한 갓털을 낙하산처럼 펼치고 저녁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이는 민들레 씨앗은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한 시간을 선사합니다. 두 번째 기억은 2009년 프랑스 남부도시 Pau의 한 극장에서 '잡초'라는 관객 참여 작품을 발표했던 순간입니다. 사람들이 무심히 밟고 다니지만 약한 콘크리트 바닥을 뚫고 자랄 정도로 생명력이 강하고 번식력이 뛰어난 민들레의 에너지를 떠올리며, 관객들이 발로 밟는 행위가 민들레 씨앗 형태의 비닐 막대에 공기를 주입하게 되고 그 민들레 씨앗의 크기가 나무나 사람만큼 커지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세탁한 의류를 싸두는 흔해빠진 세탁소 투명비닐의 연약한 재질감, 이동하는 짐의 부피와 무게를 최소화하는 유목활동의 경험, 1970년대 김영진의 공기기둥 작업을 닮은 광고용 공기 풍선기둥의 팽창감 등, 또 다른 기억의 층들이 재해석되고 가감되면서, 이 기억들은 민들레 씨앗이 담겨있는 음료를 상상하는 유리상자 전시공간에 대한 '다르게 보기'로 재구성됩니다.

바닥으로부터 1m와 3m 높이에 설치한 지름 2m크기의 조형물 2개는 공기를 주입할 수 있는 수십 개의 투명비닐 막대가 방사선 모양으로 뻗어있으며, 30초 정도의 주기를 가진 공기의 들숨과 날숨을 통해 움직임 혹은 일렁임을 선보이는데, ***이것은 액체 속에서 흔들리는 민들레 씨앗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의 주변에는 지름 40cm정도의 빨강, 파랑, 초록, 노랑 색상 기둥이 대략4~5m 높이로 세워져 있으며, 그 기둥들의 윗부분을 90도 정도로 구부려 놓았습니다. 얇은 비닐로 이루어진 이 색 기둥들은 송풍기에서 주입하는 공기의 팽창력으로 단단히 서 있습니다.* ***이것은 음료용 빨대로 보입니다.*** *우리는 유리로 마감된 전시공간이 아니라, 한 변의 길이가 6m인 커다란 사각 유리컵의 주스에 꽂힌 4가지 색상의 빨대와 주스 속에 일렁이는 민들레 씨앗을 보고 있습니다.*

이 설정들은 작가가 관객과 소통하려했던 어떤 직관直觀적인 감지感知와 유희의 탁월한 시각적 설계이며, 상상과 현실을 이어 맞추는 기억 조각의 퍼즐입니다. 이 퍼즐은 하찮고 가치 없어 보이는 민들레를 다르게 보면서부터 유리상자로 이어진 작가 스스로의 독려督勵와 자부自負를 회상하게 합니다. 또한 이 퍼즐은 예술이 어렵거나 무겁지 않은, 일상에서 확장된 감수성의 명쾌한 이미지들임을 구체적으로 시각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각흔적들은 우리들 자신의 성장과 환희를 매개하는 예술의 존재와 열정을 상기시킵니다.

-정종구-

Flower Juice 플라워주스 플라스틱비닐, 골판지, 송풍기, 가변설치, 2015

봉산문화회관기획 전시공모선정작가展 '현실Reality & 놀이Playing'

2015 GLASS BOX ARTSTAR Ver.5

Oh, Jiyeon

이게 다예요(C'est tout)

조각가 오지연의 유리상자 프로젝트 〈감정세포-아름다운 짐〉에 관한 내 생각은 적어도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과거의 실현이다. 또 이건 내 취향과 전공의 성찰적 사례연구다. 순전히 영화배우 빌 머레이(Bill Murray)를 닮았다는 이유로 그 선생님이 맡은 생물 수업을 열심히 들었던 게 내 중학생 시절이었다. 그리고서는 점점 멀어졌던 생물학이 사회 체계이론을 좀 더 깊게 전공하면서 다시 내 공부의 한편으로 들어왔다. 예술학과 사회학과 생물학의 중간 지대를 표현하는 이미지는 늘 내 시선을 낚아챈다. 오지연의 감정세포 연작도 그랬다.

몇 해 전 그녀의 서울 개인전을 우연히 보았을 당시에 나는 이 작가에 관해 아는 바가 없었고, 혹시 만난다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다. 그러다가 작가가 유리상자 프로젝트와 한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1년 동안 대화는 충분히 나누었나? 대화는 어느 선에 가서는 멈춘다. 내 예감으로는 이 모든 게 한시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전부일거다. '이게 다예요'(마르그리트 뒤라스)

요즘 생물학계에서 벌어지는 일 한 가지가 있다. 연구자들 대부분이 유기체를 잘게 쪼개는 일에 매달린다. 즉 세포생물학, 생화학, 유전학, 분자생물학 등의 분야가 각광받는 반면, 날짐승이나 들짐승, 나무, 물고기, 벌레 같은 특정 종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가령 면역체계나 발생학에 관심을 가진 나도 마찬가지다. 거시적인 패러다임에서 미시적인 패러다임으로 분석 수준의 방향을 튼 건 생물학만의 사정이 아니다. 예술학도 마찬가지다. 요즘 현대 미술가들은 통시적 관점으로 정리된 역사나 미학적 원칙보다 보이는 방법의 차별화나 시그니쳐 발명에 더 힘을 쏟는다. 여기에는 오지연 작가도 포함된다.

우리는 이 작품의 어느 부분으로 끌려가는가? 적어도 내가 들었던 몇 가지 이야기를 남들이 모른다는 가정 아래에서, 관객은 그녀가 축조해놓은 형태와 재료에 가장 먼저 눈이 갈 것이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작가가 작품에 직접 밝혀놓지 않은 미묘한 과정이 있을 거란 점을 눈치 챈다. 작가가 세포분열이나 증식 현상에 빗댄 이미지는 형태의 주변으로부터 반복되고, 흩어지고, 탈바꿈하고, 덩치를 키워가는 과정 자체가 전체를 이룬다. 이렇게 완성된(완성이라고 불러도 되나? 미완성처럼 보이는 게 개념적인 완성에 가까운 역설에 휩싸인) 이미지는 빈틈이라고는 전혀 없어야하는 기하학의 순수한 도형으로부터 제일 동떨어져 있다고 봐도 된다. 하지만 그 형태는 작가가 강박관념이라고 불려도 할 말이 없는 것 같은 동기 속에서 그녀 개인의 이야기를 품고 있다.

작업용 면장갑을 뜯어 풀은 실 하나하나가 모두 작가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거쳐 갈 육상 트랙과 같다. 누군가는 그녀의 작업에 관해 무수한 구슬이 엮여 세상이 구성된 것으로 보는 인드라망의 불교 세계관으로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미 숱한 미술작품 위에 이런 과잉 담론이 한 차례 휩쓸고 갔으며, 따라서 내가 다루지 않더라도 누군가는 그 깊은 세계관으로 오지연의 작업을 설명할 것 같다. 재료의 기본 단위를 이루는 면장갑은 하나의 세포를 보여준다. 거기에 핵이 있고 막도 있다. 그런데 이건 체세포도 생식세포도 아닌 감정세포다. 어디까지나 실재계가 아닌 상상계가 이룬 작은 우주지만, 작업 의도로만 따진다면 감정세포는 신경세포에 가깝다. 신경세포 조직의 핵심은 당연히 시냅스(synapse)인데, 이 패턴이 오지연의 작품 형태와 꽤나 닮았다. 빨간 섬유질은 뉴런이나 신경 돌기에 해당할 테고, 시냅스끼리 이어주는 단백질 성분 대신 바느질이 필요하다. 얼핏 보아 무질서한 연결망은 장갑이라는 질서 있는 망을 해체하여 무작위로 다가가는 망으로 변해가는 과정이다. 이 원형 격자는 경계가 없다. 물리학자 덩컨 와츠(Duncan J. Watts)와 스티브 스트로개츠(Steven H. Strogatz)는 이와 같은 자연계의 조합이 사회 속에서 관찰되는 좁은 인간관계와 비슷한 형태라는 사실을 1990년대 말에 증명해 낸 바 있다.

다시 말하자면, 감정세포의 기본원리는 작가가 세상과 맺으려는 연결 방식이다. 작가는 이성과 목적을 염두에 둔 전체를 움직여 나간다는 믿음이 바탕을 이룬 전체 사회를 거부하고, 모든 걸 감성의 원리 아래에서 자신만의 진실과 도덕과 취향을 작품을 통해 실현시키려 한다. 뭐, 사회에 대한 이런 피해의식이나 대인기피증은 다른 많은 예술가들에게서 어렵지 않게 관찰되긴 한다. 그녀가 바라보고자 하는 시선이 얼마나 정교한 가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세포는 현미경으로 관찰된다. 그처럼 가차 없고 세밀한 시선으로 드러난 마이크로 월드는 과학 도감이나 다큐멘터리를 통해 과학에 그다지 관심이 없는 대중에게조차 하나의 스펙터클로 다가간다. 그렇다면 말이다. 기술이 구현한 실재의 세포 체계에 빗댄 여기, 예술이 성취한 가상의 세포 체계는 또 얼마만큼의 볼거리가 될 수 있을까? 대중이 아닌 적어도 미술에 관심을 가진 관객에게 이 상상계는 실재계를 압도할 수 있을까?

작가는 최근 거듭되고 있는 전시를 거치면서, 자신의 작업이 품은 덧없음을 극복하고자 노력한다. 이번 전시의 명제로 따라 붙은 "아름다운 짐"도 설치조각가들이 처한 신세를 역설적으로 탄식한 것일 테니까. 미술가들은 이런 난감함을 뿌리치기 위해서 일찌감치 글자의 힘을 빌렸다. 요즘 각광받는 아카이브 병행 전시도 같은 전략이다. 오지연 작가의 작업도 어느 가까운 미래에 이르러 이 방법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영상 기록과 인쇄까지 거느린 이 방법은 영리한 작가들과 큐레이터들이 그 영역을 선점하고 단물을 빼먹은 다음, 이제 점점 상투적인 서브프로그램으로 전시공간에 안착되는 상황이다. 나 같으면 이런 막차를 타느니 더 엉뚱한 실험을 해보겠다(이런 무책임한). 예컨대 현미경 관찰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드로잉 튜브(drawing tube)가 과학적인 절차라면, 여기에 착안한 드로잉 작업을 입체설치와 병렬하는 형식의 전시도 현실성 없진 않다. 이런 시도도 감정세포가 단지 형태적 상동성을 취하려 한다는 의심을 막는 한 가지 방법이 된다.

여하튼 유리상자의 전시는 그 전 단계에 해당되는 의미를 가진다. 첫 번째 개인전이 특정한 재료를 써서 형태를 착안해내는 단계였고, 두 번째 개인전이 그 형태를 부분적으로 해체하며 다시 구성하는 순서였다면, 이번에 작가는 또 다른 변화를 가지고 왔다. 형태를 통하여 자신을 보여주고자 하는 욕구와 여전히 감추고자 하는 욕구의 충돌 내지 겹침이 유리상자 속에 가득 드리워져 있다. 오지연의 작품 속에서 미리 계산된 섬세함이 지금 이 장소에 실현된다면, 또 본인의 아픔을 감지하는 통각점이 표면의 질감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면, 그 빛의 스밈과 짜임 속에서 그녀는 또한 어떤 감정을 느낄 것인가?

-갤러리 분도 아트 디렉터, 예술사회학 / 윤규홍-

2015.11.27 Fri ~ 2016.1.24 Sun 아트스페이스 (2F)

감정세포-아름다운 짐

코디네이터 박준식
비평가 윤규홍

전시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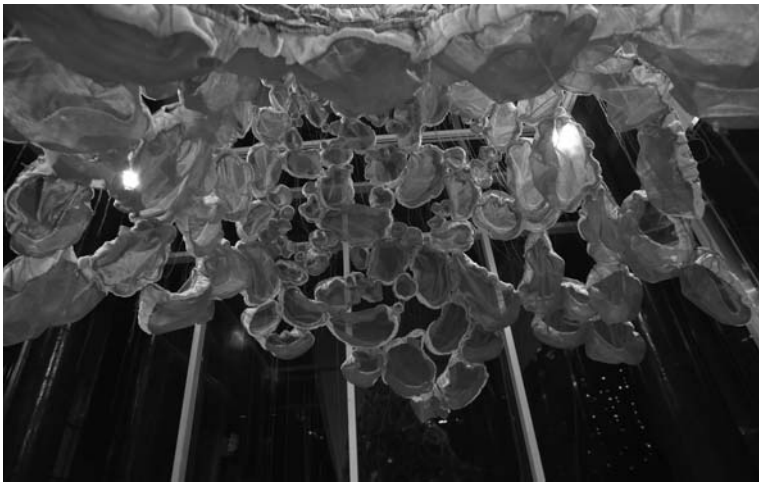
2015년 전시공모 선정작 중, 다섯 번째 전시인 「2015유리상자-아트스타」Ver.5展은 조각을 전공한 오지연(1982生)의 설치작품 "감정세포-아름다운 짐"입니다. 이 전시는 부드럽고 유기적인 형태의 조각을 연구하는 작가의 오랜 프로젝트 중의 최근 지점입니다. 또한, 개념을 다루는 미술에서는 터부시해온 '손의 활동'에 대한 신뢰와 작가 내부의 감정을 외부세계에 연결하려는 자기 이해적인 '감정놀이' 행위를 예술의 다른 가능성으로 탐구하려는 제안이기도 합니다.

이번 전시는 사방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유리상자 공간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담으려는 작가의 내적 청원請願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곳 유리상자 안에는 알 수 없는 타원 형태들의 결속과 여러 가닥의 붉은 실이 산발적으로 결합한 덩어리가 있습니다. 미지의 시공간 어디에선가로부터 채취되어 거꾸로 뒤집어져 부유하는 한 송이 붉은 나리꽃, 혹은 소중한 것을 품은 종 모양의 붉은색 열매를 닮은 이 덩어리는 작가의 자기 환상 같은 감정과 상상 기억의 자동 기술로 그려놓은 유기적 형태의 그림입니다. 높이 2.5m정도의 이 덩어리는 속이 들여다보이도록 얇은 붉은 색 망사, 붉은 빛의 실, 부드러운 목장갑의 조각 천, 형태를 잡아주는 철사 등을 손바느질하여 연결하였고, 그 아래 흰 바닥을 배경으로 인체의 피부나 살덩이의 광경을 연상할 수 있도록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상적 재료의 물성과 대면한 에스키스를 현실 공간 속에 옮겨가며 오랜 시간동안 점차적으로 완성한 이 작업은 일종의 시공간적인 드로잉입니다. 이 드로잉은 과거의 불가해不可解와 미래의 불확실不確實에 관한 예민한 감성이며, 현실에서의 결여와 억압을 감싸주는 살아있는 인간성의 따뜻한 회복이고, 그 찰나의 감정을 정지시켜 현실 무대 위에 재생하려는 신체 행위입니다.

작가가 이름붙인 '감정세포'는 붉은색 고무로 코팅한 목장갑에서 느낀 인체의 부드러움과 살아있는 듯한 감정에 대한 존중의 의미이지만, 그 속에 신비한 힘이 깃들어 스스로 분열하고 성장하여 시간과 공간의 층위 변화가 가능할 것처럼 상상하게 만듭니다. 작가는 목장갑으로 만든 타원형 세포 모양의 단위체를 매개로 어린 시절부터의 내부 깊숙한 감정들을 호출하고, '실'을 이용해 이들을 물리적으로 결속하여 그 무게에 짓눌리지만 벗어던질 수 없는 '아름다운 짐'을 구축합니다. 단위체들의 집합으로 전체를 설계하는 설치 형태와 무의식적 감각 상황과 우연에 준하여 각각의 단위체에 수십 번의 바느질과 매만지고 다독이는 손의 활동을 수행해야하는 설치 방식은 다른 예술의 가능성, 즉 새로운 언어로서의 신체행위를 획득해가려는 작가만의 태도입니다. 또한 관객의 기대에 연결 고리를 찾고 투명한 소통을 나누려는 이 구축 행위는 작가만의 '감정'에서 확장된 우리 모두의 '공감'으로 나아가려는 기원입니다.

작가의 이번 작업은 자신과 세계를 바라보는 태도와 감수성에 관한 대상화對象化이며, 자신의 '감정놀이'로 예술의 본질을 자문하는 이 전시로부터 관객이 자신의 감정과 삶을 새롭게 성찰하도록 북돋우는 고무鼓舞이기도합니다. 또한 번안飜案된 세계 인식의 놀이에서 우리들 감정의 특별한 가치를 상기시키려는 예술가 자신의 지속적인 성찰을 짐작하게 합니다.

-정종구-



감정세포-아름다운 짐 목장갑, 실, 망사, 스테인리스, 3.2×2×4m, 2015

2016

GLASS BOX ARTSTAR

2016유리상자-아트스타

Ver. 1
이지현 : dreaming book-바다
2.19- 4.17

Ver. 2
제이미리-여름 소나기
4.29- 6.19

Ver. 3
김윤경 & 박보정-하얀방White Void Room
7. 1- 8.21

Ver. 4
김문석 : 無題-허공에 붓질을 걸다
9. 2-10.23

Ver. 5
이규홍-Silence in Nature자연의 침묵
11. 4-12.24

봉산문화회관의 기획 「2016유리상자-아트스타」展은 동시대 예술의 또 다른 가능성을 찾는 예술가의 태도에 주목합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10년을 맞는「유리상자-아트스타」전시공모展을 기념하여, 이번 「유리상자-아트스타」 Ver.1展은 공모가 아닌 특별전으로 기획합니다. 올해 전시의 주제이기도 한 '헬로우! 1974'는 우리시대 예술가들의 실험정신과 열정에 대한 기억과 공감을 비롯하여 '도시'와 '공공성'에 주목하는 예술가의 태도 혹은 역할들을 지지하면서, 가치 있는 동시대 예술의 '스타성'을 지원하려는 의미입니다.
4면이 유리 벽면으로 구성되어 내부를 들여다보는 관람방식과 도심 속에 위치해있는 장소 특성으로 잘 알려진 아트스페이스「유리상자」는 어느 시간이나 전시를 관람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시민의 예술 향유 기회를 넓히는 데 기여하고,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예술가들에게는 특별한 창작지원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예술지원센터로서 더 나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참신하고 역량 있는 작가들의 작품 전시를 지속적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봉산문화회관기획 유리상자10년 특별展

2016 GLASS BOX ARTSTAR Ver.1

Lee, Jihyun

dreaming book – 바다

글을 읽어버린 책은 배를 두루마리 삼아 시간을 넘어갑니다. 가치를 상실한 책, 형태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애도하는 소리가 속으로 들리고 떠나가는 배에 걸쳐있습니다. 자연스러우면 좋겠는데 누군가의 공격으로 난파된 것처럼 말을 멎게 합니다. 책장의 파도가 넘실거립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 유리로 갇힌 장소에 파도가 넘실거립니다. 그 누구도 이곳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시선만 녀머 갑니다. 우리의 시선은 두 가지를 역설하며 느끼기 시작합니다. 한쪽 눈으로 까칠까칠하면서도 따뜻한 실험군을 보고 다른 한쪽 눈으로 영혼의 빈 껍질이 놓인 대조군을 주시합니다. 정말, 그 어떤 차이도 있지 않았으나 우리에게 오는 감정이 두 눈의 갈림길에서 갈라져 버립니다. 더는 읽는다는 건 무용합니다. 글자는 바랜 지 오래고 그 자리를 더져나간 양공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산재하는 구멍이 물질의 두께가 되며 다른 읽기가 시작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글자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글을 읽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과거를 더듬어보면 정말이지 언제까지 기억하고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눈앞에 엄마와 엄마라는 소리가 언제부터 일치했으며 엄마라는 글자를 읽고 엄마의 눈을 바라볼 수 있게 된 첫 순간을 확실히 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우리의 의식과 눈은 지금에 있다는 것이며 그 방식이 무수한 착각의 공식으로 집적되어 있다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문자는 기호에 지나지 않으며 의미를 발견하게 될 때 자신을 기만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여기에 문자는 뜻도 기호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읽어야 하는지 망설이게 합니다. 언어 없는 책, 책 없는 책장, 책장 없는 오브제. 이제 오브제는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움직이며 보는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끝없이 넘실거리는 바다와 닮았습니다. 어디를 보든 시선을 맞출 대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 멀리에 무엇인가 있다. 연기를 피우면, 조명탄을 하늘로 쏘면 그가 나를 발견하겠지.' 하지만 그런 대상은 전혀 없습니다. 수평선 아래로 잔잔하게 술렁이는 파도가 들릴 뿐입니다. 바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서 말을 거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바다는 육지보다 네 배나 더 크고 땅처럼 딱딱하게 얼지 않습니다. 산세처럼 무엇이 보이냐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나를 지켜본 마냥 그 어떤 호기심에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넘어갈 뿐입니다. 시선은 파도와 함께 파도를 넘어갈 뿐입니다. 바다는 이것을 과학이라고 보여줬습니다.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라고 보여줬습니다. 수평선 뒤에 무엇이 있는가를 묻는 게 아니라 나의 눈은 수평선 뒤를 볼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약 보이는 것이 저 바다에 배를 띄워 정복하고자 하는 대상이 돼버린다면 언젠가 그 배는 한 인간을 자멸시킬 것입니다. 크루즈처럼 항공모함처럼 거대한 선박에 탑승한 인류는 지식의 전염병에 자초하고 말 것입니다. 바다는 작은 배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단지 한 사람을 위한 배의 꿈을 슬며시 비춥니다. 노아(Noah)의 꿈이었습니다. 그로부터 기록 이전과 기록 이후의 시대를 구분하는데 정작 자신은 신학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역사 종전을 읽을 수 없습니다. 바다는 땅 위에서 땅 아래서 인류의 멸망을 지켜봤고 지금도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이 모이는 곳 바다를 통해야만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읽기를 버리는 것, 현재 우리 앞에 노아의 다른 이름인 예술가의 방주가 있습니다. 한 명이 타기에도 매우 작고 약한 배입니다. 그는 망치질하는 사람입니다. 노아가 못과 망치로 나무를 이었다면, 그는 기록의 배경으로 배를 만들었습니다. 기억할 수 없는 것을 기념하도록 네 면이 유리로 된 공간에 설치했습니다. 하늘의 궁창이 뚫리고 대지가 터질 때 돛대와 노 없는 방주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반면, 그의 돛단배는 투명한 유리창에 갇혀 우리의 시선을 도움 삼아 부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눈은 3개월 된 아기의 시력이 됩니다. 꿈이 소중한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착각 아닌 방식으로 세계를 보는 유일한 출구입니다. 아이의 눈은 비어있습니다.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른의 눈은 수많은 습관이 된 근육과 프로그래밍이 된 인지작용으로 자신과 세계를 속입니다.

본다는 것은 세계를 담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합니다. 대상을 포착하는 원근법이 그랬고 현상을 포획하는 수많은 기록이 그랬습니다. 그런 관점을 통해 의식으로 들어온 것은 모두 유명을 달리합니다. 내가 본 그것, 내가 읽은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노아는 하늘로 난 하나의 창문을 통해 바깥 날씨를 확인했습니다. 유일하게 외부와 연결된 통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미디어라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미디어는 비어있는 창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복된 상황에 놓였습니다. 배 외부에서 배를 둘러싼 창문을 통해 배를 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손에 있는 스마트폰 액정을 보듯 합니다. 미디어가 된 배의 공간은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바다가 우리를 거대하게 둘러싸고 있지만, 배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와 다른 점은 그런데도 한 곳에서밖에 볼 수 없다는 차이입니다. 이 틈으로 바다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겸손한 신뢰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다라고 말합니다. 원래부터 거기에 있었던 바다였다고 합니다. 유리창으로 고립되어 있는 배는 이 진실을 전달해 주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바람이 붑니다. 그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경우인지 우리는 깨닫습니다. 바람에 옷깃이 흔들리지 않고 머리카락이 날리지 않는다면 세상과 상관없는 도그마요, 유아론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수면 아래와 하늘을 구분하지 않는 배는 단지 떠 있는 지점입니다. 그러므로 홀로된 존재는 혼자로 남지 않고 무한히 쏟아지는 별빛처럼 반짝입니다. 이제 잃어버린 읽기를 다시 시작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설미재 미술관 학예연구원 / 김용민-

2016.**2.19**Fri ~ **4.17**Sun 아트스페이스 (2F)

dreaming book – 바다

코디네이터 이경우
비평가 김용민

전시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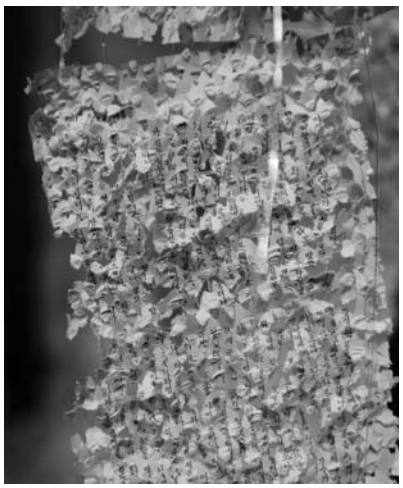
특별전으로 준비된 2016년 첫 번째 전시「2016유리상자-아트스타」Ver.1展은 회화를 전공한 이지현(1965生)의 설치작품 'dreaming book – 바다' 입니다. 이 전시는 날카로운 도구로 책을 해체하는 신체행위를 통하여,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자신의 생각과 현실 경험, 기억들을 시각화하고, 그것이 보는 이의 본성적本性的 직관直觀과 만날 수 있는 자신의 '미술'을 구현해가는 어느 지점입니다. 우리는 이 전시가 청하는 권유에 의해 예술가의 신체행위가 인류 역사의 기억과 미래의 또 다른 전망 사이를 매개하는 신성의 발현임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삶에 대한 작가의 태도가 스며든 '신체행위'를 사방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유리상자 공간 속에 가시화하려는 작가의 조형 의지로부터 설계됩니다. 수천페이지에 이르는 책의 낱장 표면을 일일이 잘게 뜯어내어 해체하고, 뜯어낸 책 조각들을 다시 조심스럽게 붙여 원래의 형태와 전혀 다른 조형설치 상태로 구축하는 이지현의 작업 설계는 신문지를 가늘게 찢어서 캔버스 화면에 붙이는 작가의 1990년대 실내풍경 회화를 실제 전시공간에 입체적 회화로 현실화하는 또 다른 가능성의 실천입니다. 읽을 수 없는 '글자'로서의 '책', 부유浮遊하는 촉각적 질료의 '물질'로 제시한 이 책은 원래의 책과는 다른 모호한 정체성을 지닌 채, 왜? 라고 작가의 행위에 대한 의미를 질문하며, 세계의 본질 혹은 실존에 대하여 물음을 던지거나 기록의 경계를 넘나들며 꿈꾸는 책을 상상하게 합니다.

5m 높이의 전시장 천정에 매달려 우리와 마주하는 길이300×폭85×높이60㎝ 정도의 길쭉한 형태의 종이 재질 덩어리와 그보다 낮은 위치에 매달려 엉긴 2개의 덩어리, 그리고 36㎡ 면적의 바닥에 한쪽 길이방향으로 운동력 있게 펼쳐진 종이이음들은 뭔가 결전을 치루는 해체적 행위 이후의 상태로 보입니다. 가까이 다가서면 거칠게 해체, 재생하면서 드러난 상처와 기억, 사실적인 존재감이 읽혀지며, 사물을 구성하는 쿼크quark입자 사이가 비어있음을 확대하여 확인시키듯이, 혹은 인간의 눈으로는 읽기 어려운 인류 역사의 기억들을 새긴 기념비를 분쇄하듯 한 사건 현장 같습니다. 최근, 제주 바다 인근에서 작업을 해온 이지현은 이 설치작업에 앞서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라는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작가는 인문학 책을 뜯어 바다와 배, 물고기, 섬, 파도의 이미지를 유리상자 공간에 연출하고, 지금까지의 인문 역사를 해체하고 떠나는, 하지만 그 역사를 이어가게 될 새로운 사건의 시간과 공간을 찾아 노를 저어가는 용기 있는 젊은이의 바다 여정과 우리의 상상 사이에 관계하는 새로운 소통을 꿈꿉니다. 우리가 올려다보고 있는 길쭉한 덩어리는 해체된 인문학 책의 낱장으로 공작한 작가의 '배'이며, 바닥에 놓인 책 낱장의 이음은 '바다'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유리상자의 '지금, 현재'는 다름 아닌 자아와 현실 삶, 인류의 오랜 기억에 대한 성찰을 반영하는 '신체행위'이며, 돌이켜보고 다르게 생각하며 수만 번을 뜯고 작은 조각으로 해체하는 행위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본연本然의 신성함을 찾아 또 다른 새로운 전망을 갈구하는 한 인간의 수행 태도와 탁월한 매체의 선택으로부터 이행되는 새로운 읽기의 가능성을 공감하게 됩니다.

–정종구–



016FE0201 dreaming book–바다 책 뜯다, 5.9×6.2×5.25m, 2016

봉산문화회관기획 전시공모 선정작가展 '헬로우! 1974'

2016 GLASS BOX ARTSTAR Ver.2

Jamie M. Lee

심미적 공간의 여백

유리상자(Glass Box Art Star)에 전시를 하기 위해 대구에 온 작가를 몇 차례 만나 대화를 나누었다. 처음 만난 인상은 소박한 이미지였다. 그러나 20년 가까이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인지 대화를 할수록 정서적인 거리감이 적지 않았다. 그 거리감이란, 천진하게 웃는 얼굴과 진지한 표정 사이, 그 폭을 가늠하기 어려워서 생기는 거리감 같은 것이었다. 두 번을 만나고 세 번을 보면서 점차 그 거리가 갖는 의미가 동일한 언어를 지각하는 방식의 차이라는 생각, 문화적 인식의 차이 혹은 다양성으로 남겨두고 제이미 리의 프로젝트인 '여름 소나기'에 대한 나의 소감을 적어 본다.

몇 일간을 매달려 완성한 '여름 소나기'는 종이를 오려 길게 늘어뜨린 설치물로 어둠이 내리는 시간에는 창백한 모습을 보이다가 불이 켜지면 환한 미소로 빛을 품고 그만의 존재감을 드러낸다. 낮에는 자연의 빛을 밤에는 인공조명을 품고 검은 배경이 생기면 하얀 선과 그림자로 심미적 공간이 만들어 진다. 이렇게 생긴 공간을 심미적 공간의 여백으로 설정해 놓고 본다면, '여름 소나기'에서 발견하는 '심미적 공간의 여백'은 선과 선 사이에 생긴 공간의 기운, 그 기운이 채워지고 비워지는 곳, 선과 선 사이에서 빛과 공기가 흐르고, 이곳이 저곳으로 또 저곳에서 이곳으로 통하는 사이공간이 된다. 그 사이공간이 바로 감상이 흐르는 심미적 여백의 공간으로 확장되는 곳이다.

심미적 공간의 경계인 선, 선과 선을 낳는 물방울이거나 꽃잎이거나 나뭇잎과 같은 잘려나간 형상은 선을 위한 부재의 공간이다. 그리고 그 부재의 공간을 공간의 여백으로 그것은 존재와 부재,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곳을 연결하는 선의 울림이다. 선의 울림을 만들어 내는 공간의 여백, 아마도 이 여운 혹은 기운 다르게는 느낌이 바로 '여름 소나기'를 표현하는 작가적 감성일 것이다. 종이를 칼로 오린 최소한의 형과 색으로 연출한 심미적 여백의 공간, '여름 소나기'는 소나기에 대한 일반적인 이미지보다는 어떤 대상에 대한 작가적 미감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체화된 경험을 거쳐 내면화된 풍경이고 혹은 한바탕 소나기가 지나가고 난 후에 햇살이 비치는 풍경, 즉 주관적 경험이 시각적 이미지로 드러나는 내적 풍경이다.

작가의 이번 유리상자 설치는 다양한 색으로 화려한 공간을 연출했던 이전과 달리 자연의 리듬이나 도시의 풍경 등 다양한 이미지를 내면화 하는 과정을 통해 간결한 재료와 형태만으로 주어진 공간 속에서 그만의 시각적 울림을 만들고자 했다. 그래서 '여름 소나기'는 종이를 오려 동일한 단위의 형(식물의 잎이나 불꽃 혹은 물방울 등)이 반복을 통해 부분과 전체의 연속체로 공간을 구성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무엇보다 오려낸 공간과 남겨진 종이의 면, 남겨진 면은 면이 아닌 선으로 마치 하얀 선으로 공간을 드로잉을 하듯, 반복되는 선적 효과로 공간과 공간 간의 밀도를 높이는 작용을 한다. 이렇게 절제된 감정 표현은 더욱 세련된 선적 효과로 심미적 공간의 여백이 되고, 그것은 다시 존재와 부재를 동시에 품고 있는 공감각적 울림이 된다.

작가는 '자연'과 '희망'을 자신의 작업을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말한다. 캘리포니아에서 20대를 보내면서 자연과 가깝게 지냈던 작가적 감수성은 이성적인 요소보다는 감성적인 부분을 보다 풍부하게 해 주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 '여름 소나기' 역시 의식적인 접근 보다 상황을 읽고 느끼는 주관적인 감성, 그 감성의 바탕을 이루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담긴 희망을 담고 싶었다고 말한다. 희망이란, 꿈을 이루기 위해 어둠을 뚫어내야 밝은 세계를 향할 수 있는 것처럼, 꿈과 희망은 하얀 종이 위에 그만의 꿈을 그릴 수 있는 밝은 공간, 어쩌면 텅 빈 공간이 있어야 그만의 꿈과 희망을 그리거나 채워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제이미 리의 심리적 공간의 여백이 담긴 '여름 소나기'가 설치된 공간, 그 사이를 걷거나 혹은 보면서 공간을 지각하는 방식을 확장해 가는 것은 보는 이의 몫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작가의 이번 설치가 존재와 비존재,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 사이의 관계의 시각화라는 매우 흥미로운 심미적인 공간의 여백을 설치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설치가 자연의 빛이거나 혹은 인공적인 조명을 받을 때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을 본다. 이 여백을 채우는 빛, 심미적 공간 속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미적 거리를 좁히거나 혹은 작품의 일부가 되어 그 속을 거닐어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

-현대미술연구소 대표 / 김옥렬-

2016.4.29Fri ~ 6.19Sun 아트스페이스 (2F)

Summer shower 여름 소나기

코디네이터 장세영
비평가 김옥렬

전시소개

2016년 유리상자 두 번째 전시인, 전시공모 선정작 「2016유리상자-아트스타」Ver.2展은 판화와 회화를 전공한 제이미 리(1977년生)의 설치작품 'Summer Shower(여름 소나기)'입니다. 이 전시는 작가 자신이 경험한 몰입沒入행위와 그 흔적으로서의 빈 공간空 Ab-grund과 소통疏通의 기억을 통하여, 우리 삶에서의 변화와 성장에 관한 예지叡智를 시각적으로 재해석하는 사태事態 입니다. 또한 지금, 여기의 상황이 작품의 일부가 되도록 주변의 자연을 끌어들이고, 관객으로 하여금 미술과 자연에 참여하도록 초청하는 시·공간적 장면場面의 상상입니다.

이번 전시는 작가 자신의 '현재'를 시각화하는 연속적인 미술 설계의 어느 지점을 사방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유리상자 공간에 담아보는 작가의 제안으로부터 시작됩니다. 2015년 여름, 작가가 미국 시카고에서 한 달간의 레지던시 기간 동안 행했던 150㎝×20m 크기의 종이 롤 작업에서부터 출발하여 2016년 3월 서울 전시, 4월 대구 유리상자 전시로 이어지면서 150㎝×100m크기 분량으로 축적蓄積 되는 작가의 장기적 설계는 시간과 공간을 잇는 연속적인 미술 행위로서 우리 삶의 지속과 변화를 닮았습니다. 얇고 하얀 종이 표면 위에 그림을 그리듯 칼로 자르는 이 '컷 드로잉' 행위는 시카고에서의 거센 비바람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여름 소나기의 음율 속에서 막막하고 불안했던 경험의 시간 흐름을 망각하고 세계와 진정으로 교감하는 무아지경의 '몰입행위'이며, 젊은 작가가 어떤 정서적 위기를 딛고 자신의 실존을 확인하는 매개적 과정입니다. 인간의 근원적 불안과 소외로부터 해방의 기쁨을 준다고 여겨지는 이 몰입행위는 즉흥적이고 직관적이며, 반복과 지속적인 '컷 드로잉' 행위에 의해 꽃잎이나 씨앗이 포개진 모양 혹은 생명체의 성장을 상징하는 듯 방사선 모양의 '빈 공간'과 일정 굵기의 선형 지지체를 남깁니다. 종이를 잘라내면서 비어진, 아무것도 없는 부재의 공간은 주변의 풍경과 관객의 참여를 담아내며, '지금, 여기'의 살아있음을 의미하는 씨앗의 상징성, 그리고 비움이 곧 채움이라는 고전의 지혜를 되새기게 합니다. 또한 이 지점은 작가의 작업이 이성理性과 자신을 넘어서 스펙트럼을 확장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 순간은 '컷 드로잉' 작업과 전시를 위한 설치의 과정에서 타인과의 만남, 그들과의 유대와 공감, 나눔의 기억들과 함께 세상과의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대략 7미터 높이의 천장과 흰색 바닥이 있는 유리상자 공간을 채운 듯 비운 하얀 종이 설치물Hand Cut Paper Installation은 중력을 거스르지 않으려는 듯 위에서 아래로 늘어뜨려 매달리거나 한쪽을 비스듬히 들어 올린 종이 집합 조형체입니다. 작가는 이를 두고 소나기가 거친 후 맑고 빛나는 '지금, 여기'의 상황과 현장에 대응하는 심상心狀의 언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회화繪畵의 화판 위에서처럼 자유롭게 드로잉을 하듯, 손으로 종이를 하나하나 자르고 그 결과물을 이어 설치하여 공간에 정서적인 드로잉을 행한 것입니다. 이 드로잉은 과거 어느 시점의 기억이 가득한 시공간적 표현이기도하지만, 인간 삶의 성장과 정서를 구축하는 매개공간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작가는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신을 알아가기 위하여 이 드로잉을 행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에서 이 드로잉은 기억과 또 다른 상상에서 기인하는 신체행위이며, 그에 관한 매력적인 자기 기록일 것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Summer Shower'는 자신을 비롯한 세계의 존재와 부재를 참조하는 드로잉 놀이이며, 그 기억의 신체행위를 반복하는 작가의 심리적 환상이고, 이를 재구성하는 회화 현장의 행위적 '사건'입니다. 그가 다루려는 것은 이성과 개념적 해석에 의해 가려지거나 제거되었던 기쁨, 행복의 쾌감과 순수 행위에 관한 것이며, 인간 성장에 관한 감성적 기억들을 담아내려는 에너지입니다. 과거를 기억하며 현재의 성장을 이으려는 이번 유리상자는 미적 신념을 소통하려는 소박한 삶의 가치를 생각하게 합니다.

-정종구-

Summer shower 여름 소나기 5.9X6.2X6m, hand cut paper, 2016

봉산문화회관기획 전시공모 선정작가展 '헬로우! 1974'

2016 GLASS BOX ARTSTAR Ver.3

Kim, Yoonkyung & Park, Bojung

하얀 방, 세상의 모든 빛이 모이는 곳 : 김윤경, 박보정

니꼴라 부리오의 말처럼, '예술은 더 이상 유토피아를 형상화하지 않는다. 모더니즘이 갈등과 대립의 시대였다면 지금 우리가 직면한 세상은 관계로 맺어진 구체적인 공간들을 건설하는 것이다.' 새로운 파트너를 만나 연합하고 그리고 해체하고 다시 건설되어지는 세상. 이러한 현상은 정치권이나 사회적인 구조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예술계의 협업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이러한 시도를 우리는 지금, 김윤경과 박보정의 만남을 통해 그 가능성을 마주하게 된다. 봉산문화회관 아트스페이스-유리상자는 조형물과 장소가 만나는 in situ 또는 장소특정적인 미술을 소개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래서 회화를 전공한 이 두 작가의 설치 계획이 은근 궁금했는데, 이번에 초대된 작가들은 이 공간을 관념적으로 풀어내고 있었다. 이유는 화이트 큐브가 아닌 사면이 유리로 만들어진 공간 즉, 유리상자에서 '하얀 방'을 만들어 내려하기 때문이다. 작가들의 시도가 조금은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겠으나 사물이 가진 의미를 통해 정신적인 세계로 가시화하려는 이들의 시도가 요즈음 작가들에게서는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것이기에 색다른 풍경을 제시하리라고 본다.

다시 말해 사물의 상징적 의미를 통해 정신적인 세계를 가시화하려는 작가들의 시도는 충분히 관념적이다. 허나 작가들에게 재료의 선택은 작품을 표현함에 있어 필연적인 것이기에, 사물이나 오브제 등을 작품으로 직접 취할 수밖에 없는 작가들의 선택은 분명, 사물과 그 사물이 가진 쓰임과 가치로 상징적 의미를 부여받는다. 무엇보다도 흥미로운 점은 이 작가들의 소재가 많이 예스럽지만 하얀 방에서의 만남은 유일성과 독특성에 기초한 조형적 접근이나 근대적 발상이 아닌 개인의 경험과 숙고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다.

김윤경은 국내에서는 드물게 두개골과 화려한 보석 등을 바니타스Vanitas 화풍으로 그려온 작가다. 그녀가 바니타스 화가들의 작품을 통해서 매력적으로 느낀 점은 '그들의 금욕적인 삶의 태도가 아니라 그들이 현세와 내세를 상징하는 상반되는 기물들을 한 화면에 함께 배치시켜 초월주의Transcendentalism을 보여준 점'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렇게 물질에 대한 정신의 우위를 더 의미있게 바라보는 김윤경의 조형적 태도는 박보정의 불교적 믿음과 닮아있다. 사찰에 모셔진 탑은 불교가 발생하기 전부터 고대 인도에서 '무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죽은 이를 화장한 뒤 유골을 묻고 그 위에 흙이나 돌들을 쌓는 돔Dome 형태의 무덤을 지칭하는데, 탑의 형태로 그녀의 작품에서 드러난다. 돌의 형상을 한 얼굴을 탑처럼 쌓아올리는 작품에서 두 작가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겠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교차하듯 두 작가의 협업은 다른 듯,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자리를 같이하고 있다.

1996년 38세의 나이로 타계한 펠릭스 곤잘레스-토레스의 작품 〈로즈의 초상〉(1991)은 먼저 세상을 떠난 그의 연인 로스에게서 비롯되었다. 전시장 내에 로스의 정상 몸무게 79kg 무게만큼의 사탕 더미를 배치하고, 전시기간 중 관람객들이 사탕을 가져가게 끔 한 작품이다. 작가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라지는 작품'을 표현하고자 했다고 전한다. 입에 넣으면 녹아 사라지는 사탕처럼 전시장 내 사탕 더미는 관람객들에 의해 변화하고 어느새 빈 공간으로 남게 된다. 사탕의 달콤함이 어느 순간 사라지듯, 연인인 로즈는 병으로 몸무게를 잃어갔고, 죽음에 이른다. 존재하지만 언젠가는 사라질 모든 것들. 나에 의해 혹은 타인에 의해… 나의 방 또한 처음엔 없었는데… 어느 사이 생겨난 모든 것들… 그리고 사라질 나의 것들…. 김윤경과 박보정은 그녀들의 공간을 만들었다. 이번 전시공간인 유리상자는 하얀 방이 되었다. 김윤경은 하얀 방에 본인이 좋아하는 물건들로 채웠고, 박보정은 손으로 빚은 수백 개의 얼굴상을 본인이자 타인이며 불특정 다수의 얼굴로 만들어 바닥에 배치시켰다. 석고상과 해골, 새장, 멈춘 시계, 초, 빈병, 꽃과 과일 그리고 화려한 보석들은 우리가 바니타스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물들로,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는 상징적인 물건들이다. 김윤경은 이 물건들을 하얀색으로 칠한다. 이것으로 사물의 본연의 색을 지워버리려 한다. 그리고 바닥에 깔린 얼굴상들은 부처의 얼굴처럼 온화한 표정을 짓고 있지만 얼굴 여기저기 찍혀있는 점들로 다양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박보정은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작가들이 부제목으로 정한 '세상의 모든 빛이 모이는 곳'이란 언급이 얼추 맞다. 빛의 3원색이 모이면 흰색이 되는데, 세상의 모든 것들 즉 삼라만상이 빛에 의해 그 존재를 드러냈다가 모두 하얀 색으로 변한 것이다. 삶과 죽음, 생성과 소멸, 사랑과 이별로 얽히고설킨 인생사가 눈앞에 펼쳐질 때 밀려오는 두려움과 허망함을 그녀들의 시각으로 묘사한 것이다. 숲처럼 쌓인 하얀 방의 풍경은 이 세상을 향해 있다.

펠릭스 곤잘레스-토레스가 〈로즈의 초상〉를 통해 바니타스를 가장 미니멀한 방법으로 극대화해 보여주려고 했다면, 김윤경과 박보정은 그녀들이 보는 불안함 때론 허망한 세상의 풍경을 '하얀 방'이라는 중립적인 공간에 펼쳐 놓았다.

인간은 누구나 이상적인 면과 현실적인 면을 다 같이 갖고 있는 야누스적 존재라는 전제 하에서 김윤경과 박보정이 예술을 대하는 태도는 세속적인 삶을 극대화 하지도, 사물의 가치를 미화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해오고 있다. 그래서 작품을 통한 강한 인상을 받기에는 쉽지 않다. 모든 것들이 기계화되고 디지털화된 이 시대에 여전히 붓으로 그리고, 손으로 만드는 작가들의 아날로그적인 조형방법이 조금은 예스럽고 오히려 일상적이지 않아서 낯설기까지 하지만 그래서 흥미롭다. 물질만능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앞에 놓인 '하얀 방', 그 방이 담고 있는 의미가 유리상자 밖으로 뿜어져 나올 때에 그 풍경이 얼마나 의미있는 알레고리로 재탄생할지는 관람자의 몫이 될 것이다.

-누스페어 동시대미술연구소장 / 강효연-

2016.7.1Fri ~ 8.21Sun 아트스페이스 (2F)

하얀방 White Void Room

코디네이터 윤현정
비평가 강효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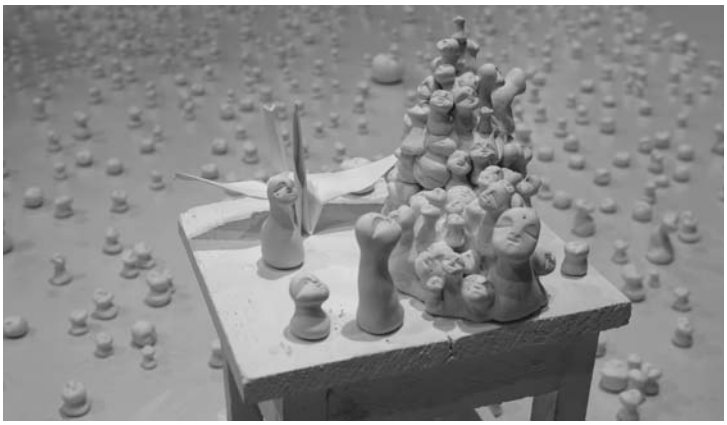
전시소개

2016년 유리상자 세 번째 전시인, 전시공모 선정작"2016유리상자-아트스타」Ver.3展은 회화를 전공한 김윤경(1977년생)과 박보정(1979년생) 두 사람의 공동 설치작업 '하얀방 White Void Room' 입니다. 이 전시는 작가 자신들이 경험한 공허空虛와 충만充滿의 기억 혹은 현실의 허무虛無와 신성神聖의 염원念願 사이를 오가는 어느 지점을 시각화하여, 우리 삶에서의 망설임과 불안不安의 상태를 예지叡智적으로 해석하고, 구체화한 다시보기입니다. 또한 지금, 여기의 상태狀態가 가능하도록 오랜 시간동안 지속해온 두 미술가의 지향적 신체행위가 관객과 만나 충만의 기억을 공유하려는 시·공간적 장면場面의 상상想像입니다.

이번 전시는 언어로 설명하기 어려운 작가의 지향을 시각화하는 지속적인 미술 설계의 어느 시점을 사방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유리상자 공간에 담아내려는 두 작가의 제안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평화로운 표정의 선승禪僧을 닮은 두상을 그려온 박보정의 회화와 무한히 가득한 빛을 배경으로 하얀 오브제 정물을 그리는 김윤경의 회화에서부터 출발하여 서로 협력하고, 여기 유리상자에서 6×6×5m크기로 확장擴張되는 작가의 설계는 시간과 공간을 잇는 연속적인 미술 행위로서 인간 삶의 굴곡과 변화에 대응하는 우리의 태도를 닮았습니다. 2년에 걸쳐 인연이 닿은 사물들을 수집하여 흰색 물감으로 칠하는 행위, 각각의 표정이 다른 4,000개의 작고 하얀 두상을 손으로 소조塑造하는 행위, 하얀 바닥이 있는 3차원 공간의 중앙에 흰색 그림을 그리듯 식탁을 놓고 그 위에 장식장을 쌓아 주변에 작고 다양한 오브제를 배치하는 행위, 이러한 '신체행위'는 생의 현실에서 경험했던 불안의 시간을 잊고 전혀 다른 충만의 기억으로 지향하려는 몰입 장치이며, 즉흥과 직관 그리고 반복과 지속을 더하여 흰색의 사물이 포개지고 나열되어 비운 듯 채워진 '하얀방'이라는 입체 정물화를 남깁니다.
16, 17세기 유럽의 바니타스Vanitas 화풍을 닮은 사물의 배치는 흰 색상으로 인해 공허해 보이는데, 뻐꾸기 시계, 3단 장식장, 식탁, 오래된 의자, 촛대, 그릇 등은 사용이 끝나 원래의 효용이 폐기된 사물들이고, 장식용으로 만든 다양한 조각상과 모조 석고상, 과일, 꽃, 보석, 해골 등은 원본을 흉내낸 복제 사물이며, 빈 술병, 소라껍질, 새장, 깃털, 거울 등은 실체가 사라진 껍질 상태의 사물들입니다. 주변의 풍경과 관객의 등장에 상대적으로 더욱 공허해 보이는 이 공간의 바닥에는 마음을 담아 간절히 생각하고 기원하는 염원의 상징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인물두상이 넓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유리상자에 채워진 흰색 사물들은 오히려 아무것도 없이 공허한 부재와 결핍의 공간을 강조하며, 동시에 빛으로 충만한 하얀방을 기억하기를 제안합니다. 이는 살아있음을 증거 하는 '지금, 여기'의 '공허'와 '충만', 그 사이에서 충만을 기억하려는 '염원'의 스펙트럼, 또 지움과 비움이 곧 빛의 충만을 호출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질문입니다. 또한 자신의 지향을 실천하는 '신체행위' 과정에서 스스로와의 만남, 동료 미술가와의 유대와 공감, 나눔의 경험들과 함께 세상과의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대략 7미터 높이의 천장과 흰색 바닥이 있는 유리상자 공간을 채운 듯 비운 하얀 방, 작가는 이를 두고 세상의 모든 빛이 모이는 곳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회화繪畵에서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듯, 기물 표면을 하얗게 칠하고 두상을 손으로 하나하나 만들고 그 결과물을 정연하게 설치하여 이곳 공간에 빛 그리기를 행한 것입니다. 이 그림은 인간 삶의 정서적 굴곡과 변화, 성장의 매개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작가는 자신에게 몰입하고 자신을 알아가기 위하여 이 그림을 행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에서 이 그림은 기억과 수집, 지우기와 만들기, 반복 등 또 다른 상상에서 기인하는 신체행위이며, 그에 관한 기록일 것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하얀방 White Void Room'는 자신의 허무와 환희를 비롯한 세계의 공허와 충만을 참조하는 회화이며, 그 기억을 따르는 신체행위를 반복하는 작가의 심리적 환상이고, 인간 삶의 과정에 관한 정서적 균형의 제안입니다. 충만의 경험을 기억하며 현재의 균형을 회복하려는 이번 유리상자는 미적 신념을 소통하려는 소박한 삶의 가치를 떠올리게 합니다.

-정종구-



하얀방 White Void Room 혼합재료, 5.9X6.2X4.5m, 2016

봉산문화회관기획 전시공모 선정작가展 '헬로우! 1974'

2016 GLASS BOX ARTSTAR Ver.4

Kim, Moonsuk

김문석, 그림을 묻다.

1. 붓질과 그리기의 문제.

유리상자에 설치작품을 선보이는 김문석은 '그리는 문제'에 대한 자신의 오랜 고민을 펼쳐놓았다. 본드와 숯을 섞어 재료를 만들고, 자신이 제조한 물감을 덜어 내어 크게 붓질을 한다. 그림과 붓질에 대한 김문석의 생각은 얼마 전(2016.4.6-2016.4.17, 봉산문화회관) 평면 형식으로 전시된 바 있다. 그의 붓질은 평면위에 놓여 있기도 하고, 철필로 바탕을 긁어 종이 위에 붓질의 성질을 새겨 놓기도 한다. 종이에 새겨진 붓질은 천에 스며드는 염료처럼 매재와 하나가 되면서 자신의 고유 형상을 드러낸다. 결과로 남은 작품에는 작가의 기예(techne), 재료와 만나는 힘의 강도, 형상을 이루어가는 붓의 경로, 이 과정 모두에 작용하는 우연적인 요소들 등등, 불가피하게 '작업(work)'과 관련되는 여러 요소들이 융합되어 한 덩어리의 행위를 이루면서, 행위의 과정 자체가 '붓질'이라는 형상에 담긴다. 붓질은 행위의 과정이자 작가를 세상과 연결시키는 미디엄(medium)이면서 한 단위의 작업 결과이기도 하다. 김문석은 시종일관 '그림그리기란 무엇인가'를 묻고 있는 것이다.

세상에 태어난 아이가 처음에 우연히 발성을 하게 되고, 이것이 점차 하나의 의미단위에 이르고, 여러 의미단위를 문법에 맞추어 자유로이 응용하며 표현을 구사하게 되면서 아이는 동물에서 인간으로 형성되어 간다. 이것처럼 김문석에게 '붓질'은 그림 그리기에서 발생되는 시초의 발성 단계이기도 하고, 이로부터 의미단위의 형성과 응용에 개입하는 결정적인 사건이기도 한 것이다. '붓질'은 작품이 한 문화의 의미 단위로 되어가는 결정적인 사건이고 그림그리기의 기본단위이면서 형상(figure)을 이루는 근본 단위이자, 이것의 근본성과 결정성을 내용으로 삼는 결과물이다. 그렇다면 김문석이 이해하고 있듯, 사건으로서의 붓질은 동서양의 차이의 문제라거나 고금(古今) 간의 차이의 문제라기보다 그 구분을 넘어 '행위하는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는 하나의 관점을 담아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그의 작품은 이러한 근원적인 문제와 사건을 지시하는 지표(index)라고 할 수 있다. 작가로서 김문석이 던지는 문제의식은 발생단계로부터 의미단위에 이르기까지, 즉 우연적인 사건이 결정적인 사건으로 이행되어 가는 과정을 자신의 작품으로 포획하고자 하는 데 있으며, '붓질' 작업은 바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일거에 관통케 하는 지표가 되는 것이다. 이번 설치작업은 평면작업에서 바탕과 혼연일체가 되어버린 '붓질'을 생선에서 포를 떠내듯 떼어내어 '그림그리기' 사건의 핵심을 극화하는 작업이다. 붓질이 지지체 없이, '붓질 자체로' 오롯이 출현하게 되는 기획인 것이다.

어느 철학자가 설명한 것처럼 세상과 만나는 그 순간, 말하자면 '지각의 순간'은 세상의 일부와 감각의 주체가 만나면서 동시에 혼용되어 뒤섞이는 순간이므로, 이 사태를 잘 설명하는 것과 그것이 지니는 결정적 의미를 설득하는 일이란 고명한 철학자의 주요 핵심 과제가 될 만큼 어렵고도 지난한 일이다. 작가들 역시 이러한 고명한 철학자와 비슷한 인물들인 것이다. 발생은 우연적이지만 이것이 결정적인 의미로 전환되어, 이를 결국 물질로 존재케 하려는 욕망에 있어서 작가들의 욕망은 여느 고명한 철학자에 버금가거나 그 이상이다. 작가이고자 하는 인물은 언제나 가능한 것을 존재케 하려는 존재의 열망에 휩싸인 인물인 것이다. '붓질'을 단독 사건으로 형상화하려는 김문석의 설치작업 역시 이러한 작가적인 열망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도전과 해결의 방식이 이번에 '유리상자'를 존재의 실험무대로 변형시켜 놓는다. 설치된 '붓질'은 유리상자 내부와 외부에 개입하면서 마치 평면에 지나가며 습합된 붓질처럼 공간을 물들이면서, 혹은 공간 속에 흡수되면서도 '붓질' 자체의 뚜렷한 존재감을 발산한다.

2. 붓질과 작가의 출현.

한갓 우연에서 결정적인 사건으로 남기까지, 이 일련의 과정에는 작가 자신을 초과하는 수많은 변수들이 출현한다. 재료를 조제하였는데 생각한데로 다루어지지 않는다거나, 재료를 다루는 데는 성공하였지만 운반체나 공간의 조건에 따라 재료가 유지되지 못한다거나, 어떤 요인으로 인해 작품에 심각한 변형이 일어난다거나, 제작을 마치고 난 이후 작가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하는 등등의 수많은 예측하지 못한 변수들이 항상 작가를 위협한다. 작가라면 누구나 각오해야 하는 이러한 돌발변수들에 대해 얼마나 유연하게 대응하는가, 대응 강도에 있어 얼마나 치밀하고 끈기 있게 해결하는가 하는 점 등은 그 작가가 얼마나 '좋은' 작가인지를 알려주는 척도가 된다. 문제 해결의 현장인 작업의 설치 현장에서 작가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작가는 자신이 예상치 못했던 변수들, 예상은 이미 했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난감하게 다가오는 문제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작업과 관련되어 몇 가지 인상적인 것이 있어 언급해둔다. 김문석은 평소와 다름없이 작업문제에 있어서 솔직하고 매우 진지한데, 그의 말 너머에서 김문석의 진지함의 깊이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에 대한 색다른 인상이 남았다. 자신이 던지고 있는 질문, '그림이란 무엇인가'는 아주 오랜 동안, 반복적으로 깊이 되새겨진 질문이구나 하는 점이 보다 분명하게 다가 온 것이다. 이 질문은 그의 실존의 무게에 섞여 항존하며 자신을 지탱시킨 축의 일부이고 그렇기 때문에 작가 김문석의 독특성의 어떤 자질을 싣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에도 그의 작업에 대한 열정, 그림그리기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한 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구나 하는 인상에서 결국, 이러한 근성이 유리상자에 '붓질'의 출현을 가능케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붓질'의 출현은 곧 작가의 존재감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라는 점을 덧붙이고 싶다. 그의 조용한 열망에 응원을 보낸다.

-미술평론 • 미학 / 남인숙-

2016.9.2Fri ~ 10.23Sun 아트스페이스 (2F)

無題- 허공에 붓질을 걸다

코디네이터 손노리
비평가 남인숙

전시소개

2016년 유리상자 네 번째 전시인, 전시공모 선정작 「2016유리상자-아트스타」Ver.4展은 회화와 건축을 전공한 김문석(1963년生)의 설치작업 '무제無題-허공에 붓질을 걸다'입니다. 이 전시는 작가 자신이 경험한 행위行爲의 살아있는 상태狀態와 그 시각적 축적蓄積을 통한, 최종 결과의 이면裏面에 존재하는 과정의 감동과 생생한 몰입沒入의 진실에 주목注目하는 것이며, 우리의 균형均衡 감각을 제고提高하려는 시공간時空間적인 사태事態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서 예술이 무엇인가? 예술가로서 어떤 삶이 가능할 것인가? 라는 작가의 질문과 태도이기도 합니다.

이번 전시는 '예술 행위'를 바라보는 작가 자신의 태도를 시각화하여 사방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유리상자 공간에 설치하려는 작가의 설계로부터 시작합니다. 대략 7미터 높이의 천장과 흰색 바닥이 있는 유리상자 공간을 비운 듯 채운 두 개의 커다랗고 낯선 붓질, 폭115×길이700㎝ 크기의 검은 붓질 설치물 2개는 중력重力에 힘을 더하듯 위에서 아래로 내려 긋거나 비스듬히 사선으로 그어 내린 검은 숯의 혼합체입니다. 작가는 이를 두고 수많은 시도를 거친 후 명쾌하게 살아있는 지금, 여기의 현장 상황에 대응하는 예술의 상징적 '언어'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그는 종이나 화판 위에서처럼, 서예의 일획을 긋듯이 허공에 온 몸으로 붓질 행위를 하고 이를 고형固形화하여 공간 속에 하나의 '개념槪念'으로 선보인 것입니다.

예술의 개념에 관하여 작가가 주목한 '신체 행위'는 선을 긋는 붓질, 특히 서예書藝에서 획을 긋는 '붓질'로 상징됩니다. 시작과 끝, 강약과 속도, 호흡, 리듬, 반복, 지속 등, 시간성과 관계하는 붓질의 행위 과정들을 회화나 조각처럼 한 시공간에 고정시킬 수는 없을까? 시간성이 깃든 신체 행위의 생생한 진실과 살아있는 감동이 '예술 행위'의 본질本質은 아닐까? 그렇다면, 다른 매개체 없이 본질적인 붓질만의 에너지와 행위 과정의 매력을 집약할 수는 없을까? 작가의 이러한 물음들이 이번 전시 설계의 이유입니다. 이 '붓질 행위'는 무엇의 재현이 아니라, 주변 환경 즉, 시간과 공간의 인식 속에서 예藝의 기氣로 충만한 선비의 느긋한 춤을 닮았습니다. 그것은 내부 깊숙이 의도를 간직한 채 부드럽고 잔잔한 흥을 일으키는 몸의 움직임이며, 온몸을 세계의 흐름에 맡기며 교감하고 몰입하는 전신傳神의 행위입니다. 작가는 자신이 허공에 제시하는 낯선 '붓질'로부터, 관객이 '신체 행위'를 읽어내고, 행위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상상하며, 관객 자신의 인식 속에서 '붓질 행위'의 생생한 살아있음을 복원復原할 것을 기대합니다. 즉, 작가는 최종 결과물만이 아니라 과정상에 존재하는 생생한 날것의 본질에 관하여 주목할 수 있는 우리의 균형均衡 감각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붓질 행위'는 삶과 예술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 혹은 작업의 독자성에 대하여 질문하고 확인하는 예술가의 행위를 은유합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에너지 상태이며, 인간의 근원적 불안과 소외의 위기를 딛고 자신의 실존을 확인하는 우연의 행위이기도 하고, 또한 순간의 일획一劃으로서 전부를 파악하는 동양예술의 직관直觀을 따르기도 합니다. 작가는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신을 알아가기 위하여 또 자신의 미적 감수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 행위를 지속합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에서 붓질 행위 드로잉은 또 다른 가능성의 상상으로부터 기인하는 작가의 신체 행위이며, 그에 관한 매력적인 자기 기록일 것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무제無題-허공에 붓질을 걸다'는 자신을 비롯한 세계의 존재와 그 이면을 주목하는 행위 드로잉이며, 예술의 본질을 탐구하는 기억의 신체 행위적 '사건'입니다. 작가가 다루려는 것은 이성과 결과 중심의 해석에 의해 가려지거나 제거되었던 과정의 기쁨, 쾌감, 감동, 몰입에 관한 신체 행위이며, 인간 성장과 예술에 관한 본질을 진솔하게 기억하려는 에너지입니다. 행위를 기억하며 현재의 성장을 선보이려는 이번 유리상자는 미적 신념을 소통하려는 예술가의 삶과 그 가치를 생각하게 합니다.

-정종구-

untitled 숯, 4X4X4m, 2016

봉산문화회관기획 전시공모 선정작가展 '헬로우! 1974'

2016 GLASS BOX ARTSTAR Ver.5

Lee, Kyouhong

들여다보기, 들어가보기

사방이 유리로 된 42.9㎡ 남짓한 너비의 상자 앞에 선다. 투명하고 얇은 면에 손을 대어본다. 매끈하고 단단한 감촉이 느껴지는 손가락 사이로 차가운 기운이 스며든다. 흠칫 놀라 손을 떼어보지만 차가운 느낌은 한동안 가시질 않는다. 비단 겨울을 앞둔 11월의 날씨 때문은 아닐 것이다. 그것도 잠시, 들여다본 유리창 너머로 풍경이 아른거렸다. 매달려 있는 혹은 붙들고 있는 그 모습을, 멈칫거리는 혹은 옴나위하는 그 움직임을 다시 의식한다. 그때, 한 줄기 빛이 풍경 속으로 비춰지고, 가는 선을 타고 흐르던 덩어리 끝에 빛이 양껏 맺혔다. 빛을 머금은 풍경은 온전히 따스함 그 자체이다.

알고 지낸 시간이 그리 길지도 않지만, 깊게 대화를 나눠볼 기회도 없었기에 충분히 작가와 작업에 대해 알고 있지를 못했다. 대화를 시작하기 전 급급히 이것저것을 뒤지다 본 작가노트의 마지막 문장에서 실마리를 꿸 단서를 떠올렸다. '의식이 빛의 속도로 시간을 거스를 때가 있다' 작가가 적어놓은 이 한 문장이었다. 시간은 한 방향으로 흐른다. 우리는 현재를 앞질러 미래로 달아날 수도 없고, 현재를 뒤돌려 과거로 되돌아갈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거스르고자 함은, 혹은 의지와 무관하게 거슬러지게 됨은 도달하고자 하는 과거 그 끝에 무언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작업을 구상하고 그것을 풀어놓는 데는 무수히 많은 방법적 선택의 기회가 있다. 그러나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는가의 문제에 있어서는 한계에 봉착하기 쉽다.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고 다룰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자유롭게 모국어로 말하며 내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상황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결국 학생 시절의 전공은 이후 작가로서의 길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유리'라는 물성에 반해 학부를 시작하기 전부터 미리 자신의 언어를 정해놓았다는 작가의 말에서 작가로서 가질 수 있는 큰 행운 중 하나를 얻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뜨거운 열기를 내뿜는 녹은 유리는 파이프 끝에 매달려 작가의 숨이 불어넣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마 여러 종류의 '숨'이 있을 것이다. 후회 속에 내뱉는 한 숨이나 연민의 감정을 담은 한 숨, 아니면 긴 긴장 끝에 찾은 안도의 한 숨도 있을 것이다. 또는 죽어가고 있는 것을 살리기 위해 불어넣는 심폐소생술 행위 속의 한 숨도 있을 것이다. '숨을 불어넣는다'는 것. 생기 없는 것을 되살리기 위한 행위에 우리는 이 관용어를 사용하곤 한다. 아직 제 생명력을 온전히 가지지 못한 체 흐르던 유리가 차갑게 식기 전, '숨을 불어넣는다'는 것. 작가가 불어넣고자한 그 숨은 무엇을 위해서였을까. 시간을 거슬러 올라 도달하고 싶은 저편을 되살리기 위한 숨이었을까. 이제는 만질 수도 붙잡을 수도 없지만, 만지고 싶고 붙잡고 싶은 것을 되살리기 위해 한껏 끌어올려 불어넣는 한 숨 말이다. 아니면 오히려 저편에서부터 끌어올린 깊은 한 숨이었을까.

연속되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느 순간 현실과 겹쳐지며 불쑥 찾아오는 파편화된 기억들이 있다. 마치 손이 미끄러져 놓쳐버리는 바람에 깨뜨려버린 내가 좋아하던 유리컵의 조각들을 우연히 맞닥뜨렸을 때와 비슷하다. 시간이 흐르며 차츰 흐릿해지고 오늘의 기억에 묻혀질 때쯤, 다 치웠다고 생각했지만 소파 밑에서 보석처럼 반짝이며 발견되기도 하고, 식탁 밑에서 발에 밟혀 발견되기도 하는 조각들을 우연히 마주했을 때가 말이다. 그 컵은 이제 없다. 사실 그 컵에 대한 물질적인 기억보다는 컵과 관련된 풍경들이 덧씌워져 떠오르게 마련이다. 알맞게 쏙 들어오던 그 둥글기, 손바닥에 전해지던 차의 뜨듯함, 몸도 풀리고 눈도 풀린 상태로 나누던 자세히 기억나지 않는 담소들... 작은 조각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너무나도 빠르게 저편으로 거슬러 가진다.

키를 훌쩍 넘을 만큼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는 아이에게 이제는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라는 것을 알렸다. 대문을 열고 들어선 마당에는 우물 옆 절구통, 멍석 위 빨간 고추가 있었다. 그리고 고추만큼이나 빨갛게 익어가던 감이 주렁주렁 달린 커다란 감나무. 이따금 감나무 밑에는 아버지가 서계셨다곤 한다. 오랜만에 만나는 아버지의 얼굴은 점점 수척해갔지만, 그러한 사실을 알아채기에는 뉘엿뉘엿해진 햇빛 속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 따듯했으리라.

작가가 불어넣은 한 숨, 그 되살림의 행위를 통해 우리는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지만 그 때 그 감나무가 있던 마당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 빛을 머금은 따스한 풍경 속을 함께 거닌다.

-예술학 / 양영은-

2016.11.4Fri ~ 12.25Sun 아트스페이스 (2F)

Silence in Nature 자연의 침묵

코디네이터 박성원
비평가 양영은

전시소개

2016년 유리상자 다섯 번째 전시인, 전시공모 선정작「2016유리상자-아트스타」Ver.5展은 유리조형을 전공한 이규홍(1972년생)의 설치작업 '자연의 침묵 Silence in Nature'입니다. 이 전시는 작가 자신이 감지한 인식의 흐름, 즉 '의식意識이 빛의 속도로 시간을 거스를 때가 있다.' 라는 상태狀態를 시각화하면서, 아무런 말없이 즉각적으로 전해지는 자연의 충만한 전율이 우리 삶에서의 망설임과 소외를 대신하기를 바라는 기원입니다. 또한 지금, 이곳의 풍경이 유리 물성의 표면과 투명성에 깃든, 이와 함께 과거의 따뜻한 기억을 떠올리며 오랜 시간동안 유리를 만져온 미술가의 신체행위가 관객과 공유하는 경계 없는 시·공간적 상상想像이며, 그 충만함이기도 합니다.

이번 전시는 언어와 논리에 앞서는 인식의 흐름을 시각화하려는 지속적인 미술 설계의 어느 부분을 사방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유리상자 공간에 담아내려는 작가의 제안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곳 6×6×5.5m 크기의 유리상자 내부 천장에 매달거나 바닥에 펴놓은 77개의 투명하고 붉은 덩어리는 작가가 입으로 취입吹入하여 만든 유리조형입니다. 짐작하듯이 쇠로된 파이프 끝에 뜨겁게 녹인 유리 덩어리를 묻혀 숨을 불어넣어 부풀리는 유리 취입 행위는 상당히 오래된 유리 가공법이며, 이는 작가의 호흡과 신체행위가 작업과정에 일체되어 긴요하게 결합하는 장인匠人의 태도가 요구되는 작업이고, 현재의 디지털 문명과는 대척되는 아날로그적 감성과 탄생의 숨을 불어넣는 고귀함, 인간적인 손맛이 느껴지는 매력적인 행위입니다. 이러한 감성적 지향을 담은 작가의 유리조형 행위는 현재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과거의 기억과 잇는 정신적인 미술 행위로서 인간 삶의 망설임과 변화의 순간마다 기명記銘, 보유保有, 재생再生, 재인再認의 단계로 기억하는 인식체계의 주목으로부터 기인합니다. 이규홍의 신체행위는 생의 현실에서 경험했던 불안과 소외의 시간을 잊고 전혀 다른 충만의 기억으로 재생하고 재인하려는 몰입沒入 장치이며, 자신의 감수성과 직관 그리고 반복과 지속을 더하여 붉은색의 투명한 유리 덩어리를 포개고 나열하는 '자연의 침묵'이라는 입체 그림으로 남겨집니다.

작가가 일곱 살이던 어린 시절, 몸이 아픈 아버지와 떨어져 진도珍島의 할머니 댁에서 아버지를 기다리며 보냈던 3년 동안의 시골생활은 이번 전시를 위한 기억으로 호출되어 재생됩니다. 기와로 이은 지붕과 넓은 마당이 있는 한옥, 그 마당 한편에는 커다란 감나무가 있고, 가을 햇살을 한껏 머금고 떨어질 듯 나뭇가지에 매달려있는 홍시, 고추 말리던 멍석을 뛰어넘어 다니며 동네 아이들과 공놀이를 하던 기억들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순리에 따라 저절로 이루어지는 세상의 모든 존재나 상태로서 자연이 작가에게 주는 따뜻한 위로이며, 행복과 충만의 시간입니다. 홍시를 닮은 유리상자 안의 유리조형물들은 과거 기억의 호출에 다름 아닙니다. 주변의 풍경과 관객의 출현을 투영해내는 이 유리조형은 생명을 다하기 직전의 살아있는 찬란함을 증거 하는 '지금, 여기' 의 '충만' , 그 충만을 기억하려는 '염원' 의 스펙트럼, 가슴이 공허한 부재와 결핍, 소외의 시공간을 치유하려는 상징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동시에 생노병사生老病死하는 자연의 이치를 수긍하고 기억하기바라는 제안이고, 또 머금기도 하고 뱉기도 하는 투명성이 곧 햇빛으로 충만한 자연을 호출하지 않을까하는 기대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향을 실천하려는 신체행위 과정에서 스스로와의 만남과 관객과의 공감, 유대의 경험으로서 세상과 '소통' 하려는 매개인 것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자연의 침묵' 은 따뜻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비롯한 세계의 충만을 참조하는 그리기이며, 그 기억을 따르며 지속적으로 진선미眞善美를 구하는 미술가의 심리적 환상이고, 인간 삶의 머뭇거림에 관한 정서적 치유의 제안입니다. 충만의 경험을 기억하며 현재의 균형을 회복하려는 이번 유리상자는 미적 신념을 소통하려는 예술의 실천 가치를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정종구-

자연의 침묵 Silence in Nature 유리, 신축성 섬유, 와이어, 가변크기, 2016

2017

GLASS BOX ARTSTAR

유리상자-아트스타2017

Ver. 1
정승혜-달무지개 Moonbow
1.20- 3.19

Ver. 2
임용진-기록, 캐스팅
3.31- 5.28

Ver. 3
권효정-Oasis: Fountain of life
6. 9- 8. 6

Ver. 4
이선희×정연지 -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8.18-10.15

Ver. 5
이기철, 토끼시대-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10.27-12.24

부산문화회관의 기획, 「유리상자-아트스타2017」전시공모선정 작가展은 동시대 예술의 낯선 태도에 주목합니다. 올해 전시공모의 주제이기도 한 '헬로우! 1974'는 우리시대 예술가들의 실험정신과 열정에 대한 기억과 공감을 비롯하여 '도시'와 '공공성'을 주목하는 예술가의 태도 혹은 역할들을 지지하면서, 가치 있는 동시대 예술의 '스타성'을 지원하려는 의미입니다. 4면이 유리 벽면으로 구성되어 내부를 들여다보는 관람방식과 도심 속에 위치해있는 장소 특성으로 잘 알려진 아트스페이스「유리상자」는 어느 시간이나 전시를 관람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시민의 예술 향유 기회를 넓히는 데 기여하고,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예술가들에게는 특별한 창작지원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예술지원센터로서 더 나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공모에 의해 선정된 참신하고 역량 있는 작가들의 작품 전시를 지속적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봉산문화회관기획 전시공모 선정작가展 '헬로우! 1974'

GLASS BOX ARTSTAR 2017 Ver.1

Jung, Seunghye

정승혜는...

정승혜의 최근 작업을 보노라면 미국의 팝 아티스트 로이 리히텐슈타인Roy Fox Lichtenstein의 작품이 떠오른다. 로이 리히텐슈타인은 가장 미국적인 미디어인 만화를 통해서 가장 미국적인 모습을 작품으로 승화시켰다. 또한 통속적인 만화를 캔버스로 옮겨 단순한지만 강렬한 선과 색을 통해 전쟁, 물질만능주의에 대한 비판, 인간의 관계, 사랑과 같은 주제를 주로 다루었다. 반면, 정승혜는 일상에서 발견되어지는 이미지들이나 동화를 모티브로 하고 있지만 지극히 자전적인 이미지들로 작품을 구성하고 있다. 작가는 잡지 등을 통해 습득된 이미지들을 본인의 필체로 종이 위에 드로잉하고 이를 스캔한 후, 그 위에 컴퓨터 포토샵으로 덧칠하는 방법으로 드로잉을 만들어낸다.

작가는 20대 초반, 어머니의 죽음을 경험한다. 그리고 삶과 죽음은 작품 활동의 주요 테마로 작용한다. 당시, 작가는 그러한 자신의 작업 성향이 스스로 작업을 지속하기에 부담스러웠다고 고백한다. 그래서 공백기를 가져야 했고, 무엇보다도 삶을 통한 작품관에 변화를 느낄 수밖에 없었던 시기, 아이에게 동화를 들려주고 그 동화를 통해 꿈과 희망을 찾아가듯 작가는 작품을 조금은 가볍고 밝게 표현하기 시작했다.

동화를 배경으로 무지개를 쫓는 작가 정승혜, 그녀에게 미술은 삶의 무게를 미화할 수 있는 작가만의 치유 방법이다. 갑작스런 어머니의 죽음 이후, 정승혜의 드로잉이 전해주는 이미지는 예민하고, 애절함이 묻어나 작가의 감정이 드로잉에 그대로 전이되어 작가의 상태를 그대로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지만 누구에게나 극복하기 힘든 일이기에 작가가 느끼는 인간적 번뇌가 고스란히 작품을 통해 보는 이에게 전달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은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 자신의 작업을 객관적으로 만들어나가는 것을 강조한다. 누구나 쉽게 접하는 잡지나 영화에서 관심 가는 이미지들 혹은 경험한 일을 찾아 자신의 것으로 취하고 관객에게 다시 제공했을 때에는 타인과 공유할 수 있는 지점을 확보하게 된다. 리히텐슈타인이 자신의 아들을 위해 미키마우스를 그린 것을 시작으로 만화라는 소재를 통해 대중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것처럼 현재 정승혜가 집중해 있는 동화라는 소재가 작가가 바라보는 세상의 풍경이자, 작가적 의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지점이란 생각이다.

쉬운 작품으로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미술을 하고 싶다고 말하는 작가를 보며 잠시지만 작가의 바람이 순진하게 보이기도 하고, 세상을 너무 단순하게 보는 것은 아닌가 싶어 걱정스럽기도 했다. 미술로 쉽게 다가가고 싶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생각일 수 있고, 이렇게 판단하는 작가의 기준이나 다양한 계층의 미적 수준과 취향은 사실 간단하게 정리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에게 필요한 것은 창작을 위한 작가의 의지와 신념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그녀의 고집스러움에 애정을 느낀다.

작가가 선택한 잡지 속 이미지는 감각적이다. 어느 지점이 강조되고 시각적으로 자극되는 것이 무엇인지 작가는 아주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이는 작가가 계획하고 의도 했다기 보다는 그녀에게 내재된 잠재력에서 기인했다고 보인다. 정승혜의 드로잉은 귀엽고 예쁘다. 다시 말해 작가가 택한 미적 요소들이 대중이 좋아할만한 이미지들이다. 작품을 보고 상상의 폭은 제각각 다르겠으나 나들이 나가고픈 봄 처녀의 마음을 반영하듯 바람에 날리는 분홍색 커튼 , 고백을 앞둔 남자가 수줍게 꽃을 들고 있는 모습 등은 우리가 충분히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적 풍경이다. 작가는 이러한 이미지를 선택하고 자신의 이미지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번 유리상자에 소개되는 작품은 〈달무지개〉란 제목으로 '무지개 롤 케이크'를 찾아 나선 곰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작가는 본인의 신념을 동화 속 주인공이자 자신이 투사된 곰이라는 캐릭터를 통해 대중에게 이야기한다. 곰이 수많은 역경을 딛고 무지개를 만나게 되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다. 그리고 그 무지개는 곰이 '무지개 롤 케이크'를 만나기 위해 지나온 시간동안 만난 대상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한참 비가 오고 난 후에 생겨나는 무지개처럼 지난 일들은 무지개를 보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알게 된다. 작가의 글을 읽다보면 사실 명확하지가 않다. 아이들을 위한 동화라고하기엔 명확한 스토리가 없고, 예술작품이라고 표현하기엔 동화적 요소가 더 많다. 그래서 애매하게 보이지만 안 될 건 없다. 그래서 흥미롭다. 특히나 이번 전시에 소개되는 시트지의 나열이 얼마나 미적 요소를 담아낼지 의구심이 들지만 무지개 네온과 함께 어우러져 묘한 풍경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조금은 작위적인 풍경으로 연출된 유리상자, 밤에는 조명과 무지개 네온에 의해 시트지의 색깔이 변하고, 전시장내 설치된 유리창에 맺히는 무지개 빛깔은 대중적 시선을 잡기에 충분하다.

지금까지 정승혜의 작업하는 과정을 보면 작가가 의도적으로 팝아트를 표방하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팝적인 요소가 여기저기서 발견되어짐은 대중적인 작품을 선보이겠다는 작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다. 이렇게 정승혜는 팝아트라는 개념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는 하나 팝아트를 생산해 내고 있다. 아직은 성장하고 있는 작가이기에 많은 고민과 실천이 뒷받침될 거란 생각이다. 지금까지 정승혜의 작업은 아주 사적인 해석과 바람을 통해서 작업이 전개되어왔다. 이제는 자신의 장점을 잘 살려서 자신만의 작품세계를 잘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누스페어 동시대미술연구소장 / 강효연–

2017.1.20Fri ~ 3.19Sun 아트스페이스 (2F)

달무지개Moonbow

코디네이터 정승현
비평가 강효연

전시소개

2017년 유리상자 첫번째 전시인, 전시공모 선정작「유리상자-아트스타 2017」Ver.1展은 회화를 전공한 정승혜(1981년생)의 설치작업 '달무지개 Moonbow' 입니다. 이 전시는 작가가 깨달은 삶의 이치理致, 즉 '숱한 시련의 번뇌煩惱와 문득 깨닫는 돈오頓悟의 순간이 같은 생의 삶에 비친 다른 일면' 이라는 인식認識의 성장 사태事態를 시각화하면서, 자신이 그린 동화적 이미지와 짧은 글의 친화적 포용력이 우리들 삶에서의 좌절과 망설임을 대신하는 위로일 수 있기를 바라는 기원입니다. 또한 이 전시는 지금, 여기의 현실 풍경이 유리상자의 표면과 그 너머 빈 공간에 깃든, 그리고 과거의 부정적인 기억을 떠올리며 그림을 그려온 작가의 신체행위가 관객과 공감하게 되는 경계 없는 시·공간적 상상想像이며, 그 상상의 충만함을 빛으로 은유하는 자유 설정設定입니다.

이번 전시는 자신의 인식을 시각화하려는 지속적인 예술 설계의 어느 부분을 사방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유리상자 공간에 담아보려는 작가의 시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작가는 이곳, 6×6×5.5m크기 유리상자 내부공간의 천장에 스스로 '달무지개' 라고 부르는 1.5m 길이의 빛 묶음을 매달았습니다. 이것은 짧은 원호圓弧 형태의 네온사인 6가닥이 무지개빛을 그리도록 마련한 장치입니다. 짐작하듯이 '달무지개' 는 달의 반대편 어두운 하늘을 배경으로 달빛에 의해 만들어지는 무지개를 말합니다. 달에서 반사되는 빛은 매우 약하기 때문에 '달무지개 는 사람의 눈으로 그 빛을 인식하기 어려울 정도로 희미하며, 하늘이 어두울수록, 달이 밝을수록 좀 더 쉽게 관찰됩니다. 작가는 자신이 살아온 부정적인 감정의 시간 속에서 그 부정의 시간과 동시에 존재했던 긍정적 순간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달무지개'를 그 은유의 상징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작가가 설계한 '달무지개' 전시는 2015년 발표한 '안녕, 무지개'와 2016년 발표한 '번뇌의 달은 모두 별이 되리'를 유리상자 공간에 맞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기존의 드로잉 중심의 전시가 선의 조형성에 주목한 것이라면, 이번 유리상자 전시는 그 선 드로잉보다 공간에 더 주목한 양상입니다. 3면의 유리 벽면에는 시간의 변화처럼 달이 변화하는 10가지 모양을 나누어 붙이고, 그 아래에 10컷의 선 드로잉 이미지와 시의 구절을 반짝이 시트지로 부착하였습니다.

그림1은 곰이 개울에 들어가 물고기를 잡으려다가 놓치는 장면, 그림2는 불어나는 개울물에 곰이 빠져서 뿌리 채 뽑힌 나무를 잡고 물 위에 떠 있는 장면, 그림3은 다리를 다친 사슴을 부둥켜안고 있는 곰, 이 장면은 삶의 행복이 떠내려가듯이 개울에는 사랑과 행복을 상징하는 사과가 떠내려가고 있지만, 그 옆에 피어있는 수선화가 긍정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림입니다. 다음 그림4는 겨울눈이 내리는 어느 날, 진흙탕에 빠져 넘어진 곰을 보고 꽃을 든 곰이 나타나서 위로하는 장면, 그림5는 숲 속에 불이 나서 나무가 타는데, 곰이 위태롭게 불을 피하고 있을 때 긍정을 은유하는 비둘기가 지켜보는 장면입니다. 그림6은 곰이 물고기를 잡는 장면, 그림7은 아파서 침대에 누워있는 곰, 그림8은 바람이 부는 숲속에서 가던 사슴이 잠시 멈춰서 뒤돌아보는 장면, 그림9는 곰 세 마리가 손잡고 춤추는 장면, 그림10은 계속되는 인생 향해를 은유하려는 듯 배를 타고 노를 저어 빙하를 건너는 곰의 모습 등 입니다. 이렇게 보니, 대상화하여 보던 선 드로잉과 글이 내가 서있는 공간을 둘러싸는 환경이 되어 우리들 삶 속으로 스며듭니다. 작가는 이번전시에서 이제까지 열어두지 않았던 유리상자 출입문의 개방을 원했습니다. 관객이 전시 공간 안으로 들어가 환경으로서의 그림들 속에 둘러싸이게 하려는 것입니다. 유리상자 안으로 들어간 관객은 이 텍스트의 마지막을 전시장 바닥에서 마주하는데, 인쇄한 '번뇌의 달은 모두 별이 되리' 시가 중앙에 쌓여 있습니다. 한 장을 집어 들면, 공감의 여린 마음이 전해집니다.

정승혜의 그리기행위는 생의 현실에서 경험했던 불안과 방향의 시간을 잊고 전혀 다른 충만감으로 몰입沒入하려는 장치이며, 자신의 감수성과 직관 그리고 반복과 지속이 더해져 '달무지개'라는 공간 상태로 남겨집니다. '달무지개'의 긍정을 호출하는 유리상자 설치는 과거 기억의 치유에 다름 아닙니다. 주변의 풍경과 관객의 출현을 투영해내는 이 유리상자는 생의 부정적 감성을 지나 살아있는 충만함을 증거 하는 '지금, 여기', 그 충만을 기억하려는 '염원'의 스펙트럼, 가슴이 공허한 부재와 결핍, 소외의 시 공간을 치유하려는 상징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동시에 인간 생의 희노애락喜怒哀樂 이치를 수긍하고 기억하기바라는 제안이고, 또 투명유리 위에 그려진 선 드로잉의 반짝임이 곧 빛으로 충만한 자연에 대한 기대일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향을 실천하려는 신체행위 과정에서 스스로와의 만남과 관객과의 공감, 유대의 경험으로서 세상과 '소통' 하려는 매개인 것입니다.
충만감에 관한 깨달음을 기억하며 현재의 균형을 회복하려는 이번 유리상자는 자신의 마적 신념을 소통하려는 예술의 가치 실천을 생각하게 합니다.

-정종구-

달무지개 neon, sheet, Paper, 5.9X6.2X4m, 2017

봉산문화회관기획 전시공모 선정작가展 '헬로우! 1974'

GLASS BOX ARTSTAR 2017 Ver.2

Lim, Yongjin

정직하게 제시되는 사물(들)의 구성 방식

임용진은 주변의 흔한 물건을 실리콘으로 캐스팅하는 작업을 한다. 합성수지로 뽑아낸 그 물건들은 작가 본인이 사용하는 게 대부분이다. 갖가지 병과 식기류, 공구류, 문구류, 세면도구, 열쇠, 안경 등, 그동안 그가 공개한 종류는 다양하다. 젊고도 젊은 이 조각가는 아마도 작품 가짓수를 계속 불려갈 심산인가보다. 그 끝이 무엇일지 내다보기는 힘들어도, 존재하는 사물들 모두를 사출하려는 작업의 방향은 정해져 있다. 세상에, 이처럼 다양하면서도 사소한 것들을 예술의 틀 속에 집어넣고 있다니. 한편으로 그의 일관성 없는 컬렉션이 내 취향과는 한참 멀어 보인다.

내가 조각가의 입장이라면 내가 아끼는 것들을 품목 별로 채워나갈지도 모르겠다. 만약 좀 더 그럴듯한 의미로 내 예술을 포장한다면 특정한 날의 시그니처가 되는 물건을 일기 쓰듯 기록물로 남기는 것도 괜찮겠다. 연애를 하면서 의미가 깃든 물건, 아니면 위중한 부모의 병간호를 하면서, 어린 아이를 키우면서, 신앙생활 가운데, 정치 집회에 끼어서, 이런 개인의 역사를 기록물로 보존하는 건 어떨까. 조각 작업에 병렬로 사진 작업을 붙이면 좋겠다. 사진에는 작품의 대상으로 지목된 그 물건이 있던 자리를 예컨대 점선 따위를 남긴 채 지워버리는 식의 과정을 입히는 건 나쁠까.

작업에 대하여 이와 같은 비판적 제안 끝에 다다른 내 생각은 임용진 작가가 작업을 통해 실현시키려는 목적이 개인사에 대한 고백도 아니고, 사회 제도에 관한 발언도 아닐 거라는 점이다. 예컨대 그의 조각을 리얼리즘과 노동 현장의 미술로 보고자 하는 관점은 최종 결과에 대한 폭 좁은 이해다. 그가 행하는 작업의 핵심은 작품 하나하나의 완성이 아니라 그 작품들을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총량을 실현하는 데 맞춰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을 쓰임새 같은 기준으로 정해서 분류하기는 어려울지도 모른다. 또한 이는 예술을 하는 조각가의 상황에 대한 자기 기술(self descriptions)이다. 조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기중기나 절삭기만 필요한 게 아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먹고 마셔야 된다. 또 씻고 노는 재생산 과정도 필요하다. 만약 알프레드 크뢰버(Alfred Kroeber)나 프란츠 보아스(Franz Boas) 같은 인류학자들이 살아 돌아와서 임용진의 작품을 본다면 현대 조각가들에 관한 훌륭한 민속지적 자료라고 관심을 보일 게 틀림없다. 조각으로 실현되는 유물론적인 사물의 총체는 문화의 포괄적 범주를 만든다.

이처럼 작품이 품은 메시지는 쉽사리 드러나지 않지만, 매 작품의 외관은 지나칠 정도로 분명하다. 일상의 사물들을 예술적 기예의 결과물로 바꾸어 드러내는 방식은 미술의 오래된 임무이지 않나. 정물화가 그러한데, 콘템포러리 아트 속에서 조소도 그렇다면 좀 심심하다. 작가는 자신의 프로젝트를 시각적으로 낚아채는 방편을 찾아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다. 이번 유리상자 속에서 벌어지는 설치 작업도 그 가운데 하나다. 내 생각에 이와 같은 대상의 재현물이 관객들에게 경탄을 자아내려면 몇 가지 상황의 기술이 필요하다. 흔한 예로는, 작품이 놓인 세계와 실재 세계를 겹치는 방법이다. 다시 말하면 일상을 옮긴 듯이 그럴듯한 연극적 세트를 설정하고 그 안에 작품을 두는 것이다.

다른 방법은 이 조각 작품을 박물관 식으로 꾸며진 진열대에 뻔뻔스럽게 두는 식이다. 내가 앞서 말한 인류학의 물증으로서만 전시가치를 가진다면 작품이 원래 가진 의미는 일단 침묵하고, 관객인 우리가 가상의 시공간의 편에서 예술을 낯설게 돌아보는 효과를 돋울 수 있다. 그런 극단적인 농담이 아니더라도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사물의 디자인을 새삼스럽게 감상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하얗게 탈색된, 아니 흰색 이외에 첨색되지 않은 작품은 사물의 입체 형태만을 지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유리상자에서 보여주는 그의 인스톨레이션은 그 어느 쪽도 아니다. 공간에 자전거 형상을 옮겨놓은 작품이 눈에 띄고, 바닥에는 자전거를 이루는 자잘한 부품들이 가지런히 놓였다. 또 다른 바퀴달린 탈 것으로써 크루저 보드와 그 부속물, 그리고 조각을 걸어서 옮기는 크레인 사슬도 보인다. 하지만 우리 시야를 사로잡는 건 부품들이다. 여기엔 그 어떤 메타포나 풍자 혹은 변형도 끼이기 어렵다. 대상을 가차 없이 찍어서 옮긴 이 모조품들은 작가 의도를 빌자면 복제본이란 점에도 불구하고 아우라가 형성될 여지도 있다. 나는 작가의 그런 언급에 말을 더 할 생각은 없다. 다만 우리가 보는 디스플레이는 이 작업이 지니는 일종의 정직함을 최대한으로 드러내는 방식임은 틀림없다. 낱낱의 조각들을 끼워 맞추면 한 대의 자전거 조각이 완성되는 식으로 구성된 작품은 그렇다면 자전거 조각보다 자전거 모형에 가깝나? 이건 차라리 자전거 그 자체일 수도 있겠다. 작가는 이 캐스팅으로 떠낸 조각 부품들을 조립해서 완성품을 만들기 때문이다. 작가는 자신이 만든 자전거 조각을 실제로 끌고 다닐 수도 있다.

숱한 미술에서 작가들이 재현한 결과물은 관객 앞에 드러나는 순간, 그것이 가리키는 원래 사물과 더 이상 별 관계가 없는 작품 그 자체가 된다. 그런데 이 전시에서 작가는 그런 관계를 복원하려고 한다. 이런 노력을 떠받히는 강박관념은 작품이 원본 이상의 신선함을 불어넣는다. 신선함이란 말 대신 비슷한 다른 표현으로 마무리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 애당초 대부분이 물건인 이상 생명력이란 말도 틀렸다. 미술작품으로서의 세속적 가치를 뜻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굳이 말하자면 여기서 발화하는 신선함은 하찮은 사물들 안에도 숨어있는 매혹 같은 것일지도 모르겠다.

–갤러리 분도 아트디렉터, 예술사회학 / 윤규홍–

2017.3.31 Fri ~ 5.28 Sun 아트스페이스 (2F)

기록, 캐스팅

코디네이터 정석영
비평가 윤규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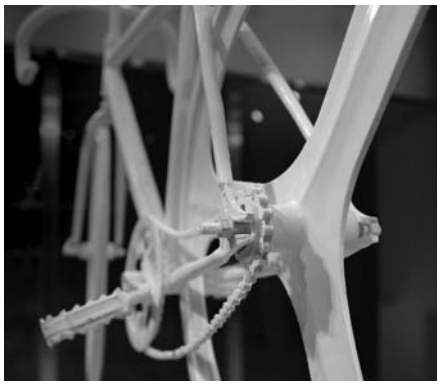
전시소개

2017년 유리상자 두 번째 전시인, 전시공모 선정작「유리상자-아트스타 2017」Ver.2展은 조각을 전공한 임용진(1990年生)의 설치작업 '기록, 캐스팅'입니다. 이 전시는 작가가 선택한 어느 일상의 사물들이 어떻게 예술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을까에 관한 질문, 즉 우리 시대의 일상에 존재하는 선택적 사물의 조형미를 선보이면서, 그 사물의 시간적 변화를 정지시키고 사실 그대로 복제하여 기록하며, 나아가 완성체일 때 숨겨져 있던 개별의 부속 사물에 대한 고찰을 담는 작가의 행위가 어떤 예술일 수 있느냐는 물음입니다. 또한 이 전시는 지금, 여기의 일상 사물에 깃든 '시대성'을 유리 공간에 담는, 그리고 자신이 선호하는 박물博物적 예술 설계를 떠올리며 사물 외형의 작은 부분까지 캐스팅하는 작가의 신체행위가 미래에 있을법한 시·공간적 상상想像과 공감共感의 흔적이 되게 하려는 설정設定입니다.

이번 전시는 자신의 캐스팅 행위를 시각 예술화하려는 지속적인 설계의 어느 과정을 사방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유리상자 공간에 담으려는 작가의 시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작가는 이곳, 6×6×5.5m크기 유리상자 내부공간의 천장에 스스로 '시대성'의 기록 중 하나라고 칭하는 실제 크기의 자전거를 매달았습니다. 이것은 바퀴, 손잡이, 페달, 체인, 몸체 등 수많은 부품들을 조립하여 실제 자전거와 동일하게 작동되도록 마련한 합성수지 재질의 장치입니다. 짐작하듯이 이 자전거는 실물 자전거를 대상으로 작가가 캐스팅하는 행위의 결과물입니다. 이 자전거의 아래 바닥에는 자전거와 스케이트보드, 바이스, 절단기, 체인블록, 안경 등의 부품들, 사물의 부분들이 볼트의 나사선이 보이는 정도로 정교하게 주물鑄物 가공한 부품들이 질서정연하게 그룹지어 나열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어느 유적遺蹟의 발굴發掘과 복원復元 현장으로 보여질만한 이 광경의 기원은 이러합니다. 어느 날 작가의 작업실 테이블 위에 찻잔, 머그컵, 음료수병 등 흔한 일상용품들이 자연스럽게 놓인 상태를 보고, 작가는 이들 사물들이 예술작품으로 인정될 수는 없을까라고 생각하였고, 이미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사물의 디자인 조형미에 매료된 작가 자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최근까지 3년 동안 작가는 하나의 사물을 통째로 캐스팅하거나 분해하여 그 부품들을 캐스팅하는 행위를 지속하게 됩니다. 어떤 사물 디자인의 조형미를 발견하고 이를 캐스팅하는 행위는 흡사 무심한 일상에서 가치 있는 것을 찾는 '발굴'처럼 보입니다.
작가는 장소와 지역성에 관한 질문을 시각적으로 기술하는 '대구 장소성 프로젝트'(2015)와 용도 폐기된 일상 생활용품의 순수 형태미를 강조하기 위하여 상표와 색상을 제거하고 비누로 캐스팅한 수십 개의 사물 집합 'Minutely'(2015)를 발표하며, 우리시대의 어떤 사실을 후일에 남기는 목적 행위라는 의미에서의 기록記錄과 그 방법으로서 캐스팅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확인하였습니다. '기록, 캐스팅'에 주목하여 작가가 처음 제출한 유리상자 전시 제안서에서 작가는 자전거 2대과 공중전화 부스 1개와 벤치 3개를 실리콘으로 캐스팅하고 FRP로 사출하여 일상의 무심한 어느 공간을 전시공간에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 또 다른 제안으로는 박물관의 쇼케이스에 전시되는 표본처럼 각각의 유리박스에 자전거를 비롯한 몇 가지 사물들의 부품들을 넣어 전시하거나, 완성된 자전거 1대를 바닥에 설치하고 그 위의 허공에는 여러 가지 사물의 부품들을 매달아 마치 부유하는 부분들이 지면에 모아지면서 완성체로 보이는 상황을 연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제안은 수개월의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하고 수정되는데, 땅 속의 흙을 헤치고 유물을 발굴하듯이 작가는 자신의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지금의 전시설계 상태를 '발굴' 하였습니다.

임용진의 '기록, 캐스팅' 행위는 일상의 현실 생활에서 예술적 경험의 충만감을 '발굴'하려는 몰입沒入 장치이며, 자신의 감수성과 직관 그리고 반복과 지속이 더해져 '복원'이라는 사건 상태로 남겨집니다. '기록, 캐스팅'의 매력을 호출하는 유리상자 설치는 '발굴'의 행위에 대한 기억에 다름 아닙니다. 주변 환경으로부터 보호와 관객의 공감을 투영해내는 이 유리상자는 생의 무심한 일상적 감성에서 나아가 호감 있는 매력의 충만함을 증거 하는 '지금, 여기', 그 충만을 기억하려는 미래 예견豫見의 스펙트럼, 또 예술 경험의 확장 제안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동시에 투명유리 안에 그려진 오브제 미술의 또 다른 가능성에 대한 기대일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질문으로부터 지향을 실천하려는 신체행위에서 스스로와의 만남과 관객과의 공감, 유대의 경험으로서 세상과 '소통'하려는 매개인 것입니다.
충만감에 관한 발굴과 복원을 기억하며, 현재 예술의 또 다른 가능성을 회복하려는 이번 유리상자는 작가의 미적 질문을 소통하려는 예술의 확장 가치를 생각하게 합니다.

-정종구-



No.045~051 FRP, 600×590×300cm, 2017

봉산문화회관기획 전시공모 선정작가展 '헬로우! 1974'

GLASS BOX ARTSTAR 2017 Ver.3

Kwon, Hyojung

SO, HAPPY TOGETHER

무더위가 찾아왔다. 태양 아래 도시는 뜨거워진다. 그 열기를 뚫고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물소리가 들린다. 콘크리트로 숨막히는 도시 한 컨을 단번에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바꾸는 마법, 분수다. 화이트큐브 갤러리에 초원을 달려야 할 말들을 풀어놓았던 아르테 포베라의 야니스 쿠넬리스(Jannis Kounellis, 1936-2017)처럼 거리에 있어야 할 분수가 유리상자에 자리를 잡고 물을 뿜고 있다. 그것도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샤워꼭지, 서랍장, 드럼통, 물놀이 튜브로 만든 분수다. 이 쾌활한 분수는 왜 여기서 물을 뿜고 있을까?

아버지의 시간으로부터

"매일 새벽 3시, 어김없이 울리는 알람 소리와 함께 거실 불이 켜진다. 양치질 소리는 아버지의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순간이다. ...아버지는 시장에 멸치를 파셨다. 23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울리던 새벽 3시의 알람 소리와 아버지에게 깊이 배어있던 멸치 냄새로 나는 그림을 시작할 수 있었다. 나는 늘 아버지의 책임감과 인내심을 배우고 싶었다."

권효정의 작가노트에서 발췌한 위의 글은 그녀의 예술의지의 시작을 짐작하게 한다. 권효정의 작업에는 아버지로부터 배운 책임감과 성실이 배어있다. 이는 우리가 권효정의 작업을 이해하는데 알아야 할 중요한 태도다. 이 세상에서 자신이 마주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예술가로서 아버지처럼 성실하게 표현하고 전달하겠다는 진지한 태도 말이다. 그래서인지 권효정은 초기에 보편적이지만 쉽지 않은 주제인 시간을 다룬다. 현대미술에서 시간은 핵심적인 주제지만, 접근 전략에 있어서는 각양각색이고 방대하다. 권효정은 수많은 시계의 무브먼트가 움직이는 장면을 연출하여 관람자에게 시간의 흐름을 상기시키거나, 잔디 혹은 장미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들면서 드러나는 이미지 변화를 통해 시간을 재현하는 전략을 썼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인간의 유한성과 허무함을 경고하는 메멘토 모리(memento mori 죽음을 기억하라), 덧없음을 뜻하는 바니타스(vanitas)가 작업의 또 다른 주제가 된다. 알다시피 바니타스는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는 용어지만, 그 이면에는 현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권효정은 바니타스의 이면에 주목하여 "현재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물음 안에 작가적 정체성을 찾는다. 이러한 현재에 대한 성찰은 공존, 연결, 관계와 같은 범주로 확장되어, 사람들과 함께 고로케를 튀겨서 먹는 퍼포먼스 〈크로켓(P. R. Croquette)〉(2012), 수백 명의 손을 석고로 떠낸 〈Relationship Hand Mask〉(2014), 모래시계 안의 물고기를 통해 공존의 해법을 생각하게 하는 영상 〈평화적 공존(Peaceful Coexistence)〉(2015)을 만들게 된다. 그리고 삭막한 도시에서 분수는 오아시스인 것처럼 작가는 삭막한 시대에 예술이 오아시스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양한 오브제들이 모여 하나의 작품이 되는 것처럼 다양한 구성원들이 만나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분수를 만들기 시작했다. 인류가 파라다이스를 꿈꿀 때, 그 곳에는 분수가 있었다. 어쩌면 이질적이고 거친 권효정의 분수, 이곳이 지금 동시대의 파라다이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발견된 오브제의 노래

권효정은 다양한 사물과 기계장치를 이용한 설치, 영상 그리고 드로잉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기법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자신에게 다가오는 문제를 푼다. 작가는 전국에서 생산되는 각양각색의 물건들이 들고 나는 대구의 서문시장 한복판에서 성장했다. 그 사용처를 알 수 없는 수많은 사물들이 내뿜는 아우라, 산처럼 쌓인 물건들이 주는 압도감은 작가의 원감각으로 기능한다. 일상을 구성하는 사소한 사물들은 권효정의 감각적 선택을 통해 새로운 얼굴로 등장한다.

분수를 만들기 위해 등원한 사물 역시 우리가 일상에서 한번쯤 보았던 사물이다. 그러나 분수를 구성하는 사물로는 전혀 쓰일 것 같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낯선 구조물과 대면한다. 우리의 기대를 벗어난 이질적 대상의 병치로 만들어진 낯선 구조물은 초현실주의 작가들의 오브제 작업처럼 새로운 경험의 통로를 연다. 분수를 이루는 각각의 사물은 권효정의 선택을 받아 재정의 되면서 사물 자체에 내재한 또 다른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기회를 가진다.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 내리는 물의 평범함, 그 평범함에 가려져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부드러운 물의 힘, 물의 색, 그리고 물의 소리를 권효정의 분수를 통해 새롭게 느끼는 것처럼 말이다.

호모 데우스(Homo Deus)의 시대, 죽음조차 비웃어 넘기는 세태 속에서 권효정은 시간/바니타스/관계라는 묵직한 주제를 다룬다. 그리고 다양한 오브제의 감각적 조합으로 매체 특유의 내적 공명을 위에 자신의 의지를 실어 발랄하게 전한다.

내일이 소거되어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시대 속에서 무겁지만 무겁지 않게 그리고 성실하게 나아가는 권효정의 아직 오지 않은 미래, 기대가 된다.

-미학, 미술평론 / 하윤주-

2017.6.9Fri ~ 8.6Sun 아트스페이스 (2F)

Oasis : Fountain of life

코디네이터 박수연
비평가 하윤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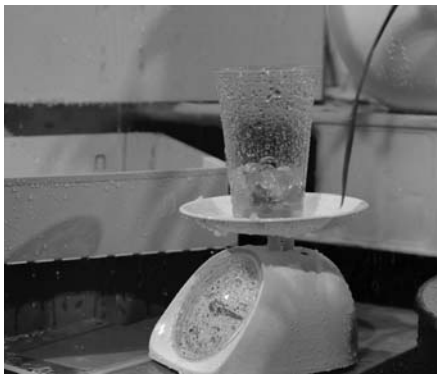
전시소개

2017년 유리상자 세 번째 전시인, 전시공모 선정작「유리상자-아트스타 2017」Ver.3展은 회화를 전공한 권효정(1992년생)의 설치작업 'Oasis : Fountain of life'입니다. 이 전시는 작가 자신의 일상 삶 속에서 매 순간 샘솟는 예술의 가능태들로부터 광장의 분수噴水를 상상하게 되고, 일상 삶으로서의 예술을 지향하는 자신의 태도와 그 시각적 축적蓄積의 결과 이면裏面에 존재하는 과정적 행위에 대한 살아있는 감동과 몰입沒入에 주목注目하는 것이며, 이것이 사막의 오아시스와 닮았다는 은유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서 예술이 무엇인가? 또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라는 작가의 질문이자, 예술과 삶 사이에서 우리의 균형均衡을 제고提高하려는 작가의 제안입니다.

이번 전시는 '예술'에 관한 작가 자신의 태도를 시각화하여 사방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유리상자 공간에 설치하려는 작가의 오래된 설계로부터 시작합니다. 대략 7미터 높이의 천장과 흰색 바닥이 있는 유리상자 공간에 복잡한 구조의 낯선 분수, 가로440×세로440×높이300㎝ 크기의 분수 설치물은 중력重力에 따르는 물이 위로 솟았다가 아래로 뿜어 내리거나 비스듬히 사선으로 떨어져 일상 사물로 구축된 조형물을 훑어 내리는 인공적인 물 흐름의 장치입니다. 물이 분수 상단의 물줄기로부터 몇 층의 스텐 그릇으로 흘러내리고, 다시 드럼통과 화려한 색상의 서랍장을 타고 떨어지며, 또 방사형으로 고정한 6개의 샤워기에서 뿜는 물줄기로부터 저울에 물이 떨어지고, 물이 비닐 공을 움직이거나 꽃을 꽂은 물병 속으로 떨어지는 희한稀罕한 상황들은 바닥으로 떨어진 물이 다시 상단의 분수 꼭대기로 올라가는 물의 순환 흐름 속에서 세계 혹은 예술의 다양성과 변화 상태를 은유합니다. 이것으로 예술은 다양한 생각과 물질, 비 물질의 관계 융합체이며, 일상의 모든 것들이 예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작가의 생각은 물론, 인공물과 자연물의 찬란한 조합과 생명력이 강조된 예술의 힘을 조형적으로 시각화한 것입니다. 작가는 이를 두고 수많은 시간의 경험과 정보, 지식, 관계를 거치면서 명쾌하게 살아있는 지금, 여기, 나의 현장 상황에 연계하는 예술의 상징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하면, 작가의 분수는 정형화된 예술에 무리지어 편승하지 않고, 삶과 예술을 연결하려는, 선택하고 옮기고 칠하고 쌓아 구축하는 행위 과정에서 '몸의 살아있음'을 인식하는 매개체이며, 열려진 세계로 나아가는 인공의 행위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술에 관하여 작가가 주목한 감동과 몰입 상태의 '신체 행위'는 일상 삶의 무심한 예술 지향 속에서 발견하는 의식성과 무의식성 사이의 몸의 움직임, 특히 자연 혹은 생명의 흐름을 구하는 '행위'로 해석됩니다. 에너지의 이동, 상호 작용, 시간과 공간의 변화와 반복, 강약, 속도, 호흡, 리듬, 조화 등, 상황에 대응하며 작가의 사유와 균형 감각에 따르는 행위 과정들은 그림 그리기의 그것처럼 유리상자 속의 분수로 남겨집니다. 시간성이 깃든 신체 행위의 생생한 진실과 살아있는 감동이 분수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술 행위'의 본질本質은 아닐까? 이번 전시 'Oasis : 삶의 분수'는 무엇의 재현이 아니라, 주변의 환경 즉, 일상의 시간과 공간의 인식 속에서 예藝의 기氣를 발견하려는 여유로움입니다. 그것은 내부 깊숙이 의도를 간직한 채 부드럽고 잔잔한 미소를 일으키는 몸의 움직임이며, 온몸을 세계의 흐름에 맡기며 교감하고 몰입하는 전신傳神의 행위입니다. 작가는 자신이 제시하는 낯선 '분수'로부터, 관객이 최종 결과물만이 아니라 과정상에 존재하는 생생한 날것의 본질에 관하여 주목할 수 있는 균형均衡 감각을 회복하기를 제안합니다. 작가는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신을 알아가기 위하여, 또 자신의 미적 감수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 행위를 지속해왔습니다. 최근 대구문화예술회관(2016년 4월29일~5월28일)에서의 'Fountain of life'는 예술을 닮은 분수에 관한 행위이고, 영천 예술공간 거인(2016년 8월2일~8월14일)에서의 'Lighthouse of giant'는 예술이 임담한 현실과 두려운 미래를 밝히는 등대를 닮았음을 은유하는 행위이며, 이어서 여기 유리상자에서의 'Oasis : Fountain of life'는 사라져가는 생명수를 닮은 예술을 사유하려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번 분수를 구축하는 행위는 지속적으로 지향하는 예술의 또 다른 가능성에 관한 상상으로부터 기인하는 작가의 신체 행위이며, 그 행위에 관한 기록일 것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Oasis : Fountain of life'는 자신을 비롯한 세계의 존재와 그 본질을 주목하려는 신체행위의 흔적이며, 예술의 본질에 다가가려는 경험 기억의 행위적 '사건'입니다. 작가가 다루려는 것은 이성과 결과 중심의 해석에 의해 가려지거나 소거掃去되었던 과정의 기쁨, 충만감, 감동, 몰입에 관한 신체 행위이며, 인간 성장과 예술에 관한 본질을 진솔하게 기억하려는 에너지입니다. 행위를 기억하며 현재의 성장을 선보이려는 이번 유리상자는 미적 신념을 소통하려는 예술가의 삶과 그 가치를 생각하게 합니다.

-정종구-



Oasis : Fountain of life 혼합매체, 4.4X4.4X3m, 2017

봉산문화회관기획 전시공모 선정작가展 '헬로우! 1974'

GLASS BOX ARTSTAR 2017 Ver.4

Lee, Sunhee X Chung, Yonji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8월의 유리상자는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로 채워지고 있다. 이선희, 정연지 작가의 유리상자 프로젝트를 위한 주제다. 이 주제는 90년대 한국가요 제목에서 차용한 것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작품의 제목은 작가의 의도를 이해하는 하나의 단서가 된다. 그러나 이번 전시의 제목은 의도 보다는 작가들의 감성을 이해하는 지점이 보다 중요하다. 그것은 한명이 아닌 두 명의 작가가 서로의 작품을 하나의 공간에서 호흡할 수 있는 지점, 공통의 감성이 갖는 조화와 균형감을 찾는 것이 이번 전시의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서로의 작품을 이해하고 공간의 특성에 맞게 서로가 공유한 감성을 하나의 공간에서 호흡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전시의 주제로 삼고 있는 '당신의 낮보다 아름다운 우리의 밤' 은 그 자체로 하나의 소중한 작업이다. 그것은 집과 정원의 상징적 감성이 투영된 재료와 형태간의 관계를 둘인 하나의 호흡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전시이기 때문이다. 이 둘의 설치는 장소가 갖는 특정성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확장하고 창작과정에서 서로가 공감했던 밤의 감수성을 결합하는 지점을 찾는 것이다. 그 감수성의 균형과 조화는 하얀 종이라는 물성에 빛과 그림자의 관계를 통해 삶과 예술의 경계를 보는 것에 있다. 그것은 작가간의 시각차, 낮과 밤, 안과 밖이라는 시•공간적 이동 시점을 전제한다. 이러한 전제를 통해 공감각적 시각, 질감과 형태는 다르지만 하얀색에 투영될 인공적인 조명과 자연의 빛이 같지만 다른 색으로 삶과 예술의 경계에서 서로를 투영한다. 그리고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과 만나는 시간이 가능해 진다.

하얀 투사지(tracing paper)로 접어서 쌓아올린 벽이 있다. 그리고 벽과 벽 사이에 하얀 넝쿨식물, 이 식물형태의 넝쿨은 그림을 그리다 버려진 파지로 만들어 얼룩이 스민 잎들이다. 이것은 빛과 그림자 그 경계를 투영한다. 화이트 큐브를 벗어나 실내와 야외의 경계에 있는 장소에서 주변의 색을 담는 투명한 장소, 안과 밖이 시각적으로 열린 유리 상자에 실내 전시공간의 벽처럼 하얀 종이로 만든 벽이 있다. 그 사이 넝쿨 식물, 공간의 역설이다. 푸른 하늘과 녹색의 나무 그리고 도시의 콘크리트와 블록들 그만의 색과 형 그리고 질감으로 유리상자 밖의 풍경은 하얀 벽과 넝쿨에 비친 잔잔한 그림자, 실체가 그림자가 된다. 그 속에서 '당신의 낮' 이 '우리의 밤' 을 만난다.
이번 전시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는 각자 일구어 온 작품의 존재감이 다른 작가의 작품과 특정한 장소에서 만나 얼마나 유기적인 생명감을 발하는지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물음이자 답일 것이다. 그 경계, '우리의 밤' 이 왜 '당신의 낮' 보다 아름다울까? 아마도 '우리의 밤' 은 창작을 위해 밤을 밝히는 작가들의 감수성이 아닐까. 어둡고 캄캄한 밤의 시간에도 창작에 대한 열망으로 예술가의 영혼을 태우고 있으니, 어두운 마음을 열어 환하게 하는 그 빛이 어찌 아름답지 않을까. 정연지, 이선희 두 작가의 이번 유리상자 설치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매우 뚜렷하다. 종이를 재료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형태는 매우 대조적이다.
정연지의 경우는 그림을 그리고 난 후 버려지는 한지를 모아 새롭게 생명을 부여하는 일명, 업 사이클링(Up-Cycling)P이라는 작업을 시도했다. 이 작업은 버려지거나 사라지는 것, 공간과 공간 사이 틈을 채우는 생명에 대한 인식이 투영된 "밤의 정원"연작이다. 이 연작을 위해 밤 풍경이나 이미지를 채집하는 과정에서 '식물의 존재' 가 시•공간을 채우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한지에 그림을 그리다가 버려지는 파지로 식물을 만들게 되었다고 한다.
이선희의 '디어 라이프(Dear Life)' 는 투사지로 벽돌모양의 형태를 만드는 것이다. 투사지에는 연약한 자아가 반영되었다고 한다. '연약한 자아' 는 창작과정에서 경험하는 심리적인 갈등 그리고 그 속에 잠재된 자아라고 한다. 투사지의 재료가 가진 질감과 반투명성은 연약한 자아를 대변한다. 작가는 투사지를 벽돌 모양으로 접고 또 접으면서 잠재된 불안과 연약한 자아를 비워내고, 그러한 행위를 통해 만든 벽돌을 쌓아 내부와 외부의 경계, 안과 밖의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다.

이번 전시는 두 명이 호흡을 맞춰 유리상자라는 특수한 공간에 둘인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설치이다. 이선희 작가의 투사지로 만든 벽돌 모양과 정연지 작가의 버려진 파지를 모아 넝쿨모양의 식물이 어떻게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것이 이번 전시의 핵심이다. 투사지로 만든 벽돌은 견고한 듯 견고하지 않은 작가의 연약함 혹은 그로인한 불안의 심리를 투영하기에 적합한 재료였다고 한다. 투사지를 통해 벽돌을 만들어 집을 짓듯 벽을 쌓는 것은 삶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위한 상징으로 설정한 것, 바로 집이었다. 집은 안정감을 주고 귀소본능의 공간으로 작가의 현실에서 심리적 안정을 상징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정연지 작가의 경우는 밤에 보이는 정물과 낮에 보는 정물 사이에서 생기는 시각차 혹은 밤과 낮의 경계 혹은 틈, 그 사이에서 자라는 생명을 '밤의 감수성' 으로 드로잉을 하거나 파지로 식물의 잎을 만들어 줄기로 연결하는 작업을 했다. 묵묵히 밤과 낮 사이 시•공간을 채우는 식물의 존재감을 버려지는 종이를 통해 새롭게 생명을 부여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이 두 작가의 작품은 결핍이라는 틈을 채우고 공간을 일깨우 듯 벽과 벽 사이에 생긴 틈, 그곳을 하얀 생명의 빛과 그림자로 그리는 것이다.

이 두 명의 작가는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라는 주제를 하얀 투사지로 벽돌을 만들고, 또 버려진 파지로 식물의 잎을 만들어 둘인 하나의 풍경을 만들어 놓았다. 이 풍경은 하얀 벽과 하얀 넝쿨식물로 밤이 낮을 품 듯, 밖은 안을 그리고 안은 밖을 품는다. 그리고 서로의 결핍을 채우며 실체를 전제한 그림자는 당신의 낮보다 아름다운 우리의 밤을 만들었다. '밤의 정원' 과 '디어 라이프' 가 결합된 감수성, 그것은 우리의 밤을 품은 하얀 풍경이다.

-현대미술연구소 대표 / 김옥렬-

2017.8.18Fri ~ 10.15Sun 아트스페이스 (2F)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코디네이터 김미교
비평가 김옥렬

전시소개

2017년 유리상자 네 번째 전시인, 전시공모 선정작「유리상자-아트스타 2017」Ver.4展은 조소를 전공한 이선희(1984년생)와 회화를 전공한 정연지(1984년생), 두 사람의 공동 설치작업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입니다. 이 전시는 작가 자신들이 경험한 상황들의 공허空虛와 충만充滿의 기억 혹은 현실의 불안不安과 새로운 가능성의 염원念願 사이를 오가는 어느 지점을 시각화하여, 우리 삶에서의 망설임을 예지叡智적으로 해석하고, 또 다른 새로운 변화와 균형의 가능성에 관하여 조형적으로 서술한 것입니다. 또한 지금, 여기의 상태狀態가 가능하도록 오랜 시간동안 유대를 지속해온 두 미술가의 협력적인 신체행위가 관객과 만나서 그것들을 공유하려는 시·공간적 장면場面의 상상想像이기도합니다.

이번 전시는 두 미술가 각자가 처한 삶의 상황에 대처하는 자신들의 태도를 조형화하는 미술 설계의 어느 지점을 사방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유리상자 공간에 담아내려는 제안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996년도에 발표된 코나의 노래 제목에서 빌려온 전시명,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는 지금 이곳에서, 준비와 연습을 통하여 행위하며 나아가는 '과정의 가치(우리의 밤 시간)'를 새롭게 기억하려는 상징적 명제입니다. 이 명제는 두 가지의 설계를 하나의 공간에 구현해나가면서 은유적이고 지향적인 지시문으로 기능합니다. 얇고 섬세한 반투명 트레싱지를 접어서 실제 벽돌과 흡사한 형태를 만들고, 그 벽돌을 쌓아서 '집' 혹은 '벽', '경계', '공간'의 일부를 만드는 이선희의 설계와 수묵그림을 그리다가 파지로 버려지는 한지를 이용하여,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도시의 빈집이나 구조물의 틈 사이에서 묵묵히 생존하며 성장하는 식물을 발견한 '밤의 정원' 혹은 '넝쿨 식물', '잡초', '자연 야생'의 이미지를 본떠 식물의 형태를 만드는 정연지의 설계가 그 두 가지입니다. '집'에 대한 두 미술가의 공감을 바탕으로, 두 가지의 설계가 연대하여 재결합하고 확정擴張되는 형태의 이번 전시는 6×6×6m 정도의 유리상자 공간에 90×57×190㎜크기의 트레싱지 벽돌 3,000장을 두 줄로 쌓아 벽체를 만들고, 두 벽체 사이 공간의 천장과 바닥에 수묵조형 방식의 넝쿨식물을 자연스럽게 설치하여, 금방이라도 허물어질 것처럼 위태로운 긴장 상황과 자연스럽게 공간을 넘나드는 이미지 상태를 함께 연출하고 있습니다. 설치된 벽체가 심리적이거나 현실적인 현재 상황의 '불안'을 비유한다면, 틈을 채우고 공간을 넘기 위해 벽을 타고 자라는 형상의 넝쿨 식물은 과정의 가치를 상기하며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려는 작가 자신의 태도를 은유하는 요소입니다.

'집' 혹은 '벽'은 뜨거운 태양을 가리며 그늘을 만들고, 거친 비바람과 외부로부터의 위험을 막아내는, 즉 '불안'과 '결핍'을 극복하거나 제어하기 위한 설정으로 짐작되지만, 트레싱지 벽돌로 쌓은 이번 전시의 '벽'은 그것 자체가 또 다른 '불안'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작가가 제시한 상태처럼, 현대인이 처한 이러한 상황을 대면한 두 미술가는 인적이 없는 빈집의 '밤의 정원'에서 불안한 시·공간을 어루만지며 생존하는 야생 상태의 식물을 발견하고, 그 식물의 에너지와 자연의 근원적인 균형의 의지를 '과정의 가치'와 함께 제안합니다. 두 미술가는 적당한 햇빛과 물이 있으면 어느 공간에서든 생존하는, 그리고 밤사이에 각자의 자리에서 보완하고 보충하며 이후의 시간을 준비하듯 살아있는 식물의 모습에서 경외와 심적인 안정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식물에 대한 이러한 기대와 생각은 정연지의 '수묵조형' 행위로 이행되어 실재의 초록 식물보다 더 강한 이미지로 추상화되면서, 변화의 경계를 넘어서 서로 연결하여 확장하고 감싸주는 식물의 에너지를 이상적으로 상징하듯 하얗게 연소된 형태로 재구성하여 제시됩니다. 벽을 쌓거나 식물을 재구성하는 작가의 '신체행위'는 생의 현실에서 경험했던 불안의 시간을 잊고 전혀 다른 균형의 충만으로 지향하려는 몰입 장치일 것이며, 즉흥과 직관 그리고 반복과 과정의 지속을 더하여 하얀 빛의 사물이 포개지고 나열되어 채워진 '밤의 풍경'이라는 입체 그림을 남깁니다. 이는 살아있음을 증거 하는 '지금, 여기'의 '불안' 사이에서 '균형'의 충만을 기억하려는 '염원'의 호출이며, 또한 자신의 지향을 실천하는 '신체행위' 과정에서 스스로와의 만남, 동료 미술가와의 유대와 공감, 관계의 경험들과 함께 세상과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유리상자는 자신의 불안과 환희를 비롯한 세계의 공허와 충만의 참조이며, 그 기억을 잇는 작가의 신체행위와 상상이고, 인간 삶의 과정에 관한 정서적 균형의 기대입니다. 충만의 경험을 기억하며 현재의 균형을 회복하려는 이번 유리상자는 미적 신념을 소통하려는 소박한 삶의 가치를 떠올리게 합니다.

-정종구-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파지, 트레싱지, 가변 설치, 2017

봉산문화회관기획 전시공모 선정작가展 '헬로우! 1974'

GLASS BOX ARTSTAR 2017 Ver.5

Lee, Kichul

꿈꾸던 신화의 복원과 실현-이기철 조각

복원된 신화

한 마리의 거대한 공룡 뼈를 복원해 놓은 것 같은 이기철의 이번 작품은 사실성과 무관하게, 미술작품으로서 아름다움과도 거리를 두고 있어 보인다. 그러나 작가가 의도한 대로 과거에 살았던 어떤 생물체의 실재감 있는 재현이 아니고 사랑스런 대상을 모델로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인상을 기대하는 것은 애초부터 방향이 맞지 않다. 그래도 아주 임팩트 있는 규모나 짜임새 있는 밀도감에서 아쉬움을 느낀다면 그것은 제한된 설치 공간 탓이거나 혹은 이 비실재적 캐릭터에 더 이상 공들여 묘사할 디테일이란 사실상 필요치 않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이런 선입견부터 버리고 눈앞에 버티고 서있는 이 괴물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

이 작품의 제목은 '토데노돈'이다. 다소 황당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거대 초식 공룡을 닮은 토끼의 먼 조상쯤 되는 짐승이다. 물론 작가가 창조한 상상의 동물로서 일찍이 그가 만든 일련의 동물 캐릭터들 가운데 한 종(種)이다. 그러니까 비록 가공의 존재지만 지난 10여 년 전부터 제작해오던 작가의 동물가계도에서 엄연히 계보가 있는 당당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가진 피조물인 것이다. 작가는 이제 그의 화석으로부터 복원된 수만 년 전의 신화를 재생하고 있다.

동물 이미지의 유래

앞서 2011년과 2015년 두 차례 이기철 전시회의 주제를 만나면서 이렇게 동물을 이미지로 창조하는 고대미술의 사례를 언급한 바 있다. 그리고 그런 동기의 배후에 대해서도 설득력 있는 해설을 인용하며 간략히 짚어봤었다. 인류가 최초로 만든 이미지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들이 동물상이었고 어쩌면 가장 흔히 만나는 대상일 것이다. 특별히 휴머니즘이 작동된 시기를 제외하고는 예외 없이 동물의 이미지가 섬김의 용도로 또는 각종 장식에까지 널리 사용된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수렵이나 농경생활을 통해서 더 세밀하게 관찰되었고 세련된 형태를 창조했었다. 특유의 움직임과 형태의 특징들은 정확하게 포착되어 아름다움과 사실성을 함께 구현하였다.

그런데 동물의 형상 가운데는 추상화되기도 하고 인간의 이미지와 상상력으로 결합시켜 난해하게 왜곡된 예도 있었다. 상상력으로 탄생시킨 독창적인 양식 가운데 옛 메소포타미아와 페르시아 문화의 원류에 나타난 소위 '루리스탄 양식'은 그 형식이 미술사에서도 아주 예외적이다. 사람얼굴과 결합해 기묘하게 융합한 그 양식이 만들어진 정확한 의도나 상징의 의미는 아직도 알 길이 없다. 다만 거기에는 장식이상의 어떤 마법적인 것에 대한 암시가 분명 담겼으리라 추측될 뿐이다.

그러나 점차 현대와 가까운 역사시대에 와서는 많은 동물이미지들이 이솝우화에서처럼 주로 뻔한 계몽적인 주제에 비유적으로 활용되면서 그 황홀하면서도 신비한 마술적인 매력은 사라지게 되었다.

현실을 비추는 거울

이기철 작가의 작품 목록에는 자연사 박물관을 방불할 만큼의 많은 동물들이 등장한다. 그들은 화석 같은 형태로 복원되어 있지만 생명력을 지닌 모습으로 재현된다. 그는 이렇게 창조한 캐릭터들의 세계를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려는 야심이 있다. 그렇다고 편집증적으로 공룡왕국의 이야기에 매달리는 작가는 아니다. 물론 그것은 상상 속에 가공된 허구이면서 완전히 없는 사실을 꾸며낸 것도 아닌 바로 또 하나의 현실로서의 상징이다. 작가가 경험하고 살고 있는 오늘날 인간 세계의 거울인 것이다.

이기철 작가의 이런 태도는 '토끼 시리즈'의 대척점에서 만드는 'Fat Pet' 시리즈에서도 잘 드러난다. 소위 '살찐 애완동물' 주제로 또 다른 관점에서 현실감 넘치는 풍자적인 조각들을 병행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작가는 이미 자기 브랜드화한 하나의 모티프에만 매달리려는 것이 아님을 입증해 주었다. 그래서 그의 가설이 타당성 있게 들리고 꿈같은 작품세계에 신뢰와 기대가 간다.

꿈꾸는 세계의 가시화

이기철 작가는 재료나 규모에서 아직까지 중력을 다루는 조각가의 힘을 보여주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면에서도 나약해진 현대인의 잃어버린 꿈과 과거의 찬란한 신화를 되살려내고 싶어 한다. 그런 점에서 그는 독일의 한 위대한 아방가르드 작가가 '죽은 토끼'를 안고 어떻게 회화를 설명하지라며 퍼포먼스를 벌인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그 작가도 야생 코요테까지 등장시켜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설화나 전설이 지닌 가치를 상기시키려 했다. 이기철 작가 역시 이런 비유의 방식으로 자신이 목격하고 있는 세계에 개입하고 현실에 참여하고자 하는 점이 돋보이지 않을 수 없다. 그의 의지가 결연할수록 그 비유는 더 생생해지고 긴장감 가득한 캐릭터로 완성돼 갈 것이다.

-미술평론가 / 김영동-

2017.**10.27**Fri ~ **12.24**Sun 아트스페이스 (2F)

토끼시대-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코디네이터 홍종기
비평가 김영동

전시소개

2017년 유리상자 다섯 번째 전시인, 전시공모 선정작「유리상자-아트스타 2017」Ver.5展은 조소를 전공한 이기철(1981년생) 작가의 설치작업 '토끼시대-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입니다. 이 전시는 자신과 분리되어 낯설어진 '현실'에 대한 심리적 대응으로부터 출발한 허구적 상상想像에 의한 서사敍事의 '실제화實際化'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간을 거슬러 개입하는 작가의 주관적이고 창조적인 상상을 통하여 분리되었던 자기 내면성과 외부세계를 통합하고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나려는 행위이며, 또한 리얼리티를 추구하는 조각으로서 지식과 정보의 수집과 기록, 가공, 보존, 전시 등으로 이어지는 신체행위의 응축이며, 기획된 시·공간적 사건에 관한 새로운 사실로의 인식을 권하는 상징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번 전시 설정은 자연사 박물관에서처럼 4면의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안과 밖의 시선이 통하는 거대한 쇼 케이스 안에 오래된 뼈 화석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거대한 공룡의 뼈 화석을 조립하여 실물크기로 복원해놓은 것 같은 이 전시물은 가로440×세로130×높이430㎝ 크기의 짙은 암갈색 뼈 구조와 철제 지지대, 그 구조를 올려놓은 1m 높이의 전시대, 설명 자료 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커다랗고 튼튼한 뒷다리로 지면에서 일어서서 앞발을 들고 포효咆哮하듯 입을 벌리는 모습은 토끼를 닮았으나 지금의 토끼와 전혀 다른 위협적인 토끼의 화석임을 짐작하게 합니다. 이 화석을 통하여 작가가 확신하려는 서사는 자신이 상상하는 토끼시대의 '새로운 토끼' 중에서 '사라진 토끼의 흔적'입니다. 그 흔적에 대하여, "현재의 토끼와 모습은 거의 흡사하나 몸길이는 3m에서 무려 6m까지며 두개골 길이만 해도 82㎝가 넘는다. 몸무게는 약 1.5t 정도로 무겁다. 토데노돈(豚龍, Thodenodon)은 강하고 큰 앞니를 지니고 있어서 상대방을 위협할 수 있다. 토데노돈은 신생대 팔레오세(약 6600만년전)에 아프리카에 살았던 거대한 초식성 포유류이다. 화석은 1923년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서 발견되었다. 이들은 주로 군집 생활을 하였지만 짝짓기를 할 때만 따로 지냈을 것이다. 이들의 큰 몸짓과 강한 턱으로 보아 천적은 거의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설명하는 작가의 서사는 전시를 통하여 관객의 신뢰 속으로 스며듭니다.
이번 전시 작업은 먹이 사슬의 아래 단계에 속하는 연약한 토끼를 대상으로, 현실에 대응하는 작가 자신의 위축된 심리를 투영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약육강식弱肉强食의 자연법칙을 뒤집어 토끼가 자신의 포식자인 여우를 사냥하는 등, 동물 세계의 최상위 존재로 설정되는 상상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같은 작가의 상상과 창조적 기억의 서술은 이미, 건물 내부로 숨어든 야생 토끼를 다루었던 전시 'Hello! Contemporary art-야생 서식지'(2014)를 비롯하여, '개인사 박물관' 전시(2015), '토끼시대' 서적 출간(2016) 등으로 이어지며 사건의 기억 스펙트럼이 과학적인 근거와 학술 용어를 토대로 구체적이고 정교하게 가공되어 실제의 사실인 것처럼 착각을 일으킵니다.

이렇듯 작가는 현대미술의 역사 속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제거되었던 기억으로서 '서사'에 주목하며, 물성을 다루는 입체조형으로서 조각이 아니라 고착된 인식에 변화를 가하는 서사의 기획 행위로서 새로운 조각을 실험합니다. 강인한 힘을 가진 토끼를 상상하는 작가의 서사는 세계를 이루는 '관계'와 '균형'에 관한 창조적 기억이며, 이 주관적인 서사의 원천은 우리의 욕망과 구조적 모순에 대한 생각, 잃어버린 자신에 대한 갈증에 다름 아닙니다. 작가의 사실적이고 현실감 있는 조각 행위와 타인을 향한 공감의 제안은 동시대 예술의 힘에 대한 기대이며, 세계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교감하려는 예술의 은유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유리상자는 리얼리티를 지향하는 새로운 서사적 조각행위의 실험이며, 물질 혹은 비물질적으로 가공된 정보와 지식, 인식을 대상으로 신뢰를 재촉하는 다각적인 미술 설계입니다. 또한 상상과 창조적 기억을 잇는 작가의 신체행위이고, 인간 삶의 과정에 관한 정서적 균형의 염원이기도합니다. 충만의 경험을 기억하며 미래의 균형을 회복하려는 이번 유리상자는 미적 신념을 소통하려는 예술의 실험적 가치를 떠올리게 합니다.

-정종구-

토데노돈 레진, 430×440×130cm, 2017

2018 현재

GLASS BOX ARTSTAR

유리상자-아트스타2018

Ver. 1

홍정욱-nor
1.12- 3.18

Ver. 2

박경제-345kV
3.30- 5.27

Ver. 3

정혜숙-조감도鳥感島
6.8- 8.12

부산문화회관의 기획, 「유리상자-아트스타2018」전시공모선정 작가展은 동시대 예술의 낯선 태도에 주목합니다. 올해 전시공모의 주제이기도 한 '헬로우! 1974'는 우리시대 예술가들의 실험정신과 열정에 대한 기억과 공감을 비롯하여 '도시'와 '공공성'을 주목하는 예술가의 태도 혹은 역할들을 지지하면서, 동시대 예술의 가치 있는 '스타성'을 지원하려는 의미입니다. 4면이 유리 벽면으로 구성되어 내부를 들여다보는 관람방식과 도심 속에 위치해있는 장소 특성으로 잘 알려진 아트스페이스「유리상자」는 어느 시간이나 전시를 관람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시민의 예술 향유 기회를 넓히는 데 기여하고,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예술가들에게는 특별한 창작지원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예술지원센터로서 더 나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공모에 의해 선정된 참신하고 역량 있는 작가들의 작품 전시를 지속적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봉산문화회관기획 전시공모 선정작가展 '헬로우! 1974'

GLASS BOX ARTSTAR 2018 Ver.1

Hong, Jungouk

존재와 시간, 그리고 공간

처음 작가의 작품을 만났던 것은 영국에서 뉴 컨템포러리스(New Contemporaries)[1] 라는 영국에서 젊은 유망 작가에게 수상하는 전시에서였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2018년 한국에서의 작가의 작품세계를 접하며, 이 글에서는 2008년에서 2018년 현재의 홍정욱 작가의 작품을 통해 그가 사회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인가를 되짚어 보고자 한다.

인간의 본질에 대한 물음

홍정욱에게 작업한다는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본질적인 적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2003년 첫 개인전 이래 세상과 인간의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채택했던 조형언어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이해할 수 있다. 사회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작업의 과정으로 제시한다. 관객이 만나게 되는 선, 색채, 빛, 나무와 자석을 이용한 조형적인 설치물은 그가 세상을 향해 이야기하는 언어로 작용한다. 처음 작품을 시작했을 때부터 작가는 회화의 기본인 사각의 캔버스에 의문이 들었다고 했다. 그 질문의 진화는 캔버스를 왜 벽에 걸어야 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져 2017년 경기도 미술관 〈이면의 탐구자 Inside out〉 전시에서 작품을 천정에 설치하는 시도로 이어진다.

하이데거는 인간의 본질을 '현 존재로서의 심려'라고 하였다. 여기서 현 존재는 하나의 세계 안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구현하려고 하면서 다른 존재자들과 관계하면서 존재한다. 하이데거는 그런 지각과 이론적인 인식 이전에 사실은 우리가 타인들과 관계하면서 우리들은 사물들을 이해하고 파악하고 있다고 본다. 오히려 사물들을 눈앞의 대상으로 주체화시키지 않고 사용할 때 그 사물들을 가장 잘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는 타인과 더불어 살며 이 관계에서 갈등의 문제는 불가피하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기본 물음에는 "타인들과 함께"라는 말이 이미 포함된 것이다. 타인과 함께 있는 세계인 것이고 안에-있음은 타인과 더불어 있음[공동존재]을 의미한다. 타인의 세계 내부적인 자체존재는 공동현존[함께 거기]에 있음이다.[2] 작품에는 인간의 구체적인 형상이나 사회에 대한 직접적인 제안 혹은 이미지는 사용하지 않았다. 다만 작가의 작품을 진행하는 과정 과정에는 작가의 사회의 구성원이 지녀야 할 철학과 자세가 반영되어 있기에 작가는 공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홍정욱의 'common(2009)' 작품은 어떤 접착제를 쓰지 않고 타원형으로 모든 구성 요소를 지지하도록 해서 작업한 대표적으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작가의 삶에 대한 태도를 작품으로 구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0년이 지난 'INFILL(2017)'의 작업 방식에서도 드러난다. 중요한 것인 수록 그 중심을 부각 시키는 방식보다 뒷면의 색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그 캔버스를 지지하는 것에 더 중심을 두었을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더 강조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작가의 캔버스 주변과 뒷면은 화려한 색채가 칠해진 철선과 면으로 받치고 있다.

진화하는 조형[3]

작가는 마치 이미 설치를 시작점으로 삼았던 것처럼 전시실 공간 전체를 화폭으로 삼는다. 점, 선, 면, 색과 같은 회화의 기본 요소들과 사물의 기본이 되는 형태인 삼각형, 사각형, 원이 화면에 머무르지 않고 전시 공간 전반에 펼쳐지게 함으로써 회화의 영역을 확장한다. 또한 직접 볼 수 없는 면에 색을 입히고 반대편 벽면에 비쳐 드러나 보이도록 하는 구성은 '외양 너머의 실재, 현상 너머의 실체'를 탐구하는 작가의 관심사를 반영한다.[4] 스페이스 오뉴월에서 보여 주었던 스무 개 삼각 거울 조각으로 입면 체를 이룬 〈in situ〉(2016) 작업은 벽 드로잉뿐만 아니라 갤러리 바깥 풍경을 끌어들이기도 하였다. (강성훈, 2016) '작품은 발전하기보다는 변화와 진화를 가지는 것 같다'. 작가의 말은 현재의 작품을 보면서 이전 작품의 변화를 궁금하게 한다. "기본은 현상의 이면에 내재하여 있기에 그것이 작품에서 발현된다 하여도 놀랍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홍정욱 작품의 실루엣은 삼각, 사각으로 더 단순화되어 왔지만, 그 내부 구조만큼은 전작(前作)을 만들면서 거쳐온 실험의 과정을 포함하는 복잡한 요소로 구축되어 있다."(김소라, 2017)

Faith, 보여지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다.[5]

'Möbius(2008)'은 자석과 전선을 정리는 타이 선으로 공간에 형태를 만드는 설치작품, 그리고 영국에서 주목 받았던 'common(2009)'과 현재 전시에서 선보이는 'INFILL(2017)'은 서로 조형적 결과물은 다르지만 내재하여 있는 작가가 사용하는 재료의 사용방식에서 작가의 생각이 재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홍정욱은 초기부터 자석을 작품 곳곳의 구성요소로 사용해 왔다. 그는 접착제라는 화학적인 방식보다는 자성이라는 물리적인 방식의 결합을 선택하였다. 이 선택은 그가 추구하는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다. 보이지는 않지만 다른 성질의 자성이 서로 결합하는 힘이 얼마가 강한지를 그리고 그 힘을 가치 있게 하는 방식을 작품화한다. 그 때문에 작가가 만든 시각적 형태에만 주목해서는 이 작품의 의미를 놓칠 수 있음을 그래서 그저 시각적으로 아름답게 '보여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재료들의 선택, 사용 방식, 그리고 결과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세상을 공간에 선보인 '보이지 않는' 태도에 가치를 둔 작품이었다. 'faith(2017)' 작품은 강한 자성의 단위체가 모여서 천정에 설치 된다. 이렇듯 홍정욱은 사회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이지 않는 작업의 과정으로 진행하고 작품으로 전시를 통해 제시해왔다.

홍정욱은 서로 관계하는 요소들의 결합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예술가의 미학적인 감각으로 풀어낸다. 인간과의 관계성을 생각하면서 삶을 공간에 녹여내는 작품은 공간이 바뀔 때마다 시간이 지나며 변화한다. 2008년 영국에서 만난 작가의 생각을 2018년 봉산문화회관의 전시를 통해 새롭게 만나리라고는 10년 전에 알지 못하였다. 그 순간을 재회하게 되었고 다시 먼 훗날 이곳에서의 작품들이 그 누군가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10AAA 디렉터 / 송요비-

1 http://www.newcontemporaries.org.uk/ 경제 전문 뉴스를 발행하는 미디어 그룹 블룸버그(Bloomberg)에서 후원하여 영국의 미술학교를 졸업한 젊은 작가들 중 뛰어난 작품을 선정하여 상을 주고 시를 진행하는 수상제도.
2 M. 하이데거, (1998). 존재와 시간(이기상 역) 까치(원서출판 1927)
3 김소라(2017). 「조형의 진화론」, 《INFILL》 (Shopis Gallery, 2017) 전시 서문
4 경기도 미술관(2017) 「이면의 탐구자」, 《생생화화 2017》 (경기도미술관, 2017) 전시 설명
5 작가와의 인터뷰, 2018.1.5

2018.1.12Fri ~ 3.18Sun 아트스페이스 (2F)

nor

코디네이터 김효정
비평가 송요비

전시소개

2018년 유리상자 첫 번째 전시, 전시공모 선정작 「유리상자-아트스타 2018」Ver.1展은 회화를 전공한 홍정욱(1976년생)의 설치작업 'nor' 입니다. 이 전시는 공간을 수용하는 입체적 회화 혹은 확장된 회화의 논리를 제안해온 작가의 최근 작업 보고서입니다. 작가는 자신이 탐구하고 경험한 회화적 논리의 확장, 즉 전시 공간의 형태와 주변 조건 등 상황 전체를 그림의 화폭으로 설정하고, 평면회화의 표면에서 점, 선, 면, 색채 등 회화의 기본요소를 분리하여 캔버스 틀의 변형과 함께 해체하고 재구축하는 기본으로서의 회화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화의 본질이 세상과 자연의 원리, 인간과의 관계성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어느 한 방편에 귀속된 것이 아니라 서로 내포된 것이라는 예지叡智적 해석과 새로운 변화와 또 다른 균형의 가능성을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여기의 서정적 상태狀態를 발견 가능하도록 오랜 시간동안 보이지 않는 이면裏面을 탐구하며, '진화'를 진행해온 자신의 미술행위가 관객과 만나서 서로 '신뢰' 하게 되는 시·공간적 상상想像이기도합니다.

이번 전시는 우리시대 예술의 어느 지점과 삶의 어떤 상황에 대처하는 작가 자신의 '다름'에 관한 태도들을 조형화하려는 미술 설계를 사방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유리상자 공간에 담으려는 제안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도(또한) ~아니다'라는 의미의 부정 논리합에서 빌려온 전시명, 'nor'는 건물의 내부도, 외부도 아닌듯한 이곳, 유리상자 공간에서, 평면회화로부터 입체로 진화해온 자신의 조형적 탐색과 보이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두는 '신념'을 통하여 미술을 행위하며 과정의 가치를 기억하려는 명제입니다. 이 명제는 'faith'와 'infill', 이 두 가지의 설계를 또 다른 하나의 공간에 구현하는 시도에 기여합니다. 별을 닮은 200×200×200cm크기의 'faith'는 평면에서 공간 속 입체로 진화하는 회화의 절정처럼 보입니다. 시간차를 두고 여러 색상의 빛이 변화하며 은은하게 내뿜는 빛 덩어리 'faith'는 수공으로 정교하게 다듬은 정12면체 나무구조 틀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 구조물 표면의 5각형 형태와 5각형 밑면에서 시작하여 또 다른 꼭지 점까지 그림을 그리듯 직선과 곡선으로 연결되어 솟은 삼각뿔 형태는 서로 자석으로 결합하여, 공학적인 이성의 형식 논리가 유기적인 감성의 빛으로 발산하는 상징처럼 천장에 매달려 있습니다. '신뢰', '신념', '바램' 등 인간의 희망과 신앙을 대변하듯 유리상자 공간의 중심, 높은 곳에 위치하면서, 전시공간과 멀리 떨어진 주변의 거리에서도 밤하늘의 별처럼 관찰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공간을 물들이다'는 의미의 3가지 'infill'(76×103×105cm, 76×124×47cm, 38×57×43cm)이 별을 따라 수행한 3개의 개체처럼 'faith'와 조응하듯 위치해있습니다. 'infill'은 화면의 표면이 아니라 이면에 채색된 핑크와 연두 등 형광색이 자연스럽게 반사 빛을 발하는 현상에서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에 대한 작가의 감성이 스며있고, 평면 화면을 면분할하여 구성하듯 입체적인 선과 면으로 개체를 구축하면서 평면의 표면 내부로부터 곡선의 입체가 돌출되는 평면회화의 진화 과정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홍정욱은 'nor' 상태처럼 자신의 작업을 통하여, 회화와 조각, 이성과 감성, 현상과 실체, 균형과 불안정 등을 제시하고, 우리가 공존하며 대면하는 불완전한 현실 시·공간에서 근원적인 세계의 균형을 획득하려는 에너지의 흐름을 과정의 가치와 함께 제안합니다. 적합한 작업 재료를 선택하여 자르고 갈아서 붙이고 입히는 수공의 작업 과정, 또 점과 선과 면을 연결하여 작은 단위 덩어리를 만들고 이들을 결합하여 커다란 전체 덩어리를 만드는 과정, 그리고 그 위에 색채와 빛을 더하는 작가의 미술행위는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동원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또 다른 무엇을 찾는 창조적인 '놀이'에 다름 아닙니다.
눈앞에 펼쳐진 유리상자는 점, 선, 면에서 입체로 나아가며 조형의 본질을 찾아가는 작가의 미술행위와 그 이면에 충만하게 깃든 세계의 원리를 발견하고 참조하려는 태도이며, 인간 삶의 변화 과정에 관한 정서적 균형의 기대입니다. 가치 있는 과정으로서 다름의 경험을 기억하며 현재의 균형을 회복하려는 이번 유리상자는 미적 신념을 소통하려는 예술의 가치를 떠올리게 합니다.

-정종구-

faith barrisol, magic-light, magnet, red-pine wood piece and spring, 200X200X200cm, 2017
INFILL acrylic color, birch, cloth, wire and wood on transformational canvas & birch structure, 76X103X105cm, 2017
INFILL acrylic color, birch, cloth, wire, wire clothing and wood on transformational canvas & birch structrue, 76X124X47cm, 2017
INFILL acrylic color, birch, cloth and plastic on transformational canvas & birch structure, 38X57X43cm, 2017

봉산문화회관기획 전시공모 선정작가展 '헬로우! 1974'

GLASS BOX ARTSTAR 2018 Ver.2

Park, Kyungje

예술의 올곧음에 관한 사례 연구

종종 겪는 일인데, 사회 현실을 주제로 한 미술 전시가 열릴 때마다 내가 관심 있어 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이곳저곳으로부터 초대장을 받는다. 올해에도 몇 건의 전시가 있었다. 정말 미안한 말인데, 대부분이 좋은 전시가 아니었다. 그 가운데 어떤 전시는 엉망이었다. 그것이 조형성을 담보로 잡은 미술 전시라고 한다면 작가가 끼어드는 게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예술과 사회의 문제를 꼭 예술가들이 발언해야 된다는 법은 없고, 때에 따라서는 사회운동가들이나 학자들 아니면 언론인들도 현실을 말과 글의 텍스트가 아닌 시각적인 매체로 드러낼 수 있다. 여기에 소개하는 작가 박경제의 유리상자 프로젝트, 〈345kV〉는 상당히 괜찮은 전시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는 그가 가진 몇 가지 탁월한 점을 예전부터 인정했고, 그 반짝이는 장점은 아직도 빛을 발하고 있다. 다만 그 반짝임조차 늘 그대로 밝혀져 있다면 그게 도리어 피곤함을 가져다 줄 수는 있다. 이 시각적이고 인식적인 피로감은 최근에 내가 봤던 몇몇 조악한 사회참여 미술에서 느낀 그것과 완전히 다른 건 아니다. 이 글이 박경제라는 신진 작가의 전시를 평면적으로 칭찬하는 수준보다 한 단계 높은 타당성을 가지려면, 그의 작업 진행을 둘러싼 빛나는 광채를 요모조모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 보다시피 유리상자 안에 시골의 어느 야산 지대가 옮겨져 있다. 우리 도심지 바깥의 자연 경관 또한 인공적으로 꾸며진 자연이란 건 이의를 달 수 없을 것이다. 여기 재현된 자연 속에는 낙엽이 쌓인 흙 위에 크고 작은 송전탑이 여러 채 서 있다. 흙바닥에는 어떻게 보면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 편으로는 불길한 위험의 징후를 보여주는 단서 같기도 한 붉은 막대 빛이 있다. 누가 보더라도 이런 것들은 무슨 의미심장한 뜻을 전달하려는 게 분명하다. 작가의 설명을 준거해서 풀자면, 큰 송전탑들은 밀양의 송전탑이고 작은 송전탑들은 청도에 있는 송전탑이다. 지금 전시가 벌어지는 대구의 이 공간에 공급되는 전기의 이동 경로는 양산에서 밀양, 청도를 거쳐 대구로 이어지는 순서다. 밀양 송전탑이 청도 송전탑보다 실재로 큰 건 아니고, 그 두 개의 탑은 두 개의 경로로 갈라져 이어지는 점, 그리고 그 사회적 순기능과 역기능을 상징한다. 나머지 작은 탑들은 그 자체가 실재 사용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상황을 은유한다. 또 다른 오브제인 변압기 설비는 고압으로 송전되는 에너지를 도시에 사는 개별 전기 소비자들이 쓸 만큼 낮추어져 세세히 분배되는 일종의 허브를 작가가 표현한 것이다.

원자력 발전소로부터 여러 에너지로 바뀌어 소비되는 현지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가운데 박경제가 시야를 둔 곳은 청도다.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온 송전탑 설립 반대운동의 근거지인 청도 삼평리로부터 그의 작업은 시작되었다. 그는 자신이 보고 느끼고 알려야 할 것들을 때로는 정제되지 않은 더미로 그곳에서 이곳으로 가져왔다. 바닥에 깔린 흙과 무수히 흩뿌려진 사진이 그것들이다. 꼭 그렇게 거친 덩어리를 그대로 옮겨오거나 직설적인 오브제를 가져다 두어야만 했을까? 내 생각은 '그렇다'다. 이제 출발 단계에 있는 예술가인 그로서는 현장에서 모은 수많은 사회적 사실을 예컨대 노련한 학자나 사회운동가만큼 칼날처럼 날 세워 분석하거나 판세를 훤히 내다볼 방법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일단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을 우리는 보고 있다.

최선의 방식, 다른 말로 실현 가능하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전시 구상과 배치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부분적인 성취일 뿐이다. 그가 기록한 르포타쥬 형식의 사진들은 예컨대 오가와 신스케의 다큐 필름이 완성되는 과정이 보여주는 인내에 비할 바가 못 된다. 관객의 눈앞에 놓인 송전탑의 스케일은 일견 작가를 인지하기 좋은 시그니처가 되었지만, 이 커다란 덩치가 어느 시점에 가서는 오히려 작가의 발목을 잡을 덫이 되지 말란 법은 없다. 무엇보다 작가가 〈해피트리〉라고 스스로 이름 붙인 식물 오브제는 그 행복이란 단어 속에 담긴 여러 뜻, 그러니까 환경 문제를 미처 각성하지 못한 단계로서의 즉자적 의식에 머무는 다수들이 전기를 통해 얻는 일상의 행복이나, 가려진 그 문제에 부딪히며 투쟁하는 과정에서 얻는 연대의식, 그리고 개인의 명망보다 그곳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공간의 증인인 할머니들을 통틀어 상징하는 장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피트리는 어느 면에서 작위적인 인상을 완전히 떨치지는 못한다. 전체적으로 이 전시는 학부졸업전과 직후에 이어진 〈거의 최초에 가까운 전시〉에서 '임팩트'있게 등장한 작가의 면모를 그대로 잇는 선상에서 새로움에 대한 내적 혹은 외적 압력을 시각적으로 풀어내기보다 (개념이 아닌)말과 글로 해소하려한 결과를 보여준다.

환경문제와 그에 따른 환경운동을 바라보는 사회학의 견해에서, 우리 사회는 거의 모든 것들을 결정의 탓으로 돌린다. '왜 하필 송전탑을 그 소박한 마을에 두어야 되는가?' 똑같은 질문을 예술가에 해볼까. '왜 굳이 송전탑 문제를 이 순수한 예술판에 끌어들여야 하는가?'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결정에 대한 찬반이나 평가를 두려워한다면 그들은 애당초 그 일을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다. 대의 민주주의가 가진 맹점 때문에 모든 의사결정에 관한 투명성은 확보되어야 한다. 청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인간적인 꼴은 행정과 언론이 흑막에 가린 혐의가 크다. 그건 그런데, 예술도 열길 속까지 훤해야 하나? 작가 박경제는 매우 정직한 메신저이거나 혹은 반대로 거짓말쟁이다. 적어도 그가 기자나 관료라면 그렇다. 하지만 그는 작가이지 않나?

예술가가 쓰는 트릭, 좋게 말해서 기법 가운데 하나는 보여줄 것과 안 보여줄 것 사이의 절묘한 균형을 취하는 일이다. 전부 드러낼 필요는 없다. 또 객관적일 필요도 없다. 남보다 빨리 착안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점에서 순발력을 가질 필요는 있다. 내가 이번 개인전 〈345kV〉의 스펙터클의 그 다음 지점에서 기대하는 바가 그와 같은 균형이다. 드러내고 숨기는 내용이 예를 들어 이런 것이면 좋겠다. 작가 개인이 겪은 성장기로서의 미시적 관점, 청도에서 벌어진 공적 가치의 붕괴나 새로운 희망과 같은 거시적 관점,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한 이 두 가지 역사를 겹쳐 끌어올린다면, 이 소소함이 새로운 매혹을 이끌어 낼 가능성은 크다.

–갤러리분도 아트디렉터, 예술사회학 / 윤규홍–

2018.3.30Fri ~ 5.27Sun 아트스페이스 (2F)

345kV

코디네이터 김동진
비평가 윤규홍

전시소개

2018년 유리상자 두 번째 전시, 전시공모 선정작 「유리상자-아트스타 2018」Ver.2展은 회화를 전공한 박경제(1991년생)의 설치작업 '345kV' 입니다. 이 전시는 세계의 현실을 향한 작가의 감수성과 기억을 기록하고 이를 선전宣傳하려는, 어쩌면 낯설기도 한 자신의 연속적인 프로젝트 실천의 어느 지점입니다. 작가는 세계 속의 현실 사건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과 관계하고, 그 삶의 일부가 어떻게 예술과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흥미로운 해석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현실에 대한 작가의 태도가 스며든 '낯선 두려움'을 사방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유리상자 공간 속에 담아 가시화하려는 작가의 실험적 예술설계입니다. 이 설계는 우리가 별다른 생각 없이 이용하던 전기의 '송전탑' 설치반대운동 관련 사건에 대한 작가의 강렬한 인상으로부터 시작되며, 아름답고 편리한 문명의 이기利器처럼 각인되는 전기의 상징으로서 '붉은 빛'의 양면적 메타포로 생명체의 불안에 관한 '두려움'의 언어를 새롭게 구사하려는 것이 기본 개념입니다. 작가는 자신이 대면한 어떤 '두려움'의 상황을 그리거나 윤곽을 구획하고 오브제를 세우는 조형 설계를 통하여 자신만의 회화적 공간을 설치합니다. 마치 주술적이거나, 장식, 마술 등의 행위를 비롯하여 선전, 기록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오래 전의 종합적인 회화를 떠올리게 하는 이 작업은 작가가 새롭게 해석하여 구축하려는 '낯선 그리기'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작가에게 있어서 '붉은 빛'은 단순한 장식적 눈요기가 아니라 우리들 현실의 삶과 그 대응 태도를 되돌아볼 수 있게 하려는 '두려움'의 상징입니다.

작가는 신고리핵발전소에서 밀양, 북경남변전소를 거쳐오는 76만 5천 볼트 송전선로에서 분기해 청도군 삼평리에 세워지는 40기의 34만 5천 볼트 초고압 송전탑 중 마지막 한 기를 막기 위해 2009년부터 지금까지 한전과 정부에 맞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 특히 평생 동안 땅을 일구며 자연과 이웃에 의지해 살아온 할머니들의 '두려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작가의 작업 행위는 삶에서의 두려움을 기반으로 하는 현실의 기억을 새로운 '그리기'로 옮기는 것입니다. 작가는 150×350㎝ 크기의 송전탑 2개와 150×200㎝ 크기의 송전탑 5개를 설치하여 전선으로 연결하고 그 아래에 붉은 색 빛을 발하는 가느다란 형광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어떤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설렘을 동반하기도하는 이 아름다운 '붉은 빛'은 고압선로 아래에서는 꺼져있던 형광등이 켜지는 사실에서 착안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리고 송전탑을 거친 전기를 가정으로 배분하는 변압기를 중앙에 설치하고 그 변압기 구조물 속에서 제한적인 형태로 식물이 자라도록 하여 생명체의 생존에 대한 두려움과 그 회복력을 동시에 연상할 수 있도록 연출하였습니다. 송전탑의 그림자와 겹쳐 묘하게 여린 감성을 자극하는 식물과 붉은 빛, 청도 삼평리 현장의 흙, 사건의 장면을 기록한 345장의 흑백 필름 등은 작가의 메타포에 의한 '그리기' 기록과 선전을 공감하게 합니다.

눈앞에 펼쳐진 유리상자의 '현재'는 다름 아닌 자아와 현실 삶의 성찰을 반영하는 감성적 행위이며, 이때 작가가 다루려는 것은 편익便益과 개발 중심적인 선택에 의해 도외시되었던 생명 경외敬畏의 반성이기에 앞서 인간의 '삶'을 응시하고 그 속의 '두려움'을 공감하여 드러내려는 태도에 관한 것이고, 삶이 예술과 관계하는 지점에 대한 예지叡智적 해석에 관한 것이며, 미묘하지만 생생한 예술적 장치에 관한 진眞·선善·미美의 유효성들을 추출하려는 시도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현실REALITY을 스스로의 생동生動 확장의 행위로 변안하려는 이번 유리상자는 경계 없는 예술 실험의 가치를 자문하게 합니다.

-정종구-

345kV 철, 혼합재료, 가변설치, 2016~2018

봉산문화회관기획 전시공모 선정작가展 '헬로우! 1974'
GLASS BOX ARTSTAR 2018 Ver.3

Jung, Hyesook

〈필리핀 버드〉 연가

자연과 인공의 조화, 다양한 문화의 접촉과 소통은 정혜숙의 작품세계를 관통하는 키워드들이다. 도심과 자연을 유유자적 오가며 정주하지 않는 유목적 삶을 즐기는 작가는 이런 삶의 호흡을 작업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그의 작업에는 힘이 들어가 있지 않다. 모든 것이 물 흐르듯이 유연하고 때로는 엉뚱한 상상력이 반짝이기도 하며 늘 관람자와의 소박한 소통을 위한 배려가 배어있다. 인간의 무책임과 이기심으로 발생한 환경오염 같은 심각한 문제조차 작가는 섬세한 감성으로 여유 있게 풀어낸다. 경고의 메시지 대신 관람자가 스스로의 방식으로 이런 문제를 숙고하게 만든다.

지난 달 초, 작가는 현재 머물고 있는 울산의 한 창작스튜디오에서 대구 시내의 내 사무실로 찾아왔다. 그는 노트북을 펼쳐 최근 한 달 간 인도의 델리에서 머물며 작업하고 전시했던 작품들을 보여주었다. 조근조근 작업을 설명하는 태도는 차분한 확신에 차있었다. 델리 전시에선 작가가 그간의 작업여정에서 시도해 온 것들이 –버려진 재료에 대한 흥미와 그것의 변용, 실상과 허상의 교집합, 형태의 변주, 여러 문화의 교류– 자연스레 녹아있었다.
델리 한국문화원 윈도우 갤러리에는 그곳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벽돌을 모아서 쌓은 벽면작품을 설치했다. 그곳의 벽돌은 타일과 같은 건축 폐기물로 제작돼 전혀 견고하지 않다고 한다. 단단함과 약함의 대비/놀이는 정혜숙의 작업에서 하나의 항구성으로 나타난다. 이전의 작업에서도 단단한 도자기 형태를 고스란히 재현한 재료는 켜켜이 쌓은 종이나 발포지였다. 단단하면서도 깨지지 쉬운 도자기를 포장하는 재질로 빚어서 연출된 도자기는 일상의 용도를 파기하고 엉뚱한 현실과 결합해 의미를 전도하는 일종의 데페이즈망(depaysement)을 보여준다. 도자기로 착각한 관람자들이 작품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실재라고 믿었던 세계가 별안간 교란되어 버리고 작가가 창조한 한 특별한 세계와 마주하게 된다.

벽돌들 틈으로 코끼리풀이라 불리는 녹색풀을 자라게 해서 'WORLD' 글자가 보인다. 벽면 중앙에 위치한 'O'는 흰색 시계 모양을 하고 있다. 여기서도 작가는 시각과 사고의 교란을 노린다. 윈도우 갤러리 유리창을 통해 관람자는 실제 작품 대신 거울에 반사된 허상을 보게 된다. 구조물 천장과 옆 벽면에 45도 경사로 세워진 거울에 반사된 상을 통해 시계가 가리키는 침들은 거꾸로 흘러간다. 이 작업이 완성된 시점에서 과거로 돌아가는 시침들은 시간의 역전불가능성에 도전하며 작가로 하여금 시간을 길들이고 소유하게 만든다.

새들은 날아가고

이번 봉산문화회관 유리상자 전시 〈조감도〉를 위해 정혜숙은 이곳을 거대한 새장으로 상정하고 새를 위한 놀이터를 만든다. 높은 천고의 유리탑 같은 공간에는 팔각형 구조물 위로 잔잔히 올라오는 분수, 수직으로 세운 대나무를 따라 층층이 쌓은 네모 프레임들, 바닥에 흩어진 나뭇가지들 등 대부분 목재 오브제들이 설치되어 있다. 천장에 매달린 굴렁쇠와 그네는 이것들을 타고 놀아 줄 새들을 기다리며 하릴없이 한줄기 바람에도 흔들거린다. 유리창에 붙여진 깃털 모양으로 오린 신문지 조각들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햇살을 따라 전시장 내부 바닥에 깃털무리를 수놓는다.
이렇듯 작가가 정성스레 마련한 새장의 주인공은 어디에? 내부에 덩그러니 놓인 화조도 병풍에서 정작 그림들은 예리하게 도려내져 있다. 여기서 새들의 부재는 가슴을 찌르는 아픔으로 다가온다. 거대한 무대에서 주인공의 부재는 슬픈 공명으로 울려 퍼진다.
그의 작업에는 비어있음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델리에서 선보였던 작업에서도 공백–틈이 두드러진다. 벽돌 틈으로 풀이 자라나게 한 점에서 시인 김지하의 생명사상이 떠오른다. 이 시인은 '틈'이 없는 생명은 없으며 생명은 실체가 아니라 생성과 과정이며 그것은 한 순간도 머무르지 않고 모든 것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한다고 했다. 이 시인이 언어의 절제를 통해 여백을 강조했듯이, 정혜숙의 작업에서도 생성과 과정, 여백이 중시된다. 그는 틈–여백으로 바람, 풀, 새, 그리고 관람자의 감성과 자유로운 해석이 스며들기를 기대한다.
새는 정혜숙의 일상과 작업에 자주 등장한다. 심지어 그의 아침도 오리 소리 알람으로 시작된다고 한다. 2015년 인도 첸나이에서 진행되었던 '노마딕 레지던시' 프로젝트 동안은 까마귀가 아침에 깨우는 역할을 했다. 무공해 청정지역인 이곳에 여러 작가들이 입주해 있던 동안 일회용 용기 같은 물건들이 여기저기서 나뒹굴기 시작했다. 어느 날, 흰 머리의 까만 새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서 날아가는 순간, 땅으로 무언가 툭 떨어졌다. 흰색 머리로 착각했던 건 까마귀가 부리로 물고 있던 흰색 일회용 컵이었다. 그동안 자연환경을 더럽힌 이질적인 물건들은 바로 까마귀들의 소행으로 도처에 퍼트려졌던 것이다. 마치 까마귀들이 무심하게 자연을 훼손하는 사람들을 꾸짖는 듯하다. 그의 〈까마귀 드로잉〉 연작은 이렇게 탄생했다.
이번 유리상자 전시에 소개되는 작업 〈조감도〉의 모티브는 '필리핀 버드'라는 이국적인 새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가게 이름에서 나왔다. 삭막한 도심 영등포에 위치한 작업실 가까이에서 들리는 아름다운 새소리와 형형색색 자태를 뽐내는 새에 매료된 작가는 〈필리핀 버드〉라는 제목의 게르 설치작업으로 이를 풀어낸다. 빛깔 고운 천들이 덮인 몽골 유목민의 상징인 게르는 새 가게에서 녹음한 새소리가 들리는 쉼터가 된다. 유리상자 전시와 맞물리는 시기에 작가는 봉산문화회관 앞마당에 게르 설치작업도 동시에 선보이며 폭염에 지친 시민들과 차를 나누며 소통하길 원한다. 날아가 버린 새들은 닫힌 유리상자 대신 개방된 이 게르에 날아들지 않을까?

〈조감도〉는 자라온 환경으로부터 강제 이주된 새들에서 연유한 엘레지로 시작해 자유로운 형식의 서정적인 연가로 바뀌는 작품이다. 욕망을 쫓는 자발적 이주든 내전으로 인한 난민들의 이주든 모두 새로운 땅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눈물겨운 고군분투가 따른다. 도심과 자연을 개의치 않고 그를 불러주는 창작스튜디오들을 옮겨 다니고 지구촌 곳곳에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길 주저하지 않는 정혜숙에게 물리적인 이동, 이주가 유목을 정의하지는 않는다. 작가에게 이동은 멈춤, 즉 정신적 뿌리내리기를 위한 수단으로 새로운 가치와 삶, 사유를 찾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조감도〉와 〈필리핀 버드〉는 또 다른 이동으로 연결되는 한 멈춤이다. 여기서 '움직이지 않는 유목'(cf. 들뢰즈/가타리)이라는 역설적 정의가 나온다.

–미술평론, P.K Art & Media 대표 / 박소영–

2018.6.8Fri ~ 8.12Sun 아트스페이스 (2F)

조감도鳥感島

코디네이터 손진희
비평가 박소영

전시소개

2018년 유리상자 세 번째 전시, 전시공모 선정작 「유리상자-아트스타 2018」 Ver.3展은 회화를 전공한 정혜숙(1977년생)의 설치작업 '조감도鳥感島'입니다. 이 전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어떤 현실에 대한 작가의 감수성과 기억을 기록하고 이를 시각화하려는, 어쩌면 어떤 이에게는 낯설기도 한 도시 새에 관한 작가의 보고서입니다. 작가는 우리 주변의 현실 사건들이 어떻게 우리의 감성과 관계하고, 그 감성이 어떻게 예술과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흥미로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시를 단순하게 해석하자면, 새가 '되기'를 행위하는 작가의 시각적 축적蓄積 과정인데, 원래 아무런 연관 없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사연이 있는 대상客體와의 관계를 경험하면서 작가 스스로 '새'라는 존재가 되어가는 설정을 기반으로 유리상자 전시를 설계한 것입니다. 작가 자신은 인간이면서도 새의 환경과 관계, 감성을 상상하고 하나씩 경험하면서 안락하고 평안한 새의 '휴식처' 혹은 '서식지棲息地'를 구축해가는 과정의 어느 순간까지가 이 전시의 현재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가는 이 서식지의 이름을 '자신이 새가 되어 감흥을 느낄 만큼 편안하고 안전한 섬'이라는 의미로 '조감도'라고 지칭합니다. 작가의 새 '되기' 경험은 이렇습니다. 목이 마르면 광장의 분수에 내려앉아 분수에서 솟는 생명수로 목을 축이고, 커다란 공을 부리로 밀어내는 놀이를 하며 재빠르게 날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몸을 단련시키고, 천장에 매달린 흘라후프 링 사이를 날아서 드나들며 좁은 통로에서도 원하는 먹이를 사냥할 수 있도록 연습하고, 나무로 만든 그네에 내려앉아 흔들흔들 쉬어가며 주변의 풍경을 감상하기도하고, 외부로부터 위협을 차단할 튼튼한 둥지를 만들기 위해 사각형 틀을 다섯 단 높이의 구조물로 쌓은 도시 공간에서의 새 둥지 건축을 제안하기도 하며, 우월한 짝짓기 경쟁을 위해 색동 나뭇가지를 입에 물고 옮겨와서 주변을 장식하기도 하고, 멋진 돌로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기도 하며, 새와 꽃과 나무와 물고기가 그려져 있을 고풍스러운 병풍 그림 속을 드나들며 귀한 상징적 존재감을 뽐내고, 천적의 위협으로부터 서식지를 숨기기 위해 유칼립투스, 망고, 보리수 등의 나뭇잎을 물어다가 주변을 덮기도 하는 경험들입니다.

작가는 왜, 새 '되기'를 고안했을까요? 작가는 이국적인 새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가게, '필리핀버드'를 지나다가 우연히 아름다운 새소리를 듣은 것을 시작으로, 경이로울 정도로 화려한 새들을 생존 환경과는 무관하게 상품으로 거래하는 상황을 알게 되고, 평화의 상징이던 비둘기가 어느 순간 현대도시인에게 두렵고 유해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사건 등, 작가가 마주하는 새는 어쩌면 인간이 가해하는 생명 있는 '자연'의 상징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연은 이성적으로는 가까이하고 싶은 친근한 환경으로 유효하지만, 실상은 위험이 제거되고 불필요한 부분을 정리한 인간 중심의 편협적인 자연입니다. 작가는 이 부분을 주목합니다. 이 글에서 작가 내면의 사유들을 명확히 옮기기는 어렵지만, 아마도 작가는 '새'를 알고, 새를 통하여 '자신'을 알고 싶어서 새 '되기'를 행위하는지도 모릅니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도시에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새가 '되기'로 관계를 설계합니다. 작가의 새 '되기'를 통하여 대상과 관계하고, 관객과의 관계를 경험하면서 그 존재가 드러날 것입니다. 이제, 유리상자 공간은 새가 조금 전까지 있다가 사라졌다거나, 금방 돌아와서 편히 쉴 서식처, '조감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리상자 안에는 새의 존재가 없습니다. 새장은 비어있고, 새의 놀이기구는 바람에 흔들리기만 하고, 병풍에는 새 그림이 없어 적막함과 허전함이 가득합니다. 새가 곧 돌아와서 편히 쉴 공간이라고 하지만, 부재不在가 먼저 와 닿습니다. 새의 부재는 자연의 부재로 이어지고, 자연의 일부로서 인간의 결핍을 짐작하게 합니다. 눈앞에 펼쳐진 유리상자의 '현재'는 다름 아닌 자아와 현실 삶의 성찰을 반영하는 감성적 행위이며, 작가에게 있어서 새의 '부재'는 편익便益과 인간 중심적인 선택에 대한 단순한 사회적 문제 제기가 아니라, 우리들 현실의 삶을 응시하고 그 대응 태도를 되돌아볼 수 있게 하려는, 그 속에 예견된 '부재'의 두려움을 공감하여 드러내려는 그리기입니다. 어떤 부재의 현실을 스스로의 '되기' 행위로 번안하려는 이번 유리상자는 예술의 유효성을 추출하는 일상의 살아있는 가치들을 자문하게 합니다.

-정종구-

조감도鳥感島 혼합매체, 가변설치, 2018

2006

경북대학교 디지털 아트 컨텐츠 연구소 (I D A C)

류재하 (Lyu Jae Ha)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교수
양구철 (Yang Gu Chul)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대학원 재학
신경애 (Shin Kyung Ae)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강사
서현규 (Seo Hyeon Gyu) 경북대학교 미술학과 재학
안주희 (An Joo Hee) 경북대학교 미술학과 재학
김이랑 (Kim Yi Lang) 경북대학교 미술학과 재학
김소담 (Kim So Dam) 경북대학교 미술학과 재학
석아름 (Seok A Reum) 경북대학교 미술학과 재학
최효진 (Choi Hyo Jin) 경북대학교 미술학과 재학

연혁

디지털을 통한 색채 및 형태 연구를 중심으로 한 콘텐츠 개발을
목적으로 2005년 설립하여
2006년 현재 전시회 2회, 연구 발표 세미나 3회를 개최.

2007

하 광 석 河光石 Ha, Kwangsuk

계명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졸업
New York University, Art and Media 전공, 대학원 졸업

개인전

2007 "유리상자", 봉산문화회관 기획 초대전,
봉산문화회관 유리상자 갤러리, 대구.
2005 "On & OffSpace", MASS 기획초대전, space MASS, 서울
2004 "Spatial Sojourn"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2001 "Spatial Sojourn" Solo Show,
80 Washington Square East Galleries. New York City.
2001 "POND" Video Installation, Solo Show,
Observation Room. New York City.

단체전

2006 꿈꾸는 자의 일기, 현대무용-영상설치,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뉴프론티어 시민예술, 대구문예진흥기금지원 기획초대전, 월곡역사공원, 대구
영상-자연을 그리다, 봉산문화회관 2주년 기획초대전, 봉산문화예술관, 대구
Navigate 2006', 문예진흥기금지원,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젊은 작가전, MBC 방송 Gallery M 기획 초대전, MBC Gallery M, 대구
Seoul Remains, 선희량 기획초대전, 선희량, 서울
2005 【요술•미술展】대구MBC방송 기획초대전, M 갤러리, 대구
현대 미술가 협회 연말 소품전 2005,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Digital Sense & Sensation, Philo Gallery 기획초대전, Philo 갤러리, 대구
Temptation Of December, 한기숙 갤러리 기획초대전, 한기숙 갤러리, 대구
대구미술비평연구회 기획 초대작가전 및 현장 세미나, 문예진흥기금지원,
두산아트센터, 대구
From TaeGu 30 Years Message, 문예진흥기금지원,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2004 시공갤러리 기획 초대전, 시공갤러리, 대구
가상탈출 그리고 해우, 우제길미술관 기획 초대작가 전시, 우제길미술관, 광주
2004- 24人展, SPACE129 기획초대전, SPACE129, 대구
2004 대구국제뉴미디어아트페스티발 초대작가 전시,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2004 대한민국청년비엔날레, 초대작가,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뉴프론티어& 시민예술, 대구문예진흥기금 지원기획초대전, 월곡역사박물관공원 대구
SUM of the CONTEMPORARY ART, 문예진흥기금지원,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심성으로의 회기, 2004 포스코 갤러리 신년초대전, 포스코 갤러리
2003 대구국제뉴미디어아트페스티발, 초대작가전시,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기념, 현대미술 영상-설치 선정작가 전시,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New / frontier전 선정작가,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2002 University Film Festival, Temple University, Philadelphia.
Small Work Show, 80 Washington Square East Galleries.
New York City.
Video Single Channel Show, Asian American Society Galleries,
New York City.
외 다수

작품소장

2006 국립현대미술관(미술은행) 소장, 서울
2002 International Bank, New York City.
2001 New York University, New York City.
2000 Liberty Bank, Printmaking, New York City.

2007

박 지 현 朴祉炫 Park, Jihyun

대구가톨릭대학교 서양화과 졸업
대구가톨릭대학교 회화학과 졸업
서울 P&P공방 판화 수학

개인전

2007 "삶을 향한 꿈과 소통.." 봉산문화회관 기획초대전 아트스페이스, 대구
2004 "life"-스페이스129, 대구
2002 "人으로부터" -아테나 ,경산
1996 "Drawing & Print" -관훈갤러리, 서울

단체전

2007 창작스튜디오 만들기 프로젝트 -작업실 들여다보기전 -문화예술회관, 대구
2005 대한민국 국제환경미술엑스포-삼성 코엑스, 서울
대구미협전(KAF)-세종문화회관, 서울
2004 제3회 "life"개인전-스페이스129, 대구
영남미술의 오늘전-문화예술회관, 대구
동시대미술의 섬(SUM)전-문화예술회관, 대구
대구가톨릭대학교 중앙도서관 서양화 동문 초대전, May. Art-Terminal-
대구가톨릭대학교 중앙도서관 1층 로비전시실 ,경산
대구여류작가초대전-시민회관, 대구
2003 제18회 대한민국 신조형미술대전 동상-영진전문대학 전시실, 대구
한국여성미술대전 특별상-문화예술회관, 대구
뉴 프론티어전-문화예술회관, 대구
한국디지털커뮤니케이션전- 웰콤갤러리, 서울
대구가톨릭대 미대 동문전-문화예술회관, 대구
대구여류작가초대전-시민회관, 대구
파리 한국현대미술작가초대전-시청4ar'FETE'전시실, 프랑스
상록뇌성마비복지관 운영기금마련을 위한 작품전-시민회관, 대구
2002 월드컵기념 초대국제전-인사아트프라자, 서울
제2회 개인전 "人으로부터" -아테나 갤러리, 대구
Works on paper전 -스페이스129, 대구
2001 한국미술협회전 -예술의 전당, 서울
2000 갤러리 쿠이기획전-갤러리 쿠이, 수원
1999 강원국제관광엑스포 현대미술전람회-문예전시관, 강원
1996 제1회 "Drawing & Print"개인전 -관훈갤러리, 서울

현재

성덕대학 교수
대구가톨릭대학교 학부 및 평생교육원 강사
하양 하주초등학교 특기적성 강사(특수반)
한국루돌프슈타이너 인지학 연구센타 회원
한국미술협회 회원 대구현대미술가협회 회원

parkji9007@yahoo.co.kr

2007 Ver. 9

하 지 원 & 이 소 연 Ha, Jiwon & Lee, Soyeon

하지원 河智元

영남대학교 서양화과 졸업

개인전

2006 개인전 1회 영남대학교 신관 3층 전시실

단체전

2001 "a conqueror"first 4인전 영남대학교 신관 1층 전시실
"변태" 단체전 앙데팡당전 영남대학교 구관 2층 전시실
2005 "130" 정기전 SPACE 129
2006 "일상의 발견" 130 정기전 대구문화 예술 회관 2F 6.7 관
"일상의 발견" 기획전 필로 갤러리
"땡볕" 단체전 영남대학교 3층 2층 전시실
"오직 행동" 개관전 쌈지마켓 3층
"Seoul Auction young artists전" 평창동 가나 아트 센터
2007 art in culture "동방에 요괴들" 신인작가 선정
"오색 새삐리" 5인전 숲 갤러리
130 정기전 대구문화 예술회관
"봉붕 캐슬" 홍대 SSAMZIE MARKET

hajiwon1@hanmail.net

이소연 李昭沇

영남대학교 서양화과 졸업

개인전

2006 개인전, 영남대학교 아트스페이스

단체전

2007 〈가늠을 보다〉_ 갤러리우림(서울)
〈130전〉_ 대구문화예술회관
〈동서조공〉 _ 주노아트(대구)

bliss0926@naver.com

2007 Ver. 10

김 지 훈 金志勳 Kim, Jihoon

서울대학교 조소과 대학원 졸업
대구가톨릭대학교 조소과 졸업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수학

개인전

2007 HORN(노암갤러리/서울, 차이갤러리/파주)
2005 HOLE(덕원갤러리/서울, 시안미술관/영천)
2004 한계에 대한 대응(가산화랑/서울)

단체전

2007 '유리상자 · 스튜디오'전(봉산문화회관/대구)
제2회 포스코스틸아트 어워드(포스코미술관/서울)
금강자연미술프레비엔날레(공주박물관/공주)
한국현대조각초대전(춘천MBC/춘천)
수원예술인축제(수원미술관/수원)
효각회정기전(대구가톨릭대학교/경산)
'伸인상'전(금산갤러리/파주)
2006 '화려한 가을나들이'전(고운미술관/화성)
교수작품전(경인교육대학교/인천)
화랑미술제(예술의 전당/서울)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연미산/공주)
화성조각 심포지엄(화성산업/대구)
'심화와 확장'전(대한민국예술원/서울)
현대공간회 정기전(선갤러리/서울)

현재

효각회 · 현대공간회 회원
경인교육대학교 · 대구가톨릭대학교 출강

jihoon58@daum.net

2007 Ver. 11

김 영 희 金瑩熙 Kim, Younghee

동국대학교(서울) 예술학부 서양화과 졸업

개인전

2007 '현모양처'전 개인전, 대안공간 싹
'new wave'전, 요기가 표현갤러리 'n 홍대
제12회 대한민국신인작가발언전, 갤러리 라메르
www.xoze.co.kr 이미지전
2006 yirus(와이러스)전 개인전, 대구시민회관 window gallery
달콤 상상 영희네 미술학원 오픈
2005 doping heart party, club aura
2004 집에 걸 수 있을 만한 그림전, gallery dongguk
사이버공화국축제, gallery dongguk
fantastic world 'y잡지'발행
2002 영화 '위대한 유산' 쉼

yirus@naver.com

2008 Ver. 1

이 장 우 李章雨 Lee, Jangwoo

경북대학교 미술학과 졸업, 1995 동 대학원 졸업
동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개인전

2008 기획공모 선정작가전 – '유리상자_아트스타Ver.1'
(봉산문화회관, 대구)
2007 11회 개인전–'CYBER –DIGITAL PAINTING–호접몽'
(예술의 전당, 서울)
10회 개인전–'오행과 디지털 영상'(고토갤러리, 대구)
2006 9회 개인전–'우리시대의 미학– 사이보그, 동양, 디지털'
(봉산문화회관, 대구)
8회 개인전–Cybug전(KPAA 기획 국제전, 문예회관, 대구)
2005 7회 개인전–디지털 영상과 동양미학의 조형화
(동제미술관초대, 대구)
2004 6회 개인전–Cyber 호접몽(예술마당 솔, 대구)
2003 5회 개인전–Winter Episode(예술마당 솔, 대구)
2001 4회 개인전–청년작가 초대전(문예회관 기획, 대구)
2000 3회 개인전–시간과 공간에 대한 짧은 명상 (문예회관, 대구)
1995 이장우 조각전(문예회관, 대구)
윤갤러리 초대전 (윤갤러리, 서울)

sarangbi@yahoo.co.kr
site: http://kr.blog.yahoo.com/bluesky_35_kr/1033

2008 Ver. 2

정 민 제 鄭珉製 Jung, Minje

영남대학교 서양화과 졸업

개인전

2003 영남대학교 조형대학 신관 1층 전시실

단체전

2004 130展 (스페이스 803)

2005 Into Life〈삶에 스며들다〉展
(KBS대구방송총국 제1, 2전시실)
130展 (스페이스 129)
2005–2006 〈2005–2006 Light Lamp Exhibition〉
The Flower of Darkness – 등불을 밝히다 (시안미술관)
〈요술, 미술展〉 (갤러리 m)
2006 130展〈일상의 발견〉 (대구문화예술회관 6–7관)
〈현대미술의 일상 – 130〉 (필로갤러리 기획전)
2007 130展 (대구문화예술회관 6–10관)
FREE展 (LOTUS)
2007오픈스튜디오페스티벌–메이드 인 대구展
(봉산문화회관 3전시실)
기획전시 오만가지 미술상상 3m展
(대구문화예술회관 1–4관)
2008 130展 (대구문화예술회관 6–10관)

minje0525@naver.com

2008 Ver. 3

한 유 민 韓有民 Han, Yumin

대구예술대학교 서양화과 졸업
대구가톨릭대학교 미술교육대학원 재학 중

개인전

2006 한유민 개인전 (대구시민회관)
대안공간 싹 초대전 (대구)

단체전

2005 뜨라래 레스토랑 전시 (3인전)
2007 작업실들여다보기전 (대구, 문화예술회관)
대구현대미술제 (대구시민회관)
작가발굴전-5색5행전(대구, 스페이스129)
스페이스129개관전(스페이스129)
봉산문화회관 주관 "미술가-도시를 디자인 하다"
(대구, 봉산문화회관)
오만가지 미술상상3m전(문화예술회관)
2008 경북대학교 미술관 기획 "Pay and Fly" 전
(대구, 경북대학교 미술관)

현재

대구현대미술가협회
대구청년작가회

hanyum'n@hanmail.net

2008 Ver. 4

정 세 용 鄭世鎔 Chung, Seyong

1997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과 조소전공 졸업
2000 미국 멤피스 예술대학 예술대학원 과정 (MFA) 졸업

개인전

2008 유리상자 "스타★미술가와의 만남" (대구, 봉산문화회관 기획공모)
2007 "Look at the Stars" (대구, 수성아트피아 기획초대)
올해의 청년작가 초대전 (대구문화예술회관)
2006 정세용 개인전 (대구, 우봉 미술전시관)
2000 "Constellation" MFA Thesis Exhibition
(MCA Graduate Center Gallery, 미국)

단체, 초대전

2008 아트 인 대구 : 형상성의 귀환과 반란 (대구, 구KT&G 부지)
미술창작스튜디오 네트워크전 (대구, 봉산문화회관)
신천 조형 예술제 (대구, 신천둔치일원)
화성산업(주) 창립50주년기념기획 "새로운공유의 시작"전 (대구,등아미술관)
대구현대미술가협회기획 "도시디자인 프로젝트-미술, 대구를 움직이다" 전
(대구, 문화예술회관)
경북대학교 미술관 기획 "Sense & Spirit" 전 (대구, 경북대학교 미술관)
현대미술 영상& 설치전 (대구, 문화예술회관)
대구현대미술제 (대구시민회관)
2007 고토갤러리 기획 "Drawing by Sculptors" 전 (대구, 고토갤러리)
대구현대미술가협회기획 "뉴 프론티어 시민예술" (대구, 가창창작스튜디오)
2006 제8회 대한민국 청년 비엔날레 (대구, 문화예술회관)
2005 제 11회 대한민국 신진작가 발언전 (서울, 관훈갤러리)

작품소장

대구 문화예술회관, 경북대학교 미술관, 김천 조각공원

현재

한국주조공학회, 대구현대미술가협회
대구청년작가회, 한국조각가협회
門 조각회, 대구가창창작스튜디오 3기 입주작가
경북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출강

seyong@hotmail.com

2008 Ver. 5

신 경 애 申京愛 Shin, Kyungaee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졸업
경북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졸업
일본 나가사키대학 교육학연구과 연구생 수료
일본 나가사키대학 대학원 교육학연구과 졸업

개인전

2001 나가사키 신문사 갤러리 나가사키
2002 스미요시 코쿠라야 갤러리 나가사키
마치아이 갤러리 나가사키
2003 요로즈야 코쿠라야 갤러리 나가사키
NTT Poket Gallery 나가사키
2004 NTT Poket Gallery 나가사키
한기숙 갤러리 대구
2005 우봉미술전시관 대구
NTT Poket Gallery 나가사키
2006 BLUE VISION part II 한기숙갤러리

단체전

2008 29XX 한기숙갤러리
춘풍나가사키에서X 나가사키 브리크홀
두류공원의 재발견3m전 대구문화예술회관
도시디자인프로젝트-미술, 대구를 움직이다 대구문화예술회관
8+9 requiem 우라카미백화센터갤러리
CROSSOVER2008Cheongju+Nagasaki 신미술관 청주
신경애 카와타 츠요시 2인전 한기숙갤러리

bijuz@hanmail.net

2008 Ver. 6

강 윤 정 姜玧庭 Kang, Yoonjeong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및 동대학원 졸업

개인전

2001 고토갤러리
2004 대안공간 SPACE129
2005 情景交融 4인의 개인전-우봉미술전시관 기획전
2006 Blue Vision I-한기숙 갤러리 기획전
2007 White Space - CUBE C

단체전

2007 창작스튜디오만들기 프로젝트-작업실 들여다보기
(문화예술회관, 대구)
우리그림전 (봉산문화회관, 대구)
사랑나눔전 (경북대 미술관, 대구)
Art Tomorrow(Eight Cubes) (CUBE C, 대구)
2008 미술, 대구를 움직이다 (문화예술회관, 대구)
29Xx (한기숙갤러리, 대구)
AP111 (아미갤러리, 서울)
우리그림전 (봉산문화회관, 대구)

kangyimo@hanmail.net

2009 Ver. 1

조 용 호 曺龍鎬 Cho, Yongho

계명대학교 미술대학 졸업
동대학원 사진애니메이션 졸업

개인전

2008 'Moving A nswers' 수성아트피아 신예작가 후원전 대구
'Rather Reverse' 대안공간 반디 기획공모 당선전 부산
'Comb'nation' 대구시민회관 윈도우갤러리 대구
2007 'Conversion' 대안공간 싹 작가초대전 대구

단체전

2008 동촌 미디어아트전/동구문화체육회관(대구)/기획전
2008 미술창작스튜디오 네트워크전/봉산문화회관(대구)/기획전
Digital Fun Fun/동아미술관(대구)/기획전
2008 Digital ARTEXMODA/경북대학교 미술관/기획전
2008 대구국제뉴미디어아트 페스티벌/대구문화예술회관/기획전
7th Funny Sculpture & Funny Painting/
갤러리 세줄(서울)/기획전
도시디자인프로젝트/대구문화예술회관/기획전
2008 현대미술제/대구 시민회관/기획전
2007-2008 제2기 가창 창작스튜디오 오픈스튜디오/
가창 창작스튜디오(대구)/기획전
2007 제8회 시사회'전/대안공간 팀 프리뷰(서울)/기획전
현대미술 영상&설치전/대구문화예술회관(대구)/기획전
제4회 부산국제비디오페스티벌/부산미디어센터/
대안공간 반디(부산)

작품공모전

2005 AniPlay / 갤러리 스케이프(서울)/기획전
그 외 다수의 단체전 참가

수상경력

27회 신조미술대상전 대상
제4회 부산국제비디오페스티벌 경쟁작 선정

레지던시

가창 창작스튜디오 2기 입주작가

현재

계명대학교, 청주대학교 출강

mtvshow@naver.com
www.blog.naver.com/mtvshow

2009 Ver. 2

김 정 희 金貞姬 Kim, Junghee

MA Fine Art University of Brighton, UK
BA 영남대 조형대학 조소과 졸업

개인전

2004 SPACE 129
2003 SPACE 129

단체전

2007 Made in Daegu, 봉산문화회관
Eight Cubes, 대구 cube C
야외 설치전, 수성아트피아
작업실 들여다보기, 대구문화예술회관
2006 Conjunction 06, Birmingham, UK
Navigate 2006, 대구 문화예술회관
2005 The Pundry, London, UK
MA Fine Art Degree Show, Brighton, UK
2004 Young Artists Biennial, 대구 문화예술회관

creative-desk@hotmail.com
kay1975@hanmail.net

2009 Ver. 3

권 남 득 權男得 Kwon, Namdeuk

국립 안동대학교 미술학과 졸업
국립 안동대학교 미술학과 대학원 재학

개인전

2009 A-people - 인사아트 프라자.
2008 A-one China Japan Korea Indonesia Exchange Group Exhibition-Art in contemporary culture (중국 광저우)
GUANG ZHOU ART FAIR (광저우 아트페어).
7th Funny Sculpture & Funny Painting - 갤러리 세줄.
현대미술 영상&설치 초대전 - 대구 문화예술회관
2007 경북 조각회 - 신예작가 초대전 -봉산 문화회관, 포항시청.
청년작가 초대전 - 동해 문화회관
2006 art34 work3 - over flow 큐브스페이스.
2005 초대 기획전 "신나는 미술천국" -인사아트센터.
art34 work2 - 성보 갤러리

작품소장

포스코 본사(포항)
코마코 연수원(춘천)

수상

2008 한국 현대조각 초대전 운영위원이 선정한 올해의 작품상 수상.
2007 제2회 포스코 스틸아트 어워드 - 대상수상 - 포스코 미술관.
2006 제7회 전국 대학 . 대학원생 조각대전(대학원생) -장려상2회
-성남아트센터

현재

한국 구상조각회, A-ONE
안동 조각회
신세기 청년작가회

frj3100@naver.com

2009 Ver. 4

허 남 준 許南俊 Her, Namjun

개인전

2008 [Dead Skin] 쌈지 아트마트 (인사동)
[Tokyoment] design fasta gallery (도쿄)
[NAMCORD 123] designcafeV+W (동교동)
2007 [postHercard] artspace 사다리 (상수동)
2006 [paintbox] illupop갤러리 (명동)
2005 [paintHer] yri gallery,cafe (서교동)

단체전

2009 [다섯개의 꿈는 점] 갤러리쌈지 (인사동)
2008 [아트마트-그림쇼핑] 신세계 갤러리 (인천)
[Green Spirit] Electrolux cafe Amokka (광화문)
[한국산 그림전] 쌈지 아트마트 (인사동)
소마 미술관 드로잉 센터 아카이브 등록 작가 (방이동)
[큐브] 헤이리 판 페스티벌 (헤이리)
[ROCK&FUCK] 중앙시네마 한독협 10주년 옴니버스 (명동)
[갤러리 페스티벌] 부산비엔날레 (부산)
[데릭 저먼의 정원] 대안공간도어(동교동)/서울아트시네마(종로)
[아트인생 프로젝트]예술의 전당 (의정부)
[구상과 비구상의 만남] 갤러리 다다 (해운대)
[Text Symphony] 문지 문화원 사이 (동교동)
[사랑특유] 쌈지 아트마트 (인사동)
2007 [NO.2 project] photcafe 연' (삼청동)
[ARTmarket] 전시참여 롯데백화점 (서울1.지방3)
2006 [믿거나말거나 박물관] 일민미술관 (광화문)
갤러리 쌈지길 아트마트 상설 전시 작가 (인사동)
2004 2인전 [atelir AO] 경성문화회관 (연남동)

blog.naver.com/paintboxs

2009 Ver. 5

로 리 킴 Lorie Kim

Maryland Institute College of Art (MICA), Baltimore, MD, 미국
학사 졸업 및 동대학원 졸업

개인전

2009 Romantic Summer, 갤러리 반디, 서울
문화의 밤, CANART, 상해 중국
씨실과 날실, 갤러리 H, 서울
2008 Two-color Wish-오프닝 퍼포먼스, 갤러리 반디, 서울
Archimage, Gallery 4, Maryland 미국
2006 Better Together, 갤러리 가이아, 서울
2004 Open Lid-오프닝 퍼포먼스, 쌈지 스페이스, 서울

단체전

2008 The MFA Thesis Show, Meyerhoff Gallery, Maryland 미국
The Wizard of OZ, 무이 갤러리, 서울
2007 A Vague Spatial Area (Live solo performance), 500 Gallery, Maryland 미국
First-year MFA Thesis Show, Pinkard Gallery, Maryland 미국
2006 Which is kind of Interesting, Fox 3 Gallery, Maryland 미국
2005 Commencement Exhibition, Main Building, MICA, 미국
정, Korean-American Student Association, Maryland 미국
2004 The Promised Land, Bethel Church Art Association, Maryland 미국
International&Multicultural Exhibition, Meyerhoff Dining Room, MICA, 미국
Whee-whee, Departmental Gallery, MICA, 미국
KSA 3rd Annual Exhibition, 인사아트스페이스, 서울
2003 KSA 2nd Annual Exhibition, 동덕 아트 갤러리, 서울

수상 경력

2009 Osaka Hyatte Regency Hotel Gallery
2006 MICA Graduate Committee Scholarship, Maryland Institute College of Art
2004 MICA Achievement Award, Maryland Institute College of Art
Winifred Gorden Foundation Award, Maryland Institute College of Art
2001 Presidential Scholarship, Maryland Institute College of Art
National Art Honor Society Scholarship

www.cyworld.com/loriekim_art

2009 Ver. 6

이 상 헌 李相憲 Lee, Sangheon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조소) 및 同대학원졸업
박사과정수료

개인전

2008 "꿈꾸는 하루" (KMG문화공간, 대구)
"나무, 의자, 바람-머무르다" ("전"갤러리, 청도)
2007 "바람을 기다리다" ("수"갤러리, 대구)
2006 "바람을 꿈꾸다" (동제미술전시관, 대구)
2005 "사유의 숲" (대구문화예술회관)
2004 "꿈꾸는 나무" (고토갤러리, 대구)
2003 "무의식의 방" (가온갤러리, 대구)

단체전 및 기획,초대전

2009 봉산아트페어 ("수"갤러리, 대구)
신천조형예술제 (신천 강변, 대구)
"조각을 읽다" (가온갤러리, 대구)
"with nature" (제이원 갤러리, 대구)
"감각의 층위" (KNU미술관, 대구)
"꽃꽃꽃"-청도 화랑미술제 (청담갤러리, 청도)
"門" 조각회 (동아미술관, 대구)
미야자키공항 국제조각전 (미야자키, 일본)
The Bressuire's Second Spring Sculpture Exhibition (Bressuire, France)
외 160여회 참가

심포지움

2009 독일"엡스테인"국제조각 심포지움
2회 러시아"펜자"국제조각 심포지움
2008 러시아"펜자"국제조각 심포지움
2007 스위스 "모르쥬"국제조각 심포지움

현재

대구조각가협회
한국미술협회
門조각회
대구크로키회

blog.naver.com/breton0116

2009 Ver. 7

정 재 훈 鄭載勳 Jung, Jaehoon

경북대학교 미술학과 조소전공 졸업

개인전

2008 '대안공간 싹 8th 작가 초대전', 대구

단체전

2009 '대구 조각가 협회 정기전', 봉산 cultural center, 대구
'방천시장 프로젝트', 방천시장, 대구
'감각의 층위' 전, KNU미술관, 대구
2008 '문 조각' 전, 동아미술관, 대구
'컬러플 대구 20+1 창작예술가 텐트촌',대구민예총, 대구
2007 '영 아트 앙상블'전, 예지앙 갤러리, 대구
'대구크로키회 창립전', 로 갤러리, 대구

jahooy800@naver.com
www.cyworld.com/hoony800

2010 Ver. 1

하 원 식 河源植 Ha, Wonsik

영남대학교 조형대학 조소과
프랑스 낭시국립미술학교 미술 전공 학사, DNAP
프랑스 낭시국립미술학교 미술 전공 석사, DNSEP
프랑스 국립파리1대학 조형예술학과 디지털아트 전공 석사, maitr'se

개인전

2009 대안공간 싹, 대구
1999 대우 아트홀, 대구

단체전

2009 mimic ego 展, 경북대학교 미술관, 대구
방천시장 프로젝트, 대구
유월회 두 번째 전시, G 갤러리, 대구
예술, 공간을 점령하다, KTnG, 대구
2008 대한민국 미술대상 展, 부산문화회관, 부산
소통 展 대구학생문화센터, 대구
2005 Memoire de racine 展 , 프랑스 상원의회 전시장
파리, 프랑스, 2005
〈재불청년작가 展〉, 프랑스한국문화원, 파리, 프랑스
〈memoire de racine 2〉, salle d'art domaine de national st-cloud,
생클루 국립공원 전시장, 생클루, 프랑스
2004 st-cloud 국립공원 레지던시 스튜디어 입주
생클루, 프랑스, 2004
2003 Ce qu'on voit, Ce qu'on ne voit pas展
낭시, 프랑스, 2003

hawonsik@hanmail.net

2010 Ver. 2

정 은 기 鄭恩基 Chung, Unki

흥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B.F.A)
흥익대학교 대학원 조각과 졸업 (M.F.A) – Isamu Noguch 연구

개인전

1965 공보관 화랑, 대구
1970 공화 화랑, 대구
1977 대구 백화점 화랑, 대구
1981 관훈 미술관, 서울
맥향화랑, 대구
1985 대구은행 본점 광장, 대구
1986 현 화랑, 대구
1987 해인 화랑, 부산
1989 한국문화유산 기금 모금전, 미국 워싱턴 D.C
1992 벽아 미술관, 대구
2003 대백갤러리, 대구
2006 공산갤러리, 대구

단체전

1993 한국미술 66인전, 대백프라자 개관기념, 대구
1997 동계 U대회 기념 대한민국 환경 조각대전, 익산
1998 경주 문화 엑스포 조각 심포지움 참가, 아사달 조각 공원, 경주
1999 안동 조각공원 초대, 조각공원, 안동
2000 대구미술100년전,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2005 김천 직지공원 심포지움 참가, 직지문화공원, 김천
한국현대미술 속 대구·경북 미술, 시안미술관 ·K.B.S 전시관
경산 · 대구
1980 ~ 2010 경북 조각회 회원전 – 창립전 ~ 32회

seyong@hotmail.com

2010 Ver. 3

손 영 복 孫永福 Son, Youngbok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조소전공 졸업

개인전

2010 '유리상자 아트스타' 개인전 / 봉산문화회관 / 대구
2008 개인전 / 갤러리로 / 대구

단체전

2010 A4 (Artist 4인)전 / 갤러리 J.ONE / 대구
유월회 정기전 / 에덴벨리리조트 / 양산
FACTORY KIDS기획전 / 북외탄예술촌 / CH NA Shanghai
방천시장 작가전 / 방천아트스페이스 / 대구
POSCO gallery 기획 'Emotion 2010' / 포스코갤러리 / 포항
누드드로잉 한일 교류초대전 / IROHANI Gallery / JAPAN Osaka
物,慾,人 3인전 '권재현, 손원이, 손영복'/ 스페이스가창 / 가창
경인년 호랑이전 / 갤러리 오늘 / 대구
2009 유월회 'Worry about..'전 / 문화공간G / 대구
방천시장 문전성시 프로젝트 참여작가 / 방천시장 / 대구
유월회 창립전 / Hotel Interburgo ARTO Gallery / 대구
문조각회 초대전 '자연으로의 회귀'전 / 에덴벨리리조트 / 양산
대구크로키정기전 & 초대작가전 / 수성아트피아 호반갤러리 / 대구
방천시장예술프로젝트 참여작가 / 방천시장 / 대구
2005~2008 단체전 20여회

작품소장

2010 CHINA Shanghai KIC Center /
작품명 〈Conventional palace〉
2006 동제미술관 야외전시장 / 작품명 〈바람〉

레지던시

2010 제1회, 2회 방천시장 '문전성시' 프로젝트 / 방천시장 / 대구
2009 방천시장 예술프로젝트 '별의별 시장' / 방천시장 / 대구

현재

FACTORY KIDS
유월회원
오계절회원
문조각회원
현대미술가협회원
대구크로키회원

bokart@naver.com
www.cyworld.com/bokart1

2010 Ver. 4

김 소 영 金昭榮 Kim, Soyoung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졸업
동대학원 졸업
일본 나가사키대학 대학원 교육학연구과 교환연구생 수료

개인전

2010 4회 개인전/ 유리상자-아트스타/ 봉산문화회관/ 대구
3회 개인전/ KMG문화공간/ 대구
2008 2회 개인전/ 봉산문화회관 3전시실/ 대구
1회 개인전/ 코쿠라야 갤러리/ 나가사키 일본

단체전

2010 우리그림展/ 봉산문화회관 1전시실/ 대구
8+9 2010展/ 나가사키 북우체국갤러리/ 나가사키, 일본
2009 RING展/ 나가사키 현립 미술관/ 일본
예술, 공간을 점령하다/ KT&G별관/ 대구
Vision&Reflection-Rrizm:반복의 알고리즘 /
경북대 미술관 / 대구
SAMPLE HOUSE & SAMPLE PICTURE • 아파트로
들어간 우리 그림전/ 화성파크드림 샘플하우스/ 대구
Similarity & Non Similarity- 한일교류전/ 브릭홀/
나가사키, 일본
8+9 2009展/ 우라카미 백화센터갤러리/ 나가사키, 일본

kssy1919@hanmail.net
blog.naver.com/kssy2020

2010 Ver. 5

김 현 金 鉉 Kim, Hyun

MFA, Minneapolis College of Art and Design, 미국
학사, 영남대학교 조형대학 서양화전공

개인전

2010 유지상자-아트스타 / 봉산문화회관 / 대구
2008 Transcendental / 한기숙 갤러리 / 대구
2007 Swimming / MCAD Gallery 3층 / 미국 미니아폴리스

단체전

2010 국제레지던시 프로그램 / 대구문화예술회관 / 대구
3인전 / AA 갤러리 / 대구
유월회 3번째 정기전 / 앙산 에덴벨리 리조트
My History, Korean Group / Love2Arts Gallery /
벨기에 엔트워프
Korean Artists / 이태리 크레모나
2009 한일교류전 / 동구문화체육회관, 대구
Open & Close /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2008 Creatio / Galery13 / 미국 미니아폴리스
석사청구전 / Soo Visual Arts Center / 미국 미니아폴리스
Soap Factory / 미국 미니아폴리스
2007 Open / Whittier MCAD Gallery / 미국 미니아폴리스
Get started / Chambers Brunet Gallery /
미국 미니아폴리스

ocing2@hanmail.net

2010 Ver. 6

김 미 련 金美連 Kim, Miryeon

독일 뒤셀도르프국립미대 석사과정졸업
A.R.Penck 로부터 마이스터슐러 사사
독일 뒤셀도르프국립미대 학사과정졸업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서양화전공 졸업

개인전

2010 "Monumental Aircoat in Glassbox" 유리상자-아트스타, 봉산문화회관, 대구
2009 "Remapping V-scanning Foto" 렉서스갤러리기획초대, 대구시 문예진흥기금수혜, 대구
2009 올해의 청년작가초대전,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2008 "before-after" 숙명여대 문신미술관 빛 갤러리 기획 초대, 서울
"color, ight.space", 마리엔 성당, 라데폰발트,독일
2007 "Remapping Worringerplatz", 글라스하우스, 뒤셀도르프, 독일
"moving Image", 야누어 겔러리, 보쿰, 독일
2006 쿤스트투룸겔러리, 라팅엔, 독일
"Remapping2", 포룸 바써투룸, 메어부쉬, 독일
1997 예술마당솔, 대구

단체전

2010 "Kunstfilmtag 10 - Un..sharpness of the documentary", Malkasten, 뒤셀도르프, 독일
"물고기 날다", 포항중앙아트홀, 포항
"Evaporation" -NOCOMA그룹기획전시, 대안공간Vaseline, 뒤셀도르프 독일
CIGE 2010 베이징아트페어, 북경, 중국
"Vision&Reflection", 2부:사물-일상에 말을 걸다, 경북대미술관, 대구
2009 "GoStop", 쿨투어반호프엘러, 뒤셀도르프, 독일
"포토코리아 2009-슈팅이미지", 코엑스 3층 장보고홀, 서울
"Struggle"-미술적 이상을 향한 6인의 고투, 시안미술관, 영천
2008 Visiting Artist 전, Rie Kawakami 와 2 인전, MJ 갤러리, 대구
ASTADKAD:ZKF:IKBB. 34-단편영화의 밤, 블랙박스, 뒤셀도르프, 독일
2007 Kunstfilmtag, Malkasten, 뒤셀도르프, 독일
2006 "sound of Mu", Kunstplattform, 오슬로, 노르웨이
2005 "The Cartesian Corridor", Kunstraum Innsbruck, 인스부룩, 오스트리아
주안미디어아트페스티발, 남구청소년문화센터, 인천
"Pallet project", Kunstraum Duesseldorf, 독일
1994 "민중미술15년전", 국립과천현대미술관, 과천

kimmiryeon@gmail.com
www.kimmiryeon.com

2010 Ver. 7

이 준 욱 李峻旭 Lee, Junwook

영남대학교 조형대학 미술학부 조소전공 졸업
영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조소학과 수료

전시경력

2010 유리상자-아트스타 - 봉산문화회관, 대구
아트앤더시티 - about 레스토랑, 대구
현실보기 - 천마아트센터갤러리, 경산
가창야외설치미술전 - 가창창작스튜디오, 대구
청년작가초대전 - 에덴벨리 갤러리, 양산
물고기 날다 - 포항 중앙아트홀, 포항
해외작가 초청 레지던시 -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Moving, unmoving(대구컬러풀축제기획전) - 중앙로역, 대구
"길을 따라서 혹은 빛을 따라서" - 수성아트피아 뉴프런티어 아트스페이스
평생학습축제 야외조각전 - 동촌유원지, 대구
낙동강 고령 국제환경미술제 - 고령
가창창작스튜디오 오픈스튜디오 - 스페이스 가창
Emotion 2010 - 포항 Posco갤러리
비행展 - 대구 갤러리제이원
2009 이준욱의 크리스마스 조형展 -대구동구문화체육회관
예술 공간을 점령하다 - 대구 kt&g별관
대구 청년미술 프로젝트 - 대구 kt&g별관
북경798현대미술작품전 - 베이징 798Artzone

입상

2007 전국대학, 대학원생 조각대전(대교문화재단) 입선-성남아트센터
대구미술대전 특선 - 대구문화예술회관

junw2024@naver.com

2011 Ver. 1

김 홍 기 金弘基 Kim, Honggi

대구대학교 대학원 미술디자인학과 영상애니메이션 전공 박사과정 수료
영남대학교 대학원 조소학과 졸업(석사)
영남대학교 미술대학 조소학과
현/ 대구대학교 조형예술대학 영상애니메이션학과 겸임교수

개인전

1997 제1회 개인전, 유령과 철나무展, 대우아트홀
1999 제2회 개인전, 유령과 철나무Ⅱ展, 대구은행갤러리
2000 제3회 개인전, 유령의 화원, Space129
제4회 개인전, 철나무의 아리랑展, 대구문화예술회관
2001 제5회 개인전, 철나무-원만(圓滿)을 찾아서展, 대구문화예술회관
제6회 개인전, 철꽃, 돌꽃 그리고...展, Space129
2002 제7회 개인전, 긴장과 평화 그리고...展, Space129
2010 제8회 개인전, 10년만의 외출Ⅰ -
Digital Sculpture vs Handmade

단체전

1991 테라코타 방법 전 외 100여회

irontree@korea.com

2011 Ver. 2

장 미 蔣美 Jang, Mee

경북대학교 미술학과 졸업
경북대학교 미술학과 대학원 재학

개인전

2010 'Forest of reminiscence',봉산문화회관, 대구

단체전

2011 'Remembrance of Things Past', 등아미술관, 대구
2010 '조각난 풍경' ,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chronicle', 빛살미술관, 대구
'OVER THERE', 스페이스 가창, 대구
2009 '5+5=∝', 대안공간 지하, 대구
'Cacophony V', 분도 갤러리, 대구
ASYAAF, 서울
'100Yong Artists Show', 엑스코, 대구

m'0948@naver.com

2011 Ver. 3

김 철 환 金哲煥 Kim, Chulwhan

동아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부 조소과 졸업

개인전

2010 내가 생산한 것 展, 플레이스 막, 서울
2009 당신이 생산한 것 展, 작은공간 이소, 대구
내가 생산한 것 展, 포아트 갤러리, 성남
내가 생산한 것 展, 송은 갤러리, 서울
내가 생산한 것 展, 숙명여자대학교 문신미술관, 서울
2008 내가 생산한 것 展, 소노 팩토리, 서울
내가 생산한 것 展, 갤러리 빔, 서울

단체전

2010 우문현답 展, 쿤스트독, 서울
양평환경미술제 展, 양평, 양평
2009 DIY Universe 10Years After 展, V5.0 인사아트센터, 서울
DIY Universe 10Years After 展, V5.0 대전시립미술관, 대전
Rrizm : 반복의 알고리즘 展, 경북대학교 미술관, 대구
Young artist projet 展, 갤러리정, 서울
2008 스튜디오 유닛 옥션파티 展, 시우터, 서울
창원아시아미술제, 성산아트홀, 창원
2007 마감뉴스 바림피우기 展, 너리굴 문화마을, 경기
2006 마감뉴스 나무 공간 展, 유림목재, 경기
커튼콜프로젝트 展, 팀프리뷰, 서울
Ing 展, 자미원 갤러리, 부산
꽃마을 자연 미술제, 꽃마을, 부산
2005 시사회 展, 팀프리뷰, 서울
2003 흙 사람 展, 석당홀 갤러리, 부산
마음으로 전하는 그림편지 展, 자미원갤러리, 부산
2002 부산비엔날레 바다 미술제, 해운대, 부산

09artist@naver.com

2011 Ver. 4

강 민 정 姜玟汀 Kang, Minjung

Pennsylvania Academy of the Fine Arts, MFA Fine Art, 미국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주최 이태리 피렌체 드로잉 프로그램 수료, 이태리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 BFA Painting, 미국

개인전

2010 Happy Sk'n Studi O, 봉산문화회관, 대구, 한국
2009 Soliloquy: where the familiars seem unfamiliar…/
올해의 청년작가초대전, 대구문화예술회관, 한국
2008 Soliloquy:강민정 개인전, 유니세프와 함께하는 2008
부산국제아트페어 특별전, 벡스코, 한국
2007 강민정 개인전, 부산 아리엘 갤러리, 한국

단체전

2010 집과 사람, 아트스페이스 펄, 대구, 한국
Summer Artists Residency Program Open Studio:
School of Visual Arts, 뉴욕시티, 미국
역대 올해의 청년작가 초대전-오늘의 청년작가,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한국
A Book About Death, 브라질문화미술관, 상 파울로, 브라질
2009 Na+E — ㅁ+Life, DGB 갤러리, 대구, 한국
Sensibility & Harmony, 효고현립미술관, 일본
Show Show Show, e믿음 갤러리, 안산, 한국
돌아와 돌아온 Ten전, 파란네모 갤러리, 서울, 한국
2008 20/20, 스쿨 오브 파인 아트 갤러리, 필라델피아, 미국
107thAnnual Student Exhibition, 펜실베니아 예술 대학원,
필라델피아, 미국
2007 Small Works Group Show, 하이와이어 갤러리, 필라델피아, 미국
The Square Foot Show 2007, 아트 고담, 뉴욕시티, 미국
PAFA MFA Candidate Show, 브린크아트갤러리, 필라델피아, 미국
Juried Show: Absolute Abstract, 필라델피아, 미국
The Privilege of Color, 맨하튼 세계 문화 오픈 센터, 뉴욕시티, 미국
The Enigmatic Soul, 시바야마 갤러리, 도쿄, 일본
일본 한국 2007년 교류전, 갤러리 시바야마, 도쿄, 일본
Juried Show:144th Annual Exhibition of Small Oil Paintings,
필라델피아, 미국
inter-culturalism, 한국 문화 오픈 센터, 뉴욕, 미국
New Paintings, 세컨에비뉴파이얼하우스 갤러리, 뉴욕, 미국

na_kang@live.co.kr
http://artminjungkang.blogspot.com/

2011 Ver. 5

조 경 희 趙庚姬 Cho, Kyungheui

영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동양화 전공 졸
영남대학교 조형대학 동양화과 졸

개인전

2011 Blindly-GLASS BOX ARTSTAR展, 봉산문화회관, 대구
2010 MIX&MULTI(테이크아웃 카페), 대구
2009 2009 올해의 청년작가 초대展(대구문화예술회관 기획)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2008 영천예술창작스튜디오 제1기 입주 작가 릴레이展,
영천예술창작스튜디오, 영천
2006 영남한국화회 선정 올 해의 작가展,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2005 갤러리 환, 대구
2004 카페 the ale, 대구
2003 예술마당 솔, 대구
2002 영남대학교 조형대학 신관 3층 전시실, 경산

단체전

2011 채색된 욕망, 스페이스 15번지, 서울
THE ARTIST BRAND展 -디자이너와 아티스트의 차이,
가모 갤러리, 서울
낯선 이웃(Unfamiliar Neighbor)展, 신미술관, 청주
2010 2010 VISION&REFLECTION展 - 'Are you happy?'
경북대학교 미술관, 대구
2010 차세대 여성작가展,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2009 2009 창원아시아미술제 '안녕하세요?'(Hi, Asia), 성산아트홀, 창원
占展-예술과 주술 리포트,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 광주
제2회 국제현대미술 광주아트비전, 광주비엔날레관, 광주
예술, 공간을 점령하다展, KT&G 벌관, 대구
2008 신개념 현장 미술-목포 오거리 다방展, 목포 오거리內 초원 다방, 목포
도시 디자인 프로젝트 2 -미술, 대구에 색을 입히다展
반월당역 메트로프라자 지하상가, 대구
2007 수성아트피아기획-대구 미술의 어제와 오늘 Mergence in Daegu Arts
제2부 젊은 그들, 삶의 표상展, 수성 아트피아, 대구
2007 찌굴떼굴 미술관(수성 아트피아 기획), 수성 아트피아, 대구
MJ 갤러리 신진작가육성프로그램-창작의 열쇠展, MJ 갤러리, 대구
동아미술관 청년작가 지원展-"사랑은 집착이다", 동아미술관, 대구

레지던시

2011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5기 입주작가
2008 영천예술창작스튜디오 1기 입주작가
2007 가창창작스튜디오 1기 입주작가

art2525@lycos.co.kr

2011 Ver. 6

이 시 영 李時榮 Lee, Siyoung

뉴멕시코 주립대학교 미술교육학석사 M.A. in Art Education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미술석사 M.F.A.
영남대학교 조형대학 조소전공

개인전

2011 BECOMING BIRDS - GLASSBOX ARTSTAR展,
봉산문화회관, 대구
IN A CROWD, 봉산문화회관, 대구
2007 MYSTICAL MEMORY, Delaware Center for
the Contemporary Arts, 윌밍톤 델라웨어, 미국
2006 VISIBLE-INVISIBLE, AS BY SYMBOLS, Bolland
Art Gallery, Saint Joseph's University, 필라델피아, 미국
2001 WAX CASTINGS, 신미화랑, 대구

공모전

2010 ART IS ME, ART IS YOU, 로스앤젤레스 한국문화원 갤러리, 미국
2008 ART BINATIONAL-2008-BINACIONAL DE ARTE,
엘파소 시립미술관, 미국 / 시우다드 후아레즈 시립미술관, 멕시코
MULTIPLE DISCIPLINES, 앨버커키 시립갤러리,
앨버커키 뉴멕시코, 미국
2007 430/530 JURIED EXHIBITION, 메이슬리 갤러리,
앨버커키 뉴멕시코, 미국 (Best in Show)
2005 UNTITLED JURIED EXHIBITION, 요크 아트센터,
요크 펜실베이니아, 미국
IN DEPTH JURIED EXHIBITION, 메인라인 아트센터,
해버포드 펜실베이니아, 미국
INTERNATIONAL DISHMAN COMPETITION,
라마르 대학교 디쉬맨 미술관, 텍사스 미국
2004 THE ARTIST CULTURAL EXCHANGE AWARD,
챌튼햄 아트센터, 챌튼햄 펜실베이니아, 미국
ART OF THE TZEDAKAH BOX JURIED EXHIBITION,
컬럼비아 아트센터, 컬럼비아 메릴랜드, 미국
31ST BRADLEY INTERNATIONAL JURIED EXHIBITION,
브래들리 대학교 미술관, 일리노이즈, 미국
MARY AND CONSTANTIN COPE AWARD, 챌튼햄 아트센터,
챌튼햄 펜실베이니아, 미국
외 다수

레지던시

2007 베이스캠프 Basekamp Residency: 필라델피아, 미국
2006 우드스탁 레지던시 Woodstock Byrdcliffe Artist Colony:
우드스탁 뉴욕, 미국
2005 카빙스튜디오 & 조각센터 Carving Studio & Sculpture
Center: 웨스트루트랜드 버몬트, 미국
2005 버몬트 스튜디오 센터 Vermont Studio Center: 존슨 버몬트,
미국
2003 체코 팔라키 대학교 Palacky University: 올로무크, 체코

현재

미국 조각가협회, 미국 미술교육학회,
미국 칼리지아트협회, 영남대학교 미술학부 출강

smartrhie@alumni.upenn.edu

2011 Ver. 7

김 승 현 金昇炫 Kim, Seunghyun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졸업

개인전

2011 Composition-series / 영천예술창작스튜디오 / 영천
Born-series season2 / 대안공간 싹 / 대구
No-reply / 수성아트피아 뉴-프론티어 아트스페이스 / 대구
Structure-series /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 청주
2009 Product-series 'fragile' / 독립문화공간 '아지트'
갤러리7436 / 부산

단체전

2011 Documenta 2011 'Space Odyssey' / 청주 연초제조창 / 청주
유혹의 기술 / 아트스페이스 펄 / 대구
브릿지 프로젝트 / UM갤러리 / 서울
기억과현실의풍경 / 경북대학교미술관 / 대구
2010 청년미술프로젝트 '조각난풍경' 문화예술회관 / 대구
현대미술 영상&설치 문화예술회관 / 대구
new new generation 'my story' 신라갤러리 / 대구
chronicle / 대구 YMCA 빛살미술관 / 대구
젊은실천프로젝트 / 작은공간 이소 / 대구
A4demo / 작은공간 이소 / 대구
2009 Rrizm / 경북대학교미술관 / 대구
극장전 / 삼성극장 / 부산
placebo / m'art gallery / 광주 대인시장
생각 / 반지하갤러리 / 대전
2008 mjnaip vol.2 '창작과 감상사이' / mjgallery / 대구

레지던시

2011 영천예술창작스튜디오 4기 / 영천
2010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4기 / 청주
2009 독립문화공간 '아지트' / 부산

msrimh@naver.com

2012 Ver. 1

정 기 엽 鄭起燁 Jeong, Kyop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아르데코, 아티오브제, DNSEP(조형예술석사) 졸업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아르데코, DNAP(조형예술학사) 졸업
현) 영남대학교 디자인미술대학 출강

개인전

2012 유리, 물, 안개, 소리 Verre, Eau, Brume, Son,
봉산문화회관, 대구, 한국
2011 성녀의 자궁 Utérus de Sainte Femme, 사이아트 갤러리,
서울, 한국
성스러운 흐름 Fleuve Sacré, 예술창작스튜디오, 영천, 한국
2008 전이(前耳) Oreille Antérieure, 라넥스 아르데코,
스트라스부르, 프랑스
2002 미스티파이드 Mistified, 영남대학교, 대구, 한국

단체전

2011 클라인쿤스트 파티 Klein Kunst Party, 플래툰 쿤스트할레, 서울, 한국
2010 꾸뛰르 페스티발 Fest'vale de Coutures , 프리쉬 레트리,
스트라스부르, 프랑스
2009 인소노라 5 In-Sonora V, 오프 리미츠, 마드리드, 스페인
옥토스테레오Octostéréo, 라 쇼프리, 스트라스부르, 프랑스
비젝시옹 Bijection(s), 스망스리, 스트라스부르, 프랑스
2008 디쁠롬 2008 Diplômes 2008, 아르데코, 스트라스부르, 프랑스
그랑 쥬리 Grand Jury, 라 레트리, 스트라스부르, 프랑스
2007 국경없는 세대 오늘의 유리, 스트라스부르 정부청사, 프랑스
멧돼지 Meitueji, 쌩디카 뽀땅씨엘, 스트라스부르, 프랑스
2006 유니베르 Uni-Verre, 갤러리 노스모킹, 스트라스부르, 프랑스
한불수교 120주년 기념전시, 오랑쥬리공원 죠세핀관,
스트라스부르, 프랑스
2006 데보르드망 Débordement, 라 쇼프리, 스트라스부르, 프랑스
2003 동굴속 나의 동물, 올로무츠 팔라키대학, 체코

레지던시

2011 창작스튜디오, 영천, 한국
2006 포포 인스티튜트(Popo Institute), 스트라스부르, 프랑스
2003 팔라키대학, 올로무츠, 체코

수상

2011 제3회 뉴디스코스(New Discourse) 우수작가, 서울, 한국

kyop@kyopjeong.com
www.kyopjeong.com

2012 Ver. 2

최 수 남 崔壽南 Choi, Sunam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한국화전공 수학

개인전

2012 GLASS BOX ARTSTAR Ver.2, 봉산문화회관, 대구

단체전

2011 SSART SHOW, H.G.C MESEUM, 영국 스코트랜드
Another Landscape, 봉산문화회관, 대구
수미회, 문화예술회관, 대구
2010 수미회, 문화예술회관, 대구
2009 한일누두크로키교류전, 갤러리IROMA, 일본
대구누드크로키 정기전, 수성아트피아 호반갤러리, 대구
수미회, 봉산문화회관, 대구
2008 대구누드크로키 정기전, 로갤러리, 대구
2005 현묵회, 삼성금융플라자갤러리, 대구
2004 삼인행전, 삼성금융플라자갤러리, 대구
현묵회, 삼성금융플라자갤러리, 대구
2003 현묵회, 삼성금융플라자갤러리, 대구
1998 여경회, 경북대미술전시관, 대구
1997 여경회, 경북대미술전시관, 대구
1996 여경회, 경북대박물관전시실, 대구
1995 여경회, 경북대미술전시관, 대구
1994 여경회, 대백플라자갤러리, 대구
1993 여경회, 경북대미술전시관, 대구
1992 여경회, 경북대미술전시관, 대구

monicaid@naver.com

2012 Ver. 3

박 정 현 朴貞炫 Park, Junghyun

경북대학교 예술대학교 미술학과 및 동대학원 졸업
런던 킹스턴 대학교 공간 & 제품 디자인과 대학원 졸업

개인전

2012 GLASS BOX ARTSTAR Ver.3.
"aA : from art to architecture",
봉산문화회관, 대구
2005 호흡-가벼움에 의한 즐거움, 우봉미술 전시관, 대구
2004 숨을 불어넣기-창조적 행위의 은유, 예술사랑 갤러리, 대구
2002 사라진 얼룩이 표현한 자연, 우봉미술 전시관, 대구

현재

경북대학교 출강,
(주) MAC Theatre 미술감독

luckylucypark@googlemail.com

2012 Ver. 4

권 재 현 權宰賢 Kwon, Jaehyun

영남대학교 조형대학 조소과 졸업
동대학원 조소학과 석사과정 졸업

개인전

2012 GLASS BOX ARTSTAR Ver.4 매달린 '주'
(봉산문화회관, 대구)
2011 영천창작스튜디오 초대전 (영천창작스튜디오, 영천)
2009 대한민국 New face artist 우수작가 부스개인전
(갤러리 신상, 서울)
2008 "I in Box"(봉산문화회관, 대구)

단체전

2012 가창창작스튜디오 오픈스튜디오 (가창창작스튜디오, 대구) •
"환경 다시보기" (대백프라자, 대구)
2011 예술-백화점에서 놀다 (대구백화점, 대구) • 신천자이
모델하우스 전시(신천자이 모델하우스, 대구) • 갤러리웅
"젊은 시선전- 대구"(갤러리 웅, 대구)
2010 "物,慾,人" 3인전 (가창스페이스, 대구) •
"Fast, Slow, Unmoving - Art Show" 설치전
(중앙로, 대구) • 갤러리 스카이엔 개관기념전
(갤러리 스카이엔, 서울)
2009 청년작가회 새해를 여는 DIY전 (대구시민회관, 대구) •
대한민국 150인 New face artist전 (갤러리 신상, 서울)
2008 새로운 공유의 시작전(동아쇼핑 동아갤러리, 대구) •
경북조각회 신인작가 초대전(봉산문화회관, 대구)
2007 쇼케이스전(영남대 정문갤러리, 대구) • 청년작가회전
(문화예술회관, 대구) • 영아티스트 앙상블(예지양 갤러리, 대구)
2006 삼인삼색 어울림전(달서첨단문화회관, 대구) •
청년작가회 소품전, 비엔날레(대구KBS본부, 문화예술회관, 대구)

레지던시

2011 가창창작스튜디오, 대구

mandoll79@naver.com

2012 Ver. 5

이 지 영 李知映 Rhee, Jiyoung

대구가톨릭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학과 졸업
독일 칼스루에 국립 조형예술대학교 미디어 아트 석사
지도교수-Prof. Thomas Struth, Candida Hofer, Marcel Odenbach
독일 칼스루에 국립 조형예술대학교 미디어 아트 박사 수료
지도교수-Prof. Candida Hofer

개인전

2012 GLASS BOX ARTSTAR Ver.5 Framing-Reflected Reality,
봉산문화회관, 대구
2009 Object in SpaceII, gallery Now, 서울
2008 Object in Space, sapce gachang, 대구
2005 숙명여자대학교 문신미술관 빛 갤러리 초대전, 서울
2004 올해의 청년작가 초대전,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단체전

2012 대구사진비엔날레, 대구예술발전소, 대구
Open Stud'o 2012, 경기창작센터, 경기도 안산
썬데이페이퍼 2012 화요일-노란날들, 노란날들, 대구
인간서식지, 경기창작센터 중앙동 전시실, 경기도 안산
2011 The Art of Temptation-창작과 감상의 유혹展,
유혹하는 것의 함수관계(심포지움), 봉산문화회관, 대구
진경의 맥 - 영남의 청년작가 展, 포항시립미술관, 포항
花_畫, 리안갤러리창원, 창원
2010 차세대 여성작가전, 기획초대전,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4 photograhers exhibition swaying/troughts, 기획초대전,
yfo galery, 대구
CU 갤러리 가을 기획초대전 네가 내게서 피어날때-청라언덕,
CU갤러리, 대구
역대 '올해의 청년작가'초대전 오늘의 청년작가 초대전,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외 다수

작품소장

숙명여자대학교 문신미술관, 대구문화예술회관, EIKK-European Institute of Cinema Karsruhe, Staatiche Hochschule fuer Gestaltung Karsruhe

수상, 기타

2012 경기창작센터 장기입주 작가
2008 가창창작스튜디오 장기입주 작가
대구국제뉴미디어아트페스티발 커미셔너
문화예술진흥공모사업 선정, 젊은 예술가 창작지원, 대구광역시
2004 대구문화예술회관 주최 올해의 청년작가

spinat@naver.com
http://spinat.blog.me

2012 Ver. 6

김 안 나 金安那 Kim, Anna

BFA 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앤젤레스캠퍼스 (UCLA) 미술학과 졸업
MFA 캘리포니아대학교 얼바인캠퍼스 (UCI) 미술학과 석사 졸업

경력

2007-8 우드베리대학, 캘리포니아, 현대미술사 교수
2006-7 캘리포니아대학교 얼바인캠퍼스, 서양화 교수

개인전

2012 GLASS BOX ARTSTAR Ver.6 Out/In the Universe,
유리상자 봉산문화회관, 대구, 한국
천상의 빛살 (Rays of Heaven), 스페이스 가창, 대구, 한국
2009 Heaven-Kiss'ng, 갤러리 도요, 대구, 한국
2007 세계 평화를 위한 찬송가, Dangerous Curve Gallery,
로스앤젤레스, 미국

단체전

2012 대구아트페어 2012, 대구, 한국
Commun'cation in the City, 대구국립박물관, 대구, 한국
숲 속에 숲, 드림갤러리, 서울, 한국
Tri-Unity, 알바로시자홀, 안양, 한국
Pop up Art show, 504 Chungking Court, 로스앤젤레스, 미국
가창창작스튜디오 오픈스튜디오, 스페이스 가창, 대구, 한국
2011 Cityscape of Daegu, 대구국립박물관, 대구, 한국
나는 현대 미술가다, 대백프라자 갤러리, 대구, 한국
2011 해외작가 초청 레지던시, 봉산문화회관, 대구, 한국
2010 7 세대, Centre d'arts visuels de l'Alberta, 알버타, 캐나다
2009 Neon Gore, 경북대학교 갤러리, 대구, 한국
2008 Reading Room, Confederacy of Creative Ephemera,
써커스 갤러리, 로스앤젤레스, 미국
2007 GLAMFA, CSULB, 롱비치, 미국
OUT SIDE IN, LACE 갤러리, 로스앤젤레스, 미국
MFA Thesis, 유니벌시티 갤러리, 얼바인, 미국
2006 The New New Schoo , Dangerous Curve 갤러리,
로스앤젤레스, 미국
드로잉쇼, 캐털리스트 갤러리, 얼바인, 미국
가판대 프로젝트, 여러 장소, 로스앤젤레스, 미국
MFA2Show 룸 갤러리, 얼바인, 미국
2005 Oh/5, POST 갤러리, 로스앤젤레스, 미국
2004 So Far, 유니벌시티 갤러리, 얼바인, 미국
2003 Transplant, LAtch 갤러리, 로스앤젤레스, 미국
외 다수

수상 및 레지던시

2011 가창창작스튜디오 장기입주작가 (2011.5~2012.5)
2006 Med'ci Scholarship, The Medici Fund
2005 Graduate Student Research and Travel Grant,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2004 Diversity Fellowship,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2000 Undergraduate Honors,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an.kim.na@gmail.com

2012 Ver. 7

윤 동 희 尹棟禧 Yoon, Donghee

영남대학교 회화과 졸업

개인전

2012 GLASS BOX ARTSTAR Ver.7 망령, 봉산문화회관, 대구
새 빨간 거짓말, 대안공간 싹 (싹수프로젝트), 대구

단체전

2012 ART PRISM2012, 영남대학교 박물관, 대구
젊은실천프로젝트2, Project 9-21, 대구
공간을 깨워라, 경북대학교 미술관, 대구
2011 스페이스 오딧세이 도큐멘타, East Factory, 청주
'마당발 네트워크', 대안공간 하이브, 청주
Cacophony VII, 갤러리 분도, 대구
young artist, 갤러리508, 대구
2010 저탄장프로젝트 '폐허의 감성', 작은공간 이소, 대구
영남대학교 졸업작품전, 천마아트센터, 대구
a4demo, 작은공간 이소, 대구
젊은실천프로젝트, 작은공간 이소, 대구
NEON GORE, space9, 대구
2009 도요 young artist'예술 똥', 갤러리 도요, 대구
The trouble, 갤러리 도요, 대구

수상

2011 신조미술대전 선정작가
2010 영남대학교 회화과 최우수 졸업작품상

레지던시

2012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6기(단기) 입주작가

pastorius10@naver.com

2013 Ver. 1

백 장 미 白장미 Back, Jangmi

2011 계명대학교 서양화과 졸업

개인전

2013 GLASS BOX ARTSTAR Ver.1
RE:BORN (The solid city) (봉산문화회관, 대구)
2011 CELL_TWON (대구미술광장, 대구)

단체전

2012 평촌리662 (성산아트홀, 창원)
prologue (경남예술창작센터, 산청)
2011 청년미술프로젝트: future lab 특별전 (엑스코, 대구)
국내 미술창작스튜디오 교류전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우리지금만나, 당장 (카페 프란체스코, 대구)
2010 EXIT (신라갤러리 cube-c, 대구)
Y.A. (삼덕맨션, 대구)

레지던시

2013 경남예술창작세터 2기 입주작가
2012 경남예술창작세터 1기 입주작가
2011 대구미술광장 3기 입주작가

backjangmi@gmail.com

2013 Ver. 2

신 강 호 申剛浩 shin, kangho

영남대학교 조형대학 조소학과 졸업
영남대학교 대학원 조소전공 수료

개인전

2013 GLASS BOX ARTSTAR Ver.2 Link, 봉산문화회관, 대구
1997 개인전, 영남대학교 전시장

단체전

2012 현대미술을 담다, 대백프라자 갤러리, 대구
대구 청년 작가회 정기전,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신진작가 초대전 movement 전, space119, 대구
영조회 정기전, AND갤러리, 대구
2011 흙 근원에서의 표현전 (대구문화예술회관 기획 발굴전)
대구문화 예술회관, 대구
테라코타전, 갤러리 오늘, 대구
Small전, space119, 대구

그 외 단체전 및 공모전 다수

depcon@naver.com
http://kanghoart.tistory.com

2013 Ver. 3

전 새 봄 全새봄 Jeon, Sae Bom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한국화 전공 졸업
경북대학교 미술학과 대학원 재학 중

개인전

2013 GLASS BOX ARTSTAR Ver.3 현묘(玄妙)한 집, 봉산문화회관, 대구

단체전

2012 한국 여성 미술대전, 대구 문화 예술회관, 대구
대구 졸업생 작품전, 갤러리AnD, 대구
2011 KNU 한국화 졸업전시회, space9, 대구
'ST+ART' 그룹전, space9, 대구
'달짝지근' 그룹전, 경북대학교 박물관, 대구
KNU 오픈 스튜디오, KNU 조형관 205, 대구
2008~2011 경북대 "순" 동아리, space9, 대구

newspring_1@naver.com

2013 Ver. 4

이 재 호 李哉昊 Lee, Jaeho

계명대학교 서양화과 졸업

개인전

2013 GLASS BOX ARTSTAR Ver.4 모여라 꿈동산, 봉산문화회관, 대구
2009 About me, 대구시민회관 윈도우 갤러리, 대구

단체전

2013 아시아프, 문화역서울 284, 서울
열린예술장터'범어', 범어아트스트리트, 대구
순진한 그림전, 범어아트스트리트, 대구
"나에게 너를 보낸다" 판타지-윌비 데어
(fantasy-will be there), 대구 예술발전소, 대구
2012 becoming an artist-Ⅰ,Ⅱ, 봉산문화회관, 대구
2009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Space 가창, 대구

sjhcgy@naver.com
blog : eeaeo.tumblr.com

2013 Ver. 5

서 상 희 徐尚希 Suh, Sanghee

경북대학교 미술학과 서양화전공 졸업
경북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졸업

개인전

2013 GLASS BOX ARTSTAR VER.5 그곳, 집/ 봉산문화회관/ 대구
2012 GrandFather's House/ 봉산문화회관 2전시실/ 대구

단체전

2013 '생활의 발견' 전 project B gallery 신진작가기획전/ 범어아트스트리트 B gallery/ 대구
2010 작은 공간 이소 나누기 프로젝트 "공작노리터" 전/ 대안공간 이소/ 대구

artheeris@naver.com

2013 Ver. 6

우 재 오 禹載五 Woo, Jaeoh

경북대 공법학과 졸업

개인전

2013 GLASS BOX ARTSTAR Ver.6 나를 위한 위로, 봉산문화회관, 대구
2011 Circulation, 동제미술전시관 기획전, 대구
2010 Fragments, GNI Galery, 대구
D, Doyo Gallery, 대구

단체전

2012 Daegu Hotel Art Fair, 대구
NordArt 2012 nternational Exhibition, 독일
정동갤러리 기획전 "I LOOKED", 정동갤러리, 서울
2011 사진가집단 루 창작지원전
"바람같은 사진의 화려한 외출", Debec Gallery, 대구
2010 소멸하는 경계, Goto Gallery, 대구
4인의 View, 작은공간 이소, 대구
2009 Portrait 列傳, Doyo Gallery, 대구
Doyo young Artist 2009 1st Exhibition
"생활의 便", Doyo Gallery, 대구
2008 비주류 사진가동맹 첫 번째 이야기, 정독갤러리, 서울

smartjoe@naver.com

2013 Ver. 7

이 소 진 李昭眞 Lee, SoJin

대구가톨릭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및 동대학원 회화학과 졸업

개인전

2013 GLASS BOX ARTSTAR Ver.7 어느...파쿤의 성(星), 봉산문화회관, 대구
Window gallery Project 4 '인생의 묘미', 예술공간 아토리, 대구
2012 요상한 레프리콘展, 갤러리 송, 부천
ART SEOUL, 한가람 미술관, 서울
2011 가창창작스튜디오 입주 작가 릴레이 개인전 '이소진' 展, 스페이스 가창, 대구

단체전

2013 Beyond展, CU갤러리, 대구
시력프로젝트 지하철도 口 口 口, 범어아트스트리트, 대구
CU갤러리 초대전 희망-길 찾기, CU갤러리, 대구
2012 범어아트스트리트 개관전, 범어아트스트리트, 대구
GIAF 광화문아트페스티벌, 세종문화회관, 서울
2012년 전 세계 최초 전시 용트림展, Doyo, 대구
2011 Drawing_들여다보기展, 갤러리M, 대구
청년미술프로젝트 Spark of the Future, EXCO, 대구
해외작가 초청 레지던시, 봉산문화회관, 대구
대백 아트 프로젝트: 예술-백화점에서 놀다, 대구백화점본점, 대구
제7-8기 가창 창작스튜디오 Open Studio, 스페이스가창, 대구
2010 저탄장 프로젝트 폐허의 감성, 작은공간 이소, 대구
가창 현장설치미술展, 스페이스가창 야외 공간, 대구
포스코갤러리 기획 초대전 오늘의 미술 소통과 교감, 포스코갤러리, 포항
젊은 실천 프로젝트, 작은공간 이소, 대구
서스테이너블 아트 프로젝트 2010-인간과 자연, 전혜영갤러리, 부산
Beyond展, 콘린갤러리, Tokyo
Neon Gore 예술가 난장 설치展, space9, 대구
2009 Land Art in Sinchun Eco Art Hall 설치
대구 컬러풀 축제 예술과 놀자 창작 예술텐트촌 참여 작가
외 다수

수상, 기타

2013 작품소장 한국감정원
범어아트스트리트 기획전시 공모 선정, 대구광역시
2010-2011 가창창작스튜디오 장기입주 작가
2010 삼성현미술대전 회화부문 특별상
2009 문화예술진흥금 젊은작가 창작 지원사업 선정, 대구광역시
2006 영남미술대전 서양화부분 장려상, 한국현대여성미술대전 회화부분 우수상

utmarine@naver.com

2014 Ver. 1

로미아키투브 Romy Achituv

1997 New York University, New Media (MPS)
1988 The Hebrew University, Philosophy (BA)
1985 Bezalel Academy of Art and Design, Sculpture (BFA)

전시

2013 Husk and Ash: Audience Participatory Installation / Hongik Univ Gallery / Seoul
Better Than Universe / Daegu Art Factory / Daegu
Patent Pending / Zero 1 / San Jose, CA / USA
2012 Media City Seoul (Media Art Biennale) / Seoul City Museum of Art / Seoul
On the Edge: Light, Sound, Life / Obrestad Lighthouse / Norway
2010 Signals / Bat Yam Museum of Contemporary Art / Israel
European Media Art Festival / Osnabruck / Germany
2009 Biennial of the Canary Islands / Architecture and Landscape / Spain
2008 Venice Biennale of Architecture / The Israel Pavilion / Venice, Italy

레지던시

2013 아티스트 레지던시 금천 예술 공장 창작활동

romy@inch.com

2014 Ver. 2

배 문 경 裵文卿 Bae, Moonkyoung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및 동대학원 서양화전공 졸업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디지털미디어아트학과 박사과정 재학

개인전

2014 GLASS BOX ARTSTAR Ver.2 Cloned Me / 봉산문화회관 / 대구
2012 CLONED FRAME / 봉산문화회관 / 대구

단체전

2014 Dynam'c Place / 범어아트스트리트 / 대구
2013 영상예술의 도시-大邱 Urban Montage / 대구예술발전소 / 대구
MY BLUEPRINT / 대구문화예술회관 / 대구
2012 408展 / 봉산문화회관 / 대구
2011 The Navigator展 / 동아미술관 / 대구
2010 I GO, HI 高 / 1,000,000Volt / 대구
1600일간의 길찾기 / 작은공간이소 / 대구

mmoong@hanmail.net
blog.naver.com/mmoongg

2014 Ver. 3

로 한 Rohan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예술학과(복수전공) 졸업
Goldsmiths University of London, Fine Art, MFA졸업

개인전

2013 'From me, To me', The K gallery, 서울, 한국
2012 'The Laboratory room_smoke', CueB gallery, London, UK
2011 'The smoke', Goldsmiths Univ. of London, UK
2007 'Life Energy', Lamer gallery, 서울, 한국

단체전

2013 '2013 영상예술의 도시-대구', 대구예술발전소, 대구, 한국
2011 'Flat 9', House flat 9, London, UK

레지던시

2013-2014 문화공장 오산 (오산시립미술관) 레지던시

www.rohanshim.com

2014 Ver. 4

서 성 훈 徐成訓 Seo, Sunghoon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졸업 및 동대학원 재학

개인전

2012 KNU YOUNG ARTIST PROJECT-서성훈
경북대학교 미술관, 대구

단체전

2014 ASYAAF, 문화역 서울 284, 서울
살며 예술하며,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2013 텐토픽 아트 프로젝트, 대구예술발전소, 대구
동방의 요괴들, 대구예술발전소, 대구
2012 ASYAAF, 문화역 서울 284, 서울
2011 박물관과 현대미술, 경북대학교 박물관, 대구
같이의 가치, 창원대 미술관, 창원
2010 YA, 삼덕맨션, 대구

수상

2014 ASYAAF PRIZE, 조선일보 KIAF

doyag2@gmail.com
blog.naver.com/doyag2

2014 Ver. 5

정 혜 련 鄭惠蓮 Jung, Hyeryun

부산대학교 미술학과 및 동대학원 졸업
부산대학교 박사과정 졸업

개인전

2014 GLASS BOX ARTSTAR Ver.5 정혜련, 봉산문화회관, 대구
연쇄적 가능성, 소울 아트스페이스, 부산
2013 정혜련 개인전, 관두미술관, 타이페이, 대만
정혜련 개인전, 부산대학교 아트센터, 부산
2012 김종영 미술관 올해의 젊은 조각가 수상전 'abstract time',
김종영 미술관, 서울
abstract time, 이배 갤러리, 부산
정혜련 개인전, 갤러리 로얄, 서울
2011 정혜련 개인전, oci미술관, 서울
2010 정혜련 개인전, 고운 갤러리, 창원
2009 나의 아름다운 아라베스크, 대안공간 반디, 부산
2007 wonderful world, 세오갤러리, 서울
정혜련 개인전, KAF, 부산
2006 The house of hero, 공간 화랑, 부산
The house of hero, 세종갤러리, 서울
The house of hero, 김재선 갤러리, 부산
2005 내일의 작가 I -정혜련 개인전, 성곡미술관, 서울
2004 대안공간 반디 기획공모 당선전 '나쁜 동화-정혜련 개인전',
대안공간 반디, 부산
2002 정혜련 개인전, 부산대학교 미술관, 부산

단체전

2014 '달그림자' 창원조각 비엔날레, 마산 증앙부두, 마산
소리 영상 세상을 바꾸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서울
태화강 국제 설치 미술제, 울산태화강, 울산
외 다수

수상

201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해외레지던시 부분 지원작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
2012 올해의 젊은 조각가 선정, 김종영 미술관, 서울
SEMA선정작가,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부산문화재단 지원작가, 부산문화재단, 부산
2011 송암문화재단 신진작가, Oci미술관, 서울
2008 하정웅청년작가 수상,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2007 봉생청년문화상 수상, 봉생재단, 부산
세오갤러리 영아티스트 선정, 세오갤러리, 서울
2004 성곡미술관 내일의 작가, 성곡미술관, 서울
2005 제16회 부산청년미술상 수상, 공간화랑, 부산

레지던시

2014 소울 창작스튜디오, 부산
2013 대만 관두미술관, 대만
2008 오픈스페이스 배, 기장

suniong2000@naver.com

2015 Ver. 1

최 선 崔 羨 Choi, Sun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개인전

2015 GLASS BOX ARTSTAR Ver.1 최선, 봉산문화회관, 대구
"메아리", 송은 아트스페이스, 서울
2013 "두 세상", 뱀부커튼 스튜디오, 타이베이, 대만
외 다수

단체전

2014 "팔로우미-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8기 리뷰전",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서울
"아시아 예술축전", 안산 만남의 광장, 안산
"느낌의 공동체-난지쇼III",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서울
"동아시아의 꿈(東アジアの夢)",
2014 요코하마 트리엔날레 특별 연계전시,
뱅크아트 Studio NYK, 요코하마, 일본
2013 "tee Be", 갤러리현대, 서울
"이상뒤상", 한국현대문학관, 서울
"흰 대나무 그림으로부터", 도병훈-최선 2인전, 대안공간 눈, 수원
"후쿠타케 아시안 아트 플렛폼(Fukudake House
As'an Art Platform)",
2013 세토우치 트리엔날레, 쇼도시마, 일본
2012 "12회 송은미술대상전", 송은아트스페이스, 서울
"언브레이커블(Unbreakable)", 뉴욕 한국문화원, 뉴욕, 미국
"속 조선통신사 프로젝트(Re-Chosun Tongshinsa Project)",
에치코 츠마리 트리엔날레에 참가한 뱅크아트1929 프로젝트,
요코하마 · 니가타, 일본
외 다수

기금과 수상

2014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 지원기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
2013 Creative talent Artist, 뱀부커튼 스튜디오, 타이베이, 대만
세토우치 트리엔날레 참여작가 선발, 금천예술공장, 서울문화재단
12회 송은미술대상 대상, 송은미술재단
2012 레지던스 작가 기금(문화예술 해외발신거점형성사업),
일본 문부성
외 다수

레지던시

2015 ISCP, 뉴욕, 미국
2014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서울, 한국
2013 뱀부 커튼 스튜디오(The Bamboo Curtain Studio),
타이베이, 대만
외 다수

b_umber@naver.com
http://ssunya.net

2015 Ver. 2

홍 희 령 洪希姈 Hong, Heeryung

영남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및 대학원 졸업
Chelsea College of Art & Design, MA Fine Art 졸업, 런던, 영국

개인전

2015 GLASS BOX ARTSTAR Ver.2 홍희령, 봉산문화회관, 대구
2008 첩첩산중, CUBE C, 대구
2003 내 말 좀 들어라 - 올해의 청년작가 초대전,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2000 햇님달님 이야기, SPACE129, 대구

단체전

2014 간보다, 모하창작스튜디오, 울산
2013 'The New Industrialists' The Bermonsey Project, 런던, 영국
2012 Red & Bull, studio 1.1, 런던, 영국
4482-Map the Korea, Bargehouse in Oxo Tower Wharf, 런던, 영국
2011 MA Degree Show, Chelsea College, 런던, 영국
Chelsea Interim Show, Triangle Space - Chelsea College,
런던, 영국
2010 오늘의 청년작가전,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2008 Typography & Calligraphy & Text, 경북대학교 미술관, 대구
City Project - 아트, 도시에 색을 입혀라, 메트로 프라자, 대구
2007 Discovered artist, 스페이스 가창, 가창
떼굴떼굴 미술관, 수성아트피아, 대구
2006 Total Art Set, Gallery M, 대구
K.C.J a one, Hukuoka Art museum, 후쿠오카, 일본
2005 남부현대미술제,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 광주
대륙의 메아리전, 단원미술관, 안산
A one, Guangzhou municipal gallery, 광쩌우, 중국
2004 The generation renewed- PLAY BACK/ Gallery Cube C, 대구
2003 수원미술전시관선정 13인의 여성작가전-지팡이와 방망이, 수원
2001 무한광명 새싹알통 강추전, 정독도서관, 서울
외 다수

레지던시

2014 모하창작스튜디오, 울산

honggozzi@gmail.com
http://www.heeryunghong.com

2015 Ver. 3

이 창 진 李昌振 Lee, Changjin

부산대학교 미술학과 조소전공 및 동대학원 졸업

개인전

2015 GLASS BOX ARTSTAR Ver.3 이창진, 봉산문화회관, 대구
2012 이창진개인전, 이듬스페이스, 부산
2010 이창진초대전, A1갤러리, 서울
물방울조각가 이창진의 작은 전시,146market, 서울
2009 Milkdrop, 샘갤러리, 부산
2008 우유 한통과 디카로 할 수 있는 것, 예가갤러리, 부산
채집된 물 – 채집된 형상, 소울아트스페이스, 부산

단체전

2014 무빙트리엔날레 가방프로젝트, 부산연안여객선터미널, 부산
2013 The Unique Nature, 이듬스페이스, 부산
2012 와따가따프로젝트, 청자빌딩, 부산

레지던시

2014 캄보디아 국제레지던시, 화이트(바삭)빌딩, 캄보디아
조선통신사 국제레지던시, 이이즈카고택, 일본
2013 TOUCH 미얀마 국제레지던시, 뉴제로아트스페이스, 미얀마
2012 승선레지던시, 부경대학교 실습선, 부산

jinee1979@naver.com

2015 Ver. 4

Studio1750+정 혜 숙

STUDIO 1750
김영현 金泳賢 Kim, Younghyun
손진희 孫眞姬 Son, Jinhee

주요전시

2015 GLASS BOX ARTSTAR Ver.4 Studio 1750+정혜숙,
봉산문화회관, 대구
Out of the BLUE, 부산김해공항 2F 로비,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김해
만-약, 갤러리AG, 안국약품(주), 서울
오늘의 집, 갤러리 맺음, 성북예술창작센터, 서울문화재단, 서울
Homeless, 홍익대학교 문헌관 4층 현대미술관, 서울
세라마드, 40일간의 여정,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김해
New contemporary, 경기창작센터 전시사무동, 안산
Earth Matter 2, 라릿칼라아카데미, 첸나이, 인도
2014 깜깜한 낮,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미래의 빛-2014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 광주문화재단, 광주
옴 가가호호 Zip-2014 힐링아트랩 프로젝트, 시민청 갤러리, 서울
이야기하는 사물, 이야기하는 공간, 신세계갤러리 및 컬쳐스퀘어, 광주
흔종 오브제, 창작공간 SOUL, 부산

레지던시

2015 Merve'lleux Pretexte, 툴, 프랑스
경기창작센터, 경기문화재단, 안산
인도노마딕레지던시, 칼라세트라 재단, 첸나이, 인도
2014 토지문화관, 토지문화재단, 원주
창작공간 SOUL, soul art space, 부산

studio1750@naver.com
blog.naver.com/studio1750

정혜숙 鄭惠淑 Jung, Hyesook

파리 국립미술학교(DNSAP) -프랑스

개인전

2014 Draft,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한국
2013 Light_ CERAMIC,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김해, 한국

단체전

2015 GLASS BOX ARTSTAR Ver.4 Studio 1750+정혜숙,
봉산문화회관, 대구
만-약, 갤러리AG, 서울, 한국
세라마드, 40일간의 여정,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김해 한국
수렴과 확산_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이천세계도자센터, 경기도, 한국
2014 깜깜한 낮,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한국

레지던시

2015 (사)한국자연미술가협회 YATOO
Beyond limitations
인도노마딕레지던시, 칼라세트라 재단, 첸나이, 인도

jung3hs@gmail.com

2015 Ver. 5

오 지 연 吳智蓮 Oh, Jiyeon

성신여자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및 동대학원 졸업

개인전

2015 GLASS BOX ARTSTAR Ver.5 오지연, 봉산문화회관, 대구
아름다운 현실에 존재하는 내가, 영천예술창작스튜디오, 영천
2011 감정세포Emotional cells, 대안공간 눈, 수원
2010 감정세포Emotional cells, 성보갤러리, 서울

단체전

2015 꿈꾸는 보따리_레지던시 교류전, 기당미술관, 제주
텐토픽 아티스트 페스타 공간역전, 대구예술발전소, 대구
2012 석촌호수 벚꽃 축제 야외조각전, 석촌호수, 서울
2010 the Fantastic Garden & Art Market
창원 아시아 현대미술전, 창원 성산아트홀, 창원
마법의 세계-정크아트전, 예송미술관, 서울
2009 Art Mia Store, 현대백화점 미아점 갤러리H, 서울
버릴 것은 없어요, 삼성어린이박물관, 서울
2007 Art in Daegu 2007: 분지의 바람, 호수빌딩 전시장, 대구
star 2007, 큐브 스페이스, 서울

레지던시

2015 영천예술창작스튜디오

5dhwl@naver.com
blog.naver.com/5dhwl

2016 Ver. 1

이 지 현 李支鉉 Lee, Jihyun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서양화과 및 동대학원 졸업

개인전

2016 GLASS BOX ARTSTAR Ver.1 이지현, 봉산문화회관, 대구
2015 Dreaming Jeju,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전시실, 서귀포
2014 Dreaming clothes, 영천예술창작스튜디오, 영천
2013 표 갤러리 사우스 개인전, 서울
2012 기억공작소 〈이지현-dreaming books〉, 봉산문화회관, 대구
2011 이즘갤러리 개인전, 대전
2010 아트사이드갤러리 베이징 개인전, 베이징, 중국
2009 갤러리 인 개인전, 서울
2007 Gaallery Nii(新居Tokyo 개인전, 동경, 일본 /
고양스튜디오 갤러리, 고양 / 빛갤러리, 서울
2006 한기숙갤러리, 대구 / Shimada Gallery, 고베, 일본
2005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 한기숙갤러리, 대구
Kita Gallery, 나라, 일본
2004 다빈갤러리, 부산 / 두산갤러리, 대구
2002 한기숙갤러리, 대구
2001 박영덕화랑, 서울

단체전

2016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제7기입주작가전,
이중섭미술관창작스튜디오전시실, 서귀포
2015 아일랜드 유목민, 이중섭미술관, 서귀포
교보아트스페이스 개관기념전 "미술 책篇에 들다",
교보아트스페이스, 서울
노리 갤러리 개관5주년전, 노리갤러리, 제주
아부다비 아트페어, 아부다비
꿈꾸는 보따리, 기당미술관, 서귀포
한지작가 초대전, 원주한지테마파크, 원주
보물섬-예술로 돌아온 것들, 양평군립미술관, 양평
도시 樂 - ROCK, 성남아트센터, 성남
안젤리미술관 개관기념-한국대표작가55인 초대전, 안젤리미술관, 용인
THE PERFECT WORLD 이지현 한지석 2인전, 셀로아트, 서울
외 다수

수상

2007 제1회 인사미술제 인사미술대상, 인사미술제운영위원회, 서울
2001 박영덕화랑 신인작가공모 대상, 박영덕화랑, 서울
1998 제17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우수상,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1997 제19회 중앙미술대전 특선,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1996 '96동아미술제 동아미술상,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1995~6 제15 16회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1995 제3회 매일미술대전 대상, 매일신문사, 대구

레지던시

2015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7기 입주작가, 서귀포
2014 영천예술창작스튜디오 6기 입주작가, 영천
2010~12 가나 장흥아뜰리에 입주작가, 장흥
2010 아트사이드갤러리 베이징스튜디오 입주작가, 베이징, 중국
2009~10 파주 출판도시 아트플랫폼 1기 입주작가, 파주
2008~9 스튜디오 박영 1기 입주작가, 파주
2006~7 국립현대미술관 고양창작스튜디오 3기 입주작가, 고양

coreaart@yahoo.co.kr

2016 Ver. 2

제이미 리 Jamie M. Lee

미국 캘리포니아 클레어몬트 대학원 회화 석사 졸업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산타크루즈 미술과, 회화 및 판화 학사 졸업

개인전

2016 GLASS BOX ARTSTAR Ver.2 제이미 리, 봉산문화회관, 대구
Paper Garden, And N Gallery, 서울
2014 Dreamscape, 영은 미술관, 경기도 광주
2012 제이미 리, LA 아트코어 갤러리,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2009 달콤한 경이로움, 옆집갤러리, 서울
연, 킵스 갤러리, 뉴욕
2006 제이미 리(공모전 대상 수상 전시회), 피닉스 갤러리, 뉴욕
2005 회상, 펠프스 갤러리, 클레어몬트, 갤리포니아
2001 문화에 대한 그 무엇, 배스킨 갤러리, 산타크루즈, 캘리포니아

단체전

2015 삶에서 오는 솜결, 키미 아트, 서울
Ragdale 단체전, 렉데일 재단, 레이크 퍼레스트, 일리노이
Wynn Beauty & Health Company 출시 기념 초대전,
카사 델 마 호텔, 산타모니카, 캘리포니아
2013 40/40: 다른 두 비전, A.I.R 갤러리, 브룩클린, 뉴욕
아트 링크 프로젝트II (2013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 강원도 평창
아트 링크 프로젝트, 금산 갤러리, 서울
2012 음악과 함께 하는 전시회, 팰리사이트 파크, 뉴저지
꿈을 살다, PS 122 Project Space, 뉴욕
2012 선정작가전, 스테이튼 아일랜드 미술관, 뉴욕
전시와 함께 하는 퍼포먼스, 텐리 문화원, 뉴욕
2011 공간과 선의 이야기, 마음 갤러리, 뉴욕
The Beautiful Exhibition: Gala show, JW 메리어트 호텔, 뉴저지
Contemporary Art Exhibition, LA 한국 문화원, 캘리포니아
화류춘풍(현대백화점 창사40주년 기념), 갤러리 H, 서울&경기도
외 다수

수상

2011 아모레 퍼시픽 클라보레이션 패키지 디자인 선정, 뉴욕
2010 버몬트 스튜디오센터 레지던시 전액 지원 작가선정
산타페 미술대 레지던시 전액 지원 작가선정
2006 작가 공모전 대상, 피닉스 갤러리, 뉴욕

레지던시

2015-2017 아트센터 화이트 블록 레지던시, 경기도 파주
2015 렉 데일 레지던시, 레이크 퍼레스트, 일리노이
2014 영은 미술관 단기 레지던시, 경기도 광주
2011-2012 PS 122 작가 지원 레지던시, 뉴욕
2010 버몬트 스튜디오센터 레지던시, 존슨, 버몬트
산타페 미술대 레지던시 프로그램, 산타페, 뉴멕시코
2009-2010 엘리자베스 재단 단기 레지던시, 뉴욕
2008 Ox-Bow(SAIC) 레지던시 프로그램, 서거턱, 미시건
샤샤미 북부 레지던시 프로그램, 파인플레인즈, 뉴욕
2006 쿠퍼유니온 레지던시 프로그램, 뉴욕

www.jamiemlee.com
2jamielee@gmail.com

2016 Ver. 3

김윤경&박보정

김 윤 경 金潤庚 Kim, Yoonkyung

대구가톨릭대학교 미술대학 예술학과 예술학 전공 졸업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일반대학원 서양화 전공 졸업
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ng Beach M.F.A. 회화 전공 졸업

개인전

2015 범어도서관 갤러리 Ars's, 대구
경북대학교병원 칠곡 힐링갤러리, 대구
2014 아트 팩토리 청춘, 대구
KBS 대구방송총국 전시실, 대구
2013 범어아트스트리트, 대구
Branch Company, 대구
Project B 갤러리, 대구
고도 갤러리, 서울
2012 The K 갤러리, 서울
2011 The Buddha's Lounge, Los Angeles, 미국
2010 CU 갤러리, 대구
봉산문화회관, 대구
2005 Space 129, 대구

단체전

2016 GLASS BOX ARTSTAR Ver.3 김윤경&박보정, 봉산문화회관, 대구
살며 예술하며,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냉정과 열정 사이, 아트스페이스 펄, 대구
2015 현대미술 조망,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하얀방-김윤경&박보정 2인전, 대구미술광장 갤러리, 대구
Art-link project전, Time Square 갤러리, Brunei
열대야화, 대구백화점 윈도우갤러리, 대구
Artist of the day전, 갤러리 에이앤디, 대구
Merry blue전, 플로라 갤러리, 김해
2014 Live Wall, CU 갤러리, 대구
아트 바겐 전, 토스트 갤러리, 서울
범어아트마켓, 범어아트스트리트, 대구
제5회 젊은 예술제 '격', 소셜 마켓, 대구
예술가의 섬, CU 갤러리, 대구
6월 6인전, 에다소소 갤러리, 청도
김윤경, 이성경 2인전, DGB 갤러리, 대구
외 다수

수상 / 소장

2014 Saatchi Online Gallery 기획 'Spotlight on Asia',
'Artist of the Day' 선정작가
2013 한국감정원 대구사옥 미술장식품 공모 선정작가, 작품소장
2010 New York Direct Art Awards 수상
2009 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ng Beach M.F.A.
Drawing and Painting 과정 수석 입학

레지던시

2012-2013 가창창작스튜디오 11기 입주작가

sylvia1052@hotmail.com

2016 Ver. 3

김윤경&박보정

박 보 정 朴寶正 Park, Bojung

2003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서양화전공 졸업
2007 Tama Art University 미술연구과 서양화 전공 (M.F.A)
2010 Tama Art University 미술연구과 (Ph.D)

개인전

2015 자화상-박보정개인전, 갤러리 청춘, 대구
2014 HERE-박보정개인전, 수성아트피아, 대구
2013 렐레이 개인전2013, 가창창작스튜디오, 가창
2012 Kokoroame-II, GALLERY b.TOKYO, 도쿄, 일본
2011 박보정개인전- Kokoroame, GALLERY b.TOKYO, 도쿄, 일본
2010 박보정개인전, GALLERY b.TOKYO, 도쿄, 일본

단체전

2016 GLASS BOX ARTSTAR Ver.3 김윤경&박보정, 봉산문화회관, 대구
살며 예술하며,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2015 현대미술 조망,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하얀방-김윤경&박보정 2인전, 대구미술광장 갤러리, 대구
2014 특별기획 약동하는 힘, 웃는얼굴 아트센터, 대구
서울아트쇼, 코엑스, 서울
2013 국제레지던시 Inter-Dailogue, 가창창작스튜디오, 가창
2012 한 자리에 있는 두 시선-박보정/기라영 2인전, 봉산문화회관, 대구
Modern Impact in Esia, 갤러리 이시아, 대구
2011 드로잉이란 무엇인가, 갤러리 SIMON, 도쿄, 일본
2010 다마미술대학박사전, 타마미술대학미술관, 도쿄, 일본
향상 곁에 있는 시간, 오모테산도 화랑, 도쿄, 일본
2007 FOURSITE, ARIKA Art Site, 도쿄, 일본
2006 제15회 SATO국제문화 장학재단 예술가전, SATO미술관, 도쿄, 일본

수상

소우가전 입선, Tokyo Metropolitan Art Museum, 도쿄, 일본
제15회 아오키시게루기념대상전 입선, 이시바시미술관 외, 후쿠오카, 일본
Tokyo Wonder wall Award 2006 입선, Museum of Contemporary Art Tokyo, 도쿄, 일본
제42회카나가와현 미술전입선, 카나가와켄민 홀, 카나가와, 일본
제19회비하마미술전 입선, 후쿠이 현립미술관 외, 후쿠이, 일본
아사고비엔날레 입선, 아사고 예술의 모리미술관, 효우고, 일본
제20회 비하마미술전-후쿠이현 지사상, 후쿠이현립미술관 외, 후쿠이, 일본
제3회 미즈비시쇼우지 아트 게이트 프로그램 작품매입상, EYE OF GYRE이외, 도쿄, 일본

레지던시

가창창작스튜디오 13기 입주 작가

0338pj@hanmail.net

2016 Ver. 4

김 문 석 金文錫 Kim, Moonsuk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서양화전공 졸업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실내건축전공 수료

개인전

2016 GLASS BOX ARTSTAR Ver.4 김문석, 봉산문화회관, 대구
봉산문화회관, 대구
2014 봉산문화회관, 대구
2013 봉산문화회관, 대구
2003 cube C, 대구
1987 갤러리 THAT, 대구
Paper message '김문석 생활보기'

단체전

2016 또 다른 가능성으로부터, 봉산문화회관, 대구
2015 강정대구현대미술제, 강정보 디아크 광장 일원, 대구
1587전, 봉산문화회관, 대구
1537전, 스페이스 Bar, 대구
2014 6인전, 봉산문화회관, 대구
1988 대구 독립작가리그전, 인공갤러리, 대구
1987 '87 신진작가전, 청년미술관, 서울
'87 향방전, 수 갤러리, 서울
RECENT WORKS - 10 MEN, 대구백화점 갤러리, 대구
대구작가 4인전, 일 갤러리, 서울
대구 독립작가리그전, 태백화랑, 대구
2월의 만남전, 태백화랑, 대구
1986 4 in THAT, 갤러리 THAT, 대구
6인전, 중앙 갤러리, 대구
류준화 김문석 2인전, 갤러리 THAT, 대구
1984 한국미술대상전 수상작가전, 세종문화회관, 서울
1983 한국미술대상전, 서울외 4개도시

수상

1983 한국미술대상전 은상

011moonsuk@naver.com

2016 Ver. 5

이 규 홍 李圭烘 Lee, Kyouhong

2004 영국 에든버러 예술대학교 대학원 졸업(M.Des in Glass)
1999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졸업(B.F.A in Art& Craft)

개인전

2016 GLASS BOX ARTSTAR Ve.5 이규홍, 봉산문화회관, 대구
2014 Trace of Time, 갤러리 스클로, 서울
2010 Nature of Life, 갤러리 팔레 드 서울, 서울
2006 Nature of Life, The Glass House Hote gal ery, 에든버러, 영국

단체전

2016 S.O.F.A CHICAGO 2016, Navy Pier, 시카고
Affordable Art Fair, 홍콩컨벤션센터, 홍콩
현대 유리조형의 오늘, 석당미술관, 부산
2015 Contemporary Korean Glass Art, 갤러리 스클로, 서울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초청 전시, 청주
아름지기 기금마련 기획전, 아름지기재단, 서울
2013 10years Ann'versary Exhibition, 갤러리 스클로, 서울
2012 Illum'nated, Shinhwa gallery, 홍콩
2011 김준용 이규홍 2인전, 갤러리 스클로, 서울
2009 Three Artists from Korea, Cochrane Theatre gallery, 런던
2008 Contemporary Korean Glass, MAGA gallery, 북경
2006 S.O.F.A NEWYORK 2006, Amory hall, 뉴욕
New Works, 갤러리 스클로, 서울
2005 10th Korean Glass Works, Hilton Hotel ga lery,
아틀레이드 NEW DESIGNERS 2005,
Business Design Center, 런던

수상

2011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세라믹스공모전 심사위원상 수상
2009 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 지원작가 선정
2006 독일 코부르크 유리공모 입상 (Short-listed,
COBURG GLASS PRIZE 2006, Germany)
2003 영국 해들리 트러스트 재단 장학생 선정
(Headly Trust Grant- Headly Trust Foundation, UK)

레지던시

2005 에든버러 예술대학교(Edinburgh College of Art), 영국

작품소장

2016 금융감독원, 서울
2015 Alexander Tutsek-Stiftung 박물관, 뮌헨, 독일
2014 은행회관, 서울
2012 미술은행, 과천
2011 푸른저축은행, 서울
2010 도서출판(자음과 모음), 서울
2006 Kunstsammlungen der Veste 박물관, 코부르크, 독일
2005 Justin Moodie, 런던

g ass0914@hotma'l.com

2017 Ver. 1

정 승 혜 鄭丞惠 Jung, Seunghye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서양화 전공 졸업

개인전

2017 GLASS BOX ARTSTAR Ver.1 정승혜-달무지개,
봉산문화회관, 대구, 한국
2016 번뇌의 달은 모두 벌이 되리, 갤러리 이알디, 서울, 한국
2015 안녕, 무지개, 통인옥선갤러리, 서울, 한국
안녕, 무지개, 갤러리 분도, 대구, 한국
2012 온화함을 위한 차가운 벽, 봉산문화회관, 대구, 한국
2006 ①,②,③, 이기적 선착장, 쌈지마켓갤러리, 대구, 한국

단체전

2016 home table deco fair 2016-HOUSE OF FINN JUHL
SEOUL, COEX, 서울, 한국, 광주 아트버스 랩핑, 광주, 한국
2015 2015 AR - TOWNS 포트폴리오 리뷰 : 삼정동 폐소각장, 부천, 한국
소마 드로잉 - 무심, 소마미술관, 서울
애니마믹 비엔날레 2015-2016, 대구미술관, 대구, 한국
Digital Artexmoda 2015, 경북대미술관, 대구, 한국
2014 With Art, With Artist!, 갤러리 이레, 파주, 한국
2013 In wide-eyed innocence, 키미아트, 서울, 한국
뜻밖의 초대,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한국
2007 아트마켓 - 오만가지 미술 상상 3m,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한국
오픈스튜디오 페스티벌 - made in Daegu 봉산문화회관, 대구, 한국
2004 이미지, 오브제, 조형적체험, 대안공간 Space 129, 대구, 한국
The New New Generation, cube C, 갤러리 신라, 대구, 한국

수상

2015 2015 AR - TOWNS 포트폴리오 리뷰 작가선정, 삼정동 폐소각장, 부천
2014 2014 월간미술 New Face 100인 작가선정
2012 2012 소마드로잉센터 아카이브 등록 7기 작가선정,
소마미술관 드로잉센터, 서울
2012 2013 KIMI for you 작가선정, 키미아트, 서울

작품소장

대구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gumbagy@hanma'l.net

2017 Ver. 2

임 용 진 林勇辰 Lim, Yongjin

경북대학교 미술학과 조소전공 졸업 및 동대학원 재학중

개인전

2017 GLASS BOX ARTSTAR Ver.2 임용진, 봉산문화회관, 대구

단체전

2016 아시아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서울
달성, 조각으로꽃피다, 달성군청, 대구
경북조각회, 극재미술관, 대구
독도, 울릉도 워크샵,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 독도연구소, 대구
신진작가 기획초대전 Tactical Position, 무빙아트웍스갤러리, 대구
경북조각회, 전 갤러리, 대구
경기노동문화예술제,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수원
2015 샛마파람, 대구예술발전소, 대구
아지랑이, 갤러리 로, 대구

수상

2016 경기노동문화예술제,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수원

작품소장

Famer's Daddy, 광주
경기노동청본부, 수원
갤러리 로, 대구

ozzzo2@naver.com
https://ozzzo010.wixsite.com/yongjin

2017 Ver. 3

권 효 정 權孝貞 Kwon, hyojung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서양화전공 졸업

개인전

2017 GLASS BOX ARTSTAR Ver.3 권효정, 봉산문화회관, 대구
2016 Art&Artist Eoul Project 1 권효정, 북구어울아트센터, 대구
INTERSECTION, 조양갤러리, 대구
2015 어루만질 멸滅 믿고 의지할 치, 비영리전시공간싹, 대구

단체전

2017 Sencond Apri, 아트클럽삼덕, 대구
대구예술생태보감, 대구예술발전소, 대구
2016 싹, 숲을 이루다, 범어도서관 Gallery Ars' S, 대구
청년미술페스티벌, Artspace-GIANT, 영천
드로잉클럽, 아트클럽삼덕, 대구
살며예술하며, 대구문화 예술회관, 대구
신진작가초대展, 대구학생문화센터, 대구
2015 오픈스페이스배 '안녕예술가' a SAP, 낙타의부엌, 부산
Curriculum, 범어아트스르리트, 대구
시선 The Veiw, 범어아트스트리트, 대구
Real Peace, 아양아트센터, 대구
DEBUTANT S, Gallery sun, 대구

rgw5764@naver.com

2017 Ver. 4

이선희×정연지

이선희 李圭烘 Lee, Sunhee

충남대학교 예술대학 조소과 졸업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학과 입체미술전공 졸업 및 박사과정

개인전

2017 살아갈 날들을 위한 어제의 생각, 반올-살레, 서울
2016 삶에서 하늘을 보는 법, 인디아트홀 공, 서울
2014 너무나 많은 시작, 경기창작센터 상설전시장, 안산
2011 진부하지만 그것이 진심, 미술공간境, 서울
Can you hear me?, 청주 미술 창작 스튜디오, 청주
2010 위로의 방-weaving the real heart, 안국약품 Gallery AG, 서울

단체전

2017 GLASS BOX ARTSTAR Ver.4 이선희X정연지, 봉산문화회관, 대구
그림없는 미술관, 청주시립미술관, 청주
2016 직조의 시작 - 상상력의 교차로, 두드림작은미술관, 동두천
청년미술프로젝트 ' YAP2016, 엑스코, 대구
일주일 제주바다 레지던시, 비치코밍프로젝트, 반짝반짝지구상회, 제주
2015 불균형한 균형,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대전
2014 더브레인 프로젝트대전 2014(ArtST), 대전시립미술관 창작센터, 대전
인터체인지,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큐빅갤러리, 김해
무빙트리에날레 메이드인부산 가방프로젝트, 부산연안여객터미널, 부산
air & air 여행을 생각하다, 김해공항, 김해
어린이 꿈틀, 경기도미술관, 안산
스스로 버려지는 것은 없다, 통의동 보안여관 윈도우 갤러리, 서울

수상

2016 충북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시각예술부분 선정작가
2012 상반기 아르코미술관 전문가 성장 프로그램 (신진작가워크숍)
2010 (주)안국제약 갤러리 AG 선정 신진작가

레지던시

2016 대구예술발전소 텐토픽프로젝트 6기 입주작가
2015 테미창작센터 2기 입주작가
2014 클레이아크 김해 미술관 레지던시 입주작가
2013 경기창작센터 입주작가
2010-11 청주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sunhee_lee@naver.com

2017 Ver. 4

이선희×정연지

정연지 丁嬿枝 Chung, Yonji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및 도예유리과 졸업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동양화과 졸업 및 박사과정

개인전

2016 밤의 시간, 대안공간 아트스페이스오, 서울
2015 歸去來圖,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14 익숙한 풍경, 서울아트센터, 서울
2013 집으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
歸去來圖, 대안공간눈, 수원
歸去來圖, 충무로 영상센터 오재미동 갤러리, 서울
2012 歸去來圖, 숙명여자대학교 문신미술관, 서울

단체전

2017 GLASS BOX ARTSTAR Ver.4 이선희X정연지, 봉산문화회관, 대구
온건한 풍경, 최정아 갤러리, 서울
2016 Wing W'ng Wing, 대안공간 아트스페이스 오, 서울
뉴드로잉프로젝트, 장욱진미술관, 경기
2015 나비날다, 금호미술관, 서울
2014 시간의 향기, 금호미술관, 서울
대구 청년작가 프로젝트 YAP, EXCO, 대구
바람난 미술 ART Project, 서울문화재단, 서울
2013 여성작가날개달기,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
2012 서울, 일상의 초상, unofficial preview gallery, 서울
부산비엔날레 특별전 〈Outside of garden〉, 부산문화회관, 부산
2011 홍대 앞 다시보다,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울

수상

2015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시각예술부문 선정작가
2013 여성작가날개달기 선정작가

소장

외교통상부, 정부미술은행, 수원문화재단, 최정아갤러리, 공간화랑

레지던시

2016 대구예술발전소 텐토픽프로젝트 6기 입주작가
2014-2015 금호창작스튜디오 9기, 10기 작가

gogoyonji@hanmail.net

2017 Ver. 5

이 기 철 李基喆 Lee, Kichul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조소전공 졸업

개인전

2017 GLASS BOX ARTSTAR Ver.5 이기철, 봉산문화회관, 대구
2015 FAT PET series, 전 갤러리, 대구
개인사 박물관,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2014 FAT PET series, 문화공간 청춘 , 대구

단체전

2017 한국현대조각초대전, 춘천 mbc, 춘천
오늘의 미술-생존의 방식,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부산 바다 미술제, 다대포 해변 일대, 부산
동촌 조각축제, 아양아트센터, 대구
이머징 스타, 갤러리 소헌, 대구
yolo my life, 화성드림파크갤러리, 대구
조각스트리트전, 범어아트스트리트, 대구
컬러풀 대구, 2.28공원일대, 대구
2016 태화강 국제설치미술제, 태화강 일대, 울산
조각의 숲, 달서문화재단, 대구
비마이 러브 전, 롯데갤러리, 서울
행복한 하루 전, 갤러리 아르체, 서울
국제 조각페스타, 예술의 전당, 서울
오이타 국제 조각전, 분고오노 미술관, 일본
수창 1946-공간의 기억, 대구예술발전소, 대구
수창 1946-창생전, 대구예술발전소, 대구
블루오션 프로젝트, 울릉도-독도
2015 오타루 국제조각전, 오타루 시, 일본
The six sensibility, 오타루 시, 일본
조각의 내일 전, 코사아트스페이스, 서울
공존 전, 양평미술관, 양평
2014 개관10주년기념 Hello! Contemporary Art, 봉산문화회관, 대구
업사이클링 전, 현대예술관, 울산
조각을 묻다, 코사아트스페이스, 서울
대구청년작가프로젝트, exco, 대구
한국조각가협회 선정작가전, 이연주갤러리, 부산
달서문화재단 선정작가 전, 두류갤러리, 대구
아트열차프로젝트, 대구메트로, 대구
공공디자인 조형 설치 프로젝트, 범어아트스트리트, 대구

수상

2016 대구예술발전소 창작경연 선정작가
오이타 국제 조각 공모 선정작가
2015 대구문화예술회관 올해의 작가 선정
2014 대구문화재단 신진작가지원사업 선정작가
대구 미술대전 특선
2006 정수 미술대전 특선
2007 삼성현 미술대전 최우수

소장

대구시립미술관, 포항시립미술관, 용학도서관, 허브힐즈, 동제미술관
하슬라호텔 뮤지엄, 이시아폴리스 태왕아너스 타워,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단
달성군청, 북성로 공구박물관, 죽곡 청아람, 서울옥션 외

레지던시

2013 하슬라호텔 뮤지엄
2010 가창스튜디오

llkkc21@naver.com

2018 Ver. 1

홍 정 욱 洪貞旭 Hong, Jungouk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조교수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예술공학박사과정
M.F.A. in Painting, Slade school of fine art, UCL, London, UK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회화과 졸업
홍익대학교 회화과 졸업

개인전

2018 GLASS BOX ARTSTAR Ver.1 홍정욱, 봉산문화회관, 대구
2017 INFILL 소피스 갤러리, 서울
2016 inter:vestige, 스페이스 오뉴월, 서울
2013 in situ, 김종영 미술관, 서울
2012 -gon, GYM project, 서울
2011 co-, 가인 갤러리, 서울
2006 axis, 노암 갤러리, 서울
2005 avi-, 갤러리 pici, 서울
2003 ball of line, 룩스 갤러리, 서울

단체전

2017 이면탐구자, 경기도미술관, 안산
2017 Once upon a time,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서울
2017 AKUA ART SHOW, MOKA, 뉴욕, 미국
그 집, OCI 미술관, 서울
2016 별별동행, OCI 미술관, 서울 / 군산 예술의 전당, 군산 /
광양시문화예술회관, 광양 / 포항시립중앙아트홀, 포항
2015 Hesitation Form: 시작되면 사라질 것, 스페이스 오뉴월, 서울
망각에 저항하기, 안산 예술의 전당, 안산
cre8tive report, OCI미술관, 서울
Metaphysics, 한미 갤러리, 서울
inter-, BABEL, 트론헤임, 노르웨이
2014 VOYAGE: One day but the Eternal Now, LAMPLAB, 서울
open studio, OCI 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인천
공간을 점령하라, 아트스페이스 정미소, 서울
2013 openstudio 9 project, 국립현대미술관 고양창작스튜디오, 고양
Love impossible, 서울대학교 미술관, 서울
pop-up, 알파타워, 판교
intro, 국립현대미술관 고양창작스튜디오, 고양
2012 엄청나게 쓸모있는 예술공장실, 아트스페이스 휴, 파주
공장미술제, 어망공장, 장항
Sculpture al Fresco II, Great Fosters, 런던, 영국
아트로드77, 터치아트 갤러리, 파주
외 다수

수상

2013 김종영미술관 올해의 젊은조각가, 서울
2010 Guasch Coranty International Painting Prize 2010,
바르셀로나, 스페인 (finalist)
2009 New Contemporaries 2009, 런던, 영국 (finalist)
2004 제4회 송은미술대전, 서울 (입선)

레지던시

2015 LKV(Lademoen Kunstnerverksteder), 트론헤임, 노르웨이
2014 OCI 미술관 창작스튜디오
2013 국립현대미술관 고양창작스튜디오

whatiam13@naver.com
www.hongjung-ouk.com

2018 Ver. 2

박 경 제 朴京濟 Park, KyungJe

경북대학교 미술학과 서양화전공 졸업

개인전

2018 GLASS BOX ARTSTAR Ver.2 박경제, 봉산문화회관 대구

단체전

2017 이것은 예술이 아니다, 북성로 일대(플락), 대구
대구 아트페어 YAP '내 침대로부터 혁명', 엑스코, 대구
2016 거의 최초에 가까운 전시, 대구예술발전소, 대구

수상

2016 '거의 최초에 가까운 전시' 연합전 특별상, 대구광역시

PARKONOMY@naver.com

2018 Ver. 3

정 혜 숙 鄭惠淑 Jung, Hyesook

2006 파리국립미술학교(DNSAP), 프랑스
2001 파리-쎄르지 국립미술학교(DNAP), 프랑스
1998 계원조형예술대학, 한국

개인전

2018 GLASS BOX ARTSTAR Ver.3 정혜숙, 봉산문화회관, 대구
2017 도자기의 모양은 없다, 예술공간 서:로, 서울, 한국
2014 Draft,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한국
2013 Light_ CERAMIC,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김해, 한국
2012 DRAWINGS COLLECTION, 갤러리27, 의왕, 한국
2011 사유의 시간, 스페이스 함, 서울, 한국
2010 관찰, 이브갤러리, 서울, 한국
발굴& 발견, 신한갤러리, 서울, 한국
2009 오늘의 발견, UV House(헤이리예술마을), 파주, 한국
2006 A l'interieur- '안에서', (2006년주불한국문화원유망작가전)
파리한국문화원, 프랑스

단체전

2018 녹색호흡, 소나무갤러리, 안성, 한국
Un_ceramic, 한국문화원, 뉴델리, 인도
2017 제작의 미래, 대구예술 발전소, 대구, 한국
트로피칼 펀치, 모하창작스튜디오, 울산, 한국
수작: 먹고 사는 기예술, 경기청년창작캠퍼스, 수원, 한국
2016 발로리스 비엔날레, 발로리스, 프랑스
장생포테스트베드, 장생포, 울산, 한국
2015 GLASS BOX ARTSTAR Ver.4 Studio 1750+정혜숙,
봉산문화회관, 대구
자연미술레지던시성과보고전, 자연미술의 집, 공주, 한국
Beyond limitations,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김해, 한국
소마 드로잉:무심, 소마미술관, 서울, 한국
Nomadic Garden,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김해, 한국
수렴과 확산_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이천세계도자센터, 경기도, 한국
Earth Matter 2, 라리칼라아카데미, 첸나이, 인도
2014 깜깜한 낮,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한국
7개의 감각 8개의 감성,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한국
2013 Not A Ceramic, 스페이스K, 서울, 한국
2012 A.I.R,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김해, 한국

레지던시

2018 Public moments project 인도뉴델리 한국문화원
미술농장프로젝트_녹색호흡
2017 모하창작스튜디오
2016 장생포 테스트베드
2015 야투자연미술레지던시
Beyond limitations
노마딕레지던시 인도(첸나이)-한국
2014-15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A.I.R.
2013 경기국제도자비엔날레 멘토링캠프
2012-13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A. .R.

jung3hs@gmai .com

2018

Hello!
Contemporary Art

유리상자-아트스타11년 설치미술로부터

■참여작가 프로필

■전시소개

2018 Hello! Contemporary Art

유리상자-아트스타11년 설치미술로부터

Spot 1.

정 혜 숙 鄭惠淑 Jung, Hyesook

2006 파리국립미술학교(DNSAP), 프랑스
2001 파리-세르지 국립미술학교(DNAP), 프랑스
1998 계원조형예술대학, 한국

개인전

2018 GLASS BOX ARTSTAR Ver.3 정혜숙, 봉산문화회관, 대구
Hello! Contemporary Art Spot1. 정혜숙, 봉산문화회관, 대구
2017 도자기의 모양은 없다, 예술공간 서:로, 서울, 한국
2014 Draft,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한국
2013 Light_ CERAMIC,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김해, 한국
2012 DRAWINGS COLLECTION, 갤러리27, 의왕, 한국
2011 사유의 시간, 스페이스 함, 서울, 한국
2010 관찰, 이브갤러리, 서울, 한국
발굴&발견, 신한갤러리, 서울, 한국
2009 오늘의 발견, UV House(헤이리예술마을), 파주, 한국
2006 A 'interieur- '안에서', (2006년주불한국문화원유망작가전)
파리한국문화원, 프랑스

단체전

2018 녹색호흡, 소나무갤러리, 안성, 한국
Un_ceramic, 한국문화원, 뉴델리, 인도
2017 제작의 미래, 대구예술 발전소, 대구, 한국
트로피칼 펀치, 모하창작스튜디오, 울산, 한국
수작: 먹고 사는 기예술, 경기청년창작캠퍼스, 수원, 한국
2016 발로리스 비엔날레, 발로리스, 프랑스
장생포테스트베드, 장생포, 울산, 한국
2015 GLASS BOX ARTSTAR Ver.4 Studio 1750+정혜숙,
봉산문화회관, 대구
자연미술레지던시성과보고전, 자연미술의 집, 공주, 한국
Beyond limitations,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김해, 한국
소마 드로잉:무심, 소마미술관, 서울, 한국
Nomadic Garden,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김해, 한국
수렴과 확산_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이천세계도자센터,
경기도, 한국
Earth Matter 2, 라리칼라아카데미, 첸나이, 인도
2014 깜깜한 낮,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한국
7개의 감각 8개의 감성,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한국
2013 Not A Ceramic, 스페이스K, 서울, 한국
2012 A.I.R,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김해, 한국

레지던시

2018 Public moments project 인도뉴델리 한국문화원
미술농장프로젝트_녹색호흡
2017 모하창작스튜디오
2016 장생포 테스트베드
2015 야투자연미술레지던시
Beyond limitations
노마딕레지던시 인도(첸나이)-한국
2014-15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A.I.R.
2013 경기국제도자비엔날레 멘토링캠프
2012-13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A. .R.

jung3hs@gmai .com

2018 Hello! Contemporary Art

유리상자-아트스타11년 설치미술로부터

Spot 2.

한 호 韓鎬 Hanho

2007 프랑스 국립 파리 8대학 학사, 석사 박사준비 과정 수료

개인전

2018 Hello! Contemporary Art Spot2. 한호, 봉산문화회관, 대구
2017 영원한 빛, 천안예술의전당미술관 개인전, 천안, 한국
영원한 빛, 주)필리핀문화원초대전, 마닐라, 필리핀
2015 포스갤러리, 북경
충북문화재단 기획초대전, 숲 갤러리, 청주
2011 영원한 빛, 텐리갤러리, 뉴욕, 미국
2010 영원한 빛, 공갤러리, 북경, 중국
1998-2018 21회 파리, 뉴욕, 북경, 서울, 마닐라 개인전

단체전

2018 "Chaos&Silence" 루카 국제비엔날레, 이탈리아 루카, 이탈리아
PAPER MOON, 그리스 크레타 현대미술관, 크레타, 그리스
AT MUSEUM, 성남아트센터 큐브 미술관, 성남, 한국
스포츠와 예술늘이, 양평미술관특별기획전, 양평, 한국
2017 비욘드네이쳐, 파크뷰갤러리, 홍콩
대구인택트, 대구문화예술회관미술관, 대구, 한국
종이조형전, 뮤지엄산, 원주, 한국
청춘이 청춘에게 전함, 포스코미술관 특별기획 초대전, 서울, 한국
바코드, 양평미술관, 양평, 한국
미디어아트 인 울산, 울산문화예술회관미술관, 울산, 한국
다빈치코덱스전, 서울역 역사박물관, 서울, 한국
2016 Technology in Contemporary Art
유네스코세계본부호안미로홀, 파리, 프랑스
코스모스 프로젝트대전 2016, 대전시립미술관, 대전, 한국
LUM NESCENCE 뉴욕 아시안 아트위크 기획초대전 실비아앤, 포김갤러리, 뉴욕, 미국
2015 베니스비엔날레특별전-개인의 구조물전, 팔라조벰부미술관, 베니스, 이탈리아
옐렌비탈, 평창국제비엔날레, 아펜시아아트센터, 평창, 한국
Trio Biennale 2015, Centro Culture Banco do Brasil, 리우, 브라질
2014 아시아현대미술초대전, 송주앙미술관, 송주앙, 중국
물-천진난만소마미술관10주년기념전, 소마미술관, 서울, 한국
우루무치국제비엔날레, 신장, 중국
놀이의 찰라, 창원아시아현대미술제, 창원, 한국
2013 2013 드로잉비엔날레DMZ, 파주, 한국
새로운 영혼, 하워드갤러리, 런던, 영국
2012 판아시아국제퍼포먼스페스티발, 문래예술공장, 서울, 한국
광주국제미디어퍼포먼스페스티발, 광주비엔날레, 광주, 한국
자연의 소리, 금강국제자연비엔날레, 공주, 한국
2011 놀이의 순간-해외작가초대전예술의전당기획, 한가람미술관, 서울, 한국
골드익스피리언스-국제교류전, 나고야갤러리, 교토, 일본
소피아국제종이비엔날레, 불가리아국립현대미술관, 소피아, 불가리아
2010 핑야오국제페스티발, 핑야오국립현대미술관, 핑야오, 중국
2009 Empty area of Alie, 전아쿠아조라바카박물관 빌하우스초대전, 뒤셀도르프, 독일
2008 이방인의 빈방-YELLOW WAKER, 허치슨갤러리, 뉴욕, 미국
2007 한,중,미 국제교류전-송주앙시샤오푸이잔 미술관 개관기념전, 북경, 중국
2005 hype galery 특별기획전-팔레도쿄, 현대미술관, 파리, 프랑스
2004 프랑스현대미술 국제비엔날레, 프랑스
외 다수

퍼포먼스 -타천

2018 봉산문화회관, 대구
2017 ACAW 뉴욕 아시아 현대미술제
유네스코 세계본부, 파리 / 필리핀 마닐라 한국문화원
2016 대전시립미술관 / 인도뉴델리 한국문화원
2015 베니스비엔날레 특별전오프닝 퍼포먼스
브라질 트리오비엔날레 오프닝 퍼포먼스 / 평창비엔날레
2014 창원아시아 현대미술전
2013 팬아시아 퍼포먼스 페스티발
광주비엔날레 퍼포먼스 페스티발
2011 뉴욕 텐리갤러리 오프닝퍼포먼스

레지던시

국제아트레지던시프로그램 환티에, 공화랑, 포스갤러리, 북경, 중국
시테유니버시티 인터테셔널레지던시 프로그램, 파리, 프랑스
브룩클린 덤보아트레지던시, 뉴욕, 미국

수상

프랑스 국립몽후즈특별상
소피아국제종이비엔날레 문예진흥기금선정
소마미술관 2013년 드로잉 선정작가
금강자연비엔날레 선정작가
DMZ헤이리 드로잉 비엔날레 선정작가
2015 베니스 비엔날레 특별전후원 문화예술위원회 여성 가족부기금선정
2016 유네스코호안미로홀 초대전 문예진흥기금수여
2018 이탈리아 루카비엔날레 선정작가

콜렉션

뉴욕 록펠러파운데인션 뉴욕, 그리스 크레타현대미술관,
불가리아 내셔널갤러리 미술관
뉴욕 알파운데이션, 뉴욕 텐리파운데이션, 파리 정현문화재단,
파리 21세기신개선문미술관

hanhodream@gmail.com
www.hanhoart.org

2018 Hello! Contemporary Art

유리상자-아트스타11년 설치미술로부터

Spot 3.

정 지 현 鄭址懸 Cheong, Jihyun

2005 영남대학교 조형대학 한국회화과 졸업
2012 영남대학교 조형대학 일반대학원 한국회화과 졸업

개인전

2018 Hello! Contemporary Art Spot3. 정지현, 봉산문화회관, 대구
'그 사람들' 장두건 미술상 수상작가전, 포항시립미술관, 포항
2017 think art korea 선정작가전-무명의 사건들, 포네티브스페이스, 파주
2015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 청년작가초대전-빛,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2013 오브제속에 담긴 풍경, 청주창작 스튜디오, 청주
올해의 청년작가 초대전, 문화예술회관, 대구

단체전

2018 또 다른 영역 – '나' 그리기, 봉산문화회관, 대구
2017 영남청년작가전 '봄의 제전',포항시립미술관, 포항
2016 the great artist, 포스코 미술관, 서울
중앙미술대전 선정작가전, 세종문화회관, 서울
누구에게나 시선은 열려있다, 아트센터 화이트 블럭, 파주
2015 청년미술 프로젝트 YAP' 15 'The twinkle world', EXCO, 대구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 청년작가 초대전 '빛' 2015, 광주
무심, 소마미술관, 서울
구름과 비행, 대전시립미술관, 대전
realism interface, 석당미술관, 부산
2014 틀, 시선의 차이,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다방, 서울

레지던시

2013~14 청주창작스튜디오
2012~13 가창창작스튜디오

수상

2017 장두건 미술상 수상
2016 포스코 미술관 'The Great Artists' 선정작가
제38회 중앙미술대전 선정작가
2015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 청년작가 초대전 선정작가
2014 대구문화재단 신진예술가 지원사업 선정
2013 SOMA 드로잉 센터 아카이브 등록 작가

britz7979@hanmail.net

2018 Hello! Contemporary Art

유리상자-아트스타11년 설치미술로부터

Spot4.

김 재 경 金宰炅 Kim, Jaekyung

1992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서양화전공 졸업

개인전

2018 Hello! Contemporary Art Spot4. 김재경, 봉산문화회관, 대구
2017 울플랫폼 릴레이전 ARTIST10 '산책', 움갤러리, 영천
2016 산책, Space129, 대구
2014 새로운 세계, 프로젝트 B 갤러리, 범어아트스트리트, 대구
2011 나비, 교동아트스튜디오 갤러리, 전주
2009 감정의 층, 봉산문화회관, 대구
2005 대구현대미술가협회기획 작가 발굴전,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환갤러리, 대구
2000 Space129, 대구

단체전

2018 성장,通 프로젝트, BEYOND1, 어울아트센터 금호갤러리, 대구
리스토어 범어 '위로', 범어아트스트리트, 대구
부안아트페스타, 부안
여성, 예술을 말하다. 웃는얼굴아트센터, 대구
공간&소통展, 범어아트스트리트 스페이스5, 대구
또 다른 영역 - '나' 그리기, 봉산문화회관, 대구
2017 100마리 '犬公' 남시오展, 아양아트센터, 대구
글로벌 아트콜라보 엑스포, 코엑스, 서울
아트위크 "Art night in BUAN", 휘목미술관, 부안
Buy, 예술가의 방, 신세계백화점갤러리, 대구
Beautiful life, 코트라 아트콜라보 전시관, 서울
그래피티+들여다보기, 범어아트스트리트 스페이스4, 대구
대구, 몸 그리다.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영남전, 부산문화회관, 부산
Sweet House, space129, 대구
세 개의 달, 예술전용영화관 동성아트홀,
대구 / 정수화랑, 서울 / 휘목미술관, 부안
꿈나무 올타리전, 정읍시립미술관, 정읍
화! 화! 화! 展, 아양아트센터, 대구
백수연전람회 협업 -떠다니다. B커뮤니케이션, 대구
정유년 복을 담다, 웃는얼굴아트센터, 대구
2016 원블던라이프 드로잉쇼 인 제주, 문화충전소 빳데리, 제주
대구현대미술축제 봉산아트길, 갤러리오늘, 대구
2015 히든트랙, 범어아트스트리트 스페이스4, 대구
대구현대미술-예술 도시에 서다,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동촌에서 아양기찻길까지, 아양아트센터, 대구
2014 Ten-Topic Festa, 대구예술발전소, 대구
살며 예술하며,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Ten-Topic Projet 합동 프로그램, 대구예술발전소, 대구
2013 사방팔방전, 이상숙 갤러리, 대구
대구현대미술-함께 움직이다, 북구문화예술회관, 대구
Dig'tal ARTEXMODA 제3의 공간-일상의 오브제,
경북대학교미술관, 대구
2012 ART STUDIO NETWORK2012, 봉산문화회관, 대구
MODERN IMPACT IN ESIA, 이시아 갤러리, 대구
2011 진경의 맥-영남의 청년작가전, 포항시립미술관, 포항
드로잉파티 "Tell me more", 메트로 갤러리, 광주
2010 차세대 여성작가展,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Fast, Slow, Unmoving -Art show, 지하철 중앙로역, 대구
2009 GOSTOP, Kultur Bahnhof Eller, 뒤셀도르프, 독일

레지던시

2013 Ten-Topic Projet, 대구예술발전소, 대구
2011 구목창작스튜디오, 마산
2010 교동아트스튜디오, 전주
2009-2010 가창 창작스튜디오, 대구

수상

2016 개인예술가창작지원사업, 대구문화재단
2009 대구시 기초예술진흥기금 젊은작가 지원기금

slobbie2@hanmail.net
http://slobbie2.blog.me

전시소개

유리상자-아트스타11년 설치미술로부터, 원림園林

'Hello! Contemporary Art'는 동시대성의 참조와 이해를 기반으로 서로 다른 개별적 감성들의 시각적 축적을 선보이면서 세계 인식을 상호 연결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설계한 전시이다. 올해 전시 "2018 Hello! Contemporary Art : 유리상자-아트스타11년 설치미술로부터"는 야외설치 미술의 실험성에 주목했던 "2017 Hello! Contemporary Art - 야외설치 1977로부터"展, 지난 2014년 비디오아트의 실험성에 주목했던 "Hello! Contemporary Art - 실험정신1978로부터"展 등을 비롯하여 동시대미술의 중요한 가치들을 되새기는 다른 전시들처럼, 이제 11년을 넘긴 '유리상자-아트스타' 설치미술 전시의 실험성과 역사성, 그리고 그 에너지의 파급력에 주목하고, '설치미술'의 몇 가지 면모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려는 전시이다.

봉산문화회관은 2004년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동시대 미술의 실험정신과 새로운 흐름을 소개하기위해 다양한 전시를 지속적으로 개최해왔고, 현재까지 그 가치에 관한 신뢰의 폭을 점차 넓혀가고 있다. 미래를 위한 가능성이 돋보이는 젊은 예술가들의 작품에서부터 미술사적 가치가 매겨진 역사적인 작품의 전시에 이르기까지 지난 시간의 전시 성과들은 다양한 층위를 갖는다. 그러나 아쉽게도 동시대 미술에 대한 일반 대중의 관심과 이해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그로 인해 공공분야에서 동시대 예술의 활성화를 지원해야하는 봉산문화회관의 역할을 다시 주목하는 것도 마땅한 일이다. 전시의 명제 'Hello! Contemporary Art'에 스며있듯이, 우리가 예술분야에서 진정 해결해야할 과제는 동시대성의 공유와 대중과의 상호 소통, 즉 서로간의 공감과 호흡일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난 2014년 봉산문화회관의 개관10주년 기념 전시로 '야생 서식지'를 떠올렸던 미디어아티스트 류재하와 조각가 이기철의 야외설치와 실내전시, 영상 등을 함께 소개했던 "Hello! Contemporary Art - 실험정신1978로부터"는 실험적인 동시대미술을 향해 반가워하는 관객의 손짓이며, 동시에 관객과 친숙해지려는 미술의 적극적인 접근 방식이다. 이 전시를 시작으로, 야외광장에 비닐 물주머니 3600개를 설치한 홍순환과 나무 조각으로 조성한 실내정원을 선보였던 조각가 김성수에 의해 진행했던 2015년 Hello! Contemporary Art 전시, 컴퓨터 부속품으로 사이버 야외정원을 설치한 리우와 실내에 조성하는 협력정원을 주제로 영상, 소리, 미디어 작업을 소개했던 권혁규, 김형철, 서상희 3인의 2016년 Hello! Contemporary Art 전시, 자연에 대하여 '실험정신'을 싹틔우는 인간의 터전이란 의미로서 '정원庭園'을 염두에 두었던 권혁규, 김형철, 서상희 3인의 야외전시와 실내 정원의 현대적 의미를 생각하게 했던 박정기와 도심의 에스컬레이터를 무지개 폭포로 은유한 정재범의 실내전시 등 2017년까지의 'Hello! Contemporary Art' 전시는 동시대 예술의 공감과 소통을 위한 시각예술 실험의 기록 흔적일 것이다.

이어서, 동시대 설치미술의 일면과 예술가의 실험적 태도를 소개하는 올해 2018년 전시는 인간의 '실험정신'을 싹틔우는 자연 터전이란 의미를 염두에 두고 '원림園林'을 상상하고 있다. 집터에 딸린 뜰, 숲, 혹은 공원의 수풀을 이르는 '원림'은 인위적인 조경작업을 통하여 분위기를 연출한 주택의 '정원'과는 다르게, 교외에서 동산과 숲의 자연스런 상태를 그대로 조경대상으로 삼아 적절한 위치에 인공적인 조경을 삼가면서 더불어 집과 정자를 배치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선호하는 장소개념이다. 인공적으로 가꾼 정원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숲이 간직한 본성적 가치를 알아채고 그 자연스러움에 이끌려 그 곳에 머무르고 싶어 한다면, 그 곳은 원림을 상상할 수 있는 곳이다. 혹시, 일상적인 도시의 전시공간에서 삶과 예술에 대한 질문을 접하는 '설치미술'이 이러한 '원림'을 상상하는 가능성과 연결될 수 있을까?

한편, 이번 전시의 부제로 서술한 '유리상자-아트스타11년 설치미술로부터'는 4개의 벽면이 유리로 구축된 '유리상자' 공간을 실험성 강한 특정 전시공간으로 설정하고, 오랜 기간 동안 설치미술의 형식과 내용에 대하여 다양한 담론을 생성하고 실험적인 실천들을 지지해왔다는 사실을 강하게 드러내려는 장치이다. 또한 이 전시는 정형화된 평면과 입체 작업의 경계 또는 공간의 한계를 확장하여 자연 상태의 경변 모래벌판과 숲에서 해프닝 행위를 시도했던 이전 세대 미술가들의 태도를 떠올리듯, 야외광장과 거리, 몇 개의 전시공간을 드나들며 대중과의 소통과 동시대성의 실마리를 '실험정신'에서 찾으려는 신체행위의 현재적 기록들을 대변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 전시는 야외 공간인 'Spot1'과 실내 공간인 'Spot2, 3, 4, 기록전시'의 경계를 드나들며 대중을 향한 예술 소통 인터페이스의 확장과 우리시대 예술의 다양한 실험성들을 소개하려는 장이라 할 수 있다.

올해, 이 전시를 지탱하는 '유리상자-아트스타11년 설치미술의 기록'과 'Spot1.정혜숙', 'Spot2.한호', 'Spot3.정지현', 'Spot4.김재경'의 미술적 태도에 관련된 '원림'의 설계는 세계 혹은 우리 삶의 현재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자연스러운 상태를 그대로 주변 숲으로 삼아 인공적인 조경을 삼가면서 적절한 위치에 배치配置하여 머무르며 기록記錄하고 감상鑑賞하는 '명원名園'의 상상에 관한 것이다.

정혜숙의 Spot1 설계

1층 야외광장에 설치한 정혜숙의 '필리핀 버드'는 봉산문화회관에서 주관하는 '야외설치2018 전시공모'에 선정된 작업이며, 도시생활에서 잊고 지낸 자연, 원림의 일부를 생각해보는 휴식공간과 연계활동, 설치작업 등으로 설계되어 있다. 거리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낯선 새 소리를 따라 광장에 설치한 몽골 텐트 '게르'를 방문하여, 자연스럽게 필리핀에서 이주한 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참여 활동을 하면서 잊었던 자연의 존재를 상기하도록 하는 관객 참여와 관계형 설치미술이다. 또 2층의 '유리상자-아트스타'에서 새가 없는 새의 휴식처를 선보이는 작가의 다른 작업 '조감도鳥感島'와 광장에서 2층을 연결하는 1층 출입구에 사람을 품을 듯한 거대한 비둘기의 가슴 털을 연상시키는 수백 가닥의 비닐 끈이 바람에 흩날리도록 설치한 이색적인 연결 통로, '무제'를 연계하여 감상할 수 있어서 흥미롭다.

한호의 Spot2 설계

한호의 '영원한 빛-천지창조'는 빛을 통한 인간과 자연의 매개 행위이며, 천장이 높은 3전시실 내부 공간 전체에 그려진 빛 그림이 서서히 움직이도록 설계한 키네틱 아트이다. 80㎝크기 공의 표면에 타공한 별과 새, 나비, 물고기, 동물 등 꿈의 이미지는 공의 내부에서 발광하는 광원과 전기모터의 느린 회전력에 의해 현실에서 탈출하는 상황처럼 반복적인 꿈의 환영으로 벽과 바닥, 천장에 발현된다. 이 작업은 천지창조에 관한 빛과 시간, 공간의 조직을 통하여 인간 삶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기억과 꿈과 현실의 해석을 환영적인 공간 상태에서 은유한다. 작가는 어두운 작품 공간 속으로 관객이 입장하여 그 속을 이동하며 몰입 상황에 처하는 방식의 설치미술을 제시하면서, 관객 자신이 작품의 일부이고 우주세계의 일부라는 존재적 인식을 깨닫게 하고, 이를 통하여 오랜 인류의 사유와 심상, 문명, 삶과 죽음의 변화가 이어지는 역사 속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파노라마적 사유의 시각화를 설계한다.

정지현의 Spot3 설계

1전시실에 선보이는 정지현의 평면 회화는 우리 주변의 일상 풍경과 몸짓의 형상을 통하여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고단하고 치열한 삶의 단면을 담고 있다. 작가는 생존을 위해 시위하는 시골 노동자들의 몸짓에서 일상적인 농업 노동자의 행위와 태도를 발견하고 그 부적절하고 세련미 없어 보이는 상황을 최근작 '그 사람들 ver2-불편한 기술' 시리즈로 그려 소개한다. 그리고 자연의 장소에 배변하는 행위를 그린 'the maker', 노동 행위에 주목한 '건초더미를 들고 있는 사람', 일상풍경을 시리즈로 다룬 '무명의 사건들' 등 30여점의 회화를 함께 선보인다. 그는 어떤 장소와 사건, 특정 행위에 주목하면서, 배경이나 상황, 행위의 맥락을 분리, 삭제, 변경하는 방식의 목탄 혹은 연필 드로잉을 통하여, 일상 풍경의 선입견 뒤에 감추어진 생경한 시각을 감지하도록 설계한다. 정지현의 드로잉과 회화를 살펴보면 공간드로잉 혹은 설치미술로 구현될 수 있는 연극적 상황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설치미술처럼 장소와 사건, 행위가 엿보이면서도 선택적 시선을 담은 작가만의 회화 태도라고 이해할 수 있다.

김재경의 Spot4 설계

2전시실에서 만날 수 있는 김재경의 작업 '산책'은 '평면회화의 드로잉으로부터 설치미술' 혹은 '설치미술로부터 드로잉'으로 상호 전환하고 개입하는 방식으로 설계하는 행위의 흔적이다. 작가가 우리에게 전하려는 '산책'은 동네의 작은 자연공원을 비롯하여 일상의 장소와 새로운 세계의 경험, 새로운 사람, 책속의 시공간을 몸과 마음으로 걸으며 내면의 자유로운 정신과 만나고 확장된 크기의 새로운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행위이다. 그 행위에는 일상의 여유와 자연 풍경에서 접할 수 있는 내면의 즐거운 감수성이 함께한다. 산책길에서 만나는 '날개가 달린 사람', '걷는 사람', '개 혹은 고양이', '새', '집', '쉼표 또는 말풍선' 등 자신의 평면 그림에서처럼 공간에서의 설치미술 구성요소로 등장하는 이미지와 글들은 자연을 가까이 하는 원림의 풍경처럼 보이고, 작가는 관객이 그 풍경 안에서 즐겁고 편안한 휴식을 취하도록 설계한다.

유리상자-아트스타11년 설치미술 기록

2층 로비 벽면에 설치한 70점의 설치미술 전시기록 이미지는 지난 2007년부터 2017년, 더 정확히는 2006년 말부터 2018년 현재까지 아트스페이스의 '유리상자' 전시에 참가했던 작가들의 태도들을 기억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설치미술 전시의 장면을 기록하는 설계이다.

유리상자의 첫 번째 전시는 2006년 12월 21일부터 2007년 1월 20일까지 진행했던 영상설치미술전시이며, 현대무용, 연극, 모노드라마, 힙합, 마임 등 작고 소박하지만 차별화된 6가지의 장르를 복합적으로 소개하는 "2006 도시 소문화 살리기 프로젝트-유리상자" 프로그램의 일환이었다. 회관의 개관 당시 아트숍으로 사용하던 공간이 용도가 폐기된 채 방치되어 있다가 이 공간 안에 경북대디지털아트컨텐츠연구소의 류재하와 젊은 미술가들이 레이저와 모니터를 사용하여 설치한 '빛으로 그린 도시인의 꿈과 삶'이라는 전시가 유리상자의 첫 번째 전시인 것이다. 이때 처음 사용했던 '유리상자GlassBox' 명칭은 유리로 사방이 둘러싸여있고 보석같이 소중한 작품들을 담아 보여준다는 의미로 명명하였으며, 봉산문화회관 2층에 위치한 전시 공간 'ART SPACE'의 별칭으로 지금까지 부르고 있다. 그 다음, 2007년 3월 27일부터 4월 21일까지 개최된 "2007 도시 작은 문화 살리기 프로젝트, 유리상자"의 '하광석-영상미술 스튜디오'는 '미술창작스튜디오 만들기'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젊은 미술가의 작업현장을 들여다보려는 형태로 시도한 영상설치미술 전시였고, 그해 5월 5일부터 6월 21일까지 진행했던 '박지현-미술놀이, 생일이야기'는 퍼포먼스 형태의 관객 참여형 설치미술 전시였다. 그 이후, 같은 해 9월부터는 전시공모를 통하여 설치미술을 소개하기 시작했다.

2007년도에는 'Ver.9 하지원 & 이소연-soya와 haji의 스튜디오', 'Ver.10 김지훈-김지훈의 스튜디오를 들여다 보다', 'Ver.11 김영희-유치찬란한 영희의 스튜디오', **2008년도**에는 'Ver.1 이장우-호접몽', 'Ver.2 정민제-원더랜드', 'Ver.3 한유민-光大', 'Ver.4 정세용-Flying Machine', 'Ver.5 신경애-neutral', 'Ver.6 강윤정-Draw-Crevice', **2009년도**에는 'Ver.1 조용호-ECHO', 'Ver.2 김정희-세제곱', 'Ver.3 권남득-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Ver.4 허남준-Art star mirror ball', 'Ver.5 로리킴-Rising Dreams', 'Ver.6 이상현-기억 잡기', 'Ver.7 정재훈-White out', **2010년도**에는 'Ver.1 하원식-조각난 풍경', 'Ver.2 정은기-하늘 놀이', 'Ver.3 손영복-Colorful palace', 'Ver.4 김소영-환(環)이 만들어내는 환(幻)', 'Ver.5 김현-Dice Cast Dice Cast', 'Ver.6 김미련-Monumental Aircoat in Glassbox', 'Ver.7 이준욱-A Vehicle', **2011년도**에는 'Ver.1 김홍기-꽃', 'Ver.2 장미-M Artist Room', 'Ver.3 김칠환-내가 생산한 것+사람들이 생산한 것', 'Ver.4 강민정-Happy Skin Studi O', 'Ver.5 조경희-Blindly', 'Ver.6 이시영-Becoming birds', 'Ver.7 김승현-House is not a home-series 'empty'', **2012년도**에는 'Ver.1 정기엽-유리 물 안개 소리', 'Ver.2 최수남-허물을 벗다', 'Ver.3 박정헌-aA : from art to Architecture', 'Ver.4 권재헌-매달린 소', 'Ver.5 이지영-Framing_Reflected Reality', 'Ver.6 김안나-Out/In the Universe', 'Ver.7 윤동희-망령', **2013년도**에는 'Ver.1 백장미-RE:BORN(The solid city)', 'Ver.2 신강호-Link', 'Ver.3 전새봄-현묘(玄妙)한 집', 'Ver.4 이재호-모여라 꿈동산', 'Ver.5 서상희-그곳, 집', 'Ver.6 우재오-나를 위한 위로', 'Ver.7 이소진-어느...파쿤의 성', **2014년도**에는 'Ver.1 로미아키투브-Memory's Stain 기억의 흔적', 'Ver.2 배문경-Cloned me', 'Ver.3 Rohan-우리 인생의 특정 시점에 특별한 영향을…', 'Ver.4 서성훈-반야월 4.0 LIVE', 'Ver.5 정혜련-연쇄적 가능성 Serial possibility', **2015년도**에는 'Ver.1 최선-자홍색 회화', 'Ver.2 홍희령-나는 모르는 일이오', 'Ver.3 이창진: 수평-Water always find it's own lever', 'Ver.4 Studio1750+정혜숙-Flower Juice', 'Ver.5 오지연: 감정세포-아름다운 짐', **2016년도**에는 'Ver.1 이지현: dreaming book-바다', 'Ver.2 제이미리-여름 소나기', 'Ver.3 김윤경 & 박보정-하얀방White Void Room', 'Ver.4 김문석: 無題-허공에 붓질을 걸다', 'Ver.5 이규홍-Silence in Nature자연의 침묵', **2017년도**에는 'Ver.1 정승혜-달무지개 Moonbow', 'Ver.2 임용진-기록, 캐스팅', 'Ver.3 권효정-Oasis: Fountain of life', 'Ver.4 이선희×정연지-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Ver.5 이기철, 토끼시대-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2018년도**에는 'Ver.1 홍정욱-nor', 'Ver.2 박경제-345kV', 'Ver.3 정혜숙-조감도鳥感島' 등 현재까지 67건의 유리상자 전시를 진행했고, 그 전시기록들을 벽면전시 형태로 살펴볼 수 있다.

2007년부터 시작하여 지난해로 11년째인 유리상자 전시는 '스튜디오', '아트스타'라는 부제와 함께 진행되었으며, 4면이 유리라는 공간의 장소특수성을 고려하여 공간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내부를 들여다보는 관람방식과 도심 속에 위치해있으면서 어느 시간이나 상시적으로 전시를 관람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시민의 예술향유 기회를 넓히는 데 기여하고,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예술가들에게는 특별한 창작지원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전시의 주된 매력은 톡톡 튀는 발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젊은 예술가의 실험성을 가까이 느껴 볼 수 있는 '설치미술'이란 점이다. 유리상자 장소를 해석하고 그 공간에 맞게 설계한 다양한 면모의 유리상자 설치미술 작업들은 패기 있는 신인작가의 파격과 열정을 느끼게 해주는, 그야말로 설치미술의 쇼케이스라고 지칭할만하다.

이번 전시에서 언급하는 '원림'으로서 정원庭園의 기억은 1977년 4월30일 시민회관에서 개최된 "제3회 Contemporary Art Festival DAEGU" 전시의 야외 특별 전시로 5월1일 진행했던 '낙동강 강정 백사장'에서의 해프닝, 이벤트를 기점으로 현재에 이르는 대구의 실험미술Contemporary Art, 특히 야외 설치와 설치미술 행위의 일면을 소개하며 '자연'과 인간의 '예술 행위'가 만나는 의미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어, 박현기가 강변에 늘어선 포플러 나무 몇 그루의 그림자를 횟가루로 그린 '무제'는 오랜 시간 보존할 수 있는 캔버스 그림보다는 비바람과 사람들 발자국으로 쉽게 지워져 버릴 그림의 생명이 더욱 강렬할 것이라 생각하는 작가의 태도를 반영한다. 또 이강소가 넓은 모래 바닥에 구두를 벗고 상의와 넥타이, 와이셔츠, 양말을 일렬로 벗어 놓은 채 직경 5m의 모래성을 쌓아 올린 작업도 일상과 다른 자연의 상태에서 다른 차원의 시각과 상황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문범의 '긴 천 이벤트', 정재규의 모래톱 평행선 긋기와 이종윤, 장성진, 이상남, 백미혜, 최병소의 다양한 신체 행위들을 당시의 신문과 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1977년 야외설치 행위의 상세 내용은 2004년 대구문화예술회관 발행한 "대구미술 다시보기" 전시도록과 2016년 민속원에서 펴낸 "강정대구현대미술제" 도서를 참고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전시는 지금, 여기로 이어지는 설치미술 관련 태도의 연결 기반이 '실험'과 '자연', '신체행위', 직접적 경험으로서 '몰입'이며, '실험'을 생육해온 '서식지'로서 이곳 지역과 장소를 다시 기억하고, 1977년의 야외 실험정신과 당시 미술가들이 전시공간의 경계를 확장하여 대중과 함께하려는 시도에 관한 현재적 연결성을 가늠하며, '또 다른 가능성'으로서 우리시대 실험미술가의 '태도'에 대한 기대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평면회화의 그리기와 입체공간에서의 그리기를 관련지어, '정지현의 Spot3 설계'에서 회화 형식과 '김재경의 Spot4 설계'의 설치작업을 통하여 회화로부터 기인하는 설치미술에 대한 접근과 기초적 해석을 시도하였고, '유리상자-아트스타11년 설치미술 기록'을 통하여 관객의 몰입과 참여 형식의 설치미술 이전단계에서 공간 드로잉 성향의 실험적인 설치미술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설치미술 전시를 통하여 주목해야할 정혜숙, 한호, 정지현, 김재경의 태도는 세계와 인간 정서에 대한 관계, 몰입과 놀이, 자연성自然性의 은유, 형식의 실험과 탐구 그 사이에서의 부조리不條理를 꿰뚫는 직관적 인식을 시각화하여 동시대미술의 소통 가능성과 지평을 확장시키려는 탁월성이다. 따라서 이러한 작가들의 설계에 대한 공감 시도는 과거에 이어 새롭고 명확해질 동시대의 사실적인 어떤 순간을 위한 우리의 'Hello!'일 것이다.

-봉산문화회관큐레이터 정종구-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2018 Hello! Contemporary Art

유리상자-아트스타11년 설치미술로부터

2018. 7. 20. Fri – 8. 11. Sat
Bongsan Cultural Center 야외광장 및 1~3전시실

주최 봉산문화회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ts Council Korea
주관 봉산문화회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The Korean Cultural & Arts Centers Association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참여작가 김재경, 정지현, 정혜숙, 한 호
기획&진행 정종구
진행지원 김영숙, 이시원
연계워크숍 에듀케이터 신재희, 이기선, 김동앵, 김민지, 박지현, 임은경
사진 이경윤
디자인 LeeNu Disign

발행인 대구광역시중구청장 류규하
발행처 봉산문화회관
편집인 봉산문화회관장 정연희
행정총괄 전시공연담당 전정현, 관리운영담당 김창식
행정지원 김선창, 조이순, 이정희, 최수정, 이현희, 박경호, 류소연
정연덕, 진은경
발행일 2018. 8. 11
발행부수 500부

Copyright© 2018 BONGSAN CULTURAL CENTER

본 자료집은 봉산문화회관의 기획으로 제작&발행되었습니다.
본 자료집에 실린 글과 도판은 봉산문화회관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집과 전시는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2018문예회관 전시 기획프로그램 사업의 일환으로 문예진흥기금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받았습니다.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 CIP2018023968)

BONGSAN CULTURAL CENTER
#77, Bongsanmunhwa-gil, Jung-gu,
Deagu, Republic of Korea
t.053 661 3500 f.053 661 3509

41958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길 77
www.bongsanart.org
트위터 @bongsanart **페이스북** bongsanart